업 무 자 료
행정법규 2001-3-64

제225회 국정감사
의원 예상질의 답변자료

2001. 9

한 국 국 제 협 력 단
행 정 법 규 팀

목 차

Ⅰ. 예상질의 답변자료

1. 인력사업

1. 연수사업팀
2. 전문인력팀
3. 봉사사업팀

2. 개발조사 1부

1. 개발조사팀
2. 물자공여팀
3. 조달팀

3. 개발조사 2부

1. 프로젝트팀
2. 민간협력팀

4. 총 무

1. 인사교육팀
2. 회계서무팀
3. 정보지원팀

5. 기획총괄

1. 기획조정팀
2. 행정법규팀
3. 사업평가팀
4. 협력정책팀
5. IT협력팀

6. 홍 보

7. 신청사 건립

Ⅱ. 주요 예상질의 답변자료

1. 인력사업

1. 연수사업팀
2. 전문인력팀
3. 봉사사업팀

2. 개발조사 1부

1. 개발조사팀
2. 물자공여팀
3. 조달팀

3. 개발조사 2부

1. 프로젝트팀
2. 민간협력팀

4. 총　　무

1. 인사교육팀
2. 회계서무팀
3. 정보지원팀

5. 기획총괄

1. 기획조정팀
2. 행정법규팀
3. 사업평가팀
4. 협력정책팀
5. IT협력팀

6. 홍　　보

7. 신청사 건립

Ⅲ. 의원별 예상질의 답변

Ⅳ. 제225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

Ⅰ. 예상질의 답변자료

연수생 초청

(연 수) 1. 연수생초청사업의 연혁 및 실적 1
(연 수) 2. 연수생초청사업의 의의와 중요성 3
(연 수) 3. 연수생초청사업 장기발전 청사진 4
(연 수) 4. 산업 연수생과의 차이 6
(연 수) 5. 2001년도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 7
(연 수) 6. 연수생초청사업의 유형 8
(연 수) 7. 2002년도 연수생초청사업 수요조사 현황 9
(연 수) 8. 연수과정의 개설 10
(연 수) 9. 협력대상국 및 국가별 연수배정..... 11
(연 수) 10. 연수대상 및 연수생 선발 12

(연 수) 11. 연수실시방법 및 실시기관 13
(연 수) 12. 장기연수과정 실시배경 및 현황 14
(연 수) 13. 자체 연수과정 실시배경 및 현황 15
(연 수) 14. 국제기구, 제 3국 공동연수 실시배경 및 현황 16
(연 수) 15. 연수생 경비지급 기준 18
(연 수) 16. 고위인사 참여 현황 19
(연 수) 17. 연수생 중도귀국 현황 20
(연 수) 18. 환경, 여성 등 범지구적 이슈 지원 현황 21
(연 수) 19. 한국어분야 지원 현황 22
(연 수) 20. 오리엔테이션 및 산업시찰 현황 23

(연 수) 21. 한국의 문화와 사회를 이해시키기 위한 방안 24
(연 수) 22. 연수생 입국안내 및 안전대책 25
(연 수) 23. 연수생 불법체류 현황 및 대책 26
(연 수) 24. 타지키스탄 연수생 사망사고 처리내용..... 27
(연 수) 25. 연수사업 사후관리 현황 및 강화방안 29
(연 수) 26. 사후관리 연수과정 실시 현황 31
(연 수) 27. 연수사업 모니터링, 평가 및 활용 32
(연 수) 28. 연수사업 효과사례 33

(연 수) 29. 연수센터 건립 및 운영 현황 35
(연 수) 30. 연수센터 설립. 운영에 따른 효과 37
(연 수) 31. 연수센터 운영 용역업체 현황과 시설관리 38
(연 수) 32 연수센터 객실이용 현황 및 외부임대 현황 40
(연 수) 33. 연수센터 대외개방 현황 41
(연 수) 34. 인천공항내 KOICA 부스 설치사유 및 경위 42
(연 수) 35. 인천공항내 KOICA 부스, 사무실 임차계약 내용 44

연수 1. 연수생초청사업의 연혁 및 실적

ㅇ '63년 미국국제개발청(USAID)의 자금을 받아 대 개도국 기술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연수생초청사업을 시작함.

ㅇ '70년대 이후 외교부, 노동부, 과기부 등 관계부처별로 각각 연수생 초청사업을 실시하여 옴.

ㅇ '91. 4월, 한국국제협력단이 설립되어 연수생초청사업을 포함한 무상기술 협력사업을 전담하여 수행하게 됨.

ㅇ '99. 3월, 국제협력연수센터를 개원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연수를 실시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함.

ㅇ '01년에는 2000년도에 시작된 ASEAN 특별연수사업을 정규사업화 함으로써 연수사업실시 규모를 대폭 확대함.
('00년 106개과정 1,926명→'01년 121개과정 2,300명)

<참고> 연수생초청사업실적

1. 연수생초청실적('63~'00년)

ㅇ 협력단 설립이전 ('63~'90년) : 7,883명
ㅇ 협력단 설립 이후 ('91~'00년) : 9,784명
- 초청 국가수 : 154개국
- 개설 과정수 : 549개과정
ㅇ '63~'00년간 초청인원 : 17,667명

2. 연수생초청 추이('91~'00)

가. 연도별 추이

구분	총계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국가수	154	90	92	79	100	92	95	102	111	112	112
과정수	549	36	35	28	39	44	55	61	71	74	106
인원(명)	9,784	362	461	459	716	870	1,029	1,210	1,350	1,401	1,926

나. 분야별 현황

구분	총계	사회하부구조 및 서비스	경제하부구조 및 서비스	생산부문	다부문	비배분
과정수	549	265	55	166	40	23
인원(명)	9,784	4,922	902	2,852	683	425
비율(%)	100.0	50.3	9.2	29.1	7.0	4.4

※ OECD 개발위원회의 분류기준(DAC/CRS)

- ㅇ 사회하부구조 및 서비스 : 교육, 보건, 식수공급, 공공행정 등
- ㅇ 경제하부구조 및 서비스 : 운송, 통신, 에너지, 금융.재정 등
- ㅇ 생산부문 : 농림수산, 광공업 및 건설, 무역 및 관광
- ㅇ 다부문 : 환경, 여성개발 등
- ㅇ 비배분 : 개발인식증진 등

연수 2. 연수생초청사업의 의의와 중요성

1. 연수생초청사업의 의의

ㅇ 개발도상국의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견인력을 초청하여 우리의 개발경험과 전문기술 및 지식을 전수하는 협력사업임.

ㅇ 연수생초청사업은 개도국이 경제사회발전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인적자원개발(HRD)을 지원하고 제도를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국제개발협력의 가장 핵심적인 수단임.

ㅇ 최근 급속한 정보화 추세 속에서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에 따라 연수생초청사업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
-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정보 및 지식격차가 빈곤격차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바, 개도국의 정보화 및 지식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연수생초청사업을 통한 인적자원개발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음.

2. 연수생초청사업의 중요성

ㅇ 연수과정에 참가한 연수생은 해당분야의 기술과 지식의 전수를 통해 자국의 경제사회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크게 확충함은 물론 우리와의 경제교류증진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귀국 연수생들은 한국의 개발경험과 기술을 본국에 전파하고 이식하는 전도사의 역할을 담당
- 이들은 각자가 종사하는 분야에서 한국을 모델로 한 제도를 구축하고 한국의 기술을 도입함.
- 특히, 해당분야의 고위직 연수생이 참여할 경우 연수를 통해 습득한 기술과 경험을 활용하여 정책.제도개선 등을 통해 경제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

ㅇ 또한, 연수생초청사업은 친한인사의 저변확대 및 외교관계 증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연수생초청사업을 통한 개도국 주요인사들과의 다양한 인적교류는 한국의 발전상과 한국의 문화를 널리 알리는데 기여하고 있음.
- 특히, 파트너쉽과정 연수는 개도국의 고위인사가 참여함으로써 일반 협력관계는 물론 외교관계 증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

연수 3. 연수생초청사업 장기발전 청사진

1. 핵심적인 국제협력사업으로 발전

○ 연수생초청사업은 우리의 개발경험 전수를 통해 인적자원개발과 지식기반의 확충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개발협력 수단이라 할 수 있음.

○ 다양한 인적접촉과 교류를 통한 동반협력관계(Partnership)를 강화하고 개도국내 영향력 있는 행정관료, 기술인력 등을 대상으로 친한인맥을 구축하여 친한인사의 저변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도 연수생초청사업은 그 의미가 매우 큼.

○ 따라서, 장기적으로 연수생초청사업을 무상기술협력사업중의 가장 핵심적인 협력사업의 하나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임.

- '01년도 협력사업 예산중 연수생초청사업비 17.8% 점유 (50,546백만원중 8,977백만원)

2. 연수생초청사업 발전 방향

○ 현재 연간 2,300명 수준의 연수생초청 규모를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임.

- '95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사회개발정상회담에서 2010년까지 30,000명의 연수생을 초청하겠다는 대외약속사업의 성실 수행

- '01년 2,300명 규모를 '02년 2,400명, '03년 2,500명 등 매년 전년대비 100명씩 확대, '10년까지 총 35,000여명 초청예정

- 우리와의 협력증진 가능성이 높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아주 및 오세아니아 지역과의 협력 강화

<연도별 초청규모(안)>

구분	95-'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인원(명)	7,786	2,300	2,400	2,500	2,600	2,700	2,800	2,900	3,000	3,100	3,200
누계(명)	7,786	10,086	12,486	14,986	17,586	20,286	23,086	25,986	28,986	32,086	35,586

○ 우리의 경제개발 경험, 가족계획 등 비교우위의 연수과정을 적극 개발하는 한편 국제협력 경험이 다양한 적정 연수기관을 발굴하여 연수사업 효과를 거양함.
- 파트너쉽과정 등 특별연수과정의 경우 자체연수 방식으로 추진

○ 연수사업의 효율화 및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연수과정 담당자(Program Officer)의 분야별 배정, 연수과정 전문가 제도 확대 및 모니터링 및 평가기능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함.

○ 연수생초청 규모의 점진적인 확대 대비 및 연수생 체류기간중 더욱 쾌적한 연수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협력연수센터의 제반 시설을 더욱 개선. 확충함.
- 성남 국제교류단지내 연수생 숙박 및 봉사단 국내훈련을 위한 220실 규모의 연수센터 건립 계획

○ 연수사업의 파급효과를 제고하고 연수참가 연수생과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기 수립한 사후관리 종합방안에 따른 연수생 사후관리를 강화함.

연수 4. 산업 연수생과의 차이

1. 개념

○ 산업연수생은 국내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목적으로 국내의 산업 현장에서 연수와 취업 목적을 겸한 외국연수생을 말하며, 이는 법무부 훈령에 따라 중소기업조합 중앙회에서 관장하고 있음.

○ 협력단의 연수생초청사업은 개발도상국 정부 공무원 등을 초청하여 우리정부 비용으로 우리의 경제개발 경험 전수를 목적으로 원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협력사업임.

2. 협력단 초청연수생과 산업연수생의 차이 비교

내역	초 청 연 수 생	산 업 연 수 생
주관 부처	외 교 부	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
실시 기관	한국국제협력단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관련 법규	한국국제협력단법 (법률4,313호)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사증 발급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법무부 훈령 제255호)
목적	협력단의 국제협력사업계획에 따라 전문지식을 습득·연구 또는 시찰을 위해 방한	국내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 완화와 외국인의 불법적인 국내취업에 따른 문제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외국인 연수제도 도입
대상	개도국의 공무원, 기술자, 연구원 및 정책 결정자 등 개도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	국외 중소제조업분야중 인력부족이 심화된 분야의 기능공등 취업근로자 - 계약 : 2년간 - 연령 : 25-45세 - 항공료 본인부담

연수 5. 2001년도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

1. 사업계획

ㅇ 연수사업을 통한 개도국 인적자원개발지원의 강화 등 연수생을 핵심적인 협력사업수단으로 적극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2001년도 연수사업규모를 대폭 확대함.
- '00년 106개과정 1,926명 → '01년 121과정 2,300명

2. 중점 추진방향

ㅇ 우리나라가 비교우위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우리의 거시경제개발전략 및 부문별 개발정책경험을 전수하고 일반기술 및 직능교육훈련을 강화함.

ㅇ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협력증가 가능성이 크고 전통적으로 우호 협력관계가 깊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를 중점 지원함.

ㅇ 특히, 지식정보화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정보지식 격차(Knowledge Gap) 최소화를 위한 연수과정 중점 개설

3. 사업추진 현황(7.31 기준)

ㅇ 총 76개과정 1,297명 초청(계획 121개 과정 2,300명 대비 각각 62.8%, 56.4% 실시)

연수 6. 연수생 초청사업의 유형

ㅇ 연수사업은 참여국가 및 실시방식에 따라 정규연수, 국별.지역별 연수, 공동연수 등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음.

(1) 정규연수

ㅇ 여러 개도국에서 공통적으로 수요가 많은 분야를 대상으로 매년 정규적으로 개설되는 과정으로 1개 과정에 여러 국가의 연수생이 참여
- 미곡생산기술, 자본시장육성, 수출진흥전략 등

(2) 국별 · 지역연수

ㅇ 특정국 또는 특정지역의 수요에 의해 개설되는 과정으로서 1개 과정에 해당국가 또는 특정지역의 다수 국가가 참여
- 러시아 산업구조조정, 베트남 새마을운동 등
- 아세안 파트너쉽, CIS 경제개발정책 등

(3) 공동연수

ㅇ 국제기구 공동연수 및 제3국 공동연수로 구분
- 국제기구 공동연수 :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개설 · 운영
  . 해양환경보전(APEC), TV 다큐멘터리제작(UNESCO) 등
- 제3국 공동연수 : 제3국과의 협정에 의거 공동으로 개설 · 운영
  . 한 · 싱 수처리시설관리 (한 · 싱가폴 제3국 공동연수)
  . 한 · 일 경제개발과 시장경제 (한 · 일 제3국 공동연수) 등

연수 7. 2002년도 연수생초청사업 수요조사 현황

1. 수요조사 실시방법

ㅇ 수원국 실정에 부합하고 협력효과가 뛰어난 우량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시 기본근거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일정기간 동안 해당국을 상대로 수요조사를 실시함.

- 수요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시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2002년도 수요조사는 2001년도 1/4분기에 종료함.

ㅇ 재외공관은 개설가능한 연수과정을 바탕으로 주재국 정부와 협의하여 현지실정에 부합하는 연수과정, 인원을 판단하여 그 결과를 협력단에 통보함.

ㅇ 매년 실시하는 정기 수요조사 외에 주재국 주요인사 면담, 공관 및 해외사무소의 건의, 관련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수시 수요를 파악하여 총괄수요에 반영하는 한편 우량사업을 발굴하고 있음.

2. 2002년 수요조사 결과(7.31 기준)

ㅇ 113개국 및 11개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총 6,493명 요청 접수

- 금년도 계획인원 (2,300명)의 2.8배 규모
  - · 공관 수요조사 : 112개국 1기구 5,329명
  - · 중앙행정기관 수요조사 : 11개기관 1,164명

연수 8. 연수과정의 개설

ㅇ 2001년의 경우 121개 연수과정을 개설하여 실시중에 있음.
- 2001.7.31 현재 76개과정을 완료 또는 진행중(진도율 62.8%)

ㅇ 매년 연단위로 수립되는 연수사업계획상의 각 연수과정은 기본적으로 수원국의 연수희망 수요와 우리측의 연수실시 능력 및 비교우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설하고 있음.

ㅇ 개도국이 요청하는 연수실시 희망분야는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한 바, 2001년도의 경우에는 우리의 능력과 비교우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어 각 과정을 개설하였음.
- 국가발전전략, 경제사회개발등 정책수립 능력배양 및 개발
- 농림수산, 공업, 무역 및 투자, 중소기업, 과학기술, 교통통신, 주택, 지역 및 도시개발 등 산업진흥 및 국토개발
- 행정제도, 관세 및 조세제도, 국가표준 및 지적재산권제도, 인구, 보건의료 등 공공행정 및 사회서비스 확충
- 정보통신, 전력 및 전기, 기계, 자동차, 산업디자인, 미곡생산 등 산업기술 및 직업훈련
- 외교, 통상, 교육, 문화 등 개발협력 파트너쉽 구축

연수 9. 협력대상국 및 국가별 연수배정

1. 협력대상국 선정

○ 2001년도 연수생초청 대상국은 168개국의 개발도상국가 및 공적 자금지원대상 국가중 협력관계가 극히 미미하거나, 정정의 불안 등으로 사업시행이 곤란한 나라를 제외한 110개 국가임.

○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우리의 경제개발 경험공유, 해당분야의 기술 습득, 다양한 인적교류 및 우리와의 우호협력관계 구축 등을 위해 연수생초청사업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음.

○ 따라서, 그 지원의 혜택이 중소규모 국가를 포함하는 많은 국가에 폭넓게 돌아갈 수 있도록 협력대상국을 선정하고 있음.

2. 국가별 연수배정

○ 각각의 협력대상 국가에 대한 연수과정 및 초청인원의 배정은 수원국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사업수요와 해당국가와의 교류협력 관계, 향후의 협력증진 가능성, 양국간의 각종 협의채널을 통하여 약속 또는 합의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수 참여과정 및 참가인원을 배정하게 됨.

- 특히, 국가별 연수참여과정 및 인원 배정검토에 있어서는 재외공관을 통한 수원국 정부의 수요조사 제출내용과 공관의 의견 등을 가급적 충분히 감안하고 있음.

- 매년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요요청은 많으나 예산사정 등 제반 여건상 실제 인원배정은 적은 편임('01년 수요요청은 3,409명이나 사업계획은 2,300명으로 수요 대비 67.5%만 배정됨).

○ 각국별로 매년 연수에 참여하는 인원은 50여개 과정에 100명이 넘게 참가하는 국가로부터 1-2개 과정에 2-3명이 참여하는 국가까지 매우 다양함.

< 2001년도 연수생초청사업 수원 상위 10개국 >

* 인도네시아(190명), 베트남(155명), 필리핀(135명), 태국(81명), 캄보디아(77명), 중국(74명), 미얀마(62명), 우즈벡(60명), 러시아(53명), 라오스(50명)

연수 10. 연수대상 및 연수생 선발

1. 연수대상

○ 각 과정에 참가하는 연수생은 대부분 개도국의 공공부문에서 관련분야 정책입안이나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교육, 훈련, 연구개발 등을 담당하는 전문기술인력임.

○ 수원국 정부가 추천하는 학계, 기업체, 언론계 등 소수의 민간부문 인사도 연수초청 대상이 됨.

2. 연수생 선발

○ 연수신청은 수원국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의 재외공관을 통해 주재국 정부의 공식추천에 의해 이루어지게 됨.

○ 추천된 연수생의 적격 및 초청여부 심사는 주재국정부의 공식추천을 전제로
- 연수생이 해당분야에 근무하면서 관련되는 분야의 전문성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지의 여부,
-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언어(영어)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 지의 여부와
- 중장기 연수생의 경우 건강상 이상이 없는 지의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고 있음.

연수 11. 연수실시방법 및 실시기관

1. 연수기관 선정방법

ㅇ 협력단은 연수기본계획 수립, 연수과정 확정 등 연수실시에 대한 기본 Frame을 형성함.

ㅇ 익년도 사업 수요조사, 유관기관의 요청 등을 고려하여 개설예정 연수과정을 설정한 후 위탁연수 또는 자체연수 여부를 결정하고 위탁연수의 경우 적정 실시기관을 물색함.

ㅇ 특정 연수과정에 대하여 연수실시기관의 제안서를 제출받아 연수사업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 연수실시기관을 선정함.

ㅇ 특정 연수과정을 실시할 수 있는 연수기관이 다수일 경우는
- 당해 분야에 있어서의 국제협력 경험축적 정도와
- 관련 강사의 확보, 교육시설의 구비, 연수실시 능력 등을 검토하여 결정

2. 연수실시기관

ㅇ 2001년도 연수사업 계획 기준으로 연수실시기관은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 62개 기관임.
- 정부부처 : 관세청, 기상청 등 15개 기관
- 정부투자. 출연기관 :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31개 기관
- 교육기관 : 경희대, 한국외국어대 등 9개 대학
- 민간단체 :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 7개

연수 12. 장기연수과정 실시배경 및 현황

1. 실시배경

○ 개도국의 경제정책수립 등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유능한 인재를 장기간 초청하여 경제개발정책 및 국제관계 분야에서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구비토록 교육시킴으로써
- 참가국의 국가발전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지원하고
- 양국간 경제.외교적 협력관계를 강화하며
- 다양한 인적교류를 통해 친한인사의 저변을 확대하고 있음.

2. 실시현황

○ '97년 연구과정 형식으로 시작된 장기연수는 '98년부터 1년기간의 학위과정의 형태로 실시되고 있음.
- 연수분야 : 개발경제학, 경제정책학, 국제경영학, 국제정치경제학
- 연수방식 : 1년 3학기제의 대학원교육 방식으로 소정과정 이수후 논문작성 제출 및 학위수여
- 실시실적 ('97-'00년) : 13개국 44명
- '01년 계획 : 30명 (아세안 20, 일반 10)

연수 13. 자체 연수과정 실시 배경 및 현황

1. 실시배경

ㅇ 외부 전문기관에의 위탁이 어려운 과정 및 특별과정에 대해서는 특정분야에 대한 개도국의 다양한 수요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고 연수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협력단 자체적으로 운용 필요성 증대
- 파트너쉽과정과 같은 특수과정의 경우에는 협력단이 직접 실시하는 경우 사업실시효과를 더욱 제고시킬 수 있으며, 협력단이 직접 실시하는 연수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일반적으로 여타 연수사업에 비해 높음.

ㅇ 다년간의 연수사업을 통해 축적한 연수실시 경험과 기법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연수생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국제협력연수센터의 교육시설 및 숙박시설의 적의 활용을 통해 예산절감을 도모할 필요성 증대

2. 자체 연수과정 실시현황

ㅇ 국별, 지역별과정을 중심으로 '97년부터 '00년까지 29개과정에 552명을 초청함.

ㅇ '01년도에는 동구.CIS 파트너쉽과정 등 19개과정에 344명을 초청할 계획임.

3. 향후 추진계획

ㅇ 파트너쉽과정 등 일부 특수한 목적 또는 국별 연수 등의 형태로 실시되는 자체연수사업은 실시 결과 그 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향후 과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체연수과정의 실시를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연수 14. 국제기구, 제3국 공동연수 실시배경 및 현황

1. 실시배경

○ 국제기구와 선진원조기관의 연수사업 경험과 노하우 공유를 통한 우리나라 연수생초청사업 효과를 극대화함.

○ 국제기구와 선진원조기관과의 우호협력관계 증진하고 공동연수를 통해 경비절감을 도모함.

○ 양국(양기관)의 경제사회발전 경험을 개도국에 전수하여 지식기반 사회로의 이행을 지원함.

○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제협력기관으로서 KOICA의 이미지를 개선하는데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2. 추진현황

○ 국제기구와의 공동연수는 '91년부터 APEC, UNDP, UNESCO 등 17개 기구와 실시하고 있으며, '91~'00년까지 총 78개과정에 1,427명을 초청함.

○ 제3국과의 공동연수는 싱가폴('95), 이스라엘('97),일본('00)과 각각 실시하고 있으며, '95~'00년까지 24개과정에 472명을 초청함.

○ 2001년도에는 APEC 등 8개과정의 국제기구 공동연수 사업과 한.싱, 한.이, 한.일 등 제3국 공동연수사업으로 7개과정 130명의 연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음.

○ 현재 제3국 공동연수 확대의 일환으로 한.칠레 공동연수 추진을 위한 약정체결을 추진중임.

<참고> 국제기구 및 제3국 공동연수 현황

1. 국제기구 공동연수

○ 대상기구 : APEC, UNDP, UNESCO 등 17개 국제기구

○ 실적('91~'00년)

구분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계
기구수	4	7	4	6	7	7	7	8	7	8	17
과정수	5	9	4	9	10	8	8	8	8	9	78
인원(명)	58	144	71	146	184	140	175	172	163	174	1,427

○ '01년 계획 : 8개과정 158명

2. 제3국 공동연수

○ 대상국가(근거)

- 싱가폴('93.11 MOU 체결, '95년부터 연수실시)
- 이스라엘('95.8 협력프로그램체결, '97년부터 연수실시)
- 일본('00.1 KOICA-JICA 약정체결, '00년부터 연수실시)

○ 실적('95-'00년/( )는 과정수)

구 분	'95	'96	'97	'98	'99	'00	계
한.싱	36(2)	36(2)	36(2)	76(4)	70(4)	75(4)	329(18)
한.이			32(1)	32(1)	44(2)		108(4)
한.일						35(2)	35(2)
계	36(2)	36(2)	68(3)	108(5)	114(6)	110(6)	472(24)

○ '01년 계획 : 7개과정 130명

3. 공동연수의 경비부담

○ 싱가폴, 이스라엘 등 제3국 공동연수는 각각50%씩 분담

○ 세계은행, ILO등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국제기구공동연수는 해당 국제기구와 협의된 조건에 따라 상이

- ILO는 항공료만 분담
- World Bank는 항공료와 교육경비의 일부를 분담

연수 15. 연수생 경비지급기준

1. 협력단 지급경비의 종류 및 지급기준

가. 초청경비

ㅇ 항공료, 생활비(일비 · 식비 · 준비금), 보험료 등 연수생 초청에 소요되는 경비임.

- 항공료 : 순로에 의한 실비
- 생활비 : 일비- 1일 20,000원, 식비- 1일 20,000원
  ※ 고위직이 참여하는 일부 특수과정의 경우 일비 상향지급 : 국장급 : 30,000원, 차관급 : 40,000원, 장관급 : 50,000원
- 준비금 : 1회 60,000원
  ※ 입국 교통비(리무진버스 승차권) 지원

나. 연수경비

ㅇ 강사료, 원고료, 교재비, 산업시찰경비, 위탁수수료 등 연수생 교육 및 강의에 소요되는 경비임.

- Program Consultant 활용비, 강사료, 원고료 :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
- 위탁수수료 : 교육경비의 8%(최저단위 700,000원)

2. 타국과의 연수생과 지급경비 비교

ㅇ 각국의 연수생 경비지급기준 및 연수생 처우가 상이한 관계로 단순 비교는 어려우나 일비는 일본, 싱가폴 등과 비슷한 수준임.

- 한국의 경우 식사와 숙소를 별도 제공하고 일비로 1일 20,000원을 지급
- 일본의 경우 식비를 포함 1일 4,935엔을 지급
- 싱가폴은 숙박비, 식비, 일비 일체를 포함 1일 미$ 161을 지급

연수 16. 고위인사 참여 현황

1. 연수생중 고위인사내역

○ '98-'00년까지 차관급 이상의 고위급 인사 참가자는 총 15명이며, '01년도에는 7월말 현재 18명의 고위급 인사가 참가함.
- '01년도 스리랑카 경제개발정책과정(15명)에는 건설부, 어업부 등 관련부처의 차관, 차관보가 각 5명씩 참여함

○ 동 고위급 인사중 '98년에 몽골 경제정책관리과정에 참가한 울란바토르 시장은 수상을 역임한 바 있음.

<참고> 고위급 인사 참여현황

○ '98년도 : 3명(울란바트로 시장 외 2명)

○ '99년도 : 6명
- 한국의 경제개발과 교육정책과정 : 모리타니아 대통령 수석비서관(장관), 모리타니아 교육부장관, 세네갈 교육부장관, 라오스 교육부장관, 기니 초등 교육부차관, 대외협력부차관

○ '00년도 : 6명
- 서남 아시아 파트너쉽과정 : 부탄 재정부장관, 보건.교육부장관
- 아프리카 파트너쉽과정 : 나이지리아 연방수도청차관,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차관급)
- 베트남 특별연수단 : 공산당 대외관계위원회 부위원장(장관급)
- 스리랑카 사무르디운동 : 사무르디부 장관

○ '01년도 : 18명
- 동구.CIS 파트너쉽과정 : 벨라루스 외교부 차관
- 인적자원개발과정 : 타지키스탄 노동부 차관
- 중남미 파트너쉽과정 : 도미니카(공) 국가개혁위원회 사무총장(장관급), 에쿠아돌 외교부국제협력원장(차관급)
- 방글라데시 경제개발정책과정 : 시설부 차관(Joint Secretary)
- 지방행정과정 : 몽골 수상실 제 2차관(지방행정담당)
- 관개개발 및 농업용수관리 : 방글라데시 수자원부 차관
- 한의학교육과정 : 스리랑카 전통의학부 차관
- 스리랑카 경제개발정책과정 : 건설부, 어업부 등 차관 5명, 차관보 5명

연수 17. 연수생 중도귀국 현황

ㅇ 최근 2년('99~'00)간 중도귀국한 연수생은 총5명으로 동기간 전체 초청인원 4,181명의 0.12%에 해당함.
- 2001년도에도 7월말 현재 4명이 중도귀국함.

ㅇ 이들 연수생들의 중도귀국 사유는 주로 교육중 본인 발병 및 직계가족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에 기인한 것임.

ㅇ 중도귀국은 이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외교적 통로를 통해 공식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참고> 연도별 중도귀국 현황 및 사유

ㅇ 1999년도 : 1명
- 캄보디아 : 한국경제장기(부인위독)

ㅇ 2000년도 : 4명
- 벨라루스 : 한국어(모친위독)
- 태 국 : 축산, 연수교육중 발병(만성맹장염)
- 튀니지 : 산림관리, 연수교육중 발병(요로결석)
- 파나마 : 행정발전계획(수원국 정부사정)

ㅇ 2001년도 : 4명
- 요 르 단 : 컴퓨터 응용기술, 연수교육중 발병(류마티스 관절염)
- 카자흐스탄 : 예산제도 및 재정운용(가족문제)
- 콜롬비아 : 컴퓨터 응용기술, 연수교육중 발병(요관결속 및 신장이상)
- 필리핀 : 농업금융 및 농업협동조합(소속기관 내부사정)

연수 18. 환경, 여성 등 범지구적 이슈 지원현황

ㅇ 세계 각국간의 상호 의존성이 심화됨에 따라 세계적인 공동과제의 해결에 적극 동참하고자 '92년부터 환경, 여성, 인구등 범지구적 과제에 대한 연수과정을 개설. 운용하고 있음.

- 환경분야('94-'00년) : 24개과정 423명 초청
- 여성, 인구 및 가족계획분야('92-'00년) : 15개과정 268명
- 국제범죄 예방('98-'00년) : 3개과정 52명

ㅇ 2001년의 경우 환경, 여성, 국제범죄 등의 분야에 9개과정 156명의 사업을 추진중임.

<참고> 주요 범지구적과제분야 연수현황

ㅇ 환경분야
- 환경시설관리(환경관리공단), 환경보호기술(KIST 환경연구센터), 해양오염방제(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일수환경개선(국립환경연구원) 등
- '94-'00년간 총 24개과정 423명 실시
- '01년 환경보호기술 등 7개과정 118명 계획

ㅇ 여성, 인구 및 가족계획관련 연수현황
- 여성지도자 가족계획(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가족계획과 생식보건(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여성 소규모 창업(한국여성개발원)등
- '92-'00년간 총 15개과정 268명 실시
- '01년 가족계획과 생식보건 1개과정 19명 계획

ㅇ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연수현황
- '98-'00년간 3개과정 52명 실시
- '01년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1개과정 19명 계획

연수 19. 한국어분야 지원 현황

1. 지원 필요성

- ㅇ 투자, 무역, 관광 등 각 산업분야에서 요청되고 있는 개도국의 한국어교육 수요에 적극 부응함.
- ㅇ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한국학 연구에 대한 기반을 제공하고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통한 우리나라와 참가국간의 문화교류 협력관계 증진에 이바지 함.
- ㅇ 다양한 인적교류 및 접촉을 통해 다방면에서의 동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친한인사 인맥을 구축함.

2. 연수개요

- ㅇ 통상 3-4개월의 연수일정으로 경희대학교(국제교육원)에서 연수를 실시함.
- ㅇ 교육효과 제고를 위하여 '97년 하반기부터 전원 민박을 실시하는 한편 '01년부터는 사전선발시험을 실시하여 우수 연수생이 참가하는 기반을 구축함.

3. 실 적

- ㅇ '92-'99년까지 총 13회에 걸쳐 270명을 초청함.
- ㅇ '01년에는 2회에 걸쳐 39명을 초청할 계획임.

4. 기대효과

- ㅇ 대부분 한국관련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연수생들의 위치를 고려할 때 귀국후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함.
- ㅇ 동포밀집지역 거주 한국인에 대한 모국어 교육기회 제공을 통해 한국문화 보급을 확대함.
- ㅇ 연수생 참가국 내에서의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제고함.

연수 20. 오리엔테이션 및 산업시찰 현황

1. 오리엔테이션 현황

ㅇ 해당과정 연수생에 대해 한국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협력단의 대개도국 협력사업을 소개하기 위하여 입국직후 2일간에 걸쳐 오리엔테이션과 시내관광을 실시함.

- 한국의 역사, 사회 및 문화 강의
- 한국소개 비디오 상영
- KOICA 사업 소개 비디오 상영
- 한국 생활상식 안내
- 기초 한국어 강의
- 시내관광(경복궁, 통일전망대, 남대문시장 등)
- 전통문화공연 관람(정동극장 등)
- 한국전통문화 프로그램 직접 참여 등

2. 산업시찰 현황

ㅇ 해당 연수과정과 관련된 기관방문, 우리나라의 역동적인 산업체 방문 등을 통한 연수효과 제고를 위해 통상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산업시찰을 실시하고 있음.

- 포항제철, 광양제철, 현대자동차(전주, 아산), 현대중공업 등 기업체 방문
- 연수과정 관련 유관기관, 관련 사업현장 등 방문

ㅇ 또한,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주요 역사·문화 유적지 방문도 병행

- 문화 유적지 방문 (경주. 부여 박물관, 송광사 등)
- 한국의 농촌마을 방문(경주 양동마을, 낙안 읍성마을 등)

연수 21. 한국의 문화와 사회를 이해시키기 위한 방안

ㅇ 연수생들에게 한국의 문화·역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일간 실시하는 오리엔테이션과 시내관광 등을 통해
- 한국의 역사, 사회 및 문화 강의
- 한국소개 비디오 상영
- 한국 생활상식 안내
- 기초 한국어 강의
- 경복궁, 인사동, 통일 전망대 등 관광명소 견학
- 전통공연 관람, 문화체험 탐방 등을 실시함.

ㅇ 한국사회의 역동성 및 경제 발전상의 체감과 우리사회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산업시찰 또는 주말프로그램을 통해
- 도시체험과정 참여(남대문 시장, 동대문시장 등)
- 기업체 탐방(포항·광양제철, 현대자동차, 고려인삼창 등)
- 문화 유적지 답사(경주, 부여, 공주 등)
- 한국의 전통가옥 방문 (경주양동마을, 낙안읍성마을 등) 등을 실시하고 있음.

ㅇ 상기 오리엔테이션과 산업시찰 등을 통해 연수생들에게 한국의 이미지 제고, 한국어 교육, 친한인사의 저변확대 등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도모시키고 있음.

연수 22. 연수생 입국안내 및 안전대책

1. 입국 안내

ㅇ 재외공관 또는 협력단 해외사무소를 통해 연수생 출발 전 입국 요령 등을 안내하고 있음.

ㅇ 전담직원 및 안내 도우미를 인천국제공항 및 도심공항터미널에 배치하여 연수생들의 입국안내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 인천국제공항 안내 카운터와 사무실 운용 및 전담직원과 안내 도우미를 통한 각종 편의제공, 도심공항터미널 도착 안내
- 삼성동 도심공항터미널 안내 카운터 운용 및 안내 도우미를 통한 연수센터 도착 안내

2. 국내체류 중 안전대책

ㅇ 생활안전교육 실시

- 입국직후에 실시하는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현지생활의 유의사항, 신변안전 등을 세부적으로 교육시킴.

ㅇ 해외여행보험 가입

- 국내 체류기간 중 불의의 사고 및 질병 등에 대비하기 위해 연수생 전원을 협력단 부담으로 해외여행보험(보험금 1억원)에 가입시키고 있음.

ㅇ 의료서비스 지원

- 연수생에게 정기적으로 의료전문인력으로부터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 건강이상 발생시에는 연수센터 인근의 삼성의료원에서 치료 및 조치를 받도록 하고 있음(삼성의료원과 의료지원협정을 체결함)

연수 23. 연수생 불법체류 현황 및 대책

1. 현 황

○ 협력단 초청 연수생 모두는 수혜국 정부의 공식추천에 의하여 연수과정에 참여하는 엄선된 인사들이어서 연수기간중 연수 지역을 이탈하거나 불법체류하는 사례는 거의 없음.

○ 한편, 연수에 참가한 인사들이 출국시까지 안전하게 체류하도록 안내함으로써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탈사태에 대비하고 있음.

○ 다만, '97년도에 한국어과정에 참여한 중국 연수생 1명 및 자동차 정비과정에 참여한 수단 연수생 1명 등 2건에 걸쳐 2명이 연수기관을 이탈, 소재지를 파악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확인 결과 '98년도에 2명 모두 출국

<참고> 불법체류 연수생 현황

해당국	성명	생년월일	입국일자	과정명	출국여부
중국	Ms. Zheng Ren Shun	1967.3.9	'97.1.8	- 한국어과정 ('97.1.8-6.11)	출국 -'98.5.12
수단	Mr. Mohamed El Hasan Adlan Muweary	1963.1.1	'97.4.5	- 자동차정비과정 ('97.4.7-5.3)/	출국 -'98.3.2

2. 향후 대책

○ 연수생 자격심사를 면밀히 실시하여 불법체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함.
- 가급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신분의 연수생 우선
- 현지공관을 통해 불법체류에 대한 사전안내교육 강화

○ 연수생 입국후 실시하는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불법체류에 대한 위법성을 주지시켜서 불법이탈 또는 체류의 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임.

○ 연수실시기관에 대해서도 연수생 지도관리와 출국안내 등 연수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함.

연수 24. 타지키스탄 연수생 사망사고 처리내용

1. 사고내용

ㅇ 인적자원개발 연수과정 종료후 김포공항 Boarding Lounge에서 항공기 탑승 대기 중이던 타지키스탄 연수생(Mr. Khasan Khudoyarov)이 2001.3.21 심장마비로 사망함.

<참고> 연수생 인적사항

ㅇ 국 적: 타지키스탄
ㅇ 성 명: Khasan Khudoyarov/ Mr.
ㅇ 직 책: 노동부 차관
ㅇ 생년월일: 1949. 8. 5 (당53세)
ㅇ 참가과정: 인적자원개발과정
(2001.3.8~3.20간 중앙공무원교육원 실시)

2. 조치내용

ㅇ 2001. 3. 21(수) 김포공항 9번 Gate 앞 Boarding Lounge에서 타쉬켄트행 아시아나항공 579편 탑승대기중 중 신체 이상 발생, 김포공항 국립의료원 의사 및 간호사에 의해 응급조치 실시,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인근 종합병원(이대 목동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

ㅇ 2001. 3. 21(수) 우즈벡 해외사무소 긴급 연락조치 및 전문 통보

ㅇ 2001. 3. 22(목) 불의의 사망사고에 대한 조의 표명 및 빈소마련
- 현지 겸임국 공관(주우즈벡대사관)을 통해 유가족 및 타지키스탄 정부측에 조의표명(전문 및 총재명의의 조문 발송)

ㅇ 2001. 3. 23(금) 타지키스탄 정부의 유해 희망 송환 경로 접수

ㅇ 2001. 3. 24(토) 유가족 대표 방한
ㅇ 2001. 3. 25(일) 유해 송환
ㅇ 2001. 3. 26(월) 유해 러시아 경유 타지키스탄 도착
ㅇ 2001. 3. 27(화) 사망 연수생 장례식, 협력단 우즈벡 사무소장 참석

3. 보상내역

ㅇ 관계규정에 입각하여 가입한 해외여행자보험약관(LG보험)에 의해 질병사망 보험금 2천만원을 유가족에게 지급(5.17)
- 타지키스탄 유가족 통장구좌로 송금

연수 25. 연수사업 사후관리 현황 및 강화방안

ㅇ 연수사업 실시후 지속적인 관계유지를 통해 사업효과를 제고하고 연수생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후관리가 매우 긴요함.

ㅇ 사후관리의 실시는 연수 주관기관인 협력단은 물론 연수실시기관, 현지공관 등 3위일체가 되어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있음.

- 협력단 : 연수생 사후관리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
  . 연수생관리 D/B 프로그램(Smart 2000)개발, 인적사항 입력
  . 행정발전계획 등 사후관리 Workshop과정 개설
  . 협력단 홈페이지에 연수생 의견 수렴을 위한 연수생 전용 게시판 "Forum for Participants" 개설 운용
  . Alumni Directory 제작, 배포('63-'97)
  . Global Village, 연수생회지(Newsletter) 송부
  . E-Mail 또는 서신을 통한 연수생 문의사항 회신 등

- 연수실시기관 : 연수실시 전문기관으로써 정보 및 자료 제공을 통한 사후관리 실시
  . 해당분야의 최신, 신규 정보 및 자료제공
  . 지역별, 국별 소규모 모임 주선 및 지원
  . E-Mail을 통한 연수생과의 서신연락

- 해외공관 : 연수생 사후관리 업무를 현지에서 실질적으로 수행
  . 국경일, 유대증진 행사 등 각종행사에 초청
  . 동창회 결성 및 현지모임 개최 지원
  . 현지진출 아국기업과 연계 및 협조 요청
  . 공관 명의의 연하장 발송
  . 봉사단 등 현지 파견인력 활동 연계 협조

ㅇ 현재의 사후관리 기본체계를 바탕으로 생명력 있고 지속성 있는 사후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 연수생 각종 자료의 전산화, 연수 사후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사후관리 주체간의 협조채널구축 등 사후관리 환경을 조성하고
- 기 실시한 연수과정에 대한 재교육을 위한 사후관리 연수과정을 확대 실시하는 한편
- 국별 특성에 맞는 연수생 동창회 결성 또는 연수생 간담회, 연수실시기관별 소모임 유도, 귀국 연수생과 현지 교민과의 연계방안 강구 등 연수생 각종 모임을 활성화시켜 나갈 예정임.

<참고> 연수생 사후관리 현황

ㅇ 귀국 연수생 동창회 결성. 운영 : 9개국
- 인도네시아('94), 네팔('97), 스리랑카('99), 폴란드('00), 이디오피아('01), 이집트('01), 태국('01), 파라과이('01), 필리핀('01)

ㅇ 공관주최 유대증진행사 실시
-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이디오피아, 중국, 파라과이, 파키스탄, 페루 등

ㅇ 연수생 인적사항 관리
- 연수생관리 D/B 프로그램 개발(smart 2000)

ㅇ 동창회지 및 홍보지 정기송부
- Alumni Directory 제작, 배포('63-'97)
- Global Village, 연수생회지(ICTC Newsletter)

ㅇ 사후관리 웍샵과정 개설
- 행정발전과정 사후관리 웍샵('99년)
- 잠업기술사후관리, 어로기술사후관리('00년)
- 광물자원탐사 및 개발 사후관리, 작물생산기술 사후관리('01년)

ㅇ 연수생 대표 초청 워크샵 실시
- 연수생 동창회 결성 8개국 등 연수생 대표 초청 워크샵 실시 ('01년)

ㅇ Newsletter 3호 제작 및 배포
- '91년 이후 모든 연수생에게 송부('01.6)

연수 26. 사후관리 연수과정 실시 현황

ㅇ 협력단 설립이후 여러차례 반복해서 실시해 온 연수과정에 대해서는
- 귀국 연수생들에게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재교육하는 한편
- 사후관리 차원에서 귀국 연수생중 관련분야에서 계속 활동중인 연수생들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워크샵과정을 개설하고 있음.

ㅇ 지난 '91-'95년간 실시된 연수과정중 연수생의 수요가 높은 과정을 중심으로 매년 1-2개의 과정을 개설, 운용중이며
- '93년 미곡생산 사후관리 웍샵에 9명을 초청, 사후관리과정을 개설한 이래 '00년까지 총 75명을 초청함.
- '01년도에도 광물자원탐사 및 개발 사후관리, 작물생산 사후관리 등 2개과정에 33명을 초청함.

<사후관리 연수 현황>

연도	'93	'94	'95	' 96	'97	'98	'99	'00	'01
과정	미곡생산	국가표준 제도	-	가족계획	-	-	행정발전 계획	잠업기술 (14) 어로기술 (8)	광물자원 (17) 작물생산 (16)
인원	9	14	-	18	-	-	12	22	33

연수 27. 연수사업 모니터링, 평가 및 활용

1. 연수사업 모니터링

ㅇ **연수과정 전문가(Program Consultant) 제도 도입 운용**

- 연수사업의 질적수준제고 및 프로그램의 순환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연수과정 기획, 실시 및 평가단계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하는 전문가제도를 도입. 운용하고 있음.
- 연수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사항은 추후의 연수과정심의 등에 feedback하여 활용되고 있음.

ㅇ **연수과정 담당자(Program Officer)에 의한 모니터링**

- 위탁연수의 경우, 실시과정중 중요부분에 참여하여 연수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수시로 제기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함.

2. 연수과정 평가

ㅇ **연수생 설문조사**

- 과정종료에 즈음하여 연수생들을 대상으로 연수과정 실시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혜자의 직접적인 평가를 받음.
- 설문조사결과는 추후 과정계획실시 등에 반영함.

ㅇ **연수과정 결과보고서 작성 및 평가실시**

- 해당과정 종료후 연수 담당자는 연수실시기관의 연수결과보고서, 연수생 설문조사 결과서 등을 종합한 연수실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며, 여기에서 제시된 개선점 등을 추후 연수실시에 반영하고 있음.

ㅇ **사업평가팀 평가**

- 협력단은 협력사업 추진의 효율성 및 효과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사업평가팀을 통해 정기적으로 사업별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수생초청사업은 중간평가(장기과정), 종료평가 및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음.

연수 28. 연수사업 효과사례

ㅇ 연수생초청사업은 연수과정에 참여한 인사의 개인적인 정책수립 능력 및 기술능력의 향상을 통해 개도국 공공부문의 인적자원 개발에 크게 기여한다는 직접적 효과 이외에도
- 한국인의 불굴의 개발노력과 근로정신을 본받아 자국의 국가 발전에 대한 영감을 불어넣고 강력한 개발 동기를 부여하는 한편,
- 한국을 개발모델로 한 국가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우리나라의 개발성과를 국제적으로 드높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음.
- 또한, 우리나라에서의 체류기간 동안에 구축한 문화적, 인적 이해기반을 토대로 친한적인 성향을 견지하면서 우리와의 우호협력관계 증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등 계량화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도 매우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연수사업 효과사례

(1) 한국의 개발경험 체계적인 전수, 자국의 정책개발에 적극 활용

ㅇ '98년 방한한 바 있는 이디오피아의 멜레스(Meles) 수상은 수상실의 중견 직원을 한국경제장기정책과정에 연수시킨 후 자국의 경제개발전략 및 정책수립에 적극 활용하고 있음.

ㅇ '98년 몽골의 경제관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경제정책과정에 참가후 귀국하자마자 울란바토르 시장에서 총리에 임명된 **나란차츠랄트(NARANTSATSRALT)**는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을 몽골의 경제발전 정책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수차례 언급함.

(2) 현지진출 우리기업 활동 지원

ㅇ 2000. 6월 국가표준제도과정에 참가한 스리랑카 Mr. Fernando는 우리기업인 "신광랑카(전기용품 제조업체)"가 대미 수출에 필요한 품질 및 안전인증제(UL마크)를 획득하는데 도움을 주어 대미 수출선 확보에 기여함.

(3) 새마을과정 연수확대 요청

ㅇ '99년 새마을연수특별과정 연수에 참여한 베트남 공산당 경제 상임위원장은 한국의 새마을운동 경험을 매우 높이 평가, 베트남 정부 주요인사를 대상으로 한 국별연수 실시 요청

ㅇ 2000년 11월 베트남 새마을운동 국별연수 실시

(4) 연수참가자, 한국의 개발모델을 자국에 적극 활용할 것을 주창

ㅇ 2000.3. 서남아시아 파트너쉽과정에 참가한 Mr. Munirul Huq, 각종 언론지에의 기고 활용을 통해 한국을 방글라데시의 개발 모델를 삼을 것을 주장

- The New Nation 및 Economic Times지에 "Korea can be a Model for Bangladesh" 기사 기고
- 2000.3. 서남아시아 파트너쉽 과정에 참가한 Mr. Pandyal 등 네팔 연수생 3명은 영자지 기고를 통해 한국의 개발경험을 적극 활용할 것을 주장
- The Rising Nepal지에 "Great Potential Nepal-ROK Ties" 등 기고

(5) 연수참가를 통한 친한인사의 저변확대

ㅇ 시에라리온 피랍어선 선원 석방에 도움 (99.3)

- '99년 시에라리온 당국에 불법어로 혐의로 체포된 우리 선원 21명의 석방은 국산기자재공여, 연수생초청 등 협력사업 지원을 통한 우호적 분위기 조성에 기인된 것으로 평가됨.
  (주 나이지리아 대사관 보고)

연수 29. 연수센터 건립 및 운영 현황

1. 건립배경 및 기능

○ 국제협력사업의 중추적 사업인 연수생 초청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연수센터를 건립함.
- 1999년 1월 30일 준공 및 1999년 3월 10일 개원

○ 국제협력연수센터는 국제협력단이 초청하는 개발도상국 연수생의 숙박 및 연수생 오리엔테이션, 협력단 자체교육과정의 연수, 연수사업을 담당하는 연수사업부(연수기획팀, 연수사업1,2팀, 연수센터관리팀)의 사무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대강당 및 강의실 등 부대시설은 국제협력사업 세미나, 임직원 교육장소로 활용중임.

○ 또한, 시설의 활용율 제고를 위해 국제협력 관련 기관에서 센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시설 및 규모

○ 국제협력연수센터는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4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대지면적 4,288평방미터(㎡/1,297평)에 건축면적 7,431평방미터(㎡/2,248평)인 지하1층, 지상 8층으로 건축함.

○ 시설현황으로는 객실 90실과(VIP2실, Suite6실, 일반77실, 한실1실, 예비4실) 9개의 강의실(오리엔테이션실2, 분임토의실2, 강의실4), 연수사업부가 사무실 3실을 사용하고 있으며,

○ 부대시설로는 식당(96석), 대강당(208명수용), 비즈니스센터, 자료실 휴게실, 헬스실, 양호실, 간이주방 등이 있음.

3. 시공현황

ㅇ 국제협력연수센터는 1998년12월5일 착공하여 1999년1월30일 준공(14개월)하고 동년 3월10일 개원함.

ㅇ 시공업체는 주식회사 일신이 건축공사를, 하나종합건축사 사무소에서는 공사감리를 담당함

ㅇ 국제협력연수센터 건축에 소요된 금액은 15,612백만원으로 토지대 7,133백만원, 건축비 8,479백만원(전기공사, 설계감리비, 부대설비 포함)이 소요됨.

4. 연수센터 운영현황

ㅇ 국제협력연수센터는 인력사업이사 산하의 연수사업부에서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연수사업부는 부장, 연수기획팀, 연수사업1팀, 2팀, 연수센터관리팀 등 총 4개팀으로 직원수는 24명임.

ㅇ 국제협력연수센터는 전기·기계시설관리, 객실청소·경비용역관리로 구분하여 외주용역업체를 통해 관리중에 있음.

ㅇ 본부와 연수센터간에는 LAN망을 구축, 전자메일 및 전자결재 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를 처리중에 있으며, 매일 1회 문서통신 등을 위한 차량운행이 운행중임.

연수 30. 연수센터 설립.운영에 따른 효과

1. 연수센터 설립 이점

ㅇ 연수생 숙박비 절감도모
ㅇ 연수생 숙.식 불편사항 해소 및 커뮤니케이션 원활
ㅇ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자체연수 실시 가능
ㅇ 국제협력기관으로서의 이미지와 면모 제고

2. 기대효과

□ 경제적 효과

ㅇ 연수센터 설립전 호텔 투숙 연수생의 숙박비로 1인당 80천원/1일 지불하였으나 연수센터 개원으로 숙박비 지출소요가 감소(평균 30천원 소요) 됨에 따라 1인당 약 50천원 이상 절감 가능

ㅇ 매년 연수센터 투숙인원을 1,200명(1인당 평균 투숙기간 20일)으로 산정할 경우 연간 1,200백만원 절감 가능하며, 총 공사비 8,500 백만원은 향후 7년 이내에 투자비 회수 가능

□ 경제외적 효과

ㅇ 전 과정의 위탁 연수방식을 탈피하여 경제협력, 국별협력과정을 중심으로 협력단이 자체적으로 연수과정을 개발, 운영할 수 있게 됨으로써 협력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2001년도 자체과정 19개)

ㅇ 연수시설과 장비, 숙박시설 등 종합 연수시설 보유로 연수생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KOICA의 이미지 제고

ㅇ 연수생과 과정 담당자간 수시 접촉을 통해 애로사항, 문제사항에 대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함으로써 연수생들에게 신뢰감 제고

연수 31. 연수센터운영 용역업체 현황과 시설관리

1. 용역 관리업체 현황

○ 연수센터의 운영관리는 Out-Sourcing에 의한 외부위탁관리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기·기계 시설관리, 객실정비·청소·경비, 식당위탁운영관리로 나누어 관리 중임.

○ 전기·기계시설관리는 주식회사 대교산업이 객실정비·청소·경비는 주식회사 록산개발, 식당위탁운영은 주식회사 한화국토개발에서 운영관리하고 있음.

○ 이외에도 연수센터 운영에 필요한 관리업무를 Out-Sourcing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음.

<참고> 용역업체현황

업 체 명	계약기간	계약분야
(주)록산개발	2001.02.01~2002.01.31	연수센터운영
(주)대교산업	2001.01.01~2001.12.31	기계실 운영
(주)LG-OTIS	2001.05.11~2002.05.10	승강기유지보수
(주)엘지기공	2000.07.01~2001.06.30	전화설비보수
늘꽃사랑	2001.03.01~2002.02.28	관상용화분관리

2. 시설관리 현황

○ 전기.기계시설관리

- 국제협력연수센터의 전기·기계시설은 연수센터와 같은 구역내에 위치해 있는 학술진흥재단측과 공동 관리하여 비용절감을 도모하고 있음.

- 전기·기계시설은 학술진흥재단과 공동 관리함에 따라 재단측이 계약하고 있는 용역업체인 (주)대교산업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토록하고 있음.

ㅇ 숙소·청소·경비 용역관리

- 호텔객실 운영의 경험이 충분히 축적되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된 (주)록산개발을 통해 객실정비 등 운영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ㅇ 식당위탁운영 관리

- 외식산업부문에 충분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주)한화국토개발과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운영중임.

연수 32. 연수센터 객실이용 현황 및 외부임대 현황

1. 객실이용 현황

○ '01년도 연수센터 객실 이용은 외부임대를 포함하여 7월말 현재 10,602실(71.2%)이며, 총 숙박인원은 14,896명임.
- 초청연수생 : 9,495실(63.7%)
- 프로젝트 연수생 등 협력단 사업 : 466실(3.1%)
- 기타 외부기관 임대 : 641실(4.3%)

○ '00년도 객실 이용율은 '99년도의 66% 보다 3.7% 증가된 69.7%이며, 총 숙박인원도 연 21,172명으로 전년도 16,333명에 비해 약 30% 증가됨.

2. 외부임대 수입현황

○ '01년도 연수센터 외부임대 수입금은 객실임대 및 시설임대를 포함, 7.31 현재 37백만원임.
- 외교통상부(재외공관장회의), 국무조정실(정부업무평가연찬회) 등 정부기관에서 주로 임대하고 있음.

○ '00년도 임대수입금은 외교통상부, 결핵연구원 등 23개기관을 대상으로 57건에 35백만원, 1999년도는 16개기관을 대상으로 객실 1,256실을 포함한 38건에 41백만원임.

<참고> 연도별 임대현황

구 분	임대건수	임대내역	임대수익	이용기관
계	123건	객실 2,933실	112,070천원	
'99년	38건	객실 1,256실	40,621천원	외교통상부, 한국교육개발원 등 16개기관
'00년	57건	객실 1,036실	35,399천원	외교통상부, 결핵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23개기관
'01.7.31	28건	객실 641실	37,050천원	외교통상부(재외공관장회의) 국무조정실(정부업무평가연찬회) 등 10개기관

연수 33. 연수센터 대외개방

1. 대외개방 원칙

○ 연수센터는 연수생사업을 위한 전문시설로써 대외개방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음.

○ '99. 5월부터 국제협력관련 사업실시 등에 개방중으로
-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국제협력 관련회의, 세미나 실시 등을 목적으로 한 경우 필수적인 수준의 사용료를 징구하면서 임대를 실시하고 있음.

2. 대외임대시 시설 사용료 내역 및 전망

○ 시설사용료(1일 기준)는,
- 객실(1인 1실 기준) : 34,000원 ~ 40,400원
- 국제회의용 대강당 : 382,500원
- 회의실, 분임토의실, 강의실(12평~28평): 51,000원 ~142,800원

○ '99년도 시설물 임대수익금은 40,621천원이며, 2000년 35,399천원, 2001년 현재 37,050천원 등 총 113,070천원의 수익이 발생함.

○ 2001년에는 연수생의 증가로 객실 외부 임대는 제한적이나, 2001년도 재외공관장회의 등의 개최로 임대수익금은 전년에 비해 상향될 것으로 전망됨.

3. 향후계획

○ 연수센터 시설은 협력단의 연수생초청사업 및 협력단의 여타 사업을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되며, 시설의 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외부에 개방하여 수익사업은 무리가 없는 범위내에서 추진함.

○ 외부임대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은 연수센터의 시설개선 등에 활용하는 방안 강구 예정임.

연수 34. 인천공항내 KOICA 부스 설치이유 및 경위

1. 설치 필요성

○ 연수생초청사업은 우리나라의 경제개발경험을 가장 효율적으로 전수하는 사업으로 매년 연수생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연수생에 대한 공항 입·출국안내 및 연수센터로의 인솔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었음.

○ 이에 따라, 연수생들이 입국시부터 언어소통의 어려움 및 지리적인 정보부족으로 인해 당면할 수 있는 제반 어려움을 해소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입·출국 및 KOICA 안내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KOICA안내 부스를 인천국제공항에 설치함.

<참고> 연도별 연수생초청 증가추이

연도	'98	'99	2000	2001(계획)
초청인원	1,350명	1,401명	1,926명	2,300명
증가율(%)	-	3.8% 증	37.5%	19.4%

○ 이러한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의 효과는 연수생초청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한다는 측면과 아울러, 연수생 입국시부터 체계적인 안내를 통해 KOICA 및 우리나라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고양할 수 있는 등의 다방면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2001년도 현재 KOICA 부스이용예상 연수생 규모는 연간46백명 (입국 2,300명, 출국 2,300명)수준임.

<기본적인 제공 서비스>

① 연수생 입국 확인 및 도심공항터미널(KCAT) 도착 안내

② 연수생 출국 지원

③ 각종 애로사항의 현장 해결

2. 설치경위

ㅇ 2000.08.03 2001년 3월 인천 신공항 개항을 계기로 국제협력인력 입출국지원을 위한 KOICA 시설 확보 필요성 논의

ㅇ 2000.08.10 인천공항공사측에 시설임차 관련자료 협조 요청

ㅇ 2000.10.26 인천공항공사측에 시설임차 공식 요청

ㅇ 2001.02.08 인천공항공사측으로부터 안내카운터 배정통보 접수

ㅇ 2001.03.29 인천공항 여객터미널에 KOICA 안내카운터 개소 운영

<KOICA 안내 카운터 현황>

ㅇ 위 치 : 여객터미널 1층(도착층) 63번

ㅇ 면 적 : 17.00㎡(전용면적 13.22㎡+ 공용면적 3.78㎡)

ㅇ 부스운영 : 계약직 직원 1명 상근 및 안내 도우미 활용

※ 인천공항 교통센터 지하 1층에 별도 사무실 확보 운영중.

연수 35. 인천공항내 KOICA 부스, 사무실 임차계약 내용

1. 기 능

가. 사무실

□ 정부 초청 인사 및 국제협력인력의 입출국 지원
- 초청 VIP 공항대기 공간 활용
- 일반 연수생의 출국전 본국연락등 통신 서비스 제공
- 통신, 정보검색, 공항이용 정보 및 국제협력자료 등 제공

□ 협력단 공항 근무인력(자원봉사 안내도우미) 업무공간

나. KOICA 부스 (안내 카운터)

□ 연수생, 봉사단 등 국제협력인력의 입·출국 안내 및 지원
- 원활한 입국, 특히 입국심사 지연 사례에 대처
- 입국 확인 및 교통이용 안내 등
- 시내 교통정보 등 각종 서비스 제공
- 출국안내 및 편의 제공 등

※ 연간 국제협력인력 입·출국 예상인원 5,000명

2. 임차계약 현황

가. 사무실

□ 위치 : 교통센터 지하 1층
□ 면적 : 84.03㎡(25.4평)
ㅇ 전용면적 : 50.61㎡(15.3평), 공유면적 : 33.42㎡(10.1평)
□ 계약기간 : 2001. 3. 29 ~ 2002. 3. 28(1년)
□ 임 대 료 : 22,091,480원(부가가치세 포함)

나. 안내카운터

□ 위치 : 여객터미널 1층(도착층) 63번
□ 면적 : 17.00㎡(5.1평)
ㅇ 전용면적 : 13.22㎡(3.9평), 공유면적 : 3.78㎡(1.1평)
□ 계약기간 : 2001. 3. 29 ~ 2002. 3. 28(1년)
□ 임 대 료 : 10,378,500원(부가가치세 포함)

봉 사 사 업

Ⅰ. 일반봉사단원

(봉 사) 1. 해외봉사단 사업개요 1
(봉 사) 2. 2001년도 해외봉사단 파견계획 3
(봉 사) 3. 해외봉사단 파견실적 현황(설립이후 현재까지) 5
(봉 사) 4. 해외봉사단원 현 활동인원 현황 10
(봉 사) 5. 해외봉사단원의 한국어분야 파견현황 12
(봉 사) 6. 교민 밀집지역의 봉사단파견 현황 15
(봉 사) 7. 해외봉사단 선발현황 및 선발 기준.절차 17
(봉 사) 8. 일반봉사단원과 국제협력요원과의 차이점 20
(봉 사) 9. 해외봉사단 교육훈련 내용 21
(봉 사) 10. 봉사단 활동지원 내역과 지원확대 필요성 22
(봉 사) 11. 해외봉사단원 주요 활동사례 24
(봉 사) 12. 봉사단원의 안전사고 발생 현황 26
(봉 사) 13. 봉사단원의 중도 귀국자 현황과 원인 28
(봉 사) 14. 해외봉사단원 계약기간 연장 현황 30
(봉 사) 15. 귀국 봉사단원지원 및 「나섬회」 현황 31
(봉 사) 16. 최근 해외봉사단원 귀국후 취업현황 32
(봉 사) 17. 임기만료 봉사단원 현지진출 현황 34
(봉 사) 18. 해외봉사단 파견사업의 평가방법 및 결과 35
(봉 사) 19. 귀국 봉사단원 지역전문가로 활용방안 37
(봉 사) 20. 해외봉사단 파견사업 발전방안 39

Ⅱ. 국제협력요원

(봉 사) 21. 국제협력요원 파견실적 41
(봉 사) 22. 국제협력요원 파견분야의 전공자 현황 43
(봉 사) 23. 국제협력요원 공정 선발 46
(봉 사) 24. 국제협력요원 보호자 직업현황 49
(봉 사) 25. 국제협력요원 중도 소환 사례 51
(봉 사) 26. 국제협력요원 파견 성과 52
(봉 사) 27. 국제협력요원 운영상 문제점의 해결 노력 57
(봉 사) 28. 국제협력요원제도 폐지와 부활 58
(봉 사) 29. 병역법 개정이후 국제협력봉사요원의 운영계획 59

Ⅲ. 기타 봉사단 관련업무

(봉 사) 30. 봉사단 행정원 파견 현황 61

붙임 1. 해외봉사단 파견사업 개요

1. 사업 의의

○ 해외봉사단사업은 희생과 봉사에 뜻이 있는 우리나라 각 분야 인력 들이 "나눔과 섬김"의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지구촌 이웃과 더불어 함께 일하게 함으로써 "함께 잘사는 인류사회"를 만드는데 실천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부여하는데 의의가 있음.

○ 또한, 해외봉사단원들이 현지 경험을 통해 배운 현지 언어와 문화를 바탕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춘 개도국 지역 전문가로 성장하여 세계화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의 개도국 진출 확대 등에 기여함.

2. 사업 연혁

○ 이 사업은 1989.4월에 정부가 한국청년해외봉사단 창설계획을 발표하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를 집행기구로 지정함으로써 시작되었음

○ 1990. 9월 제1기 봉사단원 44명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4개국에 처음 파견하였으며,

○ 1991. 4월1일 한국국제협력단이 설립되면서 사업이 이관되어 체계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음.

○ 1995년에는 병역을 대신하여 해외봉사활동을 하게 하는 국제협력요원 제도가 도입되어 동년 3월에 국제협력봉사요원과 국제협력의사가 14개국에 28명이 최초 파견하게됨.

○ 2001. 6월에는 제12기 해외봉사단원 82명을 12개국에 파견, 협력단 설립이후 2001년 6월말까지 32개국에 총1,003명을 파견하였고 7월

말 현재 24개국에서 250명이 활동 중에 있음.

3. 봉사단원의 구분

○ 해외봉사단원은 일반봉사단원, 국제협력봉사요원, 국제협력의사로 구분되어 있음.

- 일반봉사단원은 20세 이상 61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남자는 병역을 필해야 함.

- 국제협력봉사요원은 해외봉사활동을 통해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현역병 또는 보충역처분을 받은 병역대상자 중에서 선발하여 일반단원과 동일하게 활동하도록 함.

- 국제협력의사는 전문의 자격을 소지한 의사를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통해 병역의무를 대신하도록 하는 것임.

봉사 2. 2001년도 해외봉사단 파견계획

1. 사업추진 기본방향

○ 파견인원 확대에 따른 기존 년1회 선발 및 파견을 년2회로 조정하여 운영

○ 상대국의 필요와 아국과의 상호관계, 현지 단원관리인력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국별 파견규모 및 분야 결정
- 인력자원개발(HRD) 및 정보격차(Digital Divide) 해소 관련분야
  . 정보기술(IT)분야 파견 확대
- 개도국 주민 복지향상 분야

○ 현지활동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

2. 파견인원

○ 2001년도에는 전년 대비 파견인원은 42.8%, 사업예산은 24.5%가 증가되어 1년에 2회에 걸쳐 단원을 선발, 상·하반기로 나누어 2차에 걸친 봉사단원 파견

○ 파견인원은 총 24개국 180명으로 일반봉사단원은 24국 130명, 국제협력봉사요원은 10국 40명, 국제협력의사는 7국 10명임.
- 상반기(6월 기파견) : 92명(일반단원 82명, 협력의사 10명)
- 하반기(11월) : 88명(일반단원 48명, 국제협력봉사요원 40명)

구 분		2000실적(a)		2001계획(b)		증가율(%)	
		파견규모	예 산	파견규모	예 산	인원	예산
계		22국 126명	5,885	24국 180명	7,328	42.8	24.5
일반봉사단원		21국 84명	4,014	24국 130명	5,407	54.7	34.7
국제협력요원	봉사요원	11국 34명	1,871	10국 40명	1,921	19.0	2.6
	협력의사	7국 8명		7국 10명			

*지역별 : 아주지역(12국108명), 미주지역(3국 21명), 구주.CIS지역(3국20명), 중동지역(2국 13명), 아프리카지역(3국 16명), 오세아니아지역(1국2명)

*분야별 : 기술.직업훈련분야 65명, 교육.문화분야 53명, 농업.수산분야 31명,

간호.보건분야 31명

<봉사 2-1. 2001년도 해외봉사단 국별 파견계획>

(단위:명)

구 분	계	봉사단원	협력요원	협력의사
계	**180**	**130**	**40**	**10**
아주지역	108	76	25	7
1.네 팔	9	8		1
2.라오스	7	1	6	
3.몽 골	11	8		3
4.미얀마	8	2		6
5.방글라데시	9	5	2	2
6.베트남	13	12		1
7.스리랑카	10	3	7	
8.인도네시아	13	13		
9.중 국	7	7		
10.태 국	8	8	8	
11.파키스탄	5	5		
12.필리핀	8	4	4	
미주지역	21	17	2	2
13.과테말라	6	3	2	1
14.파라과이	5	5		
15.페 루	10	9		1
구주.C.I.S지역	20	17	2	1
16.우즈벡	8	8		
17.우크라이나	4	2	2	
18.카자흐스탄	8	7		1
중 동지역	13	6	7	
19.모로코	5	2	3	
20.이집트	8	4	4	
아프리카지역	16	12	4	
21.이디오피아	9	5	4	
22.카메룬	2	2		
23.탄자니아	5	5		
오세아니아지역	2	2		
24.휘지	2	2		

봉사 3. 해외봉사단 파견실적 현황

1. 파견실적 및 현 활동인원(2001. 7월)

ㅇ 해외봉사단원은 협력단이 설립된 '91년에 7개국 37명이 파견된 이래, 2001년 상반기에는 12개국 82명이 파견되어 2001년 7월말 현재 총 32개국에 연 인원 1,003명(남 555명/55%, 여 448명/45%)이 파견되었음.

ㅇ 현재는 24개국에서 250명(남 133명/53%, 여 117명/47%)이 활동중이며 일반단원165명, 국제협력봉사요원62명, 국제협력의사 23명임.

2. 지역별 파견실적

ㅇ 지금까지 파견된 봉사단원을 지역별로 보면,
- 아주지역 651명(65%), 미주지역 81명(8%), 구주·CIS지역 116명(11%), 중동지역 22명(2%)아프리카지역 56명(6%),오세아니아지역 77명(8%)이며,

ㅇ 상위파견 5개국은
- 인도네시아(97명), 태국(92명), 베트남(76명), 스리랑카(67명), 네팔(66명)임

3. 분야별 파견실적

가. 파견분야별 누계

ㅇ 파견자를 분야별로 보면
- 교육문화부문 419명(42%), 공업기술부문 277명(28%), 간호.보건부문 172명(17%), 농림수산부문 135명(13%)이며, 총 46개분야임

나. 현재 활동분야

ㅇ 현재 활동중인 봉사단원은 33개분야 250명으로,

ㅇ 주요 상위 활동분야는 한국어(74명), 컴퓨터(38명), 간호(25명), 의사(23명), 태권도(11명), 원예(11명), 유아교육(7명) 등임.

<봉사 3-1. 해외봉사단 파견실적 현황>

1. 파견, 귀국, 현 활동인원

(단위:명, 7월말 현재)

구 분	파 견			귀 국			현 활동 인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1,003	555	448	753	422	331	250	133	117
봉사단원	760	312	448	595	264	331	165	48	117
협력요원	190	190		128	128		62	62	
협력의사	53	53		30	30		23	23	

※남,여구분 : 총 파견 1,003명(남555명/55%, 여448명/45%)
현 활동 250명(남133명/53%, 여117명/47%)

2. 분야별 파견누계

구 분	합계	교육문화	공업기술	간호보건	농림수산
분야수	46	18	12	7	9
인 원	1,003	419	277	172	135
(%)	(100)	(42)	(28)	(17)	(13)

3. 연도별 파견현황

구 분		계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7
파견	국가	32	7	8	9	11	17	26	27	17	21	22	13
	신규파견국		네팔 스리랑카 인니 필리핀 태국 훠지 PNG	몽골	방글라	베트남 중국	우즈벡 이디오 카자흐 탄자니아 파라과이 콰테말라	가 나 도미니카 루마니아 볼리비아 세네갈 우간다 튀니지 페 루 케냐 카메룬		마얀마 이집트 파 키 스 탄	우크라 이나	라오스	
	계	**1,003**	**37**	**52**	**51**	**59**	**106**	**131**	**138**	**108**	**103**	**126**	**92**
	(단원)	760	37	52	51	59	78	93	90	64	70	84	82
	(요원)	190					20	30	39	39	28	34	
	(의사)	53					8	8	9	5	5	8	10
현활동	**계**	**250**									**40**	**118**	**92**
	(단원)	165									7	76	82
	(요원)	62									28	34	
	(의사)	23									5	8	10

4. 국별 파견실적

(단위:명)

파견국		합계	봉사단원											국제협력봉사요원						국제협력의사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95	96	97	98	99	00	95	96	97	98	99	00	01
계	국 가	32	7	8	9	11	15	22	20	17	21	21	12	5	6	8	9	11	11	8	6	8	5	5	7	6
	인 원	1,003	37	52	51	59	78	93	90	64	70	84	82	20	30	39	39	28	34	8	8	9	5	5	8	10
아주지역		651	27	39	43	52	48	45	43	38	42	47	51	20	24	33	31	19	22	4	3	4	2	4	3	7
1.네팔		66	5	4	7	7	3	5	5	7	5	7	7	4	6	5	5	4	4	1		1		1		1
2.라오스		3										3														
3.몽골		59		7	4	4	4				3	3	6		5	3	5	2	2	1	1	2	1	1	2	3
4.미얀마		8								6	2															
5.방글라데시		61			6	4	6	10	6	7	6	7								1	2	1	1	1	1	2
6.베트남		76				4	8	5	5	4	6	6	10	4	6	4	4	3	5							
7.스리랑카		67	7	5	7	6	5	6	6	2	3	4					6	4	3	2	1					
8.인도네시아		97	5	6	6	7	6	5	7	3	8	5	11	4	6	5	5	4	4							
9.중국		52				9	7	1	4	1	1	2	6	4	4	4	5	3	1							
10.태국		92	7	9	8	7	6	9	6	2	4	4	7	4	3	6	4	2	4							
11.파키스탄		13								5	4		4													
12.필리핀		57	3	8	5	4	3	4	4	1	2	4		4		5	4	2	4							
미주지역		81					3	14	12	9	7	9	15	0	0	0	0	2	3	1	1	1	1	1	1	1
13.과테말라		1																		1						
14.도미니카		9						5	3													1				
15.볼리비아		3						3																		
16.파라과이		36					3	3	6	5	3	6	5					2	3							
17.페루		32						3	3	4	4	3	10								1		1	1	1	1
구주CIS지역		116					15	13	11	3	10	14	14		6	6	8	5	5				2		2	2
18.루마니아		8						1	2		2	3														
19.우즈벡		57					10	9	9	1	3	7	8				4	2	2				1		1	
20.우크라이		2									2															
21.카자흐		49					5	3		2	3	4	6		6	6	4	3	3				1		1	2
중동		22						2	2	4	5	9														
22.이집트		14								4	3	7														
23.튀니지		8						2	2		2	2														
아프리카		56					3	12	12	3	4	3	2	0	0	0	0	2	4	3	4	3	0		1	
24.가나		2																			2					
25.세네갈		8						5	3																	
26.우간다		1																			1					
27.이디오피		24					3	4	4	3	2	1						2	4						1	
28.카메룬		13						2	3		2	2	2							1		1				
29.케냐		5						1	2											1		1				
30.탄자니아		3																		1	1	1				
오세아니아		77	10	13	8	7	9	7	10	7	2	2										1			1	
31.휘지		49	5	7	4	6	5	4	7	7	2	2														
32.P.N.G		28	5	6	4	1	4	3	3													1			1	

5. 분야별 파견실적

구 분		계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총 계		1,003	37	52	51	59	106	131	138	108	103	126	92
교육문화분야	1) 한국어	270	3	5	3	9	33	43	52	26	30	33	33
	2) 태권도	30				2	2		7	8	3	6	2
	3) 배구	1	1										
	4) 축구	1	1										
	5) 체육교육	25	2	1	2	1	2	9	1	2	1	4	
	6) 유아교육	21	1	1	3	1		2		4	2	4	3
	7) 음악교육	1			1								
	8) 탁구코치	1									1		
	9) 과학교육	2											2
	10) 지역개발	38		3	4	3	8	13	3				4
	11) 여성복지	2								1	1		
	12) 인구복지	3	2								1		
	13) 특수교육	2								1	1		
	14) 환경	3				1							2
	15) 전통무용	1								1			
	16) 시장개척	2				1				1			
	17) 시청각	2		1							1		
	18) 기타	12	3	6	2	3							
	소 계	419	13	17	15	21	45	67	63	44	41	47	46
공업기술분야	19) 컴퓨터	160	6	6	5	7	16	28	25	18	18	18	13
	20) 전기	12			1	1	1		3	4		1	1
	21) 전자	14		2		1	4		1	3	1	2	
	22) 기계	7					1		2		2	2	
	23) 토목	11		2	1	1		1	1	4	1		
	24) 봉제	26	1		3	1	3	5	4	4	3	2	
	25) 자동차	26		1		3	1	2	5	4	1	6	3
	26) 농기계	8			1	1	1			1	2	2	
	27) 목공예	3				2			1				
	28) 요업	2	1	1									
	29) 미용	4	2		1	1							
	30) 기타	4		1		1	2						
	소 계	277	10	13	12	19	29	36	42	38	28	33	17
농림수산분야	31) 축산	36	2	3	3	2	4	4	5	5	6	2	
	32) 원예	26	1	4	1	2	1		5	4		3	5
	33) 잠업	4		1	1	1							1
	34) 병충예방	1	1										
	35) 작물재배	41	4	3	3	3	8	1	4	2	5	4	4
	36) 식품가공	9	1	2	2	1				1	2		
	37) 농경제	5	1	1	2	1							
	38) 수산양식	6				1	3		1			1	
	39) 기타	7			3	1						2	1
	소 계	135	10	14	15	12	16	5	15	12	13	12	11
간호보건분야	40) 간호	95	3	4	4	6	8	15	8	7	13	20	7
	41) 물리치료	6		1	1					1	1	1	1
	42) 임상병리	6				1					1	4	
	43) 수질검사	3		1						1	1		
	44) 공중보건	4	1		2							1	
	45) 영양사	5		2	2				1				
	46) 의사	53					8	8	9	5	5	8	10
	소 계	172	4	8	9	7	6	23	18	14	21	34	18

봉사 4. 해외봉사단원 현 활동인원 현황

1. 현 활동인원

ㅇ 7월말 현재 해외봉사단원은 아주, 미주, 아프리카 등 24개국에서 250명(남자 133명/53%, 여자 117명/47%)이 활동하고 있으며,

- 동 활동단원 250명중 국외근무 종료자인 국제협력봉사요원 23명은 3개월간 공익근무요원으로 국내 근무 후, 11월중 복무만료 예정임

2. 형태별 현 활동인원

ㅇ 일반봉사단원은 22개국에서 165명(여자단원 117명)이 활동중이고,
ㅇ 국제협력봉사요원은 11개국에 62명이 활동중이며,
ㅇ 국제협력의사는 9개국에 23명이 활동중임.

3. 봉사단 파견실적 현황('91-'01.7 : 총 32개국, 1,003명)

ㅇ 일반 봉사단원 : 28개국 760명(여자 448명 포함)
ㅇ 국제협력봉사요원 : 11개국 190명
ㅇ 국제협력의사 : 17개국 53명

<봉사 4-1. 해외봉사단원 현 활동인원 현황>

※ 봉사단 국가별 현 활동인원 (250명) (단위:명)

구 분	계	봉사단원	국제협력봉사요원		협력의사
			국외	국내	
계	250	165	39	23	23
아주지역	156	101	26	15	15
1.네 팔	17	15			2
2.라오스	3	3			
3.몽 골	19	9	2	2	6
4.미얀마	2	2			
5.방글라데시	11	7			4
6.베트남	26	16	7	1	2
7.스리랑카	9	4	4	1	
8.인도네시아	25	17	4	4	
9.중 국	12	8	1	3	
10.태 국	17	11	4	2	
11.파키스탄	5	5			
12.필리핀	10	4	4	2	
미주지역	32	24	3	2	3
13.파라과이	16	11	3	2	
14.페루	16	13			3
구주.CIS 지역	43	29	5	5	4
15.루마니아	3	3			
16.우즈베키스탄	20	15	2	2	1
17.우크라이나	1	1			
18.카자흐스탄	19	10	3	3	3
중 동지역	6	6			
19.이집트	4	4			
20.튀니지	2	2			
아프리카지역	11	4	5	1	1
21.이디오피아	7		5	1	1
22.카메룬	4	4			
오세아니아지역	2	1			
23.휘지	1	1			
24.PNG	1				1

봉사 5. 해외봉사단원의 한국어분야 파견현황

1. 한국어분야 단원 파견실적

ㅇ 한국어 분야 단원은 총 파견인원 1,003명중 270명으로 27%, 현 활동인원 250명중 74명으로 30%를 차지하고 있음

2. 성과 및 기대효과

ㅇ 한국어분야 파견단원들은 중·고등학교나 대학의 한국어센터 또는 한국어학과에서 한국어 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와 역사를 강의하고 있는 바, 한국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켜 한국어과정 개설과 함께 한국어를 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선택하는 대학이 증가하고 있음.

ㅇ 또한 이들은 봉사활동 중 쌓은 경험으로 "한국어 교본", "테이프", "한국어 사전"등을 발간하여 현지인들이 보다 쉽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ㅇ CIS지역의 경우 고려인들에 대한 정규 한국어 수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민족 동질성 유지, 회복에 일조를 하고 있음.

ㅇ 한국어를 배운 현지인이 우리 진출기업에 취업함으로써 개도국 국민의 소득창출에 기여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여건을 조성하여 기업활동에 도움을 주는 상승효과가 기대됨.

3. 활동사례

ㅇ 동포밀집지역 (중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한국어 관심 고조
- 우즈베키스탄에 파견된 봉사단원들이 공동으로 직접 제작한 "한국어 강좌" 프로그램이 우즈벡 국영 4TV에 1년간('97) 매주 20분

간 방송되어 한인동포들(23만명 거주)에게 잊혀져가는 한국어를 배울수 있는 기회와 관심을 갖게하여 동포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바 있음.

ㅇ 한국어 교재 발간

- 베트남, 스리랑카, 중국, 태국과 등에 파견된 단원들은 한국어 교재 또는 사전을 편찬하여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현지 학생들의 교재로 활용하면서 한국어 보급에 기여하고 있음.

ㅇ 한국어 말하기 대회

- 국내언론기관에도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만, 베트남의 하노이, 호치민 지역에 파견된 단원들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여 일반인의 한국어에 대한 관심 제고와 한국어과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크게 고취한 바 있음.

ㅇ 몽골에 파견된 박상희(4기) 국제협력봉사요원은 제23중학교에서 매년 "한국어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한국어 발표 기회의 제공과 한국문화를 소개함으로 한국어 보급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몽골 국립인문대에서 한국어를 강의한 최선수(3기) 요원은 복무를 마치고 다시 주재국에 돌아와 국립인문대 한국어 교수로 한국어 보급에 기여하고 있음.

ㅇ 베트남에 파견된 이재열(2기) 국제협력봉사요원은 하노이 국립외대에 한국어학당을 운영, 4년제 한국어과에 적합한 교과과정을 개발하여 그간 선택과목이던 한국어과를 '97부터 4년제 전공과정으로 승격시키는데 기여함.

<봉사 5-1. 한국어파견 현황(연도별.국별 세부내역)>

(2001.7월말 현재)

구분	계 (여)	봉사단원												협력요원						
		소계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소계	'95	'96	'97	'98	'99	'00
네 팔	6 (6)	6 (6)	2 (2)					1 (1)	1 (1)	1 (1)		1 (1)								
몽 골	18 (8)	12 (8)		3 (1)		2 (2)	1				2 (2)	1 (1)	3 (2)	6		3	1	2		
미 얀 마	2 (1)	2 (1)								1 (1)		1								
방글라데시	5 (4)	5 (4)					1 (1)		1 (1)	1	1 (1)	1 (1)								
베 트 남	45 (25)	32 (25)				2 (1)	5 (2)	2	5 (5)	2	4 (4)	5 (5)	7 (7)	13	3	3	3	2	1	1
스리랑카	12 (10)	10 (10)	1 (1)		1 (1)	1 (1)	1 (1)	2 (2)	1 (1)	1 (1)	1 (1)	1 (1)		2			2			
인도네시아	20 (10)	11 (10)			1 (1)	1				1 (1)	2 (2)	3 (3)	3 (3)	9	1	4	3	1		
중 국	36 (9)	18 (9)				1	2 (1)	1	4 (2)	1 (1)	1	2 (2)	5 (3)	18	4	3	4	3	3	1
태 국	34 (23)	29 (23)		2 (1)	1 (1)	2 (2)	3	4 (4)	5 (3)	1 (1)	3 (3)	3 (3)	5 (5)	5	1		3	1		
필 리 핀	1 (1)	1 (1)							1 (1)											
도미니카	1 (1)	1 (1)							1 (1)											
볼리비아	1 (1)	1 (1)						1 (1)												
파라과이	1 (1)	1 (1)							1 (1)											
페 루	2 (1)	2 (1)						1 (1)					1 (1)							
루마니아	4 (3)	4 (3)						1 (1)	1		1 (1)	1 (1)								
우 즈 벡	47 (34)	40 (34)					7 (7)	9 (9)	8 (5)	1 (1)	3 (2)	6 (6)	6 (4)	7				4	2	1
우크라이나	2 (1)	2 (1)									2 (1)									
카 자 흐	31 (9)	16 (9)					4	2		1 (1)	3 (2)	3 (3)	3 (3)	15		5	5	2	1	2
카 메 룬	1 (1)	1 (1)							1 (1)											
휘 지	1 (1)	1 (1)							1 (1)											
계	270 (152)	195 (152)	3 (3)	5 (2)	3 (3)	9 (6)	24 (12)	25 (20)	31 (23)	11 (9)	23 (19)	28 (27)	33 (28)	75	9	18	21	15	7	5

봉사 6. 동포 밀집지역의 봉사단파견 현황

1. 동포 밀집지역 단원 파견실적('91-2001.7)

가. 파견국가

○ 동포가 밀집된 중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에 총 파견인원 1,003명중 158명을 파견하여 15.7%을 차지하고 있음.

구 분	계	중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비 고
총 계	158	52	49	57	총파견인원 1,003명의 15.7%
일반단원	101	31	23	47	
협력요원	51	21	22	8	
협력의사	6	-	4	2	

나. 파견분야

○ 파견분야는 한국어,컴퓨터,보건의료,태권도 등이며, 파견인원 158명중 71%인 113명이 한국어분야로 파견되어 동포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음

구 분	계	한국어	컴퓨터	보건의료	농림	태권도(체육)	기타
파견인원	158	113	19	9	6	6	5
비율(%)	100	71	12	6	4	4	3

2. 활동성과

○ 동포밀집지역의 한국어 관심 고조

- 고려인들에 대한 정규 한국어 수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민족 동질성 유지, 회복에 일조함

<사 례>
우즈베키스탄에 파견된 봉사단원들이 공동으로 직접 제작한 '한국어 강좌' 프로그램이 우즈베키스탄 국영 4TV에 1년간('97) 매주 20분 방송되어 한인동포들(23만명 거주)에게 잊혀져가는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와 관심을 갖게하여 동포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음.

봉사 7. 해외봉사단 선발현황 및 선발기준.절차

1. 봉사단원 선발현황

ㅇ 2001년도(상반기)에 해외봉사단원은 전체 응시자 424명중 92명을 선발하여 최종 82명을 파견하였음.

ㅇ 지원자 대비 선발 비율은 4.6 : 1 이었음.

※ 2001년도(하반기) 제13기 해외봉사단원의 경우 53명 모집에 311명이 지원 하여 경쟁률은 5.9 : 1 이었음.

※ 2001년도 제7기 국제협력요원의 경우 40명 모집에 163명이 지원하여 경쟁률은 4 : 1 이었음

2. 봉사단원 선발기준

가. 해외봉사단원의 경우,

ㅇ 자격요건은,

- 봉사정신이 투철한 20세 이상 61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이여야 하며,
- 해외봉사활동을 감당하는데 적합한 심신 건강자 이여야 하고,
- 해당국가가 요청하는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자여야 함.

ㅇ 선발절차는,

- 서류전형, 영어필기시험 및 인성검사, 기술 및 일반면접,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가 있으며, 합격자는 예비단원이 되어 국내 훈련을 받은 후 최종적으로 봉사단원이 됨.

나. 국제협력봉사요원의 경우,

ㅇ 자격요건은 병역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자 중에서,

- 국제협력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 국제협력업무에 대한 신념, 자질 및 적성을 가지고 있는 자임.

ㅇ 선발절차는

- 1차로 서류전형, 2차로 영어필기시험, 논술 및 기술면접을 실시하며, 3차로 일반면접과 신체검사를 실시하며, 선발심사위원회를 통해 대상자를 결정함.

- 이렇게 합격된 대상자들은 선발심사위원회(위원장: 총재)를 거쳐 합격자 및 후보자로 구분하여 추천자로 결정되며, 외교부장관이 병무청장에 추천을 함.

- 병무청에서는 병무심사위원회(위원장: 병무청 차장)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파견자를 확정함.

다. 국제협력의사의 경우,

ㅇ 자격요건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자로 병역법에 의거 국제협력의사로 편입이 가능한 자임.

ㅇ 선발절차

- 자격요건을 갖춘 지원자중 공개경쟁으로 서류전형, 일반면접 및 영어회화를 통해 대상자를 결정하여, 외교부장관을 통하여 병무청장에게 추천하며, 병무청장은 병무심의를 거쳐 파견자를 최종 확정함.

3. 협력봉사요원의 선발제도 개선

ㅇ 제도도입 초기의 협력봉사요원 선발('95-'97)은 어학능력 반영 비율이 다소 높아 어학(영어)능력 우수자가 선발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ㅇ '97.12. 선발제도를 개선하여 어학능력 반영비율을 축소함으로써 어학능력이 다소 낮더라도 기술능력(전공)이 높고 봉사자로서 기본 자질을 갖춘 우수 자원을 선발하게 되었음.

구 분	종전('95-'97)	개선('98-현재)
모집정원 배수선발	- 영어필기에서 모집정원의 3배수 선발	폐지
어학능력 배점비율	40점	30점

<봉사 7-1. 해외봉사단 선발현황 및 선발기준.절차>

※ 최근 3년 지원자 경쟁률

(단위:명)

구 분	1998년도				1999년도				2000년도			
	계	단원	요원	의사	계	단원	요원	의사	계	단원	요원	의사
지원자 (A)	1,039	738	288	13	1,353	1,072	270	11	675	421	238	16
선 발 (B)	115	70	40	5	105	70	30	5	134	90	35	9
경쟁률 (A/B)	9:1	11:1	7:1	3:1	13:1	15:1	9:1	2:1	5:1	5:1	7:1	2:1
파 견	108	64	39	5	103	70	28	5	126	84	34	8

※1999년도는 IMF 특수상황으로 지원자 급증

봉사 8. 일반봉사단원과 국제협력요원과의 차이점

1. 국내법상의 차이점

ㅇ 일반봉사단원과 국제협력봉사요원은 국내법상 선발절차 및 선발대상에 차이가 있을 뿐이며, 그 사업목적과 현지활동은 동일함.

ㅇ 구체적인 차이는

- 사업주관에 있어 일반봉사단원은 협력단이 관리하며, 국제협력봉사요원은 외교통상부가 주관하되 협력단이 실무를 위탁관리함

- 선발대상은 일반봉사단원은 20세이상 61세이하의 대한민국 남녀로 남자는 병역을 필해야 하며, 국제협력봉사요원은 봉사활동으로 병역을 대신하는 자원이므로 신체검사에서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판정을 받은 자임.

- 복무기간은 일반봉사단원이 24개월(1년 연장 가능)이나, 국제협력봉사요원은 총 32개월로 이중 해외근무 기간이 국외 현지훈련 기간을 제외한 24개월 이상임.

- 경비지원은 동일하게 현지생활비($310-$500)가 지원되지만, 일반봉사단원은 월 30만원의 국내적립금이 지급되고, 국제협력봉사요원은 월 1만원상당의 육군사병 급여가 지급됨.

- 중대한 복무의무 위반시 일반봉사단원은 계약해지 및 국내적립금을 지급치않으며, 국제협력봉사요원은 국내소환 및 현역병에 징집됨.

2. 수원국에서의 지위

ㅇ 수원국에서는 동일하게 한국해외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동일하게 파견협정의 적용을 받음. 다만, 공관 및 협력단 해외사무소에서는 국제협력봉사요원을 병역자원으로 별도 관리해야함.

봉사 9 . 해외봉사단 교육훈련 내용

1. 개 요

ㅇ 일반봉사단원과 협력요원들이 봉사자로서의 기본 자세를 확립하고 현지 적응능력을 향상토록 하기 위해 국내훈련과 현지적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ㅇ 국내훈련은 파견되기 전에 8주간, 현지 적응훈련은 파견된 후 해당 국가에서 5주간 실시함.

2. 훈련의 내용

ㅇ 국내훈련에서는 봉사자의 기본자세와 국제협력의 이해 등 기본 소양교육 뿐만 아니라
- 현지활동에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현지어와 현지사정 교육을 집중실시 하며,
- 기타 활동과 관련된 실무교육과 체력훈련 등이 실시됨.

ㅇ 현지 적응훈련에서는 현지어 실습과 심화 학습을 집중실시하며,
- 기타 현지사정 파악과 관계기관 방문, Home Stay 등을 실시하여 단원들이 활동을 준비하고 현지 적응력을 기르도록 하고 있음.

봉사 10. 봉사단 활동지원 내역과 지원확대 필요성

1. 현지활동지원 현황

ㅇ 단원들은 봉사활동기간중 현지생활비와 주거비등 생활지원, 활동물품과 활동지원비 등의 활동지원, 제보험 가입과 정기 건강검진 등 의료지원, 기타 현지정착비, 출국 및 귀국 준비금, 국내적립금 등의 정착지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ㅇ 이중에서 단원들의 현지활동 지원을 위해, 금년에 활동물품지원을 연간 1인당 $500로 책정하였으며, 봉사단원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파견국별로 $4,000 ~ $22,000 규모의 예산이 배정되었음.

2. 문제점

ㅇ 그러나, 현재의 활동지원 규모는 단원들의 활동성과를 가시화하고 파견국 소속기관 또는 현지주민들의 아국 원조에 대한 만족감을 불러 일으키기에는 그 지원규모가 너무 영세한 수준임.

ㅇ 예를들어, JICA가 파견하는 JOCV(해외협력대원)의 경우에는 현지업무비(기자재구입, 소모품비, 국내여비 등)로 1인당 연간 $816, 특별기자재 지원으로 활동기간 중 활동그룹별로 300만~1,000만엔(약 3만~10만불)의 기자재를 지원하여 단원들의 활동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도록 하고 있음.

3. 확대 방안

ㅇ 2002년도는 예산이 확대된다면 현재의 물품지원액을 현행 $500에서 $600수준으로 인상하고,

ㅇ 봉사단원 소규모프로젝트는 국별로 연간 배정예산을 $4천~$2만2천에서 $5천~$3만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임.

<봉사 10-1. 봉사단 활동지원 내역과 지원확대 필요성>

□ 해외봉사단원의 급여체계와 복지지원 내역

※ 참고 : 봉사단원 활동지원내역 및 1인당 소요경비

구분	항 목	지 급 기 준	년간 지급액	파견기간중 지급액(2년)	비 고
직접경비	현지생활비	매월 (평균 $383)	$4,596	$9,192	
	주거비	파견국 정부 주거제공	-	-	미제공시 $30 ~$350 지급
	활동지원비	년2회 (생활비 1월분)	$766	$1,532	
	현지정착비	임지부임시 1회 (생활비 1월분)	$383	$383	
	출국준비금	파견시 1회(30만원)	$270	$270	
	귀국준비금	귀국시 1회 (생활비 1월분)	-	$383	
	국내적립금	월 30만원	$3,272 (3,600천원)	$6,545 (7,200천원)	국제협력봉사 요원은 제외
	소 계		**10,215천원 ($9,287)**	**20,135천원 ($18,305)**	
간접경비	모집.선발	1,100천원	-	1,100천원	
	국내훈련비	1인당 2,530천원	-	2,530천원	훈련 2개월
	출.귀국경비	출.귀국시 (2,100천원)	2,100천원	4,200천원	항공.화물료
	현지훈련비	1개월 $1,200	$1,200	$1,200	
	현지평가	1회 $340	$680	$1,360	
	물품지원비	1인당 $500	$500	$1,000	
	정간지 구독	1인당 15만원	15만원	30만원	
	봉사단원 프로젝트	국별 $5,000이하 (1인당 $800)	-	$800	
	상해,질병 보험	국내훈련기간 (2개월)중	16천원	16천원	
	국외상해	년 단위 가입	150천원	300천원	보험한도 1억
	해외근재	년 단위 가입	370천원	740천원	질병치료,배상 한도$100,000
	SOS	년 단위 가입	$300	$600	긴급의료지원
	예치금 지원	국별 $5,000 (사무소$2,000/ 물품$3,000)	1인 $500	$1,000	질병치료등
	소 계		**6,024천원 ($5,476)**	**15,222천원 ($13,838)**	
총 계			**16,239천원 ($14,763)**	**35,357천원 ($32,143)**	*환율 $/1,100원 기준

봉사 11. 해외봉사단원 주요 활동사례

해외봉사단원들의 활동내용과 그 성과를 간단히 소개하기는 매우 어려우나,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는 다음과 같음

<성공사례 1>

□ 우즈베키스탄에 파견된 봉사단원들은 공동으로 직접 제작한 "한국어 강좌" 프로그램을 우즈벡 국영 4TV에 1년간('97) 매주 20분간 방송하여 한인동포들(23만명 거주)에게 잊혀져가는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와 관심을 갖게하였으며, 동포들로부터 큰 호응과 수천통의 감사 편지를 받음.

<성공사례 2>

□ 스리랑카에 파견된 한 여자단원은 콜롬보에 소재한 개방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키며 쌓은 경험으로 "싱할라로 배우는 한국어" 교본 전3권을 펴내, 한국어를 배우고자하는 스리랑카인들에게 한국어 보급에 크게 기여한 바 있음.

<성공사례 3>

□ 네팔에 간호분야로 파견된 한 여자단원은 지방의 오지에 근무하면서 보건소를 짓고, 각 마을을 순회하며 가족계획에 관련된 상담과 피임 교육을 실시하는 등 1차 보건진료와 보건위생 교육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공중보건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였으며, 지역사회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았음.

<성공사례 4>

□ 필리핀 빈켓 주립대학에서 컴퓨터를 가르친 한 단원은 도서관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생들이 자료확인과 연구활동에 큰 도움을 주었으며, 필리핀 봉사단원 활동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 단원 상호간 정보교환과 한국의 봉사단원 활동 홍보에 기여함.

<성공사례 5>

□ 작물재배 분야로 인도네시아에 파견된 한 단원은 우리나라의 앞선 농업기술을 전수하고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적용될 수 있는 작물을 개발하는 등 실제적인 성과가 워낙 뛰어날 뿐만 아니라 주민들과의 친화력도 매우 우수하여, 소속기관과 인니 정부가 임기 만료된 후에 전문가로 다시 파견해 주기를 희망, 현재 장기 전문가로 파견 활동중임.

<성공사례 6>

□ 토목분야로 스리랑카에 파견된 한 단원은 마을이 버스가 다니는 큰 간선도로와 연결되지 않아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면서도 도로개설에 엄두를 내지 못하던 인근 마을(Illegola)지역의 주민들을 위하여 주민들을 독려하고 계획을 제시하여 협력단의 지원을 바탕으로 마을 도로(4.8Km)를 포장하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고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으며 주민들은 이 단원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 그 도로를 단원의 이름인 김파라(KIM's ROAD)로 명명하였음.

봉사 12. 봉사단원의 안전사고 발생 현황

1. 최근 2년간 사고현황('99 ~ 2001. 7월말 현재)

ㅇ 1999~2001.7월간 발생한 주요 사건·사고는 총 11건으로 주로 활동과 관련된 단순 사고로 현지에서 조치완료 되었음

- 이중 통근중 경미한 교통사고 6건, 활동중 낙상 3건, 운동중 골절상 등 2건임

※ 봉사단파견 이후 사망사고는 1건으로 1997년에 인도네시아 단원 1명이 전지휴가 기간동안 바다에서 수영 중 익사한 사고가 발생.

2. 문제점

ㅇ 현지의 열악한 교통 및 생활환경으로 돌발적인 사고의 변수가 많으며, 해외에서의 장기간 근무시 단원들의 긴장감 이완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상존하고 있음.

3. 안전 대책

ㅇ 단원들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단원파견전 국내훈련 기간중에 안전사례발생 및 방지교육 및 응급처치/구급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ㅇ 긴급의료지원서비스(SOS International)에 가입하여 안전사고 발생시 긴급후송 및 적기 치료가 가능토록 하고 있고, 해외근재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으로 단원들의 질병, 상해, 사망 등에 대비하고 있음.

ㅇ 또한, 파견국별 비상연락체계를 항시 확립하고 현지 공관 및 해외사무소 주관으로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비상시 행동요령, 응급처치 요령 등을 숙지시키고 있으며, KOICA 해외사무소장이 수시로 단원활동 및 생활상태를 점검토록 하고 있음.

- 효율적인 연락체제 확립을 위해 휴대폰 지원 검토중.

ㅇ 그리고, 단원 파견국 중 의료보건 수준이 열악한 국가에는 협력의사 및 간호분야 단원을 우선 파견하고 있음.

봉사 13. 봉사단원의 중도 귀국자 현황과 원인

1. 중도 귀국자 현황 (2001. 7월말 현재)

○ '91년부터 지금까지 중도귀국자는 77명(여 33명)으로 총 파견 1,003명의 7.7%에 해당되며, 주요사유는 국내취업 등을 위한 본인희망(26명), 건강(23명), 가정사정(12명), 결혼(9명), 징계조치(5명) 등이었음.

구 분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계(명)	(%)
본인희망	1	2	1	2	1	6	5	1	4	2	1	26	34
건 강	1	1	2	2	3	1	6	5	1		1	23	30
가정사정			1		2	2	1		3	1	2	12	16
결 혼	2		1				1		1	1	3	9	12
징 계			2	1	1		1					5	6
무단귀국	1										1	2	2
계 (여)	5 (2)	3 (2)	7 (2)	5 (2)	7 (1)	9 (6)	14 (6)	6 (3)	9 (3)	4 (2)	8 (6)	77 (35)	100

※ 전체 중도귀국자중 여자단원이 35명으로 45%를 점유

※ 징계사유(5명) : 근무지이탈(4명), 현지인 폭행(1명)

2. 문제점

○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면 현지의 열악한 생활환경과 언어장벽, 문화적 충격 등에 대한 부적응으로 활동을 포기한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 '95년 40대 이상의 고령자까지 파견연령을 확대한 이후, 이들 고령자의 중도귀국도 '98년 1명, '99년 3명으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3. 대 책

ㅇ 단원 선발방법을 개선하여 선발시험에 인성검사를 추가하고, 일반 면접시 복수의 면접관이 정밀하고 세분화된 질문항목에 의해 면접을 실시하여 지원자의 인성과 정신력을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ㅇ 또한, 국내훈련을 강화하고 엄정한 훈련 평가와 지도로 국내훈련 기간을 실질적인 단원 선발과정으로 활용하고 있음

ㅇ 단원들이 파견된 후에는 협력단 해외사무소와 주재공관을 통하여 단원들의 활동 애로점을 파악하고 상담하며, 연 2회의 정기 활동 평가 회의를 개최하여 단원들의 상황을 파악함과 아울러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4. 선진국 봉사단의 중도귀국

ㅇ 미국 Peace Corps 26%, 일본 JOCV 6.4%, 뉴질랜드 VSA 10.7%,

※ VSA (Volunteer Service Abroad)

봉사 14. 일반봉사단원 계약기간 연장 현황

1. 계약 연장 조건

ㅇ 일반 해외봉사단원의 계약기간은 2년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ㅇ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소속기관과 주재공관의 의견을 참조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2. 계약 연장 기간

ㅇ 계약 연장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 6개월 이내이며, 1회에 한해 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음.

3. 계약 연장 단원 : 총 69명 (남39, 여30)

ㅇ 현재까지 총 69명(파견인원 11%)이 계약기간을 연장한 바 있으며, 현재는 7개국에서 7명이 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활동중임.

ㅇ 국가별로는 필리핀(8명), 중국(6명), 스리랑카(6명), 우즈베키스탄(5명), 인도네시아(5명), 이디오피아(4명)등 총 20개국임.

※ 협력단 설립이후 년도별 임기연장 현황 (단위:명)

구 분	계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임기연장 (A)	69	-	2	1	4	7	6	18	6	10	8	7
파견단원 (B)	760	37	52	51	59	78	93	90	64	70	84	82
비율% (A/B)	9	-	4	2	7	9	6	20	9	14	9	9

봉사 15. 귀국 봉사단원 지원사항 및 「나섬회」 현황

1. 귀국 봉사단원 : 753명

ㅇ 2001. 7월말 현재 753명의 단원이 활동을 마치고 귀국하였음.
(일반봉사단원 595명, 국제협력요원 158명 / 중도귀국자 77명 포함)

2. 귀국시 지원사항

ㅇ 단원 귀국시 항공료와 화물탁송료등 제반 경비를 지원하고

ㅇ 귀국후 국내 정착지원을 위해

- 활동기간중 매월 30만원씩 적립한 국내정착금 72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 각종 취업정보 제공 및 기업체 취업알선을 통하여 취업지원을 중점 추진하고 있음.

3. 나섬회 지원

ㅇ 또한, 귀국단원들이 파견국에서 습득한 소중한 경험들이 국내사회에 환원되어 국가발전에 기여될 수 있도록, 해외봉사단 귀국단원 모임인 "나섬회"(KOVA/ Korea Overseas Volunteers Association)를 지원하고 있음

- 협력단내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고
- 운영비로 2000년도에 1,360만원 지원하였고, 2001년도는 2,030만원 지원 예정.

ㅇ 나섬회의 주요활동은 다음과 같음

- 홈페이지를 통한 취업정보 제공
- 연락처 및 주소록 제작
- 회지 제작. 배포
- 봉사단의 대국민 홍보를 위한 사전전 개최.

봉사 16. 최근 해외봉사단원 귀국후 취업현황

1. 최근 2년간 귀국단원 취업현황

○ IMF 사태 이전에는 일반단원인 경우 60% 내외의 취업률을 보였으나, 경제사정 악화로 '98년에는 20%의 낮은 취업률을 보인 바 있음.

○ 경제상황이 좋아짐에 따라 '99년에 귀국한 8기 단원의 취업률은 66%, 2000년에 귀국한 9기 단원의 취업률은 69%로 IMF 이전의 수준을 상회하고 있으나, 최근의 국내 경제 침체 여파로 취업 알선에 어려움이 있음.

○ 국제협력요원의 경우 대다수 취업,진학 등을 하여 취업률이 90%를 상회하고 있음

< 1999~2000년 귀국자 취업현황 >

□ 일반단원

(단위:명)

귀국년도(기수)	취업						가사	미취업 및 기타	계
	소계	취업	진학	해외	유학	임기연장			
'99 (8기)	59 (66%)	37	5	14	3			31	90
'00 (9기)	44 (69%)	28	4	7	1	4		20	64

□ 협력요원

(단위:명)

귀국 년도 (기수)	취업						간사	미취업 및기타	계
	소계	취업	진학	해외	유학	임기 연장			
'99 (협3기)	34 (87%)	25	3	3	3			5	39
'00 (협4기)	38 (97%)	18	14	3	3			1	39

2. 귀국단원 취업알선 노력 및 대책

○ 귀국 봉사단원들이 국외 현지활동을 통해 습득한 귀중한 경험이 국가 발전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업 및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한 취업 홍보와 취업 희망단원에 대한 추천서를 발급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활동 우수 단원은 전문가로 파견(2001년 2명)하고, 또한 신규 파견단원 모집 상담요원, 국내 훈련시 훈련교관 등으로 활용하고 있음.

○ 그러나, 개도국에서 다양한 현지 경험을 통해 배운 현지언어와 문화를 비롯, 국제경쟁력을 갖춘 개도국 지역전문가로 성장한 단원들이 아직은 국가 발전에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한 관계로 국내 정착에 어려움이 많은 바, 경력 인정에 관한 법제화 등 지속적인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사회여건 조성이 매우 필요한 실정임.

봉사 17. 임기만료 봉사단원 현지진출 현황

1. 파견, 귀국, 현 활동인원

ㅇ '91년부터 2001년까지 총 파견인원은 1,003명이며, 파견인원 중 852명 귀국하였으며 현재 250명이 현지 활동중에 있음.

2. 임기만료 봉사단원 현지진출 현황

ㅇ 임기만료 귀국 봉사단원 686명 중 현지 진출자는 62명(남44.여18) 으로 8.8%를 차지하고 있음

- 현지 진출자중 취업이 50명(81%), 결혼이 10명(16%), 유학 2명(3%)
- 현지 진출자중 일반봉사단원이 50명(81%), 협력요원이 12명(19%)

구 분	계	취 업								결 혼		기타
		소계	현지 업체	아국 업체	개인 사업	현지 교사	공관 근무	파 견 전문가	태권도 사 범	현지인	교포	유학
계	62 (100%)	50 (81%)	9	18	5	5	9	1	3	7	3	2
봉사단원	50 (81%)	38 (76%)	6	15	5	4	7		1	7	3	2
협력요원	12 (19%)	12 (100%)	3	3		1	2	1	2			

* 국가별 진출현황 : 16개국 62명

- 아주지역(45명) : 네팔 3, 몽골 3, 베트남 4, 스리랑카 8, 인도네시아 9, 중국 7, 태국 6, 파키스탄 1, 필리핀 3, 휘지 1
- 미주지역(6명) : 도미니카 1, 볼리비아 1, 파라과이 3, 페루 1
- 구주.CIS지역(11명) : 우즈베키스탄 4, 카자흐스탄 7,

* 활동분야별 진출현황 : 한국어 21, 컴퓨터 9, 태권도 6, 지역개발 5, 간호 2, 체육교육 3, 유아교육 2, 작물재배 2, 기타 12

봉사 18. 해외봉사단 파견사업의 평가방법 및 결과

1. 평가방법

○ 해외봉사단 사업에 대한 평가는 크게 사전, 중간, 사후평가의 3개 부분으로 나누어 실시되고 있음.

○ 우선 사전평가로 신규파견국 선정을 위한 제반조사와 현장답사 등을 실시하며, 매년 단원수요조사시 기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다음은 중간평가로 단원들이 활동기간 중 분기마다 제출하는 활동보고서로 활동을 점검하고 매년 2회씩 정기적으로 현지평가회의를 실시하여 단원들의 활동상황과 생활, 건강상태 등을 점검하며, 2년마다 각 파견국 정부의 봉사담당관을 한국에 초청하여 봉사사업을 평가하는 조정관회의를 갖고 있음.

○ 마지막으로 사후평가는 귀국하는 단원들이 제출하는 귀국보고서에 의해 최종적으로 활동상황을 평가하고, 임기를 마치고 귀국한 단원들이 귀국보고대회를 갖는 기회에 2년 간의 활동을 평가하는 모임을 가지며, 이외에 사업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도 실시하고 있음.

2. 2000년도 평가결과

○ 그동안 현지평가회의, 현지조정관회의, 정기활동보고서 등 단편적인 사업평가를 수행하여 왔으나, '99년에 수원기관 및 지역주민 등 직접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최초로 실시한 바 있음.

○ 평가결과 해외봉사단 사업이 개도국의 경제·사회발전과 개도국과의 우호협력 및 교류증진에 기여하고, 인류의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우리나라가 실천적으로 참여한다는 봉사사업의 기본 목표를 잘 달성해온 것으로 평가되었음.

○ 그러나 수요조사 기능, 단원활동지원, 귀국단원 사후관리 등 몇가지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임.

봉사 19. 귀국 봉사단원 지역전문가로 활용방안

1. 봉사사업의 의의

ㅇ 협력단은 전문성과 봉사정신을 갖춘 우수한 젊은 인력을 매년 100여명 이상 개도국에 파견하여 이들이 봉사활동기간 중 습득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통해 현지언어와 문화에 정통한 지역전문가로 성장하도록 하고 있음.

2. 지역전문가 활용

ㅇ 협력단에서는 지역전문가로 양성된 봉사단원들이 국내외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음.

ㅇ 우선 단원들이 귀국하기 전과 귀국후에 단원들에게 다양한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유관기관 및 기업체에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단원들이 각자의 전문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주선하고 있음.
- 2001년, 특이사례로 경찰청 특수언어 구사자로 네팔어와 벵갈어 2명을 특채토록 주선

ㅇ 또한 지속적인 국제적 활동으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UNV 참여를 희망하는 단원들을 적극 추천하고 있음.

ㅇ 협력단의 사업 수행을 위해 우수활동단원을 전문가로파견(현재 4명 활동 중) 하거나 연수사업 코디네이터를 비롯한 사업보조 요원으로 채용, 또는 봉사단원 국내훈련 교관요원 등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음.

ㅇ 이외에도 봉사단원 모집 상담요원, 국내훈련강사 등으로도 귀국봉사단원을 활용하고 있음.

ㅇ 그리고 귀국봉사단원 모임인 나섬회(KOVA)를 적극 지원하여 단원 들간의 화합과 정보교환 등을 통해 국.내외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62명의 임기만료 단원들은 재외공관 및 현지 기업체 등에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음.

3. 문제점 및 향후 전망

ㅇ 그러나 미국의 Peace Corps가 귀국봉사단원을 외교관, 기업의 국제부문 담당자 등으로 적극 활용하고 학계에도 많은 국가 전문가로 배출한 사례와 일본 JICA가 파견하는 일본청년해외협력대(JOCV)가 일본이 경영하는 세계각국의 다국적 기업에서 적극 활용되는 것에 비하면 아국의 귀국봉사단원의 활용범위는 아직 초등 단계라 할 수 있음

ㅇ 귀국봉사단원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 기업과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직자가 휴직을 하고 봉사단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현직참여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ㅇ 해외봉사활동의 가치와 의의에 대한 전사회적인 인식 확산이 이루어져 귀국봉사단원들이 다양한 부문에서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임.

봉사 20. 해외봉사단 파견사업 발전방안

1. 기본방향

○ 협력단은 지난 10년간 양적·질적으로 크게 발전해온 해외봉사단 사업이 앞으로도 개도국들의 봉사단수요에 적극 부응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국민 참여형 사업이 될 수 있도록,

○ 안정적인 사업기반구축과 내실화를 다지면서도, 지속적으로 파견규모를 확대하고 대 국민 인식제고에 집중해 나갈 계획임.

2. 주요 발전방안

○ 우선, 사업예산과 단원 관리인력 등 사업운영능력을 고려하면서 지속적으로 파견규모를 확대하여, 아직 1국당 10명 정도에 머물고 있는 평균 활동인원을 년차적으로 15명 이상이 되도록 추진하겠음.

○ 또한 협력단 해외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국가 중에서 단원 활동인원이 15명 이상이 되는 국가에는 별도의 단원관리 인력을 파견하여 안정적인 단원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지원하고, 현지 수요발굴과 파견지역을 다변화하여 지속적인 파견인원 확대에 대비해 나가겠음.

○ 이와 아울러 단원들의 활동이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봉사단 프로젝트와 활동물품의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현지 활동 점검 및 지도체계를 정립하는 등 단원활동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

○ 한편,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홍보 활동을 전개하며, 국내유관기관 및 기업들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해 나갈 것임.

○ 그리고 선발된 인력들을 우수한 봉사단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 귀국한 봉사단원들이 국내에 잘 정착하여 이들의 경험이 국가발전을 위해 활용되고 더 나아가 지역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취업, 귀국단원 모임 활동, UNV 진출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음.

○ 또한, 2000.12.26일 국제협력봉사요원 제도가 부활됨에 따라 일반봉사단원으로는 인력확보가 어려운 특수분야의 우수자원을 확보하여 성공적인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봉사 21. 국제협력요원 파견실적

1. 파견실적

○ 국제협력요원 제도가 도입된 '95년 이래로 2001년까지 국제협력봉사요원 190명, 국제협력의사 53명 등 총 243명을 파견했으며, 이중 181명이 임기만료 귀국하여 현재 62명이 활동하고 있음.

구 분	파 견	귀 국	활동중
계	243	181	62
국제협력봉사요원	190	151	39
국제협력의사	53	30	23

* 국제협력봉사요원 귀국자 151명중 23명은 국내근무중(2001.11월중 복무만료 예정임)

○ 국제협력봉사요원의 경우는 지금까지 12개국 14개분야에 190명이 파견되었고, 현재는 11개국 12개분야에 39명이 활동중에 있고

○ 국제협력의사는 17개국에 53명이 파견되어, 현재는 9개국 23명이 활동 중에 있음.

2. 파견분야

○ 국제협력봉사요원(190명)중 상위 파견분야는 한국어 75명(39%), 컴퓨터 58명(31%), 태권도 15명(8%)임.

<봉사 21-1. 국제협력요원 파견실적>

1. 파견실적

(단위:인원)

구분	총계	국제협력봉사요원							국제협력의사							
		계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계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
1.한국어	75	75	9	18	21	15	7	5								
2.컴퓨터	58	58	5	9	14	12	9	9								
3.체육교육	8	8		2	1		1	4								
4.탁구코치	1	1					1									
5.태권도	15	15	1	1	3	4	3	3								
6.축 산	5	5	1			2	1	1								
7.작물재배	5	5	1			2	2									
8.전 자	6	6	2			1	1	2								
9.전 기	3	3				2		1								
10.기 계	5	5	1				2	2								
11.자동차정비	4	4				1	1	2								
12.원 예	3	3						3								
13.수의사	1	1						1								
14.수산양식	1	1						1								
15.의 사	43								53	8	8	9	5	5	8	10
총 계	243	190	20	30	39	39	28	34	53	8	8	9	5	5	8	10

3. 국제협력의사 파견분야

구분	1기(8명)	2기(8명)	3기(9명)	4기(5명)	5기(5명)	6기(8명)	7기(10명)
파견분야	일반의(6) 치과(2)	가정의학(1) 정형외과(3) 신경외과(1) 소아과(1) 내과(1) 일반의(1)	소아과(1) 내과(2) 가정의학(2) 일반외과(2) 방사선과(1) 치과(1)	내과(2) 외과(1) 가정의학(1) 한의사(1)	외과(2) 내과(3)	내과(2) 가정의학(2) 외과(1) 소아과(1) 한의사(1) 치과(1)	내과(4) 외과(3) 이비인후과(1) 한의사(1) 치과(1)

봉사 22. 국제협력봉사요원 파견 분야별 전공자 현황

1. 파견분야 전공자 현황

ㅇ 국제협력봉사요원 파견제도는 '95년 시작되어 그동안 190명이 파견되었으며, 이중 파견분야 전공자는 108명(57%), 비전공자는 82명(43%)으로 이들은 대부분 파견분야와 관련되는 자격증이나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음.

ㅇ '95년 파견 초기 분야별 전공자는 60%에서, 99년이후는 75-79%로 증가되었음.

ㅇ 한국어분야 파견자중 전공자의 비율은 낮은 편임.
- 한국어분야 75명중 전공자는 18명으로 24%이고,
- 컴퓨터, 태권도, 기타분야 115명중 전공자는 90명으로 78%임.

ㅇ 협력봉사요원 선발시 파견분야 비전공자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서류전형, 기술면접에서 파견분야에 대한 자격증과 전문지식을 평가함

※ 태권도 : 태권도 4단 이상 자격증 보유

ㅇ 파견 분야별 전공자 (단위:명,%)

구 분		계	한국어	컴퓨터	태권도	기 타
협력요원	파견인원	190명	75	57	16	42
		100%	100	100	100	100
	전 공	**108명**	**18**	**39**	**10**	**41**
		57%	24	**68**	**63**	**98**
	비 전 공	82명	57	18	6	1
		43%	76	32	37	2

○ 파견 년도별 전공자 (단위:명,%)

구 분		계	'95 (1기)	'96 (2기)	'97 (3기)	'98 (4기)	'99 (5기)	2000 (6기)
협력 요원	파견인원	190명	20	30	39	39	28	34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전 공	**108명**	**12**	**9**	**18**	**21**	**21**	**27**
		57%	**60**	**30**	**46**	**54**	**75**	**79**
	비 전 공	82명	8	21	21	18	7	7
		43%	40	70	54	46	25	21

3. 향후 조치사항

○ 2000.12.26일 동 제도가 부활됨에 따라 2001년부터는 국제협력봉사요원의 한국어분야 파견은 점차 축소하고, 일반봉사단원으로 파견이 어려운 공업 및 농림수산분야 위주로 운영하고 있음.

○ 또한, 1차 서류전형에서 파견분야의 전공자를 우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영어 배점의 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기술 면접의 비중을 확대하여 지금까지보다 더 좋은 자원이 선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선발시험 배점비율 변화추이

구 분	당 초	1차(97.12)	2차('99.12)	개선(안)
외국어시험	40점	30	30	20
기술면접	30점	40	30	40
논술시험	10점	10	20	20
일반면접	20점	20	20	20
계	100점	100	100	100

<봉사 22-1. 국제협력봉사요원 파견 분야별 전공자 현황>

※ 파견분야별 세부 현황 (단위:명)

구분		계	'95 (1기)	'96 (2기)	'97 (3기)	'98 (4기)	'99 (5기)	2000 (6기)
계	파견인원	**190** (100%)	20 (100%)	30 (100%)	39 (100%)	39 (100%)	28 (100%)	34 (100%)
	전 공	**108** (57%)	12 (60%)	9 (30%)	18 (46%)	21 (54%)	21 (75%)	27 (79%)
	비 전 공	**82** (43%)	8 (40%)	21 (70%)	21 (54%)	18 (46%)	7 (25%)	7 (21%)
한국어	파견인원	75	9	18	21	15	7	5
	전 공	18	2	5	3	4	2	2
	비 전 공	57	7	13	18	11	5	3
컴퓨터	파견인원	57	5	9	14	12	9	8
	전 공	39	4	3	11	8	8	5
	비 전 공	18	1	6	3	4	1	3
태권도	파견인원	16	1	1	3	4	3	4
	전 공	10	1	-	3	1	2	3
	비 전 공	6	-	1	-	3	1	1
기타	파견인원	42	5	2	1	8	9	17
	전 공	41	5	1	1	8	9	17
	비 전 공	1	-	1	-	-	-	-

봉사 23. 국제협력요원 공정 선발

1. 선발절차

ㅇ 협력봉사요원은 1차로 서류전형을 통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선발하고, 2차로 영어시험(필기,회화), 논술, 기술·면접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배를 선발하여 3차로 일반면접과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를 거쳐 합격자를 결정하고 있음.

- 2차 및 3차시험의 배점내역은 영어 30점, 논술 20점, 기술면접 30점, 일반면접 20점임.

ㅇ 이렇게 합격된 대상자들은 선발심사위원회(위원장: 총재)를 거쳐 합격자 및 후보자로 구분하여 추천자로 결정되며, 외교부장관이 병무청장에게 추천을 함.

ㅇ 병무청에서는 병무심사위원회(위원장: 병무청 차장)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파견자를 확정함.

2. 선발방법

ㅇ 공정한 선발을 위해 영어 필기시험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서울대 어학연구소)하며,

ㅇ 분야별 기술(또는 전공) 면접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변별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기관의 전문가를 면접위원으로 복수 위촉하고 있음.

ㅇ 영어회화시험은 대학 등에서 강사로 활동중인 영.미국인을 시험관으로 위촉하고 있으며

ㅇ 논술은 사고능력 측정에 초점을 맞추어 외부전문가에게 복수로 채

점을 의뢰하고 있음.

3. 협력봉사요원의 선발제도 개선

○ 제도도입 초기의 협력봉사요원 선발('95-'97)은 어학능력 반영 비율이 다소 높아 어학(영어)능력 우수자가 선발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 '97.12. 선발시험 제도를 개선하여 어학능력 반영비율을 축소하여 어학능력이 다소 낮더라도 기술능력(전공)이 높고 봉사자로서 기본 자질을 갖춘 우수요원을 선발하게 되었음.

구 분	종전('95-'97)	개선('98-현재)
모집정원 배수선발	- 영어필기에서 모집 정원의 3배수 선발	폐지
어학능력 배점비율	40점	30점

<봉사 23-1. 국제협력요원 공정 선발>

※ 협력요원 선발심사 위원명단

구 분	1999년도	2000년도
1. 1차전형 (서류전형)	ㅇ 전형위원 구성 : 담당팀장 외 담당직원 (선발인원 5배수)	ㅇ 전형위원 구성 : 담당팀장 외 담당직원 (선발인원 5배수)
2. 2차전형 (영어필기 및 논술)	ㅇ 영어필기 : 서울대 어학연구소 위탁 ㅇ 논술시험 : KOICA 출제	ㅇ 영어필기 : 서울대 어학연구소 위탁 ㅇ 논술시험 : 외부 전문가 출제
3. 3차면접 (기술,일반)	ㅇ 면접위원: <기술면접 : 외부전문가> -한국어 : 경희대 국제교육원 -컴퓨터 : 서울산업대 -태권도 : 국기원 -전자,전기,기계,자동차 : 서울산업대 -축 산 : 축산기술연구소 -작물재배 : 작물시험장 -탁구코치 : 탁구협회 -체육교육 : 한국체육대학 <일반면접> -일반사항:KOICA자문위원(이윤구) 외교부 개발협력과장, 병무청소집과장, 인력사업이사 -영어회화:인덕대영어과교수(현지인)외1명 -중국어:중국대사관직원	ㅇ 면접위원: <기술면접 : 외부전문가> -한국어 : 한국외국어대학교 -컴퓨터,전기,전자 : 서울산업대 -태권도 : 국기원 -체육교육 : 고려대 및 국민대 -수산양식 : 순천향대학교 -축산,수의사 : 축산기술연구소 -원 예 : 작물시험장 <일반면접> - 이사(1),외교부 개발협력과장, 병무청 소집과장, 유네스코사업본부장 <외국어회화> -영어:인덕대영어과교수(현지인)외1명 -중국어:중국대사관직원
4.추천자 결정	ㅇ 선발심사위원회 -위원장 : 총재 -위 원 : 이사(3명), 봉사사업부장	ㅇ 선발심사위원회 -위원장 : 총재 -위 원 : 이사(3명),인력사업부장
5.최종확정 (합격자)	ㅇ 병무심의위원회	ㅇ 병무심의위원회

봉사 24. 국제협력요원 보호자 직업현황

1. 보호자 직업별 현황

○ '95년부터 파견한 협력요원 190명의 보호자 직업은 대학교수, 공무원, 변호사, 은행원, 회사원, 농업, 상업 등으로 다양함.

※보호자 직업현황(지원 당시 기준) (단위 : 명)

구 분	계		1기 ('95)	2기 ('96)	3기 ('97)	4기 ('98)	5기 ('99)	6기 ('00)
	인 원	비율(%)						
계	**190**	100	20	30	39	39	28	34
공 무 원	**27**	14	1	6	8	6	4	2
대학교수	**7**	4	1	2	-	1	1	2
변 호 사	**1**	1	-	-	1	-	-	-
은 행 원	**6**	3	1	1	2	-	1	1
회 사 원	**74**	39	12	11	14	18	11	8
기 타	**75**	39	5	10	14	14	11	21

- 기타는 직업 무, 가정주부, 농업, 상업을 포함

2. 사회지도층 등 특수계층 출신자 현황

○ 이중에서 사회지도층으로 추정되는 인사는 전체 파견인원의 6%에 해당되는 12명정도로 대학교수 7명, 사기업·은행 임원급 이상 3명, 공무원 1급이상 1명, 변호사 1명임.

○ 국제협력봉사요원은 필기시험등을 통한 일반공개경쟁에 의한 철저한 선발관리로 지난 6년간 단 1건의 잡음이나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한 적이 없고 또한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등 사회지도층을 포함한 특수계층 출신자녀가 선발된 사례는 없음.

<봉사 24-1. 국제협력요원 보호자 직업현황>

1. 보호자 고위직 직업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사기업·은행 (임원급이상)	대학교수	공무원 (1급이상)	변 호 사
계	**12**	3	7	1	1
1기	3	1	1	1	-
2기	2	-	2	-	-
3기	3	2	-	-	1
4기	1	-	1	-	-
5기	1	-	1		
6기	2	-	2	-	-

봉사 25. 국제협력요원 중도 소환 사례

1. 소환 경위

○ 국제협력봉사요원의 경우에는 규정을 어기거나 활동에 문제가 있어 소환된 경우가 없으며, 국제협력의사 1명이 소환된 바 있음.

성 명	생년월일	출신학교	파견분야	파견일자	근무기관
김 정 판	'69.10.5	연세대	치 과	'95.6.30	Dental Institute

○ 스리랑카 파견 국제협력의사 1명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소환된 것으로, 이는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사로 소속기관에서 치과의사 보조임무만을 부여하는데 불만을 품고 '96.2.1부터 8.9(190일간)동안 소속기관에서 근무하지 않음에 따라 '96.9.14 소환되었음.

2. 조치내용

○ '96.8. 9 : 스리랑카 근무 아국공관 참사관과 협력단 주재원이 주재국 보건부 담당자 면담시 근무이탈 사실 발견

○ '96.9.14 :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국제협력요원 파견업무 시행 지침 제20조 4항에 의거 소환

○ '96.12.2 : 외무부에서 서울지방 경찰청(송파경찰서)에 고발

○ '97. 4.7 : 서대문 경찰서로부터 불기소처분 통보(제1722호)

- 처리사유 : 범죄혐의 인정키 어려워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함

○ '97.4.29 :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부터 불기소(기소유예) 처분

○ '97.8.11 : 공익근무요원 소집

○ '98.8.22 :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

3. 사고후 제도보완

○ 이 사고 후에는 선발 요건을 강화하여 전문의 자격 소지자에 한해서만 선발을 하고 있음.

봉사 26. 국제협력봉사요원 파견 성과

1. 파견실적

ㅇ 국제협력봉사요원 파견제도는 '95년부터 시작되어 그동안 190명이 파견되었음.

ㅇ 이는 95년부터 금년까지의 일반단원을 포함한 전체 봉사단원 파견 인원 1,003명 중 19%를 차지함.

2. 파견성과

ㅇ 국제협력봉사요원은 높은 경쟁을 통해 선발된 우수한 인력으로 컴퓨터, 태권도, 전기, 기계, 농업 등 일반봉사단원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분야의 우수인력을 충원하는데 매우 필요한 자원임.

ㅇ 아울러, 국내에서의 군복무보다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면서도 봉사활동을 통해 세계화에 필요한 젊은 인재를 적기에 양성토록 하였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고, 국가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ㅇ 주요 파견성과 사례로는 인도네시아 작물재배 분야에 파견된 박창호 단원(협력요원 4기)은 지역 주민의소득 증대을 위하여 신농법을 도입하고 현지어 교재을 발간하는 등 성공적인 활동으로 현재는 주재국의 간곡한 요청으로 작물재배 전문가로 파견되어 활동중에 있음.

※구체적 파견성과(활동사례 중심으로) : 별첨

<봉사 26-1. 구체적 파견성과 (활동사례 중심으로)>

□ 우수활동사례 예시 (11국 19건)

구 분	우수활동사례
스리랑카	□ 태권도 분야로 파견된 이기수(3기) 요원은 현지 대통령 경호 임무수행 특수경찰요원의 태권도 지도와 국가 대표팀 감독으로 임명되어 국제대회 사상 최초 메달을 획득한 지도자로 현지 정부의 칭송과 태권도 보급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고, 현재는 주재국의 간곡한 요청으로 태권도 사범으로 재파견됨. □ 자동차정비 분야로 파견된 강영주(4기)요원은 스리랑카 개방대학의 자동차정비실습실에서 자동차엔진분석기인 Dynamometer의 작동과 시험데이타 분석을 담당하는 핵심요원으로 활동을 하였음.
인도네시아	□ 작물재배 분야로 파견된 박창호(4기) 요원은 현지의 재래식 농업형태를 극복하고 Green House를 이용한 농업발전과 인도네시아어판 교재를 발간하여 현지인들에게 농업기준 실용서로 활용케 하였고 산업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를 생산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한 성공적인 활동으로, 현재는 주재국의 간곡한 요청으로 정부파견 작물재배 전문가로서 활동중에 있음. □ 작물재배 분야로 파견된 정우담 요원(1기)의 경우 현지에서 멜론재배에 최초로 성공함으로써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였음.
중 국	□ 한국어 분야에 파견된 최동준(3기) 요원은 산동성교육위원회에서 1997-1998년도 학기간 근무한 외국인 교사중 최우수 외국인 교사로 선정됨.

구분	우수 활동사례
몽 골	□ 컴퓨터 분야에 파견된 전현철(4기) 요원은 몽골 국립기술대에서 1년 간의 강의자료를 정리하여 2권의 영문교재(Data and Computer Communication 및 The Principles of Communication Theory)를 편찬, 현지반응이 좋아 전자공학과의 교재로 판매되며 타 대학(울란바타르대학)에서도 교재로 사용하고 있음. □ 한국어 분야에 파견된 박상희(4기) 요원은 제23중학교에서 매년 "한국어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한국어발표 기회의 제공과 한국문화를 소개함으로 한국어보급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몽골 국립인문대에서 한국어를 강의한 최선수(3기) 요원은 국제협력봉사요원 복무를 마치고 다시 주재국의 국립인문대 한국어교수로 취직하여 한국어 보급에 기여
베트남	□ 한국어 분야로 파견된 이재열(2기) 요원은 하노이 국립외대에 한국어학당을 설립, 4년제 한국어과에 적합한 교과정을 개발하여 그간 선택과목이던 한국어과를 '97부터 4년제 전공과정으로 승격시키는데 기여 □ 태권도 분야로 파견된 박준성(3기) 요원은 남부 잘라이성에 파견되어 청소년 대표팀을 지도, '98년 전국청소년 대회에서 잘라이성 태권도 역사상 최초로 금메달을 획득하여 한국인이 거의 진출하지 않은 잘라이성에 태권도를 통한 한국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 인민위원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음.

구 분	우수활동사례
태 국	□ 컴퓨터 분야에 파견된 김성한(2기) 요원은 치앙마이(Chiangrai), 라자비트(Rajabhat) 대학에 OA 및 Computer Graphics 과정을 정착시켰음. □ 한국어 분야로 파견된 노세경(3기) 요원은 출라롱콘대학에서 "한국어 교사를 위한 교안" 및 "한국어 회화"를 발간하여 태국내 한국어 교육을 한층 더 발전시켰으며 그 공로로 태국 정부의 감사패를 수여 받음. □ 컴퓨터 분야에 파견된 정인제(5기) 요원은 태국정부가 주관한 전국전자 및 컴퓨터 Programming Contest에 본인이 가르치는 학생들과 함께 인터넷기반 가상대학 프로그램을 출품하여 태국의 각 대학 및 컴퓨터 업계의 큰 관심을 갖게 함.
필리핀	□ 컴퓨터 분야로 파견된 문정환(3기) 요원은 남동대학에서 본교와 4개 분교의 교내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여 전 캠퍼스의 학사관리 사무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였음. □ 축산 분야로 파견된 최석오(4기) 요원은 우유가공공장 위생시설 보완 및 품질관리로 우수한 우유를 생산하는 기틀 마련 □ 컴퓨터 분야로 파견된 이준규(4기) 요원은 Central Visayas Polytechnic College에 근무하며 대학의 도서관리와 학생등록 전산화 Program개발을 통한 체계적 학사관리로 현지의 높은 평가를 받음.
파라과이	□ 탁구 분야로 파견된 윤상준(5기) 요원은 본인이 지도한 선수들이 국내대회와 브라질에서 개최된 클럽별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우리나라 탁구기술 및 문화를 소개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

구 분	우수활동사례
우즈베키스탄	□ 한국어 분야에 파견된 배양선(4기) 요원은 수도에서 1,300Km 떨어진 누쿠스 종합대학에서 현지 실정에 맞는 러시아어 문법책을 발간, 현지 한국어교수를 포함 학생들에게 배포하여 큰 호평을 받고, 주재국 최대 일간지(Narodnoe Slovo)에 크게 보도됨.
카자흐스탄	□ 태권도 분야에 파견된 한경동(4기) 요원은 국가대표 선수단을 지도하여 국제대회에서 금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함으로써 국가적인 호응을 받았음.
이디오피아	□ 컴퓨터 분야로 파견된 김성웅, 김 혁(4기) 요원은 교육부에서 컴퓨터 전산망 구축작업 및 직원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협력봉사요원의 전문성, 능력 및 작업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음.

봉사 27. 국제협력봉사요원 운영상 문제점 해결 노력

1. 문제점

ㅇ 일반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은 일반봉사단원과 국제협력봉사요원간에 이질감 및 위화감이 발생할 우려와

ㅇ 일부 특수계층의 혜택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음.

2. 문제 해결 노력

ㅇ 국제협력요원제도 도입 초기('95-'96)는 일반봉사단원과의 신분 차이에서 오는 심리적 요인으로 다소 이질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ㅇ 그러나 '97년부터는 파견 전 일반봉사단원과 함께 2개월 간의 합숙 국내훈련과 파견 후 1개월 간의 현지 국외훈련을 실시하고 담당 부서를 통합하여 활동지원 및 관리를 일원화함으로써 상호 일체감이 형성되어 이질감과 위화감 문제는 없음.

ㅇ 또한, 협력봉사요원은 일반공개경쟁에 의한 투명한 선발절차를 거쳐 선발되고 있어 지난 6년 간 단 1건의 잡음이나 불미스러운 사례도 발생한 적이 없으며,

ㅇ 선발자의 부모가 사회지도층을 포함한 특수계층 출신이라고 할 만한 사례는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극히 적음.

※ 보호자 고위직 직업 현황 (단위 : 명)

계	사기업·은행 (임원급이상)	대학교수	공무원 (1급이상)	변호사
12	3	7	1	1

봉사 28. 국제협력봉사요원제도 폐지와 부활

1. 제도 개요

○ 국제협력요원 파견사업은 병역대상자중 적격자를 선발하여 개도국에서 봉사활동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제도로, 국제협력봉사요원과 국제협력의사로 구분됨.
(복무기간 : 국제협력봉사요원 32개월, 국제협력의사 36개월)

2. 제도 폐지 및 부활

○ 동 제도는 체육특기자, 예체능특기자 등 공익근무요원의 병역 특혜 문제발생에 따라 '99. 2월 병역법 개정시 폐지된 바 있으나,

○ '95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총 190명의 국제협력봉사요원을 파견하여, 컴퓨터, 태권도, 작물재배, 기계, 자동차정비, 전기·전자 등 일반봉사단원으로 충당키 어려운 전문분야에서 탁월한 활동성과와 국내 공익요원들에게서 발생된 특혜 문제와는 전혀 다른 성격임이 입증되어 2000. 12. 26일 동 제도가 부활되었음.

3. 제도 필요성

○ 동 제도의 부활로 우리 젊은이들이 국제적 감각을 갖춘 지역전문가로 양성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주어졌고

○ 일반봉사단원으로는 인력 확보가 어려운 컴퓨터, 전자, 기계, 원예, 축산, 태권도 등 특수분야에서 우수인력의 확보가 가능해 짐에 따라 해외봉사단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밝게 하고 있음.

봉사 29. 병역법 개정이후 국제협력봉사요원의 운영계획

1. 운영계획

ㅇ 협력요원 파견인원 확대 운영

- 2001년 파견 협력요원은 37명을 선발하여 국내 훈련중에 있으며, 2002년에는 60명을 선발 파견 계획하고 있으며 년차적으로 파견인원을 확대 운영할 계획임.

ㅇ 일반단원으로 모집이 어려운 직종을 대상으로 파견

- 전기, 기계, 전자, 작물재배, 원예, 컴퓨터, 체육교육, 태권도 등 일반 봉사단원만으로는 적격자 선발이 어려운 분야를 대상으로 우수 인력 선발 파견.

ㅇ 전체 해외봉사단원중 국제협력요원의 비율을 평균 30%를 유지하도록 노력.

- 2001년도 국제협력요원 비율은 22%임

ㅇ 향후 협력봉사요원 파견확대 및 동 사업의 내실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문 지식을 갖춘 파견분야 전공자를 우대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구해 나갈 계획.

연도별 협력요원파견 현황

구 분	개정 전							개정이후	
	계	'95	'96	'97	'98	'99	'00	'01예정	'02 계획
인원(명)	190	20	30	39	39	28	34	37	60

2. 협력요원의 선발제도 개선

○ 협력요원 선발제도는 어학능력 반영 비율이 다소 높아 기술보다 어학능력 우수자가 선발되는 경우가 있어, 어학 반영 비율을 현행보다 다소 축소하고 기술능력(전공)이 우수하고 봉사자로서 기본 자질을 갖춘 우수요원 선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고 있음.

주요 개정추진 계획

현 행				개 정 (안)			
외국어시험		논술	기술면접	외국어(영어)시험		논술	기술면접
영어필기	외국어 회화			필기	회화		
15	15	20	30	10	10	20	40

봉사 30. 봉사단 행정원 파견 현황

1. 파견 배경

○ 해외봉사단원 파견후, 동 단원들의 관리인력 미파견으로 원활한 단원활동 지원 및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됨에 따라 봉사단원 및 재외공관에서 지속적인 관리인력 파견 요청

2. 파견 필요성

○ 봉사단원 파견증가 등 협력사업 확대로 재외공관은 인력운영상 공관 본연의 업무와 협력사업을 병행한 이중 업무의 어려움으로 국제협력사업의 성공적 추진 곤란

- 봉사단원 10명이상, 초청연수생, 프로젝트사업 등의 업무수행시 업무전담인력 절대적으로 필요
- '98년 정부 구조조정으로 폐쇄된 해외사무소의 재확충은 국내 여건상 설치가 어려운 상황임.
- 2001년도 행정원 파견 요청 공관 : 라오스, 미얀마, 파키스탄

3. 파견 현황

파견국	-5국 5명(네팔,카자흐스탄,파라과이,라오스,미얀마) .라오스.미얀마는 2001.8.22일 신규 파견
신 분	-계약직 직원 .협력단 직원중 희망자를 모집.선발하여 파견(휴직 처리)
임 무	-봉사단원 및 의료단등 파견인력 활동지원 및 지도.감독 -초청연수생, 프로젝트, 개발조사등 기타 협력사업 수행 -협력사업관련 현지기관 및 공관과의 업무연락, 교섭등
보 수	-체재비 및 가계보조비 지급(월 US$3,000 정도) .파견국에서의 업무수행 능력을 감안하여 협력단 해외사무소 직원 총액 보수의 60% 수준으로 책정

전 문 인 력

<전문가>

(전문가) 1. 전문가파견사업의 의의 및 개요 1
(전문가) 2. 전문가 파견실적(연도, 지역, 분야별) 및 현황 2
(전문가) 3. 전문가 직업·파견기간별 최근 파견실적('96-'01) 5
(전문가) 4. 전문가 자격요건 및 모집·선발절차 7
(전문가) 5. 전문가에 대한 처우실태 8
(전문가) 6. 전문가 중간·귀국보고서 활용실태 9
(전문가) 7. 전문가파견에 대한 수원국 반응 및 평가 10
(전문가) 8. 전문가 등록제도 운영현황 및 활용실적 11
(전문가) 9. 전문가 중도귀국 실태 및 조치사항 12
(전문가) 10. 전문가의 파견기간 연장실태 13
(전문가) 11. 타 협력사업과 연계한 전문가 파견실적 14
(전문가) 12. 전문가 경비지급기준 15
(전문가) 13. IMF 경제위기 극복경험 전수를 위한 전문가 파견계획 18

<의료단>

(의료단) 14. 의료단원 파견사업의 의의 및 개요 19
(의료단) 15. 의료단원 파견실적(연도, 지역, 진료과목별) 및 현황 20
(의료단) 16. 의료단원 자격요건 및 모집·선발절차 23
(의료단) 17. 의료단원에 대한 처우실태 24
(의료단) 18. 의료단원 근무실태 관리 25
(의료단) 19. 의료단원 현지활동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26
(의료단) 20. 의료단원 파견에 대한 수원국의 반응 및 평가 27
(의료단) 21. 의료단원파견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28

<태권도>

(태권도) 22. 태권도사범파견사업의 의의 및 개요 29
(태권도) 23. 태권도사범 파견실적(연도, 지역별) 및 현황 30
(태권도) 24. 태권도사범 자격요건 및 모집·선발절차 32
(태권도) 25. 태권도사범에 대한 처우실태 33
(태권도) 26. 태권도사범 근무실태 관리 34
(태권도) 27. 태권도사범 파견에 대한 수원국의 반응 및 평가 35
(태권도) 28. 태권도사범파견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36
(태권도) 29.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에 따른 추진방향 37
(태권도) 30. 태권도사범 파견협정 미체결 현황 38

<종합>

(종 합) 31. 전문인력파견사업의 중장기 발전방안 39

전문가 1. 전문가파견사업의 의의 및 개요

1. 의의

- ㅇ 개도국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우리의 개발경험 및 전문지식을 전수하여 능력계발을 지원하고,
- ㅇ 개발도상국 정부 또는 기관에 대한 지도와 자문을 통해 개도국의 경제사회개발 역량을 제고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음.

2. 개요

□ 파견유형

- ㅇ 개도국 정부로부터의 파견요청으로 양국 정부간 협의를 거쳐 파견하는 국별 파견과,
- ㅇ 국제기구로부터의 파견요청에 의하여 동 국제기구와 협의를 거쳐 파견하는 국제기구 파견으로 구분함.

□ 파견기관

- ㅇ 주로 개도국 정부, 정부관계기관, 공기업, 대학 등이며 아시아 공과대학원(AIT), 메콩강위원회 등 국제기구 산하기관에도 파견을 하고있음.

□ 활동내용

- ㅇ 개도국에 파견된 전문가는
  - 개도국의 국가경제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활동
  - 우리나라의 경제개발등 경험과 제도에 대한 소개 및 자문
  - 농업, 수산업, 광업 등 각 분야에 대한 기술 지도 및 전문지식의 전수

전문가 2. 전문가 파견실적(연도,지역,분야별) 및 현황

1. 연도별 파견실적('91-01.7)

□ '91.4월 협력단 설립이후 '01.7월 현재까지 73개국 5개국제기구에 총 544명을 파견함. '95년도에 77명으로 최다인원을 파견하였으며 '98년도에는 IMF로 인하여 31명만이 파견됨.

□ 금년도 계획은 20개국 2국제기구에 45명을 파견 예정이며 7월 현재 11개국 2국제기구에 19명을 파견하였음.

- 첨부 : 연도별 파견실적표

2. 지역별 파견실적('91-'01.7/544명)

□ 현재까지 파견된 544명의 전문가를 지역별로 보면 우리나라와 지리적,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아주지역에 43.4%인 236명의 파견을 비롯하여 미주지역에 93명(17.1%), 구주·CIS지역에 73명(13.4%), 중동지역 52명(9.6%), 국제기구 51명(9.3%) 및 아프리카지역 39명(7.2%)을 파견하였음.

- 첨부 : 지역별 파견실적표

3. 분야별 파견실적

□ 개도국들은 대부분 저개발 농업국가로서 농림수산분야 전문가가 최다인원인 189명(34.7%)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업분야에 80명(14.7%), 교육분야에 75명(13.8%), 공공행정분야 74명등 다양한 개도국의 요청분야에 전문가를 파견하였음.

- 첨부 : 분야별 파견실적표

< 첨부 >

1. 년도별 파견실적표('91-'01.7)

구 분	계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7.
국가수(국)/기구	73/5	23/2	28/3	33/3	36/3	42/5	34/2	23/3	17/3	22/4	20/2	11/2
인 원(명)	544	36	47	54	68	77	73	49	31	46	44	19

2. 지역별 파견실적표('91-'01.7)

구분	계	아주지역	미주지역	구주.CIS지역	중동지역	아프리카지역	국제기구
인원	544(명)	236	93	73	52	39	51
(비율)	(100%)	(43.4)	(17.1)	(13.4)	(9.6)	(7.2)	(9.3)

3. 분야별 파견실적표('91-'01.7)

구분	계	교육분야	공공행정	농림수산	공업분야	환경분야	기타
인원	544	75	74	189	80	31	95
(비율)	(100%)	(13.8)	(13.6)	(34.7)	(14.7)	(5.7)	(17.5)

- 기타 : 보건의료, 식수공급, 통신, 경영, 금융/재정, 무역/관광 분야

4. 파견현황(2001. 7월 현재)

○ 2001년도 계획은 20국 2국제기구에 45명 파견 예정이며

○ 금년 7월 현재 11개국 2기구에 19명을 파견하였음

연번	국명	전문가	분야	기간	파견기관	비 고
< 아주지역: 7개국 11명 >						
1	몽골	이홍철	재할인제도	'01.1.29-'01.2.11	몽골중앙은행	
2	몽골	윤장원	농업개발	'01.5.13-'01,8.13	몽골농과대학	
3	미얀마	마영일	잠종생산	'01.7.31-'01.10.30	농림부	
4	미얀마	김계명	육종	'01.5.28-'01.11.27	농림부	
5	부탄	박면권	양궁지도	'00.12.22-'02.12.21	부탄올림픽위원회	
6	스리랑카	김적교	경제기획	'01.4.19-'01.7.2	산업개발부	
7	스리랑카	강기룡	중소기업육성	'01.7.13-'01.9.12	산업개발부	
8	인도네시아	유병일	유역관리	'00.8.31-'01.8.30	산림부	
9	인도네시아	박창호	작물재배	'01.1.27-'02.1.26	인니비정규교육청	
10	캄보디아	문우식	시장경제	'01.7.12-'01.8.26	상무부	
11	태국	조규태	수산양식	'00.12.20-.01.4.19	태국부라파대학	
< 미주지역 : 1개국 1명 >						
12	페루	박수일	어류병리	'01.7.12-'01.8.26	해양연구소	
< 구주 · CIS지역 : 1개국 1명 >						
13	우즈벡	양길모	간호지도	'01.6.8-'01.7.7	보건부	
< 아프리카지역 : 2개국 3명 >						
14	이디오피아	류연하	원예	00.11.8-'01.5.8	농림부	
15	이디오피아	홍성해	수출진흥	'01.6.27-'01.9.26	수출진흥청	
16	탄자니아	박윤구	농업관리	'01.7.11-'02.1.10	농림부	
< 국제기구 : 2기구 3명 >						
17	AIT	이상곤	기술경영	'00.8.27-'01.8.31	아시아공과대학원	
18	"	이승환	환경기술경영	'00.12.31-'01.12.30	아시아공과대학원	
19	MRC	신희준	관개	'97.9.1-'01.8.31	메콩강위원회	

전문가 3. 전문가 직업별 · 파견기간별 최근 파견실적('96-'01)

1. 직업별 파견실적

□ 개도국에 파견되는 전문가는 국내 중앙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교육기관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적격자원을 선발하여 파견하고 있음.

- '96-01.7월 현재까지 262명의 전문가를 파견한 바 이중 국내 대학교 교수들이 86명(32.8%)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공공기관 직원이 82명(31.3%), KDI 등 연구기관의 연구원은 44명(16.8%), 민간기업 전문인력은 24명(9.7%), 기타 퇴직자 등은 26명(9.7%)을 파견하였음.

□ 전문가는 개도국에 파견되여 전문분야의 기술과 지식을 영어로 전달하여야 하므로 적격자원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2. 파견기간별 파견실적

□ 전문가는 파견기간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 파견으로 구분되며 단기파견은 3개월 미만, 중기파견은 3개월-1년까지, 1년이상 파견은 장기파견으로 분류하고 있음.

□ '96-'01.7월까지 총 262명의 전문가를 파견하였으며 단기는 53.1%인 139명, 중기파견 전문가는 22.1%인 58명, 1년이상 장기파견자는 65명(24.8%)임.

□ 개도국 정부에서는 우리 전문가들의 자문활동의 효율성의 제고를 위해 중,장기간의 파견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파견기간을 확대시킬 예정임.

< 첨부 >

1. 직업별 파견실적('96-'01.7)

(단위 : 명)

연도 / 직업	계(비율)	'96	'97	'98	'99	'00	'01.7
계	262(100%)	73	49	31	46	44	19
대학교수	86(32.8%)	28	18	9	10	15	6
공공기관직원	82(31.3%)	25	16	9	12	13	7
연구원	44(16.8%)	15	3	3	6	14	3
민간기업직원	24(9.7%)	4	4	5	9	1	1
기타	26(9.7%)	1	8	5	9	1	2

주) 연구원 : 정부출연연구기관(KDI, KAIST, 국립환경연구원등)
기타 : 퇴직자, 컨설턴트 등

2. 기간별 파견실적('96-'01.7)

(단위 : 명)

연도 / 기간		계(비율)	'96	'97	'98	'99	'00	'01.7
계		262(100%)	73	49	31	46	44	19
단기	1개월미만	55(21%)	36	10	1	3	4	1
	1개월이상 3개월미만	84(32.1%)	22	16	8	16	19	3
	소계	139(53.1%)	58(80%)	26(53%)	9(29%)	19(41%)	23(52%)	4(21.1%)
중기	3개월이상 6개월미만	33(12.6%)	4	3	3	5	12	6
	6개월이상 1년미만	25(9.5%)	1	4	5	9	3	3
장기	1년이상	65(24.8%)	10	16	14	13	6	6
	소계	123(46.9%)	15(20%)	23(47%)	22(71%)	27(59%)	21(48%)	15(78.9%)

전문가 4. 전문가 자격요건 및 모집·선발절차

1. 자격요건

ㅇ 지도 및 자문을 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학사학위 이상의 5년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해당분야 7년이상 실무경력자

ㅇ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지명요청이 있거나 사업목적을 위하여 협력단 총재가 특별히 인정하는 자

ㅇ 파견국에서 공용으로 사용되는 외국어 구사능력을 갖춘 자

2. 모집·선발절차

□ 모집

ㅇ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의거, 각급 행정기관, 정부투자·출연기관, 공공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전문가 추천을 의뢰하여 모집

ㅇ 신문공고를 통한 공개모집

ㅇ 협력단 전문가 Pool제에 등록된 후보 전문가중에서 모집

□ 선발

ㅇ 모집된 후보자에 대하여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적격여부 심사

- 면접은 선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되 전문성, 인성, 건강 및 지원동기 등에 대해 심사함.

ㅇ 적격 파견 후보자를 선발하면 파견후보자에 대한 수원국 정부의 수락 동의를 얻은 후 파견

전문가 5. 전문가에 대한 처우실태

1. 1년미만 파견 전문가

○ 전문가의 등급(1급, 2급, 3급) 및 파견국가에 따라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체재비는 차등이 있으나 1급 2호(1급이상 공무원, 대학 학장급) 전문가가 베트남, 태국 등의 국가에 파견되는 경우

- 1개월 파견시 약 미화$8,300
- 3개월 파견시 약 미화$19,500/월평균 미화$6,500의 체재비를 수령하게 되며, 동 경비에는 주택임차비가 포함되어 있음.

○ 상기 체재비 외에 왕복항공료, 재해보험료, 전문가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또한, 전문가들이 현지에서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현지 활동비를 파견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음(500-2,000$)

2. 1년이상 장기파견 전문가

○ 1년이상 장기 파견되는 전문가에게는 가족동반이 허용되며 체재비외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이전비 등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음.

- 가족수당 : 월 배우자 $300, 자녀 1인당 $60
- 자녀학비보조수당 : 월 $600
- 특수지근무수당 : $220~$1,160
- 이전비 : $820~$2,780

6. 전문가 중간·귀국 보고서 활용실태

1. 중간 및 귀국보고서 제출

○ 전문가 활동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위하여 전문가들의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파견전문가는 현지활동에 대한 중간 보고서를 재외공관을 통해 협력단에 제출하며, 귀국후에는 현지 활동에 대한 종합보고 및 사후평가 등을 위한 귀국보고서를 직접 제출하고 있음.

- 중간보고서는 6개월미만 파견자인 경우 매월, 6개월이상 파견자인 경우 매 3개월마다 제출함.
- 귀국보고서는 귀국후 1개월이내에 현지활동 총괄, 파견국·파견기관에 대한 정보 및 기타 사항 등을 작성하여 제출함.

2. 보고서의 활용

○ 대외적으로는 귀국보고서 등을 협력단 홈페이지에 게시, 전문가 파견 사업의 홍보와 함께 파견국, 파견기관, 파견분야 및 파견활동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 유관기관의 관심있는 사람들이 자유로이 열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있음.

○ 또한 중간보고서 및 귀국보고서를 CD롬으로 제작하여 국내연구기관 등에서 필요할 경우 참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협력단 내부적으로는 협력단의 지원 필요사항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차기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수행시 참고활용하고 있으며, 차기 파견자에 대한 교육 자료로도 활용하고 있음.

전문가 7. 전문가파견에 대한 수원국 반응 및 평가

□ 개도국들은 우리 전문가들의 활동이 자국의 관련분야의 기술향상과 전문인력양성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는 감사 표명과 함께 재파견 또는 후속 전문가의 파견을 계속 요청하고 있음.
개도국정부의 고위관료들은 우리 전문가들을 통하여 우리의 경제개발경험을 현지에서 직접 전수받고 상호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자국의 경제개발계획수립 등에 실질적인 자문이 되므로 기술격차가 심한 선진국 전문가들보다는 우리 전문가의 자문활동을 선호하고 있음.

(성공사례)

① '96년 휘지에 2개월간 '경제분야' 전문가로 파견된 한국외국어대학 김승진 교수는 휘지수상의 직접 요청에 따라 수상실에서 경제자문을 수행한 후 동 자문수행 결과를 정리, 공업화와 의식 개혁을 통한 경제개발 방안을 제시한 "휘지 근대화를 위한 개발 전략"을 수상에게 보고하여 높은 평가를 받음과 함께 재파견을 요청 받은 바 있음.

② '97~'98년 볼리비아에 1년간 '농업자원보존분야' 전문가로 파견된 농촌진흥청 안완식 연구관의 경우, 수원국의 "농업 생물유전자원 체계"를 수립하여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사의표명과 함께 감사장을 받음.

③ '98~'99년 3개월간 미얀마의 양곤기술대학교에 '효소기술분야' 전문가로 파견된 서울 산업대학교 장판식 교수의 경우, 대학원생 및 박사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실한 강의와 논문지도 및 실험실습을 수행하여 동대학 총장으로부터 호평과 함께 재파견을 요청 받은 바 있음.

전문가 8. 전문가 등록제도 운영현황 및 활용실적

1. 운영현황

○ 우수 전문가의 확보 및 파견확대를 위해 '92년부터 시작한 전문가 등록제도는 '98.8월 협력단 홈페이지 개설이후 인터넷을 통한 등록을 실시하고 있음.

- '98.8월이후 현재까지 등록한 인원은 265명에 이르고 있으며, 분야별로는 농림·수산 82명(31%), 경제·경영 34명(13%), 광공업 16명(6%), 전기·전자통신 16명(6%)의 순임.

2. 활용실적

○ '98.8월이후 등록된 전문가 265명중 현재까지 총 23명이 파견됨.

- 연도별로는 '98년 13명, '99년 4명, '00년 6명이고
- 분야별로는 농림·수산 11명, 경영·경제 4명, 컴퓨터 3명, 직업훈련 1명, 기타 수자원 관리 및 건축 등 4명임.

3. 문제점 및 향후 추진방향

○ 등록전문가 대다수가 현직자로 등록자 본인은 개도국에 파견을 희망한다 할지라도, 국내 소속기관에서는 인력운영상 파견을 허락하지 않아 파견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

- 또한 개별적으로 등록한 전문가의 자격, 경력, 전문지식과 기술에 대한 신뢰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여 있었음.

○ 따라서, 앞으로는 전문가 등록시 관련 주요 증빙서를 별도로 제출토록 하며 등록자의 전문지식과 기술수준에 대하여는 엄격한 기술면접을 실시하여 한국정부를 대표하여 파견되는 전문가로서 손색이 없도록 할 계획임.

전문가 9. 전문가 중도귀국 실태 및 조치사항

1. 중도귀국 실태

ㅇ 전문가는 대부분이 단기간(2-3개월)으로 파견되며 후보자 선발시 파견분야에 자격을 갖춘 인력을 선발하여 파견하므로 중도에 귀국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편임.

ㅇ 그러나, '99년 모로코에 파견되었던 자동차관리분야 정중호 전문가는 당초 6개월('99.9.1-00.3.1)간 활동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런 건강악화(위장출혈)로 파견 1개월여만에 중도귀국한 사례가 있음.

2. 조치사항

ㅇ 이에 따라 협력단은 동 전문가의 중도귀국후 1개월만에 신속하게 후임 전문가를 선발하여 재 파견함으로써 모로코측의 수요에 적극 대처하였음.

ㅇ 앞으로는 전문가 선발시에 건강진단서를 징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상기와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할 계획임.

전문가 10. 전문가의 파견기간 연장실태

□ 개도국에서 활동중인 전문가가 사유서, 파견기관의 확인서 또는 추천서 등을 구비하여 파견기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 전문가의 활동실적, 파견기관 및 공관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연장 승인을 해주고 있음.

□ 대부분 1년이상 장기파견 전문가가 파견기간을 연장하고 있는데 1년 단위로 파견계약을 체결하고 파견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필요시 파견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음.

○ '97년 메콩강위원회에 파견된 농업관개분야 신희준 전문가는 농업관개분야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추진, 파견지역의 지정학적인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매년 1년씩 연장하여 총 4년간 활동함.

○ '97년 인도네시아에 파견된 유역개발분야 최상균 전문가의 경우 체계적인 유역종합개발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98년 1년간 연장함.

○ '97년 부탄에 파견된 양궁코치분야 박면권 전문가의 경우 부탄 양궁선수단이 국제대회에서 최초로 금메달을 획득하여 국위선양은 물론 양국과 우호증진에 크게 기여한 바, 3차례 임기를 연장하여 '02.12.까지 총 5년 3개월간 활동예정임.

○ 2001년 스리랑카에 2개월간 파견된 경제기획분야 김적교 전문가는 주재국 산업부에서 스리랑카 경제기획수립에 동전문가의 경험과 경력을 높이 평가 파견기간을 2주 연장함.

전문가 11. 타 협력사업과 연계한 전문가 파견실적

□ 타 협력사업(프로젝트사업, 개발조사사업, 물자공여사업 등)과 연계하여 파견된 전문가는 '97년 2명, '98년 2명, '99년 2명, '00년 3명 및 '01년에 3명등 총 12명임.

□ 그러나, 협력단은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건립한 병원, 직업훈련원 등이 순조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기법 전수 및 사후관리 차원에서 보다 많은 전문가를 파견하여 타 협력사업과의 연계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임.

○ '00년에는 프로젝트사업('94-'96)으로 건립한 스리랑카 "한·스직업훈련원"에 직업훈련사후관리분야 전문가 2명(배정도, 정병우)을 파견하여 훈련원의 체계적인 운영, 교사관리, 교과과정 개발, 소프트웨어 운영법 지도 및 자문을 통해 동 훈련원이 원활히 운영되는데 기여함.

○ '99년에는 프로젝트사업('97-'98)으로 건립된 불가리아 소피아장애인복지센터에 장애자재활분야 김병식 전문가를 파견하여 재활의 개념정립, 장애별 최신치료법 강의 등을 실시함으로써 동 센터 직원을 교육함.

○ '98년에는 물자공여사업으로 지원된 벽돌제조기계의 사후관리차원에서 부탄에 기계분야 안광열 전문가를 파견하여 벽돌제조기계의 활용도를 높였으며, 인도로부터의 벽돌수입 비용을 절감토록 하였음.

○ '97년에는 "메콩강 델타지역 홍수조절" 개발조사사업('98-'00)과 연계하여 메콩강위원회에 농업관개분야 신희준 전문가와 수자원관리분야 이시현 전문가를 파견하여 동 개발조사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메콩강 유역의 관개분야 프로젝트 수행, 수자원 개발 등에 기여함.

전문가 12. 전문가 경비지급기준

1. 자격요건

ㅇ 전문가는 경력 등 자격요건에 따라 1급 1호에서 3급 2호까지 7등급으로 구분됨.

ㅇ 파견 전문가에게는 전문가 등급기준 및 파견기간에 따라 산출된 체재비를 지급.

자격 요건	구 분	
장·차관의 직위에 있던 자, 대학교 총장, 정부출연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	1급 전문가	1호
1급 이상 공무원, 4년제 대학의 학장 또는 6년이상 정교수의 경력자		2호
2급 이상 공무원, 4년제 대학의 정교수로 3년이상 경력자, 정부출연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의 임원으로 3년이상 경력자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으로 8년이상 경력자		3호
3급 이상 공무원, 4년제 대학의 정교수로의 경력자, 정부출연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의 임원 또는 5년이상 책임연구원 상당의 경력자	2급 전문가	1호
4급 공무원, 4년제 대학의 부교수 또는 2년이상 조교수의 경력자, 정부출연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의 부장급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의 경력자		2호
5급 공무원, 4년제 대학의 조교수 또는 2년이상 전임강사의 경력자, 정부출연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의 과장급 또는 선임연구원 상당의 경력자	3급 전문가	1호
3급 1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2호

2. 전문가 파견경비

ㅇ 전문가의 등급기준과 파견기간에 따라 경비를 산정하여 지급하며, 1개월 파견시 1급 전문가는 경력에 따라 $8,200~$11,580 정도임.

ㅇ 또한 1개월이상 파견시는 전문가파견경비 1개월분 산출액의 약 80%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급하고 있음.

< 첨부 >

(1개월 파견)

구 분		체재비			전문가 수당	계	비고
		일비	식비	숙박비			
1급 전문가	1호	$1,620	$2,052	$7,310	720,000원	$11,582	
	2호	$1,350	$1,944	$4,375	720,000원	$8,269	
	3호						
2급 전문가	1호	$1,215	$1,796	$4,239	540,000원	$7,700	
	2호	$1,080	$1,539	$3,726	540,000원	$6,795	
3급 전문가	1호	$945	$1,283	$3,213	360,000원	$5,741	
	2호	$810	$1,161	$2,822	360,000원	$5,093	

(2개월 파견)

구 분		체재비		전문가 수당	계	비고
		해외근무수당	숙박비			
1급 전문가	1호	$6,347	$11,699	720,000원	$18,646	
	2호	$5,628	$7,882	720,000원	$14,110	
	3호	$5,423	$7,882	720,000원	$13,605	
2급 전문가	1호	$4,953	$7,536	560,000원	$12,939	
	2호	$4,390	$6,624	560,000원	$11,464	
3급 전문가	1호	$3,844	$5,712	360,000원	$9,856	
	2호	$3,447	$5,027	360,000원	$8,774	

(3개월 파견)

구 분		체재비		전문가 수당	계	비고
		해외근무수당	숙박비			
1급 전문가	1호	$9,022	$16,088	720,000원	$25,710	
	2호	$7,962	$11,389	720,000원	$19,951	
	3호	$7,552	$11,389	720,000원	$19,541	
2급 전문가	1호	$6,895	$10,833	560,000원	$18,178	
	2호	$6,161	$9,522	560,000원	$16,133	
3급 전문가	1호	$5,460	$8,211	360,000원	$13,971	
	2호	$4,923	$7,232	360,000원	$12,455	

전문가 13. IMF 경제위기 극복경험 전수를 위한 전문가 파견계획

1. 파견요청

ㅇ 현재까지 우리의 IMF 경제위기 극복 경험을 구체적으로 자문해 달라는 전문가 파견요청은 아직 없어 파견된 사례는 없음.

- 다만, 2000.5월 불가리아 수출보험청에 파견된 수출보험분야 전문가가 불가리아 경제부, 재무부, 외무부 등 수출보험관련 정부부처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우리의 IMF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의 수출보험의 역할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음.

2. 향후 추진계획

ㅇ 그러나, 우리 정부는 '01. 8.월 IMF 외채를 모두 조기 상환하여 IMF를 성공적으로 극복했음.

ㅇ 따라서, 금년도 태국등으로 파견되는 경제분야 전문가들에게 개도국 고위관리들이 우리의 IMF 경제위기 극복경험을 협의하여 올 것으로 예상됨.

의료단원 14. 의료단원 파견사업의 의의 및 개요

1. 의 의

ㅇ 질병과 빈곤으로 고통받고 있는 개도국 주민들에게 우리 의료단원들의 의료 활동을 통하여 질병예방, 치료 및 건강증진을 추구하고,

ㅇ 현지 주민의 보건환경을 개선하고 양국간 우호협력관계 증진 및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그 의의가 있음.

2. 개 요

□ 파견현황

ㅇ 협력단이 설립된 '91년이래 '01.7월 현재 총 25국에 209명을 파견함

ㅇ 현재 이디오피아, 네팔, 페루, 모리타니아등 14개국에서 16명이 활동중임

□ 파견방법

ㅇ 개도국 정부의 파견요청에 따라 양국간 협의를 거쳐 의료단 파견협정(각서교환 또는 구상서)을 체결한 후 파견함

ㅇ 파견분야는 개도국의 요청에 근거하여 수원국과 협의하여 파견함

□ 파견대상기관

ㅇ 개도국 국·공립병원 및 협력단 지원으로 개도국건립된 병원 (페루 보건소, 한·우즈벡친선한방병원) 등

의료단원 15. 의료단원 파견실적(연도, 지역, 진료과목별) 및 현황

1. 파견실적

□ 연도별 · 지역별 의료단원 파견실적('91-'01.7월)

○ '91년 협력단 설립이후 현재까지 총 25개국에 209명의 의료단원을 파견함.

○ '96년도에 최고로 24명을 파견하였으며 현재는 14개국에 16명을 파견하고 있음. 매년 20여명 정도의 의료단원을 파견함.
- 첨부 : 연도별 · 지역별 파견실적표

○ 지역별로는 최빈국이 많은 아프리카지역에 106명(50.7%) 아주지역 26명(12.41%) 오세아니아지역 26명(12.4%) 구주 · CIS지역 22명(10.5%) 순임
- 첨부 : 연도별 · 지역별 파견실적표

□ 진료과목별 파견실적('91-'01.7월)

○ 총 209명중 양방분야 의료단원이 195명, 한방분야 의료단원은 14명임.

○ 양방 분야는 외과 60명(28.7%), 내과 51명(24.4%), 산부인과 24명(11.5%)등의 순으로 10개 분야의 의료단원을 파견함.

○ 한방분야는 14명 모두 한의사임.
- 첨부 : 진료과목별 파견실적표

<첨 부>

1. 연도별 · 지역별 파견실적표

구 분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7.	계
아주지역	1국 2명	1국 2명	2국 4명	3국 3명	4국 4명	5국 5명	6국 5명	6국 6명	6국 6명	6국 6명	8국 8명	8국 52명
미주지역	-	-	1국 1명	1국 1명	1국 2명	1국 2명	1국 2명	1국 2명	1국 2명	1국 2명	1국 1명	1국 15명
구주.CIS 지역	-	-	-	-	2국 3명	2국 3명	2국 3명	2국 3명	2국 3명	2국 3명	2국 3명	2국 22명
중동지역	1국 1명	1국 1명	1국 1명	2국 2명	2국 2명	2국 2명	1국 1명	1국 1명	1국 1명	1국 1명	-	2국 13명
아프리카 지역	9국 13명	10국 12명	11국 13명	11국 12명	10국 11명	10국 12명	8국 11명	6국 8명	6국 6명	5국 5명	5국 5명	12국 106명
계	11국 16명	12국 15명	15국 19명	17국 18명	19국 22명	20국 24명	18국 22명	16국 20명	16국 18명	16국 19명	14국 16명	25국 209명

2. 진료과목별 파견실적표

구 분	총계	외과	내과	산부 인과	이비인 후과	방사 선과	가정 의학	비뇨 기과	치과	소아과	신경 정신	한의 사
계	209	60	51	24	7	6	11	12	7	12	5	14
(%)	(100)	(28.7)	(24.4)	(11.5)	(3.3)	(2.9)	(5.3)	(5.7)	(3.3)	(5.7)	(2.4)	(6.7)

3. 파견현황(2001. 7월 현재)

ㅇ 14국에 16명이 활동중

연번	국 명	파견자	분 야	기 간	파견기관	동반 가족
< 아주지역 >						
1	네 팔	이용만	내과	'93.12.28-'01.12.27	Bhaktapur Hospital	처
2	라오스	김순남	소아과	'99.9.7-'01.9.6	Mittaphab Hospital	처, 자2
3	방글라데시	김선욱	가정의학	'01.3.30-'03.3.29	Dhaka Shishu Hospital	-
4	서사모아	최영전	소아과	'93.2.19-'01.2.18	Western Samoa Hospital	처
5	휘 지	이강국	산부인과	'97.12.23-'01.12.22	Fiji Rakiraki Hospital	처
6	팔라우	윤성일	외과	'96.3.2-'02.3.1	Belau National Hospital	처, 자2
< 미주지역 >						
7	페 루	문장호	비뇨기과	'93.10.6-'01.10.5	페루제1보건소	처, 자1
8	페 루	이동화	치과	'01.2.27-6.23	페루제1보건소	-
< 구주 · CIS지역 >						
9	우즈베키스탄	김현탁	한의사	'98.9.22-'02.9.21.	한.우친선한방병원	처, 자2
10	카자흐스탄	선종욱	한의사	'00.2.1-'02.1.31	한.카친선병원	처, 자2
11	카자흐스탄	민병훈	외과	'95.7.7-'01.7.6.	한.카친선병원	처
< 아프리카지역 >						
12	가 나	최경만	가정의학	'01.7.3-'03.7.2	Tema Poly Clinic	처, 자1
13	모리타니아	최상일	일반외과	'00.12.29-02.12.28	누악쇼트중앙병원	처, 자2
14	우간다	유덕종	내과	'92.6.20-'02.6.19	Mulago Hospita	처, 자3
15	이디오피아	유민철	성형외과	'75.7.4-'01.6.30	Black Lion Hospital	처
16	카메룬	김시원	외과	'93.10.12-'01.10.11	L'hopital Central de Yaounde	처

의료단원 16. 의료단원 자격요건 및 모집·선발절차

1. 자격요건

ㅇ 신체가 건강하고 국가관이 투철한 대한민국 국민

ㅇ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2. 모집·선발절차

□ 모 집

ㅇ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의거, 공고에 의하거나 또는 공공단체 및 협회, 관계기관의 추천을 통해 모집

ㅇ 외국에 거주하는 자는 재외공관장의 추천을 받아 응시 가능

□ 선 발

ㅇ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적격여부 심사 후 파견후보자를 선발함.

- 심사위원회에서는 전문의료기술, 인성 및 건강상태, 지원동기 등을 고려하여 봉사활동 정신을 보유한 적합한 의료단원을 선발하고 있음.

① 전문기술 및 경험 (국내외경력, 해외근무경험, 외국어 구사력)

② 인성 및 건강상태 (성실성, 신체 및 정신건강도, 원만한 성격)

③ 기 타 (지원동기, 투철한 국가관, 현지 적응력 등)

ㅇ 적격 파견후보자를 선발하면 파견후보자에 대한 수원국 정부의 수락 동의를 얻은 후 파견함.

□ 소요기간

ㅇ 의료단의 모집선발기간은 일반적으로 모집공고부터 선발이 완료되기까지 2~3개월이 소요됨.

의료단원 17. 의료단원에 대한 처우실태

□ 파견 의료단원에 대해서는 크게 보수, 복리후생 및 퇴직금, 현지 활동지원의 3가지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음.

1. 보수 및 수당

ㅇ 매월 의료단원들에게는 경력에 따라 $2,170-$2,730의 기본급에 자격수당, 가족수당, 계약갱신수당 등을 합산하면 월평균 $3,000-$4,500 정도의 보수가 지급됨.

2. 복리후생비

ㅇ 복리후생비로는 주택수당, 휴가비, 재해보험,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을 지급함.

- 주택수당 : 수원국측이 주택을 미제공시 재외공관의 요청에 따라 예산범위내 지급
- 휴 가 비 : 파견기간이 2년이상 경과한 경우 매 2년마다 본인 및 동반가족에 대해 규정에 정한 목적지까지의 왕복항공료 지급
- 자녀학비보조수당 : 자녀 1인당 월 $600 기준으로 지급

3. 현지활동지원

ㅇ 현지의료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지 활동비와 국내 정기간행물 등을 보내주고 있음.

ㅇ 현지활동비는 1인당 년간 $6,000이내에서 현지 의료활동에 필요한 의약품 등을 지원함.

ㅇ 그외 국내 정기간행물, 의학신문, 학회지 등 자료를 제공함.

의료단원 18. 의료단원 근무실태 관리

1. 근무실태 관리방법

ㅇ 파견 의료단원은 활동보고서를 매분기(년 4회)마다 직접 작성하여 재외공관에 제출하고, 재외공관은 의료단원에 대한 복무실태 조사서를 매반기(년 2회)마다 작성, 재외공관이 동 서류들을 외교통상부를 경유, 협력단에 송부하고 있음.

- 복무실태 평가항목 : 직무충실도, 대공관협조, 외국어 구사능력, 동료 및 교민과의 인화, 건강상태, 가족관계, 접수국반응, 품위유지 (8개 항목)
- 각 항목의 평점은 우수(5점), 보통(3점), 열등(1점)으로 구분하며 총평점은 40점 만점 기준임.

ㅇ 협력단은 동 서류를 통해 의료단의 근무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아울러, 필요시 협력단 관계직원이 파견지역 현지출장을 통해 근무실태를 조사하고 있음.

ㅇ 협력단은 상기 근무실태 보고서를 의료단원의 계약기간 연장 신청시 연장승인을 위한 검토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2. 근무실태관리 내실화

ㅇ 파견의료단원에 대한 근무실태관리의 내실화를 위해

- 기본적으로는 파견자 개인의 자율적이고 성실한 복무자세를 유도하고
- 의료단원 파견국 주재 아국공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근무실태 평가기능의 강화 및 실질적인 평가 정착을 도모해 나갈 계획임.

의료단원 19. 의료단원 현지활동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1. 애로사항

ㅇ 의료단원의 경우 개도국 근무병원에서 진료활동시 기본적인 의료시설과 장비가 열악하고 의약품이 부족하여 의료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애로가 많음.

ㅇ 뿐만 아니라 현지 병원의 의료인력(의사, 간호사)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여러 종족의 환자를 진료함에 따라 언어소통에도 애로가 있음.

2. 개선방안

ㅇ 현재 활동중인 의사 1인당 년간 6,000불 범위에서 진료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 우리 의료단원들을 파견한 개도국 병원에 국산 의료장비와 의약품의 지원을 확대하도록 할 계획임.

ㅇ 또한, 우리 의료단원들이 파견된 개도국의 병원에 국제협력의사와 간호분야 봉사단원을 추가로 파견하여 한국 의료단원들의 의료활동의 효과를 제고하도록 하겠음.

의료단원 20. 의료단원 파견에 대한 수원국의 반응 및 평가

□ 의료환경과 시설이 열악한 개도국 국민들의 질병퇴치와 예방을 위해 개도국에 파견되어 헌신적인 의료활동을 펴고 있는 우리 의료단원들은 개도국 현지 주민들로부터 깊은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으며 우리 의료단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해당국 고위 인사들은 여러차례 우리 정부에 감사를 표명하고 있음.

(실례)

① '92.6월부터 현재까지 우간다 Mulago 병원에서 활동중인 유덕종 의료단원(내과)은 기관지 내시경의 활용을 통한 치료법을 현지에 개발하여 정착시켰으며, 에이즈 환자에게 흔히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 치료를 위해 관련 학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학회에 배포하는 등 헌신적인 의료활동을 통해 우간다 의료분야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② 1975.7월부터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 한국 정부파견의사로 파견된 성형외과 유민철 의사는 아디스아바바의 블랙라이언 국립병원에서 근무하면서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프리카 주민들을 위해 헌신적인 진료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지 주민들로부터 '코리안 슈바이처'로 불리우고 있음.

③ '93.10월부터 현재까지 페루에 파견되어 활동중인 문장호 의료단원(비뇨기과)은 KOICA 프로젝트사업으로 건립된 까야오 제1한.페의료센타에 근무하며 동 의료센터를 지역내 40개 보건소중 최고병원으로 자리잡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여 페루 보건당국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으며, 동 문장호 의사의 진찰권을 받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는 등 현지 주민들의 반응이 대단히 높음.

의료단원 21. 의료단원파견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현 황

ㅇ 91년부터 2001년 7월까지 총 파견인원은 25개국 209명이며

ㅇ 현재 활동인원은 14개국 16명임.

2. 문제점

ㅇ 우수, 적격 인적자원 확보의 어려움

- 국내의료진들의 생활여건 향상과 현지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개도국 파견 지원자 감소

ㅇ 현지활동에 대한 지원 미흡

3. 개선방향

ㅇ 파견지역 다변화와 국제협력의사 파견으로 우수인력 확보

- 의료단의 파견지역을 환경이 열악한 아프리카지역 위주에서 탈피하여 아시아, 중남미 등의 개도국으로 다변화
- 1995.3월 부터는 병역대체인력인 국제협력의사로 대체하여 파견하고 있음.

ㅇ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 파견하여 파견효과를 제고

※ ①페루 : 제1,2한.페 의료센타 ②방글라데시 : 한·방 우정병원 ③우즈베키스탄 : 한-우즈벡 친선한방병원 ④카자흐스탄 : 한-카자흐 친선병원

ㅇ 현지활동 지원강화 및 점진적 처우개선

- 의료단원들의 현지생활비 인상, 국산 의약품 및 의료장비 지원 확대(현재는 의사 1인당 연간 $6,000) 등

태권도사범 22. 태권도사범 파견사업의 의의 및 개요

1. 의 의

○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권도를 개도국에 널리 보급하여 우리의 고유문화를 보급 전수하고,

○ 개도국 주민들이 태권도 수련을 통해 건강증진을 도모하며 개도국 고위인사들의 친한 인사 저변확대로 양국간의 우호협력관계 증진을 도모함에 그 의의가 있음.

2. 개 요

□ 파견현황

○ 협력단이 설립된 '91년이래 '01.7월 현재까지 총 27개국에 175명을 파견하였음.

○ 현재 미얀마, 불가리아, 세네갈, 튀니지 등 14개국에 14명이 활동중이며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됨에 따라 많은 개도국에서 파견을 요청하고 있음.

□ 파견방법

○ 개도국 정부의 파견요청에 따라 태권도사범 파견협정(각서교환 등)을 체결한 후 적격자를 선발하여 파견함.

□ 파견대상기관

○ 파견국의 체육부, 태권도협회, 태권도연맹 등에서 근무하며, 파견국 국가대표팀등을 지도함.

태권도사범 23. 태권도사범 파견실적(연도,지역별) 및 현황

1. 파견실적

□ 연도별 실적('91-'01.7)

○ 태권도 파견사업은 91년 협력단 설립이후 현재까지 27개국에 175명을 파견하였으며 현재 14개국에 14명이 활동중에 있음. 그러나, 태권도가 2000년도 시드니 올림픽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으며 2004년 아테네 올림픽부터는 영구종목으로 채택됨에 따라 개도국의 파견요청이 증가하고 있음.

- 첨부 : 연도별 · 지역별 파견실적표

□ 지역별 실적('91-'01.7)

○ 아프리카 지역은 '91년도 7개국에 8명이 파견되어 활동하였으나 동서 냉전체제의 와해에 따른 정치외교차원의 사범파견 필요성이 약화되고 현지의 열악한 근무환경 사유로 현재 3국 3명만이 활동하고 있음. 현재는 근무 환경과 주민들의 호응이 높은 아시아, 중동 지역 국가를 중심으로 파견되어 활동하고 있음. 1993년에는 러시아에 최초로 태권도사범을 파견하였고 중남미 국가의 경우 현지거주 한인교포들이 태권도사범으로 활동하고 있어 파견하고 있지 않음.

- 첨부 : 연도별 · 지역별 파견실적표

<첨부>

1. 연도별 · 지역별 파견실적표

지역별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7	계
아주지역	4국 4명	5국 5명	5국 5명	4국 4명	4국 4명	5국 5명	5국 5명	5국 5명	5국 7명	6국 6명	6국 6명	8국 56명
구주.CIS 지역	-	-	1국 1명	1국 1명	1국 1명	1국 1명	1국 1명	1국 1명	-	2국 2명	2국 2명	3국 10명
중동지역	6국 8명	6국 7명	6국 8명	4국 6명	4국 5명	4국 6명	5국 8명	5국 8명	4국 4명	5국 5명	5국 5명	8국 70명
아프리카 지역	7국 8명	7국 8명	6국 7명	3국 3명	3국 3명	2국 2명	2국 2명	2국 2명	1국 2명	1국 1명	1국 1명	8국 39명
계	17국 20명	18국 20명	18국 21명	12국 14명	12국 13명	12국 14명	13국 16명	13국 16명	10국 13명	14국 14명	14국 14명	27국 175명

2. 파견현황(2001.7월 현재)

연 번	국 명	파견자	기 간	파견기관	동반
< 아주지역 >					
1	네팔	권영달	'00.10.10-'02.10.9	네팔경찰학교	처
2	미얀마	전웅환	'90.7.7-'02.7.6	미얀마체육부	처, 자2
3	베트남	노광엽	'99.12.27-'01.12.26	하노이체육국	처
4	스리랑카	이기수	'00.4.19-'02.4.18	스리랑카태권도협회	처
5	인도네시아	오일남	'91.7.1-'00.6.30	인니태권도협회	처, 자2
6	캄보디아	최용석	'96.12.11-'00.12.10	캄보디아태권도협회	처, 자1
< 구주 · CIS지역 >					
7	불가리아	김 호	'00.7.12-'02.7.11	불가리아태권도협회	처
8	키르키즈스탄	이승규	'00.5.25-'02.5.24	키르키즈태권도협회	처, 자2
< 중동지역 >					
9	시리아	전상호	'98.12.27-'00.12.26	시리아태권도협회	처
10	예멘	김병훈	'99.12.30-'01.12.29	예멘태권도협회	처
11	이집트	임한수	'86.6.11-'00.6.10	이집트태권도협회	처, 자2
< 아프리카지역 >					
12	리비아	김홍식	'00.4.10-'02.4.9	리비아태권도협회	처
13	세네갈	박익수	'93.10.22-'00.10.21	국립경찰학교	처, 자2
14	튀니지	임봉덕	'94.11.3-'00.11.2	튀니지태권도협회	처, 자2

태권도사범 24. 태권도사범 자격요건 및 모집·선발절차

1. 자격요건

ㅇ 국가관이 투철한 35세미만의 대한민국 국민
ㅇ 신체가 건강하고 태권도 4단이상인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2. 모집·선발절차

□ 모 집
ㅇ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의거, 공고 또는 공공단체 및 협회, 관계기관의 추천을 통해 모집
ㅇ 외국에 거주하는 자는 재외공관장의 추천을 받아 응시가능

□ 선 발
ㅇ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적격여부 심사 후 파견후보자를 선발함.
- 심사위원회에서는 전문기술, 인성 및 건강상태, 지원동기 등을 고려하여 적격 태권도사범을 선발하고 있음
① 전문기술 및 경험 (전문성, 국내외경력) - 50점
② 인성 및 건강상태 (성실성, 신체 및 정신건강, 원만한 성격) - 20점
③ 기타 (지원동기, 외국어구사력, 투철한 국가관, 현지적응력 등) - 30점

□ 소요기간
ㅇ 태권도사범의 모집선발기간은 일반적으로 모집공고부터 선발이 완료되기까지 2~3개월이 소요됨.

태권도사범 25. 태권도사범에 대한 처우실태

□ 파견사범에 대해서는 보수, 복리후생 및 퇴직금, 현지활동지원의 3가지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음.

1. 보수 및 수당

○ 매월 태권도사범들에게는 경력에 따라 $1,350-$1,550의 기본급에 가족수당, 계약갱신수당, 벽지수당 등을 합산하면 월평균 $1,700-$2,500 정도 지급됨.

2. 복리후생비

○ 복리후생비로는 주택수당, 휴가비, 재해보험,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을 지급함.

- 주택수당 : 상대국측 미제공시 재외공관의 요청에 따라 예산 범위내 지급
- 휴가비 : 파견기간이 2년이상 경과한 경우 매 2년마다 본인 및 동반가족에게 대해 규정에 정한 목적지까지 왕복항공료 지급
- 자녀학비보조수당 : 자녀 1인당 월$600 기준으로 지급

3. 현지활동 지원

○ 태권도 용품등 현지활동에 필요한 물품들을 연간 1인당 $4,000 범위내에서 지원함.

태권도사범 26. 태권도사범 근무실태 관리

1. 근무실태 관리방법

○ 파견 태권도사범은 활동보고서를 매분기(년 4회)마다 직접 작성하여 재외공관에 제출하고, 재외공관은 태권도사범에 대한 복무실태조사서를 매반기(년 2회)마다 작성, 재외공관이 동 서류들을 외교통상부를 경유, 협력단에 송부하고 있음.

- 복무실태 평가항목 : 직무충실도, 대공관협조, 외국어 구사능력, 동료 및 교민과의 인화, 건강상태, 가족관계, 접수국반응, 품위유지 (8개 항목)
- 각 항목의 평점은 우수(5점), 보통(3점), 열등(1점)으로 구분하며 총평점은 40점 만점 기준임.

○ 협력단은 동 서류를 통해 태권도사범의 근무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아울러, 필요시 협력단 관계직원이 파견지역 현지출장을 통해 근무실태를 조사하고 있음.

○ 협력단은 상기 근무실태 보고서를 태권도사범의 계약기간 연장 신청시 연장승인을 위한 검토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2. 근무실태관리 내실화

○ 파견 태권도사범에 대한 근무실태 관리의 내실화를 위해

- 기본적으로는 파견자 개인의 자율적이고 성실한 복무자세를 유도하고
- 태권도사범 파견국 주재 아국공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근무실태 평가기능의 강화 및 실질적인 평가 정착을 도모해 나갈 계획임.

태권도사범 27. 태권도사범 파견에 대한 수원국의 반응 및 평가

□ 수원국들은 태권도가 건전하고 체력증진에 적합한 스포츠라는 인식과 함께 국민건강을 위한 생활체육으로 보급·활성화 되기를 적극 희망하고 있으며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태권도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후 개도국들은 올림픽 메달획득을 목표로 태권도 사범 파견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표명함.

(성공사례)

①'91.7월부터 현재까지 11년동안 인도네시아 태권도협회에서 활동중인 오일남 사범의 경우 '98.9월 인도네시아 체육의 날에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인도네시아 대통령상을 수상함.

②'96.11월부터 현재까지 5년간 캄보디아 태권도협회에서 활동중인 최용석 사범의 경우 치안 및 사회기간시설 등이 열악함에도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통하여 국제경기에서 사상 처음으로 메달을 획득하는 등 한·캄보디아 우호 증진에 기여하고 주재국 태권도 보급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둠.

③'86.6월부터 01.7월 현재까지 15년간 이집트 태권도 협회에서 활동중인 임한수 사범은 이집트 태권도 국가대표팀 및 경찰대학 간부 및 학생들을 지도하여 아국의 국기인 태권도를 보급 육성, 주재국 태권도팀이 아프리카 지역은 물론 각종 세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했음. 특히 태권도를 이집트 경찰대학의 정식과목으로 채택하게 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

태권도사범 28. 태권도사범파견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현 황

○ '91년 협력단 설립이후 '01.7월 현재까지 총 27개국에 175명을 파견하였음.

○ '01.7월 현재 파견되어 활동하고 있는 태권도 사범은 14개국에 14명임.

2. 문제점

○ 현재의 태권도사범의 처우가 낮아 우수한 태권도사범의 모집·선발이 곤란함.

○ 현지활동에 필요한 태권도관련 물품지원 미흡

- 연간 태권도사범 1인당 $4,000내에서 현지에서 필요한 태권도 관련물품을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요청수요에는 크게 못미치고 있는 실정임

3. 개선방향

○ 태권도사범 파견은 개도국 국민의 건강증진(보건)에 기여할 수 있는 ODA사업으로서 태권도가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세계의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게됨에 따라 개도국으로부터 태권도사범 파견요청이 증가하고 있음

○ 따라서 협력단은 늘어나는 태권도사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로서 현재 활동중인 태권도사범의 처우를 개선하여 우수한 사범들이 응모토록 할 계획임

○ 현지활동지원에 필요한 물품지원 경비의 증액도 검토하고 있음.

태권도사범 29. 2000년 시드니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에 따른 향후 추진방향

1. 현 황

ㅇ 협력단이 설립된 '91년이래 '01.7월 현재까지 총 27개국에 175명을 파견한바 있으며, 2001년 7월 현재 14개국에서 14명이 활동중에 있음.

2. 태권도사범 파견은 ODA사업에 포함

ㅇ 태권도사범 파견사업은 개도국의 경제사회발전 도모라는 ODA사업의 고유목적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논란이 제기된 적이 있었음.

ㅇ 그러나 태권도사범 파견은 개도국 국민의 건강증진(보건)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ODA통계중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Culture and Recreation)'분야로 분류되어 ODA실적에 포함되고 있음.

3. 향후 추진방향

ㅇ 태권도가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고,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부터는 영구종목으로 채택됨에 따라 수원국 정부 및 국민들 사이에 태권도에 대한 관심이 대폭 고조되어, 태권도사범 파견을 희망하는 국가도 증가하고 있음. 우리나라 국기인 태권도의 세계화 측면에서 태권도사범 파견을 계속 확대 추진할 계획임.

ㅇ 아울러, 태권도를 통해 한국의 고유문화를 전파하고, 개도국 지도계층의 친한인사 저변확대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효과적임 .

태권도사범 30. 태권도사범 파견협정 미체결 현황

1. 미체결국 현황

○ 현재 태권도사범이 파견된 국가는 14개국으로 이중 파견협정이 미체결된 국가는 인도네시아 1국임.

○ '91년도에 상기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태권도사범 파견요청에 의거, 태권도 사범을 선발한 후에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발생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선파견, 후협정 체결키로 하고 태권도 사범을 '91.7.1 파견하였음.

2. 현재 추진현황

○ 그동안 인도네시아 정부측은 태권도사범 파견 관련 협정체결에 비협조적이었으나 태권도가 2000년 호주 시드니 올림픽에서 정식종목으로,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부터는 영구종목으로 채택됨에 따라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금년 7월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협정안(교환각서)을 우리측에 전달하여 현재 우리 외교부에서 그 문안을 최종 검토하고 있음.

○ 동 협정안(교환각서)은 인도네시아측과 최종 협의후 금년 10월경에 협정을 체결할 예정임.

종합 31. 전문인력파견사업의 중장기 발전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ㅇ 전문인력파견사업은 우리의 전문인력(전문가, 의료단원, 태권도사범)을 근무 및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한 개도국에 파견하는 사업으로 국내의 안정된 생활을 수개월 또는 수년간 중단하고 개도국에 나가려는 전문인력들이 많지 않아 적격자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

ㅇ 특히 이러한 현상은 국내생활이 안정된 의료단원 파견의 경우 더욱 두드러지며, 전문가 파견의 경우 1년 또는 수개월동안 국내활동을 중단하고 해외에 파견될 수 있는 어학과 전문적인 기술능력을 갖춘 적격 전문가를 선발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태권도사범 파견의 경우 처우조건이 다소 낮아 우수 사범의 확보가 쉽지 않은 실정임.

2. 대책

ㅇ 협력단은 이러한 전문인력 확보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금년부터는 연초에 당해연도 전문인력 파견계획(파견분야, 파견국가 등)을 일간신문, 협력단 홈페이지 등에 광고하여 일반국민들에게 전문인력파견사업을 널리 홍보하고 유관기관·단체에도 사전 통보함으로써 많은 우수한 전문인력들이 사전에 파견희망을 신청토록 하는 방안을 실시하고 있음.

3. 발전방안

○ 전문가 파견의 경우 우리의 경제개발 및 IMF 경제위기 극복경험을 전수하기에 중요한 사업임을 감안, 전문가 등록자원의 양적 및 질적 확대노력을 강화하여 (현재 등록인원 265명) 연간 파견인원을 현행 40여명 수준에서 2~3년내 60여명 파견으로 증원해 나갈 예정임.

○ 의료단원 파견의 경우 파견지역을 아프리카 지역 중심에서 아시아,중남미 지역의 의료낙후 개도국으로 파견국을 다변화하고, 파견인원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협력단이 프로젝트 사업으로 지원한 병원에 의료단원 파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며, 파견희망자가 없어 의료단파견이 어려운 경우 국제협력의사로 대체하여 파견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임.

○ 태권도사범 파견은 개도국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ODA사업으로서 태권도가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고,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부터는 영구종목으로 채택됨에 따라 세계의 많은 관심과 함께 개도국으로부터 태권도사범 파견요청이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협력단은 늘어나는 태권도사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로서 현재 활동중인 태권도사범의 처우를 개선하고 상향조정된 정년(45세-50세)을 적극 홍보하여 태권도사범파견을 확대할 계획임.

개 발 조 사

(개발조사) 1. 사업의 정의 및 효과(필요성) 1
(개발조사) 2. 사업선정 절차 및 기준 2
(개발조사) 3. 중점지원분야 및 선정기준 3
(개발조사) 4. 후속사업으로 연계된 실적 4
(개발조사) 5. 아국 기술용역업체 육성효과 7
(개발조사) 6. 협력단 설립이후 사업실적('91-'01.7) 8
(개발조사) 7. 사업시행자 선정방법 9
(개발조사) 8. 보고서 평가방법 10
(개발조사) 9. 우리기업 성공 진출사례(EDCF 연계등) 11
(개발조사) 10. 사업평가 현황 및 사후평가 강화방안 12
(개발조사) 11. 후속사업 연계강화 방안 14
(개발조사) 12. 개발조사사업 확대방안 16
(개발조사) 13. 베트남 하노이 신도시개발 타당성조사 내용 및 진행현황 17
(개발조사) 14. 자원개발분야 사업의 추진현황 및 확대방안..... 18
(개발조사) 15. EDCF와의 연계부진 사유 및 연계강화 방안 19
(개발조사) 16. 후속사업과의 연계부진 사유 및 연계강화 방안 21

< 첨 부 > 1. 국가별 개발조사 추진내역('91-'01)
2. 국가별, 분야별 개발조사 현황('91-'01)

개발조사 1. 개발조사사업의 정의 및 효과(필요성)

1. 개발조사사업의 정의

ㅇ 개도국의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개발사업**에 대해 **타당성조사, 실시설계** 또는 **종합개발계획 수립** 등의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2. 사업효과(필요성)

가. 수원국측

ㅇ 사업추진 타당성여부 확인 및 우선순위 결정 등 **정책결정의 기초자료**로서 이용

ㅇ 선진국 및 국제금융기관에 **본 사업 실시에 필요한 자금지원 요청시 근거자료**로 활용

나. 우리나라측

ㅇ **우리 기술용역업체 및 건설업체의 해외진출 기반 조성에 기여**

- 우리 업체들에 **해외경험 축적기회를 제공**, 궁극적으로 **아국업체의 해외수주활동에 기여**함은 물론,
- 수원국정부에서 본 사업 추진시, **관련정보 선점** 및 **기득권**을 통해 우리기업의 **수주기회 확대에 기여**

ㅇ **수원국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정보 및 자료의 수집 및 활용**

- 사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되는 수원국의 사회간접자본, 광물자원등 관련분야의 **심도있는 정보 및 자료**를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등에 활용**

개발조사 2. 개발조사사업의 선정절차 및 기준

1. 선정절차

① 수요조사 실시 및 사업요청서 접수

- 재외공관 및 국내 유관기관을 통해 수원국 정부로부터 사업요청서 접수

② 후보사업 선정

- 사업선정위원회에서 사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심의 및 선정

③ 후보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실시

- 사업성검토 및 사업실시여건 등을 확인하기 위한 사전조사단 파견

④ 지원대상사업 선정 및 확정

-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선정위원회에서 지원여부 결정
- 외교통상부의 승인을 받아 사업확정

2. 선정기준

ㅇ 후보사업(사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 정부간 약속사업
- 수원국정부의 중점 추진사업으로 재외공관장이 추천한 사업
- 수원국의 국가개발 계획상 우선순위가 높고 경제발전 및 국민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양국 상호 호혜적인 사업
- EDCF와 연계가능성이 높은 사업

ㅇ 지원대상사업

-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성 및 사업실시여건이 양호하고, 수원국정부의 사업추진의지가 확인된 사업

개발조사 3. 개발조사사업의 중점지원분야 및 선정기준

1. 중점지원 분야

ㅇ **사회간접자본**(도로, 전력 등), **정보통신**, **자원개발** 등.

2. 중점지원분야 선정기준

ㅇ **수원국측면** : 수원국의 **국가개발계획상 우선순위**

ㅇ **우리측면**

. **아국 비교우위**(예: 전력, 정보통신, 신도시건설 등)

. **아국 건설업체의 해외진출 촉진**(예: 도로, 전력, 신도시건설)

. **수출유발효과**(예: 정보통신분야)

. **해외자원확보**(예: 자원개발, 기초지질조사)

. **글로벌 이슈에 부합**(예: 환경, 보건) 등임.

3. 지원분야의 다양화 추진

ㅇ 향후는 기존의 사회간접자본, 광물자원 분야외에 **제도구축(Institution Building)**, **과학기술** 등의 분야도 발굴, 지원 예정임.

- 제도구축지원 분야 : 조세제도 구축, 협동조합제도 구축 등
- 과학기술 분야 : 대체에너지 개발 등

개발조사 4. 개발조사사업이 후속사업으로 연계된 실적

1. 연계실적

○ '91년부터 '2001년 7월말까지 완료된 개발조사사업 35건중('01.7월말 현재 총 45건 지원), **총 26건(74%)의 개발조사결과가 후속사업에 연계 또는 활용**되고 있음.

- **EDCF와 연계된 것 : 3건**
- **우리기업이 관련 건설공사를 직접 수주한 것 : 1건**
- 수원국에서 직접 본사업을 착수한 것 : 6건
- 수원국에서 직접 본사업 착수를 준비중인 것 : 4건
- 수원국 국토개발 기본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것 : 6건
- EDCF 신청준비중인 것 : 6건 등임.

2. 대표적인 사례

○ **한국전력에서 "필리핀 바탄-말라야 복합화력발전소건립 타당성 조사사업"**('93.10-'94.4/374천불)의 성공적인 수행을 토대로 필리핀 정부 발주 **화력발전소건설시공사업 2건(8억불) 수주**

- 필리핀정부로부터 사업수행업체인 한국전력기술(한전 자회사)의 기술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고, 사업수행기간중 필리핀 전력현황전반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이를 기반으로 2건의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주

- 수주공사 2건 내역
  . 말라야화력발전소 1,2 호기 성능복구공사(약 1억불/'95.5-'99.3)
    * 한전상업운전기간: 1999.3-2009.6(10년)
  . 일리한 화력발전소 건설공사(7억불/'99.3-2002.2)

☞ 「개발조사사업 결과 활용사례」 참고

<참고> 개발조사사업 결과 활용 사례

구 분	사 업 명	비 고
EDCF 연계 (3건)	네팔 모디강 수력발전소 건설 실시설계('93~'94/ 730천불)	현대엔지니어링이 시행 EDCF : 15백만불
	베트남 N-18국도 개량 타당성조사 ('93~'94/ 558천불)	(주)대우가 시행 EDCF : 24백만불
	요르단 폐수처리장 확장 타당성조사 사업('95-'96/ 974천불)	코오롱건설, 삼성물산 공동시행 EDCF : 9백만불
아국기업 관련공사 수주(1건)	필리핀 바탄-말라야 복합화력발전소 건립 타당성조사 ('93~'94/ 374천불)	필리핀 발주 전력사업 2건 직접수주 효과 공사비 : 약8억불
수원국에서 본 사업 착수(6건)	이집트 시나이반도 기술단지 개발조사 ('97~'98/ 990천불)	이집트 정부 자체 건설중
	인니 발리섬 도로망 개발조사 ('94~'95/ 715천불)	인니 정부 자체적으로 도로건설중
	중국 신강성 광물자원 조사 1차 및 2차 (2건) (1차 : '93~'96/ 908천불) (2차 : '96~'98/ 298천불)	중국 정부 자체적으로 광산 개발중
	중국 복건성 광물자원 조사 ('94~'97/ 990천불)	중국 정부 자체적으로 광산 개발중
	중국 호남성 당관포 광물자원조사 ('98~'01/415천불)	중국 정부 자체적으로 광산 개발중
수원국에서 본 사업 착수준비중 (4건)	과테말라 광물탐사사업 ('94~'98/ 587천불)	과테말라 정부 자체적으로 광산개발 계획중
	베트남 하노이 신도시개발 타당성조사('99~'01/905천불)	베트남정부에서 신도시 개발 추진중
	인니 석탄성형기술 개발조사 ('95~'98/ 579천불)	인니 정부 자체 활용중 (향후 아국장비 수입 계획)
	인니 북수마트라 전력개발사업 ('92~'94/ 467천불)	민간자본으로 본사업 실시예정

구 분	사 업 명	비 고
수원국 국토 개발 기본 자료로 활용 (6건)	몽골 동북아시아 종합개발계획수립 ('97-'98/330천불)	-
	베트남 자원개발협력사업 ('93~'96/ 977천불)	-
	중국 미산-당비간 철도건설 타당성 조사('97-'98/330천불)	-
	필리핀 파나온섬 지질조사 ('92~'93/ 193천불)	-
	필리핀 동부 비사야스지역 공단조성 사업('93~'94/ 292천불)	-
	필리핀 수리가오 해저광물탐사 ('97~'01.3/219천불)	-
EDCF 신청준비중 (6건)	네팔 칸티국도 개량 타당성조사 ('98-'99/580천불)	네팔 정부 EDCF 신청 준비중
	라오스 타드살렌 소수력발전소 건설 타당성조사('96-'97/ 183천불)	라오스 정부 EDCF 신청 준비중
	몽골 석탄화력발전소건설 타당성 조사('98-'99/151천불)	몽골 정부 EDCF 신청 준비중
	예멘 통신망현대화사업('99-'00/197 천불)	예멘 정부 EDCF 신청 준비중
	중국 산서성 댐건설 타당성조사 ('94~'96/ 1,028천불)	중국 정부 EDCF 신청 준비중
	튀니지 직업훈련소 건립 타당성조사 ('97.1-'97.8/ 168천불)	튀니지 정부 EDCF 신청준비중
계	26건	

개발조사 5. 개발조사사업에 의한 아국 기술용역업체 육성효과

1. 육성효과

ㅇ **아국 기술용역업체에 해외사업 수행경험을 축적할 기회제공**
- 협력단의 대 개도국 개발조사사업에 참여하여 다양한 분야의 기초조사, 타당성조사, 종합개발계획 수립 등을 수행

ㅇ **궁극적으로 아국 기술용역업체의 해외사업 수주가능성 제고에 기여**

2. 아국 기술용역업체의 해외진출 필요성 및 현황

ㅇ 아국은 기술용역업의 활성화를 위해 과거의 건설시공(하드웨어)위주의 해외건설진출에서 탈피,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용역(소프트웨어)분야의 육성** 및 **해외진출**이 필요한 실정임
- 아국 기술용역업체들은 해외기술 용역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중

ㅇ 2001년 현재 아국의 기술용역업체는 1,500여개에 달하고 있으나, 이들은 주로 국내 기술용역사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해외에서의 기술용역사업 수행경험이 부족하여 해외기술용역사업 수주에 애로**를 겪고 있음.

개발조사 6. 협력단 설립이후 사업실적('91-2001.7)

o '91년부터 2001.7월말까지 총 **17개국 1국제기구**에 **45건**의 개발조사사업을 실시하여 **35건**은 **완료**, 나머지 **10건**은 **진행중**

- 진행사업 10건 : 계속사업 3건, 신규사업 6건, 미지급금 사업 1건

*미지급금사업 : 사업비는 '00년도에 지출완료되었으나, 사업수행은 2001년도까지 이어지는 사업

〈지역별 실적〉

- 아주지역 10국 36건, 미주지역 1국 1건, 중동지역 3국 4건, 아프리카지역 2국 2건, 오세아니아지역 1국 1건, 국제기구 1건

(아주지역이 전체 45건 중 36건으로 80% 차지)

〈국가별 실적〉

- 인도네시아 9건, 중국 7건, 필리핀 4건, 베트남 4건, 몽골 3건, 네팔 3건 등 이들 6개국에 30건을 지원(**전체 45건중 67% 차지**)

〈분야별 실적〉

- 전력분야 8건, 도로분야 8건, 광물자원분야 12건 등 동 3개분야에 28건을 실시(**전체 45개사업중 62% 차지**)

※ 우리기업의 해외건설 진출, 안정적인 자원확보 등과 밀접한 분야의 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옴.

〈총 괄〉

구분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계획	계
건수 (신규)	2국 2건 (2)	5국 7건 (5)	7국 13건 (5)	8국 16건 (6)	6국 12건 (1)	8국 12건 (5)	7국 1기구 12건(5)	10국 1기구 15건(6)	8국 1기구 10건 (1)	8국 1기구 9건(3)	8국 10건 (6)	45건
금액 (천불)	46	1,255	2,606	3,623	3,138	1,566	3,128	1,837	1,727	1,847	2,263	23,03

개발조사 7. 사업시행자 선정방법

ㅇ 사업시행자 선정은 **공개경쟁입찰방식**중 기술평가 및 가격입찰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2단계 경쟁입찰방식**을 취하고 있음

- 2단계 경쟁입찰
  - 1단계: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하는 **기술제안서**의 **기술평가** 실시
  - 2단계: 기술평가 결과 상위 2개 업체에 한해 **가격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협력단의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 제출업체를 사업시행자로 선정

ㅇ 다만, 광물자원탐사 등 **민간기업 참여가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투자기관** 또는 **출연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개발조사 8. 개발조사 보고서 평가방법

1. 보고서 평가방법

ㅇ 개발조사사업의 **단계별 결과보고서** 및 **최종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해 외부전문가(2-3명)의 **서면평가** 및 **발표회** 실시

ㅇ **평가지적사항**에 따라 보고서 **초안을 수정.보완**하여 결과보고서 발간

2. 보고서 평가기준 및 평가위원 선정기준

ㅇ 평가기준(100점)

- **조사수행의 합리성**(40점) : 사업집행계획서상의 공정준수 및 전문가 투입.운용의 합리성 등
- **조사내용의 적정성**(60점) : 수원국과 합의한 사업시행조건(TOR)에 명시된 조사사항의 이행여부, 조사내용의 성실도 등

ㅇ 평가위원 선정

- 평가위원(2-3명) 선정기준은
  . 해당사업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실시협의조사에 참여한 경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 다음으로 관련분야 협력사업에 대한 평가경험,
  . 관련분야 전문기관에서 추천한 전문가 등임.

개발조사 9. 개발조사사업의 결과로 우리기업 성공 진출 사례
(EDCF 연계사례)

1. EDCF 연계사례

○ '91년부터 2001. 7월말까지 완료된 35건의 개발조사사업중 3건이 **EDCF차관사업과 연계**되었으며, 이중 2건은 (주)대우와 현대엔지니어링이 각각 수주하여 본공사가 완료되었으며, 1건은 코오롱건설과 삼성물산이 공동수주하여 공사중임.

사 업 명	EDCF 규모	시공업체	비 고
네팔 모디강 수력발전소 건설 실시설계사업 ('93~'94/ 730천불)	15백만불	현대 엔지니어링	○ 본공사 : '97.12-'00.8 ○ 발전설비 일체
베트남 N-18국도개량 타당성조사사업 ('93~'94/ 558천불)	24백만불	(주)대우	○ 본공사 : '96.12-'00.8 ○ 타당성조사 시행업체인 한국해외기술공사가 감리업무 수행
요르단 폐수처리시설 확장 타당성조사 ('95~'96/974천불)	9백만불	코오롱건설, 삼성물산 (공동)	○ 차관협정체결 : '00.11 ○ 본공사 : '01.3~'02.12

2. 아국기업 해외진출 파급효과 사례

○ **한국전력**에서 **"필리핀 바탄-말라야 복합화력발전소건립 타당성조사사업"**('93.10-'94.4/374천불)의 성공적인 수행경험을 토대로 필리핀 정부 발주 **화력발전소건설시공사업 2건(8억불) 수주**

- 필리핀정부로부터 사업수행업체인 한국전력기술(한전 자회사)의 기술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고, 사업수행기간중 필리핀 전력현황전반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이를 기반으로 2건의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주

- 수주공사 2건 내역
  . 말라야화력발전소 1,2 호기 성능복구공사(약 1억불/'95.5-'99.3)
    * 한전상업운전기간: 1999.3-2009.6(10년)
  . 일리한 화력발전소 건설공사(7억불/'99.3-2002.2)

개발조사 10. 개발조사사업 평가현황 및 사후평가 강화방안

1. 평가현황

ㅇ 사업수행의 효율성 제고와 피드백을 통한 사업수행 개선을 위해 중간평가, 종료시 평가 및 사후평가 등 3 종류의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중간평가**는 사업기간이 1년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중간 단계에서 용역업체에서 제출한 중간보고서 초안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서면평가 및 발표회를 실시, 수정.보완사항을 반영

- **종료시 평가**는 사업종료 2-3개월전에 용역업체에서 제출한 최종 보고서 초안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서면평가 및 발표회를 실시, 수정.보완사항을 반영

- **사후평가**는 '97년 평가전담부서로 설치된 사업평가팀에서 종료 후 2-3년이 지난 사업을 대상으로, 수원국 관계 기관 및 우리 용역업체에 대한 설문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실시

<사후평가 실시현황>

① 사업평가팀에서 '97년 이전 완료된 10국 19개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여('99. 5~10월), 2000. 11월 결과보고서를 발간

ㅇ 목표달성도, 사업효과, 사업타당성, 사업효율성, 활용도 등 5개 항목에 대한 평가결과, 전반적으로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남

② 사업담당부서인 개발조사팀에서 자체적으로 91-97기간중 완료된 10국 19개사업에 대한 활용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99년 상반기중), 결과는 전반적으로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남.

ㅇ 조사방법 : 해외사무소 또는 공관을 통해 수원국 관계기관에 설문조사

ㅇ 조사항목 : 개발조사의 유용성, 수원국의 개발목표에 대한 기여도, 아국 용역업체의 현지조사 활동에 대한 수원국 반응 등

ㅇ 조사결과

- 개발조사의 유용성에 있어 **매우 유용 또는 유용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87.5%**,
- 수원국 개발목표에 대한 기여도에 있어 **성공적이었다는 응답이 100%**,
- 아국 용역업체의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 및 만족이 93.8%**로 조사됨

2. 사후평가 강화방안

ㅇ 향후 사업평가팀에서 **종료후 2-3년 경과한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ㅇ 이와는 별도로 사업담당부서인 개발조사팀에서는 종료사업에 대한 활용현황 설문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금년도 4/4분기에는 '98년도에 종료된 사업 5건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예정

* 사후평가의 경우, 평가의 실효성을 감안하여 사업종료후 최소 2-3년 경과후에 실시

개발조사 11. 후속사업 연계강화 방안

1. 본 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은 우량사업 발굴 강화

ㅇ 신규사업 발굴시 수원국의 경제개발계획상 우선순위가 높으며, 우리나라가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도로,전력,정보통신등)의 사업으로서, 우리기업진출 및 EDCF와의 연계가 유망한 우량사업 발굴

- 해외 공관 및 협력단 해외사무소를 통한 수원국 관계기관과의 정책협의를 강화
- 전문가파견등 타 협력사업과의 연계를 통하여 정보수집기능 강화

ㅇ 특히 EDCF와의 연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본 사업비가 5천만불 이하**인 사업을 우선 발굴

* 2001. 7월말 현재 EDCF 지원승인현황은 34개국, 99개사업, 1조 4,907억원이며, 1개 사업당 지원규모는 **5천만불 미만**으로 주로 **1-3천만불선**임

- 2001. 7월말 현재 기금조성액 1조 4,430억원, 자금집행 7,745억원 (2001년 집행액 : 1,198억원)

2. 사업관련 정보제공 및 유관기관간 업무협의 강화

ㅇ 수출입은행, 해외건설협회 등 유관기관 및 관련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종료사업 결과보고회**의 **기능 강화 및 초청간담회**의 **정기적인 개최 추진**

ㅇ 협력단 홈페이지에 개발조사사업 보고서 내용게재 등 **정보공개 강화**

ㅇ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를 **정례화**하여 EDCF 연계 등 우리 민간기업의 후속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

- 수출입은행과는 '97.7월 업무협조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2001. 7월말 현재까지 4회('97.10/'99.12/2000.5/2001.1)에 걸쳐

협력단의 개발조사사업과 EDCF와의 연계강화 방안, 신규발굴 사업의 EDCF연계 가능성 등에 대해 협의를 실시한 바 있음.

3. 협력단과 EDCF 담당기관(재경부, 수출입은행) 공동조사 추진

ㅇ EDCF와의 연계가능성 제고를 위해 **신규발굴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를 **재경부** 및 **수출입은행**과 **공동 실시**

- 사업발굴단계에서부터 수출입은행과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연계 도모
- 2개사업에 대해 공동 사전타당성조사단 파견
  . "베트남 하노이 신도시 주거단지개발 타당성조사사업"('01-'02/1,000천불) : '00.12.10-16
  . . "캄보디아 도로개보수 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사업"('01-'02/600천불) : '01.1.28-2.4

개발조사 12. 개발조사사업 확대(활성화)방안

1. **개도국 경제발전에 필수적이며, 우리기업 진출 및 EDCF와의 연계가 유망한 우량사업을 발굴, 본 사업으로의 연계 강화를 통해 사업성과 제고**

   ㅇ 해외 공관 및 협력단 해외사무소를 통한 수원국 관계기 관과의 정책협의를 강화
   ㅇ 전문가파견등 타 협력사업과의 연계를 통하여 정보수집기능 강화
   ㅇ 사업발굴단계에서부터 수출입은행과의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EDCF와의 실질적인 연계 도모
   - 수요요청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의 공동실시 등

2. **수출입은행, 해외건설협회 등 유관기관 및 우리 민간기업에 대한 관련사업정보 공개 강화와 EDCF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개발조사사업의 추진기반 강화**

   ㅇ 유관기관 및 관련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개발조사사업 결과보고회의 기능 강화 및 초청간담회의 정기적 개최 추진
   ㅇ 협력단 홈페이지에 개발조사사업 보고서 내용개재등 정보공개 강화
   ㅇ '97.7월 체결한 수출입은행과의 업무협조약정을 토대로 업무협의를 정례화하여, 사업정보 공유 및 사전타당성조사 공동실시 등 체계적인 EDCF 연계시스템을 구축

개발조사 13. 하노이 신도시개발 타당성조사사업 내용 및 추진현황

(김명윤 전의원)

1. 사업내용 및 추진현황

ㅇ 동 사업은 베트남의 수도인 하노이시가 행정, 외교, 첨단정보, 금융, 상업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노이시 외곽에 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98년 10월 베트남 정부가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하여 '98.12월 한.베 정상회담시 약속된 사업임

ㅇ 협력단은 '99.3월 사전조사단을 파견하여 베트남 정부와 사업시행 조건을 협의하였으며, '99년 7월 (주)대우를 사업시행업체로 선정, 8월에 사업이 착수되어 2001. 2월 사업이 완료되었음.

- 2000.1.11 베트남 하노이에서 최종보고서 현지 발표회를 개최하여 베트남 관계자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호응을 받았으며, 지난 3.30일에는 주베트남 대사가 하노이시 인민위원장에게 최종보고서를 직접 전달하는 행사를 가진 바 있음.

*사업기간/사업비 : '99. 7~2001.2(20개월), 905천불 *사업내용 : 8,800ha의 신도시 개발 기초타당성분석, 1단계 개발 지구에 대한 개발전략구상 및 사업화 계획수립 등

ㅇ 동 사업은 향후 20년간 약 292억불에 이르는 해외건설공사를 창출하여 아국기업의 해외진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공사비 292억불 : 인프라개발비용 29억불, 건축공사비 258억불, 토지보상비 5억불

2.후속사업 현황

ㅇ 베트남정부에서 동 사업의 후속사업으로 요청한 "하노이 신도시 주거단지개발 타당성조사사업"('01-'02/1,000천불)을 2001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중임.

개발조사 14. 자원개발분야 사업의 추진현황과 확대 방안

1. 추진현황

○ 91년부터 2001. 7월말까지 완료 또는 진행중인 개발조사사업은 총 45건이며, 이중 **자원개발분야 사업은 12건(27%)임.** 금년의 경우 총 **10건**의 사업중 **1건의 자원개발분야 사업**을 추진중임.

- 2001년도 자원개발조사 사업내용
  . 몽골 광물자원탐사사업('00.9-'03.1/500천불 : 계속사업)

2. 확대방안

○ 해외부존자원의 안정적 확보, 우리기업 진출가능성 등을 감안, 우량사업을 발굴하여 추진
- 이를 위해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등 유관기관과 협력관계를 강화

○ 후속사업으로 자원개발과 직접 연계될 수 있도록, 기초조사가 완료된 중간조사단계의 사업으로서,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철도, 전력, 용수 등) 상태가 양호하여 개발경제성이 높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발굴하여 실시

개발조사 15. EDCF와의 연계가 부진한 사유 및 연계강화 방안

1. 연계추진 현황

ㅇ 91년부터 2001년 7월말까지 완료된 개발조사사업 35건 중, EDCF와 연계된 사업은 3건이나, 현재 "튀니지 직업훈련원건립 타당성 조사" 및 "예멘 통신망현대화사업" 등 6건의 사업이 EDCF를 신청 준비중이므로 연계율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ㅇ 또한 EDCF연계이외에도 우리기업이 본사업을 직접수주한 것 1건, 수원국정부에서 직접 본 사업을 착수한 것 6건 및 본 사업 착수준비중인 것 4건, 수원국 국토개발 기본자료로 활용중인 것 6건 등 전체적으로 종료사업 35건 중 26건(74%)이 후속사업과 연계 또는 활용되고 있어 개발조사결과의 활용률은 매우 양호하다고 할 수 있음.

2. 연계부진 사유

ㅇ 개발조사사업과 EDCF의 지원방향 상이

- EDCF의 경우 국산기자재 수출을 전제로 한 기자재차관을 중점 지원하고 있으며, 개발조사사업은 개도국의 SOC분야등에 대한 공공개발사업 자체를 지원하고 있어 지원방향이 다름.

ㅇ EDCF 기금 부족

- IMF사태 이후 어려운 국가재정사정으로 98년에서 2000년까지 EDCF에 대한 정부출연등 재정지원이 없었으며, 이로인한 기금 부족으로 동 기간중 신규 EDCF 지원승인 규모가 대폭 축소됨.

3. 연계강화 방안

ㅇ 수출입은행과 '97.7월 체결한 업무협조약정을 토대로 EDCF와의 연계제고를 위한 업무협의를 강화하여, EDCF의 SOC분야 지원비

중 확대 및 신규발굴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공동실시 추진

○ 수원국 관계기관과의 정책협의를 강화하여, EDCF와 연계가 유망한 사회간접자본, 정보통신, 환경 등 분야의 우량사업으로서, 본 사업비가 약 5천만불 이하인 사업을 중점 발굴

개발조사 16. 후속사업과의 연계가 부진한 사유 및 연계강화 방안

1. 후속사업과의 연계추진 현황

○ '91년부터 '2001년 7월말까지 완료된 개발조사사업 35건 중, EDCF와 연계된 3건 및 우리기업 직접진출 1건을 포함하여 총 26건(74%)의 개발조사결과가 후속사업에 연계 또는 활용되고 있음을 감안시, 개발조사 결과의 활용율은 매우 양호하다고 말할 수 있음. 또한, 동 26건 중 6건은 현재 EDCF를 신청준비중이므로 EDCF와의 연계율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연계현황〉

- **EDCF와 연계된 것 : 3건**
- **우리기업이 관련 건설공사를 직접 수주한 것 : 1건**
- 수원국에서 직접 본사업을 착수한 것 : 6건
- 수원국에서 직접 본사업 착수를 준비중인 것 : 4건
- 수원국 국토개발 기본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것 : 6건
- EDCF를 신청준비중인 것 : 6건 등임.

2. 후속사업과의 연계가 어려운 사유

○ 현실적으로 개도국인 수원국에서 국내 또는 국외로부터 수천만불 이상에 달하는 본 사업추진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며,

○ 우리측 입장에서는 EDCF와의 연계가 가장 확실한 후속사업과의 연계방법이나, EDCF의 경우 개발조사사업과 지원방향이 다르며, '97년 IMF사태 이후 기금액수가 부족한 실정으로 상호 유기적인 연계에 어려움이 있음.

3. EDCF등 후속사업과의 연계강화 방안

ㅇ 개도국의 경제개발계획상 우선순위가 높으며, 우리나라가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의 사업으로서, 우리기업진출 및 EDCF와의 연계가 유망한 우량사업 발굴

- 해외 공관 및 협력단 해외사무소를 통한 수원국 관계기관과의 정책협의를 강화
- 전문가파견등 타 협력사업과의 연계를 통하여 정보수집기능 강화
- 사업발굴단계에서부터 수출입은행과의 긴밀한 업무협의를 실시, 신규발굴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를 공동실시

ㅇ 유관기관 및 관련 민간기업에 대한 사업관련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의 및 협조 시스템을 구성하여 우리기업의 후속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토록 노력

- 수출입은행, 해외건설협회 등 유관기관 및 관련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종료사업 결과보고회의 기능 강화 및 초청간담회의 정기적인 개최 추진
- 협력단 홈페이지에 개발조사사업 보고서 내용게재등 정보공개 강화
- 수출입은행과 '97.7월 체결한 업무협조약정을 토대로 EDCF와의 연계제고를 위한 업무협의를 강화하여, EDCF의 SOC분야 지원 비중 확대 추진

< 첨부 1 >

■ 국가별 개발조사 추진내역('91-'01)

지 역	국 가	사 업 명	주 요 내 용	예산	지원기간
아주 지역 (10국, 36건)	네팔 (3건)	1.모디강 수력발전 소건설 실시설계	○ 수력발전소(시설용량2X5MW)건설 타당성 조사 및 입찰서 작성	730	93.4-94.5
		2.칸티국도개량 타당성조사	○ 카투만두-헤타우타간 81Km구간의 개보수 타당성조사	580	98.4-99.4
		3.차멜리야 수력발 전소건설실시설계	○ 30MW급 수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실시설계 및 입찰서류 준비	663	00.6-01.9
	라오스 (2건)	1.타드살렌 소수력 발전소건설사업	○ 전력난 해소를 위해 년35GWh의 6MWh급 소수력발전소건설 타당성조사	183	96.11-97.4
		2.루앙프라방 관개 시설 타당성조사	○ 루앙프라방도 3개 지역의 소규모 댐건설 타당성조사	184	98.9-99.7
	몽골 (3건)	1.동북아시아 종합 개발계획수립	○ 몽골을 포함한 북동아시아지역의 교통.통신 등 인프라개발계획수립	330	97.12-99.6
		2.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 바얀택탄광인근지점에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타당성조사	151	98.10-99.7
		3.광물자원탐사 사업	○ 기초금속에 대한 탐사 및 개발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500	00.9-03.1
	미얀마 (1건)	전력망 진단 개발 조사사업	○ 미얀마 전국 송배전망의 효율성 제고방안 및 장기설비확충계획 수립	400	01-02
	베트남 (4건)	1. N-18국도개량 사업	○ 기존 4급도로를 3급도로로 확장 (9-12m)및 개량 타당성조사	558	93.10-94.9
		2. 자원개발협력 사업	○ 중부 안케지역 광물 부존가능성 및 개발 타당성조사 실시	977	93.3-96.10
		3.하노이 신도시 개발 타당성조사	○ 신도시 개발사업 계획수립 및 타당성 검토실시	905	99.7-01.2
		4. 하노이 신도시 주거단지개발	○ 베트남 실정에 맞는 표준주택모형 개발을 위한 타당성조사	1,000	01-02
	스리랑카 (2건)	1. 열병합발전소건설 타당성조사	○ 콜롬보시외곽 수출산업공단과 2개 방직공장의 에너지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열병합발전소건설 검토	611	94.4-95.4
		2.도로개보수 타당성조사	○ 기존 45km 도로의 확장 및 개보수를 위한 타당성조사	319	00.11-01.1

지 역	국 가	사 업 명	주 요 내 용	예산	지원기간
아주 지역 (10국, 36건)	인도네시아 (9건)	1.남부칼리만탄 습지개발사업	ㅇ 칼리만탄주 3개지역 15,500ha습지를 농경지로 전환 개발계획수립	692	92.12-93.8
		2.북수마트라지역 전력개발사업	ㅇ 석탄연소발전소 또는 가스복합 발전소 건설을 위한 타당성조사	467	92.12-94.11
		3.발리섬 도로망 개발조사	ㅇ 관광객 및 교통량 증가 예측과 이에 맞는 도로신설, 확장조사	715	94.6-95.6
		4.석탄성형 기술 개발사업	ㅇ 석탄을 가정 취사용/공업용 원료로 이용하기 위한 석탄성형기술개발	579	95.12-98.12
		5.롬복섬 도로망 개발조사	ㅇ 롬복섬 관광증진을 위한 해안 순환 도로건설 및 도로개량조사	741	96.12-97.12
		6.중부칼리만탄 지질도작성사업	ㅇ 금속광상 탐사후 자원부존량확인 및 자원개발계획수립	475	98.6-01.6
		7.소경목재이용 개발조사	ㅇ 중부 칼리만탄의 개간지역내 산림자원 개발 타당성조사	500	98.12-01.2
		8. 니탄연료이용 연구개발	ㅇ 니탄을 가정용, 상업용 연료서 이용하기 위한 성형기술 개발	600	01-03
		9. 자카르타 서민주택개발 타당성조사	ㅇ 서민주택모형 및 단지 개발을 위한 타당성조사	250	01-02
	중국 (7건)	1.농산물도매시장 건설타당성조사	ㅇ 농산물유통센타(도매시장)의 시범적 운영에 대한 타당성조사	205	94.7-95.6
		2.신강성광물자원 개발조사1차	ㅇ 신강성하미지역 구리.니켈광상에 대한 부존량확인 및 개발계획수립	908	93.9-96.3
		3.복건성 광물자원 개발조사	ㅇ 복건성 매션지역의 납.아연광상에 대한 부존량확인 및 개발계획수립	1,100	94.9-97.5
		4.산서성 댐건설 사업타당성조사	ㅇ 심각한 용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하강 활용에 필요한 제반 기술검토	1,028	94.7-96.6
		5.신강성광물자원 개발조사2차	ㅇ 신강성 하미.향산지역 티타늄 및 포얼경 지역의 동.금광상 탐사	298	96.8-98.4
		6.미산-당비간철도 건설타당성조사	ㅇ 흑룡강성 석탄자원 수송용 35.2Km 구간 철도건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330	97.10-98.12
		7.호남성 당관포 광물자원조사	ㅇ 당관포지구의 연.아연광상에 대한 부존량 확인 및 개발계획수립	415	98.11-01.5

지 역	국 가	사 업 명	주 요 내 용	예산	지원기간
아주 지역 (10국, 36건)	캄보디아(1건)	도로개보수 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	○ 캄포트-트라팡로포간 기존 2차선도로 32Km에 대한 개보수 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	600	01-02
	필리핀 (4건)	1.동부비사야스지역 공단조성사업	○ 비사야스지역 산업기지건설에 필요한 마스터플랜 및 타당성조사	292	93.10-94.7
		2.바탄/말라야 복합화력발전사업	○ 가스터빈발전소를 복합화력발전소로 전환위한 타당성조사/건설공정계획수립	374	93.10-94.4
		3.파나온섬 지질 조사	○ 광물자원부존 유망지역인 파나온섬 지질조사,지질도,지화학도 제작	193	93.2-93.10
		4.수리가오해역 해저광물조사	○ 개발대상광종 및 조사지역선정후 해양 지질, 지구물리 및 지화학탐사	219	97.12-01.3
미주 지역 (1국, 1건)	과테말라	광물탐사사업	○ 모타구아분지 지역에 대한 지질조사 및 지화학탐사	587	94.12-98.2
중동 지역 (3국, 4건)	예멘	통신망 현대화사업	○ 예멘 수도 포함 4개도시의 통신망 현대화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197	98.12-00.1
	요르단	폐수처리시설 확장 타당성조사	○ 기존 폐수처리장의 설비 및 운용개선, 확장방안 수립 및 상세설계	974	95.1-96.7
	이집트	1. 시나이반도 기술단지조성사업	○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국제마케팅전략수립	990	97.4-98.8
		2. 산업기술디자인 과학센터 설립 종합계획 수립	○ 민간 산업체의 생산기술 개발을 지원할 종합연구기관 설립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300	01-02
아프리카지역 (2국, 2건)	튀니지	직업훈련원 건립 타당성조사	○ 직업훈련원 건립 타당성조사 및 마스터플랜 수립, 기초설계	168	97.1-97.8
	차 드	마요-켐비 광물자원 탐사	○ 마요-켐비지역의 금광상 탐사 및 광산개발계획 수립	390	98.9-01.9
오세아니아지역(1국,1건)	파푸아뉴기니	나자브공항 확장 개발조사	○ 기존공항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확장 또는 신설계획 수립	630	92.12-93.12
국제기구 (1기구)	메콩위원회	메콩강 홍수조절 사업	○ 메콩델타지역 홍수문제, 산성화문제, 염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단기계획을 수립	872	99.4-00.9
합 계		17국 1기구, 45건/23,036천불			

< 첨 부 2 >

■ 국가별, 분야별 개발조사 현황('91-'01)

지역	국가	직업훈련	지역개발	운송	통신	에너지 개발 및 공급	농업	임업	공업	광물자원 및 광업	환경보호	계
아주 지역 (10국, 36건)	네 팔			1		2						3
	라오스					1	1					2
	몽 골		1			1				1		3
	미얀마					1						1
	베트남		2	1						1		4
	스리랑카			1		1						2
	인도네시아		1	2		1	1	1		3		9
	중 국			1			2			4		7
	캄보디아			1								1
	필리핀		1			1				2		4
미주 지역	과테말라									1		1
중동 지역 (3국, 4건)	예 멘				1							1
	요르단										1	1
	이집트		1						1			2
아프리카지역 (2국, 2건)	튀니지	1										1
	차 드									1		1
오세아니아 지역	파푸아 뉴기니			1								1
국제 기구	메콩 위원회										1	1
계	17국 1기구	1	6	8	1	8	4	1	1	13	2	45

회 계 서 무

(회계) 1. 2000년 수지 현황 1
(회계) 2. 2000년 자체수입 내역은 3
(회계) 3. 2000년 출연금 불용액 및 자체수입 내역 4
(회계) 4. 2000년 자체수입이 1999년에 비하여 감소한 사유는 5
(회계) 5. 2000년 자체수입예산이 실적보다 작게 편성된 사유는 7
(회계) 6. 2000년 유가증권 내역은 8
(회계) 7. 2000년 선급금 내역은 9
(회계) 8. 2000년 선급법인세 내역은 10
(회계) 9. 2000년 기타자산 내역은 11
(회계) 10. 2000년 임차보증금 감소 사유는 12
(회계) 11. 2000년 미지급금 내역은 13
(회계) 12. 2000년 예수금 내역은 14
(회계) 13. 2000년 미지급비용 내역은 15
(회계) 14. 2000년 예수보증금 내역은 16
(회계) 15. 2000년 수입위약배상금이 증가한 사유는 17
(회계) 16. 2000년 이익잉여금 내역은 18
(회계) 17. 2000년 자본잉여금 내역은 19
(회계) 18.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자금의 분산예치 필요성은 20
(회계) 19. 2000년 특별판공비 집행 내역 21
(회계) 20. 2000년 기관운영판공비 집행 내역 22
(회계) 21. 대만대표부 관련 예산의 회계처리 절차는 24
(회계) 22. 제일은행 협력단지점에 자금이 예치된 사유는 25
(회계) 23. 남미농장사업비 조성 경위 27
(회계) 24. 해외투자이주사업비 관리 사유는 28
(회계) 25. 해외투자이주사업 국고보조금 이자 사용 사유는 29

(서무) 26. 협력단 보유 토지 및 건물 현황은 30
(서무) 27. 시설공사 및 물품구매 수의계약 현황 32
(서무) 28. 업무용차량 운용 현황 34
(서무) 29. 협력단 청사 관리 실태 37
(서무) 30. 사무실 임대 현황 41
(서무) 31. 여행업무 위탁업체 선정경위 42
국제교류증진협회 선정경위
(주)동서여행사 선정경위

회계서무 1. 2000년 수지현황

ㅇ 2000회계년도 총수입은 511억 2천만원이며,
총지출은 502억 8천 4백만원으로
순이익은 8억 3천 6백만원이 발생하였는 바,

이는 수입이 예산대비 6억 5천 5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은 예산대비 1억 8천 1백만원이 감소된데 따름.

ㅇ 2000회계년도 수입내역을 보면
- 출 연 금이 488억 9천 6백만원으로 총수입의 95.6%를 차지함.
- 자체수입은 22억 2천 4백만원으로 예산액 15억 6천 9백만원에 비하여 141.7%를 시현하여 6억 5천 5백만원이 초과 수입되었슴.

자체수입이 초과 수입된 사유는 금융기관의 이자율 인하에 따라 수입이자가 1억 1천 5백만원 감소한 반면,

계약불이행 등에 대한 지체상금인 수입위약배상금이 7백만원,
노후차량매각에 따른 유형자산처분이익이 7백만원,
이주알선료수입금 1억 7백만원, 연수센타임대수입금 3천 5백만원,
1999년도 미지급금 지출잔액 6억 1천 4백만원 등 7억 7천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ㅇ 2000회계년도 지출내역을 보면
- 인 건 비가 56억 4천 6백만원으로 총지출의 11.2%를 차지함.
- 협력사업비가 436억 9천 3백만원으로 총지출의 86.9%를 차지하며
- 경상운영비는 7억 6천 2백만원
- 해외취업사업비가 1억 8천 1백만원
- 그리고, 사업외비용이 2백만원 지출되어
- 총 비 용 은 502억 8천 4백만원으로
예산대비 99.6%의 집행실적을 나타내었음.

※ 2000년도 수지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A) 산	실 (B) 적	B/A (%)	잔(B-A)액	전년실적
① 수 입	**50,465**	**51,120**	**101.3**	**655**	**45,636**
출 연 금	48,896	48,896	100.0	0	42,741
자체 수입	1,569	2,224	141.7	655	2,895
② 지 출	**50,465**	**50,284**	**99.6**	**△181**	**45,084**
인 건 비	5,647	5,646	99.9	△1	5,336
협력사업비	43,847	43,693	99.6	△154	38,341
경상운영비	780	762	97.7	△18	1,319
해외취업비	191	181	94.8	△10	63
사업외비용	0	2		2	25
순이익 ①-②	0	836		836	552

회계서무 2. 2000년 자체수입 내역은

ㅇ 협력단의 자체수입은 잉여금,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구분 할 수 있슴.

ㅇ 2000회계년도의 자체수입은 22억 2천 4백만원으로,
이는 예산액 15억 6천 9백만원에 비하여 141.7%의
실적으로 6억 5천 5백만원이 초과 수입 되었음.

ㅇ 2000회계년도 자체수입내역을 보면
- 수입이자가 11억 5천 4백만원이며,
- 이익잉여금이 3억원,
- 기타수입으로, 물품납기지연 등에 따른 지체상금 7백만원,
노후차량매각에 따른 유형자산처분이익이 7백만원,
연수쎈타 임대수입 3천 5백만원, 이주알선료 수입금 1억 7백만원,
미지급금 집행잔액 등이 6억 1천 4백만원이 발생되었음.

※ 2000회계년도 자체수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A) 산	실(B)적	B/A(%)	잔(B-A)액	99년도 실적
계	1,569	2,224	141.7	655	2,895
수 입 이 자	1,269	1,154	90.9	△115	1,606
잉 여 금 수 입	300	300	100.0	0	842
수입 위약 배상금	0	7	-	7	2
유형자산처분이익	0	7	-	7	15
연수 쎈타 임대료	0	35	-	35	41
이 주 알 선 료	0	107	-	107	0
미지급금 잔액 등	0	614	-	614	389

회계서무 3. 2000년 출연금 불용액 및 자체수입 내역

1. 출연금 불용액 발생 현황

○ 불용액(잔액) 1억 8천 1백만원은 이면지 활용 등 소모품 절약과 입찰에 의한 물품 구매 등 예산을 절약 집행함에 따라 발생됨.

구 분	2000 예산	집 행 액	잔 액 (불용액)
금 액	504억 6천 5백만원	502억 8천 4백만원	1억 8천 1백만원

※ 산하기관지원비 16억 2천 1백만원 제외
- 교류단지관리사무소 4억 6천 7백만원
- 대만대표부 11억 5천 4백만원

2. 자체수입 초과분 발생내역

○ 초과액 6억 5천 5백만원은
- 금융기관이자율 감소로 이자목표에 비해 1억 1천 5백만원이 미달되었으나,
- 기타 사업외수입 7억 7천만원 발생 하였음.

<물품납기지연 등에 따른 지체상금 7백만원,
노후차량매각에 따른 유형자산처분이익이 7백만원,
연수쎈타 임대수입 3천 5백만원,
이주알선료 수입금 1억 7천만원
미지급금 집행잔액 등 6억 1천 4백만원>

구 분	계 획	실 적	초 과 액
자체수입	15억 6천 9백만원	22억 2천 4백만원	6억 5천 5백만원

3. 자체수입 초과분 처리

○ 2000예산 집행잔액(불용액) 1억 8천 1백만원과 자체수입 초과액 6억 5천 5백만원, 합계 8억 3천 6백만원은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하였음.

회계서무 4. 2000년 자체수입이 1999년에 비하여 감소한 사유는

○ 2000년도 자체수입은 22억 2천 4백만원으로,
1999년도 28억 9천 5백만원에 비하여 6억 7천 1백만원이 감소하였는 바, 이는

- 금융기관 이자율 인하로 '99년 16억 6백만원에서 2000년 11억 5천 4백만원으로 4억 5천 2백만원이 감소하였음.
- 잉여금 수입이 1999년도에는 본예산 편성액 2억 9천 2백만원과 노후 건물 대보수를 위한 추경예산 5억 5천만원 등 8억 4천 2백만원이었으나,
- 2000년도는 본예산 편성액이 3억원으로 5억 4천 2백만원이 감소 등 10억 8백만원이 감소하였슴.
- 그러나, 이주알선료 수입금, 미지급금 집행잔액 등 3억 3천 7백만원이 증가하여 전체 감소 규모는 6억 7천 1백만원임.

○ 자체수입 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2000년 (A)	1999년 (B)	증감 (A-B)	비 고
계	**2,224**	**2,895**	**△671**	
수 입 이 자	1,154	1,606	△452	
잉 여 금 수 입	300	842	△542	
수입 위약 배상금	7	2	5	지체상금
유형자산처분이익	7	15	△8	
연수 쎈타 임대료	35	41	△6	
이 주 알 선 료	107	0	107	
미지급금 잔액 등	614	389	225	

자체수입 증감 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2000년도 (A)	1999년도 (B)	증 감 (A-B)	사 유
계	**2,224**	**2,895**	**△671**	
1. 이 자 수 입	1,154	1,606	△452	ㅇ 금융기관 이자율 감소 -1999년도 년 6%대, 1998년도 고이율예금 일부가 1999년도 만기 - 2000년도 년 5%대
2. 잉 여 금 수 입	300	842	△542	ㅇ 1999년도 건물대보수 추경편성 ㅇ 2000년도 추경 편성 없음
3. 외 환 차 익	1	9	△8	ㅇ 1999년도 환율변동폭이 컸으나 ㅇ 2000년도 다소 안정적
4. 수입위약배상금	7	2	5	ㅇ 1999년도 계약이행 지연 7건 ㅇ 2000년도 계약이행지연 7건 및 불이행 1건 발생
5.유형자산처분이익	7	15	△8	ㅇ 노후차량 및 비품 처분
6. 잡 이 익	755	420	335	ㅇ 이주알선료 수익 증가
7. 자산 수증 이익	-	2	△2	

회계서무 5. 2000년 자체수입예산이 실적보다 작게 편성된 이유는

ㅇ 2000년도의 자체수입은 예산 15억 6천 9백만원에 비하여 141.7%인 22억 2천 4백만원임.

ㅇ 협력단의 자체수입은 잉여금,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구분 할 수 있으며, 잉여금 수입은 예산편성액 전액이 수입처리 가능하나,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은 정확한 예산편성이 사실상 어려움.

- 이자수입은 출연금 교부 시기 및 금융기관 이자율 변동에 따라 실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 기타수입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비반복적이며, 유동적인 항목으로서 발생 여부가 불분명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없슴.

ㅇ 예측이 불가능한 성격의 수입을 과다하게 예산에 편성할 경우, 실제 수입이 이에 미치지 못함으로써 예산액에 근거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여 대개도국지원 약속 이행이 어려움.

※ 2000회계년도 자체수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A)산	실(B)적	B/A(%)	잔(B-A)액
계	1,569	2,224	141.7	655
수 입 이 자	1,269	1,154	90.9	△115
잉 여 금 수 입	300	300	100.0	0
수입 위약 배상금	0	7	-	7
유형자산처분이익	0	7	-	7
연수 쎈타 임대료	0	35	-	35
이 주 알 선 료	0	107	-	107
미지급금 잔액 등	0	614	-	614

회계서무 6. 2000년 유가증권 내역은

ㅇ 2000회계년도말 협력단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은 3억 6백만원임.

ㅇ 동 유가증권은 협력단이 구입한 것이 아니고 (주) 대우개발로부터 계약보증금으로 수령한 도시철도공채증권으로서,
계약기간이 완료되어 2001년 5월 31일 반환함.

- 계 약 처 : (주) 대우개발
- 사 업 명 : 베트남 하노이 신도시개발타당성 조사
- 계약기간 : 1999.07 - 2001. 01 (18개월)
- 증권내역 :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채증권
- 보관사유 : 계약보증금

회계서무 7. 2000년 선급금의 내역은

ㅇ 선급금은 계약기간이 2개 회계년도에 걸쳐 해당되는 자금을 지출할 때 익년도 기간에 해당하는 자금을 자산(선급금)으로 처리하고 익년도에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한 계정임.

ㅇ 2000회계년도의 선급금은 7억 3천 4백만원으로서,
그내역은
- 해외사무소직원의 주택임차료 등이 3억 3천 1백만원,
- 봉사단원 주택임차료 등이 2억 3천 7백만원,
- 의료단원 주택임차료 등이 9천 9백만원,
- 전문가 주택임차료 등이 4천 9백만원,
- 태권도사범 주택임차료 등이 1천 8백만원임.

회계서무 8. 2000년 선급법인세의 내역은

ㅇ 선급법인세는 출연금 등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때 발생되는 이자에 대해서 금융기관이 이자를 지출할 때 법인세법 제73조에 의거 징수(이자금액의 20%)하는 세금으로서,

ㅇ 2000회계년도말의 선급법인세는 2억 2천 9백만원임.

※ 2000년도 이자수입액 : 11억 5천 4백만원
- 금융기관 이자 : 11억 4천 2백만원
- 연수경비 이자 등 : 1천 2백만원

회계서무 9. 2000년 기타자산 내역은

ㅇ 기타자산은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콘도회원권을 구입한 것으로서,

ㅇ 2000회계년도말 현재 대명콘도 등 4개사에 20구좌를 가지고 있으며, 취득가액은 4억 6천 1백만원임.

※ 콘도회원권 현황

콘 도 명	구좌수	사용일수	구입금액	구입일자	비 고
대명콘도	5	150	91,165,400	1993.10.25	구좌당 30일
한국콘도	3	84	71,411,000	1995. 5. 6	구좌당 28일
	3	84	75,456,000	1997. 5.13	
	6	168	146,867,000		
한화콘도	3	84	68,589,000	1995. 5.11	구좌당 28일
	3	90	81,093,360	1997. 5.16	구좌당 30일
	6	168	149,682,360		
풍림콘도	3	90	73,902,000	1997. 5.12	구좌당 30일
계	20	582	461,616,760		

※ 콘도회원권 사용현황

콘 도 명	사용가능일수	2000년사용	2001.07.31	비 고
대명콘도	150	137 (91%)	32 (21%)	
한국콘도	168	36 (21%)	18 (11%)	
한화콘도	174	162 (93%)	63 (36%)	
풍림콘도	90	64 (71%)	25 (28%)	
계	582	399 (69%)	138 (24%)	

회계서무 10. 2000년 임차보증금 감소 사유는

ㅇ 임차보증금은 해외사무소직원, 봉사단원 등 해외파견인력의 주택 임차에 대한 보증금 등임.

ㅇ 2000회계연도말의 임차보증금은 1천 7백만원으로서,
1999회계년도말의 3천 3백만원에 비하여 1천 6백만원이 감소하였음.

※ 2000회계년도말 임차보증금 (1천 7백만원) 내역
- 해외사무소직원 주택임차보증금 : 4명에, 9백만원 ($8,923.00)
- 봉사단원 주택임차보증금 : 10명에, 3백만원 ($2,486.40)
- 협력요원 주택임차보증금 : 2명에, 2백만원 ($1,500.00)
- 봉사단 유숙소 임차보증금 : 2소에, 3백만원 ($2,915.42)

ㅇ 1999회계년도에 비하여 감소된 사유는,
봉사단원의 주택임차보증금이 2백만원 증가한 반면, 해외사무소직원의 주택임차보증금이 1천 8천 8백만원 감소하였기 때문임.

회계서무 11. 2000년 미지급금 내역은

ㅇ 미지급금은 계약 등에 의하여 이미 채무로써 확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에 대한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채무로서,

ㅇ 2000 회계연도말의 미지급금은 143억 9천 2백만원 인바,
이는 대개도국 프로젝트 및 물자공여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은 완료되었으나, 물품이 수원국에 도착하지 않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금액 130억 5백만원과,

- 한국경제연구 석사과정에 대한 연수생의 교육비가 4억 2천 5백만원,

- 그리고, 봉사단 영상홍보물 제작 및 협력단 통합정보 시스템구축비 및 봉사단 홍보물 제작비 등 미지급한 것이 9억 6천 2백만원임.

미지급금 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2000년 (A)	1999년 (B)	증 감 (A-B)	비고
계	**14,392**	12,749	1,643	
프로젝트사업비	**10,069**	10,821	△752	
개발조사사업비	**486**	227	259	
물자공여사업비	**2,450**	594	1,856	
한국경제 연수생경비	**425**	246	179	
통합정보시스템구축비	**287**	224	63	
건물대보수	**0**	348	△348	
홍보물 제작 등 기타	**675**	289	386	

회계서무 12. 2000년 예수금 내역은

ㅇ 예수금은 일반적 상거래 이외의 세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임직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납기일(익월 10일)까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것으로서,

ㅇ 2000회계년도말의 금액은 1억 9백만원임.

- 임직원 근로소득세 : 1천 1백만원
- 기타소득세 : 3백만원
- 임직원 건강보험료 : 1천 1백만원
- 임직원 연금보험료 : 3천 7백만원
- 임직원 고용보험료 : 3백만원
- 기 타 보 관 금 : 4천 4백만원

회계서무 13. 2000년 미지급비용 내역은

ㅇ 미지급비용은 납기가 정해져 있는 전화, 전기료 등 공과금으로, 당해년도 12월분 공과금은 익년도 1월에 납부하게됨에 따라 결산시 12월분의 공과금을 당해년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임.

ㅇ 2000회계년도말의 미지급비용은 2천 6백만원임.

- 전 기 료 : 6백만원
- 가 스 료 : 7백만원
- 전 화 료 : 9백만원 (인터넷사용료, FAX료, 이동전화 포함)
- 사업소세 : 3백만원

회계서무 14. 2000년 예수보증금 내역은

ㅇ 예수보증금은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 입찰, 계약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 계약이행보증금, 임대보증금 등 기간이 정해진 계약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일종의 담보를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은 것으로 거래가 완료되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반환되는것임.

ㅇ 2000회계년도말의 예수보증금은 5억 9천 6백만원임.

- 사무실 임대보증금 : 2억 9천만원 (제일은행 외 3개업체)
- 계약보증금 : 3억 6백만원 (대우 : 2001.05.31 반환)

※ 사무실 임대현황 (2001.08.31현재)

임차인	임대기간	보증금 (백만원)	월임대료 (천원)	비 고
제 일 은 행	01.03.12-02.03.11	20	881	
증 진 협 회	01.02.11-02.02.10	0	1,140	
한 국 해 운	01.04.01-02.03.31	0	380	
대 한 해 사	00.10.14-01.10.13	20	1,241	
주) 예 원	00.120.1-01.11.30	30	2,320	
주) 리 브 로	01.01.01-01.12.31	90	5,210	
6개사		160	11,172	

- 제일은행 보증금 1억 5천 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변경

회계서무 15. 2000년 수입위약배상금이 증가한 사유는

ㅇ 수입위약배상금은 계약불이행, 납기지연 등 대한 위약금으로서,

ㅇ 2000회계연도말의 수입위약배상금은 7백만원인바,
- 인쇄물 등 납품일자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이 7건에, 2백만원이며
- 그리고, 업체의 부도로 인한 계약불이행에 따른 배상금 1건에, 5백만원임.

ㅇ 1999회계년도의 수입위약배상금은 지체상금 7건에, 2백만원임.

ㅇ 2000회계년도가 1999회계년도에 비하여 5백만원이 증가한 사유는
- 지체상금 발생건수와 금액은 7건에, 2백만원으로 1999회계년도와 같지만
- 2000회계년도에는 계약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1건에, 5백만원이 발생 하였기 때문임.

회계서무 16. 2000년 이익잉여금 내역은

ㅇ 이익잉여금은 매년도 결산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순이익의 누계로서,

ㅇ 협력단 발족해인 1991년부터 2000년까지의 이익금 누계는 42억 5천 1백만원으로 이는 예산보다 초과수입된 이자 및 예산 불용액 등으로 발생되었슴.

ㅇ 협력단 예산은 정부출연금과 자체수입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자체수입은 출연금에 대한 이자와 이익잉여금으로 되어 있음.

ㅇ 2000회계년도말 잉여금 42억5천 1백만원 중 2001회계년도 예산으로 5억 7천만원을 편성함에 따라 현재 보유액은 36억 8천만원임.

ㅇ 잔액 36억 8천만원 중 3억원은 2002회계년도 예산에 편정할 예정이며(예산처와 협의 완료), 잔액은 현재 진행중인 퇴직금소송이 패소시 퇴직금 재원 및 금융기관 이자율 인하에 따라 이자수입 예산액이 미달될 시, 안정적인 대개도국 사업지원이 불가능한 바, 대개도국 지원 약속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임.

회계서무 17. 2000년 자본잉여금 내역은

ㅇ 자본잉여금은 영업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자산의 증가액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ㅇ 2000회계년도말의 협력단 자본잉여금은 189억 8천 3백만원으로 이는 협력단의 토지, 건물, 차량 등의 유형자산액임.

- 토　　지 :　79억 5천 1백만원
- 건　　물 : 100억 8천 7백만원
- 비　　품 :　6억 4천 6백만원
- 차　　량 :　1억 3천 2백만원
- 기　　타 :　1억 6천 7백만원

회계서무 18. 예금자보험법의 예금보장한도를 고려하여 자금의 분산예치 필요에 대하여

ㅇ 예금자보호법은 은행이 파산 등의 이유로 고객이 예치한 예금을 지급 할 수 없는 경우 은행을 대신해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지급을 보장함으로써 고객을 보호하는 제도로서, 개인이나 법인을 불문하고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5천만원을 한도로 보장하고 있음.

ㅇ 그러나, 협력단은 보유자금을 예금보험공사발행 정부보증 채권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운영상 위험성이 없음.

- 특히, 거래하고 있는 제일은행 협력단지점은 협력단의 자금출납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설치된 지점으로.

- 협력단이 대외무상원조사업을 수행함에 따른 프로젝트사업비, 봉사단, 의료단, 전문가, 해외사무소 경비 등 빈번한 외환송금 업무를 처리하여 협력단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있음.

- 협력단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을 타은행에 분산예치시 협력단 내에 위치하고 있는 금융기관(제일은행이나 기타은행)은 수지계산에 따라 협력단내 지점 운영을 포기할 것이며, 이에따라 협력단은 외부의 금융기관 이용에 따른 추가적인 행정비용이 소요될 소지가 있음.

- 특히, 제일은행은 1997. 7월 외국계은행으로 매각된 후 정부로부터 부실채권 전체를 보전받아 재무구조가 건실한 은행으로 변모 하였슴.

  (매각전 1조 6,235억원이던 적자가, 2001년 1/4분기 흑자 982억원으로 전환됨.)

회계서무 19. 2000년 특별판공비 집행 내역

1. 현 황

○ 특별판공비는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경비로서 2000년도에는 1억 2천 8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 동 집행액은 1999년 1억 1천 7백만원에 비하여 9.4%, 1998년 1억원 에 비하여 28%가 증가하였으나, 1997년(1.32억원)대비 3%, 1996년(2.29억원)대비 44.1%, 1995년(2.64억원)대비 51.5% 가 감소된 수준임

○ 정부의 예산절약시책에 적극 부응하고 특판비 집행기준을 개정하여 불요불급한 집행을 억제하는 등 예산의 절약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슴.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A)	집행액(B)	집행율(B/A)	비 고
1998년	109,838	100,056	91.1%	
1999년	120,493	117,182	97.3%	
2000년	130,560	128,274	98.2%	
2001.7.31	151,747	78,716	51.9%	

2. 특별판공비 집행내역

○ 프로젝트, 개발조사,기자재공여등과 관련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 전문가, 봉사단, 의료단 등 파견사업과 귀국자 초청 간담회
○ 협력사업의 사전조사등과 관련한 국외출장 지원비
○ 주한 수원국대사관과의 업무협의
○ 대 국민 이해증진 및 홍보 등을 위한 활동비

<참고> 연도별 특판비 집행액

(단위:천원)

구 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예산
특별판공비	264,542	229,488	131,668	100,056	117,182	128,274	151,747

회계서무 21. 대만대표부 관련 예산의 회계처리 절차는

1. 설치경위

○ 1993.9.27 우리나라와 대만은 외교관계 단절이후 새로운 비공식관계 수립과 함께 민간대표부를 상호 설치키로 합의하였으며,

○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 산하 "아시아연구소"의 해외사무소 형태로 대만대표부를 설치하였으나, 모든 예산 및 인원관리는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관리.

2. 예산, 결산

○ 운영재원 : 외교부는 대표부 운영을 위한 예산을 협력단 출연금 예산에 포함시킴.

○ 예산회계
- 대표부 운영자금은 외교부가 대표부로 직접 교부하며
- 대표부는 예산집행 및 정산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함.

<참고> 년도별 대만대표부 예산

년도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금액(백만원)	836	828	828	892	1,171	1,154	1,154	1,058

3. 협력단 결산서에 누락된 사유

○ 대만대표부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어 독립회계처리하며 예산 또한 외교부에서 직접 대만대표부로 교부되며, 결산은 외교부에서 처리하고 있음.

회계서무 22. 제일은행 협력단지점에 자금 예치 사유

1. 협력단 지점 설립배경

○ 제일은행 돈암동지점에서 1991.10.22 단내에 출장소 설치를 요청함에 따라 이를 계기로 지점 설치를 검토하였으며,

- 검토은행 : 제일, 상업, 한미, 한일은행
- 선정기준 : 재무상태, 점포수, 직원에 대한 편의제공 등
- 설치확정(1992.1.10) : 1992년 당시 제일은행은 시중은행 가운데 상위권에 속하는 우량은행으로 점포수도 검토은행 중 최다보유하고 서비스 수준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단내에 지점 설치를 승인함. (설치일자 : 1992. 6.19)

2. 안전성 판단 자료 (타은행과의 각종 지표비교)

제일은행은 자기자본비율, 총자산수익율, 자기자본이익율에 있어서 ①위를 나타내고 있슴.

(단위 : 억원, %)

구분	자기자본비율 (안전성)	무수익여신 (안전성)	총자산이익률 (수익성)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제일은행	① 13.40	③ 10,896	① 1.25	① 26.77
국민은행	③ 11.18	⑤ 23,488	② 0.98	③ 17.46
주택은행	⑤ 9.92	④ 15,124	③ 0.97	② 22.56
하나은행	④ 10.45	② 10,113	⑤ 0.15	⑤ 3.22
신한은행	② 12.30	① 6,835	④ 0.76	④ 11.26

※자료 : 금융감독원 (2001.03.31현재)

3. 예금 집중 사유

○ 제일은행은 자기자본비율이나 총자산이익율, 자기자본이익율 등 수익성이나 안정성이 타 금융기관에 비하여 양호하며, 예금이자률의 우대(타은행에 비해 0.2% 높음), 타행 송금수수료 및 외환송금수수료와 전신료 감면 등의 혜택과 대외협력사업에 따른 신속한 외환송금지원등을 위하여 협력단내 지점을 설치하게 됨에 따라 협력단의 운영자금을 예치하고 있음.

4. 안전성 확인조치

ㅇ 제일은행이 뉴브리지캐피탈에 매각(1999.12.23)되면서 재무구조가 건실해졌고, 또한 정부의 공적자금투입에 따라서 동 은행의 안정성을 확인 (2000.2.24)

- 무디스사가 제일은행 신용등급 2단계 상향 조정('00.10.12)함.

ㅇ 뉴브리지캐피탈이 동 은행지분의 51%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권 2차 구조조정과는 관련가 없음을 확인 (2000.5.23)

ㅇ 2001년 3월말 기준, 시중 우량은행과의 안전성 및 수익성 등을 비교·검토한 결과, 제일은행이 자기자본비율, 총자산 이익율, 자기자본이익율 등이 제일 우수한 것으로 확인됨 (2001.6.27).

ㅇ 2001년 1/4분기는 흑자 982억원으로 우량은행으로 변모.

ㅇ 따라서 예치자금의 안정성, 수익성 등을 감안해 볼 때, 제일은행이 여타 은행보다 건실하다고 판단되어서 동 은행 협력단지점에 운영자금을 예치하고 있음.

ㅇ 또한, 매월말 잔액증명서를 징구하여 잔액을 확인하고, 담당직원에 대한 주의 환기 등 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회계서무 23. 남미농장이주사업비 조성 경위

1. 협력단 보관 경위

○ 1993. 3월, 협력단은 외교통상부 방침에 의거 당초 공관에서 관리하던 알젠틴(산하비엘), 칠레(테노) 및 파라과이(산페드로)등 남미 3개 농장 농업이주사업자금을 협력단에서 관리하게 됨.

○ 1998. 2월, 감사원은 1995.12.6 한국국제협력단법 개정으로 해외이주사업이 목적사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동 자금을 수입처리하여 예산에 편성토록 요구함.

2. 조치사항

○ 협력단은 감사원 지적에 따라 농업이주사업자금 7억 8천 5백만원과 이자 1억 4천 5백만원 합계 9억 3천만원을 1998회계년도에 자체수입으로 처리함.

회계서무 24. 해외투자이주사업비 관리 사유는

1. 해외투자이주사업비 관리 경위

○ 협력단은 설립시 해외개발공사의 해외이주자 현지정착지원예산인 해외투자이주사업비로 조성된 국고보조금 27억 3천 6백만억원을 승계받음.

○ 외교부는 1996.12월 협력단에 대한 감사시 동보조금의 목적사업이 '94년 종료 되었는데 보관하고 있는 것은 보조금 관리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며 반납을 요구함.

2. 조치사항

○ 2000년 4월 10일 잔액 5천 6백만원을 국고에 반납하여, 해외투자이주사업비 27억을 전액 국고 반납함.

※ 해외투자이주사업비 반납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총 액	반 납 액				
		계	'97.6.10	'98.3.18	'99.3.9	2000.4.10
금 액	2,736,850	2,736,850	2,390,850	151,000	139,032	55,968

회계서무 25. 해외투자이주사업 국고보조금 이자 사용 사유는

1. 해외투자이주사업 국고보조금 이자 사용 경위

○ 협력단은 청사 건물 및 시설의 개·보수를 위하여 1997. 5월 해외이주사업 국고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4억 3천 1백만원을 이사회의결 및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함.

○ 1998. 2월, 감사원은 협력단의 당초 국고보조사업인 이주사업이 1995.12.6 폐지로 보조금 목적사업이 종료되었으며,

○ 국고보조금은 목적사업이 종료되었을 경우, 보조금 집행잔액은 물론 국고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도 함께 반납해야 한다는 사유로 용도변경 집행한 보조금 이자를 국고에 반납 요구함.

2. 조치사항

○ 협력단은 1997. 7.22, 용도변경 집행한 보조금 4억 3천 1백만원을 1998. 7.22 국고에 반납 조치함.

회계서무 26. 협력단 보유 토지 및 건물 현황은

○ 협력단의 유형자산은 2001. 7 .31 기준으로 총취득가액은 228억 9천만원이며, 감가상각후의 잔존가액은 189억 4천 6백만원임.

○ 협력단 토지의 취득가격은 **79억 5천 1백만원**임.
- 본　　부 : 2,139.60평, 취득가 3억 9천 6백만원
- 연수센타 : 1,297.18평,　　75억 5천 4백만원
- 해　　외 : 450 만평, 취득가는　　1백만원
(파라과이 산베드로 농장 : 1968. 4월 구입)

○ 건물의 취득가격은 **114억 1천 9백만원**임.
- 본　　부 : 2,913.04평, 취득가는 29억 1천 9백만원.
- 연수센타 : 2,248.59평,　　85억

○ 기계장치, 구축물의 취득가액은 **4억 9천 7백만원**.
- 기계실, 방송실은 기계장치이며, 내부조경, 지하수등은 구축물임.

○ 차량은 24대이며, 취득가액은 **4억 3천만원**임.
- 본부 9대(승용차 5, 버스 4), 해외사무소 15대

○ 비품은 사무용책상, PC 등으로 취득가액은 25억 9천 **3백만원**임.

※ 참고사항

□ 유형자산 명세 총괄표 (2001.07.31기준)

(단위 : 원)

과 목	취득가액	감가상각	잔존가액 (현재 자산가치)	비 고
토 지	7,950,734,069		7,950,734,069	
건 물	11,419,043,472	1,331,935,330	10,087,108,142	
구 축 물	108,889,047	104,791,522	4,097,525	
기계장치	388,006,000	262,606,061	125,399,939	
차량운반구	407,296,615	275,068,690	132,227,925	
비 품	2,592,998,061	1,947,276,710	645,721,351	
계	22,866,967,264	3,921,678,313	18,945,288,951	

□ 부외자산(자산관리규정 제4조에의거 분류)

농 장 명	취득일자 (명의이전)	면적ha(평)	취득가격	소재지(국가)	비 고
야따마우까	78. 8월 (92.11)	20,894ha (63,476,350)	$2,115,068	아르헨티나	외교부 구입
산하비엘	81. 3월 (92.12)	2,714ha (8,209,850)	$1,912,235	아르헨티나	보사부 구입
테노농장	80.12월 (93. 8)	185ha (559,625)	$532,898	칠레	보사부 구입

※ 부외자산이라함은 법인의 장부상 유형자산은 아니나 자산으로 기록 유지 및 관리를 하여야 하는자산임.

회계서무 27. 시설공사 및 물품구매 수의계약 현황

1. 수의계약 내역

○ 협력단 회계규정에 의하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소액 금액(3,000만원 이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하고 있슴.

○ 2001. 7.31현재 입찰대상 건수는 1건 인바,
- 노후화된 사무용 비품을 교체하기 위하여 회계규정 제51조에 의거 서울시가구공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함.

○ 2000년도는 입찰대상 2건을 수의계약하였는 바,
- 조달청에서 컴퓨터를 구매하였으며,
- 대우자동차에서 초청연수생 수송을 위한 버스를 구매함.
  < 자동차 3개사의 사양과 가격을 비교하여 가용 예산과 외국인 탑승에 적합하고 좌석이 안락한 고급고속 수준인 차종을 구하기 위함>

○ 1999년도에는 입찰대상 건수 4건 중 2건은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며, 2건은 수의계약함.
- 공익법인인 KBS영상사업단과 홍보물제작을 위하여,
- 그리고, 노후된 보일러 교체를 위하여 보일러협동조합 수의계약함.

2. 향후 계획

○ 향후 공사 및 물품구입시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겠음

※ 참고사항

□ 입찰대상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 년도	입찰대상		입 찰		수의계약		비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2001.7.31	1건	183	-	-	1건	183	
2000	2건	106	-	-	2건	106	
1999	4건	701	2건	582	2건	119	
계	7건	990	2건	582	5건	408	

□ 연도별 입찰대상 세부내역

1. 2001.7.31현재 (단위:천원)

일자	입 찰 대 상	금 액	계약방법	업 체 명
7.10	칸막이, 책상 등 구매	183,000	수의계약	가구공업협동조합

2. 2000년 (단위:천원)

일자	입 찰 대 상	금 액	계약방법	업 체 명
3. 8	사무용컴퓨터구매	59,739	수의계약	조달청
3.28	연수센타 중형버스구매	47,049	수의계약	대우자동차
계	2건	106,788		

3. 1999년 (단위:천원)

일자	입 찰 대 상	금 액	계약방법	업 체 명
4.20	KOICA영상홍보물 작계약	53,000	수의계약	KBS영상사업단
5.13	통합정보시스템구축 용역	395,000	경쟁입찰	대우정보(주)
12.12	보일러교체공사	66,000	수의계약	보일러협동조합
12.30	협력단본관내부보수공사	187,000	경쟁입찰	영동디자인(주)
계	4건	701,000	입찰 2건	입찰율 50%

□ 관련규정(협력단 회계규정 제51조 :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 천재지변, 긴급한행사, 비상재해등 이에 준하는 경우
2) 협력단의 업무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4) 특정인의 기술,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 등으로 인한 경쟁할 수 없는 경우
5)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인 공사 및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물품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의 경우 5천만원이하인 공사
6) 법률규정에의해 특정사업장으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 재산등을 매입 또는 제조하게 하는 경우
7) 기타 계약의 목적, 성질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계서무 28. 업무용 차량 운용 현황

1. 차량운영 실태

ㅇ 협력단은 2001. 7. 31일 현재 본부에 9대, 해외사무소 및 주재원사무소에 15대 총 24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음.

- 본　　부 : 차량 4대(총재용 차량 1대 및 업무용차량 3대)
- 연수센타 : 차량 5대(승합차9인승 1대, 중형버스 30/31인승 2대, 대형버스39인승 1대, 승용차1대)

ㅇ 임원용 차량은 1998년도까지 4대를 운영하였으나, 직제개편으로 차량 3대를 감축하여 현재 1대만 운영하고 있음.

ㅇ 업무용차량은 본부에서 3대(승용차), 연수센터에서 외국귀빈 및 연수생 운송용으로 승용차 1대, 버스 3대 등 총 8대를 운영하고 있음.

ㅇ 차량은 9대이나 운행하는 기능직원은 7명(계약직 2명포함)이 담당하고 있으며, 버스운행이 없는 경우 승용차를 운행토록 조치하고, 기사가 없을시는 업무출장직원이 직접 운전할 수 있도록 자동변속기 부착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고 있음.

※ 중형버스 2대 및 대형버스 1대는 연간 연수인원 약 2,000명 이상의 시내관광 및 산업연수용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승합차는 연수생의 공항영접, 전철역 정기운행용으로 활용하고 있음.

※ 1993. 4. 1부터 국가시책 및 에너지 절약 방침에따라 이사에게 차량 및 기사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

2. 향후 운용계획

○ 본부 및 해외사무소 차량은 24대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하며,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공무외 차량운행을 철저히 금지하고, 직원업무 출장시에도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조치하고 있슴.

3. 참고자료

○ **협력단 본부차량 보유현황(2001. 7. 31 기준)**

차종 (차명)	수량	배기량	취득일	취득금액 (원)	사용처	사용년한	비 고
승용차 뉴그랜져	1	2,497CC	'96. 5.23	31,118,650	총재	5년 2월	현대
승용차 다이너스티	1	2,497CC	'2001.1.16	29,460,020	외국인 귀빈용	7월	현대
승용차 소나타Ⅲ	2	1,988CC	'96. 5.23	29,730,370	본부 업무용	5년 2월	현대
승용차 뉴엑센트	1	1,341CC	'98. 5. 4	8,029,910	본부 업무용	3년 3월	현대
승합차 스타렉스	1	2,476CC	'98.12.26	18,389,910	연수센타 업무용	2년 7월	현대 9인승
중형버스 로얄미디	1	8,071CC	2000.5.16	47,049,000	연수센타 업무용	1년 2월	대우 30인승
중형버스 코스모스	1	6,728CC	'97. 1.30	32,887,060	연수센타 업무용	4년 6월	아시아 31인승
대형버스 로얄슈퍼	1	14,618CC	'98. 5. 2	89,138,080	연수센타 업무용	5년 2월	대우 39인승
계	9			285,803,000			

□ 해외사무소 및 주재원 차량보유현황(2001. 7. 31 기준)

사무소명	차 명	수량	배기량	취득일	취득금액 (원)	사 용 년 한	비고
방글라데시	무쏘	1	1600CC	2000.5.4	22,407,563	1년2개월	사무소
베트남	갤로퍼	1	2476CC	2001.1.31	23,937,473	7개월	
스리랑카	무쏘	1	2874CC	'99.10.1	16,019,685	2년10개월	
우즈베키스탄	레간자	1	1998CC	2000.4.4	16,957,786	1년3개월	
이디오피아	갤로퍼Ⅱ	1	2476CC	2000.7.25	19,442,699	1년	
인도네시아	OPEL Blazer	1	2200CC	'98.10.26	18,218,001	2년9개월	
중국	레간자	1	1998CC	2000.7.4	14,822,762	1년1개월	
태국	소나타Ⅱ	1	1988CC	'96.9.23	25,926,098	4년10개월	
페루	EF소나타	1	1998CC	2001.1.31	20,082,384	6개월	
필리핀	레간자	1	1988CC	2000.10.20	15,322,434	9개월	
몽골	갤로퍼	1	2972CC	'97.3.10	19,222,500	4년4개월	주재원
이집트	엘란트라	1	1600CC	'98.4.21	15,429,224	3년3개월	
네팔	무쏘	1	2874CC	96. 1	19,596,000	5년7개월	행정원
카자흐스탄	무쏘	1	3874CC	2000.12.30	24,125,843	7개월	
파라과이	갤로퍼Ⅱ	1	2476CC	2000.5.16	17,934,128	1년2개월	
	계	15			289,444,580		

회계서무 29. 협력단 청사 관리 실태

1. 청사관리 실태

○ 협력단 청사는 1978.12월 준공하여 20년이 지난 노후건물로서 시설 전반에 걸쳐 보수가 필요하여 1997년 10월 4억 3천만원 및 1999.10월 5억 5천만원 등 총 9억 8천만원을 투입하여 건물보수를 완료하였음.

※ 1997년 추경예산 편성 집행내역(세부내역 참조)
- 주로 긴급한 배관 (급수배관, 물탱크, 보일러배관)등 보수
- 제1별관 변전실 및 누전차단설비 교체
- 본관, 제1별관 옥상 방수공사
- 전등 및 소방설비, 천정 및 도색 공사실시

○ 1997년도에는 긴급 보수공사만 실시하여 기타 시설이 매우 노후화되어 건물내부에 백화현상 및 건물누수 흔적이 많아, 1999년 10월에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음.

※ 1999년 추경예산 편성 집행내역(세부내역 참조)
- 22년 사용한 난방용 보일러 교체
- 본관 메인홀 철골조(탑라이트) 등 보수
- 본관 사무실 천정, 전기, 배관 보수
- 메인홀 바닥 및 복도바닥보수
- 외벽방수 및 소화전 배관보수
- 식당 등 대수선이 불가피한 부문 보수

○ 1999년 예산을 편성하여 2000년 4월에 보수 완료하였으며, 국제협력사업 수행기관으로서 협력단의 건물내부 및 사무환경이 개선되었음.

1997년도 추경예산집행내역

공 사 내 역	추경예산	집 행	집행일자	미 집행	비 고
16개 공종 합계	431,937	427,946		3,991	
물탱크 및 급수 배관공사	53,330	53,330	'97.11.22	0	본계약:52,800 물탱크실 창호공사:530
수전설비 및 배전 설비공사	56,160	56,160	'97.11.28	0	본계약:53,800 원가용역:600 동력 분전반 교체:1,760
화장실보수공사	18,000	17,600	'97.10.25	400	
회의실보수공사	25,000	24,873	'97.10.10	127	
옥상방수공사	20,000	19,600	'97.12. 1	400	
냉방기구매설치공사	24,360	24,360	'97.12.29	0	
카페트교체공사	3,100	3,100	'97.10.15	0	본관 메인홀
본관내부보수공사	50,500	50,178	'97.12.19	322	천정:28,500 전기:18,500 숙직실:678 청소:2,500
출입문교체공사	4,500	4,500	'97.12.26	0	
난방공사	52,745	52,745	'97.12.30	0	
전등,소화전공사	37,000	37,000	'97.12.30	0	
천정교체공사	49,500	49,500	'97.12.30	0	
사무실도장공사	24,242	21,500	'97.12.30	2,742	
대강당닥트공사	5,600	5,600	'97.12.30	0	
수장공사	3,500	3,500	'97.12.31	0	
칸막이공사	4,400	4,400	'97.12.31	0	

1999년도 추경예산집행내역

연번	건 명	계약일자	금 액(원)	계약방법	업 체	준공일
99 -1	보일러교체공사	99.11.12	66,000,000	단체수의	보일러협동조합	'99.12.12
	기계설전기공사	12. 4	9,900,000	수의	서경전기	'99.12.10
	기계설배수관공사	12. 9	1,650,000	수의	(주)라신	'99.12.15
	소 계		77,550,000			
2	식당대수선공사	11.23	49,000,000	수의	(주)발해	'99.12.15
	식당전기공사	12. 2	5,500,000	수의	삼일전기	'99.12.15
	식당출입구공사	12. 2	9,900,000	수의	(주)발해	'99.12.15
	식탁상판교체	12. 4	8,800,000	수의	명성기업	'99.12.11
	식당의자구입(12개)	12.10	700,000	수의	썬플라워	'99.12.16
	소 계		73,900,000			
3	본관내부보수공사	12.30	187,000,000	입찰	(주)영동인테리어	'00.04.25
	원가계산 용역	12.18	2,000,000	수의	경제정책	'00.12.27
	본관전기공사	12.28	47,700,000	수의	서경전기	'00.04.10
	본관배관공사	12.28	47,000,000	수의	(주)현덕	'00.04.10
	소 계		281,700,000			
4	소화전보수공사	12.30	34,000,000	수의	(주)거람	'00.03.10
5	제2별관철구조물	12.31	31,900,000	수의	(주)우촌	'00.03.30
6	체육실보수공사	11.29	3,780,000	수의	서경전기외3개업체	'99.12.04
7	기타보수(카페트)	12.10	2,100,000	수의	종로지물	'99.12.23
소 계			506,930,000			

연번	건 명	계약 일자	금 액(원)	계약 방법	업 체	준공일
99 - 8	응접세트,의자보수	99.12.31	15,318,000	수의	썬플라워	'00.02.20
	기계실,프로젝트팀 도색공사	12.31	2,700,000	수의	색제공사	'00.01.30
	제2별관지붕도색	12.31	6,600,000	수의	색제공사	'00.03.30
	본관바닥코일공사	12.31	7,700,000	수의	서경전기	'00.04.10
	2별관난방배관공사	12.31	6,100,000	수의	현덕 프랜트	'00.01.30
	소 계		38,418,000			
합 계			545,348,000			

회계서무 30. 사무실 임대 현황

○ 협력단은 자체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직원들의 사무공간을 최대한으로 줄이면서 유휴공간을 제일은행 외 5개회사에 임대하고 있음.

※ 관련법규

- 협력단법 7조(사업) 제4호(그밖의 부대사업)
- 협력단법 22조(수수료 등의 징수)
  · 협력단은 제7조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수수료 기타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 월 임대료수입금은 1천 1백만원으로, 년간 총수입금은 1억 3천 4백만인바, 동 수입금은 2001년도 세출예산집행지침에 의거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직원 복지제고를 위한 경비로 사용할 계획임.

※ 사무실 임대현황

(단위 : 월/천원)

임 차 인	평 수	임대료	관리비	계
제 일 은 행	35.00평	881	550	1,431
증 진 협 회	47.32평	1,140	551	1,691
한 국 해 운	18.50평	380	184	564
대 한 해 사	52.99평	1,241	600	1,841
주) 예 원	96.28평	2,320	1,120	3,440
주) 리 브 로	179.70평	5,210	2,610	7,820
계	429.79평	11,172 (연 134,064)	5,615 (연 67,380)	16,787 (연 201,444)

회계서무 31. 여행업무 위탁업체 선정 경위

1. 위탁업체 선정경위

ㅇ 협력단 초청연수생의 국내산업시찰, 파견인력 및 임직원 국외 출장 등으로 항공권 발권량이 증가하여 여행업무의 업체를 지정하여 위탁, 시행하게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음.

ㅇ 복수 용역업체 지정운영
여행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독점으로 단일업체에게 부여할 경우 업무 추진의 방만함과 서비스 질의 저하 등 비효율적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사료되어 복수로 위탁업체를 지정하였음.

ㅇ 서비스의 질적향상 기여
복수 여행사를 지정운영함으로서 서비스가 개선됨으로 직원들의 업무시간이 절약되며, 특히 국제협력연수센타내 비즈니스실에 각각의 업체에서 직원 2명을 파견하여 초청연수생들의 항공권 예약상태를 확인하여 주고, 필요한 서류복사, 서류작성을 지원 하여 주고 있는 등 서비스의 질적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2. 지정업체 현황

ㅇ 운영업체 : 국제교류증진협회(일반여행업허가 문화관광부제509호) (주)동서여행사(일반여행업허가 문화체육부 제22호)

ㅇ 계약기간 : 국제교류증진협회 : 1998. 4. 7 ~ 2002.05.31.
(주) 동서여행사 : 1997. 4. 7 ~ 2002.05.31

ㅇ 대상업무: 항공권발권, 산업시찰, 공항영접, 여권, 비자수속 대행

국제교류증진협회 선정경위

○ 국제교류증진협회는 외교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유관기관으로서 협력단이 요구하는 여행용역업무를 성실히 수행 할 수 있는 업체이며, 동 협회의 전문업체로서 성장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 판단되어 선정하였음.

○ 1998. 1.26 외교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허가번호 326호)를 받아 초청및 파견외교, 국제회의 및 기타 정부가 행하는 국제협력, 교류 및 친선 증진을 위한 제반사업 및 활동을 하고있는 협회임.

○ 1998. 3.16 협력단과 국제교류증진협회간의 업무협조 약정체결로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를 수립하여 상호 협조함으로써 성공적인 국제협력사업 추진 및 국제교류 활동과 관련된 제반사업수행을 원활히 하고자 업무협조 약정을 체결한바 있음.

※ 협력단 사업은 정부간 협력사업으로 개도국 고위관료가 주 초청대상인바 의전 및 통역 등에 특별한 배려와 관심이 있어야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음.

※ 협력단은 조직의 신축적인 운영이 불가한바,
동 협회의 전문업체로서 성장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 사료됨. (연수센타운영, 청소, 항공권발권 등 용역가능한 업무의 전문업체로서 성장시 사업량이 증가하여도 직원를 추가로 신규채용하지 않고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음)

※ 일본 및 영국 등도 정부차원의 협력사업 수행을 위해 동 협회와 유사한 전담 Service기관을 운영중임.

(주)동서여행사 선정경위

○ 1997. 4. 7 (주)동서여행사 계약체결

동 업체 선정은 한국일반여행업협회로부터 외국인 국내여행 안내실적이 우수한 3개업체를 추천받아 이중 동 여행사가 '97.3.27 문화관광부로부터 우수여행업체로 지정된 사실 및 그룹내 버스임대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초청연수생의 산업시찰시 임대가 용이하는등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할 것으로 판단되어 선정하였음.

※ 동 여행사는 그룹내 삼화관광버스(약 90대)를 소유하고 있음.

※ 1997.4.7 계약체결이후 여행업무 지정업체로서 동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

3. 업체지정 추진경위

○ '91. 4. 1 항공권 발권(협력단 사업지원단에서 발권)
○ '94.12.26 경방여행사 여행업무용역업체 계약체결
* 당시에는 연수생 안내 및 여권,비자발급 업무시행
○ '95. 1. 5 거도여행사, 효성항공 추가(총3개업체 지정운영)
○ '95. 4.15 거도여행사 용역포기
○ '95. 9.21 효성항공 용역포기
○ '96. 1. 8 초원관광 계약('96.1.8 용역포기)
○ '97. 3. 7 경방여행사 계약연장('97.3.19-98.3.18 1년간)
○ '97. 3.12 여행업무용역계약 신규업체선정계획보고
○ '97. 3.18 여행업무용역업체 추천의뢰(한국일반여행업협회)
○ '97. 3.26 여행업협회 추천(동서, 한진, 세일 3개업체 추천)
○ '97. 4. 7 동서여행사 계약체결('97.4.7 - 현재까지)
○ '98. 2. 12 경방여행사 계약해지 통보
○ '98. 4. 7 국제교류증진협회('98.4.7 - 현재까지)

정 보 지 원

(정보) 1. 협력단 정보화 현황은 1

(정보) 2. 협력단 정보화 수준은 3

(정보) 3.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대국민 정보서비스 제공현황은 ... 4

(정보) 4. 전산보안 상태와 향후 계획은 5

정보지원 1. 협력단 정보화 현황은

1. 정보화 현황

- ㅇ '98년까지 인사, 보수, 예산 등 부분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한 후, '98.6월에 정보지원팀을 신설하고 체계적인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해 국제협력정보화 중장기발전계획(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본격적인 정보화를 착수하였음.
- ㅇ 동 마스터플랜은 1999~2002년간 4개년 계획으로서 "국제협력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국제협력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협력단의 국제경쟁력확보**"가 목적임.
- ㅇ 현재까지 마스터플랜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작업의 일환으로
  - **인사, 보수, 회계, 예산, 자산, 조달, 연수생초청, 봉사단파견 사업**관리업무를 전산화하였으며, 인터넷상에서 운영되는 협력실적 통계프로그램을 개발하였음.
  - 또한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하여 업무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자료를 공유, 활용하므로써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음.

2. 향후계획

- ㅇ 금년 10월까지 **전문가파견사업, 개발조사사업, 프로젝트형사업, 물자공여사업, NGO지원사업, 해외사무소관리, 사업평가 및 감사 관련업무**를 전산화 할 계획이며,

o 또한 협력사업부문과 일반관리 부문을 연계시켜 정보를 공유하므로써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수행 기반을 조성하고 대국민정보제공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제협력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임.

정보지원 2. 협력단 정보화 수준은

1. 정보화 수준 현황

ㅇ 협력단이 지난해 8월 자체적으로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등과 정보화 수준을 비교해 본 결과,
- 홈페이지 보유,
- 전자결재 실시,
- 대국민 정보서비스 제공현황 등의 측면에서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ㅇ 2000. 5월 협력단 임직원 정보화 수준을 조사한 결과, 임직원중 97%가 일반적인 업무처리에 필요한 기초 전산 능력(Excel, 한글워드, 전자결재프로그램, 인터넷 정보검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임직원의 정보화 수준도 양호한 실정임.

2. 향후계획

ㅇ 2004년까지 국제협력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체계적으로 완료하여 일반 국민에게 협력사업을 홍보하고 업무수행과정에서 획득한 개도국에 대한 협력정보를 보다 다양하게 제공해 나갈 계획임.

ㅇ 또한 임직원의 정보화 능력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임.

정보지원 3.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대국민 정보서비스 제공 현황은

1.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서비스 제공현황

○ 협력단은 '98. 9월부터 국민들의 국제협력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수생초청사업, 봉사단 파견사업 등 협력단이 수행중인 사업에 대한 내용 및 사업소식을 비롯하여 경영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고 있으며,

○ 아울러 홈페이지에서 해외봉사단 파견과 관련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KOV마당을 별도로 운영하고 분야별 전문인력을 수시로 접수하는 한편, 협력단 운영, 개발협력정보 및 입찰공고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므로써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음.

○ 또한 국제협력사업의 홍보효과 및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협력사업 현장사진 중심으로 Photo Bank를 신설하여 운영중임.

○ 최근까지 분기당 약 2만명, 일평균 200명 이상이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있으며, 대국민 국제협력 정보제공 및 국제협력 참여 창구로 활용되고 있음.

2. 향후계획

○ 홈페이지가 국제협력 참여창구 및 대국민 홍보의 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자료를 갱신해 나가고 협력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임.

정보지원 4. 협력단 전산보안 상태와 향후 계획은

1. 전산보안상태

ㅇ 협력단은 지금까지 전산망 해킹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없으나 정보통신기술이 급속히 발전됨에 따라 타 기관에서 해킹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 전산망에 **해킹방지 방화벽**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전산실 내에는 무인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출입문에는 이중시건장치를 설치하였으며 임직원 컴퓨터에는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외부로부터의 전산망 침입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음.

ㅇ 또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전산보안교육을 실시하여 전산보안의 생활화를 유도하고 있음.

2. 향후 계획

ㅇ 앞으로 전산망에 해커가 침입했을 경우 조기에 발견될 수 있도록 침입탐지 시스템 설치 및 이메일 이용시 송수신 내용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메일 암호화 시스템 도입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임.

기 획 조 정 팀

(기획조정) 1. 공적개발원조(ODA)의 개념 1
(기획조정) 2.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약사 2
(기획조정) 3. 우리나라의 ODA실시 체계 3
(기획조정) 4. 우리나라의 ODA규모 4
(기획조정) 5. 연도별·지역별 원조실적 5
(기획조정) 6. 분야별 원조실적 7
(기획조정) 7. 협력단의 북한 지원에 대한 입장 8
(기획조정) 8. 국별 원조전략의 수립 9
(기획조정) 9. 협력효과 제고 및 지역별 협력전략 10
(기획조정) 10. 협력사업의 국별 배분기준 11
(기획조정) 11. 사업선정 절차 및 기준 13
(기획조정) 12. 수요조사 실시 방법 14
(기획조정) 13. OECD/DAC 가입 필요 여부 15
(기획조정) 14. 정상간 약속사업 현황 17
(기획조정) 15. KOICA 사업과 EDCF 일원화 방안 23
(기획조정) 16. 비 ODA 업무 이관계획 24
(기획조정) 17. 우리 원조에 대한 대내외 인식 26
(기획조정) 18. 협력사업 사후관리 27
(기획조정) 19. 재외동포재단과의 업무 중복성 여부 29
(기획조정) 20. 국제교류재단과의 업무 중복성 여부 31
(기획조정) 21. 협력단 예산/사업비/행정성 경비 추이('91-2000) 32
(기획조정) 22. 2002년도 예산요구 및 반영 현황 34
(기획조정) 23. 2002년 예산중 정상간 약속사업 반영 내역 36
(기획조정) 24. 개도국 협력사업의 협력단 전담추진 필요성 39

(기획조정) 25. 협력사업비 증액 필요성 42
(기획조정) 26. ODA 확충을 위한 별도재원 확보방안 45
(기획조정) 27. 무상원조 비중증대 필요성 및 증액방안 46
(기획조정) 28. 예산편성시 자체수입 과소 계상 여부 47
(기획조정) 29. 예산편성시 자체수입을 과소계상, 인건비를 과다 지급한 사례 및 개선사항 48
(기획조정) 30. '99결산 잉여금 41억원중 2001년 예산에 3억원만을 반영한 사유 49
(기획조정) 31.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역('97-'00) 50
(기획조정) 32. 대 중국 협력사업 추진현황 52
(기획조정) 33. 대 베트남 협력사업 추진현황 54
(기획조정) 34. 대 인도네시아 협력사업 추진현황 56
(기획조정) 35. 대 몽골 협력사업 추진현황 58
(기획조정) 36. 몽골 대통령 약속사업 추진현황 59
(기획조정) 37. 아세안지역 협력사업 현황 60
(기획조정) 38. 경영공사제도의 협력단 시행 현황 62
(기획조정) 39. 대통령 약속사업 비중과 예산확보 등 추진상 문제점 63

기획 1.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의 개념

1. ODA의 정의

ㅇ ODA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복리증진을 주 목적으로하여 개도국 또는 국제기구에 공여하는 무상원조나 공공차관을 의미함.

2. ODA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OECD/DAC 기준)

ㅇ **정부** 또는 **공공기관 및 그 실시기관**에 의하여 개도국 및 국제기구에 공여되는 자금.

ㅇ **개도국의 경제발전** 및 **복지향상**을 주목적으로 할 것

ㅇ 양허성을 띄어야하며 구체적으로 **증여율(Grant Element)이 25% 이상**이어야 함.

※ 증여율(Grant Element): 원조조건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로 자금 약속액의 액면가치로부터 원금상환 및 이자지불 합계액의 할인 현재가치(할인율 10%)를 차감하여 산출하며, 금리가 낮고 상환기간이 길수록 증여율은 높아짐.

- 증여율(G.E) = $\frac{\text{차관액면가액 - 원리금 상환액의 현가}}{\text{차관 액면가액}}$ X 100

기획 2.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약사

1. 공적 개발원조의 시작

- ㅇ 1963년 미국국제개발청(USAID) 자금에 의해 최초로 연수생초청사업 실시
  - 65년도 부터는 우리정부의 자금으로 연수생초청사업 실시
- ㅇ '67년 전문가파견사업 시작
- ㅇ '77년 외무부에서 9억원의 예산으로 개도국에 국산물자를 제공
- ㅇ '82년 KDI에서 개도국의 주요인사를 초청하여 우리의 개발경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국제연찬사업' 시작
- ㅇ '84년 건설부와 노동부에서 각각 '무상기술용역사업'과 '직업훈련설립' 지원사업을 추진

2. 공적개발원조의 체계화

- ㅇ '86 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에 즈음하여 외채감소와 국제수지 흑자 실현으로 우리나라의 개발원조가 본격화
  - 국제무대에서 우리 위상의 제고로 이에 상응하는 국제적 책임 수행 필요성 대두
  -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개도국과의 협력강화 필요성 증대
- ㅇ '87 개도국에 대한 공공차관 지원을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설립, 300억원의 정부 예산을 출연
- ㅇ '91.4월 **한국국제협력단을 설립**
  - 그동안 건설부, 과기처등 정부 각부처에서 독자적으로 실시해 오던 대외·무상기술협력사업을 전담·실시하여 원조사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

기획 3. 우리나라의 ODA실시 체계

1. 개 관

ㅇ 우리나라의 ODA는 수원국에 직접 제공하는 **양자간** 원조와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다자간** 원조로 나누어지며, 양자간 원조는 다시 **무상.기술협력** 및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으로 구분됨.

2. 원조실시체계

ㅇ 양자간 원조
- 무상.기술협력사업 : 외교부 감독하에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실시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 재경부 감독하에 수출입은행에서 집행

ㅇ 다자간원조
- ~~UN등 국제기구 분담금 : 외교부~~
- IBRD, ADB등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 : 재경부

〈 우리나라의 ODA 실시체계〉

협 력 형 태		실시기관	주무부처
양자간	ㅇ 무상원조: 물자공여, 재해구호지원 프로젝트형사업 ㅇ 기술협력: 개발조사, 연수생초청 전문가파견, 봉사단파견 의료단/태권도사범파견 NGO사업지원	한국국제협력단	외교통상부
	ㅇ 유상협력: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수출입은행	재정경제부
다자간	ㅇ 국제기구분담금: UN 등	한국은행	재정경제부
	ㅇ 국제기구출자금: IBRD,ADB 등 국제개발금융기관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

기획 4. 우리나라의 ODA규모

○ 우리나라의 2000년도 ODA규모는 GNP대비 **0.046%**인 **212백만불**로 '99년 (317백만불) 대비 33% 감소

※ '99년도에는 한국은행의 IBRD, IDA에 대한 특별증자금 126백만불 지원으로 ODA 규모가 대폭 늘어남.
※ GNP규모: '99년 4,021억불, '00년 4,552억불

○ DAC회원국 평균 ODA/GNP비율은 **0.22%**('00)이며, UN의 권고 기준은 **0.7%**임.

《참고1: OECD-DAC회원국과 우리나라의 ODA규모('00) 비교》

구분	DAC회원국	일본	미국	네덜란드	스페인	호주	한국
ODA규모(백만불)	53,058	13,062	9,581	3,075	1,321	995	**212**
ODA/GNP(%)	0.22	0.27	0.10	0.82	0.24	0.27	**0.047**
1인당 부담액($)	64	103	35	94	34	52	**4.5**

※ 네덜란드, 스페인, 호주는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국가임

《 참고2 : 우리나라의 연도별 ODA 실적 추이 》

(단위:백만불)

구 분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ODA총계 (증가율,%)	57.5 (-)	76.8 (33.6)	111.6 (45.3)	140.2 (25.7)	116.0 (△17.3)	159.2 (37.2)	185.6 (13.8)	182.7 (△1.6)	317.5 (73.8)	212.1 (△33.2)
○ 양자간협력	31.5	45.2	60.1	60.1	71.5	123.3	111.3	124.7	131.3	131.2
-무상원조	25.0	31.0	32.7	38.5	50.1	53.4	54.8	37.2	38.9	47.8
-유상원조	6.5	14.2	27.4	21.6	21.4	69.9	56.5	87.5	92.4	83.4
○ 다자간협력	26.0	31.6	51.4	80.5	44.5	35.8	74.3	58.0	186.2	80.9
ODA/GNP(%)	0.02	0.03	0.03	0.04	0.03	0.03	0.04	0.058	0.079	0.047

기획 5. 연도별 · 지역별 원조실적

ㅇ '91-2000년간 총 **402백만불** 상당을 개도국에 지원함.

ㅇ 총 지원액에 대한 지역별 점유율은 아시아 · 태평양지역이 **35.7%**, 아프리카 11.7%, 중남미 10.1%, 중동 및 동구 각 7.1% 순임.

- 특히 아 · 태지역은 '91년 23.6%에서 2000년 **51.0%**로 대폭 확대됨.

※ 상세는 첨부 참조

ㅇ 아시아 지역에 중점 지원된 것은 아시아 지역이 우리의 주요 경제 통상 파트너로서 중요성과, 사업 지원에 따른 효과가 다른 지역에 비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임.

- 우리나라의 전체 교역량중 아태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99년 47.4%에 이어 2000년에도 48.7%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역수지에 있어서도 이 지역으로부터 '99년 129억불, 2000년도에 70억불의 흑자를 각각 기록하고 있음.

- 또한, 해외건설수주에 있어서도 '99년 44억불, 2000년도 34억불로 우리나라 전체 해외수주의 48.0% 및 62.5%를 각각 차지하고 있음.

ㅇ 특히, 다른 선진국들도 자국의 특정 이해지역에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

- 뉴질랜드와 호주는 남태평양 및 동남아 국가 중점 지원 (65%이상)
- 일본은 아시아 지역에 중점 지원(63.8%),
- 미국은 외교 · 안보 등의 차원에서 중동 및 중남미지역 중점지원
- 프랑스, 영국 등 유럽국가는 아프리카 등 구 식민지 국가 중점지원

《 연도별 · 지역별 지원실적 》

(단위 : 천불/%)

구 분	계	아태지역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동구.CIS	국제기구	기타
계	401,595	143,621	47,042	40,414	28,368	28,418	12,264	101,469
점유율	100%	35.7	11.7	10.1	7.1	7.1	3.0	25.3
'91	22,839	5,397	4,943	3,550	1,053	800	705	6,392
점유율	100%	23.6	21.6	15.5	4.6	3.5	3.1	28.0
'92	29,386	6,341	5,410	2,995	1,644	1,168	638	11,189
점유율	100%	21.6	18.4	10.2	5.6	4.0	2.2	38.1
'93	30,448	8,503	5,126	3,610	1,685	1,391	659	9,474
점유율	100%	27.9	16.8	11.9	5.5	4.6	2.2	31.1
'94	38,760	12,136	5,130	3,569	3,299	2,357	1,379	10,890
점유율	100%	31.3	13.2	9.2	8.5	6.1	3.6	28.1
'95	49,228	16,316	6,186	3,621	3,860	3,588	1,800	13,857
점유율	100%	33.1	12.6	7.4	7.8	7.3	3.7	28.1
'96	53,741	19,608	5,741	4,229	3,549	4,857	1,582	14,175
점유율	100%	36.4	10.7	7.9	6.6	9.0	2.9	26.4
~~'97~~	~~55,473~~	~~19,836~~	~~4,696~~	~~7,818~~	~~4,544~~	~~4,546~~	~~2,001~~	~~12,033~~
점유율	100%	35.7	8.5	14.1	8.2	8.2	3.6	21.7
'98	38,439	12,626	3,380	4,683	5,318	2,991	1,575	7,866
점유율	100%	32.8	8.8	12.2	13.8	7.8	4.1	20.5
'99	37,930	19,715	2,215	2,539	1,756	3,024	979	7,702
점유율	100%	52.0	5.8	6.7	4.6	8.0	2.6	20.3
'00	45,351	23,143	4,215	3,800	1,660	3,696	946	7,891
점유율	100%	51.0	9.3	8.4	3.7	8.1	2.1	17.4

※ 기타는 개발인식증진비, 행정비용 및 지역구분이 불가능한 사업비 포함.

기획 6. 분야별 원조실적

○ '91-'00년간 분야별 지원실적을 보면, 총 지원액 402백만불중 교육, 보건, 공공행정 등 사회인프라가 214백만불로 전체의 **53.4%**를 차지하고 있음.

○ **교육분야**에 대한 지원은 전체의 **21.4%**를 차지, 협력단이 개도국의 **인적자원개발(HRD) 분야에 중점** 지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또한, 우리의 개발경험 전수 및 수원국의 복지향상을 위한 인구 및 보건분야(11.4%), 공공 행정(10.5%), 농림수산(6.3%), 개발계획(6.2%), 광공업건설(4.6%) 순으로 지원되었음.

《 '91-'00 분야별 지원현황 》 (단위 : 천불)

구분	총계	점유율(%)	91년도	92년도	93년도	94년도	95년도	96년도	97년도	98년도	99년도	00년도
계	401,595	100.0	22,840	29,386	30,448	38,760	49,228	53,741	55,473	38,439	37,930	45,349
사회인프라	214,345	53.4	9,510	11,598	13,317	20,554	25,523	33,662	33,377	20,164	19,207	27,434
교육훈련	86,138	21.4	1,575	1,892	3,513	7,227	9,755	15,891	16,395	10,331	8,047	11,512
보건인구	45,911	11.4	1,365	2,392	3,573	2,965	6,938	7,277	4,896	4,960	4,183	7,361
공공행정	42,362	10.5	-	-	5,143	6,977	5,371	7,757	7,934	3,128	2,375	3,677
개발계획	24,783	6.2	6,467	7,247	656	1,546	1,413	1,734	2,607	897	1,038	1,178
기타	15,150	3.8	103	67	432	1,839	2,045	1,001	1,545	848	3,564	3,706
경제인프라	18,942	4.7	3,666	1,138	1,956	2,654	1,639	911	1,326	2,633	924	2,094
에너지	2,525	0.6	-	-	-	527	438	12	15	480	270	784
교통통신	11,272	2.8	3,666	586	620	1,199	509	587	232	2,095	654	1,125
기타	5,144	1.3	-	553	1,336	929	692	312	1,079	59	-	185
생산부문	82,404	20.5	9,664	16,650	15,176	4,662	5,275	2,477	6,038	7,351	7,729	7,384
농림수산	25,272	6.3	1,364	2,140	2,685	1,949	2,677	1,800	2,932	3,704	3,272	2,747
광공업건설	18,314	4.6	238	1,072	1,152	1,596	2,407	663	3,096	1,982	3,876	2,233
무역금융	3,391	0.8	98	66	275	1,086	191	13	10	386	581	685
기타	35,427	8.8	7,963	13,371	11,064	31	-	-	-	1,279	-	1,719
분류불가	85,902	21.4	-	-	-	10,890	16,791	16,692	4,732	8,290	10,070	8,437

기획 7. 협력단의 북한 지원에 대한 입장

o 협력단은 북한이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로하는 인적자원개발, 재난 구호 및 식량원조 등 각종 협력사업에 다양한 know-how를 가지고 있음.

o 따라서 정부가 협력단을 통한 북한 지원 방침을 정하고 관련 법규 마련과 함께 별도 예산을 조치 해 줄 경우 저희 협력단은 북한을 지원을 할 용의가 있음.

기획 8. 국별 원조전략의 수립

1. 국별 원조전략 수립의 중요성

○ 수원국의 경제, 사회, 문화적 특성에 부합하는 원조를 실시하여 원조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원국의 제반사정의 연구와 현지에서의 사업수행 경험을 바탕으로한 국별원조전략 수립이 중요함.

2. 추진현황

○ 우선적으로 해외사무소 및 주재원이 파견되어 있는 12개 중점 협력 대상국에 대해 국별 원조전략 보고서를 작성중에 있으며 현재 10개국에 대해 보고서가 완성되어 활용중 임.

- 작성 완료국(10개국) :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이디오피아, 이집트, 인도네시아, 파라과이, 필리핀, 훠지

3. 향후 추진계획

○ 기 완성된 보고서는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하고 있으며, 그중 주요 중점 협력 대상국가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국별원조전략**(Country Programming)을 수립 예정

- 금년도에는 우선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에 대해 작성중임.

기획 9. 협력효과 제고 및 지역별 협력전략

1. 협력효과 제고 방안

○ 우리나라의 협력사업은 소규모로 다수국(130여개 개도국)에 지원되어 재원의 효율적 활용에 문제점이 있었음.

○ 협력단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별원조전략을 수립**(10개국가/'98.9월), **대상국별 지원규모 및 사업형태를 차별화**하는 등 개선노력을 경주하였으며 중점협력국에 대한 원조비중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임.

- 10대 수원국 원조비중은 '91년 20.3%에서 '00년 51.7%로 확대

《 참고 : 10대 수원국에 대한 원조 추이 》

(단위 : 천불)

구분	'91	'99	'00
총 원조규모 (A)	22,840 (120국 8기구)	37,930 (128국 12기구)	45,351 (133국 11기구)
10대중점국(B) (B/A)	4,639 (20.3%)	18,508 (48.8%)	23,433 (51.7%)
10대 수원국	몽골, 니카라과, 필리핀, 스리랑카, 니제르, 이디오피아, 인니, 코트디브와르, 중앙아	베트남, 중국, 인니, 스리랑카, 카자흐, 몽골, 이디오피아, 네팔, 우즈벡, 이집트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니, 남아공, 페루, 몽골, 카자흐스탄, 네팔, 스리랑카

2. 지역별 중점 협력방향

○ 지리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어 협력효과가 큰 **아시아(특히 ASEAN국가) 지역을 중점 지원함.**

○ 기타 지역은 협력효과와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물자지원 또는 HRD 분야를 조화롭게 지원해 나가고 있음.

기획 10. 협력사업의 국별 배분기준

1. 국별배분 기본방향

○ 수원국과 우리나라와의 정치·경제적 관계, 수원국의 국력 및 성장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도국을 수개 국가군으로 분류하여 각군에 따라 원조규모 결정

2. 국별 원조규모 결정 고려요인

○ **정치외교적** 고려 : 지리적 인접성(아태지역), 기존우방국가, 동포 밀집지역, 국제평화정착 관련지역(예 : PA), 시장경제 이행지역, 대통령 방문국 등 특별사항이 포함됨.

○ **경제적** 고려 : 우리나라와의 실질적인 경제관계에 있어서의 중요성을 평가 하는 항목으로 무역 및 투자 실적, 자원협력 실적등이 포함됨.

○ **인도주의적** 고려 : OECD의 DAC에서 분류한 최빈국(LLDC) 등 생활환경 고려

○ 우리의 개발경험 흡수능력이 있는 국가

3. 금년도 중점협력 대상국

○ 베트남, 필리핀, 중국, 인도네시아, 몽골, 스리랑카, 네팔, 이집트,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등

《 참고 : 중점협력대상국 분류표 》

분류	국 가
A군(10국) 중점협력대상	베트남, 중국, 미얀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우즈벡, 카자흐스탄, 몽골, 라오스, 캄보디아
B군(10국) 준중점협력대상	태국, PNG, 페루, 도미니카(공), 볼리비아, 방글라데시, 파테말라, 휘지, 네팔, 캄보디아
C군(20국) 일반협력대상	파키스탄, 콜롬비아, 케냐, 불가리아, 튀니지, 러시아, 루마니아, 이집트, 스리랑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니제르, 엘살바돌, 파라과이, 스와질랜드, 탄자니아, 이란, 베네수엘라, 알제리, 나이지리아
D군(30국) 기타협력대상	솔로몬군도, 인도, 모로코, 자메이카, 파나마, 예멘, 우크라이나, 에쿠아돌, 수단, 말리, 슬로박, 케메룬, 리이베리아, 자이레, 니카라과, 타지키스탄, 유고, 코트디브와르, 가나, 세네갈, 잠비아, 우간다. 보스니아, PLO, 부탄, 가이아나, 요르단, 시리아, 보츠와나, 짐바브웨
E군(63국) 잠정협력대상	바누아투, 팔라우, 사모아, 마샬군도, 마이크로네시아, 투발루, 키리바시, 세인트빈센트, 기니, 이라크, 마다가스칼, 르완다, 앙골라, 알바니아, 리투아니아, 시에라레온, 베넹, 중앙아, 아프가니스탄, 지부티, 벨라루스, 토고, 라트비아, 에리트리아, 아이티,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통가, 모리나티아, 레소토, 몰디브,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깝보베르데, 차드, 코로로스, 적도기니, 감비아, 기니비소, 말라위, 모잠비크, 상토메프린시페, 소말리아, 아르메니아, 콩고, 키르기즈스탄, 인길라, 벨리즈, 도미니카연, 그레나다, 레바논, 마케도니아, 몰도바, 아미비아, 나우에, 세인트헬레나, 수리남, 티모르 토케라우, 투르크메니스탄, 투루크키아코스군도, 왈리스, 에스토니아

* 근거 : 동 분류는 외교부와의 협의를 거쳐 채택된 "4개년('98-2001)간 무상협력사업 국별배분계획(안)"을 근거로 하고있음.

기획 11. 사업선정 절차 및 기준
- 개발조사, 프로젝트사업 -

○ 협력단은 지원대상사업 선정시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사업선정위원회의 심의 및 정부관계 부처와 협의 과정등을 거쳐 사업을 선정함으로써 사업선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음.

○ 공관 및 정부부처로부터 요청받은 협력사업은 우선 관계 전문가에 의뢰하여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케하고, 이를 기초로 사업선정위원회에서 1차로 사전조사 실시 대상사업을 선정하게됨.

○ 사전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협력단 담당 직원으로 구성된 사전조사팀을 대상국에 파견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외교부와 협의하여 지원 후보사업을 2차로 선정하게됨.

○ 선정된 후보사업은 차년도 예산 요구시에 반영(예산처와 협의)하고, 예산에 반영되면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사업을 시행하게됨.

《 참고1 : 사업선정 절차 》

■ 수요요청서 접수→사업부서 검토→사업선정위원회 심의(1차후보사업 선정)→사전조사단파견→외교부와 협의(최종 후보사업 선정)→차년도 예산에 반영→사업계획 외교부장관승인→사업 시행

《 참고2 : 사업선정시 주요 고려사항 》

■ 해당국가와 **상호 호혜적인 이익증진**이 수반될 수 있는 사업
■ 정부차원에서 약속된 사업 및 재외공관장이 추천하는 사업 우선 고려
■ 수원국의 **원조수용능력** 및 사업종료후 지속적인 **사업관리능력** 고려
■ 기술협력 등 **타 협력수단과의 연계** 가능여부 고려
■ 기타 양국간 정치, 경제, 문화 및 역사적인 특수관계 등 감안

《 참고3 : 선정시 평가항목 》

■ 수원국의 개발우선순위, 사업대상지의 적정성, 지원물자의 국산화 가능비율, 사업규모의 적정성, 수원국 부담사항의 적정성, 지원필요성 및 기대효과 등을 고려

기획 12. 수요조사 실시방법

○ 적절한 수요조사를 통한 우량사업의 발굴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인 바, 수요조사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중임.

○ 수요조사는 재외공관 및 우리 정부부처를 수요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모든 협력사업에 대해 **사업착수 18개월전에 수요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사업성을 검토하고

- 수원국 요청주의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사업발굴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주요국가에 대해서는 국별 원조전략 보고서를 작성하여 활용해 나갈 계획임.

- 또한, 매년 실시하는 정기수요조사 외에 주재국 주요인사 면담, 공관의 건의 및 해외사무소 활용 등을 통해 수시로 우량사업을 발굴하고 있음.

기획조정 13. OECD/DAC 가입 필요여부

1. 가입의 의의

○ OECD 회원국으로서 DAC 가입은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것으로서 국제사회에서 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

-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국력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제적 신인도 제고
- 또한, 원조사업에 대해 회원국들과 정보교류 및 공동프로젝트를 실시하는 등 **선진국의 원조경험과 노하우 습득**이 용이하여 보다 효율적인 원조수행이 가능함.

2. 가입에 따른 ODA규모

○ 그러나, DAC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2000년말 현재 GNP대비 **0.047%** 수준인 ODA 규모를 DAC 회원국 최저수준인 **0.1%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DAC 회원국의 ODA/GNP 비율은 22개 회원국의 평균 0.22%이며, 덴마크가 1.06%로 가장 높은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이 0.1%로 최저수준임.

○ 우리나라의 DAC 가입은 ODA 규모가 GNP 대비 0.1%를 넘어서는 시점에서 현실적인 검토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현재 DAC의 정기 회의에 옵서버로 참여하는 등 DAC 회원국들의 동향 및 정보를 미리 파악하는 등 준비중임.

※ 현재 OECD 가입국이나 DAC 비회원국인 멕시코, 터키등도 DAC 가입을 검토중이고, DAC 사무국도 우리나라의 DAC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실정임.

《 참고1 : 우리나라의 연도별 ODA 실적 추이 》

(단위:백만불)

구 분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ODA총계 (증가율,%)	57.5 (-)	76.8 (33.6)	111.6 (45.3)	140.2 (25.7)	116.0 (△17.3)	159.2 (37.2)	185.6 (13.8)	182.7 (△1.6)	317.5 (73.8)	212.1 (△33.2)
ODA/GNP(%)	0.02	0.03	0.03	0.04	0.03	0.03	0.04	0.058	0.079	0.047

《 참고2 : OECD/DAC(개발원조위원회) 개요 》

□ **회원국 현황** : OECD 회원국 29개국중 22국이 DAC 회원국(EU 제외)

- ㅇ OECD/DAC 회원국중 아이슬랜드, 터키, 멕시코, 체코, 헝가리, 폴란드, 한국은 비회원국(7국)/IMF, IBRD, UNDP는 옵저버임.

□ **역 할** : OECD 24개 위원회중 하나로 회원국의 원조정책에 대한 심사를 통해 회원국에 효율적인 정책권고 및 범세계적인 이슈, 기술협력, 평가등에 대한 광범위한 원조정책 권고 및 결의사항 제정

기획 14. 정상간 약속사업 현황

1. 정상간 약속사업 추진현황

○ 정상간 외교성과를 극대화하고 개도국과의 우호협력관계 증진의 수단으로 협력사업을 활용하고 있음.

- 금년도에 추진중인 정상간 약속사업의 규모는 **연수생 695명, 개발조사 2건 및 프로젝트 14건** 등 총 **14,530천불** 규모임.
  · 연수생초청 : 695명(아세안, 남아공, APEC, 한.일 공동연수)
  · 개발조사 2국 2건 399천불 : 베트남, 몽골
  · 프로젝트 6국 14건 6,997천불 : 몽골,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

- 2002년도 경우, 정상간 약속사업 후속조치로서 연수생초청(808명 3,495천불), 개발조사(3국3건 288천불), 프로젝트(6국 1기구 11건 3,947천불)등 총 **7,730천불**을 예산에 반영함.
  ※ 연도별 현황
  · '97 : 9국 12건 7,120천불
  · '98 : 10국 14건 4,620천불
  · '99 : 8국 11건 6,470천불
  · '00 : 15국 17건 14,760천불
  · '01 : 13국 20건 14,530천불

2. 정상간 약속시 부담여부 및 성과

○ 정상간 약속사업은 사전에 약속국가와의 경협현황, 우리와의 관계 잠재력, 통상적인 협력사업 규모, 협력단의 부담 가능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효과를 최대한 거양하면서 우리의 부담이 최소화되는 범위내에서 추진하고 있음.

○ 정상간 약속을 통해 수원국에 대해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원조를 수행해 나가는 계기가 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첨부 1. 2002년 대통령약속사업 현황
2. '96년 이후 정상간 약속한 프로젝트사업 현황

<첨부 1>

2002년도 대통령약속사업 예산반영 현황

구분	사 업 명	기간/총사업비 (천불)	2002 반영내역 백만원(천불)	비고
총 계			100,48(7,730)	
연수생초청	소 계	808명	4,543(3,495)	
	APEC 직업훈련연수	40명	220(169)	'93.10 APEC 정상간 회의시 대통령약속
	한.일 공동연수	35명	192(148)	'98.10. 정상간 공동선언 후속 조치
	몽골 차세대 지도자 파트너쉽	15명	82(63)	'01.2 한.몽 정상간 회의 후속조치(2002-2004간)
	동아시아 인턴쉽 프로그램(IT분야)	100명	650(500)	'00.11. ASEAN+3/1회의 후속조치
	아세안 국가표준 및 적합능력배양	18명	99(76)	'00.11. ASEAN+1 정상 회의 후속 조치
	ASEAN 연수	600명	3,300(2,539)	'00.11. 한.아세안 정상 회담 후속조치
개발조사	소 계	3건	374(288)	
	몽골 광물자원탐사	'00~'03/500	99(76)	'99.5 대통령 몽골 방문시 지원 약속
	인니 자카르타 서민주택개발 사업	'01~'02/250	165(127)	'01.11. 대통령 인니 방문시 지원약속
	캄보디아도로개보수 타당성조사 및 실시 설계 사업	'01~'02/600	110(85)	'00. 11. 아세안+3 정상 회의시 훈센총리 요청
프로젝트	소 계	11건	5,131(3,947)	
	몽골기술대학지원	'00~'02/700	260(200)	'99.5 대통령 방몽시 지원합의
	몽골 혈액센타건립	'01~'02/300	195(150)	상 동
	몽골 장기이식센타 건립	'01~'02/250	130(100)	상 동
	베트남 Vihn Loc 지방 병원 개선	'01~'02/500	260(200)	'98.12 김대통령 방베시 지원 약속
	베트남 IT 센타 건립 지원	'02~'03/2,500	280(215)	'00.10 ASEM 정상회담시 우리대통령 제안

구분	사 업 명	기간/총사업비 (천불)	2002 반영내역 백만원(천불)	비고
프로젝트	동티모르 국회의사당 건립	'02~'05/2,650	260(200)	'00.1 동티모르 구스마오 의장 방한시 약속
	인도네시아 IT 센타 건립지원	'01~'03/2,500	1,232(948)	'00.11 한,인니 정상 회담시 우리대통령 제안
	중국 밀운저수지 집수구 수원호 조림 사업	'01~'04/1,000	494(380)	'98.11 대통령 방중시 환경, 조림, 사막화방지 분야에 대한 협력강화 언급관련 후속조치
	중국 서부지역 조림 사업	'01~'05/5,000	1,120(862)	'00.10. 주룽지 중국 총리 방문시 약속
	필리핀 IT 센타 건립 지원	'02~'03/2,500	250(192)	'00.10. ASEM 정상 회담시 우리대통령 제안
	국제 백신 공동연구 사업	'02~'06/2,500	650(500)	'00.11. ASEAN+3회의 후속 조치

<첨부 2>

'96년이후 정상간 약속한 프로젝트 사업현황

기간	국가	사업명(기간/예산)	추진현황
'96. 9	온두라스 (중남미 6국 순방)	산업기술훈련원 건립 ('97-'99/1,000천불)	- '97. 9 구상서 교환 - 건축 완료(사업종료)
'96. 9	과테말라 (중남미 6국 순방)	제 2, 3아동 복지원 건립('97-'99/1,000천불)	- '97. 12 구상서 교환 - 건축 완료(사업종료)
'96. 9	니카라과 (중남미 6국 순방)	벽지농촌 교사 주택 건설('97-'99/1,000천불)	- '97. 9 구상서 교환 - 주택 건설(81% 공정)
'96. 9	엘살바돌 (중남미 6국 순방)	농촌지역 식수공급 ('97-'98/1,000천불)	- '97. 10 구상서 교환 - 식수시설 완료(사업종료)
'96. 9	페 루 (중남미 6국 순방)	제 4 의료센터 건립 ('97-'99/1,000천불)	- '97. 11 구상서 교환 - 병원건축 완결(사업종료)
'96.9	코스타리카 (중남미 6국 순방)	의료 시설 개선 및 직업훈련원 지원 ('98-'00/1,000천불)	- 의료시설 개선(77만불) - 직업훈련원 지원(23만불) - 건축완공, 기자재지원 추진중
'96.11	필리핀 (정상회담시 약속)	한.비 의료센터 건립 ('99-'01/3,800천불)	- '99. 9 R/D 체결 - '00. 7월 Arrangement 체결 - 본사업 추진중
'96.11	베트남 (정상회담시 약속)	한.베 산업기술학교건립 ('97-'01/5,000천불)	- '98. 12 시행약정 체결 - 시공.감리 계약 체결 - 본사업 실시중
		한.베 과기센터 건립 ('97-'01/2,880천불)	- '98. 8 시행약정 체결 - KIST 용역계약 체결 - 본사업 실시중
'96.12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시 약속)	Klovsky Lyceum학교 건립('97-'99/500천불)	- '97. 12 구상서 교환 - 학교건축 완료(사업종료)
'98.11	중국 (방중 후속조치사업)	북경 밀운저수지 수원 보호림 조성사업 ('01-'03/1,000천불)	- '00. 4 사전타당성 조사(1차) - '00. 9 사전타당성 조사(2차) - '01. 4. R/D 체결
		한.중 랑팡 시범농장 지원('99-'01/960천불)	- '99. 6 구상서 교환 - 본사업 추진중
'98.12	베트남 (방베 후속조치 사업)	증권거래소 설립지원 II('99-'00/200천불)	- '99. 7 구상서 교환 - '00.12. 사업종료
		빈록지역병원 개보수 사업('01-'02/500천불)	- '00. 4 사전타당성 조사 - '01. 3 R/D 체결 - '01. 7 구상서 교환 - 본사업 실시중

기간	국가	사업명(기간/예산)	추진현황
'99. 5	몽골 (정상회담시 약속)	병리학센터건립 ('00-'01/400천불)	- '99. 10 사전타당성 조사 - '00. 7. 구상서 교환 - 본사업 실시중
		혈액센터건립 ('01-'02/300천불)	- '99. 10 사전타당성 조사 - '01. 4 구상서교환 - 본사업 실시중
		장기이식센터건립 ('01-'02/300천불)	- '99. 10 사전타당성 조사 - '01. 4. 구상서 교환 - 본사업 실시중
		직업훈련원지원 ('00-'02/700천불)	- '99. 10 사전타당성 조사 - '00. 8 구상서 교환 - 본사업 실시중
		한방병원건립 ('00-'02/400천불)	- '99. 10 사전타당성 조사 - '00. 7 구상서 교환 - 본사업 실시중
'00.1	동티모르 (정상회담시 약속)	국회의사당건립 ('01-'03/2,650천불)	- 사업추진방안 협의중
'00.10	중국 (정상회담시 약속)	서부지역 조립사업 (5개사업) ('01-'05/5,000천불)	- '00. 4. 사전타당성 조사(1차) - '00. 9 사전타당성 조사(2차) - 사업추진방안 협의중
'00.10	베트남	IT센터건립 ('02-'03/2,500천불)	- 2002년부터 추진예정
'00.10	필리핀	IT센터건립 ('02-'03/2,500천불)	- 2002년부터 추진예정
'00.11	인도네시아	IT센터건립 ('01-'03/2,500천불)	- '01. 4 사전타당성 조사 - 사업추진방안 협의중
'00.11	ASEAN	국제백신공동연구 ('02-'06/2,500천불)	- 2002년부터 추진예정

기획 15. KOICA 사업과 EDCF 일원화 방안

ㅇ 협력단은 '97.6월 **수출입은행과 업무협조약정을 체결**하는 등 개발조사사업과 EDCF와의 연계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ㅇ 이를 위해 개발조사사업에 양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KOICA에서 실시한 개발조사 결과를 EDCF의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있음.

- 베트남 하노이 신도시 주거단지개발 타당성조사사업('01-'02/1,000천불) : 2000.12.10-16 합동조사 실시
- 캄보디아 도로개보수 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사업 ('01-'02/600천불) : 2001.1.28-2.4간 합동조사 실시

ㅇ 또한, 민간에서 발굴한 개발 Project를 KOICA에서 타당성조사를 실시, 이를 EDCF와 연계시키는 등의 노력을 통해 기업의 위험부담을 경감시키고 해외공사수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우리기업의 대개도국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임.

ㅇ 중장기적으로 개도국 국별로 **종합적인 관점**(Country Programming)에서 **일관되고 정략적인 대외원조 정책**을 통해 원조사업 성과를 보다 극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EDCF 차관사업과 KOICA의 무상원조 사업의 **시행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기획 16. 비 ODA 업무 이관계획

1. 비 ODA업무현황

○ 협력단은 고유업무인 ODA 사업을 수행하는 이외에 비 ODA 업무로는 현재 남미농장 관리 및 산하기관(대만대표부)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기존에 있던 해외취업 업무는 정부의 해외취업업무 일원화 지침에 따라 2000.8.4일 노동부(산업인력공단)로 이관 조치하였으며,
- 국제연구교류단지 관리사무소는 정부의 경영혁신지침에 따라 2000. 6.30일자로 폐지하고 민간에 위탁 관리함.

2. 조치계획

가. 남미농장관리

○ '70년대 말과 '80년대 초에 걸쳐 정부가 농업이민을 추진하기 위해 남미 3개국에 구입한 4개 농장을 협력단이 관리중에 있음.

* 아르헨티나(야따마우까, 산하비엘)/칠레(테노)/파라과이(산페드로)

○ 아르헨티나 산하비엘 농장등 3개 농장은 현재 현지인에게 임대중이거나 채무액 상환일정에 따라 소유권 이전 추진중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 야따마우까 농장은 영농에 부적합하여 '78.8월 구입이후 매각, 임대 등 농장처리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기 유휴상태로 유지되어 왔으나,
- 최근 농업용수 증가, 전기 및 상수도 설치등 인프라가 개선되어 **장기 임대**를 적극 추진중임.

※ 야따마우까농장: 63백만평/구입가격 2,115천불/현싯가 200천불-500천불로 추정

나. 대만대표부 운영

○ 우리나라와 대만은 외교관계 단절이후 새로운 비공식 관계를 수립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하여 민간대표부를 상호 설치키로 합의함에 따라

- '93.10월 **협력단 산하「아시아연구소」의 해외사무소 형태로 주 대만대표부를 설립**, 운영중에 있음.

○ 대만대표부는 협력단 산하기관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외교부 재외공관 기능 및 관리운영 면에서 하등의 차이가 없고 업무 및 예산을 협력단과 독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외교목적 달성을 위해 협력단 산하기관 형태로 존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

※참고사항: 대만대표부에 대한 예산교부, 집행등 예산회계 및 결산 등 모든사항을 외교부에서 직접 처리

기획 17. 우리 원조에 대한 대내외 인식

○ 국제협력사업에 대해 우리나라 일반 국민과 수원국 수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00. 1월 협력단과 "월간중앙"이 전국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공동 실시한 "국제협력사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결과, 응답자의 약 **64.7%**가 국제협력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음.

○ 또한, '99년 4-5월간 주요 협력대상국 및 방한연수생 165명을 대상으로 협력단의 무상원조사업에 대한 수혜자 평가를 실시한 결과,

- 협력사업이 개도국의 경제·사회발전에 대한 기여는 물론 양국간 우호증진, 우리나라의 위상제고 및 이미지 개선 등 국익확대에도 매우 효과적인 사업으로 평가되었음.

- 다만, **사업규모의 확대, 사후관리 강화 및 협력단 해외사무소 설치 지역 확대**등이 향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조사되었음.

《 성공사례 》

■ 예시1 : 필리핀 화력발전소 타당성조사사업('93-'94/380천불) 결과, 한전이 필리핀에서 **8억불** 규모의 화력발전소 사업을 수주

■ 예시2 : 월남전당시 한국군이 주둔했던 베트남 퀴논지역은 반한감정이 가장 심했던 지역중의 하나였으나, 직업훈련원지원('93-'98/2,500천불), 봉사단파견 등으로 현재는 **친한 지역중의 하나로 변모**

■ 예시3 : 2000년 벨리세에 컴퓨터 17대 등 지원을 계기로 벨리세는 2000.10월 남북관계에 대한 유엔총회 결의안 채택시 공동발의국으로 참여하였으며, 2010년 우리 정부의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하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에 대한 우호적 입장 견지

기획 18. 협력사업 사후관리

○ 협력단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사업의 연속성 및 성과를 제고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음.

- 기 종료된 프로젝트사업이나 지원물자에 대해서는 '96년부터 사후관리를 위한 별도의 예산(1.4억원)을 확보한 이래 매년 사후관리비를 증액하여, 필요시 일부 물품을 지원하거나 관련 기술자를 파견하여 장비 운용기술 전수 등을 실시

  ※ 사후관리비 : '96년 협력사업비의 0.4%(1.4억원) → 2000년 협력사업비의 1.3%(5.2억원) → 2001년 협력사업비의 1.6%(8.1억원)

- 연수생 및 봉사단, 전문가 등 귀국 인력에 대해서는 동창회 결성 지원, 각종 정보제공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

○ 아울러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사업 실시과정에 반영해 나가고 있음.

《참고 : 각 사업별 사후관리 실시 현황 》

■ 연수생초청사업

- 귀국 **연수생 동창회 결성** 지원
  - 동창회 결성국 (9국) : 인도네시아, 네팔, 스리랑카, 폴란드, 이집트, 태국, 이디오피아, 파라과이, 필리핀
- 연수생 재교육 차원에서 사후관리 워크샵과정 실시 ('00년, '01년 각 2과정)
- 연수생 관리 D/B 운영 및 연수생회지 등을 연수생에게 정기 송부

■ 봉사단파견사업

- **취업 정보제공 및 취업 알선**('99년 441개사에 협조 공문 발송)
  - '99년도 90명 귀국 71명 취업(취업율 79%)
  - 2000년도 총 98명 귀국 67명 취업 (취업율 68%)
- **귀국단원모임(KOVA)** 지원: 활동사례집 발간, 사진전 개최등 지원

■ 물자지원사업

- **순회정비반 파견** 및 소모품지원 등 총 50건에 257천불 지원('97~'00)

■ 프로젝트사업

- 종료된 61건의 사업에 대해 일부 물품지원 및 관련기술자를 파견, 기술전수 등 총 660천불 지원('97~'00)

기획 19. 재외동포 지원에 있어서 재외동포재단과의 업무중복성 여부

1. 재외동포 거주지역에 대한 지원 현황

○ 협력단은 중국 조선족 및 CIS지역 고려인등 개도국내 동포거주지역에 대한 지원을 실시해오고 있음.

2. 재외동포재단과의 업무중복성 여부

○ 협력단과 재외동포재단의 재외동포 지원사업은 **사업의 근본취지나 목적등이 서로 상이**함.

- 협력단은 개도국과 우리나라와의 우호협력증진을 위한 **개발원조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반면, 재외동포재단은 동포의 민족적 유대감 유지, 동포사회발전 및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협력단은 **개도국 정부에서 요청**해올 경우 동포거주지역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 실시하고 있으나, 재외동포재단과 같이 직접 우리 동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님.

- 또한, 재외동포재단은 일본, 미국등 전세계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협력단은 **중국 조선족 및 CIS지역 고려인**등 개도국내 동포거주지역에 대해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중국조선족 200만명,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고려인 49만명으로 추정

- 사업내역도 협력단은 연수생초청, 한국학교수 및 한의사 파견, 학교건립 및 교육기자재 지원등인 반면, 재외동포재단은 동포단체 지원, 동포초청, 한인행사 및 한글학교 지원 등임.

○ 이와 같은 점을 고려시, 협력단과 재외동포재단의 사업은 중복이라기 보다는 **상호 보완적** 역할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바, 사업 추진시 재외동포재단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임.

기획 20. 한국어분야 지원에 있어서 국제교류재단과의 업무 중복성 여부

1. 한국어 분야 지원실적('91-'00)

ㅇ 협력단은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어분야 지원도 일부 실시하고 있음. 그간 동 분야에 대한 지원실적을 보면

- 개도국의 관계자를 국내로 초청, 한국어 연수 : 313명
- 한국어분야 봉사단 파견 : 21개국 270명
- 개도국내 한국어관련 학과 설치대학에 전문가파견 : 5개국 10명
- 한국어센터건립지원등 프로젝트사업 : 5개국 9개사업

2. 국제교류재단과의 업무중복성 여부

ㅇ 협력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국어분야 지원사업은, 교류재단의 사업과는 사업의 근본취지나 그 성격이 상이함.

ㅇ 협력단은 **개도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의 일환**으로 한국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개도국 공무원을 위주로 실용 한국어 교육을 실히사고 있는 반면

- **교류재단**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한국학 진흥.보급 및 학술교류 등의 각종 학술교류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ㅇ 사업 실시에 있어서도 협력단의 사업은 우리정부와 개도국 정부간에 실시되는 **정부간 협력사업**이나,

- **교류재단**은 상대국정부를 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선진국의 한국학 관련연구소 및 단체, 대학 등 **민간기관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음.

ㅇ 따라서, 공적개발원조(ODA)로 실시하고 있는 협력단의 한국어 분야 지원사업은 교류재단사업과 중복이라기 보다는 **상호 보완적** 역할 관계에 있음.

기획 21. 협력단 예산/사업비/행정성 경비 추이('91-2001)

1. 협력단 예산추이

○ 협력단 예산은 '91년 설립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여 '91-'97년간 연평균 **23.4%** 증가함.

○ 그러나 '97년말 IMF경제위기를 계기로 '98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전년수준으로 동결되었고, '99년에는 23% 삭감되었으나, 2000년 6.6%, 2001년 17.8% 증가하였음.

(단위 : 억원)

구분/년도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예산규모 (백만불)	**174 (21)**	**237 (29)**	**265 (33)**	**318 (39)**	**382 (47)**	**466 (62)**	**607 (75)**	**607 (47)**	**465 (36)**	**496 (41)**	**584 (53)**
증가율(%)	-	36.8	11.5	20.1	20.2	21.7	30.3	-	△23.4	6.6	17.8

2. 협력사업비 추이

○ 협력사업비는 IMF위기전인 '97년까지는 연평균 23%씩 증가하였으나 '98년도에는 0.5% 증가에 그치고, '99년도에는 14.8% 감소하였음.

○ 2000년도에 7.7%, 2001년도에 22% 증가하였으나, 금년도 협력사업비(505억)는 미화기준 46백만불로 IMF위기전인 '97년 **56백만불의 82%수준**에 불과함.

(단위 : 억원)

구분/년도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사업비 (백만불)	**130 (16)**	**174 (22)**	**205 (26)**	**247 (31)**	**310 (39)**	**368 (49)**	**449 (56)**	**451 (35)**	**385 (30)**	**414 (34)**	**505 (46)**
증가율(%)	-	33.8	17.8	20.5	25.5	18.8	22.0	0.5	△14.8	7.7	22.0

3. 행정성 경비(인건비 및 경상비) 예산비중 추이

○ ODA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관운영경비인 인건비 및 경상비등 행정성 경비는 설립 초기('91-'94)에는 전체 ODA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 수준이었으나, 금년기준으로 보면 **11.9%**로 **현저히 개선**되고 있음.

※ ODA통계 기준상으로는 인건비 및 경상비 이외에도 연구조사비, 협력사업비 예산 중의 해외사무소 운영비 등도 행정성 경비에 포함됨.

○ 행정성 경비는 협력사업의 확대에 따라 향후에도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효율적인 기관운영 및 사업추진을 통해 행정성 경비를 최대한 절감해 나가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함.

(단위: 백만불/%)

구분/년도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예산(억원) (백만불)	**174 (21)**	**237 (29)**	**265 (33)**	**318 (39)**	**382 (47)**	**466 (62)**	**607 (75)**	**607 (47)**	**465 (36)**	**496 (41)**	**584 (53)**
증가율(%)	-	36.8	11.5	20.1	20.2	21.7	30.3	-	△23.4	6.6	17.8
1. ODA예산(A)	174	237	265	310	374	437	530	528	446	478	573
○ 협력사업비(B)	130 (16)	174 (22)	205 (26)	247 (31)	310 (39)	368 (49)	449 (56)	451 (35)	385 (30)	414 (34)	505 (46)
점유비(B/A)	**74.7**	**73.4**	**77.4**	**79.7**	**82.9**	**84.2**	**84.7**	**85.4**	**86.3**	**86.6**	**88.1**
○ 인건.경상비(C)	44	63	60	63	64	69	81	77	61	64	68
점유비(C/A)	**25.3**	**26.6**	**22.6**	**20.3**	**17.1**	**15.8**	**15.3**	**14.6**	**13.8**	**13.4**	**11.9**
2. 기타예산 *	-	-	-	8	8	29	77	79	19	18	11

*기타예산은 산하기관지원비, 연수원건설비, 해외취업지원비 등 비 ODA 예산임.

기획 22. 2002년도 예산요구 및 반영 현황

1. 예산요구 및 반영 현황

○ 2002년도 예산은 우리나라 경제회복 수준을 감안하여 **816억원**을 요구하였으나, 기획예산처 심의결과(8.30 현재) 2001년 대비 **8.9% 증가된 616억원(47백만불)으로 조정**됨.

- 협력사업비는 556억원으로 2001년 505억원 대비 **10%** 증가
  ※ 미화기준으로는 42.7백만불로 2000년 46백만불 대비 7.2% 감소
- 인건비, 경상운영비는 미심의(출연기관 공통기준을 적용 예정)

2. 적정성 여부

○ 개도국은 우리나라 총 교역량의 50%, 전체 무역흑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경제·통상 협력 파트너로서 개도국과의 통상 투자 협력확대를 위한 필수 수단으로 ODA 사업 확대가 긴요함.

※ 우리나라는 개도국으로부터 '98년 328억불(전체 무역흑자의 84%), '99년 221억불(93%), 2000년 107억불(91%)의 무역흑자를 시현

○ 아울러, 최근 우리나라 외환위기가 극복되었음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ODA규모 축소시 우리의 대외 신뢰도 저해가 우려됨

○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부응하는 역할수행과 대외신뢰도 제고를 위해 2002년도 협력사업비는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에 '97년 수준(5천6백만불)으로 회복이 긴요함.

- 대외규모로 인식되고 있는 미화기준으로 보면 내년 협력사업비는 **42.7백만불**로 '97년 56백만불 대비 **76%** 수준에 그침.

○ OECD회원국('96.12 가입)으로서 향후 DAC가입에 대비, 2005년까지 ODA/GNP비율 **0.1%**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협력단 예산의 단계적 확대가 긴요함.

< 첨부 1 >

2002년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1 예산 (A)	2002 예산(안) 요구	2002 예산(안) 반영(B)	증감 (B-A)	증감 %	비 고 (2001예산 → 2002요구→2002반영)
수입	1.출연금	56,570	81,614	61,586	5,016	8.9	
수입	2.자체수입	1,569	1,569	1,569	-	-	저금리 등 감안, 전년수준 반영
합 계 (백만불)		**58,139 (52.9)**	**83,183 (64.0)**	**63,155 (48.6)**	**5,016 (3.9)**	**8.6**	
지출	**1.협력사업비 (백만불)**	**50,546 (46.0)**	**73,641 (66.9)**	**55,562 (42.7)**	**5,016 (3.9)**	**10.0**	'97년(56.2백만불)의 76% 수준 반영(미화기준)
지출	ㅇ 연수생초청	8,977	13,794	9,500	523	5.8	1,800명→2,500명→1,800명
지출	ㅇ 전문인력파견	4,882	6,769	4,815	△67	△1.4	58명→89명→58명 및 위탁사업(6억)
지출	ㅇ 봉사단파견	7,884	11,631	8,484	600	7.6	180명→230명→180명
지출	ㅇ 개발조사	2,489	3,899	2,592	103	4.1	11건→12건→10건
지출	ㅇ 물자지원	4,317	5,000	4,617	300	6.9	40국4기구→54국 2기구→40국4기구
지출	ㅇ 재난구호	3,091	4,500	2,161	△930	△30.1	2000 결산수준 반영
지출	ㅇ 프로젝트	15,331	21,199	15,873	542	3.5	25건→38건→35건
지출	ㅇ 민간협력	927	1,391	1,027	100	10.8	21단체→25단체→21단체
지출	ㅇ 연구.정보화	696	1,215	813	117	16.8	정보화 증액(2억)
지출	ㅇ 홍보	169	273	215	46	27.2	2000 결산수준 반영
지출	ㅇ 국협촉진	1,783	3,069	1,965	182	10.2	해외사무소 환율상승분 반영
지출	ㅇ 신규사업	-	900	-	-	-	각부처 무상협력사업(교육부 인터넷봉사단 등) 통합 미반영
지출	2.인건비	5,731	7,294	5,731	-	-	추후 심의 예정
지출	3.경상운영비	804	1,000	804	-	-	추후 심의 예정
지출	4.산하기관지원	1,058	1,376	1,058	-	-	전년수준 반영

※ 장관협의시 추가로 증액된 35억의 사업별 배분내역은 현재 예산처와 협의중으로 동 사업별 내역에 미포함됨.

기획 23. 2002년 예산중 정상간 약속사업 반영 내역

○ 우리의 정치·경제적 국익 확보를 위한 개도국과의 정상외교시 협력사업은 매우 효과적인 지원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음.

○ 2002년 예산에 반영된 정상간 약속사업은 **7,730천불**(10,048백만원)임.

- '아세안 연수' 600명 등 연수생초청 808명 3,495천불(4,543백만원)
- '몽골 광물자원탐사 개발조사'등 개발조사사업 3건 288천불 (374백만원)
- '인도네시아 IT센타 건립사업' 등 프로젝트사업 11건 3,947천불 (5,131백만원)

< 첨부 >

2002년도 대통령 약속사업 예산반영 현황

구분	사 업 명	기간/총사업비 (천불)	2002 반영내역 백만원(천불)	비고
총 계			10,048(7,730)	
연수생초청	**소 계**	**808명**	**4,543(3,495)**	
	APEC 직업훈련연수	40명	220(169)	'93.10 APEC 정상간 회의시 대통령약속
	한.일 공동연수	35명	192(148)	'98.10. 정상간 공동선언 후속 조치
	몽골 차세대 지도자 파트너쉽	15명	82(63)	'01.2 한.몽 정상간 회의 후속조치(2002-2004간)
	동아시아 인턴쉽 프로그램(IT분야)	100명	650(500)	'00.11. ASEAN+3/1회의 후속조치
	아세안 국가표준 및 적합능력배양	18명	99(76)	'00.11. ASEAN+1 정상 회의 후속 조치
	ASEAN 연수	600명	3,300(2,539)	'00.11. 한.아세안 정상 회담 후속조치
개발조사	**소 계**	**3건**	**374(288)**	
	몽골 광물자원탐사	'00~'03/500	99(76)	'99.5 대통령 몽골 방문시 지원 약속
	인니 자카르타 서민주택개발 사업	'01~'02/250	165(127)	'01.11. 대통령 인니 방문시 지원약속
	캄보디아도로개보수 타당성조사 및 실시 설계 사업	'01~'02/600	110(85)	'00. 11. 아세안+3 정상 회의시 훈센총리 요청
프로젝트	**소 계**	**11건**	**5,131(3,947)**	
	몽골기술대학지원	'00~'02/700	260(200)	'99.5 대통령 방몽시 지원합의
	몽골 혈액센타건립	'01~'02/300	195(150)	상 동
	몽골 장기이식센타 건립	'01~'02/250	130(100)	상 동
	베트남 Vihn Loc 지방 병원 개선	'01~'02/500	260(200)	'98.12 김대통령 방베시 지원 약속
	베트남 IT 센타 건립 지원	'02~'03/2,500	280(215)	'00.10 ASEM 정상회담시 우리대통령 제안

구분	사 업 명	기간/총사업비 (천불)	2002 반영내역 백만원(천불)	비고
프로젝트	동티모르 국회의사당 건립	'02-'05/2,650	260(200)	'00.1 동티모르 구스마오 의장 방한시 약속
	인도네시아 IT 센타 건립지원	'01~'03/2,500	1,232(948)	'00.11 한,인니 정상 회담시 우리대통령 제안
	중국 밀운저수지 집수구 수원호 조림 사업	'01~'04/1,000	494(380)	'98.11 대통령 방중시 환경, 조림, 사막화방지 분야에 대한 협력강화 언급관련 후속조치
	중국 서부지역 조림 사업	'01~'05/5,000	1,120(862)	'00.10. 주룽지 중국 총리 방문시 약속
	필리핀 IT 센타 건립 지원	'02~'03/2,500	250(192)	'00.10. ASEM 정상 회담시 우리대통령 제안
	국제 백신 공동연구 사업	'02~'06/2,500	650(500)	'00.11. ASEAN+3회의 후속 조치

기획 24. 개도국 협력사업의 협력단 전담추진 필요성

1. 각 부처의 협력사업 현황

가. 교육부 및 정보통신부 : 인터넷봉사단 파견사업

○ 2001년도에 교육부, 정보통신부에서 각각 인터넷 봉사단파견사업을 추진중인 바,

- 교육부는 APEC역내 국가를 대상으로 2억, 120명
- 정보통신부는 동남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8억, 150명 규모의 인터넷 봉사단파견 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나. 한국개발연구원(KDI) : 국제연찬사업

○ 개도국의 정책결정자 및 경제관리를 초청, 한국의 개발경험에 대한 소개 및 경제발전 현장을 소개

- 공동세미나, 중견관리자 연수, 국별연수과정등 총 2억원 규모

다. 교육부 : 외국인유학생 초청사업

○ 외국인과의 학술교류에 중점을 두고, 인문·사회·자연과학, 한국학 등 분야에서 연구과정, 석·박사과정 등에 외국인 유학생을 초청

- 연간 개도국 유학생 60명 초청 등 9억원 규모

2. 문 제 점

가. 정부차원의 정책적 고려와 일관성 유지 곤란

○ 대개도국 무상기술협력사업은 우리나라의 중장기 원조정책 및 대상국별 유·무상 원조를 포함한 전반적인 원조계획 등 정책적 고려하에 지원여부와 형태가 결정되어야 함.

ㅇ 각 부처별 사업추진시 국별 재원배분 계획, 개도국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중점 지원분야 및 적정 사업수단 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어려운 바,

- 국별, 분야별, 사업 형태별 중복 또는 불균형 지원현상 초래가 우려되어 원조정책 일관성 확보가 곤란함.

나. 타 원조분야/사업수단간 연계 부족으로 사업효과 감소

ㅇ 대개도국 협력사업은 연수생초청이나 봉사단 파견 등 단편적, 단기적 사업실시로는 사업효과를 제고하기 어려움.

- ODA 사업은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경제사회개발을 지원하고 우리의 국익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프로젝트사업 등 타 협력수단과 상호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임.

다. ODA업무 효율성 문제

ㅇ 분야별 전문성을 전제로 한 대개도국 협력사업의 분산추진은 정부차원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저해하여 사업협의 조정등에 필요한 행정적 낭비와 중복 실시될 우려가 있으며,

- 수원국측으로서도 업무혼선이 초래될 수 밖에 없음.

3. 대책

ㅇ 협력단은 각 정부 부처에서 독자적으로 실시되던 대개도국 무상협력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91년 설립된 바, 협력단의 설립취지에 일치하도록 각 부처의 협력사업을 협력단으로 일원화 필요가 있음.

○ 아울러, 향후 보다 효율적인 협력사업 수행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외교부의 ODA 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부처간 협의체계 구축 및 협의기능을 강화하며, 사업추진시 정부 관련부처의 사업참여와 민간부문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는 등 ODA 사업추진 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기획 25. 협력사업비 증액 필요성

1. 현황 및 문제점

가. 국제사회로부터 우리의 역할증대 요청

○ 많은 개발도상국은 우리의 개발경험을 자신들의 발전 모델로 간주하고 우리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

- 개도국의 요청대비 우리의 수용능력은 25% 수준에 불과

나. 우리 원조의 상대적 규모

○ 우리나라의 2000년 ODA 규모는 GNP 대비 0.047%(212백만불)수준으로서 OECD/DAC 회원국 평균 0.22%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

- 우리 나라와 경제력이 비슷한 네덜란드의 0.82%(30.8억불), 호주 0.27%(9.9억불), 스페인 0.24%(13.2억불) 및 덴마크의 1.06%(16.6억불), 그리스 0.19%(2.2억불), 포루투갈 0.26%(2.6억불)에 비해서도 훨씬 낮은 수준

2. 무상협력사업비의 증액 필요성

가. 외교·통상등 협력파트너로서 개도국의 중요성 증대

○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감안, 개도국과의 우호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경제적 실리 확보**

- 우리나라 전체 무역흑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개도국과의 통상마찰을 완화하고 교역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ODA사업을 적극활용 필요

※ 우리나라는 개도국과의 교역에서 '99년 222억불(총 무역흑자의 93%), 2000년도 107억불(총 무역흑자의 91%)의 무역흑자를 기록

○ 정상간 혹은 정부간 외교 및 통상활동을 측면 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 제고 및 국익 실현**

- 인구, 보건, 환경, 여성개발 등 범세계적 문제해결에 대한 기여와 홍수, 지진 등 재난피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통해 국가 이미지 개선

※ 무상원조자금은 주로 원조공여국의 기술 및 행정인력 투입, 공여국의 물자와 용역의 제공을 통해서 실시되기 때문에 원조자금의 절대액이 공여국측으로 환류

- 직접효과: UNDP 소속 경제학자 'Stephen Browne'의 저서 「Foreign Aid in Practice」(1990)에 의하면 원조자금의 **75%**가 공여국의 물자와 서비스 형태로 국내경제에 직접적으로 환류.
- 간접효과: 호주 원조기관(AusAID)의 보고서 「Commercial Benefits from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Indonesia」(1995)에 의하면, 원조금액 100불당 **178불**의 이익이 호주측으로 되돌아 온 것으로 분석

○ 개도국 지원요청에 대한 능동적 대처와 약속사업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대외신인도 제고**

나. 21세기 중심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역할증대 필요

○ 상호의존과 협력이 크게 확대되는 21세기 지구촌시대에 있어서 "지구촌 가족의 **회비**"라고 할 수 있는 ODA의 확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무사항**

※ 우리나라 '99년 GDP 세계 13위, 수출 세계 12위

○ 상호교류를 통한 이해 증진 및 우리문화 전파, 파견인력의 세계화

및 **지역전문가 양성**에 기여

- 우리 인력의 해외파견을 통해 접수국의 언어, 문화 및 현지정보 등을 습득함으로써 향후 우리의 대 개도국 진출자료로서 활용

다. 과거 국제사회 지원에 대한 도의적 책임

○ 과거 우리나라가 한국동란후 절대빈곤을 극복하고 경제사회발전을 이룩한 것은 UN, 미국 등 국제사회의 원조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음.

※ '45-'96년까지 우리 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246억불** 수원

○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중견국가로 성장한데 대한 도의적인 책무로서 우리의 국력과 발전경험을 토대로 개도국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참고 2 》: 우리나라의 연도별 ODA확대방안(외교부 안)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A. ODA규모(백만불)	**212**	**291**	**346**	**412**	**490**	**581**
○ 양자간 협력	131	199	239	286	344	407(70%)
- **무상원조**	**48**	**45**	**66**	**91**	**126**	**174(30%)**
- 유상원조	83	154	171	190	211	233(40%)
○ 다자간 협력	81	92	107	126	147	174(30%)
B. 총 GNP(억불)	4,552	4,779	5,018	5,269	5,533	5,809
C. ODA/GNP(A/B)	**0.047%**	**0.060%**	**0.069%**	**0.078%**	**0.088**	**0.10%**

※ 1) 환율은 1불당 '99년 1189.48원, '00년 1130.60, '01년 1,300원(잠정)
2) 2001년부터 2005년까지 GNP성장율은 연평균 5% 추정
3) ODA규모 : '05년까지 GNP대비 0.1%로 확대(연평균 19%씩 증액)
- 양자 대 다자간 비율을 7:3정도로 유지(DAC회원국 평균 67:33)
  · 양자간 연평균 20%, 다자간 연평균 17%씩 증액 가정
- 무상원조: '02년 '97년 수준확보, '03-'05년간 연평균 38%증액 가정
- 유상원조: 연평균 11%씩 증가 가정

기획 26. ODA 확충을 위한 별도재원(기금조성 포함) 확보방안

1. 선진국의 사례

○ 2000년도에 OECD 회원국중 27개국을 대상으로 한 ODA재원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의 국가들이 **ODA재원을 전액 정부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음

※ OECD회원국 총 29개국중 아이슬랜드 및 한국은 조사대상국에서 제외

○ 다만, 일부 국가의 경우, 복권 또는 지방정부로부터의 지원 등을 통해 재원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음.

- 벨기에 **복권공사의 기부금 활용**
- 일본 **국제볼룬티어 우편저금 활용**
- 영국의 봉사단 파견사업시 민간기업의 지원 등

2. 협력단의 별도재원 확보방안

○ 협력단의 별도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복권발행을 통한 기금확보, 정부재원의 기금출연 등을 생각할 수 있으나,

○ 기금설립 억제 및 준조세에 대한 일반국민의 비판여론 등을 감안시 어려움이 예상됨.

○ 따라서, 기금설립 등 정부출연금 이외의 재원확보에 대해서는 **선진국 사례나 관련법규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 및 연구를 거친 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고자 함.

기획 27. 무상원조 비중증대 필요성 및 증액방안

○ 2000년 우리나라의 양자간원조중 유·무상 원조비율은 **64:36**이나, 점진적으로 **50:50** 수준으로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등 선진국이 100% 무상원조를 실시하고 있고, 대부분의 공여국들이 운용상 제약이 없고 효과가 높은 무상원조를 중심으로 협력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일본, '99년도 예산기준 유상비율 : 40.4%

○ 특히, 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도 개도국에 대한 **조건부차관(Tied Loan) 규제**로, 앞으로 EDCF 차관을 우리기업의 수출증진 목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제약이 있는 반면,

- 무상원조는 주로 **우리 기술 및 인력의 투입, 국산품 제공**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공여액의 **75%** 이상이 국내 경제로 환류될뿐만 아니라, 적은 재원으로 신속하고도 효과가 높은 사업추진이 가능하므로 향후 무상원조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기획 28. 예산편성시 자체수입 과소계상 여부

○ 자체수입은 출연금 이자수입과 이월금으로 구분되며, 출연금 이자수입이 80% 수준을 차지함.

《 예산기준 자체수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97	'98	'99	2000	2001
○ 이자수입	947 (100)	1,470 (80.7)	1,749 (85.7)	1,269 (80.9)	1,269 (80.9)
○ 이월금	-	350 (19.3)	292 (14.3)	300 (19.1)	300 (19.1)
계	947 (100)	1,820 (100)	2,041 (100)	1,569 (100)	1,569 (100)

○ 출연금 이자수입은 '97-'98년에는 이자율 급등으로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였으나, '99년 및 2000년에는 저금리등의 영향으로 예산편성 금액 미달성.

《 이자수입 발생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97	'98	'99	'00
○ 예산액	947 (100%)	1,470(100%)	1,749(100%)	1,269(100%)
○ 실제 발생액	2,186(231%)	4,325(294%)	1,606(91.8%)	1,154(90.9%)
실제발생액/출연금	3.8%	7.5%	3.6%	2.4%

○ 2002년 예산편성시에도 당분간 저금리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기별로 배정하던 출연금을 월별로 소액 지급받고 있기 때문에 예산처와 협의, 이자수입을 출연금의 2%수준을 반영함(12.6억)

기획 29. 예산편성시 자체수입을 과소계상, 인건비를 과다지급한 사례 및 개선 사항

1. 자체수입 계상누락 및 인건비 과다지급 현황

○ '94년도부터 '97년까지 총 발생한 이자수입 112억 5천 2백만원중 55억 6천 5백만원을 예산편성시 자체수입 금액으로 반영하고, 나머지 **56억 8천 7백만원**은 인건비 및 경상비로 추가 집행한 사례가 있음.

2. 개선 실적

○ 그러나, '97년 이후 노사간의 합의를 통하여 예산단가를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범위를 확대한 수당, 예산당국에서 인정치 않던 수당 등 **세출예산집행지침에 위배하여 지급해 오던 각종 수당을 폐지하거나, 기준에 맞게 조정**하였음.

○ 또한, '99. 6. 3일 노사합의로 임직원 인건비를 예산당국에서 인정하는 예산범위내에서만 운용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인건비 과다지급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소되었음.

○ 이러한 노력의 결과, 협력단은 **'97년이래 임직원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한 추경예산 편성은 실시한 바 없음.**

- 다만, '98년의 경우 인력구조 조정시 직원 퇴직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해 **11억 8천만원, 2000년 아세안 특별연수과정 수행상 필요한 신규 직원 인건비 7천 8백만원을** 불가피하게 추경 편성한 바 있음.

3. 향후 계획

○ 앞으로도 정부의 출연금 부담을 경감키 위해 자체수입 발생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고, 인건비는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집행지침에 의거 집행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기획 30. '99년 결산잉여금 41억원중 2001년 예산에 3억원만을 반영한 사유

○ '98년 금리 급등으로 이자수입이 예산액 14억 7천만원 대비 194% 증가된 43억 3천만원이 발생함으로써, '98년 결산후 이익잉여금이 46억원에 달했으며, '99년말 기준으로는 41억원을 보유함.

○ 이중 2001년도 예산안에 이월금으로 3억원만을 반영하였는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현재 부가가치세 퇴직금 추가지급 소송이 진행중임에 따라 법원의 확정 판결 등에 대비코자 보유하고 있음.

※ 국제협력단은 출연기관으로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가가치세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정부 예비비 등에서 지원이 어려움.

※ 현재 부가가치세 소송 계류 금액 6.5억이며, 총 추징예상 금액은 67억원임.(부가가치세 58.5억원 및 중과세 <부과세의 10%>)

- 다만, 그동안 일부 업체의 도산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하여 실제 추징예상 금액은 40억원 내외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기획 31.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98~'00)

1. 추경편성내역

가. '98년도 : 인건비 11억 8천만원

○ 인건비(퇴직급여충당금)

- 무상협력사업 전담기구로서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영혁신 및 인력구조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제도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11억 8천만원**을 추경 편성(명예퇴직금 9.7억원, 조기퇴직금 2.1억원)

※ '98년중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44명

나. '99년도 : 경상비 5억 5천만원

○ 경상비(대수선비)

- 건물 노후화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사무환경이 열악함에 따라 안전설비를 확충하고 시설을 개보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함.

다. 2000년도 : 25억원(사업비 24억 2천만원, 인건비 7천 8백만원)

○ 협력사업비(아세안 특별연수사업비 24.2억원)

- '99.11 한·아세안 정상회담시 대통령 약속사업인 아세안특별연수사업(600명, 40억원) 추진과 관련, 정부에서 추가지원한 25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함

※ 당초 예비비요청(40억원/인건비 1.8억원 포함)대비 과소지원(25억원)으로 아세안특별연수사업의 당초계획을 일부조정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 인건비(신규채용 7명 7천 8백만원)

- 아세안 특별연수사업 추진에 따른 신규채용(2000.5, 7명) 인건비 7천 8백만원을 추경편성함.

2. 편성규정 및 근거

<u>회계규정 제16조(추경편성)</u> - 추경편성 근거 및 절차 1) 예산성립후 사업계획의 변경,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변경 필요시 추가경정예산 편성가능 2)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및 집행절차는 본예산에 준함 <u>회계규정 제4조(기업회계원칙)</u> <u>제23조(잉여금처리)</u>- 추경편성재원 1) 협력단 예산은 출연금으로서 당해연도 예산집행 잔액은 정부 예산과 달리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정부에 반납되지 않음 2) 결산결과, 이익잉여금 발생시 이월손실금 충당후 나머지는 이월하며, 이자수입 초과분등과 함께 추경예산편성 재원으로 활용

3. 편성절차

○ 본예산 편성절차에 준함 (이사회의결→외교부장관 승인)

기획 32. 대 중국 협력사업 추진현황

1. 대 중국 무상협력 사업현황

○ 대 중국 협력사업은 '92년도 한.중 수교이후 대폭 증가됨.

- '91년 이후 2000년까지 중국에 대한 지원액은 총 27,077천불임.

< 대중국 지원현황 >

(단위:천불)

구분	계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지원액 (평균)	27,077 (2,707)	280	172	526	2,300	4,049	3,763	3,347	1,465	5,272	5,903
순위		9위	36위	7위	1위	1위	1위	1위	4위	2위	1위
사업비 점유율		1.6%	0.8%	2.0%	7.5%	10.1%	8.2%	7.1%	4.5%	16.8%	15.7%

※ 2000년도 지원계획의 증가 원인은 1,000만불 규모의 한.중 직훈센터 건립사업 예산 70억을 지원한데 기인함.

○ 2001년도 중국에 대한 지원계획은 2,206천불 규모임.

2. 대 중국 중점지원 사유

○ 경제적 요인

- 중국은 성장잠재력이 크고 우리나라와의 지리적 인접성, 경제적 보완성이 커서 우리의 수출시장으로서의(2000년도 수출 184억불, 56억불 흑자)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바, 중국에 대한 무상원조를 통해 중국 국민들에게 우리나라의 이미지 제고, 상품의 홍보 등을 통한 경제실익 확보 차원에서 지원을 강화해 옴.

○ 정치·외교적 요인

- 중국은 동북아 및 한반도의 안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로서 중국과의 우호관계유지 측면에서 대 중국 협력사업의 중점추진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3. 향후 협력방향

○ '경제개발과 시장경제' 연수 등 **상호보완적**인 분야와 범세계적인 이슈인 **환경**(서부지역조림사업/'01년 실시중) 및 **보건분야**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중국거주 조선족**에 대한 배려도 감안해 나갈 계획임.

《 참고: 대중국 교역규모 및 투자 현황 》

(단위 : 백만불)

구 분		'97	'98	'99	'00
교역규모	○ 총교역액(A+B)	23,750	18,428	22,545	31,254
	- 수 출(A)	13,572	11,944	13,685	18,455
	- 수 입(B)	10,178	6,484	8,860	12,799
	○ 무역수지	+3,394	+5,460	+4,825	+5,656
투자규모	○ 투자액	613	619	203	246

※'00년말 기준 대중국 투자누계는 6,060건에 7,780백만불임.(순투자기준)
※중국은 우리의 제2 투자대상국임.(미국 1위)

기획 33. 대 베트남 협력사업 추진현황

ㅇ 우리정부의 KOICA를 통한 베트남에 대한 협력사업은 크게 다음 4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시행되고 있음.

- 첫째, 정치 외교적인 측면으로서, 베트남은 한국에 대해 "양국간 과거는 덮어두고 미래를 위해 협력한다"는 기본방침을 견지호고 있으며, 국제무대에서 항상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바, 이에는 무상원조를 통한 신뢰구축이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 둘째, 경제적 측면으로서, 한국은 베트남의 4대 교역국 및 투자 대상국이며 수요이후 약 16억불에 상당하는 건설수주를 하는 등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임.
- 셋째, 발전 잠재력측면으로, 베트남은 우수한 인적자원이 풍부하며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등 향후 발전잠재력을 고려할 때 우리와의 협력강화가 요구됨.
- 넷째, 인도적 측면으로, 2000년도 베트남의 1인당 GDP는 398불로 아시아 최빈국중의 하나임.

ㅇ 향후 우리정부의 대 베트남 협력사업은 베트남의 인적자원 개발 및 인도적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베트남의 사장경제 전환에 필요한 우리의 발전 경험을 전수하는 사업을 위주로 실시할 계획임.

《 참고1 : 대 베트남 주요 협력사업현황('91-'99) 》

구분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계
지원액(천불)	21	297	999	2,291	3,312	3,649	2,755	3,126	6,193	4,736	27,379
수원 순위	103위 118국	12위 128국	3위 134국	1위 140국	2위 139국	2위 140국	2위 137국	1위 126국	1위 128국	2위 133국	

- 연수생 초청 : 821명
- 전문인력파견 : 28명(전문가 25명, 의료단 1명, 태권도사범 2명)
- 봉사단파견 : 64명
- 개발조사 : 3건 2,417천불
- 물자지원 : 949천불
- 프로젝트 : 18건 16,594천불
- NGO 지원 : 10개단체 567천불

《 참고2 : 대 베트남 교역규모 및 투자 현황 》

(단위:백만불)

구 분		'97	'98	'99	'00
교역규모	○ 총교역액(A+B)	1,842	1,570	1,709	2,008
	- 수 출(A)	1,603	1,386	1,445	1,686
	- 수 입(B)	239	184	264	322
	○ 무역수지	+1,364	+1,202	+1,181	+1,364
투자규모	○ 투자액	87	47	15	31

※ 2000년말 기준 대베트남 투자누계는 206건에 584백만불임.(순투자기준)

기획 34. 대 인도네시아 협력사업 추진현황

1. 필 요 성

○ 인니는 천연가스, 원유 및 목재 등 막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자원부국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중요한 자원공급국임.

○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도 인니는 2억이 넘는 상품시장과 IMF 경제위기 이전 연간 7%가 넘는 경제성장등 성장잠재력이 큰 국가중 하나이며 정치·외교적으로도 ASEAN의 실질적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바, 향후 아·태시대의 중심국으로 부상하는 동 국가와의 협력관계 구축 필요

2. 지원 실적

○ 인니는 130여 개도국중 수원순위 5위안에 드는 중점협력 대상국으로서 인력협력사업, 프로젝트 및 개발조사사업 중심의 사업이 시행되어 옴.

- 2000년까지 총 **14,703천불**(년평균 1,470천불)을 지원하여옴.

3. 추진방향

○ 대 인니 협력사업은 안정적 자원확보 및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자원에너지 분야**와 **인적자원 개발**분야에 대한 지원 및 양국간 경제협력의 촉진 및 **민간협력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예정임.

- 특히, IT분야 등 정보격차 해소 지원을 중점 추진계획임

○ 한편, 단기적으로는 우리의 경제위기 극복 경험을 전수하여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 처해있는 인니의 국가경제 재건 활동에 적극 측면지원 예정임.

《 참고1 : 대인도네시아 협력사업현황('91-2000) 》

□ 연도별 지원실적

(단위 : 천불)

구 분	지원실적										합계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합 계	322	1,234	1,141	1,578	1,221	1,677	2,171	1,525	1,903	1,931	14,703
순위/수원국	7/118	1/128	2/134	4/140	3/139	4/140	4/137	3/126	3/128	4/133	

□ 주요사업 내역

- ㅇ 연수생초청 565명
- ㅇ 전문인력 28명(전문가 파견 27명, 태권도사범 1명)
- ㅇ 봉사단 93명
- ㅇ 개발조사사업 : 총 7건 3,944천불
  - 소경목재 활용 개발조사('99.2-2001/2,500천불)
  - 북부수마트라 전력개발 타당성조사 ('92.12-'95.7/ 510천불)
  - 석탄성형기술개발조사 ('95.12-'98.12/ 575천불)
  - 중부칼리만탄 광물지질도 작성사업('98-2001/ 475천불) 등
- ㅇ 물자지원 : 307천불
- ㅇ 프로젝트 : 총 4건 8,288천불
  - 한·인니 직업훈련원 지원사업 ('86-'94 / 5,200천불)
  - 이동식 직훈 수석자문관 파견사업 ('92.5-'98.4 / 288천불)
  - 저습지 벼농사 기계화 사업('98-2000 / 1,100천불)
  - 화산회 혼합시멘트 사범제조공장 건립사업 ('96-'98/1,700천불)

《 참고2 : 대 인도네시아 교역규모 및 투자 현황 》

(단위 : 백만불)

구 분		'97	'98	'99	'00
교역규모	ㅇ 총교역액(A+B)	7,648	4,842	6,526	8,791
	- 수 출(A)	3,541	1,784	2,539	3,504
	- 수 입(B)	4,107	3,058	3,987	5,287
	ㅇ 무역수지	- 566	- 1,274	- 1,448	- 1,783
투자규모	ㅇ 투자액	150	72	74	57

※ 2000년말 기준 인니 투자누계는 404건에 1,424백만불임.(순투자기준)

기획 35. 대 몽골 협력사업 추진현황

1. 지원실적

○ '91~2000년간 연수생 291명, 개발조사 2건, 프로젝트사업 7건 등 총 8,409천불 규모(매년평균 841천불)의 지원을 하여 수원순위 10위권을 유지하고 있음.

(단위 : 천불)

구분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계
지원액	1,470	359	409	528	642	914	943	646	814	1,684	8,409
수원순위	1위 118국	8위 128국	8위 134국	9위 140국	9위 139국	9위 140국	11위 137국	11위 126국	6위 128국	7위 133국	

2. 2001년도 지원계획

○ '99.5월 김대중 대통령의 방몽시 지원 약속(2000년 부터 3년간 3,100천불 지원 약속)이 이행이 시작되어 2001년도에는 예년보다 대폭 증가한 **1,911천불** 규모를 지원 계획임.

※ 상세는 대통령 방몽 약속사업 추진현황 참조

3. 향후 지원계획

○ 몽골은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 우리와 유사한 역사적 배경, 1인당 GNP 400불 수준의 저소득 국가인점등 협력사업 수행에 유리한 점을 갖추고 있으나, 인구가 250여만명에 불과하고 내륙국이라는 점으로 인한 경협 발전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대통령 방몽시 우리 정부가 지원키로 한 약속내용을 우선 충실히 이행해 나가되, 보건의료 등 **Basic Human Needs** 분야, **인적자원개발**(HRD)분야 등을 중심으로 **현 수준을 유지**하는 규모로 지원해 나갈 계획임.

- 특히, IT분야 등 정보격차 해소 지원을 중점 추진계획임.

기획 36. 몽골 대통령 약속사업 추진현황

1. 경 위

○ 김대중 대통령은 '99.5.31-6.1간 몽골방문시 몽골의 시장경제 확립과 함께 경제발전 및 정치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경험 전수, 인적자원 개발 등 기술협력을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음.

-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우리정부가 몽골에 **2000년부터 3년간 3,100천불** 규모의 무상원조를 지원키로 한 것임.

2. 세부 지원내역

○ 세부내역으로는 연수생 초청 등 인력협력사업 550천불, 개발조사 1건 500천불, 한.몽 기술대학지원 등 프로젝트 5건 2,050천불 등임.

(단위 : 천불)

사업구분	사업명	지원규모
인력협력	○ 연수생 초청, 봉사단 파견	**550**
개발조사	○ 광물자원 개발조사 사업	**500**
프로젝트	○ 한·몽 기술대학 지원	**700**
	○ 한·몽 한방병원 건립사업	**400**
	○ 병원시설 개선	**950**
	- 국립병리학 및 법의학센터 지원 - 혈액센터 - 장기이식센터	400 300 250
총계		**3,100**

3. 금년도 추진현황

○ 연수생초청 : 40명 초청계획 (141.9천불)

○ 봉사단(협력요원/협력의사) 파견:24명(신규12명) 파견 (378.4천불)

○ 개발조사 1건 264천불 : 몽골 Bayandun 지역 광물탐사개발조사

○ 프로젝트 5건 1,000천불 : 한.몽한방병원지원 (200천불), 국립병리학.법의학센터(200천불), 한.몽 기술대학 지원(300천불), 혈액센터 지원(150천불), 장기이식센터지원(150천불)

기획 37. 아세안 지역 협력사업 추진현황

1. 아세안 지역 지원 필요성

○ 동남아 국가들중 인니, 필리핀, 베트남 및 태국 등 주요 10개국들이 동남아 지역협력체인 ASEAN에 가입, 사실상 동남아 지역에 있어서의 경제협력을 이끌어가는 주체세력들인 바, 우리나라와 이들 동남아 지역 국가들간의 협력 구축이 필수적임.

< 아세안과의 경제관계 >
- 교역('00): 383억불(수출:201억불, 수입:182억불, 수지:19억불 흑자)
- 투자: '68-2000년간 69.6억불
- 건설('00): 13.5억불을 수주해 중동(16억불)에 이은 제2위 건설수주시장

○ 아세안 지역은 우리의 4대 무역대상지역이며, 4대 투자 대상지역으로 우리와의 경협 잠재력이 크며, 자원·에너지 부문의 부존량이 풍부하여, 우리 국민경제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서는 이들 국가와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수적임.

○ 또한, 일부 아세안 국가에 대해서는 시장경제 전환과정에서의 우리의 경험이 필요하며, 또한 최빈국에 대해서는 보건 등 BHN 분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2. 대 아세안 국가 협력사업 추진현황

○ 그간 협력단은 아세안 지역의 중요성을 고려, 동 지역의 빈곤해소와 경제개발을 도모하고 우리기업의 진출기반 조성 및 우호적인 기업활동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동 지역에 대한 협력사업을 중

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특히, '99.11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아세안+3 정상회의**시 김대중 대통령의 이지역에 대한 연수확대 의지 천명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2000년도에 싱가폴을 제외한 아세안 9개국을 대상으로 **30과정 600명**에 대해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도 1,000여 명을 초청, 연수 계획임.

3. 향후 협력방향

○ 아세안 지역은 자원, 에너지 부존량이 풍부하고, 우리나라의 경협 관계가 많은 지역으로서 우리와의 경협 활성화를 지원하는 분야에 대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며,

○ IT분야 등 정보격차 해소 지원과 인적자원개발분야에 대해 중점 지원하면서 일부 최빈국에 대해서는 인도적 차원의 지원를 계속 해 나갈 계획임.

《참고 : 협력단의 대 아세안 국가 협력사업 추진현황》

(단위: 천불)

국 가 명	'91~'00 실적	2001 계획
베 트 남	27,379	3,665
인 니	14,703	2,206
태 국	6,052	717
필 리 핀	8,453	3,410
말레이시아	1,232	117
브루나이	123	18
라 오 스	2,484	653
캄보디아	3,398	1,077
미 얀 마	4,748	788
싱 가 폴	12	-
합 계	68,584천불 (총 협력사업비의 22% 점유)	**12,651천불** (총 협력사업비의 27.4% 점유)

기획조정 38. 경영공시제도의 협력단 시행 현황

1. 도입 배경

○ 정부는 2000년 8월1일자로 정부산하기관의 경영혁신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이러한 경영혁신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일환으로 우선 경영공시 제도를 도입키로 함.

2. 협력단의 시행 현황

○ 협력단의 상기 경영공시 대상기관으로 정부 방침에 의거 관련 자료를 작성, 별도 공시자료를 협력단 홈페이지에 게시중임.

○ 향후, 동 자료는 내용을 적기에 수정·보완하여 협력단 경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협력단이 수집하는 개도국에 대한 각종 정보제공 등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임.

《 경영공시제도 실시 방안(정부안) 》

- 목적 : 기관운영에 관한 중요정보를 국민에게 제공,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이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
- 대상기관 : '98~'99년 경영혁신 대상기관 : 170개 기관 (협력단 포함)
- 경영공시사항
  - 일반현황 :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 인원·예산 규모 등
  - 사업성과 관련사항 : 사업계획 및 성과, 예산서·결산서 등
  - 기타 사항 : 인건비·복리후생제도 현황, 외부 고객의 평가 등
- 시행방법 : 인터넷에 해당 자료를 파일 형태로 게시하거나, 해당 기관의 본사·지사에 공시자료 비치, 열람 및 복사 허용

기획조정 39. 대통령 약속사업 비중과 예산확보 등 추진상 문제점

○ 대통령 약속사업의 선정절차는 당해 개도국이 기 지원 요청한 우량사업 중에서 당해국 정부와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 사업을 선정하게됨.

- 대통령 약속사업은 이러한 절차에 의하여 양국정부간 협력키로 기합의된 연례적인 사업을 양국 정상들의 상호방문을 계기로 양국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증진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공표되고 시행하게 됨.

○ 또한,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사업은 단년간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국에 대한 연례적인 지원규모의 범위 내에서 다년간에 걸쳐서 지원되고 있음.

- 특히, 2000년도에 대통령공약사업 비중이 높아진 것은 중국직업훈련사업 1000만불, 베트남 직업훈련사업 500만불, 필리핀 병원건립 350만불 등, '96년, '97년도에 정상간에 약속한 대형사업의 본사업비가 마무리 단계에서 집중 집행되었기 때문임.

- 참고로 2001년도는 총 사업비중 정상간 약속사업이 31.6%이며, 기 약속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002년도에는 18%수준으로 점유율이 낮아질 예정임.

○ 아울러 대통령약속사업은 당해국에 대한 우리의 협력의지를 정상차원에서 과시함으로써

- 우리의 상품수출과 기업진출 등 주요 현안사항에 관해 당해국 정상으로부터 호의적인 조치를 얻어내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대외적인 홍보효과 제고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참고 >

1997~2001 대통령 약속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만불)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약속사업 계	12건 5,696 (7,120)	14건 6,008 (4,620)	11건 8,422 (6,470)	17건 17,701 (14,760)	20건 15,983 (14,530)
전체사업비중 약속사업 비율(%)	12.7%	13.3%	21.9%	42.7%	31.6%
- 연수생초청	1건 80 (100)	2건 351 (270)	2건 279 (210)	3건 4,222 (3,520)	4건 4,342 (3,950)
- 개발조사	-	-	-	2건 930 (780)	2건 424 (390)
- 물자공여	1건 1,600 (2,000)	-	2건 338 (260)	1건 48 (40)	-
- 프로젝트	10건 4,016 (5,020)	12건 5,657 (4,350)	7건 7,805 (6,000)	11건 12,501 (10,420)	14건 11,217 (10,190)

* 금액 : 기획예산처 각목명세서 기준

행 정 법 규

(행법) 1. 남미농장 현황 1
(행법) 2. 아르헨티나 야따마우까농장 처리대책 3
(행법) 3. 직원 해외파견 현황 6
(행법) 4. 협력단과 대만대표부와의 업무관계 8
(행법) 5. 주재원 파견현황 및 해외사무소와의 차이점 10
(행법) 6. 직원 행정원 파견 현황 11
(행법) 7. 국제연구교류단지 관리사무소운영 방향 13
(행법) 8. (주) 창암의 부가가치세 소송 14
(행법) 9. 송길준 퇴직금 소송 16
(행법) 10. IT협력팀 및 연수기획팀 신설 배경과 필요성 17

행정법규 1. 남미농장 현황

ㅇ 80년대초에 정부는 아국인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르헨티나, 칠레, 파라과이등 남미 3개국에 농업이민을 추진하였음.

- 파라과이 "산페드로" 농장은 3세대가 영농중으로, 이중 1세대는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세대는 채무액 상환후 소유권을 이전할 예정임.
- 칠레 "테노" 농장은 현지인에게 임차 중이며
- 아르헨티나 "야따마우까" 농장은 장기임대를 추진중임.

<행정법규1, 참고자료 1>

남미 3개 농장 현황(총괄표)

('00. 10월 현재)

농장명 / 구분	아르헨티나 야따유우까	칠레 테무코	파라과이 산페드로
구입일자	'78. 8	'80. 12	'68. 4
구입처	외무부	보사부	보사부
면적(ha) (정)	20,894 63,476,350	185 559,625	1,513 4,537,500
구입가격($)	2,115,068	532,898	11,621
추정가격($)	620,000~1,000,000	500,000	400,000
영농세대	-	-	3
채무액($) (잔액)	-	-	176,754 (91,371)
구입경위	정부주도 남미시범농장 건설 및 농업이민 추진		
관리실태	- 3회의 정부합동조사단 조사결과, 영농부 적지 판정 - 국내기업 및 현지업체를 대상으로 임대개발 9회 시도,무산 - 관리인 1명관리	- 칠레정부의 외국 농업이민 불허로 - '88년부터 현지인에게 1년 단위로 임대중 (연간임대료 : 19,465불 상당, '01.5.31~'02.5.30) - 농장여건 양호	- 3세대 영농 - 작물재배(참깨) - 육우사육:세대당 2~300마리 - 숯생산 - 1세대는 채무액 상환완료, - 나머지 2세대는 상환액 탕감을 요구하여 이에 대해 설득중
문제점	- 장기간 유휴상태 - 6세대 장기거주 - 연간유지비 약 2.5만불 지출	- 칠레정부의 농업이민 불허 정책으로 이주에 의한 농장개발 불가	- 박영민, 김태억 2세대는 영농수입금으로 상환이 어려움으로 상환액의 50%를 탕감해 줄 것을 요청함.
대책 및 방침	- 임대개발 추진 최근 지역 인프라의 획기적 변화등 개발 여건의 호전과 임차 개발 희망자 출현 등 개발여건이 성숙되어 장기 임대개발 추진중	- 농장활용(아국업체 임대) 또는 매각	- 박영민, 김태억이 협력단이 최종 제시한 조건을 수용토록 설득 . 3년 거치 10년 무이자 상환
비고	KOICA (부외자산으로 관리)	KOICA (부외자산으로관리)	- 박영순(소유권 이전 완료)

행정법규 2 . 아르헨티나 야따마우까농장 처리대책

ㅇ 정부의 남미시범농장건설 및 농업이민추진계획에 따라 '78년에 구입한 20,894헥타 규모의 아르헨티나 야따마우까 농장은 그동안 여러차례 활용노력에도 불구하고 유휴화된 상태임.

ㅇ 동 농장활용은 제반 여건을 감안, 장기 임대개발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이를 추진중이며, 임차자의 투자자금회수등 안정적 투자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15~20년간 장기임대를 고려하고 있음.

ㅇ 동 농장은 금년도 전기가 신설되었고, 그동안 문제점이었던 농업용수문제도 살라도강의 수량 증가등으로 다소 호전 되었다고 평가되어, 2천헥타는 영농지로 1.5만헥타는 목축지로 개발하는 임대추진계획(안)을 추진하고 있음.

ㅇ 이에따라 현재 현지 언론등을 통해 임대 희망자를 공개 모집중이며, 임대희망자를 확보한후,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중임.

<행정법규2. 참고자료 I >

야따우까농장 현황

1. 구입경위

ㅇ '78.8월 정부는 아르헨티나에 시범농장 건설을 건설하여 아국 이민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농업이주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894헥타의 농장을 211만불에 구입

2. 개발추진 현황

ㅇ 5회에 걸쳐 농장개발타당성 조사 실시

- 정부합동조사단의 3회('79.3월, '84.3월, '96.6월)에 걸친 타당성 조사결과, 동 농장은 염분의 다량함유, 강수량 부족 등으로 작물 재배 및 조림이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 바 있음.

ㅇ 9회에 걸쳐 임대개발 추진

- 구입 직후 '78.12월 농진공과 농장 개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농장개발을 추진한 이래로 9회에 걸쳐 국내기업 및 현지 교포업체를 대상으로 농장개발을 시도했으나 과다한 국고지원 요구, 사업계획의 현실성 결여, 업체의 참여의지 미흡 등으로 모두 무산됨.

ㅇ 과거 농장은 농업 용수 부족, 개간비 과다 소요, 전기 미설치 등 인프라 취약 등으로 개발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최근 1-2년간 농업용수증가, 전기설치등과 같은 인프라 변동이 있었으며, 추후 도로개선 등의 추가적 농장활용 여건개선이 기대되어 농장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됨.

3. 관리실태

- ㅇ 현재 1명의 관리인이 농장내에 상주하여 관리하고 있음.
- ㅇ 농장관리비는 토지세, 관리인 인건비 등으로 연간 약 25,000불이 소요됨.
- ㅇ '89.3월 이후 6회에 걸쳐 매각을 건의하였으며, 임대개발(1회) 및 부분 개발(1회)을 외교부에 건의한 바 있음.

행정법규 3. 직원 해외파견 현황

1. 직원 파견현황

구 분	파 견 국	설치근거
해외사무소 (10국/13명)	중국(47), 베트남(13), 인도네시아(13), 방글라데시(4), 스리랑카(4), 태국(12), 필리핀(12), 우즈베키스탄(4)	ㅇ 국별사업규모가 크고 업무량 과다 국가 (수원상위국 1~15위) ㅇ 아국과의 경협 및 외교관계 고려
	이디오피아(3), 페루(6)	ㅇ 지역거점 활용 ㅇ 수원상위국 고려(페루, 수원 5위)
주재원 (2국/2명)	이집트(7), 몽골(4)	ㅇ 한시적으로 특별협력사업 수행을 위해 파견 - 몽골 : 정상간 약속사업 3건 - 이집트 : 공관요청 프로젝트 사업

※ ( ) : 공관직원 수

2. 파견 필요성

□ 해외사무소

ㅇ 협력단은 현재 120여개의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협력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협력사업 규모의 증대에 따라 사업수행을 소수의 외교관(3~4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개도국 공관에 전적으로 의존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임.

ㅇ 또한, 수원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아국 비교우위의 우량사업 능동 발굴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 등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현장관리 중심으로 사업이 수행되어야 하는점 등을 고려할때 직원파견이 긴요함.

□ 주재원 파견

- ㅇ 주재원은 해외사무소가 설치되지 않은 국가에 한시적으로 파견되어 해외사무소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함.
- ㅇ 근무처는 해외사무소와 마찬가지로 공관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주재원의 신분도 해외사무소 직원과 같이 공관의 협조하에 공관행정직원 또는 봉사단 관리 주재원으로 주재국 정부에 등록되어 있음.

3. 해외파견 직원의 관련경비 지급

- ㅇ 해외사무소 근무 직원 (주재원 포함) : 해외사무소 운영비(사무소운영비, 해외근무수당, 기타 복리비)

4. 해외파견직원 지역별.연도별 현황

- ㅇ 지역별현황
  - 아 주 : 인도네시아, 태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 미 주 : 페루
  - 구주·CIS : 우즈베키스탄
  - 아프리카 : 이디오피아

- ㅇ 연도별현황
  - 1992년도 : 2개 신설(인도네시아, 태국)
  - 1994년도 : 3개 신설(중국, 베트남, 필리핀)
  - 1995년도 : 5개 신설(방글라데시, 휘지, 이디오피아, 파라과이, 우즈베키스탄)
  - 2000년도 : 2개 신설(페루, 스리랑카) 및 2개 폐쇄(휘지, 파라과이)

행정법규 4. 협력단과 대만대표부와의 업무관계

1. 대만대표부 설치경위

○ 정부는 대만과의 외교관계 단절이후 새로운 비공식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93.7. 서울과 타이빼이에 민간대표부를 상호 설치키로 대만측과 합의함.

○ 이에 따라 '93.9. 국무회의에서 주대만 대표부를 한국국제협력단 산하 「아시아 연구소」의 해외사무소 형태로 설치할 것을 의결하고, '93.10. 대통령 재가를 받은 바 있음.

○ '93.10. 외교부는 동 방침에 의거, 「아시아 연구소」설치를 위한 협력단의 관련규정 제정 등 필요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협력단에 요청함.

○ '93.10. 협력단은 「아시아 연구소 설치·운영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여 이사회 의결 및 외교부장관의 승인절차를 거쳐 「아시아연구소」를 협력단 산하기관으로 설치키로 함.

2. 협력단과의 업무관계

○ 대만대표부는 사실상 재외공관의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나, 정부조직으로서 사무소 설치는 불가하기 때문에 협력단 산하기관의 해외사무소 형식으로 설립된 것이며,

○ 협력단의 역할은 「아시아 연구소」설치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에 국한되고 있음.

○ 연구소 및 대표부의 정원, 인사, 복무, 예산·회계 및 자산관리 등 모든 업무와 행정절차는 외교부장관의 지휘·감독 및 책임하에 협력단과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아시아 연구소 설치·운영 규정」 주요내용

- 연구소 및 대만대표부 운영예산은 정부출연금 등으로 하고, 협력단과 별도로 편성하여 독립적으로 계리함

- 연구소 및 대만대표부는 외교부 장관이 시달하는 활동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운영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외교부 장관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이의 운영에 대한 책임은 외교부장관이 짐.

- 연구소 및 대만대표부의 인사,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협력단의 관계법규를 적용치 않고 공무원 관련법령을 준용함.

3. 아시아 연구소의 설립여부

○ 협력단은 「아시아 연구소」 설립에 필요한 근거는 마련한 바 있으나, 실질적 「아시아 연구소」 설립여부는 외교부에서 결정토록 되어있음.

○ 현재 「아시아 연구소」는 협력단 산하기관으로 직제상 편제되어 있으나,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 바, 이의 배경은 아래와 같음.

- 대만대표부」는 사실상 대만과의 외교단절 이전의 해외공관 역할을 수행하나, 정부조직으로는 운용할 수 없으며,
- 또한 업무의 성격상 협력단 본부소속 해외사무소로도 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대만대표부」를 설립하기 위한 방편으로 협력단 산하기관의 해외사무소 형식을 취한 것임.

○ 따라서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관은 대만대표부이므로 역할이나 기능이 없는 「아시아 연구소」의 설립은 불필요하였던 것으로 사료됨.

행정법규 5. 주재원 파견현황 및 해외사무소와의 차이점

ㅇ 주재원은 해외사무소가 설치되지 않은 국가에 한시적으로 파견되어 해외사무소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함.
ㅇ 근무처는 해외사무소와 마찬가지로 공관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주재원의 신분도 해외사무소 직원과 같이 공관의 협조하에 공관행정직원 또는 봉사단 관리 주재원으로 주재국 정부에 등록되어 있음.

1. 개요

ㅇ "주재원"이란 특정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외의 지역에 파견된 협력단 직원을 말함.
(해외사무소 설치·운영규정 제8조)

ㅇ 협력단은 스리랑카, 네팔, 몽골, 카자흐스탄, PNG 등 5개국에 주재원을 파견하였으나 협력단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98년 9월말에 3개국(네팔, 몽골, 카자흐스탄) 주재원을 철수하였으며 '00년 3월 1개국(몽골)에 주재원을 추가 파견하고 '00.8.30 스리랑카 주재원사무소를 해외사무소로 변경하여 현재는 몽골, 이집트 등 2개국에 주재원을 파견하고 있음.

ㅇ 주재원은 봉사단원 등 파견인력 관리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협력단의 사업집행 및 우량사업 발굴 등의 업무를 수행함.

2. 개선방안

ㅇ 주재원의 파견성과 및 주재국가의 사업량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해당국가의 주재원 계속파견 여부를 결정 예정임.
ㅇ 사업확대 가능성이 많은 주재원 파견국에 대해서는 향후 여건이 허락하면 해외사무소로의 확대 개편을 고려할 예정임.

행정법규 6. 직원 행정원 파견 현황

1. 파견현황

파견국	파견 인원	협 력 사 업 량					
		연수생	봉사단	의료단·태권도	프로젝트	개발조사	NGO
네팔	1	38명	19명	2명	1건	1건	1건
라오스	1	50명	17명	1명	1건	-	1건
미얀마	1	62명	15명	2명	-	1건	-
파라과이	1	20명	20명	-	-	-	-

※ 카자흐스탄에 과거 협력단 직원 1명을 행정원으로 파견중

2. 파견목적

○ 봉사단원 파견증가 등 협력사업의 확대로 해당 재외공관에서 협력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움으로 협력단에 협력사업 담당자를 파견해 줄것을 요청해 옴.

○ 협력사업중 특히, 봉사단원 등 인력협력분야에 활동중인 요원들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세심한 지원이 필요한 반면, 많은 활동인원에 비해 전담 지원인력이 없어 활동지원,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인해 효율적인 사업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3. 파견 필요성

○ 과거 봉사단원 출신중에서 행정원을 선발하여 파견한 바 있으나 업무능력 및 파견국 정부와의 교섭능력 부족 등으로 협력사업수행에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음.

- 이에따라, 1998년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폐쇄된 해외사무소지역의 인력관리를 위해 명예 퇴직한 협력단 직원을 계약직 행정원으로 선발하여 파견한 바, 있음.

ㅇ 따라서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도모하고 협력사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협력단 직원중 행정원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발하여 파견하고 있음.

- 직원 행정원은 1년 단위로 파견하며, 파견기간중에는 휴직으로 처리함.

4. 행정원 임무

ㅇ 관할지역내 봉사단원 활동에 대한 지도·감독 및 활동지원

ㅇ 단원파견 및 활동과 관련한 현지기관 또는 공관과의 연락·교섭

ㅇ 기타 프로젝트사업등 협력사업 수행

행정법규 7. 국제연구교류단지 관리사무소운영 방향

ㅇ국제연구교류단지 조성계획이 참여기관의 재정 확보 곤란 등의 이유로 추진이 중단됨에 따라 기획예산위원회 지침('98.8)에 의거 2000년 6월 30일부로 단지 관리사무소를 폐지하고 동 단지 관리 위탁 계약을 종결하고 관련사항을 외교부로 이관조치함.

ㅇ향후 단지 관리업무는 외교부에서 기존 단지관리사무소 직원으로 구성된 민간 용역기관에 직접 위탁·관리함

1. 위탁관리 추진배경

ㅇ 5공 청산관련, 세종연구소 재산을 국가에 귀속하여 공익사업에 활용토록 정치권이 결의함에 따라 국제연구교류단지 조성계획이 추진되었으며 '92년도에 외교부와 협력단간 동 단지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국제연구교류단지 관리사무소를 협력단 산하 기관으로 설치, 운영

2. 경과사항

ㅇ '92. 2. 1 관리사무소 설치
ㅇ '92. 5.23 외무부와 협력단간에 단지관리위탁 계약체결(5년)
ㅇ '98. 5.28 외무부와 협력단간에 단지관리위탁 계약갱신(5년)
ㅇ '00. 6. 8 외교부의 관리사무소 폐쇄계획 수립 및 협력단 통보
ㅇ '00. 6.30 관리사무소 폐쇄 및 관리위탁계약 종료

행정법규 8. (주)창암의 부가가치세 소송

ㅇ 창암무역은 '95~'98년까지 3년간 협력단에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국세청으로부터 부가세 납부 추징을 당함에 따라 동 부가세 추징액 및 가산금 등에 관하여 물품대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협력단이 부담하도록 소송을 제기함

- 청구금액 : 6억 4천 2백만원 (642,390,580원)

1. 추진 현황

ㅇ '99.10.27 서울 지방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어 '00.8.30.까지 총7회 변론이 진행되어옴.

ㅇ 창암은 본 민사소송과는 별도로, 국세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고등법원에서 창암이 승소하였는 바(2000.6.29 판결), 2001.7월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 임. (2000.7.20 상고)

- 동 행정소송에서 창암이 승소할 경우 창암은 부가가치세를 낼 필요가 없어 협력단과의 소송은 사실상 근거를 잃게 됨.
- 재판부도 동 사실을 인지, 대법원의 판결후 선고예정임.

2. 협력단의 대응 입장

ㅇ 협력단 발족이후 해외 공여물품 조달시 관행상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동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왔음을 주장

- 아울러 창암이 협력단에 부가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에 근거하여 「청구권 포기」, 「과실상계」 등을 주장

ㅇ 본 사건의 소송가액은 약 6억원이나, 협력단이 패소할 경우 그 간의 계약 실적에 비추어 약 67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ㅇ 이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전가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패소시 최고심까지 판결을 받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결결과에 따라 검토후 추진예정임.

- 세부금액 산정내역에 다툼이 있어 행정소송 판결내역과 상관없이 협력단 패소시에는 대법원 상고 검토필요.

행정법규 9. 송길준 퇴직금 소송

ㅇ 전 협력단 직원인 송길준('98.4월 퇴직)은 퇴직금의 산정에 있어 월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퇴직금의 추가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 제기

- 추가 청구금액 : 약 1천 1백만원 (10,991,499원)

* 퇴직당시 지급한 퇴직금 : 약 61백만원

- 퇴직금(31백만원)+명예퇴직금(30백만원)

* 추가 요청항목(5개) : 자가운전보조비, 업무추진비, 경로효도비, 체력단련비, 능률제고수당

1. 추진 현황

ㅇ '99.11.17. 서울 민사 지방법원에 제소되어 총 11회의 변론 끝에 2000.12.27. 협력단이 전부 승소함.

ㅇ 원고(송길준)는 2001.3.17. 서울지법에 항소를 제기, 금년 8.16, 9.6. 두 번에 걸친 변론을 진행.

- 담당 재판부 : 서울지법 제 6민사부 다 (재판장 김지형 판사)

ㅇ 협력단은 전 자문위원인 김의재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김·장·리 법률사무소에 사건 의뢰, 소송을 진행시켜 옴.

2. 협력단의 대응 입장

ㅇ 본 안은 소액사건이지만, 추가 예산소요뿐 아니라 유사 기관에 대한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

- 협력단 패소시 재직자등에 대한 퇴직금 추가 소요(약 13억원)
- '00.2월 직제개편시 행정법규팀을 신설, 송무사항을 전담시킴.

행정법규 10. IT협력팀 및 연수기획팀 신설 배경과 필요성

1. 신설 배경

□ 정보격차(Digital Divide)가 남북문제 즉, 지구촌의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새로운 개발과제로 부상

- ㅇ 2000.7월 G-8 오키나와 헌장채택, 2001.5월 G-15 자카르타 선언문 채택 등 국제사회의 주요이슈로 부각
- ㅇ '99.11월 ASEAN+3 등 일련의 정상회담시 우리나라 대통령의 개도국 정보격차 해소 지원약속에 따른 KOICA의 사업기반 마련 필요
- ㅇ IT협력사업비는 2001년 사업비중 약 12% 점유
  - 연수생초청사업의 경우 약 18%, 봉사단사업비는 약 15%임.

□ 연수생 초청사업의 최근 사업량의 급증과 아울러 향후 사업규모의 지속적인 증가 예상

- ㅇ '99년 한아세안 정상회의 및 '95년 코펜하겐 사회개발 정상회의 국제적 약속 이행
- ㅇ 2000년 아세안 연수 특별사업(30개 과정, 600명 초청, 32억원)의 추가 수행
- ㅇ 전년대비 사업량 : '01년 (120과정 2,300명) 약 20% 증가,
  '00년 38% 증가

2. 필요성

□ 상기 협력사업의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신중한 접근을 위하여 별도 정원증원이나 예산의 소요없이 우선 IT추진반과 아세안특별연수사업반을 각각 Task Force 형태로 임시 운영

□ 2001. 1.2.부터 운영해 온 IT 추진반은 국내·외 동향파악 및 사전조사 등 당초 부여받은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결과,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판단

- ㅇ IT협력사업은 개도국의 빈곤해소에 기여할 뿐 아니라, 아국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협력분야로서 상호협력 가능성이 큼
- ㅇ 아울러 동 사업은 기존에 각 팀에서 분산 실시해오던 사업을 집중 관리할 수 있어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정부의 대외협력 방침에 부응

□ 2000.2월 운영해온 아세안특별연수사업반은 아세안특별연수사업을 목표대로 완수하였으나, 사업범위가 아세안연수사업으로 한정

- ㅇ 연수 1팀의 경우 연수 기획업무와 집행업무가 혼재되었고,
- ㅇ 귀국연수생 증가(9,785명/'00년말)에 따른 사후관리 기능강화와 사업량 확대에 따른 연수기획 업무를 전담할 직제 설치가 긴요
- ㅇ 따라서, 아세안특별연수사업반을 정규팀으로 조정하는 한편, 연수사업팀간의 업무분장을 재조정.

□ 상기 필요에 의하여 IT협력팀 및 연수기획팀을 2001. 7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직제규정의 개정으로 직제에 반영, 운영해 옴.

- ㅇ 그러나, 상기 2개팀의 신설은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업무분장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추가의 예산소요나 정원의 증원이 수반된 사항은 아님.

사 업 평 가

(사업평가) 1. 협력사업에 대한 평가 현황 1

(사업평가) 2. 완료사업 평가결과 4

* 참고자료 - 사후평가 완료사업 평가결과

(사업평가) 3. 대외무상협력협력사업의 효과 11

* 참고자료 I - 원조수단별 기대효과

II - 협력사업 효과사례

III - 대외무상협력사업의 자금환류에 관한분석

(사업평가) 4. 한정된 원조재원을 활용, 예산투입 대비 사업효과가 큰 협력사업 발굴방안 19

(사업평가) 5. 우리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사업추진방안 22

(사업평가) 6. '00-'01년 국제협력사업별 사업평가 보고서 발간 내역 23

* 김원웅 의원 요구자료

사업평가 1. 협력사업에 대한 평가현황은

1. 과거 실태

○ 협력사업수행 초기에는 사업규모의 영세성, 소액 다국가 지원 등으로 인해 평가실시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사업실적 심사분석이나 연수교육기관과의 연수평가회의, 봉사단원 귀국대회, 프로젝트사업 종료보고서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사업을 평가하여 왔음.

2. 평가체제 구축

○ 사업규모가 증대되고 완료사업도 증가하면서 사업효과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96년부터 사후관리 예산을 배정하였으며, 협력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97년도에 평가전담 부서를 설치한 후, 사업평가 체제를 구축하고, 98년부터 평가를 체계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음.

○ 99년도에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평가원칙에 근거하여 '협력단 사업평가 가이드라인'을 수립, 모든 협력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확대 실시하는 등 평가업무를 강화하였음.

3. 평가제도 정착

○ 협력사업의 평가는 사업실시 단계에 따라 ①중간평가, ②종료시 평가, ③사후평가로 구분하여 실시중에 있음.

- 연수생초청사업은 초청인원을 대상으로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2001년도에는 사후평가의 일환으로 '농업 및

농촌개발분야 ASEAN 연수프로그램 평가'를 실시하였음.

- 전문인력파견사업은 해당 인력들이 제출하고 있는 분기별활동 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통해 중간, 종료시 평가를 각각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가파견사업 종합평가'를 금년중에 완료할 계획임.

- 봉사단원파견사업은 단원들의 현지평가회의와 귀국보고대회를 통해 중간, 종료시 평가를 각각 실시하고 있으며 '봉사단원 파견사업 종합평가'는 99년도에 실시하였음.

- 개발조사사업은 사업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통해 중간, 종료시 평가를 각각 실시하고 있고 '개발조사사업 종합평가'는 2000년도에 실시하였음.

- 물자지원사업은 20만불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만 종료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물자지원사업 종합평가'는 내년도에 실시할 계획임.

- 프로젝트형 사업은 해당사업의 종료후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98년부터 2000년까지 총 16개 프로젝트에 대해 사후평가를 실시하였음.

o 또한 98년부터는 주요 수원국을 대상으로 수혜자 평가를 실시하여 수혜자의 반응을 점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협력사업에 대한 평가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강화해 나갈 계획임.

협력단 사업평가 개요

1. 평가목적

○ 평가로부터 얻은 교훈을 원조정책, 사업발굴 및 계획수립, 사업집행에 반영함으로써 원조재원의 효율적 이용과 효과 제고 및 사업수행능력 향상을 도모함.

2. 평가기준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서 91년 5월에 채택하여 현재 대부분 선진원조기관에서 활용하는 5개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음.

① 목표달성도(Effectiveness) ② 실시의 효율성(Efficiency) ③ 사업효과(Impact) ④ 사업의 타당성(Rationale) ⑤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3. 평가종류

○ 협력사업에 대한 평가는 실시단계에 따라 중간평가, 종료시 평가, 사후평가로 구분됨.

- **중간평가**는 사업 중간단계에서 계획대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검토하고 동 결과를 토대로 사업내용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며,

- **종료시 평가**는 개별사업의 종료직전에 실시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집행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실시 효과, 자립발전성의 전망, 종료후 연장 또는 사후관리 필요성을 확인하며,

- **사후평가**는 사업종료 시점으로부터 2-3년후 원조효과 및 수혜기관의 자립발전성을 중점 파악하고 유사사업 계획수립에 피드백함으로써 새로운 협력사업 추진전략의 수립과 사업수행의 개선을 도모함.

사업평가 2. 완료사업 평가결과

1. 사후평가 현황

ㅇ 협력단은 사업수행의 효율성 제고와 성과중심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97년도에 사업평가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관련 기준을 수립후, 98년도부터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왔음.

- 그간 실시된 사후평가는 협력사업에서 예산소요가 많은 프로젝트형 사업을 주요대상으로 실시하였는 바, 지원실적이 가장 많은 직업훈련분야를 위시해, 보건, 교육, 식수, 농업분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음.

- 또한, 99년도에는 봉사단파견사업 종합평가에 이어 2000년도에는 개발조사 종료사업(19개 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였음.

2. 사후평가에 대한 분석결과

ㅇ 우리의 협력사업은 선진 원조공여국과 비교할 때 적은 원조재원과 짧은 경험임에도 비교적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던 것으로 평가됨.

ㅇ 이같은 성공요인으로는 ① 수원국에 대한 수요파악 및 사업대상 선정이 적절했고 ② 봉사단, 의료단파견, 프로젝트등 협력사업 수단간의 연계가 잘 이루어졌으며 ③ 우리의 우수인력이 파견된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3. 개선과제

○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앞으로 개선해야 할 여러 과제들도 제시되었는 바, ① 사업실시전에 사전조사를 강화하여 사업실시 여건을 보다 철저히 파악하고 ② 수원국에 대한 기술이전 방안을 강화하는 한편, ③ 부품지원, 고장수리 등 사후관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평가되어, 이러한 평가결과를 실무에 반영중에 있음.

<사업평가 2. 참고자료 I >

협력단의 사후평가 현황

1. 사후평가 실적 및 계획

가. 98 - 2000년도 사후평가 실적

ㅇ **98년도중 평가사업 (2개분야 프로젝트형 사업 3건)**
- 한·스리랑카 직업훈련원 지원사업(94-96년/2,000천불)
- 베트남 지역병원 건축사업(2개사업)
  · 홍캐/박빈 지역병원 건축사업(95-96년/각500천불)

ㅇ **99년도중 평가사업 (2개분야 프로젝트형 사업 6건, 봉사단 종합평가)**
- 중국 동북3성 교육지원사업 (2개사업)
  · 하얼빈 전산기술개발교육센터 지원사업(96-98년/787천불)
  · 도문 제3소학교 지원사업(95년/450천불)

- 중남미 보건소 지원사업 (4개사업)
  · 한·페루 제1,2,3 의료센터 건립 지원사업(92-96년/1,250천불)
  · 한·볼리비아 의료센터 건립 지원사업(95-96년/513천불)

- 봉사단사업 종합평가

ㅇ **2000년도중 평가사업(3개분야 프로젝트형 사업 7건,개발조사 종합평가)**
- 중남미 식수공급지원사업(3개사업)
  · 파라과이 벽촌지역 식수공급시설사업(93-95년/710천불)
  · 엘살바돌 농촌식수공급 지원사업 1차(95-96년/310천불)
  · 엘살바돌 농촌식수공급 지원사업 2차(97-98년/540천불)

- 잠업개발 지원사업(3개사업)
  · 네팔 잠업지도소 건립사업(93-95년/630천불)
  · 네팔 이타하리 잠업센터 지원사업(96년/150천불)
  · 필리핀 양잠개발 지원사업(95-96년/500천불)

- 한·수단 직업훈련원 사업(1개사업)
  · 92-98년/4,883천불

- 개발조사사업 종합평가(19개사업)
  · 97년까지 완료된 10국 19개 사업

나. 2001년도 계획 (국별평가 1건 및 종합평가 3건)

ㅇ 국별평가
- 필리핀 국별평가 (91-00/7,690천불)

ㅇ 종합평가
- NGO지원사업 (95-00/중국, 베트남 지원 8개사업)
- MRC지원사업 (93-00/2,660천불)
- 전문가파견사업 종합평가 (91-00/525명 파견/73국 5개기구)

2. 평가대상 사업의 목표달성도 및 효과

평가년도	평가사업명	목표달성 및 효과
1999년	중국 동북3성 교육지원사업	- 하얼빈 전산기술개발교육 센터 . 95년 개원이래 1만명교육, 동 지역의 전산화 촉진 . 계층별교육생 75%-100%가 승진 혹은 취업 - 도문 제3소학교 . 조선족의 열악한 면학환경을 크게 개선 . 소학교 졸업률 및 중학교 입학률이 100%
	중남미 보건소 지원사업	- 빈민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크게 개선 . 페루 제1센터 등은 향후 모델화 가능성 높음
		. 페루 보건소에 아국인력 (의사, 봉사단)의 연계 파견으로 효과 제고 . 병원 개원식에 페루 대통령 참석등 외교적 성과 거양
	봉사단 파견사업 종합평가	- 수원국 관계기관의 단원에 대한 기대충족도, 전문성 만족도가 높음 . 단원 1명이 203명에게 직, 간접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 (총 12만명에게 영향/ '99년도 기준 595명 귀국) . 타국 봉사단원에 비해 인간적 친밀성, 봉사정신이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
2000년	중남미 식수공급 지원사업	- 아측이 지원한 기자재 및 시설의 활용도가 높고 주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 .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위생환경 개선에 기여 . 제공된 국산 기자재(PE 파이프)의 품질우수성으로 수출 연계효과 기대
	잠업개발 지원사업	- 네팔 잠업지원의 경우, 네팔 동부 전지역을 관장할 잠업 중추기관으로 성장 기대 . 잠업관련 시설이 네팔내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네팔 동부 16개郡내 잠업사업을 관장할 예정으로 있음 - 필리핀 잠업지원의 경우, 수혜기관(FIDA, PTRI)별 상반된 효과가 있으나 필리핀 직물연구원(PTRI)은 아측 지원 기자재를 민간부문 기술자 훈련에도 활용하는 등 잠업기술능력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음

2000년	한·수단 직훈 건립지원사업	- 수단내 최고의 직업훈련원으로 높은 인지도 확보하고 있으며 원활히 운영되고 있음 . 연간 384명의 훈련생 교육을 목표했으나 2개 공과 증설 및 공과정원확대로 현재는 목표대비 2.3배 증가한 연간 757명 양성중 . 수단정부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 '96년 개원초기에 비해 훈련원 직원이 61명으로 2배 증가, 훈련원 운영비도 2배 증가됨 - 수단내 기능인력양성 뿐만 아니라 여성개발, 지역개발, 양국간 우호협력관계에 크게 기여 . 최신 직훈장비를 보유하고 있어 수단내에서 가장 양질의 기능인력 양성 . 봉제, 컴퓨터등 공과 운영으로 여성훈련원생 교육, 개발 . 미개발지역에 직훈설립으로 공업단지,주택,상가등 형성 . 83년 니메우리 수단 대통령 방한시 정상간 약속사업 이행으로 양국외교관계 증진
	개발조사사업 종합평가	- 최종보고서 활용율, 사업착수시기, 사업수행기간, 작업분담범위등에 대해 수원기관들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평가됨. . 개발조사 용역을 수행한 아국 전문가들이 '과학적이고 선진적인 기술을 활용하였으며 외국전문가와 비교해서는 '헌신적이고 성실하며 현지직원들과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됨 - 경제적 측면에서는 해외천연자원 개발기반 구축, 아국업체의 해외진출 기회 제공, 국산장비 수출기반조성, 아국기업의 해외공사 수준에 도움을 주었음 . 한편, 수원기관측에는 관련분야의 정책수립 및 현지직원 능력 향상, 사업을 수행한 아국용역기관측에는 시행기관의 국제경쟁력 제고, 수원국에 대한 관련 분야의 정보 확보, 수원국내 인적 네트웍 구축이 이루어졌음

3. 평가대상 사업의 효과제고·저해요인

평가년도	평가사업명	제고요인	저해요인
1999년	중국 동북3성 교육지원사업	- 하얼빈지역은 인구과밀 지역으로 훈련생 모집이 용이하였고, 전산인력을 요구하는 사업체가 많아 산학연계가 용이하였음 - 도문 소학교의 경우, 자체 건물 없이 인근 중학교 건물을 임차 사용 . 조선족 사회의 교육환경 개선요구에 부응	- 원조효과 제고 및 수원국의 자립발전성 제고를 위해 프로젝트사업 추진시 기술이전 방안을 적극 모색 필요 - 컴퓨터 등 교육기자재 지원에서 빠르게 변동하는 기술 발전요인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함.

1999년	중남미 보건소 지원사업	- 페루의 경우, 의료분야에 집중 지원함으로써 한국 원조사업의 상징성과 가시적 사업성과 도출 . 사업지역이 빈민지역, 인구밀집지역, 인구증가지역에 위치하여 사업효과 제고 . 양질의 의료 서비스, 현지동화 노력, 무의촌 무료진료활동의 지속 전개 등 아국인력의 우수한 자질과 사명감으로 사업성과 제고	- 현지 의료체계, 의료기관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 부족으로 보건교육이 중요한 현지상황을 사업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 장비운영에 대한 기술 전수가 충분하지 못했고, 영문메뉴얼이 누락되었음.
	봉사단 파견 사업 종합평가	- 체계적인 단원선발,훈련,관리 및 지원으로 파견효과 제고 . 협력단 프로젝트 사업과의 연계 파견으로 단원 활동 성과를 제고하고, 프로젝트의 사후운영지원에 기여. . 아국 단원의 높은 현지 적응력, 전문성 등으로 수원국의 반응이 좋았음	- 봉사단 활동에 대한 수원기관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체계가 부족 - 활동 종료후 유관기관 또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 단원의 현지활동 경험에 대한 활용이 미흡함
2000년	중남미 식수공급 지원사업	- 대상지역의 긴급한 수요에 적절한 부응과 세계은행, 미주개발은행등이 지원한 식수개발사업과 연계추진에 따른 시너지 효과, 그리고 우수한 품질의 국산품지원이 유효하게 작용했음	- 수원국의 사업관리 미흡과 사업지원범위 및 규모가 부적정하였음 . 특히 파라과이 엘살바돌 1차사업은 대상지역수가 과다하여 사업수행 및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함
	잠업개발 지원사업	- 네팔의 경우, 적절한 사업대상지 선정, 현지실정에 적합한 적정규모의 기자재지원이며 필리핀의 경우는 우리나라 파견전문가의 우수성, 현지인의 한국초청연수를 통한 현지 연구기술인력들의 능력향상이었음.	- 네팔의 경우, 잠업 매니지먼트 기술전수 미흡과 아국 파견전문가의 활동 효과가 저조였으며 필리핀의 경우는 수원기관인 FIDA (섬유개발청)의 주요임무인 잠업농가 활성화부문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였음.
	한·수단 직훈 건립지원사업	- 훈련원 건축공사를 현지발주에 의해 완료함으로써 건축비용 대폭절약(독일 지원 직훈 건축비의 35% 수준), 또한 사업초기부터 수석자문관을 파견하여 건축시 발생되는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대처	- 사업형성조사 미흡으로 차량, 전기공과의 경우, 장비활용, 고장수리, 기술이전등에 문제점 발생, 수단정부의 재정지원 미흡으로 현지어 교재 미발간은 훈련원의 자립발전성 저해
	개발조사사업 종합평가	- 수원기관 기대에 부합하는 '최종보고서'를 마련 제공하였다는 점이며 또한 관련 계획의 적정성과 효율적인 집행, 그리고 우수한 아국전문가들이 사업에 투입되어 사업효과가 높았음	- 우량 개발조사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기본토대가 미흡한 상태이며 SOC분야의 타당성 조사로 편중되었음

4. 평가결과 피드백 사례

평가년도	평가사업명	피드백 내역(사후관리 포함)
1999년	중국 동북3성 교육지원사업	- 사후관리 . 하얼빈 전산센터, 프린터 토너 송부 (47개) . 도문제3소학교, 도서 480여권, 교육용 테잎등 501종 지원
	중남미 보건소 지원사업	- 향후 보건사업 수행시 반영 . 보건기획, 병원건축 등 사업 자문단 운영방안을 유사 사업 추진시 적용 . 한-필리핀 친선병원 지원사업(99-01/3,800천불)에 보건기획 자문단 운영
	봉사단 파견사업 종합평가	- 파견기관에 대한 수요조사 기능 강화 제안 . 해외사무소 등의 현지조사 강화. 수원기관의 수원의지 등 중점 점검중
2000년	중남미 식수공급 지원사업	- 향후 식수공급지원사업 수행시 반영 . 식수공급사업은 모터펌프등 단순기자재 지원을 지양하고 식수공급시스템 전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예정
	잠업개발 지원사업	- 향후 잠업개발지원사업 수행시 반영 . 잠업개발지원사업의 지원방향 및 아국 잠업수행능력에 한계사항(잠종 및 인력 국제경쟁력 상실) . 네팔 및 필리핀측의 잠업지원사업 요청 접수시 향후 지원방향에 반영(소극적 지원)
	한·수단 직훈 건립지원사업	- 향후 직업훈련원사업 수행시 반영 . 특히 직훈사업은 사업초기에 현장관리자 파견 예정 - 사후관리 . 자동차정비 분야 전문가 1명 파견(2001.8-9/1개월)
	개발조사사업 종합평가	- 향후 개발조사사업 수행에 반영 . 후속 본사업 연계율 제고를 위한 노력 아국 유상원조 담당기관인 재경부, 수출입은행 관계자들과의 공동사업조사 2회 실시 (2000.12 베트남 하노이 신도시 주거단지 타당성조사. 2001. 1 캄보디아 도로개보수 타당성조사) . 정보확산을 위한 현지 보고회 개최 2001. 1 베트남 하노이 신도시 개발 타당성조사

사업평가 3. 협력사업의 효과

1. 효과개요

○ 협력사업은 인적자원 개발, 경제개발능력 확충, 빈곤해소, 질병퇴치등 **개도국의 경제사회개발에 기여**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 원조재원의 75% 이상이 국내기업의 물품구입과 국내에서 소비되어 우리나라에 실질적으로 환류되고 있고, **우리 상품의 해외시장 홍보, 대외 신인도 제고 및 국제적 지지기반 확보, 우리 인력의 고용창출과 지역전문가 양성** 등 폭넓은 파급효과를 거두고 있음.

2. 세부내용

가. 개도국의 경제사회개발

○ 연수생 초청, 전문가, 의사, 봉사단파견, 개발조사, 물자지원, 프로젝트형 사업 등 다양한 협력사업 수단을 활용하여 개도국 관련분야의 인적자원개발과 개발능력 확충 및 사회인프라 정비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봉사단원의 지역개발사업을 통한 빈곤퇴치와 병원건립 프로젝트를 통한 개도국 주민의 기초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나. 범지구적 과제 해결

○ 환경 및 가족계획 관련 국내초청연수, AIDS확산 방지를 위한

보건물품지원, 홍수, 한발등 재난피해복구 지원, 분쟁지역 전후 복구지원등을 통해 범지구적 과제(Global Issues)인 환경, 보건, 인구, 난민, 자연재해 지원에 동참함으로써 지구촌 공동번영에 기여하고 있음.

다. 우리나라의 수출증대 및 기업진출 효과

○ 각종 물자지원 및 프로젝트형 사업을 수행시 공여물품의 대부분을 국산물품으로 지원해 줌으로써 우리상품의 수출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효과 뿐만 아니라 우리제품을 개도국에 홍보하는 간접적인 효과도 이뤄지고 있음.

○ 그리고, 물자지원 및 프로젝트형 사업에 참여한 국내기업들이 이를 계기로 현지지사 설립등 해외진출과 시장개척에도 도움을 주고 있음.

< 참 고 > **아국경제에 있어 개도국 비중**

○ 우리나라의 수출중 개도국 비중은 '95년부터 50%를 상회
- 2000년중 우리나라 전체 수출시장의 48.6%('99년은 49.3%)
- 2000년중 해외건설 총 계약액의 97.6%를 차지

○ 아울러 선진국과의 무역적자를 대부분 개도국과의 무역흑자로 보전
- 2000년도 우리나라의 전체 무역흑자 118억불중 대 개도국 무역흑자는 107억불로 약 91%를 차지

라.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 제고

○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적 지지기반 확보와 대외신인도를 제고시키는 효과를 거양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UN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그리고 2002년 월드컵 유치등 각종 국제정치 및 행사에 있어 ODA는 우리나라의 외교활동에 가장 효과적인 지원수단이 되고 있음.

- 또한, 제3세계의 빈곤완화와 평화정착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정부간에 기 약속한 원조약속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우리의 국제 신인도를 높이는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마. 우리 인력의 고용창출과 지역전문가 양성

○ 전문가, 의료단, 태권도사범, 봉사단 파견사업을 통해 비록 소규모이지만 우리인력의 고용창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현지활동을 통해 이들을 지역전문가로 양성시키는 효과가 있음.

○ 또한 봉사단원 등이 현지활동후 현지진출 우리기업등에 채용됨으로써 아국 인력의 해외진출 확대에 기여하고 있음.

임기만료 봉사단원 현지진출 현황

(2000년까지 귀국단원 총686명중 9.0% 진출)

구 분	계	취 업								결 혼		기타
		소계	현지업체	아국업체	개인사업	현지교사	공관근무	파견전문가	태권도사범	현지인	교포	유학
계	62 (100%)	50 (81%)	9	18	5	5	9	1	3	7	3	2
봉사단원	50 (81%)	38 (76%)	6	15	5	4	7		1	7	3	2
협력요원	12 (19%)	12 (100%)	3	3		1	2	1	2			

<사업평가3. 참고자료I>

협력사업별 기대효과

1. 인력협력사업(연수생초청, 전문가·의료단·태권도사범·봉사단 파견)

가. 연수생초청

○ 개도국의 인적자원 개발을 지원하는 효과와 함께 개도국내 영향력 있는 행정관료 및 경영자, 기술자 등을 대상으로 친한인사 저변확대의 중요한 기회가 되고 있음.

나. 전문가·의료단·태권도사범·봉사단 파견

○ 우리의 개발경험 및 기술의 이전으로 수원국 경제사회발전의 토대를 강화해 주며 의료 및 봉사활동으로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개도국에서 활동한 우리인력들이 세계화시대가 요구하는 지역전문가로 성장하는데 좋은 기회가 되고 있음.

2. 개발협력사업(개발조사, 물자지원, 프로젝트)

○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개도국에 국산품 공여, 시설건축, 기술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상품 및 기술력을 소개하고 우리 기업의 현지진출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한편, 사업추진과정에서 습득한 개도국에 대한 지역정보는 우리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시장개척 및 우호적인 투자여건을 조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

3. 민간단체 지원사업

○ 정부차원의 협력사업을 보완하여 절대빈곤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으며, 우리나라 민간단체가 국제원조 경험을 배양하는 것에도 도움을 주고 있음.

<사업평가3. 참고자료II>

협력사업 효과사례

1. 친한인사 저변확대

ㅇ 한국에서 연수후 곧바로 몽골 총리로 임명

- 98년에 몽골의 경제관료들을 대상으로 한국경제정책과정이 실시되었음. 동 과정에 참여한 나란차츠랄트 울란바토르 시장은 연수 후 귀국하자마자 총리로 임명되었음. 동 총리(현직 국회의원)는 연수 중 한국의 경제발전과정을 울란바토르 경제발전 정책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수차례 밝히기도 함. 이같이 개도국 고위인사의 방한연수는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통해 양국간 우호협력관계 증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ㅇ 스리랑카 공무원의 한국업체 활동 지원

- 99년도 서남아시아 파트너쉽과정에 참가한 스리랑카 연수생은 현지진출 야국업체들의 안전·노사문제 등을 지원하여 기업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음

- 또한, 99년에 창립된 KOICA 연수생 동창회 회장단이 스리랑카 여러 정부부처에서 주요직책을 맡고 있어, 우리기업체의 애로사항 해결 등을 적극 도와주고 있다고 함.

2. 우리기업의 대 개도국 진출지원

ㅇ 필리핀 바탄-말라야 복합화력발전소 전환 개발조사사업
(93-94, 377천불)

- (주) 한국전력기술이 동 사업 참여를 계기로 필리핀 정부가 발주한

1000억원 상당의 말라야 화력발전소 1,2호기 성능복구공사와 7억불 상당의 '일리한'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을 수주하는 성과를 이룩함. 38만불을 들인 무상협력사업이 8억불이라는 2,100배의 성과로 귀결됨.

ㅇ 협력요원이 현지진출 아국기업의 산업폐기물을 비료로 전환

- 98.7-2000.8간 인도네시아 람풍 직업훈련원에서 근무한 협력요원(작물재배)은 현지에 진출해 있는 주식회사 인도미원(한국의 대상그룹)의 산업폐기물을 비료화하여 아국기업 이미지를 개선해 주었음.

- 당초 동회사는 산업폐기물을 공장부지내에 과다 보관하여 현지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협력요원이 근무하는 람풍 직업훈련원에 산업폐기물의 재활용 연구를 의뢰하였으며, 동 협력요원이 주도하여 연구를 실시한 결과, 산업폐기물을 비료화하는데 성공하였음.

- 개발된 동 비료는 공장 인근지역 농민들에게 무상 배포되어 작물재배에 사용됨으로써 큰 호응을 받았음. 이에따라 동 회사는 산업폐기물의 비료화 제작사항을 인도네시아 정부에 특허출원 하였다고 함.

3. 우리상품 수출증진 지원

ㅇ 베트남, 아세안 정상회의 의전용 차량 지원

- 98년말 베트남에서 개최된 제6차 아세안 정상회담과 관련 베트남정부측의 요청에 따라, 현지에 진출한 국산자동차 6대를 지원한 결과, 행사종료후 아국차량에 대한 좋은 인식으로 베트남 주재 외교단(리비아, 방글라데시, 알제리등)이 동차를 구매한 바 있으며, 특히 동 리비아 대사는 본국정부에 동 차량 500대를 의전용 차량으로 추가 구입할 것을 건의하기도 함.

○ **인도네시아 남 깔리만탄 저습지 벼농사 기계화 지원사업**
(98-01, 1,100천불)

- 인도네시아 정부는 97~98년 당시 극심한 가뭄, 산불등으로 인해 식량 부족을 겪은후 현재는 식량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인니 정부의 농업개발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있는 농기계화 사업은 인니 정부의 농기계화 정책 결정자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쳐 우리 민간기업이 남 술라웨시 주정부의 농기계화 사업에 국산 경운기 2천대를 수출하는데 기여하였음.

<사업평가3. 참고자료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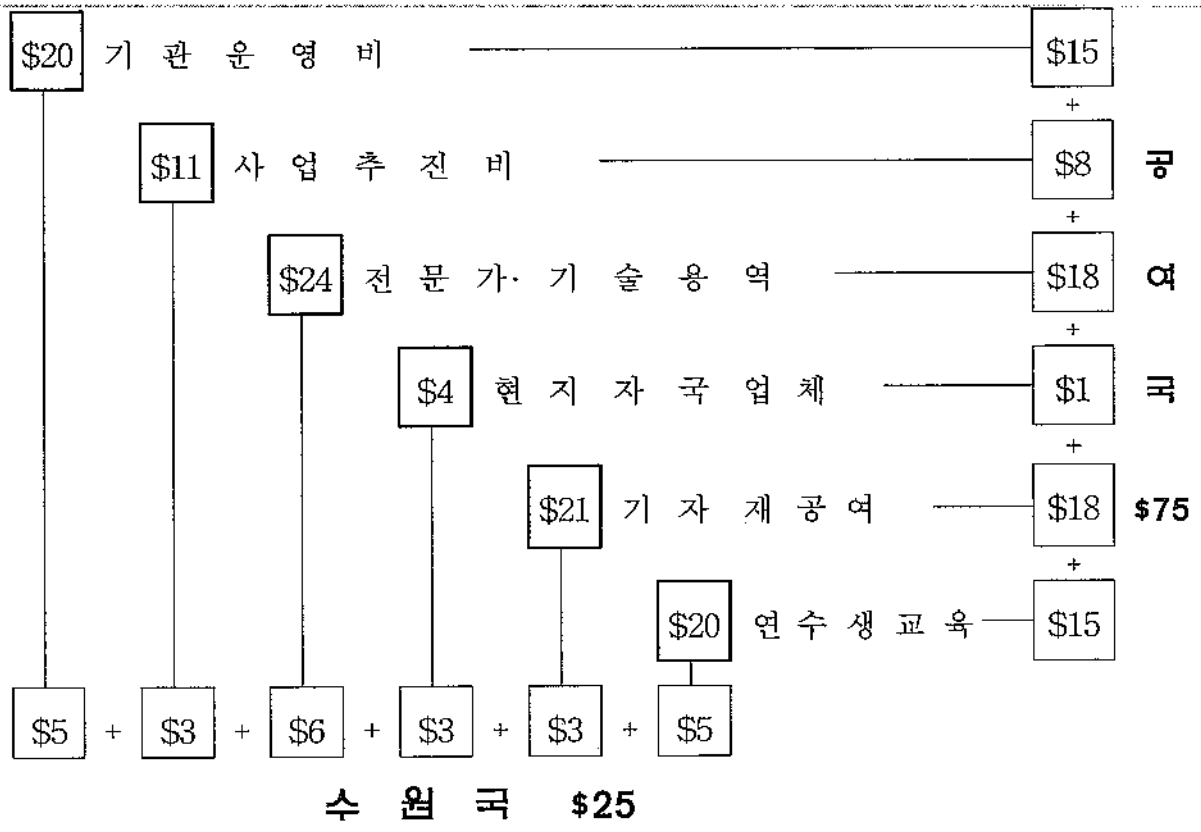
협력사업의 자금 환류에 관한 분석

협력사업은 주로 공여국의 기술 및 행정인력투입, 공여국물자와 용역의 제공을 통해서 실행되기 때문에 협력사업자금의 절대액이 공여국 측으로 환류됨.

- **ODA사업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4.4달러(2000년 기준)를 부담하고 있는 바, 이중 1/4에 해당하는 1.1 달러만이 개도국에 직접 지출되고 있으며 이를통해 직·간접적인 정치·경제적 국익 창출에 기여**

○ 미국의 경제학자 「Stephen Browne」의 연구에 의하면, 지원액의 75%가 공여국의 물자와 서비스형태로 국내경제에 직접적으로 환류됨.

무상원조 $100을 지원할 경우 자금의 흐름



자료 : Stephen Browne, 「Foreign Aid in Practice」, N.Y. Univ. Press, 1990

사업평가 4. 한정된 원조재원을 활용, 예산투입 대비 사업 효과가 큰 협력사업 발굴방안

1. 효과가 높은 사업을 집중지원하고 사업간 연계를 강화

○ 우리나라의 우수인력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비교우위 분야이면서 개도국의 인적자원개발을 도울 수 있는 연수생초청사업 비중을 확대하고 있음.

- 91년 90국 362명, 95년 92국 870명, 2000년 112국 1,926명 초청

○ 또한 연수생초청, 전문가파견, 물자지원사업을 패키지화하여 시설건축과 기술전수를 도모하는 프로젝트형 사업은 사업효과가 가시적일 뿐만 아니라 그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 및 발전시킬 수 있으므로 주요 협력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음.

- 전체 협력사업비중 프로젝트형 사업비는 91년 3.4%, 95년 20.4%, 2000년 32.0%를 점유

○ 이밖에도 각 사업수단별 연계강화를 통해 사업효과를 제고하고 있음.

- 프로젝트형 사업 형성 및 사후관리에 파견전문가 활용

- 의료단, 봉사단원을 프로젝트형 사업으로 지원한 병원 및 직업훈련원등에 파견

2. 중점협력국가 및 중점협력분야 선정, 지원

○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국가 분산지원 방식보다는 중점협력국가를 중심으로 지원하되, 우리나라가 비교우위에 있는 직업훈련원 및 병원과 같은 교육·보건분야에 집중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 수원상위 10국 지원액은 91년도의 경우, 전체사업비중 29.5%, 95년도에는 44.6%, 2000년도에는 64.2%를 각각 점유하고 있음.

3. 사전조사기능 강화

○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수원국 개발수요에 부합되는 사업선정과 사업추진이 매우 중요함.

○ 이를 위해 사업계획 수립전, 우량후보사업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사업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고 사업실시과정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하고 있음.

4. 평가기능 강화

○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 제고와 성과중심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97년도에 평가전담부서를 설치, 평가기능을 강화하고 있음.

- 사업 종료단계에서 목표달성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예측하고 보완사항을 점검하고 있으며

- 사업종료후 사업효과를 파악하고 평가결과의 교훈을 향후 협력정책 및 사업추진에 반영코자 노력하고 있음.

<사업평가4. 참고자료I>

연수생 초청사업 확대 추이

(단위:국,명,%)

구 분	계	'91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대상국가	154	90	93	79	100	92	95	102	109	116	112
초청인원	9,784	362	461	459	716	870	1,029	1,210	1,350	1,401	1,926
증가율	-	-	27.3	△0.4	56.0	21.5	18.3	17.6	11.6	3.8	37.5
운영과정	549	36	35	28	39	44	55	61	71	74	106

KOICA사업비중 프로젝트형 사업비 점유율 추이

(단위: 백만원,%)

구 분	합계	'91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협력 사업비	380,435	17,376	23,168	24,605	31,148	37,959	43,250	52,761	53,776	45,116	51,276
프로젝트 사업비	85,899	596	530	2,508	4,846	7,742	9,448	13,738	16,506	13,547	16,438
점유율	22.6	3.4	2.3	10.2	15.6	20.4	21.8	26.0	30.7	30.0	32.0

수원상위 10국·20국의 사업비 점유율 추이

(단위: 백만원,%)

구 분	합계	'91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협력 사업비	380,435	17,376	23,168	24,605	31,148	37,959	43,250	52,761	53,776	45,116	51,276
상위10국 지 원 액	133,643	3,530	4,243	6,036	9,384	11,551	13,710	17,240	19,496	22,015	26,438
점유율	35.1	29.5	30.0	36.8	44.0	44.6	44.9	43.7	48.1	63.3	64.2
상위20국 지 원 액	180,657	5,389	6,327	8,581	12,418	15,874	19,109	24,920	27,823	27,134	33,082
점유율	47.9	45.0	45.7	52.2	58.3	61.3	62.5	63.2	68.6	78.0	80.3

사업평가 5. 우리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사업추진방안은?

1. 아국의 장점

ㅇ 우리나라는 타 선진원조공여국에 비하여 ODA규모는 작으나 가장 모범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함으로써 경제개발 Know-how를 보유하고 있음.

ㅇ 또한 개도국의 수준에 적합한 우리의 비교우위분야 및 기술을 잘 활용하여 궁극적으로 수원국의 자조 노력을 배양시켜 줄 수 있음.

ㅇ 선발 개도국으로서 우리의 개발모형과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여 "함께 잘 사는 인류사회 건설"을 위한 남남협력정신을 구현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추진해야 할 방향이며 이는 바로 '한국형 국제협력'이라고도 할 수 있음.

2. 추진방향

ㅇ 여타 선진국과 비교하여 우위에 있고 개도국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인적자원개발(HRD) 지원을 중점하여야 함
- 연수생 초청, 전문가파견등의 인력협력 확대

ㅇ 개도국의 자조능력확충(Capacity building) 지원
- 수원국의 참여확대를 위해 수원국과의 정책대화를 통한 사업추진

ㅇ 개도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기초분야 우선지원
- 교육, 보건 등

사업평가 6. '00-'01년 국제협력사업별 사업평가 보고서 발간내역 (2001년도 김원웅 의원 요구자료)

1. 2000-2001년도 사후평가실적

가. 2000년도 실적

○ 2000년중에는 프로젝트형사업 사후평가의 분야별 3건(7개 프로젝트사업)과 개발조사사업 사후 활용현황 평가 1건(19개 개발조사사업)을 포함하여 4건을 실시하였음.

- 중남미 식수개발지원사업(파라과이 1건 73만불,
  엘살바돌 2건 31.3만불)
- 잠업개발 지원사업(네팔 2건 78만불, 필리핀 1건 50만불)
- 수단 직업훈련원 지원사업('92-'97, 6년간 479만불)
- 개발조사사업 사후현황평가('97년말 기준 종료된 19개사업)

나. 2001년도 실적

○ 2001년중에는 NGO지원사업, MRC지원사업, 전문가 파견사업등 종합평가 3건 및 국별평가 1건을 계획, 실시중에 있음.

- NGO지원사업 ('95-'00/중국, 베트남 지원 8개사업)
- MRC지원사업 ('93-'00/2,660천불)
- 전문가파견사업 종합평가 ('91-'00/525명 파견/73국 5개기구)
- 필리핀 국별평가 ('91-'00/7,690천불)

2. 사후평가 보고서 발간 실적('00-'01)

○ 2000년중에 4건 발간(2001년 평가는 진행중임)

- 중남미 식수공급지원사업 사후평가 보고서
- 잠업개발 지원사업 사후평가 보고서
- 한·수단 직업훈련 지원사업 사후평가 보고서
- 개발조사사업 사후평가 보고서

협 력 정 책

(협력정책) 1. 국제협력사업 연구기능 활성화 방안 1
(협력정책) 2. 국제기구 및 제3국과의 공동협력 방안 3
(협력정책) 3. 비교우위에 있는 한국형 국제협력사업 추진방안 4
(협력정책) 4. 국제협력의 새로운 방향과 주요 이슈 5

협력정책 1. 국제협력사업 연구기능 활성화 방안

1. 기본 방향

○ 한국형 국제협력모델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향을 모색하여 보다 효과적인 우리의 국제협력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를 위해 ①국제협력관련 정책연구와 사업수행 개선방안, ②범지구적 문제에 대한 연구와 협력단의 정책방향 제시, ③OECD/DAC 및 주요 선진공여국의 원조정책 동향분석 등에 주력함.

2. 문제점

○ 협력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연구조사기능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국내적으로 국제협력 사업에 대한 이론적 기반 미비등 대내외적 수요에 걸맞는 연구조사 수행 구축 기반이 취약한 실정임.

3. 대 책

○ 2000. 2월 협력정책팀으로 개편이후 정부의 ODA 정책결정 및 개발협력사업의 효율적 집행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실용적 연구조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향후 주요 연구방향으로는 한국형 국제협력모델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향을 모색하여, 타 선진공여국과 비교하여 보다 효과적인 우리의 국제협력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임.

○ 한편, 국제협력 정책수립과 사업집행 제도개선에 필요한 연구조사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위원의 운영에 관한 예규'를 제정(2000.11) 하여 연구위원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필요시 외부에 연구 용역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국제협력 연구기반을 확충해 나갈 것임.

(참고) 최근 연구실적 목록

1. '99~2001년도 연구실적 : 11건

- ㅇ 국제협력의 범세계적 이슈와 우리의 정책방향
  - 빈곤완화의 개념과 우리의 정책방향
  - 세계인구문제와 국제협력
  - 참여적 개발 및 올바른 통치: 개념 및 정책방향
  - 여성개발 및 성평등의 개념과 정책방향
  - 동남아시아의 경제위기 현황 분석
  - Non-DAC 국가 및 신흥 원조공여국의 ODA 현황
  - 한국형 국제협력의 의미와 추진방향
- ㅇ OECD/DAC 회원국의 원조체제 비교분석 및 우리의 국제협력
- ㅇ A Comparison of Management Systems for Development Co-operation in OECD/DAC Members (OECD공동연구)
- ㅇ 원조평가(Assessing Aid) 보고서(번역본)
- ㅇ 아국의 OECD/DAC 가입시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방향
- ㅇ 남남협력의 개황: TCDC를 중심으로
- ㅇ 국제협력용어집
- ㅇ 국제협력의 동향과 전망
- ㅇ 개발협력동향 (제1호, 제2호, 제3호)

2. '97-'98년도 연구실적 : 5건

- ㅇ 선진국 ODA의 기본방향
- ㅇ 우리나라 ODA의 적정규모
- ㅇ 중국 직업훈련 개황
- ㅇ KOICA 발전 5개년 계획
- ㅇ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방안

협력정책 2. 국제기구 및 제3국과의 공동협력 방안

1. 배 경

○ 국제협력사업의 성과제고와 비용절감 효과등을 고려, 국제기구 및 선진 원조기관과 연수생 초청사업을 중심으로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 현 황

○ 국제기구와의 공동연수는 '91년부터 APEC, UNDP, UNESCO 등 17개 기구와 실시한 바 있으며, '91~2000년까지 총 78개 과정 1,427명을 초청함. (2001년 계획 : 8개 과정 158명)

○ 제3국과의 공동연수는 싱가폴('95년), 이스라엘('97년), 일본(2000년)과 각각 실시하고 있으며, '95~2000년까지 총 24개 과정 472명을 초청함. (2001년 계획 : 7개 과정 130명)

○ 특히, 한·일간 협력증진을 위해 '98년도 대통령 방일시 양국간 합의한 『국제협력분야에서의 공동협력 및 행동계획』에 의거 수질환경개선 및 경제개발 분야의 공동연수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한편, 중남미 개도국의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개발, 임·수산물 가공, 해양환경 보존, 광물자원 개발, 정보통신분야 등에서 2002년부터 칠레국제협력청(AGCI)과 중남미 제3국 공동연수 실시방안을 협의중임.

3. 향후 추진방향

○ 아국의 비교우위 분야, 원조사업의 효과증진, 비용절감 효과 등을 고려하여, 타 원조기관,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 등과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 나갈 계획임.

협력정책 3. 비교우위에 있는 한국형 국제협력사업 추진방안

1. 추진배경

- ㅇ 우리는 '50년대의 최빈국가에서 이제 선발개도국으로서의 경제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개도국에 적절한 중간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기술, 조직 및 인적자원 등을 갖고 있음.

2. 추진방향

- ㅇ 대부분 선진공여국처럼 기존의 식민지와의 관계유지를 위한 원조가 아닌, 선발개도국으로서 후발개도국을 돕는 남남협력의 정신에 바탕을 두고,

- ㅇ 우리의 비교우위 분야를 활용하여 개도국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개도국의 자조능력을 배양(Capacity Building)하는데 중점을 둠.

- ㅇ 이러한 차원에서 최근에는 우리의 개발경험에 비추어 연구생초청등을 통해 개도국의 인적자원개발을 중점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개도국의 정보격차(digital divide) 해소를 주요 정책목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음.

3. 추진분야

- ㅇ 수원국 주민들의 인적자원개발(HRD) 및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직업훈련 분야, IT 분야

- ㅇ 기본욕구(BHN) 충족 및 사회개발 인프라를 위한 기초교육, 의료, 인구, 농업기술등 개발분야

- ㅇ 빈곤퇴치 및 현지 주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원조로서 지역개발 및 새마을운동 분야

- ㅇ 수원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분야로서 국가 발전전략, 중소기업육성, 무역·투자진흥, 금융위기 관리분야

협력정책 4. 국제협력의 새로운 방향과 주요 이슈

1. 배 경

- OECD/DAC는 제38차 고위급회의(2000년 4월)에서 "빈곤완화를 위한 파트너쉽 정책방향"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으며,

- 제39차 고위급회의(2001년 4월)에서는 빈곤완화, 지속개발전략, 분쟁예방, 무역능력개발 등에 관한 4개 지침 및 부속성명서와 최빈국 원조의 언타이드(Untied)화 권고문을 채택하였음.

- 한편 2001년 5월 브랏셀의 제3차 UN 최빈국회의에서는 ODA, 외채, 투자 및 무역부문에서의 국제사회 지원 노력을 평가하고 최빈국의 지속가능개발과 세계경제로의 통합을 위한 국제사회의 정책 및 행동계획을 논의한 바 있음.

2. 주요 정책방향

- 빈곤완화를 위한 주요 정책방향으로는 ①주인의식과 파트너쉽 강화, ②세계화와 정책일관성 강조, ③민주주의, 참여적 개발, 올바른 국정통치(good governance)의 강화, ④ODA등 개발재원의 확대 등임.

- UN 최빈국회의에서 채택된 최빈국을 위한 행동계획은 ①국가 및 국제적 차원의 good governance 증진, ②인적·제도적 능력 구축, ③세계화에 적응하도록 생산능력의 증강, ④개발에 있어 무역의 역할 제고, ⑤최빈국의 환경보존 및 재원의 동원 등임.

- DAC 고위급회의를 통해 본 회원국들의 동향은 앞으로 개도국에 대한 일방적 원조제공 및 양적 확대보다는 개도국 주도의 빈곤완화전략에 대한 지원, 공여국의 대 개도국 정책일관성 확보 등 원조의 질적 개선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IT 협력사업

(IT협력) 1. IT 협력팀 설치배경과 운영현황은 1
(IT협력) 2. 협력단의 IT협력기본 방향과 주요 내용은 2
(IT협력) 3. IT분야 지원실적 및 2001년도 계획은 3
(IT협력) 4. 국제사회의 IT협력 동향은 4
(IT협력) 5. 부처별 대개도국 IT분야 지원현황은 5
(IT협력) 6. 대개도국 정보격차 해소지원사업의 일원화 필요성은 7

IT 1. IT 협력팀 설치 배경과 운영현황은

(장성민 의원)

1. 설치 배경

○ 협력단은 국가간 정보격차에 대한 국제사회 지원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2001. 1. 1부로 IT추진반을 설치한 데 이어,

- 향후 **IT협력사업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7. 1부로 동 IT추진반을 IT협력팀으로 개편, 운영중임.

2. 운영현황

○ 전반적으로 인력운영이 어려워 현재, IT협력팀은 팀장을 포함 4명으로 운영중이며, 관련예산은 사업비 1,600백만원을 포함 1,618백만원임.

○ 주요 임무는 IT분야와 관련된 전문가 파견, 개발조사, 프로젝트 사업 실시이며, 이밖에 개도국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연구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IT 프로젝트 사업으로는 행정부처나 대학 전산화, 정보망 구축, IT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IT훈련센터 등이 있는데
금년 실시중인 주요 사업으로는,

- **네팔 외무부 전산화지원** 사업 (300천불/'01)
- **리비아 알파타대 전산화지원** 사업(2,000천불/'01-03)
- **이집트 국가산업정보망구축** 사업(2,500천불/'01-03)

IT 2. 협력단의 IT협력 기본 방향과 주요 내용은

1. IT 협력의 목적

○ 협력단은 지식기반 경제 하에서 정보격차 해소가 개도국의 빈곤완화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요소임을 인식하고, **개도국의 정보기회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IT분야 협력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음.

2. 주요 지원분야

○ 개도국의 IT 향상을 위해서는 개도국 정부 및 일반 국민의 정보 마인드 확산, 정보화 정책 및 법·제도 정비, 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등이 중요한 바, 동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 예정임.

○ 특히 IT인프라가 전반적으로 취약한 개도국에서는 **IT 인력 양성이 시급**한 바, 정책결정자, 기술인력, 일반 국민(User) 등을 대상으로 한 IT훈련센터 설치, 공공접근지점 제공과 IT교육 등 다목적의 지역정보센터(Multi-purpose Community Telecenter) 설치를 중점 지원할 예정임.

3. 주요 지원대상국

○ IT협력 주요 대상국은 다른 전통적인 원조분야와 마찬가지로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하되, 특히 e-ASEAN 구축 및 아시아의 Hub로서의 우리나라의 역할 수행노력 등을 고려, ASEAN국가를 중점 지원할 계획임.

- 기타 중남미, 시장경제체제 이행국, 아프리카 등에도 지역특성과 국별 여건에 맞게 IT협력을 추진할 계획임.

IT 3. IT분야 지원실적 및 2001년도 계획은

ㅇ 협력단은 1991년 설립이후 정보통신 관련 협력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음.

- 1991년부터 2000년까지 연수생 462명 초청, 전문가 18명 파견, 봉사단 166명 파견, 물자지원 9,253천불 지원, 프로젝트 13건 16,311천불을 공여함.

ㅇ 2001년도부터 IT분야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원조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IT협력팀을 신설하고 개도국의 정보격차 해소 지원을 중점 협력방향으로 설정한 바 있음.

- 금년도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총 **6,013백만원(5,467천불)을 IT협력에 배분**하였는데 이는 행정비를 제외한 협력단 **전체 사업비 중 11.9%에 해당**하는 것임.

- 주요 사업내역을 보면, 정보기술관리등 IT분야 연수생초청 336명, 전문가 파견 5명, 봉사단 파견 83명, 물자지원 960천불, 프로젝트 6국 6건 등임.

IT 4. 국제사회의 IT협력 동향은

1. 국제기구/지역기구

○ OECD나 UN 경제사회 이사회 등 국제기구들은 정보기술 (IT)을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경제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재원 마련, 국제적 공조를 위해 적극 노력중임.

○ APEC이나 ASEM, ASEAN 등 지역기구에서도 역내 정보격차 문제를 중요한 의제로 다루고 있으며,

- 우리 정부도 개도국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의지를 표명한 바 있음.
  (정보격차 해소지원을 위한 IT센터 설치사업, 동아시아 IT인턴쉽 프로그램, 인터넷봉사단 파견 등)

2. 주요 선진국

○ 대부분의 원조공여국들도 정보기술(IT)을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경제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다양한 IT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중임.

- **미국 USAID는** 정책조언, 지식전파, 인프라 정비 등에 대한 자금 제공, IT를 활용한 새로운 개발을 위한 실험적 융자 등을 중점 추진중이며, 특히 아프리카에 대한 다양한 IT 프로그램을 추진중임.
- **일본 정부는** 2000.7. 오키나와 G8정상회담에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향후 5년 간 총 150억불(ODA 30억불, 기타공적자금 OOF 120억불) 지원계획임을 발표함.
  주요 사업내용은 원격기술교육을 위한 J-NET 정비, 위성센터 설치, 전문가파견, 연수생초청, 인프라개선사업 등임.

IT 5. 부처별 대개도국 IT분야 지원현황은

(이낙연 의원)

1. 외교통상부 (협력단)

○ 협력단은 개도국에 대한 ODA사업 전담기관으로서, 개도국에 대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그동안 IT 분야를 지원해 왔으며,

- 특히 2001년부터는 새로운 개발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개도국의 정보격차 해소지원 확대를 위해 IT분야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중임.(IT분야는 2001년 협력사업비중 11.9% 점유)

-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정보기술관리등 IT분야 연수생초청 336명, 전문가 파견 5명, 봉사단 파견 83명, 물자지원 960천불, 프로젝트 6국 6건 등이 있음.

2. 정보통신부

○ 정보통신부는 국내 정보통신산업 진흥 및 수출촉진의 일환으로 개도국 IT인력 초청연수사업 등을 추진중임.

○ 주요 사업내용은 해외진출전략국가 단기초청연수 180명 외에,

- 기타 전략국가에 대한 장기연수, 학위과정 지원, 전문가 파견, 인터넷 청년봉사단파견(178명 파견)을 추진중임.

3.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인적자원부는 2000. 3. APEC 서울포럼시 대통령 약속사업으로서 APEC 청년 인터넷 봉사단사업을 추진중이며,

- 8월에 1차적으로 태국, 인도네시아 2개국에 44명을 파견한 바 있음.

<참고> 각 부처 IT분야 봉사단 파견사업 비교

○ 인터넷 봉사단파견 사업은 APEC, ASEM, ASEAN 회의 등 지역기구에서 개도국의 정보지식격차해소 지원을 위해 우리 정부가 제안한 사업으로서, **2001년부터 정보통신부 및 교육인적자원부가 각각 추진중**에 있음.

○ 협력단의 경우에는 해외봉사단파견사업 범주안에서 IT분야 봉사단파견을 추진중임. (해외봉사단 파견은 1990년부터 시작)

- 특히 동 사업의 각 부처 추진과 관련, 외교부 및 협력단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외협력사업 추진에 기여하기 위해 **부처간 협의 및 업무 협조 등 공조협력을 위해 노력중**임.

부처별	외교통상부(협력단)	교육인적자원부	정보통신부
사업명	**해외봉사단 파견사업**	**APEC 청년인터넷 봉사단사업**	**인터넷 청년봉사단사업**
추진 배경	우리 정부의 대개도국 주요 개발협력사업의 하나로서 1990년이후 지속 실시	2000. 3, APEC서울 포럼시 대통령 제안	2000.11, ASEAN+3 정상회의시 대통령 제안
사업 계획	IT분야 22개국 45명 파견 계획 (총 해외봉사단파견: 180명) - 파견기간: 2년	APEC국가에 대학생 120명 파견 계획 - 파견기간: 3주간	아시아 등에 대학생 150명 파견 계획 - 파견기간: 10일 - 2개월
예산	4.7억원 (전체 해외봉사단 파견사업비: 78.8억)	2억원 (교육부 신규사업 예산)	8억원 (정보화촉진기금)
추진 현황	- 상반기(6.22) 14명 파견 완료 - 하반기 20명 선발 (11월 파견 예정) ※ 1991-2000 IT분야 파견실적: 166명 (전체 파견인원: 722명)	- 주관기관: 대학사회봉사협의회 (2000.8 선정) - 1차적으로 태국, 인니 2개국에 8.5-19(15일간) 44명 파견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 위탁 시행 - 7-8월 10일-2개월간 21개국 178명 파견

IT 6. 대개도국 정보격차 해소지원사업의 일원화 필요성은

1. 추진현황 및 문제점

○ 선·후진국간 정보격차 해소(bridging the digital divide)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주요 개발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 정보지식강국을 지향하는 우리 정부도 국제무대에서 개도국의 정보 지식 격차 해소에 대한 협력의지를 표명해 오고 있음.

○ 그러나 현재 대개도국 공적개발원조(ODA)를 전담하고 있는 외교부(KOICA) 이외에도 교육부, 정보통신부 등 각 부처에서 관련 예산을 반영, 대개도국 정보격차 해소 지원사업을 분산함에 따라,

- 정부차원의 정책적 고려와 일관성 유지 곤란
- 타 원조분야/사업수단간 연계 부족으로 사업효과 감소
- 분야별 전문성을 전제로 한 분산추진으로 업무효율성 저해와 수원국의 업무 혼선초래가 우려되고 있음.

2. 개선방안(안)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상 ODA 전담기관인 KOICA에 인터넷봉사단을 포함한 개도국 IT협력사업의 예산과 사업을 일원화**하여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다만 향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서는,
  i) 외교부의 ODA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ii) 정부부처간 협의체계 구축 및 협의기능을 강화하며
  iii) 사업추진시 민간부문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KOICA의 사업추진체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홍 보

(홍 보) 1. 국제협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1
(홍 보) 2. 대국민 홍보 추진현황 2
(홍 보) 3. 언론 · 방송매체 홍보실적 및 추진방향 4
(홍 보) 4. 인쇄 · 영상매체 홍보실적 및 추진방향 5
(홍 보) 5. 이벤트, 특별강연을 통한 홍보실적 및 방향 6
(홍 보) 6. 대국민 홍보 활성화 방안 7
(홍 보) 7. 국제협력사업의 해외홍보 활성화 방안 9
(홍 보) 8. 홍보예산 추이 및 확대 필요성 10

홍보 1. 국제협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1. 2000년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ㅇ 2000.11월, 중앙일보사와 공동으로 전국 20세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제협력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일반국민의 국제협력에 대한 이해와 참여 의욕은 높은 편이나, 협력단과 국제협력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각각 30.8%, 55.2%로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ㅇ 응답자의 약 78.8%는 과거 미국 등 선진국의 경제원조가 한국의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에 기여했으며, 개발도상국 원조에 대한 한국의 원조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음.

ㅇ 또한 응답자의 34.4%가 우리나라의 원조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응답자의 59.2%는 한국해외봉사단 및 전문가 파견 사업 등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음.

2. 국민인지도 제고 노력

ㅇ 현재 협력단은 ① 언론매체 홍보 ② 인쇄·영상매체 홍보 ③ 이벤트행사를 통한 홍보 ④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경제인 단체, 청소년 단체 특별강연 ⑤ Cyber(전자) 홍보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국제협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를 제고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음.

ㅇ 앞으로도 국제협력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겠음. 특히, 금년 협력단 창립 10주년을 계기로 국제협력 사진전 개최, 협력단 10년사 및 화보집 발간, 국제협력 세미나 개최, 국제협력 글짓기 공모전 개최 등 대국민 홍보사업을 연중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홍보 2. 대국민 홍보 추진현황 (종합)

o 협력단은 국제협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 확대를 위해 ① 언론매체 홍보 ② 인쇄물 및 영상홍보물 제작·배포 ③ 이벤트행사 개최를 통한 홍보 ④ 방문 및 초청 강연을 통한 홍보 ⑤ Cyber(전자) 홍보 ⑥ 국정홍보처 및 유관기관 연계홍보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활동에 노력하고 있음.

(1) 언론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는,
- 주요 언론관계자와의 간담회 및 연찬회 개최
- 협력사업 현장취재 지원 및 합동취재 추진
- 봉사단 발단식, 국제협력 글짓기 공모전, 사진전 등 주요 행사에 대한 집중적인 계기홍보 추진
- 다양한 협력사업 홍보재료를 발굴하여 언론사에 보도자료 제공

(2) 인쇄물 및 영상홍보물을 통한 대국민 홍보는,
- 간행물 발간
  · 지구촌가족(국문), Global Village(영문) 발간
  · 홍보용 수첩 및 달력 제작
  · 연도별 사업실적 통계집 및 연보 발간
  · 연수생초청사업 관련 News letter 발간 등
- 협력사업관련 책자 발간
  · 국제협력사업 효과 사례집 발간
  · 사업별 안내서 발간
  · OECD 등 선진국 국제협력 동향보고서 발간
  · 협력단 소개 국·영문 브로셔 및 리플렛 발간 등
- 영상홍보물 제작
  · KOICA 종합소개 Video, 국제협력연수센터 소개 Video, 해외봉사단 활동 소개 Video 등

(3) 이벤트행사를 통한 대국민 홍보는,

- 국제협력 사진전 및 국제협력 글짓기 공모전 개최
- NGO 사진전 공동 개최
- 신규파견 해외봉사단원 대통령 접견
- 해외봉사단원 발단식 및 해단식 개최
- 국제협력 세미나 개최 등

(4) 방문 및 초청강연을 통한 대국민 홍보는,

- 방문강연
  ① 총재 특별강연
  · 경희대 NGO대학원 및 인류사회재건연구원, 한양대 아태지역학대학원, 숙명여대 국제관계대학원, 부산외대 국제경영지역대학원, 부경대 인문사회 및 수산과학부, 광주·전남경영자협회 등을 방문하여 총재 특강
  ② 초·중등학교 순회방문 강연
  · 2000년도에 11개교 2,3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특별강연
- 초청강연
  · 외부인사 초청 월례발표회, NGO 대표자 등 초청강연회
  · 외교통상부 인턴십 대학원생 초청강연 등

(5) 전자매체(Cyber)홍보는,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협력사업정보 제공
- 외교부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 및 검색엔진에 링크하여 정보 제공기능 확대

(6) 유관기관 연계홍보는,

- 국정홍보처 대외홍보협의회를 통해 홍보방안 공동 모색
- 외교부 공보관실과 긴밀한 협조하에 홍보방향 조정
- NGOs 및 해외원조단체협의회를 통해 홍보
- KOTRA, 수출입은행 등 업무협조 기관을 통한 연계홍보

홍보 3. 언론(신문 · 방송)매체 홍보 실적 및 추진방향

○ 협력단은 국제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홍보를 전개하기 위해 국민의 여론을 주도하는 언론(신문 · 방송) 매체 홍보를 중점 추진하고 있음.

○ 이를 위해 ① 다양한 협력사업 홍보소재 발굴, 언론사에 지속적인 보도 자료 제공 ② 협력사업 현장취재 지원 및 합동취재 추진 ③ 봉사단 발단식 등 주요행사 보도 등을 실시함.

- 특히 언론보도 추진시, 인물 · 동정 중심의 소극적인 홍보에서 탈피, 국제협력사업을 심층적으로 조명하여 국민을 이해시킬 수 있는 언론사 현지취재 지원 및 기획특집 보도에 역점을 둠.

<참고 : 2001년도 언론매체 보도실적 : 7.31 현재>

계	방송매체	신문매체	잡지매체
244회	37회	186회	21회

○ 또한 언론관계자 자신들의 국제협력사업에 대한 이해 제고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해 ① 초청 간담회 및 연찬회 개최 ② 협력단 자문위원에 언론계인사 위촉 등을 통해 국제협력사업 설명 및 언론계의 의견청취 기회를 확대하고 있음.

○ 앞으로도 언론매체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21세기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생존전략은 국제협력사업임을 적극 홍보하고 국민적 이해와 지지기반 확보에 주력할 예정임.

- 이를 위해 국제협력사업의 성과와 국익 창출, 협력사업현장의 감동 등에 관한 홍보소재를 지속적으로 발굴, 언론에서 보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홍보 4. 인쇄·영상매체 홍보 실적 및 추진방향

○ 협력단은 일반 국민들이 일상적인 생활에서 국제협력사업을 접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쇄물 및 영상홍보물을 통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음. 또한 21세기 국제협력 주체양성을 위해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국제협력사업 내용을 수록하고, 매년 "국제협력 글짓기 공모전"을 개최함과 동시에 『국제협력 글짓기 모음집』을 발간하여 각급 학교 및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있음.

○ 이를 위해 ① 간행물 발간 ② 협력사업관련 책자 및 연구자료 발간 ③ 홍보 Video 등을 국문과 영문으로 제작하고 있음.

- 국문 홍보물은 국회, 정부기관, 언론사, 교육기관, 공공도서관, 시·도청 민원실, 연구사회단체, 금융기관 등에 배포하는 한편, 주요 개도국 주재 공관 및 동포사회, 현지파견인력 등에도 배포
- 영문 홍보물은 주한 개도국 공관, 개도국 정부부처 및 수원기관, 국제기구 및 선진원조기관, 초청연수생, 현지 파견인력 등에 배포

○ 앞으로는 인쇄홍보물의 내용을 더욱 알차고 짜임새 있게 구성하여 가독성을 향상시킴은 물론 발간부수를 확대할 예정임. 또한 배포된 홍보물에 대한 독자층의 평가를 Follow-up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질적 수준 제고에 노력하겠음.

○ 특히, 협력단 창립 10주년 기념 국제협력 사진전을 계기로 Photo Bank화한 협력사업 사진 및 영상자료를 대국민 홍보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종합홍보 Video를 제작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및 협력단소개 동영상 C.D 제작 등 Cyber(전자)홍보 자료에도 활용하겠음.

홍보 5. 이벤트행사, 특별강연을 통한 홍보실적 및 방향

○ 협력단은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이벤트행사 개최 및 국제협력에 관한 특별강연을 실시하여 국제협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확산 및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음.

○ 그동안 개최한 이벤트행사 홍보로 ① 국제협력 글짓기 공모전 개최 ② 국제협력 사진전 및 NGO사진전 개최 ③ 해외봉사단원 대통령 접견행사 ④ 해외봉사단원 발단식 및 해단식 개최 등을 실시하여 왔음.

○ 또한 특별강연을 통해 국민들에게 국제협력사업과 협력단을 홍보하고 있음.

① 방문강연

- 경희대 NGO대학원 및 인류사회재건연구원, 한양대 아태지역학대학원, 숙명여대 국제관계대학원, 부산외대 국제경영지역대학원, 부경대 인문사회 및 수산과학부, 광주·전남경영자협회 등에서 총재특별강연 실시
- 2000년도에 11개 초·중등학교를 순회방문하여 2,3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국제협력사업 특별강연

② 초청강연으로는 외부인사 초청 월례 발표회, NGO 대표자 초청 강연회, 외교부 인턴십 대학원생 초청강연 등을 추진

○ 앞으로도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이벤트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특히 금년 협력단 창립 10주년을 맞아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 국제협력 사진전에 이어 부산, 광주, 대구, 대전에서의 지방순회 사진전 등 대국민 이벤트 홍보행사를 연중 추진하고 있음. 또한 국제협력사업 주체 양성·확보를 위한 순회강연을 고등학교로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임.

홍보 6. 대국민 홍보 활성화 방안 (종합)

1. 언론(신문 · 방송)매체 홍보 강화

① 국제협력사업 특집방송 및 기획보도 강화
- 방송매체를 통해 국제협력사업 특집방송 추진
- 신문매체의 현지취재 지원을 통해 협력사업 기획보도

② 자문위원중 언론계 인사의 의견 청취 기회 대폭 확대

③ 외교부 출입기자단 등 주요 언론관계자와의 연찬회, 사업설명 간담회 정례화

2. 국민 참여형 홍보 추진

① 국제협력 사진전 개최 및 국제협력 화보집 발간

② 교육기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주요기관 방문 특별강연

③ 협력사업관련 주요인사 초청 강연회 개최

④ 봉사단원, 의료단원, 전문가 등 파견인력 모집 선발시 계기홍보
: 각 대학 순회 방문 모집 설명회 개최 등

⑤ 대국회 홍보강화
: 의원보좌관, 입법조사관 등 초청연찬회 개최

3. 21세기 주체 양성을 위한 홍보 노력

① 국제협력 글짓기 공모전, 논문 공모전,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국민의 참여 확대

② 국제협력에 관한 초 · 중 · 고등학교 순회방문 강연

③ 대학생 및 대학원생 인턴십 및 위탁근무 기회 확대

④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사연수프로그램에 강의과정 개설 추진 등

4. 인쇄물 · 영상홍보물 배포 및 전자홍보 확대

① 각 교육기관 도서관, 지역 마을 도서관등에 KOICA 인쇄홍보물 배포를 확대해 폭넓고 다양한 계층에 협력사업 홍보

② 협력사업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국민홍보용 영상물을 제작, 공공교육기관에 시청각 교재로 배포

③ 주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KOICA 홈페이지 링크 확대

홍보 7. 국제협력사업의 해외홍보 활성화 방안

1. 해외홍보 추진현황

ㅇ 개도국 현장에서 추진되는 각종 협력사업의 현지 언론 보도

ㅇ 해외봉사단원, 의료단원, 전문가 등 파견인력을 통한 수원국 정부 및 국민 홍보

ㅇ 동창회(인도네시아, 네팔 등 9개국) 결성지원 및 동창회 명부작성 등 초청연수생의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홍보 Group 확보 및 운영 활성화

ㅇ 개도국 초청연수생, 주한공관 및 개도국 방문인사를 대상으로 홍보

ㅇ 기자재 공여물품에 한국 기증 문구 부착 등

2. 향후 추진방향

ㅇ 협력단의 해외사무소 및 재외공관을 통한 협력사업의 현지 언론 및 방송홍보 강화

ㅇ 파견인력을 통한 grass-roots 홍보 강화

ㅇ 주한 개도국 공관 및 수원국 주요인사와의 유대강화를 통해 KOICA 홍보 창구화 도모

ㅇ 국정홍보처, 관광공사, KOTRA등 유관기관의 해외홍보망과 연계 홍보 확대

홍보 8. 홍보예산 추이 및 확대 필요성

1. 홍보예산 추이(1999~2002)

ㅇ 홍보예산은 확보액 기준으로 매년 소폭 증액은 되었으나 협력단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0.3%에 불과하여 충분하게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임.

ㅇ 이에 따라 협력단에서는 부족한 홍보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행정비성 사업비를 절약 집행하여 홍보예산으로 전용 조치, 집행하고 있음.

- 금년에도 창립 10주년을 맞아 국제협력 사진전 개최, 지하철 이미지 광고 등 다양한 대국민 계기홍보를 위해 99백만원을 전용 조치하여 집행중임.

ㅇ 다행스럽게도 2002년도 홍보예산은 금년 대비 27.2% 증액된 215백만원으로 예산당국의 심의를 통과한 상태임.

< 홍보예산 추이 >

(단위 : 백만원)

구 분	1999	2000	2001	2002(잠정)
확보예산 (증가율)	139 (-)	139 (0%)	169 (21.6%)	215 (27.2%)
결 산 (증가율)	204 (-)	215 (5.4%)	268 (24.7%)	-

2. 예산 확대의 필요성

○ 지난해 11월에 실시한 "국제협력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협력단과 국제협력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각각 30.8%, 55.2%로 아직까지도 미흡한 수준임.

○ 그러나 금년 창립 10주년을 계기로 집중 실시한 언론매체 홍보, 이벤트행사 홍보 등 다양한 대국민 홍보를 통해 협력단 및 국제협력사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지도는 다소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대개도국 국제협력사업이 그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 일방적인 원조가 아니라 우리 나라의 21세기 생존전략이자 "미래지향적 장기투자"이란 점을 일반 국민들이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이며 적극적인 홍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함.

신청사 1. 협력단 신청사 건립추진 현황 및 계획

1. 현 황

○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점증하고 있는 개도국과의 국제협력사업을 능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본부의 적정 사무공간 및 외국인 연수훈련센터, 봉사단원 등 해외파견인력 훈련시설 등을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신청사를 건립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수행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한편 현재의 협력단 청사는 지난 '68년 및 '78년에 각각 준공된 건물로서 노후화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그동안 개·보수를 계속 실시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사무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측면 등을 고려하여 현재 신청사 건립을 위한 최초 사업추진 예산(설계비 등)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 중에 있으며, 참고로 신청사 건립에 따른 재원은 기존의 협력단 보유건물을 매각한 자금으로 추진할 예정임.

2. 향후 추진계획

○ 외교부 소유 구 일해재단(성남시 수정구 시흥동)의 국유지 188,314평의 국유재산을 중 약 30,000평에 총 건축면적 8,000평을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할 예정.

- 본부동 4,000평(최초3,000평), 강의동 900평, 연수동 3,100평

○ 신축재원은 부동산(본부, 연수센터) 매각대금 추정가액 400억원을 활용하여 신청사를 건립할 예정임.

○ 금번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부칙 제6조에 의거 국제협력기관의 공공청사는 2003. 12. 31까지 수도권내에 신·증축이 한시적으로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Ⅱ. 주요 예상질의 답변자료

제225회 국정감사
의원 예상질의 답변자료

2001. 9

한 국 국 제 협 력 단
행 정 법 규 팀

1. 인력사업

< 연 수 >

(연 수) 1. 연수생초청사업의 의의와 중요성 1
(연 수) 2. 연수생초청사업 장기발전 청사진..... 3
(연 수) 3. 협력대상국 및 국가별 연수배정 5
(연 수) 4. 연수사업 사후관리 현황 및 강화방안..... 6
(연 수) 5. 연수사업 효과사례 8

<전문인력>

(전문가) 1. 전문가파견에 대한 수원국 반응 및 평가 11
(의료단) 2. 의료단원파견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2
(태권도) 3. 2000년 시드니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에 따른 향후
사업추진 방향 13
(종 합) 4. 전문인력파견사업의 중장기 발전방안 14

< 봉 사 >

(봉 사) 1. 봉사단원의 안전사고 발생 현황 16
(봉 사) 2. 봉사단원의 중도 귀국자 현황과 원인 18
(봉 사) 3. 귀국 봉사단원지원 및 「나섬회」 현황 20
(봉 사) 4. 최근 해외봉사단원 귀국후 취업현황 21
(봉 사) 5. 해외봉사단원의 한국어분야 파견현황 23
(봉 사) 6. 국제협력요원 파견실적 25
(봉 사) 7. 국제협력요원 파견 성과 27
(봉 사) 8.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와 부활 32
(봉 사) 9. 귀국 봉사단원 지역전문가로 활용방안 33

2. 개발조사 1부

<개발조사>

(개발조사) 1. 개발조사사업의 결과로 우리기업 성공 진출사례..... 35
(개발조사) 2. 개발조사사업 평가현황 및 사후평가 강화방안 37
(개발조사) 3. 후속사업 연계강화 방안 39
(개발조사) 4. 개발조사사업 확대방안 41
(개발조사) 5. EDCF와의 연계가 부진한 사유 및 연계강화 방안 ... 42
(개발조사) 6. 후속사업과의 연계가 부진한 사유 및 연계강화 방안 44

<물자공여>

(물 자) 1. 물자지원 현지조달 현황 46
(물 자) 2. 미배정액 책정근거 및 현황 47
(물 자) 3. 현금지원 실적 48
(물 자) 4. 지원물품 활용실태 점검 및 사후관리 현황 49

< 조 달 >

(조 달) 1. 조달물품 입찰 방법 및 세부물자 지원 내역 51
(조 달) 2. 수의계약 현황 및 공개 경쟁 확보 방안 53
(조 달) 3. 공여물품 클레임 현황 및 방지 대책 55
(조 달) 4. 조달물품 선정 기준 및 일간지 공고 건수 56
(조 달) 5. 조달협력업체 현황 및 우수업체 발굴 방안 58

3. 개발조사 2부

<프로젝트>

(프 로) 1. '93년이후 대통령 외국순방시 약속사업 현황 및 정상 추진여부 60
(프 로) 2. 사업추진 중단 및 지연사업에 대한 대책 63
(프 로) 3. 프로젝트 사업 사후관리 실태 및 대책 65
(프 로) 4. 중국 황사문제 및 황해오염 해소를 위한 프로젝트 사례 66
(프 로) 5. 한.중 직훈 협력사업 현황 67
(프 로) 6. 한.베 산업기술학교 지원현황 68

<민간협력>

(민간협력) 1. NGO 개념 및 지원필요성 70
(민간협력) 2. NGO 사업의 기대효과 71
(민간협력) 3. NGO 지원보조금 및 사업현장 관리체계 72

4. 총 무

<인사교육>

(인 사) 1. 경영혁신 내용 73
(인 사) 2. 효율적 사업수행을 위한 적정인력 확보방안 75
(인 사) 3. 하위 직급의 높은 이직율에 대한 대책 78

<회계서무>

(회 계) 1. 제일은행 협력단지점에 자금이 예치된 사유는 80
(서 무) 2. 시설공사 및 물품구매 수의계약 현황 82

< 정 보 >

(정 보) 1. 협력단 정보화 현황은 83
(정 보) 2. 협력단 정보화 수준은 85
(정 보) 3.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대국민 정보서비스 제공 현황은 86

5. 기획총괄

< 기 획 >

(기획조정) 1. 우리나라의 ODA규모 87
(기획조정) 2. 협력단이 북한 지원이 가능한 지에 대한 협력단의 입장 88
(기획조정) 3. 협력효과 제고 및 지역별 협력전략 89
(기획조정) 4. 협력사업의 국별 배분기준 90
(기획조정) 5. 사업선정 절차 및 기준 91
(기획조정) 6. OECD/DAC 가입 필요 여부 92
(기획조정) 7. 재외동포재단과의 업무 중복성 여부 94
(기획조정) 8. 국제교류재단과의 업무 중복성 여부 96
(기획조정) 9. 2002년도 예산요구 및 반영 현황 98
(기획조정) 10. 협력사업비 증액 필요성 99
(기획조정) 11. 개도국 협력사업의 협력단 전담추진 필요성 102
(기획조정) 12. 대통령 약속사업 비중과 예산확보 등 추진상 문제점 105

<행정법규>

(행정법규) 1. 남미농장 현황 107
(행정법규) 2. 아르헨티나 야따마우까농장 처리대책 108
(행정법규) 3. 해외직원파견 현황 111
(행정법규) 4. 협력단과 대만대표부와의 업무관계 113

<사업평가>

(사업평가) 1. 협력사업에 대한 평가현황 115
(사업평가) 2. 완료사업 평가결과 118
(사업평가) 3. 협력사업의 효과 120

<협력정책>

(협력정책) 1. 국제협력사업 연구기능 활성화 방안 127
(협력정책) 2. 국제기구 및 선진 원조기관과의 공동협력 방안 128
(협력정책) 3. 비교우위에 있는 한국형 국제협력사업 추진방안 129
(협력정책) 4. 국제협력의 새로운 방향과 주요 이슈 131

<IT 추진>

(IT) 1. IT추진반 설치 배경과 운영현황은 132
(IT) 2. 협력단의 IT협력 기본방향과 주요 내용은 135
(IT) 3. IT분야 지원실적 및 2001년도 계획은 138
(IT) 4. 국제사회의 IT협력 동향은 139
(IT) 5. 부처별 대개도국 IT분야 지원현황은 142
(IT) 6. 대개도국 정보격차 해소지원사업의 일원화 필요성은 145

6. 홍 보

(홍 보) 1. 국제협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146
(홍 보) 2. 대국민 홍보 활성화 방안 148
(홍 보) 3. 국제협력사업의 해외홍보 활성화 방안 150

7. 신청사 건립

(신청사) 1. 협력단 신청사 건립추진 현황 및 계획 151

연수 1. 연수생초청사업의 의의와 중요성

1. 연수생초청사업의 의의

ㅇ 개발도상국의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견인력을 초청하여 우리의 개발경험과 전문기술 및 지식을 전수하는 협력사업임.

ㅇ 연수생초청사업은 개도국이 경제사회발전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인적자원개발(HRD)을 지원하고 제도를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국제개발협력의 가장 핵심적인 수단임.

ㅇ 최근 급속한 정보화 추세 속에서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에 따라 연수생초청사업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

-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정보 및 지식격차가 빈곤격차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바, 개도국의 정보화 및 지식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연수생초청사업을 통한 인적자원개발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음.

2. 연수생초청사업의 중요성

ㅇ 연수과정에 참가한 연수생은 해당분야의 기술과 지식의 전수를 통해 자국의 경제사회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크게 확충함은 물론 우리와의 경제교류증진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귀국 연수생들은 한국의 개발경험과 기술을 본국에 전파하고 이식하는 전도사의 역할을 담당

- 이들은 각자가 종사하는 분야에서 한국을 모델로 한 제도를 구축하고 한국의 기술을 도입함.

- 특히, 해당분야의 고위직 연수생이 참여할 경우 연수를 통해 습득한 기술과 경험을 활용하여 정책.제도개선 등을 통해 경제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

○ 또한, 연수생초청사업은 친한인사의 저변확대 및 외교관계 증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연수생초청사업을 통한 개도국 주요인사들과의 다양한 인적교류는 한국의 발전상과 한국의 문화를 널리 알리는데 기여하고 있음.

- 특히, 파트너쉽과정 연수는 개도국의 고위인사가 참여함으로써 일반 협력관계는 물론 외교관계 증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

연수 2. 연수생초청사업 장기발전 청사진

1. 핵심적인 국제협력사업으로 발전

ㅇ 연수생초청사업은 우리의 개발경험 전수를 통해 인적자원개발과 지식기반의 확충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개발협력 수단이라 할 수 있음.

ㅇ 다양한 인적접촉과 교류를 통한 동반협력관계(Partnership)를 강화하고 개도국내 영향력 있는 행정관료, 기술인력 등을 대상으로 친한인맥을 구축하여 친한인사의 저변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도 연수생초청사업은 그 의미가 매우 큼.

ㅇ 따라서, 장기적으로 연수생초청사업을 무상기술협력사업중의 가장 핵심적인 협력사업의 하나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임.

- '01년도 협력사업 예산중 연수생초청사업비 17.8% 점유 (50,546백만원중 8,977백만원)

2. 연수생초청사업 발전 방향

ㅇ 현재 연간 2,300명 수준의 연수생초청 규모를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임.

- '95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사회개발정상회담에서 2010년까지 30,000명의 연수생을 초청하겠다는 대외약속사업의 성실 수행

- '01년 2,300명 규모를 '02년 2,400명, '03년 2,500명 등 매년 전년대비 100명씩 확대, '10년까지 50,000여명 초청 예정

- 우리와의 협력증진 가능성이 높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아주 및 오세아니아 지역과의 협력 강화

<연도별 초청규모(안)>

구분	95-'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인원(명)	7,786	2,300	2,400	2,500	2,600	2,700	2,800	2,900	3,000	3,100	3,200
누계(명)	7,786	10,086	12,486	14,986	17,586	20,286	23,086	25,986	28,986	32,086	35,586

○ 우리의 경제개발 경험, 가족계획 등 비교우위의 연수과정을 적극 개발하는 한편 국제협력 경험이 다양한 적정 연수기관을 발굴하여 연수사업 효과를 거양함.

- 파트너쉽과정 등 특별연수과정의 경우 자체연수 방식으로 추진

○ 연수사업의 효율화 및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연수과정 담당자(Program Officer)의 분야별 배정, 연수과정 전문가 제도 확대 및 모니터링 및 평가기능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함.

○ 연수생초청 규모의 점진적인 확대 대비 및 연수생 체류기간중 더욱 쾌적한 연수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협력연수센터의 제반 시설을 더욱 개선·확충함.

- 성남 국제교류단지내 연수생 숙박 및 봉사단 국내훈련을 위한 220실 규모의 연수센터 건립 계획

○ 연수사업의 파급효과를 제고하고 연수참가 연수생과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기 수립한 사후관리 종합방안에 따른 연수생 사후관리를 강화함.

연수 3. 협력대상국 및 국가별 연수배정

1. 협력대상국 선정

○ 2001년도 연수생초청 대상국은 168개국의 개발도상국가 및 공적 자금지원대상 국가중 협력관계가 극히 미미하거나, 정정의 불안 등으로 사업시행이 곤란한 나라를 제외한 110개 국가임.

○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우리의 경제개발 경험공유, 해당분야의 기술 습득, 다양한 인적교류 및 우리와의 우호협력관계 구축 등을 위해 연수생초청사업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음.

○ 따라서, 그 지원의 혜택이 중소규모 국가를 포함하는 많은 국가에 폭넓게 돌아갈 수 있도록 협력대상국을 선정하고 있음.

2. 국가별 연수배정

○ 각각의 협력대상 국가에 대한 연수과정 및 초청인원의 배정은 수원국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사업수요와 해당국가와의 교류협력 관계, 향후의 협력증진 가능성, 양국간의 각종 협의채널을 통하여 약속 또는 합의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수 참여과정 및 참가인원을 배정하게 됨.

- 특히, 국가별 연수참여과정 및 인원 배정검토에 있어서는 재외공관을 통한 수원국 정부의 수요조사 제출내용과 공관의 의견 등을 가급적 충분히 감안하고 있음.

- 매년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요요청은 많으나 예산사정 등 제반 여건상 실제 인원배정은 적은 편임('01년 수요요청은 3,409명이나 사업계획은 2,300명으로 수요 대비 67.5%만 배정됨).

○ 각국별로 매년 연수에 참여하는 인원은 50여개 과정에 100명이 넘게 참가하는 국가로부터 1-2개 과정에 2-3명이 참여하는 국가까지 매우 다양함.

< 2001년도 연수생초청사업 수원 상위 10개국 >

* 인도네시아(190명), 베트남(155명), 필리핀(135명), 태국(81명), 캄보디아(77명), 중국(74명), 미얀마(62명), 우즈벡(60명), 러시아(53명), 라오스(50명)

연수 4. 연수사업 사후관리 현황 및 강화방안

ㅇ 연수사업 실시후 지속적인 관계유지를 통해 사업효과를 제고하고 연수생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후관리가 매우 긴요함.

ㅇ 사후관리의 실시는 연수 주관기관인 협력단은 물론 연수실시기관, 현지공관 등 3위일체가 되어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있음.

- 협력단 : 연수생 사후관리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
  . 연수생관리 D/B 프로그램(Smart 2000)개발, 인적사항 입력
  . 행정발전계획 등 사후관리 Workshop과정 개설
  . 협력단 홈페이지에 연수생 의견 수렴을 위한 연수생 전용 게시판 "Forum for Participants" 개설 운용
  . Alumni Directory 제작, 배포('63-'97)
  . Global Village, 연수생회지(Newsletter) 송부
  . E-Mail 또는 서신을 통한 연수생 문의사항 회신 등

- 연수실시기관 : 연수실시 전문기관으로써 정보 및 자료 제공을 통한 사후관리 실시
  . 해당분야의 최신, 신규 정보 및 자료제공
  . 지역별, 국별 소규모 모임 주선 및 지원
  . E-Mail을 통한 연수생과의 서신연락

- 해외공관 : 연수생 사후관리 업무를 현지에서 실질적으로 수행
  . 국경일, 유대증진 행사 등 각종행사에 초청
  . 동창회 결성 및 현지모임 개최 지원
  . 현지진출 아국기업과 연계 및 협조 요청
  . 공관 명의의 연하장 발송
  . 봉사단 등 현지 파견인력 활동 연계 협조

ㅇ 현재의 사후관리 기본체계를 바탕으로 생명력 있고 지속성 있는 사후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 연수생 각종 자료의 전산화, 연수 사후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사후관리 주체간의 협조채널구축 등 사후관리 환경을 조성하고

- 기 실시한 연수과정에 대한 재교육을 위한 사후관리 연수과정을 확대 실시하는 한편

- 국별 특성에 맞는 연수생 동창회 결성 또는 연수생 간담회, 연수실시기관별 소모임 유도, 귀국 연수생과 현지 교민과의 연계방안 강구 등 연수생 각종 모임을 활성화시켜 나갈 예정임.

<참고> 연수생 사후관리 현황

ㅇ 귀국 연수생 동창회 결성. 운영 : 9개국
- 인도네시아('94), 네팔('97), 스리랑카('99), 폴란드('00), 이디오피아('01), 이집트('01), 태국('01), 파라과이('01), 필리핀('01)

ㅇ 공관주최 유대증진행사 실시
-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이디오피아, 중국, 파라과이, 파키스탄, 페루 등

ㅇ 연수생 인적사항 관리
- 연수생관리 D/B 프로그램 개발(smart 2000)

ㅇ 동창회지 및 홍보지 정기송부
- Alumni Directory 제작, 배포('63-'97)
- Global Village, 연수생회지(ICTC Newsletter)

ㅇ 사후관리 웍샵과정 개설
- 행정발전과정 사후관리 웍샵('99년)
- 잠업기술사후관리, 어로기술사후관리('00년)
- 광물자원탐사 및 개발 사후관리, 작물생산기술 사후관리('01년)

ㅇ 연수생 대표 초청 워크샵 실시
- 연수생 동창회 결성 8개국 등 연수생 대표 초청 워크샵 실시 ('01년)

ㅇ Newsletter 3호 제작 및 배포
- '91년 이후 모든 연수생에게 송부('01.6)

연수 5. 연수사업 효과사례

ㅇ 연수생초청사업은 연수과정에 참여한 인사의 개인적인 정책수립 능력 및 기술능력의 향상을 통해 개도국 공공부문의 인적자원 개발에 크게 기여한다는 직접적 효과 이외에도

- 한국인의 불굴의 개발노력과 근로정신을 본받아 자국의 국가 발전에 대한 영감을 불어넣고 강력한 개발 동기를 부여하는 한편,

- 한국을 개발모델로 한 국가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우리나라의 개발성과를 국제적으로 드높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음.

- 또한, 우리나라에서의 체류기간 동안에 구축한 문화적, 인적 이해기반을 토대로 친한적인 성향을 견지하면서 우리와의 우호 협력관계 증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등 계량화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도 매우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연수사업 효과사례

(1) 한국의 개발경험 체계적인 전수, 자국의 정책개발에 적극 활용

ㅇ '98년 방한한 바 있는 이디오피아의 멜레스(Meles) 수상은 수상실의 중견 직원을 한국경제장기정책과정에 연수시킨 후 자국의 경제개발전략 및 정책수립에 적극 활용하고 있음.

ㅇ '98년 몽골의 경제관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경제정책과정에 참가후 귀국하자마자 울란바토르 시장에서 총리에 임명된 **나란차츠랄트(NARANTSATSRALT)**는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을 몽골의 경제발전 정책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수차례 언급함.

(2) 현지진출 우리기업 활동 지원

ㅇ 2000. 6월 국가표준제도과정에 참가한 스리랑카 Mr. Fernando는 우리기업인 "신광랑카(전기용품 제조업체)"가 대미 수출에 필요한 품질 및 안전인증제(UL마크)를 획득하는데 도움을 주어 대미 수출선 확보에 기여함.

(3) 새마을과정 연수확대 요청

ㅇ '99년 새마을연수특별과정 연수에 참여한 베트남 공산당 경제 상임위원장은 한국의 새마을운동 경험을 매우 높이 평가, 베트남 정부 주요인사를 대상으로 한 국별연수 실시 요청

ㅇ 2000년 11월 베트남 새마을운동 국별연수 실시

(4) 연수참가자, 한국의 개발모델을 자국에 적극 활용할 것을 주창

ㅇ 2000.3. 서남아시아 파트너쉽과정에 참가한 Mr. Munirul Huq, 각종 언론지에의 기고 활용을 통해 한국을 방글라데시의 개발 모델를 삼을 것을 주장

- The New Nation 및 Economic Times지에 "Korea can be a Model for Bangladesh" 기사 기고

- 2000.3. 서남아시아 파트너쉽 과정에 참가한 Mr. Pandyal 등 네팔 연수생 3명은 영자지 기고를 통해 한국의 개발경험을 적극 활용할 것을 주장

- The Rising Nepal지에 "Great Potential Nepal-ROK Ties" 등 기고

(5) 연수참가를 통한 친한인사의 저변확대

ㅇ 시에라리온 피랍어선 선원 석방에 도움 (99.3)

- '99년 시에라리온 당국에 불법어로 혐의로 체포된 우리 선원

21명의 석방은 국산기자재공여, 연수생초청 등 협력사업 지원을 통한 우호적 분위기 조성에 기인된 것으로 평가됨.
(주 나이지리아 대사관 보고)

전문가 1. 전문가파견에 대한 수원국 반응 및 평가

□ 개도국들은 우리 전문가들의 활동이 자국의 관련분야의 기술향상과 전문인력양성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는 감사 표명과 함께 재파견 또는 후속 전문가의 파견을 계속 요청하고 있음.

개도국정부의 고위관료들은 우리 전문가들을 통하여 우리의 경제개발경험을 현지에서 직접 전수받고 상호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자국의 경제개발계획수립 등에 실질적인 자문이 되므로 기술격차가 심한 선진국 전문가들보다는 우리 전문가의 자문활동을 선호하고 있음.

(성공사례)

① '96년 휘지에 2개월간 '경제분야' 전문가로 파견된 한국외국어대학 김승진 교수는 휘지수상의 직접 요청에 따라 수상실에서 경제자문을 수행한 후 동 자문수행 결과를 정리, 공업화와 의식 개혁을 통한 경제개발 방안을 제시한 "휘지 근대화를 위한 개발 전략"을 수상에게 보고하여 높은 평가를 받음과 함께 재파견을 요청 받은 바 있음.

② '97~'98년 볼리비아에 1년간 '농업자원보존분야' 전문가로 파견된 농촌진흥청 안완식 연구관의 경우, 수원국의 "농업 생물유전자원 체계"를 수립하여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사의표명과 함께 감사장을 받음.

③ '98~'99년 3개월간 미얀마의 양곤기술대학교에 '효소기술분야' 전문가로 파견된 서울 산업대학교 장판식 교수의 경우, 대학원생 및 박사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실한 강의와 논문지도 및 실험실습을 수행하여 동대학 총장으로부터 호평과 함께 재파견을 요청 받은 바 있음.

의료단 2. 의료단원파견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현 황

ㅇ 91년부터 2001년 7월까지 총 파견인원은 25개국 209명이며

ㅇ 현재 활동인원은 14개국 16명임.

2. 문제점

ㅇ 우수, 적격 인적자원 확보곤란으로 파견자가 감소추세

- 국내의료진들의 생활여건 향상과 현지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개도국 파견 지원자 감소

ㅇ 현지활동에 대한 지원 미흡

3. 개선방향

ㅇ 파견지역 다변화와 국제협력의사 파견으로 우수인력 확보

- 의료단의 파견지역을 환경이 열악한 아프리카지역 위주에서 탈피하여 아시아, 중남미 등의 개도국으로 다변화

- 1995.3월 부터는 병역대체인력인 국제협력의사로 대체하여 파견하고 있음.

ㅇ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하여 파견하여 파견효과를 제고

※ ①페루 : 제1,2한.페 의료센타 ②방글라데시 : 한·방 우정병원 ③우즈베키스탄 : 한-우즈벡 친선한방병원 ④카자흐스탄 : 한-카자흐 친선병원

ㅇ 현지활동 지원강화 및 점진적 처우개선

- 의료단원들의 현지생활비 인상, 국산 의약품 및 의료장비 지원 확대(현재는 의사 1인당 연간 $6,000) 등

태권도 3. 2000년 시드니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에 따른 향후 사업 추진방향

1. 현 황

ㅇ 협력단이 설립된 '91년이래 2000년까지 총 27개국에 161명을 파견한바 있으며, 2001년 7월 현재 14개국에서 14명이 활동중에 있음.

2. 태권도사범 파견은 ODA사업에 포함

ㅇ 태권도사범파견사업은 개도국의 경제사회발전 도모라는 ODA사업의 고유목적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논란이 제기된 적이 있었음.

ㅇ 그러나 태권도사범 파견은 개도국 국민의 건강증진(보건)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ODA통계중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Culture and Recreation)'분야로 분류되어 ODA실적에 포함되고 있음.

3. 향후 추진방향

ㅇ 태권도가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고,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부터는 영구종목으로 채택됨에 따라 수원국 정부 및 국민들 사이에 태권도에 대한 관심이 대폭 고조되어, 태권도사범 파견을 희망하는 국가도 증가하고 있음. 우리나라 국기인 태권도의 세계화 측면에서 태권도사범 파견을 계속 확대 추진할 계획임.

ㅇ 아울러, 태권도를 통해 한국의 고유문화를 전파하고, 개도국 지도계층의 친한인사 저변확대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효과적임 .

종합 4. 전문인력파견사업의 중장기 발전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 전문인력파견사업은 우리의 전문인력(전문가, 의료단원, 태권도사범)을 근무 및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한 개도국에 파견하는 사업의 성격상, 국내의 안정된 생활을 수개월 또는 수년간 중단한 채 개도국에 기꺼이 나가겠다고 나서는 인력이 많지 않아 적격자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

○ 특히 이러한 현상은 국내생활이 안정된 의료단원 파견의 경우 더욱 두드러지며, 전문가 파견의 경우 1년 또는 수개월동안 국내 활동을 중단하고 해외에 파견될 수 있는 어학과 기술능력을 갖춘 적격 전문가를 선발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태권도사범 파견의 경우 보수수준이 다소 낮아 우수 사범의 확보가 쉽지 않은 실정임.

2. 대책

○ 협력단은 이러한 전문인력 확보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금년부터는 연초에 당해연도 전문인력 파견계획(파견분야, 파견국가 등)을 일간신문, 협력단 홈페이지 등에 광고 하여 일반국민들에게 전문인력파견사업을 널리 홍보하고 유관기관·단체에도 사전 통보함으로써 많은 우수한 전문인력들이 사전에 파견희망을 신청토록 하는 방안을 실시하고 있음.

3. 발전방안

ㅇ 전문가 파견의 경우 우리의 경제개발 및 IMF 경제위기 극복경험을 전수하기에 중요한 사업임을 감안, 전문가 등록자원의 양적 및 질적 확대노력을 강화하여 (현재 등록인원 265명) 연간 파견인원을 현행 40여명 수준에서 2~3년내 60여명 파견으로 증원해 나갈 예정임.

ㅇ 의료단원 파견의 경우 파견지역을 아프리카 지역 중심에서 아주, 미주지역의 의료낙후 개도국으로 파견국을 다변화하고, 파견인원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협력단이 프로젝트 사업으로 지원한 병원에 의료단원 파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며, 파견희망자가 없어 의료단파견이 어려운 경우 국제협력의사로 대체하여 파견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임.

ㅇ 태권도사범 파견은 개도국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ODA사업으로서 태권도가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고,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부터는 영구종목으로 채택됨에 따라 세계의 많은 관심과 함께 개도국으로부터 태권도사범 파견요청이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협력단은 늘어나는 태권도사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로서 현재 활동중인 태권도사범의 처우를 개선하고 상향조정된 정년을 적극 홍보하여(45세→50세) 태권도사범파견을 확대할 계획임.

봉사 1. 봉사단원의 안전사고 발생 현황

1. 최근 2년간 사고현황('99 ~ 2001. 7월말 현재)

ㅇ 1999~2001.7월간 발생한 주요 사건·사고는 총 11건으로 주로 활동과 관련된 단순 사고로 현지에서 조치완료 되었음.

- 이중 통근중 경미한 교통사고 6건, 활동중 낙상 3건, 운동중 골절상 등 2건임

※ 봉사단파견 이후 사망사고는 1건으로 1997년에 인도네시아 단원 1명이 전지휴가 기간동안 바다에서 수영 중 익사한 사고가 발생.

2. 문제점

ㅇ 현지의 열악한 교통 및 생활환경으로 돌발적인 사고의 변수가 많으며, 해외에서의 장기간 근무시 단원들의 긴장감 이완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상존하고 있음.

3. 안전 대책

ㅇ 단원들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단원파견전 국내훈련 기간중에 안전사례발생 및 방지교육과 응급처치 및 구급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ㅇ 긴급의료지원서비스(SOS International)에 가입하여 안전사고 발생시 긴급후송 및 적기 치료가 가능토록 하고 있고, 해외근재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으로 단원들의 질병, 상해, 사망 등에 대비하고 있음.

○ 또한, 파견국별 비상연락체계를 항시 확립하고 현지 공관 및 해외사무소 주관으로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비상시 행동요령, 응급처치 요령 등을 숙지시키고 있으며, KOICA 해외사무소장이 수시로 단원활동 및 생활상태를 점검토록 하고 있음.

- 효율적인 연락체제 확립을 위해 휴대폰 지원을 검토중임.

○ 그리고, 단원 파견국 중 의료보건 수준이 열악한 국가에는 협력의사 및 간호분야 단원을 우선 파견하고 있음.

봉사 2. 봉사단원의 중도 귀국자 현황과 원인

1. 중도 귀국자 현황 (2001. 7월말 현재)

○ 1991년부터 지금까지 중도귀국자는 77명(여 33명)으로 총 파견 1,003명의 7.7%에 해당되며, 주요사유는 국내취업 등을 위한 본인희망(26명), 건강(23명), 가정사정(12명), 결혼(9명), 징계조치(5명) 등이었음.

구 분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계(명)	(%)
본인희망	1	2	1	2	1	6	5	1	4	2	1	26	34
건 강	1	1	2	2	3	1	6	5	1		1	23	30
가정사정			1		2	2	1		3	1	2	12	16
결 혼	2		1				1		1	1	3	9	12
징 계			2	1	1		1					5	6
무단귀국	1										1	2	2
계 (여)	5 (2)	3 (2)	7 (2)	5 (2)	7 (1)	9 (6)	14 (6)	6 (3)	9 (3)	4 (2)	8 (6)	77 (35)	100

※ 전체 중도귀국자중 여자단원이 35명으로 45%를 점유

※ 징계사유(5명) : 근무지이탈(4명), 현지인 폭행(1명)

2. 문제점

○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면 현지의 열악한 생활환경과 언어장벽, 문화적 충격 등에 대한 부적응으로 활동을 포기한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 '95년 40대 이상의 고령자까지 파견연령을 확대한 이후, 이들 고령자의 중도귀국도 '98년 1명, '99년 3명으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3. 대 책

ㅇ 단원 선발방법을 개선하여 선발시험에 인성검사를 추가하고, 일반 면접시 복수의 면접관이 정밀하고 세분화된 질문항목에 의해 면접을 실시하여 지원자의 인성과 정신력을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ㅇ 또한, 국내훈련을 강화하고 엄정한 훈련 평가와 지도로 국내훈련 기간을 실질적인 단원 선발과정으로 활용하고 있음

ㅇ 단원들이 파견된 후에는 협력단 해외사무소와 주재공관을 통하여 단원들의 활동 애로점을 파악하고 상담하며, 연 2회의 정기 활동 평가 회의를 개최하여 단원들의 상황을 파악함과 아울러
정신교육
을 실시하고 있음

4. 선진국 봉사단의 중도귀국

ㅇ 미국 Peace Corps 26%, 일본 JOCV 6.4%, 뉴질랜드 VSA 10.7%,

※ VSA (Volunteer Service Abroad)

봉사 3. 귀국 봉사단원 지원사항 및 「나섬회」 현황

1. 귀국 봉사단원 : 753명

ㅇ 2001. 7월말 현재 753명의 단원이 활동을 마치고 귀국하였음.
(일반봉사단원 595명, 국제협력요원 158명 / 중도귀국자 77명 포함)

2. 귀국시 지원사항

ㅇ 단원 귀국시 항공료와 화물탁송료 등 제반 경비를 지원하고

ㅇ 귀국후 국내 정착지원을 위해

- 활동기간중 매월 30만원씩 적립한 국내정착금 72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 각종 취업정보 제공 및 기업체 취업알선을 통하여 취업지원을 중점 추진하고 있음.

3. 나섬회 지원

ㅇ 또한, 귀국단원들이 파견국에서 습득한 소중한 경험들이 국내사회에 환원되어 국가발전에 기여될 수 있도록, 해외봉사단 귀국단원 모임인 "나섬회"(KOVA/ Korea Overseas Volunteers Association)를 지원하고 있음.

- 협력단내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고
- 운영비로 2000년도에 13.6백만원 지원하였고, 2001년도는 20.3백만원 지원 예정.

ㅇ 나섬회의 주요활동은 다음과 같음.

- 홈페이지를 통한 취업정보 제공
- 연락처 및 주소록 제작
- 회지 제작. 배포
- 봉사단의 대국민 홍보를 위한 사전전 개최.

봉사 4. 최근 해외봉사단원 귀국후 취업현황

1. 최근 2년간 귀국단원 취업현황

○ IMF 사태 이전에는 일반단원인 경우 60% 내외의 취업률을 보였으나, 경제사정 악화로 '98년에는 20%의 낮은 취업률을 보인 바 있음.

○ 경제상황이 좋아짐에 따라 '99년에 귀국한 8기 단원의 취업률은 66%, 2000년에 귀국한 9기 단원의 취업률은 69%로 IMF 이전의 수준을 상회하고 있으나, 최근의 국내 경제 침체 여파로 취업 알선에 어려움이 있음.

○ 국제협력요원의 경우 대다수 취업,진학 등을 하여 취업률이 90%를 상회하고 있음

< 1999~2000년 귀국자 취업현황 >

□ 일반단원

(단위:명)

귀국년도(기수)	취업						가사	미취업 및 기타	계
	소계	취업	진학	해외	유학	임기연장			
'99 (8기)	59 (66%)	37	5	14	3			31	90
'00 (9기)	44 (69%)	28	4	7	1	4		20	64

□ 협력요원

(단위:명)

귀국 년도 (기수)	취업						가사	미취업 및기타	계
	소계	취업	진학	해외	유학	원거 연장			
'99 (협3기)	34 (87%)	25	3	3	3			5	39
'00 (협4기)	38 (97%)	18	14	3	3			1	39

2. 귀국단원 취업알선 노력 및 대책

○ 귀국 봉사단원들이 국외 현지활동을 통해 습득한 귀중한 경험이 국가 발전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업 및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한 취업 홍보와 취업 희망단원에 대한 추천서를 발급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활동 우수 단원은 전문가로 파견(2001년 2명)하고 또한 신규 파견단원 모집 상담요원, 국내 훈련시 훈련교관 등으로 활용하고 있음.

○ 그러나, 개도국에서 다양한 현지 경험을 통해 배운 현지언어와 문화를 비롯, 국제경쟁력을 갖춘 개도국 지역전문가로 성장한 단원들이 아직은 국가 발전에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한 관계로 국내 정착에 어려움이 많은 바, 경력 인정에 관한 법제화 등 지속적인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사회여건 조성이 매우 필요한 실정임.

봉사 5. 해외봉사단원의 한국어분야 파견현황

1. 한국어분야 단원 파견실적

ㅇ 한국어 분야 단원은 총 파견인원 1,003명중 270명으로 27%, 현 활동인원 250명중 74명으로 30%를 차지하고 있음

2. 성과 및 기대효과

ㅇ 한국어분야 파견단원들은 중·고등학교나 대학의 한국어센터 또는 한국어학과에서 한국어 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와 역사를 강의하고 있는 바, 한국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켜 한국어과정 개설과 함께 한국어를 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선택하는 대학이 증가하고 있음.

ㅇ 또한 이들은 봉사활동 중 쌓은 경험으로 "한국어 교본", "테이프", "한국어 사전"등을 발간하여 현지인들이 보다 쉽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ㅇ CIS지역의 경우 고려인들에 대한 정규 한국어 수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민족 동질성 유지, 회복에 일조를 하고 있음.

ㅇ 한국어를 배운 현지인이 우리 진출기업에 취업함으로써 개도국 국민의 소득창출에 기여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여건을 조성하여 기업활동에 도움을 주는 상승효과가 기대됨.

3. 활동사례

ㅇ 동포밀집지역 (중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한국어 관심 고조
- 우즈베키스탄에 파견된 봉사단원들이 공동으로 직접 제작한 "한

국어 강좌" 프로그램이 우즈벡 국영 4TV에 1년간('97) 매주 20분간 방송되어 한인동포들(23만명 거주)에게 잊혀져가는 한국어를 배울수 있는 기회와 관심을 갖게하여 동포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바 있음.

ㅇ 한국어 교재 발간

- 베트남, 스리랑카, 중국, 태국과 등에 파견된 단원들은 한국어 교재 또는 사전을 편찬하여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현지 학생들의 교재로 활용하면서 한국어 보급에 기여하고 있음.

ㅇ 한국어 말하기 대회

- 국내언론기관에도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만, 베트남의 하노이, 호치민 지역에 파견된 단원들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여 일반인의 한국어에 대한 관심 제고와 한국어과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크게 고취한 바 있음.

ㅇ 몽골에 파견된 박상희(4기) 국제협력봉사요원은 제23중학교에서 매년 "한국어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한국어 발표 기회의 제공과 한국문화를 소개함으로 한국어 보급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몽골 국립인문대에서 한국어를 강의한 최선수(3기) 요원은 복무를 마치고 다시 주재국에 돌아와 국립인문대 한국어 교수로 한국어 보급에 기여하고 있음.

ㅇ 베트남에 파견된 이재열(2기) 국제협력봉사요원은 하노이 국립외대에 한국어학당을 운영, 4년제 한국어과에 적합한 교과과정을 개발하여 그간 선택과목이던 한국어과를 '97부터 4년제 전공과정으로 승격시키는데 기여함.

봉사 6. 국제협력요원 파견실적

1. 파견실적

○ 국제협력요원 제도가 도입된 '95년 이래로 2001년까지 국제협력봉사요원 190명, 국제협력의사 53명 등 총 243명을 파견했으며, 이중 181명이 임기만료 귀국하여 현재 62명이 활동하고 있음.

구 분	파 견	귀 국	활동중
계	243	181	62
국제협력봉사요원	190	151	39
국제협력의사	53	30	23

* 국제협력봉사요원 귀국자 151명중 23명은 국내근무중(2001.11월중 복무만료 예정임)

○ 국제협력봉사요원의 경우는 지금까지 12개국 14개분야에 190명이 파견되었고, 현재는 11개국 12개분야에 39명이 활동중에 있고

○ 국제협력의사는 17개국에 53명이 파견되어, 현재는 9개국 23명이 활동 중에 있음.

2. 파견분야

○ 국제협력봉사요원(190명)중 상위 파견분야는 한국어 75명(39%), 컴퓨터 58명(31%), 태권도 15명(8%)임.

<봉사 6 - 1. 국제협력요원 파견실적>

1. 파견실적

(단위:인원)

구분	총계	국제협력봉사요원							국제협력의사							
		계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계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
1.한국어	75	75	9	18	21	15	7	5								
2.컴퓨터	58	58	5	9	14	12	9	9								
3.체육교육	8	8		2	1		1	4								
4.탁구코치	1	1					1									
5.태권도	15	15	1	1	3	4	3	3								
6.축 산	5	5	1			2	1	1								
7.작물재배	5	5	1			2	2									
8.전 자	6	6	2			1	1	2								
9.전 기	3	3				2		1								
10.기 계	5	5	1				2	2								
11.자동차정비	4	4				1	1	2								
12.원 예	3	3						3								
13.수의사	1	1						1								
14.수산양식	1	1						1								
15.의 사	43								53	8	8	9	5	5	8	10
총 계	243	190	20	30	39	39	28	34	53	8	8	9	5	5	8	10

3. 국제협력의사 파견분야

구분	1기(8명)	2기(8명)	3기(9명)	4기(5명)	5기(5명)	6기(8명)	7기(10명)
파견분야	일반의(6) 치과(2)	가정의학(1) 정형외과(3) 신경외과(1) 소아과(1) 내과(1) 일반의(1)	소아과(1) 내과(2) 가정의학(2) 일반외과(2) 방사선과(1) 치과(1)	내과(2) 외과(1) 가정의학(1) 한의사(1)	외과(2) 내과(3)	내과(2) 가정의학(2) 외과(1) 소아과(1) 한의사(1) 치과(1)	내과(4) 외과(3) 이비인후과(1) 한의사(1) 치과(1)

봉사 7. 국제협력봉사요원 파견 성과

1. 파견실적

ㅇ 국제협력봉사요원 파견제도는 '95년부터 시작되어 그동안 190명이 파견되었음.

ㅇ 이는 95년부터 금년까지의 일반단원을 포함한 전체 봉사단원 파견 인원 1,003명 중 19%를 차지함.

2. 파견성과

ㅇ 국제협력봉사요원은 높은 경쟁을 통해 선발된 우수한 인력으로 컴퓨터, 태권도, 전기, 기계, 농업 등 일반봉사단원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분야의 우수인력을 충원하는데 매우 필요한 자원임.

ㅇ 아울러, 국내에서의 군복무보다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면서도 봉사활동을 통해 세계화에 필요한 젊은 인재를 적기에 양성토록 하였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고, 국가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ㅇ 주요 파견성과 사례로는 인도네시아 작물재배 분야에 파견된 박창호 단원(협력요원 4기)은 지역 주민의소득 증대을 위하여 신농법을 도입하고 현지어 교재을 발간하는 등 성공적인 활동으로 현재는 주재국의 간곡한 요청으로 작물재배 전문가로 파견되어 활동중에 있음.

※ 여타 파견성과(활동사례 중심으로) : 별첨

<봉사 7-1. 구체적 파견성과 (활동사례 중심으로)>

□ 우수활동사례 예시 (11국 19건)

구 분	우수활동사례
스리랑카	□ 태권도 분야로 파견된 이기수(3기) 요원은 현지 대통령 경호 임무수행 특수경찰요원의 태권도 지도와 국가 대표팀 감독으로 임명되어 국제대회 사상 최초 메달을 획득한 지도자로 현지 정부의 칭송과 태권도 보급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고, 현재는 주재국의 간곡한 요청으로 태권도 사범으로 재파견됨. □ 자동차정비 분야로 파견된 강영주(4기)요원은 스리랑카 개방대학의 자동차정비실습실에서 자동차엔진분석기인 Dynamometer의 작동과 시험데이타 분석을 담당하는 핵심요원으로 활동을 하였음.
인도네시아	□ 작물재배 분야로 파견된 박창호(4기) 요원은 현지의 재래식 농업형태를 극복하고 Green House를 이용한 농업발전과 인도네시아어판 교재를 발간하여 현지인들에게 농업기준 실용서로 활용케 하였고 산업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를 생산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한 성공적인 활동으로, 현재는 주재국의 간곡한 요청으로 정부파견 작물재배 전문가로서 활동중에 있음. □ 작물재배 분야로 파견된 정우담 요원(1기)의 경우 현지에서 멜론재배에 최초로 성공함으로써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였음.
중 국	□ 한국어 분야에 파견된 최동준(3기) 요원은 산동성교육위원회에서 1997-1998년도 학기간 근무한 외국인 교사중 최우수 외국인 교사로 선정됨.

구 분	우수 활동사례
몽 골	□ 컴퓨터 분야에 파견된 전현철(4기) 요원은 몽골 국립기술대에서 1년 간의 강의자료를 정리하여 2권의 영문교재(Data and Computer Communication 및 The Principles of Communication Theory)를 편찬, 현지반응이 좋아 전자공학과의 교재로 판매되며 타 대학(울란바타르대학)에서도 교재로 사용하고 있음. □ 한국어 분야에 파견된 박상희(4기) 요원은 제23중학교에서 매년 "한국어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한국어발표 기회의 제공과 한국문화를 소개함으로 한국어보급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몽골 국립인문대에서 한국어를 강의한 최선수(3기) 요원은 국제협력봉사요원 복무를 마치고 다시 주재국의 국립인문대 한국어교수로 취직하여 한국어 보급에 기여
베트남	□ 한국어 분야로 파견된 이재열(2기) 요원은 하노이 국립외대에 한국어학당을 설립, 4년제 한국어과에 적합한 교과정을 개발하여 그간 선택과목이던 한국어과를 '97부터 4년제 전공과정으로 승격시키는데 기여 □ 태권도 분야로 파견된 박준성(3기) 요원은 남부 잘라이성에 파견되어 청소년 대표팀을 지도, '98년 전국청소년 대회에서 잘라이성 태권도 역사상 최초로 금메달을 획득하여 한국인이 거의 진출하지 않은 잘라이성에 태권도를 통한 한국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 인민위원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음.

구 분	우수활동사례
태 국	□ 컴퓨터 분야에 파견된 김성한(2기) 요원은 치앙마이(Chiangrai), 라자비트(Rajabhat) 대학에 OA 및 Computer Graphics 과정을 정착시켰음. □ 한국어 분야로 파견된 노세경(3기) 요원은 출라롱콘대학에서 "한국어 교사를 위한 교안" 및 "한국어 회화"를 발간하여 태국내 한국어 교육을 한층 더 발전시켰으며 그 공로로 태국 정부의 감사패를 수여 받음. □ 컴퓨터 분야에 파견된 정인제(5기) 요원은 태국정부가 주관한 전국전자 및 컴퓨터 Programming Contest에 본인이 가르치는 학생들과 함께 인터넷기반 가상대학 프로그램을 출품하여 태국의 각 대학 및 컴퓨터 업계의 큰 관심을 갖게 함.
필리핀	□ 컴퓨터 분야로 파견된 문정환(3기) 요원은 남동대학에서 본교와 4개 분교의 교내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여 전 캠퍼스의 학사관리 사무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였음. □ 축산 분야로 파견된 최석오(4기) 요원은 우유가공공장 위생시설 보완 및 품질관리로 우수한 우유를 생산하는 기틀 마련 □ 컴퓨터 분야로 파견된 이준규(4기) 요원은 Central Visayas Polytechnic College에 근무하며 대학의 도서관리와 학생등록 전산화 Program개발을 통한 체계적 학사관리로 현지의 높은 평가를 받음.
파라과이	□ 탁구 분야로 파견된 윤상준(5기) 요원은 본인이 지도한 선수들이 국내대회와 브라질에서 개최된 클럽별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우리나라 탁구기술 및 문화를 소개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

구 분	우수활동사례
우즈베키스탄	□ 한국어 분야에 파견된 배양선(4기) 요원은 수도에서 1,300Km 떨어진 누쿠스 종합대학에서 현지 실정에 맞는 러시아어 문법책을 발간, 현지 한국어교수를 포함 학생들에게 배포하여 큰 호평을 받고, 주재국 최대 일간지(Narodnoe Slovo)에 크게 보도됨.
카자흐스탄	□ 태권도 분야에 파견된 한경동(4기) 요원은 국가대표 선수단을 지도하여 국제대회에서 금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함으로써 국가적인 호응을 받았음.
이디오피아	□ 컴퓨터 분야로 파견된 김성웅, 김 혁(4기) 요원은 교육부에서 컴퓨터 전산망 구축작업 및 직원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협력봉사요원의 전문성, 능력 및 작업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음.

봉사 8. 국제협력봉사요원제도 폐지와 부활

1. 제도 개요

○ 국제협력요원 파견사업은 병역대상자중 적격자를 선발하여 개도국에서 봉사활동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제도로, 국제협력봉사요원과 국제협력의사로 구분됨.
(복무기간 : 국제협력봉사요원 32개월, 국제협력의사 36개월)

2. 제도 폐지 및 부활

○ 동 제도는 체육특기자, 예체능특기자 등 공익근무요원의 병역 특혜 문제발생에 따라 '99. 2월 병역법 개정시 폐지된 바 있으나,

○ '95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총 190명의 국제협력봉사요원을 파견하여, 컴퓨터, 태권도, 작물재배, 기계, 자동차정비, 전기·전자 등 일반봉사단원으로 충당키 어려운 전문분야에서 탁월한 활동 성과와 국내 공익요원들에게서 발생된 특혜 문제와는 전혀 다른 성격임이 입증되어 2000. 12. 26일 동 제도가 부활되었음.

3. 제도 필요성

○ 동 제도의 부활로 우리 젊은이들이 국제적 감각을 갖춘 지역전문가로 양성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주어졌고

○ 일반봉사단원으로는 인력 확보가 어려운 컴퓨터, 전자, 기계, 원예, 축산, 태권도 등 특수분야에서 우수인력의 확보가 가능해 짐에 따라 해외봉사단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밝게 하고 있음.

봉사 9. 귀국 봉사단원 지역전문가로 활용방안

1. 봉사사업의 의의

ㅇ 협력단은 전문성과 봉사정신을 갖춘 우수한 젊은 인력을 매년 100여명 이상 개도국에 파견하여 이들이 봉사활동기간 중 습득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통해 현지언어와 문화에 정통한 지역전문가로 성장하도록 하고 있음.

2. 지역전문가 활용

ㅇ 협력단에서는 지역전문가로 양성된 봉사단원들이 국내외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음.

ㅇ 우선 단원들이 귀국하기 전과 귀국후에 단원들에게 다양한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유관기관 및 기업체에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단원들이 각자의 전문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주선하고 있음.

- 2001년, 특이사례로 경찰청 특수언어 구사자로 네팔어와 벵갈어 2명을 특채토록 주선

ㅇ 또한 지속적인 국제적 활동으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UNV 참여를 희망하는 단원들을 적극 추천하고 있음.

ㅇ 협력단의 사업 수행을 위해 우수활동단원을 전문가로파견(현재 4명 활동 중) 하거나 연수사업 코디네이터를 비롯한 사업보조 요원으로 채용, 또는 봉사단원 국내훈련 교관요원 등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음.

○ 이외에도 봉사단원 모집 상담요원, 국내훈련강사 등으로도 귀국 봉사단원을 활용하고 있음.

○ 그리고 귀국봉사단원 모임인 나섬회(KOVA)를 적극 지원하여 단원 들간의 화합과 정보교환 등을 통해 국.내외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62명의 임기만료 단원들은 재외공관 및 현지 기업체 등에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음.

3. 문제점 및 향후 전망

○ 그러나 미국의 Peace Corps가 귀국봉사단원을 외교관, 기업의 국제부문 담당자 등으로 적극 활용하고 학계에도 많은 국가 전문가로 배출한 사례와 일본 JICA가 파견하는 일본청년해외협력대(JOCV)가 일본이 경영하는 세계각국의 다국적 기업에서 적극 활용되는 것에 비하면 아국의 귀국봉사단원의 활용범위는 아직 초등 단계라 할 수 있음

○ 귀국봉사단원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 기업과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직자가 휴직을 하고 봉사단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현직참여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 해외봉사활동의 가치와 의의에 대한 전사회적인 인식 확산이 이루어져 귀국봉사단원들이 다양한 부문에서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임.

개발조사 1. 개발조사사업의 결과로 우리기업 성공 진출 사례

1. EDCF 연계사례

○ '91년부터 2001. 7월말까지 완료된 35건의 개발조사사업중 3건이 **EDCF차관사업과 연계**되었으며, 이중 2건은 (주)대우와 현대엔지니어링이 각각 수주하여 본공사가 완료되었으며, 1건은 코오롱건설과 삼성물산이 공동 수주하여 공사중임.

사 업 명	EDCF 규모	시공업체	비 고
네팔 모디강 수력발전소 건설 실시설계사업 ('93~'94/ 730천불)	15백만불	현대 엔지니어링	○ 본공사 : '97.12-'00.8 ○ 발전설비 일체
베트남 N-18국도개량 타당성조사사업 ('93~'94/ 558천불)	24백만불	(주)대우	○ 본공사 : '96.12-'00.8 ○ 타당성조사 시행업체인 한국해외기술공사가 감리업무 수행
요르단 폐수처리시설 확장 타당성조사 ('95~'96/974천불)	9백만불	코오롱건설, 삼성물산 (공동)	○ 차관협정체결 : '00.11 ○ 본공사 : '01.3~'02.12

2. 기타 아국기업 해외진출 파급효과 사례

○ **한국전력**에서 **"필리핀 바탄-말라야 복합화력발전소건립 타당성조사사업"**('93.10-'94.4/374천불)의 성공적인 수행경험을 토대로 필리핀 정부 발주 **화력발전소건설시공사업 2건(8억불) 수주**

- 필리핀정부로부터 사업수행업체인 한국전력기술(한전 자회사)의 기술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고, 사업수행기간중 필리핀 전력현황전반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이를 기반으로 2건의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주

- 수주공사 2건 내역

. 말라야화력발전소 1,2 호기 성능복구공사(약 1억불/'95.5-'99.3)

* 한전상업운전기간: 1999.3-2009.6(10년)

. 일리한 화력발전소 건설공사(7억불/'99.3-2002.2)

개발조사 2. 개발조사사업 평가현황 및 사후평가 강화방안

1. 평가현황

ㅇ 사업수행의 효율성 제고와 피드백을 통한 사업수행 개선을 위해 중간평가, 종료시 평가 및 사후평가 등 3 종류의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중간평가**는 사업기간이 1년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중간 단계에서 용역업체에서 제출한 중간보고서 초안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서면평가 및 발표회를 실시, 수정.보완사항을 반영

- **종료시 평가**는 사업종료 2-3개월전에 용역업체에서 제출한 최종 보고서 초안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서면평가 및 발표회를 실시, 수정·보완사항을 반영

- **사후평가**는 '97년 평가전담부서로 설치된 사업평가팀에서 종료 후 2-3년이 지난 사업을 대상으로, 수원국 관계 기관 및 우리 용역업체에 대한 설문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실시

< 사후평가 실시현황>

① 사업평가팀에서 '97년 이전 완료된 10국 19개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여(2000. 5~10월), 2000. 11월 결과보고서를 발간

ㅇ 목표달성도, 사업효과, 사업타당성, 사업효율성, 활용도 등 5개 항목에 대한 평가결과, 전반적으로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남

② 사업담당부서인 개발조사팀에서 자체적으로 91-97기간중 완

료된 10국 19개사업에 대한 활용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99년 상반기중), 결과는 전반적으로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남.

ㅇ 조사방법 : 해외사무소 또는 공관을 통해 수원국 관계기관에 설문조사

ㅇ 조사항목 : 개발조사의 유용성, 수원국의 개발목표에 대한 기여도, 아국 용역업체의 현지조사 활동에 대한 수원국 반응 등

ㅇ 조사결과

- 개발조사의 유용성에 있어 **매우 유용 또는 유용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87.5%**,
- 수원국 개발목표에 대한 기여도에 있어 **성공적이었다는 응답**이 **100%**,
- 아국 용역업체의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 및 만족**이 **93.8%**로 조사됨.

2. 사후평가 강화방안

ㅇ 향후 사업평가팀에서 **종료후 2-3년 경과한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ㅇ 이와는 별도로 사업담당부서인 개발조사팀에서도 종료사업에 대한 활용현황 설문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금년도 4/4분기에는 '98년도에 종료된 사업 5건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예정

* 사후평가의 경우, 평가의 실효성을 감안하여 사업종료후 최소 2-3년 경과후에 실시

개발조사 3. 후속사업 연계강화 방안

1. 본 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은 우량사업 발굴 강화

○ 신규사업 발굴시 수원국의 경제개발계획상 우선순위가 높으며, 우리나라가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도로, 전력, 정보통신등)의 사업으로서, 우리기업진출 및 EDCF와의 연계가 유망한 우량사업 발굴

- 해외 공관 및 협력단 해외사무소를 통한 수원국 관계기관과의 정책협의를 강화

- 전문가파견등 타 협력사업과의 연계를 통하여 정보수집기능 강화

○ 특히 EDCF와의 연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본 사업비가 5천만불 이하**인 사업을 우선 발굴

* 2001. 7월말 현재 EDCF 지원승인현황은 34개국, 99개사업, 1조 4,907억원이며, 1개 사업당 지원규모는 **5천만불 미만**으로 주로 **1-3천만불선**임.

- 2001. 7월말 현재 기금 조성액 1조 4,430억원, 자금집행 7,745억원 (2001년 집행액 : 1,198억원)

2. 사업관련 정보제공 및 유관기관간 업무협의 강화

○ 수출입은행, 해외건설협회 등 유관기관 및 관련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종료사업 결과보고회**의 **기능 강화 및 초청간담회의 정기적인 개최 추진**

ㅇ 협력단 홈페이지에 개발조사사업 보고서 내용게재 등 **정보공개 강화**

ㅇ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를 **정례화**하여 EDCF 연계 등 우리 민간 기업의 후속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

- 수출입은행과는 '97.7월 업무협조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2001. 7월말 현재까지 4회('97.10/'99.12/2000.5/2001.1)에 걸쳐 협력단의 개발조사사업과 EDCF와의 연계강화 방안, 신규발굴 사업의 EDCF연계 가능성 등에 대해 협의를 실시한 바 있음.

3. 협력단과 EDCF 담당기관(재경부, 수출입은행) 공동조사 추진

ㅇ EDCF와의 연계가능성 제고를 위해 **신규발굴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조사**를 **재경부** 및 **수출입은행**과 **공동 실시**

- 사업발굴단계에서부터 수출입은행과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연계 도모

- 2개사업에 대해 공동 사전타당성조사단 파견
  . "베트남 하노이 신도시 주거단지개발 타당성조사사업"('01-'02/1,000천불) : '00.12.10-16

  . "캄보디아 도로개보수 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사업"('01-'02/600천불) : '01.1.28-2.4

개발조사 4. 개발조사사업 확대(활성화)방안

1. **개도국 경제발전에 필수적이며, 우리기업 진출 및 EDCF와의 연계가 유망한 우량사업을 발굴, 본 사업으로의 연계 강화를 통해 사업성과 제고**

   ㅇ 해외 공관 및 협력단 해외사무소를 통한 수원국 관계기관과의 정책협의를 강화

   ㅇ 전문가파견등 타 협력사업과의 연계를 통하여 정보수집기능 강화

   ㅇ 사업발굴단계에서부터 수출입은행과의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EDCF와의 실질적인 연계 도모

   - 수요요청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의 공동실시 등

2. **수출입은행, 해외건설협회 등 유관기관 및 우리 민간기업에 대한 관련사업정보 공개 강화와 EDCF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개발조사사업의 추진기반 강화**

   ㅇ 유관기관 및 관련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개발조사사업 결과보고회의 기능 강화 및 초청간담회의 정기적 개최 추진

   ㅇ 협력단 홈페이지에 개발조사사업 보고서 내용게재등 정보공개 강화

   ㅇ '97.7월 체결한 수출입은행과의 업무협조약정을 토대로 업무협의를 정례화하여, 사업정보 공유 및 사전타당성조사 공동실시 등 체계적인 EDCF 연계시스템을 구축

개발조사 5. EDCF와의 연계가 부진한 사유 및 연계강화 방안

1. 연계추진 현황

ㅇ 91년부터 2001년 7월말까지 완료된 개발조사사업 35건 중, EDCF와 연계된 사업은 3건이나, 현재 "튀니지 직업훈련원건립 타당성 조사" 및 "예멘 통신망현대화사업" 등 6건의 사업이 EDCF를 신청 준비중이므로 연계율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ㅇ 또한 EDCF연계이외에도 우리기업이 본사업을 직접수주한 것 1건, 수원국 정부에서 직접 본 사업을 착수한 것 6건 및 본 사업 착수준비중인 것 4건, 수원국 국토개발 기본자료로 활용중인 것 6건 등 전체적으로 종료사업 35건 중 26건(74%)이 후속사업과 연계 또는 활용되고 있어 개발조사결과의 활용율은 매우 양호하다고 할 수 있음.

2. 연계부진 사유

ㅇ 개발조사사업과 EDCF의 지원방향 상이

- EDCF의 경우 국산기자재 수출을 전제로 한 기자재 차관을 중점 지원하고 있으며, 개발조사사업은 개도국의 SOC분야등에 대한 공공개발사업 자체를 지원하고 있어 지원방향이 다름.

ㅇ EDCF 기금 부족

- IMF사태 이후 어려운 국가재정 사정으로 98년에서 2000년까지 EDCF에 대한 정부출연등 재정지원이 없었으며, 이로인한 기금 부족으로 동 기간중 신규 EDCF 지원승인 규모가 대폭 축소됨.

3. 연계강화 방안

ㅇ 수출입은행과 '97.7월 체결한 업무협조약정을 토대로 EDCF와의 연계제고를 위한 업무협의를 강화하여, EDCF의 SOC분야 지원비중 확대 및 신규발굴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공동실시 추진

ㅇ 수원국 관계기관과의 정책협의를 강화하여, EDCF와 연계가 유망한 사회간접자본, 정보통신, 환경 등 분야의 우량사업으로서, 본 사업비가 약 5천만불 이하인 사업을 중점 발굴

개발조사 6. 후속사업과의 연계가 부진한 사유 및 연계강화 방안

1. 후속사업과의 연계추진 현황

○ '91년부터 2001년 7월말까지 완료된 개발조사사업 35건 중, EDCF와 연계된 3건 및 우리기업 직접진출 1건을 포함하여 총 26건(74%)의 개발조사결과가 후속사업에 연계 또는 활용되고 있음을 감안시, 개발조사 결과의 활용율은 매우 양호하다고 말할 수 있음. 또한, 동 26건 중 6건은 현재 EDCF를 신청준비중이므로 EDCF와의 연계율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연계현황〉

- **EDCF와 연계된 것이 3건**
- **우리기업이 관련 건설공사를 직접 수주한 것이 1건**
- 수원국에서 직접 본사업을 착수한 것이 6건
- 수원국에서 직접 본사업 착수를 준비중인 것이 4건
- 수원국 국토개발 기본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6건
- EDCF를 신청준비중인 것이 6건 등임.

2. 후속사업과의 연계가 어려운 사유

○ 현실적으로 개도국인 수원국에서 국내 또는 국외로부터 수천만 불이상에 달하는 본 사업추진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며,

3. EDCF등 후속사업과의 연계강화 방안

ㅇ 개도국의 경제개발계획상 우선순위가 높으며, 우리나라가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의 사업으로서, 우리기업진출 및 EDCF와의 연계가 유망한 우량사업 발굴

- 해외 공관 및 협력단 해외사무소를 통한 수원국 관계기관과의 정책협의를 강화
- 전문가파견등 타 협력사업과의 연계를 통하여 정보수집기능 강화
- 사업발굴단계에서부터 수출입은행과의 긴밀한 업무협의를 실시, 신규발굴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를 공동실시

ㅇ 유관기관 및 관련 민간기업에 대한 사업관련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의 및 협조 시스템을 구성하여 우리기업의 후속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토록 노력

- 수출입은행, 해외건설협회 등 유관기관 및 관련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종료사업 결과보고회의 기능 강화 및 초청간담회의 정기적인 개최 추진
- 협력단 홈페이지에 개발조사사업 보고서 내용게재등 정보공개 강화
- 수출입은행과 '97.7월 체결한 업무협조약정을 토대로 EDCF와의 연계제고를 위한 업무협의를 강화하여, EDCF의 SOC분야 지원 비중 확대 추진

물자지원 1. 물자지원 현지조달 현황

1. 개요

ㅇ 물자지원사업은 "국내외 공인기관의 품질인증을 획득한 최신 모델의 우수한 국산 수출용 또는 내수용 제품"(사업 세부시행지침 제 7조 : 지원물자의 선정순위) 지원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현지에서 물품 조달

※관련 근거 :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물자의 가격, 지원시기, 지원절차, 사후관리 등을 고려하여 협력 대상국 현지 또는 제 3국에서 물자를 조달할 수 있다. (사업 세부시행지침 제 10조 : 현지조달)

2. '97~'99년간 현지조달 실적

ㅇ '97년 : 3건 51.3천불

ㅇ '98년 : 1건 50천불

ㅇ '99년 : 2건 56.2천불

※'00, '01년 현지조달 실적 없음

물자지원 2. 미배정액 책정근거 및 현황

1. 책정 근거 및 절차

○ 연초 사업계획 수립시 배정액과는 별도로 홍수·지진·한발·난민 발생 등의 **긴급재난구호** 요청이나 **연중 특별한 지원요청**(정상·정부간 회담 후속조치, 국제행사 유치를 위한 특별지원 및 수원국 신정부 출범 지원 등)에 대비하여 연간 예산 중 일정부분을 **재난구호 및 물자지원 미배정액**으로 책정(사업시행지침 제 15조 2항)

2. 집행현황

○ 2001년 미배정액 : 2,600천불(물자지원사업비 6,734천불 중 38.6%)

- '98년 : 1,730천불(물자지원사업비 3,752천불 중 46.1%, 유보액)
- '99년 : 1,850천불(물자지원사업비 4,437천불 중 41.7%, 유보액)
- '00년 : 2,017천불(물자지원사업비 4,585천불 중 44.0%, 유보액)

물자지원 3. 현금지원 실적('99-2001)

□ 현금지원 실적

가. 개요 : 현금지원의 **대부분은 국제기구 지원 및 긴급재난 구호금 형태**

※ 관련근거 : 물자지원은 국산물품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의 구호 등 인도적 목적,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현지에서 물품을 구매하여야 할 경우에는 현금의 형태로 지원할 수 있으며 5만불 이상의 현금지원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시행지침 제16조 : 지원형태)

나. **'99년도 현금지원 내역**

○ **19국 6개 국제기구에 1,288천불** 지원(총 지원액 4,591천불 중 28.0%)

다. **2000년도 현금지원 내역**

○ **21국 7개 국제기구에 962천불** 지원(총 지원액 5,061천불 중 19.0%)

라. **2001년도 현금지원 내역**

○ **11국 2개 국제기구에 817천불** 지원(총 지원액 4,600천불 중 17.8%)

물자지원 4. 지원물품 활용실태 점검 및 사후관리 현황

1. 사후관리 제도

○ 지원물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국산품에 대한 이미지 제고 및 지원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함.

○ 따라서, '98년부터 물자지원사업비 내에 예산을 배정하여 사후관리 실시

2. 조치 내역

○ **'98년도와 '99년도**에 아주·중남미 및 중동·아프리카지역의 **9개국에 활용실태 점검반을 파견**하여 수리·정비 및 필요물품 지원

-**'98년 : 부품지원 등 총 52천불 지원(총 14건)**

-**'99년 : 부**품지원과 기술자 파견 등 **총 97천불 지원(총 15건)**

-**'00년 : 부품지원 등 총 103천불 지원(총 20건)**

연중 수원국이 요청한 사후관리 수요와 주요 지원품목('96 이후 지원된 컴퓨터 등 사무기기)에 대한 일괄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후관리 병행 실시

○ 지원물품에 대한 활용실태 점검, 부품지원 및 수리는 물론, 최초 지원시 사후관리 수요를 감안하여 일정량의 부품 및 소모품(약 2년 사용분)을 함께 지원하고 있음.

○ 2000년 하반기에 재외공관을 통하여 물자지원 중점지역인 아프리카, 미주 지역 국가 중 차량, 사무기기 등 중점 지원품목에 대한 활용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원 물품에 대한 정기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조달 1. 조달물품 입찰 방법 및 세부물자지원 내역

1. 입찰방법

ㅇ 입찰방법은 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 규정에 의거, 일반경쟁입찰.지명경쟁입찰.수의계약 등 3가지 형태가 있으나,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토록 하고 있으며, 수의계약 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되, 그 사유를 반드시 명시토록 하고 있음.

ㅇ 경쟁입찰시 입찰공고는 기본적으로 입찰정보지, 입찰회보지, 협력단 인터넷 홈페이지 및 협력단 게시판 등을 이용하며, 추정 금액이 일정금액 이상(물품제작, 구매, 기술용역의 경우 1억원, 프로젝트 공사의 경우 3억원)일 경우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여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ㅇ 조달업무의 투명성을 위해 입찰 예정가격은 조달관이 직접 작성.봉인하고 입찰현장에서 개봉하며, 개찰 결과는 투찰 직후 입찰 참가업체의 입회하에 완전 공개하고 있으며 입찰시에는 조달담당자외에 감사실 직원 및 관련 사업부서 직원 각 1명이 참석하여 감독하고 있음.

2. 낙찰자 결정방법

ㅇ 예정가격 이하로서 평균응찰가격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평균응찰가 산출은 예정가 이하 투찰가중 최고, 최저가를 제외한 투찰가의 산술 평균 가격임.

○ 예정가격 이하 응찰자가 5개업체 미만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평균응찰가를 산정하지 아니하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75 이상 최저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고 있음.

조달 2. 수의계약 현황 및 공개경쟁 확보 방안

1. 수의계약원칙

○ 공개경쟁 입찰을 통한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수의계약은 관련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고 그 사유를 반드시 명시토록 하고 있음.

예) 수의계약 사유
- 수원국 정부가 A/S등을 이유로 특정제품을 지정한 경우 (의전용 차량으로 쏘나타 지정)
- 예정가격 3천만원 이하의 소액물품 구매 (기 공여 기자재에 대한 소모품 지원 등)
- 사안의 긴급성으로 공개경쟁입찰이 어려운 경우 (긴급재난구호물품 지원)

2. 수의계약 현황

○ '99년도에는 총 계약금액 18,482백만원중 수의계약 금액이 4,969백만원으로 26.9%를 차지하고 있으며

○ 2000년도에는 총 계약금액 14,584백만원중 수의계약금액이 5,287백만원으로 36.2%를 차지하였음.

- '99 대비 수의계약 증가 사유 : 한.필리핀 친선병원 건축공사 (계약금액 2,470백만원) 계약을 위해 2차례에 걸쳐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수의계약함에 따라 수의계약 비율이 증가되었음.
- 한.필리핀 친선병원 제외시 수의계약 비율은 총 계약금액의 19.3%임.

○ 2001년 7월말 현재 총 계약금액 4,079백만원중 수의계약금액이 2,307백만원으로 56.5%를 차지하고 있는데, 차량 지원이 1,793백만원으로 수의계약금액중 77.7%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수원국 특히 아프리카 지역 국가에서의 특정 선호 차량 요청 증가에 기인함.

3. 공개경쟁 확보방안

○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명백한 수의계약 사유가 아니면 반드시 공개경쟁 입찰토록 하고 있음.

○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에도 복수견적을 통해 가능한 여러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공개경쟁 입찰과 유사한 효과를 도모하고 있음.

조달 3. 공여물품 클레임 현황 및 방지 대책

1. 클레임 발생현황

○ 공여물품 클레임 발생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97년부터 2001.7.31 현재까지 클레임이 1건도 없었음.

구 분	'93	'94	'95	'96	'97	'98	'99	2000
클레임건수(A)	8	5	4	1	-	-	-	-
계약건수(B)	143	200	239	303	215	161	129	146
클레임발생율(A/B)	5.6%	2.5%	1.7%	0.3%	-	-	-	-

* 클레임 유형 : 영문설명서 미비, 물품 일부손상, 부품 부족 등

2. 클레임 발생시 조치사항

○ 공급업체를 통하여 신속히 조치하고, 클레임 원인이 공급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 해당업체에 협력단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함.

3. 클레임 방지대책

○ 물품선정시 KS, Q, ISO 등 품질인증 물품 위주의 최신 규격품으로 선정하고, 입찰설명회시 공여물품의 중요성을 참여 업체에 주지 시킴.

○ 물품 선적전 전문검정업체 및 협력단 직원에 의해 철저한 물품검사를 실시하고, 또한 물류전담회사에 물품보관, 운송, 하역 등 물류업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수행하게 함.

○ 물품 현지도착시 물품분실 등의 방지를 위하여 수취인이 즉시 통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재외공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함.

조달 4. 조달물품 선정 기준 및 일간지 공고 건수

1. 조달물품 선정 기준

ㅇ 품질 기준

- KS, Q, ISO 등 국내외 공인기관의 품질인증을 획득한 물품 지원을 원칙으로 함.

- 공인기관의 품질 인증에 해당되지 않은 물품은 통상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소 등 공인기관의 시험검사에 합격한 국산물품으로 공여함.

ㅇ 국산품 공여원칙

- 한국국제협력단 사업시행지침 제16조에 의거, 국산물품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재난의 구호 등 인도적 목적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현지 또는 제3국의 물품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현금의 형태로 지원할 수 있음.

- 예외로 국산품의 품질이 미흡하거나 생산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수원국의 특별히 요청이 있고 지원에 따른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외국산 제품으로 조달함.

ㅇ 외산장비 지원사유 및 예시

- 사업목적 수행상 국산품이 생산되지 않는 불가피한 경우에 외산 장비를 지원함.

※ 아국의 지원으로 건립된 카자흐스탄 친선병원 운영에 필수적인 소변검사기 1대 등 의료기자재 6종

2. 일간지 공고 건수

○ 협력단 물품 조달 경쟁입찰시 입찰공고는 기본적으로 입찰정보지, 입찰회보지, 협력단 홈페이지 및 협력단 게시판 등을 이용하며, 추정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 (물품제작.구매.기술용역의 경우 1억원, 프로젝트공사의 경우 3억원)일 경우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여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 일간지 공고는 중앙일간지에 4단 10㎝ 광고(부가세 포함 약 1백만원)를 내고 있으며, 년도별 실적은 다음과 같음.

년도	1998	1999	2000	2001 (7. 31 현재)
건수	11	18	20	5

조달 5. 조달협력업체 현황 및 우수업체 발굴 방안

1. 조달협력업체 등록 현황

○ **등록 신청, 등록 기준 및 심사**

- 일간신문, 정기간행물 또는 협력단 게시판을 이용하여 조달 협력업체를 공개 모집하며, 필요시 수시 모집제도를 운영하여 우수 협력업체를 발굴하고 있음. (대외무상협력 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제17조)

- 등록 기준
  . 자본금 1억원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업체
  . 기타 입찰조건을 갖춘 업체

- 등록 심사는 재무능력, 사업경력, 판매실적 등에 따라 등록 적격 여부를 결정함.

○ 등록 현황 (2001. 7. 31 현재)

- **총 111개 업체 (제조 70, 무역 30, 기타 11)**
  . '95 : 5개 업체 (제조 3, 무역 2)
  . '96 : 8개 업체 (제조 4, 무역 4)
  . '97 : 16개 업체 (제조 15, 무역 1)
  . '98 : 5개 업체 (제조 5)
  . '99 : 18개 업체 (제조 15, 무역 2, 기타 1)
  . 2000 : 31개 업체 (제조 20, 무역 6, 기타 5)
  . 2001 : 28개 업체 (제조 8, 무역 15, 기타 5)

- 2001. 7. 31까지 등록유효 기간 만료 36개 업체중 12개 업체만 등록 연장 신청함에 따라 24개 업체 계약 해지

2. 조달협력업체 운영 개선

ㅇ 우수 조달협력업체의 효율적인 관리로 조달업무를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 현 등록 조달협력업체의 군별, 업종별 정리
- 신규 우수업체의 협력사업 참여 기회 확대

3. 우수협력업체 발굴 방안

ㅇ 협력단 홈페이지에 연중 등록 사실을 안내하고 입찰공고시 일간 신문에 조달협력업체 등록안내를 병행하여 신규 우수업체의 협력사업 참여 기회 확대

ㅇ 적격물품 지원 및 효율적 사후관리를 위해 **분야별, 자본금 등 회사규모 감안, 자격에 차등을 두어 입찰을 실시**하는 등 업종별 전문업체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음.

ㅇ 우수 분야별 제조업체와의 직접 조달을 위해 동 업체를 직접 방문, KOICA 사업 및 물품조달계획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며 **조달청과 관련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함.

ㅇ 협력단 공여물자 조달시 유리한 점

. 물품 납품후 14일 이내 현금 지급
. 조달 물품에 대한 개발도상국 수출 홍보
. 협력단 물품은 정부기관 납품 실적으로 계상
. 협력단 납품 물품은 수출 실적으로 인정되어 무역금융혜택 및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프로 1. '93년도 이후 대통령 외국 순방시 약속사업 현황 및 정상추진 여부

1. 약속사업 현황

ㅇ '93년이후 대통령 외국 순방시 지원 약속된 프로젝트는 중국 북경 밀운저수지 수원보호림 조성, 한.몽 기술대학 지원사업등 13개국 26건임.

- '95년 남아공 대통령 및 중국 주석 방한시 약속: 2개사업 (13,000천불)

- '96년 베트남, 필리핀 및 중남미 6국 순방시 약속 : 9개사업(16,880천불)

- '97년 없음

- '98년 중국,베트남 순방시 약속 : 프로젝트 4개사업(2,660천불)

- '99년 몽골 순방시 약속 : 프로젝트 5개사업등(2,050천불)

- '00년 정상회담 : 중국 서부지역 조림지원사업(5,000천불) 등 6개사업(17,650천불)

- '01년 정상약속사업 : 없음

2. 추진상황

ㅇ 정상 약속사업중 한.중 직업훈련 지원 등 7개 사업은 종료되고, 14개 사업은 종료단계에 있거나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인니 IT센터 건립사업 등 5개 사업은 예산확보등 사업추진 준비 중에 있음.

<첨부> '93년이후 정상간 약속한 프로젝트 사업현황

'93년이후 정상간 약속한 프로젝트 사업현황

구 분	국가	사업명(기간/예산)	추 진 현 황
'95	남아공 (만델라대통령 방한시 약속)	직업기능검정센타 설립지원('97-2001/ 3,000천불)	o 2000년 양국간 약정체결. - 직업훈련 기자재 설치, 연수생초청 등 본사업 추진중
	중국(강택민 주석방한시약속)	직업훈련원건립지원 ('97-2000/10,000천불)	완료
'96	베트남(대통령 방배시 약속)	산업기술학교설립('97- 2001/5,000천불)	o '98년 양국간 약정체결 - 2001년도분 기자재 조달 등 본사업 추진중
		과학기술센타설립('97- 2001/2,880천불)	o '98년 양국간 약정체결 - 2001년도 전문가 파견 및 연수생초청 등 본사업 진 행중
('96 대통령 남미 순방시 약속)	필리핀(대통령 방필시 약속)	친선병원건립('99-2001/ 3,800천불)	o 2000년 양국간 약정체결 - 병원건축공사진행 및 기자재 조달중
	과테말라	청소년 복지원 및 직업훈련원건립('97-' 99/1,000천불)	완료
	온두라스	산업기술훈련원건립 ('97-'99/1,000천불)	완료
	니카라과	벽지농촌교사주택 건립('97-'99/1,000천불)	완료
	엘살바돌	농촌식수공급('97-'98/ 700천불)	완료
	코스타 리카	의료시설개선 및 직업훈련원지원('98-' 2000/500천불)	완료
	페루	식품기술훈련원건립('98 -2001/1,000천불)	o 건물완공, 기자재 설치등 완료단계

기간	국가	사업명(기간/예산)	추진현황
'98.11	중국 (방중 후속조치사업)	북경 밀운저수지 수원 보호림 조성사업 ('01-2003/1,000천불)	- '00. 4 사전타당성 조사 - '01. 3 R/D체결
		한.중 랑팡 시범농장 지원('99-2001/960천불)	- '99. 6 구상서 교환 - 연수생초청(9명) - 온실시공('00.10월)
'98.12	베트남 (방베 후속조치 사업)	증권거래소 설립지원 II('99-2000/200천불)	- '99. 7 구상서 교환 - 연수생초청(30명) 초청등 사업완료
		빈록지역병원 개보수 ('01-2002/500천불)	- '00. 3 기초조사 완료 - '01. 3 R/D체결
'99.5	몽골 (정상회담시 약속)	한.몽 기술대학 (2000 - '02/700천불)	- '99. 10 사전타당성 조사 - '00. 6 R/D 체결
		한.몽 한방병원 (2000 - '02/400천불)	- '99. 10 사전타당성 조사 - '00. 7 R/D 체결
		국립병리학 및 법의학 센터 (2000 - '03/400천불)	- '99. 10 사전타당성 조사 - '00. 7 R/D 체결
		혈액센터 (2001 - '02/300천불)	- '99. 10 사전타당성 조사 - '01. 3 R/D체결
		장기이식센터 (2001 - '02/250천불)	- '99. 10 사전타당성 조사 - '01. 3 R/D체결
'00.1.28	동티모르 (의장 방한중 약속)	국회의사당 건립 (2001-2003/2,650천불)	- 사업실시 협의중
'00.10	중국(중국 총리 방한시 약속)	서부지역 조림지원 ('01-'05/5000천불)	- '00. 4-10 사전타당성 조사 - '01. 3 R/D체결
	베트남 (ASEM정상회담시)	IT센타 건립지원 ('2002-'03/2500천불)	- 2002년 예산반영 추진중
	필리핀 (정상회담시 약속)	IT 센타 건립지원 (2002-2003/2500천불	- 2002년도 예산반영 추진중
'00.11	인도네시아 (정상회담시 약속)	IT 센타 건립지원 (2001-2003/2500천불	- '01.4 사전타당성 조사
	ASEAN + 3회의 약속 후속조치사업	국제백신 공동연구사업 (2002-2006/2,500천불)	- 2002년도 예산반영 추진중

프로 2. 사업추진 중단 및 지연사업에 대한 대책

1. 사업추진중단 및 지연 사유

ㅇ 프로젝트사업중 수원국과 합의서 체결시 수원국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으나, 수원국측의 사정으로 수원국 부담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중단 또는 지연되는 경우가 있음

2. 중단 사업사례

가. 개요

ㅇ 파라과이 농촌개발사업 및 팔레스타인 행정수반청사건립사업과 중국 흑룡강성 조선족사범학교 건립사업이 있으며, 그 중 파라과이 농촌개발사업은 수원국 부담분중 일부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팔레스타인 행정수반청사 건립사업과 중국 흑룡강성 조선족사범학교 건립사업은 수원국측 사정 및 사업비 미확보로 중단되고 있는 실정임.

나. 사업별 진행상황

(1) 파라과이 농촌개발사업('97-'98/800천불)

ㅇ 2000. 5월 1차로 토지 및 200천불을 확보하여 현재 인프라 시설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동 시설공사 진척 및 입주농가 선정후 육묘장건축등 우리측 부담사항을 지원하여 2002년 6월 말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음.

(2) 팔레스타인 행정수반청사 건립사업('96-'98/2,000천불)

ㅇ 수원국 부담분 : 1,350천불(내부시설공사비)

- 우리측 부담분인 청사 외부공사는 완료하였으나 팔측 부담분인 내부공사는 팔측 사정으로 중단됨. 팔측은 현재 동 청사를 영재 교육학교로 용도 변경을 검토중에 있음.(현재 팔측 사정으로 진전사항 파악이 어려움)

(3) 중국 흑룡강성 조선족사범학교 건립사업('96-'97/500천불)

ㅇ 동사업은 학교이전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3,050천불중 우리측에서 500천불, 중국측에서 2,550천불을 부담하는 건축공사임.

ㅇ 중국측은 현재까지 1,190천불을 투입(47%)하였으나 재원 미확보(부족액 1,380천불)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임.

ㅇ 흑룡강성 정부는 2000년 사업비로서 600천불을 지원키로 방침을 결정한 상태이나 조선족사범학교를 중심으로 소수민족학교 3개교를 합병중에 있어 동 계획 확정시까지는 건축공사가 보류중에 있으며 공사재개시기는 미정 상태임.

3. 대책

ㅇ 수원국 부담분 미확보로 사업이 중단된 근본적인 문제는 수원국 측에 있으며 아울러, 실시조건 협의시 수원국 사정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여 발생된 것임.

ㅇ 향후 사업발굴 및 사전조사 실시시 타당성조사를 충실히하고 중단된 사업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재외공관과 협의, 사업비를 확보토록 수원기관을 독려

프로 3. 프로젝트사업 사후관리 실태 및 대책

1. 사후관리 현황

○ '91-'00년까지 실시한 프로젝트 사업 141건중 약 90%인 129건의 사업이 종료 되었고, 종료사업중 24국 41개 사업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함

- '97년 114천불(15건), '98년 131천불(15건), '99년 202천불(19건) '00년 213천불(12건)

2. 사후관리 수요발생 요인

○ 보다 체계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수립하고자 사후관리 수요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본 바, 주요요인은 다음과 같음.

- 국산 기자재의 A/S 미비에 따라 현지에서 부품 및 소모품 구입이 불가능한 문제
- 현지 여건(기후, 전압등)에 부적합한 장비지원 문제
- 수원국의 기자재 운용관리 능력 부족과 의존태도

3. 사후관리 개선방안

○ 이에 따라 사후관리 개선방안을 수립 시행중에 있고,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음.

- 사전조사의 충실화와 사업계획 수립시 A/S 계획을 포함 수립
- 기자재 관리 능력 제고를 위해 기술지도 기간의 장기화
- 수원국의 의존태도를 버리고, 자립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정 사후관리 기한(3년)을 정함.
- 사업평가(종료평가, 사후평가)를 실시후, 결과를 반영

프로 4. 중국 황해 오염 및 환경문제를 위한 프로젝트 사례

1. 필요성

ㅇ 중국의 황해 오염등 환경문제는 인접국인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뿐만 아니라, 환경문제는 범지구적 관심사(Global Issue)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책임과 역할을 하기 위하여 협력단은 관심을 갖고 협력사업을 추진중임.

2. 중국 환경관련 프로젝트사업등 협력사례

ㅇ 연수생초청 사업(환경 관련)
- '98년도 : 해양오염방제등 4과정 41명
- '99년도 : 황해 환경조사등 6과정 23명
- '00년도 : 해양오염방제등 4과정 15명
- '01년도 계획 : 황해 해양환경조사등 4과정 24명

ㅇ 천진시 도시대기 분진 연구지원 사업(200천불/'96 - '97)
- 실험기자재 140천불, 연수생초청 5명, 전문가파견 3명

ㅇ 조림사업
- 북경 밀운 저수지 조림사업(1,000천불 : '01-'03)
- 중국 서부지역 조림사업(5,000천불 : '01-'05)

3. 향후계획

ㅇ 중국의 환경문제 해소는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되는 상호 호혜적인 협력분야이며, 또한 중국의 환경문제는 곧 우리의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방안을 강구할 예정임.

프로 5. 한.중 직업훈련 협력사업 현황

1. 사업개요

ㅇ 동 사업은 1995년 11월 중국 강택민주석 방한시 양국정상간 협의된바 있는 한.중 우호협력 차원의 공동협력 사업으로서 중국 노동부 취업훈련기술지도센터 건립에 대한 지원 사업임.

ㅇ 동 사업은 '97-2000년까지 4개년에 걸쳐 추진되고 있으며 총사업 규모는 18,500천불로 한국측은 직업훈련 기자재공여, 연수생초청 등에 10,000천불을 지원하였으며 중국측은 동 센터 건물건축 (12층/6,350㎡)등에 8,500천불을 부담하였음.

2. 사업추진 현황

ㅇ 2000년 12월 개원한 동 센터는 11월 건축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한국측이 지원한 약 7,700천불의 상당의 직업훈련 및 기능검정 장비등이 설치되고 있으며 직업훈련 및 기능검정분야 전문가등 이동 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였음.

ㅇ 또한 동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97년 10월부터 수석자문관을 현지에 파견하여 동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였음.

3. 사업효과

ㅇ 동사업은 양국간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양국간 협력 관계 기반구축 조성에 기대

ㅇ 직업훈련 제도 및 운영관련 전문가파견, 공동연수등을 통해 직업훈련분야에 대한 양국간 기술적, 인적 교류 기회 구축

ㅇ 우수기자재 지원을 통한 아국제품의 대중국 홍보 및 수출기반 조성 기대

프로 6. 한.베 산업기술학교 지원현황

1. 사업개요

○ 동사업은 1996년 11월 대통령 방베시 양국정상간 합의된 바 있는 한.베 우호협력 차원의 공동협력 사업으로 네안성 빈시에 한.베 산업기술학교를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임.

○ 동사업은 '97~2001년까지 5개년에 걸쳐 추진되고 있으며 총사업규모는 8,080천불로 한국측은 학교건축, 기자재공여, 연수생초청, 전문가파견,교재개발등에 5,000천불을 지원하고 있으며 베트남측은 학교건축부지,기초공사등에 3,080천불을 부담하고 있음.

2. 사업추진 현황

○ '00년 12월 개원한 동학교는 '99년 9월 착공, 약1년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2000년 10월 완공과 함께 한국측이 지원한 약 1,650천불 상당의 직업훈련 장비등이 설치.운영중에 있음.

○ 또한 동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2000년 8월 각공과별 전문가 6명이 현지 파견되어 기자재설치지원 및 공과별 교육훈련에 대한 자문을 실시중에 있음.

3. 기대효과

- ㅇ 동사업은 양국간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양국간 협력관계 기반구축 조성

- ㅇ 전문기능인력 양성지원을 통해 베트남 인력개발 및 경제발전에 기여

- ㅇ 베트남 청소년들에게 직업훈련 기회제공 및 우리 투자기업의 인력 공급처로 활용

- ㅇ 직업훈련 장비 및 교재지원을 통한 국산장비 및 아국 직업훈련 프로그램 수출효과 기대

- ㅇ 호치민의 출생지(네안성 빈시)에 추진되는 사업으로 한.베 우호관계 구축의 상징성 제고 효과

1. NGO 개념 및 지원 필요성

1. 개 념

ㅇ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는 일반적으로 정부 또는 정부간 협정에 의해 설립되지 않은 비정부조직을 의미함.

ㅇ 협력단에서는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영리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원조단체(NGO)를 비정부조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한해 보조금을 지원함.

- 2001. 7월 현재 37개 단체가 협력단에 NGO로 등록

2. 지원 필요성

ㅇ 정부차원의 협력사업을 상호 보완하여 국제협력의 시너지효과 제고

- 정부차원의 협력사업보다 민간차원의 협력을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실질적 혜택이 다수 기층주민에 돌아가는 사업 (빈민층 주민을 위한 병원<단기의료봉사 포함>, 학교, 소득증대 사업 등)
- 오지, 분쟁지역으로 정부차원의 협력사업 실시가 곤란한 지역, 국가에 대한 지원에 NGO 활용

ㅇ 후원자, 자원봉사자 등 다수 국민이 참여하는 NGO 사업을 통해 국제협력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ㅇ 국내 NGO의 예산 및 조직규모의 영세성과 행정능력 취약으로 정부차원의 지원 및 지도 필요

2. NGO 사업의 기대효과

1. NGO 사업은 정부의 원조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원조활동이 수행됨으로써 사업성과가 주민에게 직접 전달되는 효과가 있음. (정부차원의 협력사업 보완)

2. NGO 사업은 일반시민의 후원금과 자발적인 봉사·박애정신을 바탕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NGO를 통해 개도국 원조사업에 대한 국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국민의 이해와 지지기반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음.
   ㅇ KOICA 등록 37개 NGO 상근직원 5,064명, 회원 820만명 상회

3. 협력단은 '95 NGO 사업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제한된 예산에도 불구하고 가급적 많은 단체에 지원하였으며, 특히 정부협력사업이 활발치 못한 국가 (인도 등) 및 해외동포 밀접지역 등에 대한 지원에 적절히 활용하고 있음.

<'98~2001 해외동포 지원실적>

'98	'99	'00	'01
① 중국연변 기생충관리 사업(25백만원) ② 중국 연변조선족수질 환경개선(15백만원) ③ 중국 단동사범대지원 (5백만원) ④ 키르키즈 한방의료 봉사(20백만원)	①중국조선족 수질 환경개선 (15백만원) ②한중 기생충관리 사업(30백만원)	①우즈베키스탄 의료봉사 사업(20백만원) ②연변 여명농민대 농업교육훈련지원 (20백만원) ③연변 인구, 생식 보건기술전수 (30백만원)	① 우즈베키스탄 칼라칼팍스탄한방해외의료봉사 (40백만원) ② 중국 연변 조선족 수질환경개선(20백만원) ③ 중국 연변조선족 인구.생식 보건기술전수 (37백만원) ④ 중국 연변지역 농촌개발 사업(20백만원)
4건 65백만원 (NGO 예산의 20.3%)	2건 45백만원 (NGO예산의10.8%)	3건 70백만원 (NGO예산의11.5%)	4건 117백만원 (NGO 예산의 8.9%)

3. NGO 지원보조금 및 사업현장 관리체계

□ 지원보조금

NGO사업 지원 보조금은 타목적에 유용되지 않도록 보조금 2회 분할 지급 및 2회 정산과정을 통해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1. 보조금을 2회로 분활하여 지급
   - 1차보조금(50%) : 약정체결후 현지 사업착수 확인후 지급
   - 2차보조금(50%) : 1차보조금 집행결과(6월말 기준)를 점검후 지급
     다만, 1개월 미만 단기사업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시 전액 지급

2. 사업 추진상황을 매분기별 점검하고 중간 및 결과 보고서 제출시 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

3. 총사업비 집행액이 약정체결액보다 축소된 경우 축소비율만큼 KOICA 지원금을 반납토록 조치

4. 연간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가 차년도 사업선정시 반영되므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각 NGO는 신뢰 제고와 사업지속을 위해 당초 사업목적에 맞추어 집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사업현장

주재공관 및 KOICA 해외사무소를 통해 NGO 사업장에 대한 현장관리를 하고 있으며 '97년부터 매년 1회 이상 현지점검출장을 실시하고 있는 바, 금년부터 현지실사·평가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음.

인사 1. 경영혁신 주요내용

1. 개 요

○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 및 경영혁신방침에 적극 부응하여 '96년 말부터 자율적으로 과감한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옴.

2. 주요 내용

가. 직제 및 인원 축소

○ 직제정원을 '98.6월 250명에서 현재 203명으로 축소(△18.8%)

- 경영혁신 목표 인력 : 186명
- 현원 : 169명(17명 과부족)

※ '98년도에는 총44명의 명예퇴직(18명) 및 조기퇴직(26명) 실시

연 도	'97년말	'98년말	'99년말	'00년말	'00년말
직제정원	250	205	203	203	203
현 원	243	181	177	173	169

나. 인건비 삭감

○ '97년부터 '99년간 기본급을 동결하고, 가계보조비, 장기근속수당, 대학생 학자금 지원 등 각종 보조금을 폐지함.

다. 조직운영의 합리화

○ 31개과를 16개팀으로 개편 축소하고('98년말), 관리직 비율을 33%(59명)에서 18%(30명)로 축소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3개 해외사무소(네팔, 카자흐스탄, 휘지)를 폐지하여 해외파견인력을 11명(42%) 감축함.

ㅇ 협력단 산하기관인 교류단지관리사무소를 정부의 경영혁신 방침에 의거 '00.6.30에 폐지하였음.

라. 퇴직금 누진제 폐지

ㅇ 정부의 출연기관 퇴직금 누진제 폐지 방침에 부응하기 위하여 노사합의로 '99.1.1부로 퇴직금 누진제를 전면 폐지하여 퇴직금 예산 절감효과가 기대됨.

3. 향후 추진방안

ㅇ 지속적인 인력구조 개선방침을 수립하여 조직의 생산성 향상 및 조직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임.

- 상위 관리인력을 축소하고 전문성과 능력 중시의 조직문화를 형성해 나갈 예정임.

ㅇ 또한 공개경쟁채용을 통한 우수 신입직원을 지속적으로 충원하고,

ㅇ 명예퇴직제도를 활성화하여 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해 나갈 예정임.

인사 2. 효율적 사업수행위한 적정인력 확보방안

1. 국제협력사업 수행 여건

○ '91년4월 협력단 설립이후 지난 10년간 협력사업규모는 190% (174→505억원) 증가함.

○ 또한 사업의 질적수준이 향상되고 및 사업의 전문성이 점차 요구되어, 개도국 정보격차 해소, 인적자원개발, 범세계적 이슈등을 다루는 국제협력 전문인력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2. 협력단 인력현황

가. 사업량 증가에 비해 인력부족 심각

○ 협력단 설립당시에 비교하여 사업규모는 190% 증가하여, 직원 1인당 사업량은 293% 증가하였으나 인력은 27% ('91년말 230명→'01년7월말 169명) 감소함.

- 직제정원(203명)과 비교시 34명(17%) 부족
- '98년 경영혁신 목표인력 186명과 비교시 17명(9%) 부족

○ '96~'99년간 직원 채용이 실시되지 않았으며, 직원 이직률도 최근에 급증('00년 6.2%)하여 인력부족이 심각한 실정임.

연 도	'91	'95	'96	'97	'98	'99	'00	'01
인원(명)	**230**	**256**	**248**	**243**	**181**	**177**	**173**	**169**
이직율(%)		6.5	2.7	4.4	22.2	2.2	6.2	2.3

○ 최근 3개년간 이직률이 높은 것은 IMF 위기시 인력구조조정이 주요 원인이나, '97~'00년간 이후 임금동결 등 근무여건이 저하되어 하위직급 직원의 퇴직이 급증하였음.

- 국내에는 협력단이 유일한 국제협력 사업기관으로서 사업의 노하우 축적을 위한 인력 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을 감안, 이직율 발생은 기관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야기함.

○ 반면에 협력단 사업규모가 급증하면서 사업형태도 전문화, 다양화되어 국제협력 전문인력 확보가 어느때보다 절실한 때임.

나. 문제점

○ 인력 충원이 불가할 경우 개도국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IT(정보기술) 협력사업 및 HRD(인적자원개발) 등 정부 공약사업 수행에 차질이 우려되며, 21세기 국가전략사업인 국제협력사업의 질적 향상 기대도 어려운 실정임.

- 인력 수급이 적절히 이루워지지 않을 경우 현재의 협력단 인력 구조상 5년이후 심각한 인력 부족현상 초래 예상

3. 적정인력 확보방안

가. 사업량 증대에 따른 신규인력 충원

○ 현재 확대되고 있는 사업량으로 보아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점진적으로 직제정원(203명) 수준으로 인력을 확대하는 것이 긴요함.

나. 인건비등 처우 개선

○ 적정 규모의 인력 유지 및 전문인력 확충 위해 인건비 인상필요

- 우리의 대개도국 진출유망 분야인 IT(정보기술)분야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등을 통해 조직의 전문성 및 위상을 제고함으로써 유능한 인재 유치 여건 조성

○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협력단 인건비를 점진적으로 개선 추진

- 관계부처의 국제협력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필요

인사 3. 하위직급의 높은 이직율에 대한 대책

1. 최근 이직현황

ㅇ 협력단 직원의 이직율은 '99년 2.2%, '00년 6.2%, '01.7월현재 2.3%이며 특히 최근 하위직급의 이직율이 상당히 높음.

- '99년이후 퇴직자 19명중 4급이하 직원이 13명(4급2명, 5급 11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68%을 점유함.
- 특히, '95년도 입사직원의 경우, 총 24명중 19명(80%)이 퇴직함.

연 도	'91	'95	'96	'97	'98	'99	'00	'01.7
인원 (명)	230	256	248	243	181	177	173	169
이직율(%)		6.5	2.7	4.4	22.2	2.2	6.2	2.3

ㅇ 협력단 설립이후 총 152명이 퇴직하고 신규공채인원(120명/기능직 포함)의 52%가 퇴직함.

2. 주요 이직사유

ㅇ 하위직급의 경우 토익점수 고득점자 및 우수학교 출신자의 경우 이들에 적정한 수준의 대우 및 근무의욕 고취가 뒷받침 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해외현장근무기회가 입사전에 기대했던 것보다 적고, 타 유사 기관 또는 대기업 상사 등과 비교시 협력단의 근무 조건이 열악하여 하위직급의 이직률을 높이게 되었음.

3. 대 책

ㅇ 직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해 적정한 수준의 인건비 인상 등 대책 강구 필요

ㅇ 능력과 실적중시의 임금체계 확립 및 인사제도 정착
- 연공서열보다는 직원능력 및 업무성과에 따른 성과급제 확립

ㅇ 협력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제도 활성화 및 보직관리 개선
- 국제협력업무와 관련된 직무향상을 위해 직급별 적정 실무교육 기회 제공 및 연수 확대실시
- 개인별 경력관리시스템에 따른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

4. 향후추진계획

ㅇ 우리나라의 경제가 호전되어 협력사업이 확대되면, 협력단 조직 및 인원의 보강이 긴요하고 고급인력 확보 및 전문교육 실시가 필요함.

ㅇ 이를 위하여 국제협력사업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관계부처와의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협력사업 확대 및 인건비를 점진적으로 개선시켜 나가고,

ㅇ 적정 임금체계 마련을 통하여 우수인력의 이직율을 감소시켜 나가며,

ㅇ 국제협력사업량의 증대에 대비하여 가능한 범위내에서 매년 신입직원 채용을 통한 전문인력 확보에 주력할 방침임.

회계서무 1. 제일은행 협력단지점에 자금 예치 사유

1. 협력단 지점 설립배경

ㅇ 제일은행 돈암동지점에서 1991.10.22 단내에 출장소 설치를 요청함에 따라 이를 계기로 지점 설치를 검토하였으며,

- 검토은행 : 제일, 상업, 한미, 한일은행
- 선정기준 : 재무상태, 점포수, 직원에 대한 편의제공 등
- 설치확정(1992.1.10) : 1992년 당시 제일은행은 시중은행 가운데 상위권에 속하는 우량은행으로 점포수도 검토은행 중 최다보유하고 서비스 수준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단내에 지점 설치를 승인함. (설치일자 : 1992. 6.19)

2. 안전성 판단 자료 (타은행과의 각종 지표비교)

제일은행은 자기자본비율, 총자산수익율, 자기자본이익율에 있어서 ①위를 나타내고 있음.

(단위 : 억원, %)

구분	자기자본비율 (안전성)	무수익여신 (안전성)	총자산이익률 (수익성)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제일은행	① 13.40	③ 10,896	① 1.25	① 26.77
국민은행	③ 11.18	⑤ 23,488	② 0.98	③ 17.46
주택은행	⑤ 9.92	④ 15,124	③ 0.97	② 22.56
하나은행	④ 10.45	② 10,113	⑤ 0.15	⑤ 3.22
신한은행	② 12.30	① 6,835	④ 0.76	④ 11.26

※자료 : 금융감독원 (2001.3.31현재)

3. 예금 집중 사유

ㅇ 제일은행은 자기자본비율이나 총자산이익율, 자기자본이익율 등 수익성이나 안정성이 타 금융기관에 비하여 양호하며, 예금이자률의 우대(타은행에 비해 0.2% 높음), 타행 송금수수료 및 외환송금수수료와 전신료 감면 등의 혜택과 대외협력사업에

따른 신속한 외환송금지원등을 위하여 협력단내 지점을 설치하게 됨에 따라 협력단의 운영자금을 예치하고 있음.

4. 안전성 확인조치

ㅇ 제일은행이 뉴브리지캐피탈에 매각(1999.12.23)되면서 재무구조가 건실해졌고, 또한 정부의 공적자금투입에 따라서 동 은행의 안정성을 확인 (2000.2.24)

- 무디스사가 제일은행 신용등급 2단계 상향 조정('00.10.12)함.

ㅇ 뉴브리지캐피탈이 동 은행지분의 51%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권 2차 구조조정과는 관련이 없음을 확인 (2000.5.23)

ㅇ 2001년 3월말 기준, 시중 우량은행과의 안전성 및 수익성 등을 비교·검토한 결과, 제일은행이 자기자본비율, 총자산 이익율, 자기자본이익율 등이 제일 우수한 것으로 확인됨 (2001.6.27).

ㅇ 2001년 1/4분기는 흑자 982억원으로 우량은행으로 변모

ㅇ 따라서 예치자금의 안정성, 수익성 등을 감안해 볼 때, 제일은행이 여타 은행보다 건실하다고 판단되어서 동 은행 협력단지점에 운영자금을 예치하고 있음.

ㅇ 또한, 매월말 잔액증명서를 징구하여 잔액을 확인하고, 담당직원에 대한 주의 환기 등 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회계서무 2. 시설공사 및 물품구매 수의계약 현황

□ 수의계약 내역

○ 협력단 회계규정에 의하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소액 금액(3,000만원 이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하고 있음.

○ 2001. 7.31현재 입찰대상 건수는 1건 인바,

- 노후화된 사무용 비품을 교체하기 위하여 회계규정 제51조에 의거 서울시가구공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함.

○ 2000년도는 입찰대상 2건을 수의계약하였는 바,

- 조달청에서 컴퓨터를 구매하였으며,

- 대우자동차에서 초청연수생 수송을 위한 버스를 구매함.
  < 자동차 3개사의 사양과 가격을 비교하여 가용 예산과 외국인 탑승에 적합하고 좌석이 안락한 고급고속 수준인 차종을 구매하기 위함>

○ 1999년도에는 입찰대상 건수 4건 중 2건은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며, 2건은 수의계약함.

- 공익법인인 KBS영상사업단과 홍보물제작을 위하여,

- 그리고, 노후된 보일러 교체를 위하여 보일러협동조합 수의계약함.

정보지원 1. 협력단 정보화 현황은

1. 정보화 현황

○ '98년까지 인사, 보수, 예산 등 부분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한 후, '98.6월에 정보지원팀을 신설하고 체계적인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해 국제협력정보화 중장기발전계획(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본격적인 정보화를 착수하였음.

○ 동 마스터플랜은 1999~2002년간 4개년 계획으로서 "국제협력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국제협력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협력단의 국제경쟁력확보**"가 목적임.

○ 현재까지 마스터플랜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작업의 일환으로

- **인사, 보수, 회계, 예산, 자산, 조달, 연수생초청, 봉사단파견사업**관리업무를 전산화하였으며, 인터넷상에서 운영되는 협력실적 통계프로그램을 개발하였음.

- 또한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하여 업무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자료를 공유, 활용하므로써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음.

2. 향후계획

○ 금년 10월까지 **전문가파견사업, 개발조사사업, 프로젝트형사업, 물자공여사업, NGO지원사업, 해외사무소관리, 사업평가 및 감사 관련업무**를 전산화 할 계획이며,

o 또한 협력사업부문과 일반관리 부문을 연계시켜 정보를 공유하므로써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수행 기반을 조성하고 대국민정보제공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제협력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임.

정보지원 2. 협력단 정보화 수준은

1. 정보화 수준 현황

○ 협력단이 지난해 8월 자체적으로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등과 정보화 수준을 비교해 본 결과,
- 홈페이지 보유,
- 전자결재 실시,
- 대국민 정보서비스 제공현황 등의 측면에서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 2000. 5월 협력단 임직원 정보화 수준을 조사한 결과, 임직원중 97%가 일반적인 업무처리에 필요한 기초 전산 능력(Excel, 한글워드, 전자결재프로그램, 인터넷 정보검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임직원의 정보화 수준도 양호한 실정임.

2. 향후계획

○ 2004년까지 국제협력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체계적으로 완료하여 일반 국민에게 협력사업을 홍보하고 업무수행과정에서 획득한 개도국에 대한 협력정보를 보다 다양하게 제공해 나갈 계획임.

○ 또한 임직원의 정보화 능력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임.

정보지원 3.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대국민 정보서비스 제공 현황은

1.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서비스 제공현황

○ 협력단은 '98. 9월부터 국민들의 국제협력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수생초청사업, 봉사단 파견사업 등 협력단이 수행중인 사업에 대한 내용 및 사업소식을 비롯하여 경영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고 있으며,

○ 아울러 홈페이지에서 해외봉사단 파견과 관련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KOV마당을 별도로 운영하고 분야별 전문인력을 수시로 접수하는 한편, 협력단 운영, 개발협력정보 및 입찰공고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므로써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음.

○ 또한 국제협력사업의 홍보효과 및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협력사업 현장사진 중심으로 Photo Bank를 신설하여 운영중임.

○ 최근까지 분기당 약 2만명, 일평균 200명 이상이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있으며, 대국민 국제협력 정보제공 및 국제협력 참여 창구로 활용되고 있음.

2. 향후계획

○ 홈페이지가 국제협력 참여창구 및 대국민 홍보의 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자료를 갱신해 나가고 협력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임.

기획조정 1. 우리나라의 ODA규모

○ 우리나라의 2000년도 ODA규모는 GNP대비 **0.046%**인 **212백만불**로 '99년 (317백만불) 대비 33% 감소

※ '99년도에는 한국은행의 IBRD, IDA에 대한 특별증자금 126백만불 지원으로 ODA 규모가 대폭 늘어남.

※ GNP규모: '99년 4,021억불, '00년 4,552억불

○ DAC회원국 평균 ODA/GNP비율은 **0.22%**('00)이며, UN의 권고 기준은 **0.7%**임.

《참고1: OECD-DAC회원국과 우리나라의 ODA규모('00) 비교》

구분	DAC회원국	일본	미국	네덜란드	스페인	호주	한국
ODA규모(백만불)	53,058	13,062	9,581	3,075	1,321	995	**212**
ODA/GNP(%)	0.22	0.27	0.10	0.82	0.24	0.27	**0.047**
1인당 부담액($)	64	103	35	94	34	52	**4.5**

※ 네덜란드, 스페인, 호주는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국가임

《 참고2 : 우리나라의 연도별 ODA 실적 추이 》

(단위:백만불)

구 분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ODA총계 (증가율,%)	57.5 (-)	76.8 (33.6)	111.6 (45.3)	140.2 (25.7)	116.0 (△17.3)	159.2 (37.2)	185.6 (13.8)	182.7 (△1.6)	317.5 (73.8)	212.1 (△33.2)
○ 양자간협력	31.5	45.2	60.1	60.1	71.5	123.3	111.3	124.7	131.3	131.2
-무상원조	25.0	31.0	32.7	38.5	50.1	53.4	54.8	37.2	38.9	47.8
-유상원조	6.5	14.2	27.4	21.6	21.4	69.9	56.5	87.5	92.4	83.4
○ 다자간협력	26.0	31.6	51.4	80.5	44.5	35.8	74.3	58.0	186.2	80.9
ODA/GNP(%)	0.02	0.03	0.03	0.04	0.03	0.03	0.04	0.058	0.079	0.047

기획조정 2. 협력단의 북한 지원에 대한 입장

○ 협력단은 북한이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로하는 인적자원개발, 재난 구호 및 식량원조 등 각종 협력사업에 다양한 know-how를 가지고 있음.

○ 따라서 정부가 협력단을 통한 북한 지원 방침을 정하고 관련 법규 마련과 함께 별도 예산을 조치 해 줄 경우 저희 협력단은 북한을 지원을 할 용의가 있음.

기획조정 3. 협력효과 제고 및 지역별 협력전략

1. 협력효과 제고 방안

○ 우리나라의 협력사업은 소규모로 다수국(130여개 개도국)에 지원되어 재원의 효율적 활용에 문제점이 있었음.

○ 협력단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별원조전략을 수립**(10개 국가/'98.9월), **대상국별 지원규모 및 사업형태를 차별화**하는 등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중점협력국에 대한 원조비중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임.

- 10대 수원국 원조비중은 '91년 20.3%에서 '00년 51.7%로 확대

《 참고 : 10대 수원국에 대한 원조 추이 》

(단위 : 천불)

구분	'91	'99	'00
총 원조규모 (A)	22,840 (120국 8기구)	37,930 (128국 12기구)	45,351 (133국 11기구)
10대중점국(B) (B/A)	4,639 (20.3%)	18,508 (48.8%)	23,433 (51.7%)
10대 수원국	몽골, 니카라과, 필리핀, 스리랑카, 니제르, 이디오피아, 인니, 코트디브와르, 중앙아	베트남, 중국, 인니, 스리랑카, 카자흐, 몽골, 이디오피아, 네팔, 우즈벡, 이집트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니, 남아공, 페루, 몽골, 카자흐스탄, 네팔, 스리랑카

2. 지역별 중점 협력방향

○ 지리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어 협력효과가 큰 **아주(특히 ASEAN국가) 지역을 중점 지원함.**

○ 기타 지역은 협력효과와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물자지원 또는 HRD 분야를 조화롭게 지원해 나가고 있음.

기획조정 4. 협력사업의 국별 배분기준

1. 국별배분 기본방향

○ 수원국과 우리나라와의 정치·경제적 관계, 수원국의 국력 및 성장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도국을 수개 국가군으로 분류하여 각군에 따라 원조규모 결정

2. 국별 원조규모 결정 고려요인

○ **정치외교적** 고려 : 지리적 인접성(아태지역), 기존우방국가, 동포 밀집지역, 국제평화정착 관련지역(예 : PA), 시장경제 이행지역, 대통령 방문국 등 특별사항이 포함됨.

○ **경제적** 고려 : 우리나라와의 실질적인 경제관계에 있어서의 중요성을 평가 하는 항목으로 무역 및 투자 실적, 자원협력 실적등이 포함됨.

○ **인도주의적** 고려 : OECD의 DAC에서 분류한 최빈국(LLDC) 등 생활환경 고려

○ 우리의 개발경험 흡수능력이 있는 국가

3. 금년도 중점협력 대상국

○ 베트남, 필리핀, 중국, 인도네시아, 몽골, 스리랑카, 네팔, 이집트,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등

기획조정 5. 사업선정 절차 및 기준
- 개발조사, 프로젝트사업 -

○ 협력단은 지원대상사업 선정시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사업선정위원회의 심의 및 정부관계 부처와 협의 과정등을 거쳐 사업을 선정함으로써 사업선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음.

○ 공관 및 정부부처로부터 요청받은 협력사업은 우선 관계 전문가에 의뢰하여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케하고, 이를 기초로 사업선정위원회에서 1차로 사전조사 실시 대상사업을 선정하게됨.

○ 사전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협력단 담당 직원으로 구성된 사전조사팀을 대상국에 파견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외교부와 협의하여 지원 후보사업을 2차로 선정하게됨.

○ 선정된 후보사업은 차년도 예산 요구시에 반영(예산처와 협의)하고, 예산에 반영되면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사업을 시행하게됨.

《 참고1 : 사업선정 절차 》

■ 수요요청서 접수→사업부서 검토→사업선정위원회 심의(1차후보사업 선정)→사전조사단파견→외교부와 협의(최종 후보사업 선정)→차년도 예산에 반영→사업계획 외교부장관승인→사업 시행

《 참고2 : 사업선정시 주요 고려사항 》

■ 해당국가와 **상호 호혜적인 이익증진**이 수반될 수 있는 사업
■ 정부차원에서 약속된 사업 및 재외공관장이 추천하는 사업 우선 고려
■ 수원국의 **원조수용능력** 및 사업종료후 지속적인 **사업관리능력** 고려
■ 기술협력 등 **타 협력수단과의 연계** 가능여부 고려
■ 기타 양국간 정치, 경제, 문화 및 역사적인 특수관계 등 감안

《 참고3 : 선정시 평가항목 》

■ 수원국의 개발우선순위, 사업대상지의 적정성, 지원물자의 국산화 가능비율, 사업규모의 적정성, 수원국 부담사항의 적정성, 지원필요성 및 기대효과 등을 고려

기획조정 6. OECD/DAC 가입 필요여부

1. 가입의 의의

ㅇ OECD 회원국으로서 DAC 가입은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것으로서 국제사회에서 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

-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국력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제적 신인도 제고
- 또한, 원조사업에 대해 회원국들과 정보교류 및 공동프로젝트를 실시하는 등 **선진국의 원조경험과 노하우 습득**이 용이하여 보다 효율적인 원조수행이 가능함.

2. 가입에 따른 ODA규모

ㅇ 그러나, DAC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2000년말 현재 GNP대비 **0.047%** 수준인 ODA 규모를 DAC 회원국 최저수준인 **0.1%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DAC 회원국의 ODA/GNP 비율은 22개 회원국의 평균 0.22%이며, 덴마크가 1.06%로 가장 높은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이 0.1%로 최저수준임.

ㅇ 우리나라의 DAC 가입은 ODA 규모가 GNP 대비 0.1%를 넘어서는 시점에서 현실적인 검토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현재 DAC의 정기 회의에 옵서버로 참여하는 등 DAC 회원국들의 동향 및 정보를 미리 파악하는 등 준비중임.

※ 현재 OECD 가입국이나 DAC 비회원국인 멕시코, 터키등도 DAC 가입을 검토중이고, DAC 사무국도 우리나라의 DAC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실정임.

《 참고1 : 우리나라의 연도별 ODA 실적 추이 》

(단위:백만불)

구 분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ODA총계 (증가율,%)	57.5 (-)	76.8 (33.6)	111.6 (45.3)	140.2 (25.7)	116.0 (△17.3)	159.2 (37.2)	185.6 (13.8)	182.7 (△1.6)	317.5 (73.8)	212.1 (△33.2)
ODA/GNP(%)	0.02	0.03	0.03	0.04	0.03	0.03	0.04	0.058	0.079	0.047

《 참고2 : OECD/DAC(개발원조위원회) 개요 》

□ **회원국 현황** : OECD 회원국 29개국중 22국이 DAC 회원국(EU 제외)

ㅇ OECD/DAC 회원국중 멕시코, 아이슬랜드, 체코, 터키, 폴란드, 한국, 헝가리는 비회원국(7국)/IMF, IBRD, UNDP는 옵저버임.

□ **역 할** : OECD 24개 위원회중 하나로 회원국의 원조정책에 대한 심사를 통해 회원국에 효율적인 정책권고 및 범세계적인 이슈, 기술협력, 평가등에 대한 광범위한 원조정책 권고 및 결의사항 제정

기획조정 7. 재외동포 지원에 있어서 재외동포재단과의 업무중복성 여부

1. 재외동포 거주지역에 대한 지원 현황

○ 협력단은 중국 조선족 및 CIS지역 고려인등 개도국내 동포거주지역에 대한 지원을 실시해오고 있음.

2. 재외동포재단과의 업무중복성 여부

○ 협력단과 재외동포재단의 재외동포 지원사업은 **사업의 근본취지나 목적등이 서로 상이**함.

- 협력단은 개도국과 우리나라와의 우호협력증진을 위한 **개발원조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반면, 재외동포재단은 동포의 민족적 유대감 유지, 동포사회발전 및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협력단은 **개도국 정부에서 요청**해올 경우 동포거주지역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 실시하고 있으나, 재외동포재단과 같이 직접 우리 동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님.

- 또한, 재외동포재단은 일본, 미국등 전세계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협력단은 **중국 조선족 및 CIS지역 고려인**등 개도국내 동포거주지역에 대해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중국조선족 200만명,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고려인 49만명으로 추정

- 사업내역도 협력단은 연수생초청, 한국학교수 및 한의사 파견, 학교건립 및 교육기자재 지원등인 반면, 재외동포재단은 동포단체 지원, 동포초청, 한인행사 및 한글학교 지원 등임.

○ 이와 같은 점을 고려시, 협력단과 재외동포재단의 사업은 중복이라기 보다는 **상호 보완적** 역할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바, 사업 추진시 재외동포재단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임.

기획조정 8. 한국어분야 지원에 있어서 국제교류재단과의 업무 중복성 여부

1. 한국어 분야 지원실적('91-'00)

ㅇ 협력단은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어분야 지원도 일부 실시하고 있음. 그간 동 분야에 대한 지원실적을 보면

- 개도국의 관계자를 국내로 초청, 한국어 연수 : 313명
- 한국어분야 봉사단 파견 : 21개국 270명
- 개도국내 한국어관련 학과 설치대학에 전문가파견 : 5개국 10명
- 한국어센터건립지원등 프로젝트사업 : 5개국 9개사업

2. 국제교류재단과의 업무중복성 여부

ㅇ 협력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국어분야 지원사업은, 교류재단의 사업과는 사업의 근본취지나 그 성격이 상이함.

ㅇ 협력단은 **개도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의 일환**으로 한국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개도국 공무원을 위주로 실용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반면

- **교류재단**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한국학 진흥.보급 및 학술교류 등의 각종 학술교류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ㅇ 사업 실시에 있어서도 협력단의 사업은 우리정부와 개도국 정부간에 실시되는 **정부간 협력사업**이나,

- **교류재단**은 상대국정부를 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선진국의 한국학 관련연구소 및 단체, 대학 등 **민간기관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공적개발원조(ODA)로 실시하고 있는 협력단의 한국어 분야 지원사업은 교류재단사업과 중복이라기 보다는 **상호 보완적** 역할 관계에 있음.

기획조정 9. 2002년도 예산요구 및 반영 현황

1. 예산요구 및 반영 현황

○ 2002년도 예산은 우리나라 경제회복 수준을 감안하여 **816억원**을 요구하였으나, 기획예산처 심의결과(8.30 현재) 2001년 대비 **8.9% 증가**된 **616억원(47백만불)**으로 조정됨.

- 협력사업비는 556억원으로 2001년 505억원 대비 **10%** 증가
  ※ 미화기준으로는 42.7백만불로 2000년 46백만불 대비 7.2% 감소
- 인건비, 경상운영비는 미심의(출연기관 공통기준을 적용 예정)

2. 적정성 여부

○ 개도국은 우리나라 총 교역량의 50%, 전체 무역흑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경제·통상 협력 파트너로서 개도국과의 통상투자 협력확대를 위한 필수 수단으로 ODA 사업 확대가 긴요함.

※ 우리나라는 개도국으로부터 '98년 328억불(전체 무역흑자의 84%), '99년 221억불(93%), 2000년 107억불(91%)의 무역흑자를 시현

○ 아울러, 최근 우리나라 외환위기가 극복되었음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ODA규모 축소시 우리의 대외 신뢰도 저해가 우려됨.

○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부응하는 역할수행과 대외신뢰도 제고를 위해 2002년도 협력사업비는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에 '97년 수준(5천6백만불)으로 회복이 긴요함.

- 대외규모로 인식되고 있는 미화기준으로 보면 내년 협력사업비는 **42.7백만불**로 '97년 56백만불 대비 **76%** 수준에 그침.

○ OECD회원국('96.12 가입)으로서 향후 DAC가입에 대비, 2005년까지 ODA/GNP비율 **0.1%**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협력단 예산의 단계적 확대가 긴요함.

기획조정 10. 협력사업비 증액 필요성

1. 현황 및 문제점

가. 국제사회로부터 우리의 역할증대 요청

○ 많은 개발도상국은 우리의 개발경험을 자신들의 발전 모델로 간주하고 우리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

- 개도국의 요청대비 우리의 수용능력은 25% 수준에 불과

나. 우리 원조의 상대적 규모

○ 우리나라의 2000년 ODA 규모는 GNP 대비 0.047%(212백만불)수준으로서 OECD/DAC 회원국 평균 0.22%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

- 우리 나라와 경제력이 비슷한 네덜란드의 0.82%(30.8억불), 호주 0.27%(9.9억불), 스페인 0.24%(13.2억불) 및 덴마크의 1.06%(16.6억불), 그리스 0.19%(2.2억불), 포루투갈 0.26%(2.6억불)에 비해서도 훨씬 낮은 수준

2. 무상협력사업비의 증액 필요성

가. 외교·통상등 협력파트너로서 개도국의 중요성 증대

○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감안, 개도국과의 우호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경제적 실리 확보**

- 우리나라 전체 무역흑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개도국과의 통상마찰을 완화하고 교역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ODA사업을 적극활용 필요

※ 우리나라는 개도국과의 교역에서 '99년 222억불(총 무역흑자의 93%), 2000년도 107억불(총 무역흑자의 91%)의 무역흑자를 기록

○ 정상간 혹은 정부간 외교 및 통상활동을 측면 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 제고 및 국익 실현**

- 인구, 보건, 환경, 여성개발 등 범세계적 문제해결에 대한 기여와 홍수, 지진 등 재난피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통해 국가 이미지 개선

※ 무상원조자금은 주로 원조공여국의 기술 및 행정인력 투입, 공여국의 물자와 용역의 제공을 통해서 실시되기 때문에 원조자금의 절대액이 공여국측으로 환류

- 직접효과: UNDP 소속 경제학자 'Stephen Browne'의 저서 「Foreign Aid in Practice」(1990)에 의하면 원조자금의 **75%**가 공여국의 물자와 서비스 형태로 국내경제에 직접적으로 환류.
- 간접효과: 호주 원조기관(AusAID)의 보고서 「Commercial Benefits from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Indonesia」(1995)에 의하면, 원조금액 100불당 **178불**의 이익이 호주측으로 되돌아 온 것으로 분석

○ 개도국 지원요청에 대한 능동적 대처와 약속사업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대외신인도 제고**

나. 21세기 중심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역할증대 필요

○ 상호의존과 협력이 크게 확대되는 21세기 지구촌시대에 있어서 "지구촌 가족의 **회비**"라고 할 수 있는 ODA의 확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무사항**

※ 우리나라 '99년 GDP 세계 13위, 수출 세계 12위

○ 상호교류를 통한 이해 증진 및 우리문화 전파, 파견인력의 세계화 및 **지역전문가 양성**에 기여

- 우리 인력의 해외파견을 통해 접수국의 언어, 문화 및 현지정보 등을 습득함으로써 향후 우리의 대 개도국 진출자료로서 활용

다. 과거 국제사회 지원에 대한 도의적 책임

○ 과거 우리나라가 한국동란후 절대빈곤을 극복하고 경제사회발전을 이룩한 것은 UN, 미국 등 국제사회의 원조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음.

※ '45-'96년까지 우리 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246억불** 수원

○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중견국가로 성장한데 대한 도의적인 책무로서 우리의 국력과 발전경험을 토대로 개도국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참고 2 》: 우리나라의 연도별 ODA확대방안(외교부 안)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A. ODA규모(백만불)	**212**	**291**	**346**	**412**	**490**	**581**
○ 양자간 협력	131	199	239	286	344	407(70%)
- **무상원조**	**48**	**45**	**66**	**91**	**126**	**174(30%)**
- 유상원조	83	154	171	190	211	233(40%)
○ 다자간 협력	81	92	107	126	147	174(30%)
B. 총 GNP(억불)	4,552	4,779	5,018	5,269	5,533	5,809
C. ODA/GNP(A/B)	**0.047%**	**0.060%**	**0.069%**	**0.078%**	**0.088**	**0.10%**

※ 1) 환율은 1불당 '99년 1189.48원, '00년 1130.60, '01년 1,300원(잠정)
2) 2001년부터 2005년까지 GNP성장율은 연평균 5% 추정
3) ODA규모 : '05년까지 GNP대비 0.1%로 확대(연평균 19%씩 증액)
- 양자 대 다자간 비율을 7:3정도로 유지(DAC회원국 평균 67:33)
· 양자간 연평균 20%, 다자간 연평균 17%씩 증액 가정
- 무상원조: '02년 '97년 수준확보, '03-'05년간 연평균 38%증액 가정
- 유상원조: 연평균 11%씩 증가 가정

기획조정 11. 개도국 협력사업의 협력단 전담추진 필요성

1. 각 부처의 협력사업 현황

가. 교육부 및 정보통신부 : 인터넷봉사단 파견사업

○ 2001년도에 교육부, 정보통신부에서 각각 인터넷 봉사단파견사업을 추진중인 바,

- 교육부는 APEC역내 국가를 대상으로 2억, 120명
- 정보통신부는 동남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8억, 150명 규모의 인터넷 봉사단파견 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나. 한국개발연구원(KDI) : 국제연찬사업

○ 개도국의 정책결정자 및 경제관리를 초청, 한국의 개발경험에 대한 소개 및 경제발전 현장을 소개

- 공동세미나, 중견관리자 연수, 국별연수과정등 총 2억원 규모

다. 교육부 : 외국인유학생 초청사업

○ 외국인과의 학술교류에 중점을 두고, 인문·사회·자연과학, 한국학 등 분야에서 연구과정, 석·박사과정 등에 외국인 유학생을 초청

- 연간 개도국 유학생 60명 초청 등 9억원 규모

2. 문 제 점

가. 정부차원의 정책적 고려와 일관성 유지 곤란

○ 대개도국 무상기술협력사업은 우리나라의 중장기 원조정책 및 대상국별 유·무상 원조를 포함한 전반적인 원조계획 등 정책적 고려하에 지원여부와 형태가 결정되어야 함.

ㅇ 각 부처별 사업추진시 국별 재원배분 계획, 개도국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중점 지원분야 및 적정 사업수단 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어려운 바,

- 국별, 분야별, 사업 형태별 중복 또는 불균형 지원현상 초래가 우려되어 원조정책 일관성 확보가 곤란함.

나. 타 원조분야/사업수단간 연계 부족으로 사업효과 감소

ㅇ 대개도국 협력사업은 연수생초청이나 봉사단 파견 등 단편적, 단기적 사업실시로는 사업효과를 제고하기 어려움.

- ODA 사업은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경제사회개발을 지원하고 우리의 국익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프로젝트사업 등 타 협력수단과 상호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임.

다. ODA업무 효율성 문제

ㅇ 분야별 전문성을 전제로 한 대개도국 협력사업의 분산추진은 정부차원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저해하여 사업협의 조정등에 필요한 행정적 낭비와 중복 실시될 우려가 있으며,

- 수원국측으로서도 업무혼선이 초래될 수 밖에 없음.

3. 대책

ㅇ 협력단은 각 정부 부처에서 독자적으로 실시되던 대개도국 무상협력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91년 설립된 바, 협력단의 설립취지에 일치하도록 각 부처의 협력사업을 협력단으로 일원화 필요가 있음.

○ 아울러, 향후 보다 효율적인 협력사업 수행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외교부의 ODA 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부처간 협의체계 구축 및 협의기능을 강화하며, 사업추진시 정부 관련부처의 사업참여와 민간부문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는 등 ODA 사업추진 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기획조정 12. 대통령 약속사업 비중과 예산확보 등 추진상 문제점

○ 대통령 약속사업의 선정절차는 당해 개도국이 기 지원 요청한 우량사업 중에서 당해국 정부와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 사업을 선정하게됨.

- 대통령 약속사업은 이러한 절차에 의하여 양국정부간 협력키로 기합의된 연례적인 사업을 양국 정상들의 상호방문을 계기로 양국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증진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공표되고 시행하게 됨.

○ 또한,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사업은 단년간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국에 대한 연례적인 지원규모의 범위 내에서 다년간에 걸쳐서 지원되고 있음.

- 특히, 2000년도에 대통령공약사업 비중이 높아진 것은 중국직업훈련사업 1000만불, 베트남 직업훈련사업 500만불, 필리핀 병원건립 350만불 등, '96년, '97년도에 정상간에 약속한 대형사업의 본사업비가 마무리 단계에서 집중 집행되었기 때문임.

- 참고로 2001년도는 총 사업비중 정상간 약속사업이 31.6%이며, 기 약속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002년도에는 18%수준으로 점유율이 낮아질 예정임.

○ 아울러 대통령약속사업은 당해국에 대한 우리의 협력의지를 정상차원에서 과시함으로써

- 우리의 상품수출과 기업진출 등 주요 현안사항에 관해 당해국 정상으로부터 호의적인 조치를 얻어내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대외적인 홍보효과 제고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참고 >

1997~2001 대통령 약속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천불)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약속사업 계	12건 5,696 (7,120)	14건 6,008 (4,620)	11건 8,422 (6,470)	17건 17,701 (14,760)	20건 15,983 (14,530)
전체사업비중 약속사업 비율(%)	12.7%	13.3%	21.9%	42.7%	31.6%
- 연수생초청	1건 80 (100)	2건 351 (270)	2건 279 (210)	3건 4,222 (3,520)	4건 4,342 (3,950)
- 개발조사	-	-	-	2건 930 (780)	2건 424 (390)
- 물자공여	1건 1,600 (2,000)	-	2건 338 (260)	1건 48 (40)	-
- 프로젝트	10건 4,016 (5,020)	12건 5,657 (4,350)	7건 7,805 (6,000)	11건 12,501 (10,420)	14건 11,217 (10,190)

* 금액 : 기획예산처 각목명세서 기준

행정법규 1. 남미농장 현황

ㅇ 80년대초에 정부는 아국인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르헨티나, 칠레, 파라과이등 남미 3개국에 농업이민을 추진하였음.

- 파라과이 "산페드로" 농장은 3세대가 영농중으로, 이중 1세대는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세대는 채무액 상환후 소유권을 이전할 예정임.

- 칠레 "테노" 농장은 현지인에게 임차 중이며

- 아르헨티나 "야따마우까" 농장은 장기임대를 추진중임.

행정법규 2 . 아르헨티나 야따마우까농장 처리대책

ㅇ 정부의 남미시범농장건설 및 농업이민추진계획에 따라 '78년에 구입한 20,894헥타 규모의 아르헨티나 야따마우까 농장은 그동안 여러차례 활용노력에도 불구하고 유휴화된 상태임.

ㅇ 동 농장활용은 제반 여건을 감안, 장기 임대개발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이를 추진중이며, 임차자의 투자자금회수등 안정적 투자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15~20년간 장기임대를 고려하고 있음.

ㅇ 동 농장은 금년도 전기가 신설되었고, 그동안 문제점이었던 농업용수문제도 살라도강의 수량 증가등으로 다소 호전 되었다고 평가되어, 2천헥타는 영농지로 1.5만헥타는 목축지로 개발하는 임대추진계획(안)을 추진하고 있음.

ㅇ 이에따라 현재 현지 언론등을 통해 임대 희망자를 공개 모집중이며, 임대희망자를 확보한후,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중임.

<행정법규2. 참고자료 I >

야따우까농장 현황

1. 구입경위

ㅇ '78.8월 정부는 아르헨티나에 시범농장 건설을 건설하여 아국 이민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농업이주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894헥타의 농장을 211만불에 구입

2. 개발추진 현황

ㅇ 5회에 걸쳐 농장개발타당성 조사 실시

- 정부합동조사단의 3회('79.3월, '84.3월, '96.6월)에 걸친 타당성 조사결과, 동 농장은 염분의 다량함유, 강수량 부족 등으로 작물 재배 및 조림이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 바 있음.

ㅇ 9회에 걸쳐 임대개발 추진

- 구입 직후 '78.12월 농진공과 농장 개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농장개발을 추진한 이래로 9회에 걸쳐 국내기업 및 현지 교포업체를 대상으로 농장개발을 시도했으나 과다한 국고지원 요구, 사업계획의 현실성 결여, 업체의 참여의지 미흡 등으로 모두 무산됨.

ㅇ 과거 농장은 농업 용수 부족, 개간비 과다 소요, 전기 미설치 등 인프라 취약 등으로 개발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최근 1-2년간 농업용수증가, 전기설치등과 같은 인프라 변동이 있었으며, 추후 도로개선 등의 추가적 농장활용 여건개선이 기대되어 농장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됨.

3. 관리실태

- ㅇ 현재 1명의 관리인이 농장내에 상주하여 관리하고 있음.
- ㅇ 농장관리비는 토지세, 관리인 인건비 등으로 연간 약 25,000불이 소요됨.
- ㅇ '89.3월 이후 6회에 걸쳐 매각을 건의하였으며, 임대개발(1회) 및 부분 개발(1회)을 외교부에 건의한 바 있음.

행정법규 3. 직원 해외파견 현황

1. 직원 파견현황

구 분	파 견 국	설치근거
해외사무소 (10국/13명)	중국(47), 베트남(13), 인도네시아(13), 방글라데시(4), 스리랑카(4), 태국(12), 필리핀(12), 우즈베키스탄(4)	ㅇ 국별사업규모가 크고 업무량 과다 국가 (수원상위국 1~15위) ㅇ 아국과의 경협 및 외교관계 고려
	이디오피아(3), 페루(6)	ㅇ 지역거점 활용 ㅇ 수원상위국 고려(페루, 수원 5위)
주재원 (2국/2명)	이집트(7), 몽골(4)	ㅇ 한시적으로 특별협력사업 수행을 위해 파견 - 몽골 : 정상간 약속사업 3건 - 이집트 : 공관요청 프로젝트 사업

※ ( ) : 공관직원 수

2. 파견 필요성

□ 해외사무소

ㅇ 협력단은 현재 120여개의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협력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협력사업 규모의 증대에 따라 사업수행을 소수의 외교관(3~4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개도국 공관에 전적으로 의존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임.

ㅇ 또한, 수원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아국 비교우위의 우량사업 능동 발굴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 등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현장관리 중심으로 사업이 수행되어야 하는점 등을 고려할때 직원파견이 긴요함.

□ 주재원 파견

ㅇ 주재원은 해외사무소가 설치되지 않은 국가에 한시적으로 파견되어 해외사무소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함.

ㅇ 근무처는 해외사무소와 마찬가지로 공관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주재원의 신분도 해외사무소 직원과 같이 공관의 협조하에 공관행정직원 또는 봉사단 관리 주재원으로 주재국 정부에 등록되어 있음.

3. 해외파견 직원의 관련경비 지급

ㅇ 해외사무소 근무 직원 : 해외사무소 운영비(사무소운영비, 해외 (주재원 포함) 근무수당, 기타 복리비)

4. 해외파견직원 지역별.연도별 현황

ㅇ 지역별현황

- 아 주 : 인도네시아, 태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 미 주 : 페루
- 구주·CIS : 우즈베키스탄
- 아프리카 : 이디오피아

ㅇ 연도별현황

- 1992년도 : 2개 신설(인도네시아, 태국)
- 1994년도 : 3개 신설(중국, 베트남, 필리핀)
- 1995년도 : 5개 신설(방글라데시, 휘지, 이디오피아, 파라과이, 우즈베키스탄)
- 2000년도 : 2개 신설(페루, 스리랑카) 및 2개 폐쇄(휘지, 파라과이)

행정법규 4. 협력단과 대만대표부와의 업무관계

1. 대만대표부 설치경위

○ 정부는 대만과의 외교관계 단절이후 새로운 비공식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93.7. 서울과 타이빼이에 민간대표부를 상호 설치키로 대만측과 합의함.

○ 이에 따라 '93.9. 국무회의에서 주대만 대표부를 한국국제협력단 산하 「아시아 연구소」의 해외사무소 형태로 설치할 것을 의결하고, '93.10 대통령 재가를 받은 바 있음.

○ '93.10. 외교부는 동 방침에 의거, 「아시아 연구소」설치를 위한 협력단의 관련규정 제정 등 필요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협력단에 요청함.

○ '93.10. 협력단은 「아시아 연구소 설치·운영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여 이사회 의결 및 외교부장관의 승인절차를 거쳐 「아시아연구소」를 협력단 산하기관으로 설치키로 함.

2. 협력단과의 업무관계

○ 대만대표부는 사실상 재외공관의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나, 정부 조직으로서 사무소 설치는 불가하기 때문에 협력단 산하기관의 해외사무소 형식으로 설립된 것이며,

○ 협력단의 역할은 「아시아 연구소」설치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에 국한되고 있음.

○ 연구소 및 대표부의 정원, 인사, 복무, 예산·회계 및 자산관리 등 모든 업무와 행정절차는 외교부장관의 지휘·감독 및 책임하에 협력단과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아시아 연구소 설치·운영 규정」 주요내용

- 연구소 및 대만대표부 운영예산은 정부출연금 등으로 하고, 협력단과 별도로 편성하여 독립적으로 계리함..

- 연구소 및 대만대표부는 외교부 장관이 시달하는 활동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운영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외교부 장관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이의 운영에 대한 책임은 외교부장관이 짐.

- 연구소 및 대만대표부의 인사,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협력단의 관계법규를 적용치 않고 공무원 관련법령을 준용함.

3. 아시아 연구소의 설립여부

○ 협력단은 「아시아 연구소」 설립에 필요한 근거는 마련한 바 있으나, 실질적 「아시아 연구소」 설립여부는 외교부에서 결정토록 되어있음.

○ 현재 「아시아 연구소」는 협력단 산하기관으로 직제상 편제되어 있으나,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 바, 이의 배경은 아래와 같음.

- 대만대표부」는 사실상 대만과의 외교단절 이전의 해외공관 역할을 수행하나, 정부조직으로는 운용할 수 없으며,
- 또한 업무의 성격상 협력단 본부소속 해외사무소로도 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대만대표부」를 설립하기 위한 방편으로 협력단 산하기관의 해외사무소 형식을 취한 것임.

○ 따라서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관은 대만대표부이므로 역할이나 기능이 없는 「아시아 연구소」의 설립은 불필요하였던 것으로 사료됨.

사업평가 1. 협력사업에 대한 평가현황은

1. 과거 실태

○ 협력사업수행 초기에는 사업규모의 영세성, 소액 다국가 지원 등으로 인해 평가실시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사업실적 심사분석이나 연수교육기관과의 연수평가회의, 봉사단원 귀국대회, 프로젝트사업 종료보고서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사업을 평가하여 왔음.

2. 평가체제 구축

○ 사업규모가 증대되고 완료사업도 증가하면서 사업효과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96년부터 사후관리 예산을 배정하였으며, 협력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97년도에 평가전담 부서를 설치한 후, 사업평가 체제를 구축하고, 98년부터 평가를 체계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음.

○ 99년도에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평가원칙에 근거하여 '협력단 사업평가 가이드라인'을 수립, 모든 협력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확대 실시하는 등 평가업무를 강화하였음.

3. 평가제도 정착

○ 협력사업의 평가는 사업실시 단계에 따라 ①중간평가, ②종료시평가, ③사후평가로 구분하여 실시중에 있음.

- 연수생초청사업은 초청인원을 대상으로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2001년도에는 사후평가의 일환으로 '농업 및

농촌개발분야 ASEAN 연수프로그램 평가'를 실시하였음.

- 전문인력파견사업은 해당 인력들이 제출하고 있는 분기별활동 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통해 중간, 종료시 평가를 각각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가파견사업 종합평가'를 금년중에 실시하고 있음.

- 봉사단원파견사업은 단원들의 현지평가회의와 귀국보고대회를 통해 중간, 종료시 평가를 각각 실시하고 있으며 '봉사단원 파견사업 종합평가'는 99년도에 실시하였음.

- 개발조사사업은 사업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통해 중간, 종료시 평가를 각각 실시하고 있고 '개발조사사업 종합평가'는 2000년도에 실시하였음.

- 물자지원사업은 20만불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만 종료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물자지원사업 종합평가'는 내년도에 실시할 계획임.

- 프로젝트형 사업은 해당사업의 종료후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98년부터 2000년까지 총 16개 프로젝트에 대해 사후평가를 실시하였음.

o 또한 98년부터는 주요 수원국을 대상으로 수혜자 평가를 실시하여 수혜자의 반응을 점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협력사업에 대한 평가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강화해 나갈 계획임.

협력단 사업평가 개요

1. 평가목적

ㅇ 평가로부터 얻은 교훈을 원조정책, 사업발굴 및 계획수립, 사업집행에 반영함으로써 원조재원의 효율적 이용과 효과 제고 및 사업수행능력 향상을 도모함.

2. 평가기준

ㅇ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서 91년 5월에 채택하여 현재 대부분 선진원조기관에서 활용하는 5개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음.

① 목표달성도(Effectiveness) ② 실시의 효율성(Efficiency) ③ 사업효과(Impact) ④ 사업의 타당성(Rationale) ⑤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3. 평가종류

ㅇ 협력사업에 대한 평가는 실시단계에 따라 중간평가, 종료시 평가, 사후평가로 구분됨.

- **중간평가**는 사업 중간단계에서 계획대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검토하고 동 결과를 토대로 사업내용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며,

- **종료시 평가**는 개별사업의 종료직전에 실시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집행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실시 효과, 자립발전성의 전망, 종료후 연장 또는 사후관리 필요성을 확인하며,

- **사후평가**는 사업종료 시점으로부터 2-3년후 원조효과 및 수혜기관의 자립발전성을 중점 파악하고 유사사업 계획수립에 피드백함으로써 새로운 협력사업 추진전략의 수립과 사업수행의 개선을 도모함.

사업평가 2. 완료사업 평가결과

1. 사후평가 현황

○ 협력단은 사업수행의 효율성 제고와 성과중심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97년도에 사업평가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관련 기준을 수립후, 98년도부터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왔음.

- 그간 실시된 사후평가는 협력사업에서 예산소요가 많은 프로젝트형 사업을 주요대상으로 실시하였는 바, 지원실적이 가장 많은 직업훈련분야를 위시해, 보건, 교육, 식수, 농업분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음.

- 또한, 99년도에는 봉사단파견사업 종합평가에 이어 2000년도에는 개발조사 종료사업(19개 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였음.

2. 사후평가에 대한 분석결과

○ 우리의 협력사업은 선진 원조공여국과 비교할 때 적은 원조재원과 짧은 경험임에도 비교적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던 것으로 평가됨.

○ 이같은 성공요인으로는 ① 수원국에 대한 수요파악 및 사업대상 선정이 적절했고 ② 봉사단, 의료단파견, 프로젝트등 협력사업 수단간의 연계가 잘 이루어졌으며 ③ 우리의 우수인력이 파견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3. 개선과제

○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앞으로 개선해야 할 여러 과제들도 제시되었는 바, ① 사업실시전에 사전조사를 강화하여 사업실시 여건을 보다 철저히 파악하고 ② 수원국에 대한 기술이전 방안을 강화하는 한편, ③ 부품지원, 고장수리 등 사후관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평가되어, 이러한 평가결과를 실무에 반영중에 있음.

사업평가 3. 협력사업의 효과

1. 효과개요

○ 협력사업은 인적자원 개발, 경제개발능력 확충, 빈곤해소, 질병퇴치등 **개도국의 경제사회개발에 기여**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 원조재원의 75% 이상이 국내기업의 물품구입과 국내에서 소비되어 우리나라에 실질적으로 환류되고 있고, **우리 상품의 해외시장 홍보, 대외 신인도 제고 및 국제적 지지기반 확보, 우리 인력의 고용창출과 지역전문가 양성** 등 폭넓은 파급효과를 거두고 있음.

2. 세부내용

가. 개도국의 경제사회개발

○ 연수생 초청, 전문가, 의사, 봉사단파견, 개발조사, 물자지원, 프로젝트형 사업 등 다양한 협력사업 수단을 활용하여 개도국 관련분야의 인적자원개발과 개발능력 확충 및 사회인프라 정비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봉사단원의 지역개발사업을 통한 빈곤퇴치와 병원건립 프로젝트를 통한 개도국 주민의 기초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나. 범지구적 과제 해결

○ 환경 및 가족계획 관련 국내초청연수, AIDS확산 방지를 위한 보건물품지원, 홍수, 한발등 재난피해복구 지원, 분쟁지역 전후복구지원등을 통해 범지구적 과제(Global Issues)인 환경, 보건,

- 또한, 제3세계의 빈곤완화와 평화정착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정부간에 기 약속한 원조약속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우리의 국제 신인도를 높이는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마. 우리 인력의 고용창출과 지역전문가 양성

○ 전문가, 의료단, 태권도사범, 봉사단 파견사업을 통해 비록 소규모이지만 우리인력의 고용창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현지활동을 통해 이들을 지역전문가로 양성시키는 효과가 있음.

○ 또한 봉사단원 등이 현지활동후 현지진출 우리기업등에 채용됨으로써 아국 인력의 해외진출 확대에 기여하고 있음.

임기만료 봉사단원 현지진출 현황

(2000년까지 귀국단원 총686명중 9.0% 진출)

구 분	계	취 업								결 혼		기타
		소계	현지업체	아국업체	개인사업	현지교사	공관근무	파견전문가	태권도사범	현지인	교포	유학
계	**62** (100%)	**50** (81%)	9	18	5	5	9	1	3	**7**	**3**	**2**
봉사단원	50 (81%)	38 (76%)	6	15	5	4	7		1	7	3	2
협력요원	12 (19%)	12 (100%)	3	3		1	2	1	2			

<사업평가3. 참고자료I>

협력사업별 기대효과

1. 인력협력사업(연수생초청, 전문가·의료단·태권도사범·봉사단 파견)

가. 연수생초청

○ 개도국의 인적자원 개발을 지원하는 효과와 함께 개도국내 영향력 있는 행정관료 및 경영자, 기술자 등을 대상으로 친한인사 저변확대의 중요한 기회가 되고 있음.

나. 전문가·의료단·태권도사범·봉사단 파견

○ 우리의 개발경험 및 기술의 이전으로 수원국 경제사회발전의 토대를 강화해 주며 의료 및 봉사활동으로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개도국에서 활동한 우리인력들이 세계화시대가 요구하는 지역전문가로 성장하는데 좋은 기회가 되고 있음.

2. 개발협력사업(개발조사, 물자지원, 프로젝트)

○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개도국에 국산품 공여, 시설건축, 기술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상품 및 기술력을 소개하고 우리 기업의 현지진출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한편, 사업추진과정에서 습득한 개도국에 대한 지역정보는 우리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시장개척 및 우호적인 투자여건을 조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

3. 민간단체 지원사업

○ 정부차원의 협력사업을 보완하여 절대빈곤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으며, 우리나라 민간단체가 국제원조 경험을 배양하는 것에도 도움을 주고 있음.

<사업평가3. 참고자료II>

협력사업 효과사례

1. 친한인사 저변확대

ㅇ 한국에서 연수후 곧바로 몽골 총리로 임명

- '98년에 몽골의 경제관료들을 대상으로 한국경제정책과정이 실시되었음. 동 과정에 참여한 나란차츠랄트 울란바토르 시장은 연수 후 귀국하자마자 총리로 임명되었음. 동 총리(현직 국회의원)는 연수 중 한국의 경제발전과정을 울란바토르 경제발전 정책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수차례 밝히기도 함. 이같이 개도국 고위인사의 방한연수는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통해 양국간 우호협력관계 증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ㅇ 스리랑카 공무원의 한국업체 활동 지원

- '99년도 서남아시아 파트너쉽과정에 참가한 스리랑카 연수생은 현지 진출 아국업체들의 안전·노사문제 등을 지원하여 기업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음.

- 또한, 99년에 창립된 KOICA 연수생 동창회 회장단이 스리랑카 여러 정부부처에서 주요직책을 맡고 있어, 우리기업체의 애로사항 해결 등을 적극 도와주고 있다고 함.

2. 우리기업의 대 개도국 진출지원

ㅇ 필리핀 바탄-말라야 복합화력발전소 전환 개발조사사업
('93-'94, 377천불)

- (주) 한국전력기술이 동 사업 참여를 계기로 필리핀 정부가 발주한 1000억원 상당의 말라야 화력발전소 1,2호기 성능복구공사와 7억불 상당의 '일리한'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을 수주하는 성과를 이룩함. 38만불을 들인 무상협력사업이 8억불이라는 2,100배의 성과로 귀결됨.

ㅇ 협력요원이 현지진출 아국기업의 산업폐기물을 비료로 전환

- '98.7-2000.8간 인도네시아 람풍 직업훈련원에서 근무한 협력요원(작물재배)은 현지에 진출해 있는 주식회사 인도미원(한국의 대상그룹)의 산업폐기물을 비료화하여 아국기업 이미지를 개선해 주었음.

- 당초 동회사는 산업폐기물을 공장부지내에 과다 보관하여 현지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협력요원이 근무하는 람풍 직업훈련원에 산업폐기물의 재활용 연구를 의뢰하였으며, 동 협력요원이 주도하여 연구를 실시한 결과, 산업폐기물을 비료화하는데 성공하였음.

- 개발된 동 비료는 공장 인근지역 농민들에게 무상 배포되어 작물재배에 사용됨으로써 큰 호응을 받았음. 이에따라 동 회사는 산업폐기물의 비료화 제작사항을 인도네시아 정부에 특허출원 하였다고 함.

3. 우리상품 수출증진 지원

ㅇ 베트남, 아세안 정상회의 의전용 차량 지원

- '98년말 베트남에서 개최된 제6차 아세안 정상회담과 관련 베트남정부측의 요청에 따라, 현지에 진출한 국산자동차 6대를 지원한 결과, 행사종료후 아국차량에 대한 좋은 인식으로 베트남 주재 외교단(리비아, 방글라데시, 알제리등)이 동차를 구매한 바 있으며, 특히 동 리비아 대사는 본국정부에 동 차량 500대를 의전용 차량으로 추가 구입할 것을 건의하기도 함.

ㅇ **인도네시아 남 깔리만탄 저습지 벼농사 기계화 지원사업**
('98-'01, 1,100천불)

- 인도네시아 정부는 97~98년 당시 극심한 가뭄, 산불등으로 인해 식량 부족을 겪은후 현재는 식량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인니 정부의 농업개발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있는 농기계화 사업은 인니 정부의 농기계화 정책 결정자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쳐 우리 민간기업이 남 술라웨시 주정부의 농기계화 사업에 국산 경운기 2천대를 수출하는데 기여하였음.

협력정책 1. 국제협력사업 연구기능 활성화 방안

1. 기본 방향

○ 한국형 국제협력모델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향을 모색하여 보다 효과적인 우리의 국제협력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를 위해 ①국제협력관련 정책연구와 사업수행 개선방안, ②범지구적 문제에 대한 연구와 협력단의 정책방향 제시, ③OECD/DAC 및 주요 선진공여국의 원조정책 동향분석 등에 주력함.

2. 문제점

○ 협력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연구조사기능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국내적으로 국제협력 사업에 대한 이론적 기반 미비등 대내외적 수요에 걸맞는 연구조사 수행 구축 기반이 취약한 실정임.

3. 대 책

○ 2000. 2월 협력정책팀으로 개편이후 정부의 ODA 정책결정 및 개발협력사업의 효율적 집행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실용적 연구조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향후 주요 연구방향으로는 한국형 국제협력모델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향을 모색하여, 타 선진공여국과 비교하여 보다 효과적인 우리의 국제협력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임.

○ 한편, 국제협력 정책수립과 사업집행 제도개선에 필요한 연구조사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위원의 운영에 관한 예규'를 제정(2000.11) 하여 연구위원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필요시 외부에 연구 용역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국제협력 연구기반을 확충해 나갈 것임.

협력정책 2. 국제기구 및 제3국과의 공동협력 방안

1. 배 경

○ 국제협력사업의 성과제고와 비용절감 효과등을 고려, 국제기구 및 선진 원조기관과 연수생 초청사업을 중심으로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 현 황

○ 국제기구와의 공동연수는 '91년부터 APEC, UNDP, UNESCO 등 17개 기구와 실시한 바 있으며, '91~2000년까지 총 78개 과정 1,427명을 초청함. (2001년 계획 : 8개 과정 158명)

○ 제3국과의 공동연수는 싱가폴('95년), 이스라엘('97년), 일본(2000년)과 각각 실시하고 있으며, '95~2000년까지 총 24개 과정 472명을 초청함. (2001년 계획 : 7개 과정 130명)

○ 특히, 한·일간 협력증진을 위해 '98년도 대통령 방일시 양국간 합의한『국제협력분야에서의 공동협력 및 행동계획』에 의거 수질환경개선 및 경제개발 분야의 공동연수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한편, 중남미 개도국의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개발, 임·수산물 가공, 해양환경 보존, 광물자원 개발, 정보통신분야 등에서 2002년부터 칠레국제협력청(AGCI)과 중남미 제3국 공동연수 실시방안을 협의중임.

3. 향후 추진방향

○ 아국의 비교우위 분야, 원조사업의 효과증진, 비용절감 효과 등을 고려하여, 타 원조기관,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 등과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 나갈 계획임.

협력정책 3. 비교우위에 있는 한국형 국제협력사업 추진방안

1. 추진배경

○ 우리는 '50년대의 최빈국가에서 이제 선발개도국으로서의 경제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개도국에 적절한 중간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기술, 조직 및 인적자원 등을 갖고 있음.

2. 추진방향

○ 대부분 선진공여국처럼 기존의 식민지와의 관계유지를 위한 원조가 아닌, 선발개도국으로서 후발개도국을 돕는 남남협력의 정신에 바탕을 두고,

○ 우리의 비교우위 분야를 활용하여 개도국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개도국의 자조능력을 배양(Capacity Building)하는데 중점을 둠.

○ 이러한 차원에서 최근에는 우리의 개발경험에 비추어 연구생초청등을 통해 개도국의 인적자원개발을 중점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개도국의 정보격차(digital divide) 해소를 주요 정책목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음.

3. 추진분야

○ 수원국 주민들의 인적자원개발(HRD) 및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직업훈련 분야, IT 분야

○ 기본욕구(BHN) 충족 및 사회개발 인프라를 위한 기초교육, 의료, 인구, 농업기술등 개발분야

○ 빈곤퇴치 및 현지 주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원조로서 지역

개발 및 새마을운동 분야

○ 수원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분야로서 국가 발전전략, 중소기업 육성, 무역·투자진흥, 금융위기 관리분야

협력정책 4. 국제협력의 새로운 방향과 주요 이슈

1. 배 경

- OECD/DAC는 제38차 고위급회의(2000년 4월)에서 "빈곤완화를 위한 파트너쉽 정책방향"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으며,
- 제39차 고위급회의(2001년 4월)에서는 빈곤완화, 지속개발전략, 분쟁예방, 무역능력개발 등에 관한 4개 지침 및 부속성명서와 최빈국 원조의 언타이드(Untied)화 권고문을 채택하였음.
- 한편 2001년 5월 브랏셀의 제3차 UN 최빈국회의에서는 ODA, 외채, 투자 및 무역부문에서의 국제사회 지원 노력을 평가하고 최빈국의 지속가능개발과 세계경제로의 통합을 위한 국제사회의 정책 및 행동계획을 논의한 바 있음.

2. 주요 정책방향

- 빈곤완화를 위한 주요 정책방향으로는 ①주인의식과 파트너쉽 강화, ②세계화와 정책일관성 강조, ③민주주의, 참여적 개발, 올바른 국정통치(good governance)의 강화, ④ODA등 개발재원의 확대 등임.
- UN 최빈국회의에서 채택된 최빈국을 위한 행동계획은 ①국가 및 국제적 차원의 good governance 증진, ②인적·제도적 능력 구축, ③세계화에 적응하도록 생산능력의 증강, ④개발에 있어 무역의 역할 제고, ⑤최빈국의 환경보존 및 재원의 동원 등임.
- DAC 고위급회의를 통해 본 회원국들의 동향은 앞으로 개도국에 대한 일방적 원조제공 및 양적 확대보다는 개도국 주도의 빈곤완화전략에 대한 지원, 공여국의 대 개도국 정책일관성 확보 등 원조의 질적 개선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IT 1. IT 협력팀 설치 배경과 운영현황은

(장성민 의원)

1. 설치 배경

○ 디지털 경제 하에서 **정보는 가장 핵심적인 생산요소**로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양과 질에 따라 소득이 좌우**되는 바,

- 국제사회는 새로운 개발과제로 국가간 정보격차(digital divide) 문제에 적극 대처중이며,

- 21세기 정보지식강국을 지향하는 **우리나라(김대중대통령)도 개도국의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지원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해 오고 있음.
  · 1999. 9 APEC정상회의, 2000. 10 서울 ASEM정상회의, 2000. 11 ASEAN 정상회의 등

○ 따라서 협력단은 이러한 대내외 동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1. 1. 1부로 IT추진반을 설치하고 국제사회의 IT 협력 동향 파악 등 사업실시기반을 구축한 데 이어,

- 향후 **IT협력사업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7. 1부로 동 IT추진반을 IT협력팀으로 개편, 운영중임.

2. 운영현황

가. 인력: 팀장 1명, 팀원 3명 (총 4명)

나. 예산: 1,618백만원

○ 사업비 : 1,600백만원(프로젝트 1,496백만원 / 전문가파견 104백만원)

○ 행정성 경비 : 18백만원

다. 주요 임무

- ㅇ IT분야 국제동향 파악과 개도국 IT환경조사 등 연구조사 업무
- ㅇ 개도국의 IT관련 정책자문 및 기술전수를 위한 전문가 파견
- ㅇ 개도국의 IT인프라 개선 및 정보망 구축, IT 인력양성 등을 위한 프로젝트사업 추진
- ㅇ 개도국의 국가정보화 계획수립 등에 대한 개발조사 실시

라. 주요 사업(7월말 현재)

(1) 전문가파견(4국 5명) : 이집트 1(기파견), 인니 2(파견예정)
캄보디아 1(기파견), 필리핀1(기파견)

(2) 프로젝트사업 (6국 6건) : 후보사업 포함

- ㅇ **네팔 외무부 전산화지원** (300천불/'01)
  - R/D체결후 연수생 초청, 프로그램 개발 등 본사업 추진중

- ㅇ **리비아 알파타대 전산화지원** (2,000천불/'01-03)
  - 사업기본계획 수립중, 9월경 실시협의단 파견 및 R/D체결 예정

- ㅇ **방글라데시 다카대 과학기술센터건립** (690천불/'01-03)
  - R/D체결후 본사업 추진중

- ㅇ **이집트 국가산업정보망 설계 및 구축** (2,000천불/'01-03)
  - 사업기본계획 수립중, 10월경 실시협의단 파견 및 R/D체결 예정

- ㅇ **인니 IT훈련센터 건립지원** (2,500천불/'01-03) *※ 후보사업*

- 사전타당성조사완료('01.4월) 및 인니정부와 사업추진방안 협의중

○ **중미6국 통합체제 지원사업** (2,300천불/'01-04) ※ *후보사업*
- 사업추진방안 검토중

IT 2. 협력단의 IT협력 기본 방향과 주요 내용은

1. IT 협력의 목적과 기본원칙

○ 국제협력단은 지식기반 경제 하에서 정보격차 해소가 개도국의 빈곤완화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요소임을 인식하고, **개도국의 정보기회 확대**를 위한 IT분야 협력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음.

○ 특히, 국제협력단은 전반적으로 정보통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과 IT환경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개도국의 IT여건을 감안하고 우리의 비교우위를 고려한 최적의 IT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있음.

- 요청주의를 탈피한 **협의주의 방식 추진** 및 개도국의 주인의식 강화

- 개도국의 현지 IT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국별차별화전략 추진**
  · 개도국은 일반적으로 IT인프라 취약과 통신비 과다, 정책 및 법제도 정비 미흡, IT인력 절대 부족, 도시와 농촌간 지역 격차 심화 현상을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의 **비교우위를 고려**한 최적 사업 추진
  · 우리나라는 원천기술에 있어서는 선진국에 비해 뒤져 있으나 초고속 통신망 구축 등 인프라 환경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IT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임을 감안, 개도국이 공공행정, 교육, 보건, 산업 등 전 분야에서 IT이용을 증대함으로써 생산성

및 부가가치를 증대할 수 있도록 **IT 활용분야 중점 지원**

- 정부, 민간, 개도국 정부, 국제기구, NGO 등 **국제적인 연대 도모**

- **선진원조기관의 공동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국제적 조정 및 상호보완성을 도모하고 기술교류 확대

2. 주요 지원분야

○ 개도국의 IT향상을 위해서는 개도국 정부 및 일반 국민의 정보 마인드 확산, 정보화 정책 및 법·제도 정비, 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등이 중요한 바, 동 분야를 지원 예정임.

- **개도국의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자문 제공**
- **IT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 **IT 정책수립자 및 기술인력 등 IT 인재양성 지원**
- **다목적 지역정보센터(MCT) 지원**
- **정보기회 확대를 위해 IT 활용 분야 지원 : e-Government, e-Commerce, e-education, e-Health 등**

○ 특히 IT인프라가 전반적으로 취약한 개도국에서는 **IT 인력 양성이 시급**한 바, 정책결정자, 기술인력, 일반 국민(User) 등을 대상으로 한 IT훈련센터 설치, 공공접근지점 제공과 IT교육 등 다목적의 지역정보센터(Multi-purpose Community Telecenter) 설치를 중점 지원할 예정임.

3. 주요 지원대상국

○ IT협력 주요 대상국은 다른 전통적인 원조분야와 마찬가지로 아주지역을 중심으로 하되, 특히 e-ASEAN 구축 및 아주의

Hub로서의 우리나라의 역할 수행노력 등을 고려, ASEAN국가 등 아시아를 중점 지원할 계획임.

- 기타 중남미, 시장경제체제 이행국, 아프리카 등에도 지역특성과 국별 여건에 맞게 IT협력을 추진할 계획임.

IT 3. IT분야 지원실적 및 2001년도 계획은

○ 협력단은 2001년 IT추진반을 설치하면서 본격적으로 IT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협력단 설립이후 정보통신 관련 연수생초청, 컴퓨터, 전자 분야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 개도국 정부 전산망 구축 및 학교전산원 지원 등 IT분야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옴.

- 1991년부터 2000년까지 연수생 462명 초청, 전문가 18명 파견, 봉사단 166명 파견, 물자지원 9,253천불 지원, 프로젝트 13건 16,311천불을 공여함.

○ **2001년도**에는 개도국의 정보격차 해소 지원을 중점 협력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총 6,013백만원(5,467천불)을 IT협력에 배분**하였는데 이는 행정비를 제외한 협력단 **전체사업비중 11.9%에 해당**함.

- 주요 사업내역을 보면, 정보기술관리등 IT분야 연수생초청 336명, 전문가 파견 5명, 봉사단 파견 83명, 물자지원 960천불, 프로젝트 6국 6건 등임.

IT 4. 국제사회의 IT협력 동향은

1. 국제기구/지역기구

- OECD는 정보통신위원회 산하 정보경제작업반 (WPIE)에서 정보격차 현상의 진단과 정부 및 민간의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 중이며, 특히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력 (access)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접근지점 (public access points)을 설정해 나가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 UN ECOSOC은 각국 정부, 민간기업 및 단체의 공동 노력으로 인터넷을 2004년까지 세계인구 80%까지 보급할 수 있으며, 개도국에 대한 정보통신기술보급을 통해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정보기회(digital opportunity)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함.

- APEC에서는 전세계적 IT 혁명 추세에 부응, 전자상거래를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분야의 새로운 이슈로 다루고 있으며, 지식기반 경제 구축과 함께, 향후 발전격차의 주요 원인이 되는 정보격차의 해소 문제를 경제·기술협력 분야의 주요 관심사로 다루고 있음.

- ASEM에서는 정보격차 문제를 선·개도국간 e-business를 가로막는 새로운 교역장벽으로 간주, 동 문제 해결을 ASEM 회원국간 경제통상관계 확대를 위한 공동의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

- G-8 오키나와 정상회담에서는 '경쟁력 제고, 생산성 향상, 지속적 성장을 부양할 수 있는 정보 기술의 잠재적 혜택이

사회의 모든 계층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IT현장』을 채택하였으며, 이의 추진을 위한 Digital Opportunity Task Force의 설치를 합의함.

2. 주요 선진국

○ **미국 USAID는** 정보의 전파가 매우 중요한 디지털시대에 개도국이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는 IT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보고 광범위한 IT분야 개발협력 사업을 실시중임.

- 중점분야로는 정책조언, 지식전파, 인프라 정비등에 대한 자금 제공, IT를 활용한 새로운 개발을 위한 실험적 융자 등임.

- 중점 지역은 아프리카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중임.

○ **일본 정부는** 2000.7. 오키나와 G8정상회담에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향후 5년 간 총 150억불(ODA 30억불, 기타공적자금 OOF 120억불) 지원계획임을 발표함.

- 주요 사업내용은 원격기술교육을 위한 J-NET 정비, 위성센터 설치, 전문가파견,연수생초청, 전화망등 인프라개선사업 등임.

○ **캐나다 정부는** 자기계발·강화를 위한 지식습득·공유의 중요성과 그러한 개발과정에서의 IT 역할이 매우 크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IT 이니셔티브를 추진중임.

- 중점지원분야로는 교육 및 접근기회 확대, 보건의료 등으로 인재양성, 섹터개혁, 효과적인 IT 이용환경 정비 등임.

- 지원규모는 약 20백만불 정도로 CIDA ODA예산의 2%내외임.

○ **스웨덴(SIDA)은** 모든 개발협력 프로그램에 IT를 통합하는 IT정책을 강조하고 있음.

- 1998년 IT관련 활동에 대한 지원은 US$2-2.5백만불이었으며, 2000년에는 최소한 두 배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IT 5. 부처별 대개도국 IT분야 지원현황은

(이낙연 의원)

1. 외교통상부 (국제협력단)

○ 협력단은 개도국에 대한 ODA사업 전담기관으로서, 개도국에 대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그동안 IT 분야를 지원해 왔으며,

- 특히 2001년부터는 새로운 개발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개도국의 정보격차 해소지원 확대를 위해 IT분야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중임.
  (2001년 협력사업비의 11.9%를 IT분야 협력사업이 점유)

-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정보기술관리등 IT분야 연수생초청 336명, 전문가 파견 5명, 봉사단 파견 83명, 물자지원 960천불, 프로젝트 6국 6건 등이 있음.

2. 정보통신부

○ 정보통신부는 국내 정보통신산업 진흥 및 수출촉진의 일환으로 개도국 IT인력 초청연수사업 등을 추진중임.

○ 주요 사업내용은 해외진출전략국가 단기초청연수 180명 외에,

- 기타 전략국가에 대한 장기연수, 학위과정 지원, 전문가 파견, 인터넷 청년봉사단파견(178명 파견)을 추진중임.

3.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인적자원부는 2000. 3. APEC 서울포럼시 대통령 약속사업으로서 APEC 청년 인터넷 봉사단사업을 추진중이며,

- 8월에 1차적으로 태국, 인도네시아 2개국에 44명을 파견한 바 있음.

<참고> 각 부처 IT분야 봉사단 파견사업 비교

○ 인터넷 봉사단파견 사업은 APEC, ASEM, ASEAN 회의 등 지역기구에서 개도국의 정보지식격차해소 지원을 위해 우리 정부가 제안한 사업으로서, **2001년부터 정보통신부 및 교육인적자원부가 각각 추진중**에 있음.

○ 국제협력단의 경우에는 2년 기한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파견되고 있는 해외봉사단파견사업 범주안에서 IT분야 봉사단파견을 추진중임. (해외봉사단 파견은 1990년부터 시작)

- 특히 동 사업의 각 부처 추진과 관련, 외교부 및 국제협력단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외협력사업 추진에 기여하기 위해 **부처간 협의 및 업무 협조 등 공조협력을 위해 노력중임.**

부처별	외교통상부(협력단)	교육인적자원부	정보통신부
사업명	**해외봉사단 파견사업** (IT분야 포함)	**APEC 청년인터넷 봉사단사업**	**인터넷 청년봉사단사업**
추진 배경	우리 정부의 대개도국 주요 개발협력사업의 하나로서 1990년이후 지속 실시	2000. 3, APEC서울 포럼시 대통령 제안	2000.11, ASEAN+3 정상회의시 대통령 제안
사업 계획	IT분야 22개국 45명 파견 계획 (총 해외봉사단파견: 180명) - 파견기간: 2년	APEC국가에 대학생 120명 파견 계획 - 파견기간: 3주간	아시아 등에 대학생 150명 파견 계획 - 파견기간: 10일 - 2개월
예산	4.7억원 (전체 해외봉사단 파견사업비: 78.8억)	2억원 (교육부 신규사업 예산)	8억원 (정보화촉진기금)
추진 현황	- 상반기(6.22) 14명 파견 완료 - 하반기 20명 선발 (11월 파견 예정) ※ 1991-2000 IT분야 파견실적: 166명 (전체 파견인원: 722명)	- 주관기관: 대학사회봉사협의회 (2000.8 선정) - 1차적으로 태국, 인니 2개국에 8.5-19(15일간) 44명 파견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 위탁 시행 - 7-8월 10일-2개월간 21개국 178명 파견

IT 6. 대개도국 정보격차 해소지원사업의 일원화 필요성은

1. 추진현황 및 문제점

○ 선·후진국간 정보격차 해소(bridging the digital divide)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주요 개발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 정보지식강국을 지향하는 우리 정부도 국제무대에서 개도국의 정보 지식 격차 해소에 대한 협력의지를 표명해 오고 있음.

○ 이와 관련, 현재 대개도국 공적개발원조(ODA)를 전담하고 있는 외교부(KOICA) 이외에도 교육부, 정보통신부 등 각 부처에서 관련예산을 반영, 대개도국 정보격차 해소 지원사업을 분산 추진중임에 따라

- 정부차원의 정책적 고려와 일관성 유지 곤란
- 타 원조분야/사업수단간 연계 부족으로 사업효과 감소
- 분야별 전문성을 전제로 한 분산추진으로 업무효율성 저해와 수원국의 업무 혼선초래가 우려되고 있음.

2. 개선방안(안)

○ 정보격차 해소 지원을 통해 개도국의 빈곤완화와 경제사회개발에 기여하고 중장기적으로 우리의 국익실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인터넷봉사단을 포함한 IT 협력사업도 **무상 ODA 전담기관인 KOICA에 예산과 사업을 일원화**하여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만 개선방안으로서,

i) 외교부의 ODA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ii) 정부부처간 협의체계 구축 및 협의기능을 강화하며
iii) 사업추진시 민간부문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KOICA의 사업추진체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홍보 1. 국제협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1. 2000년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 2000.11월, 중앙일보사와 공동으로 전국 20세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제협력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일반국민의 국제협력에 대한 이해와 참여 의욕은 높은 편이나, 협력단과 국제협력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각각 30.8%, 55.2%로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응답자의 약 78.8%는 과거 미국 등 선진국의 경제원조가 한국의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에 기여했으며, 개발도상국 원조에 대한 한국의 원조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음.

○ 또한 응답자의 34.4%가 우리나라의 원조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응답자의 59.2%는 한국해외봉사단 및 전문가 파견사업 등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음.

2. 국민인지도 제고 노력

○ 현재 협력단은 ① 언론매체 홍보 ② 인쇄·영상매체 홍보 ③ 이벤트행사를 통한 홍보 ④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경제인 단체, 청소년 단체 특별강연 ⑤ Cyber(전자) 홍보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국제협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를 제고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앞으로도 국제협력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겠음. 특히, 금년 협력단 창립 10주년을 계기

로 국제협력 사진전 개최, 협력단 10년사 및 화보집 발간, 국제협력 세미나 개최, 국제협력 글짓기 공모전 개최 등 대국민 홍보사업을 연중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홍보 2. 대국민 홍보 활성화 방안 (종합)

1. 언론(신문 · 방송)매체 홍보 강화

① 국제협력사업 특집방송 및 기획보도 강화
- 방송매체를 통해 국제협력사업 특집방송 추진
- 신문매체의 현지취재 지원을 통해 협력사업 기획보도

② 자문위원중 언론계 인사의 의견 청취 기회 대폭 확대

③ 외교부 출입기자단 등 주요 언론관계자와의 연찬회, 사업설명 간담회 정례화

2. 국민 참여형 홍보 추진

① 국제협력 사진전 개최 및 국제협력 화보집 발간

② 교육기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주요기관 방문 특별강연

③ 협력사업관련 주요인사 초청 강연회 개최

④ 봉사단원, 의료단원, 전문가 등 파견인력 모집 선발시 계기홍보
: 각 대학 순회 방문 모집 설명회 개최 등

⑤ 대국회 홍보강화
: 의원보좌관, 입법조사관 등 초청연찬회 개최

3. 21세기 주체 양성을 위한 홍보 노력

① 국제협력 글짓기 공모전, 논문 공모전,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국민의 참여 확대

② 국제협력에 관한 초 · 중 · 고등학교 순회방문 강연

③ 대학생 및 대학원생 인턴십 및 위탁근무 기회 확대

④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사연수프로그램에 강의과정 개설 추진 등

4. 인쇄물 · 영상홍보물 배포 및 전자홍보 확대

① 각 교육기관 도서관, 지역 마을 도서관등에 KOICA 인쇄홍보물 배포를 확대해 폭넓고 다양한 계층에 협력사업 홍보

② 협력사업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국민홍보용 영상물을 제작, 공공교육기관에 시청각 교재로 배포

③ 주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KOICA 홈페이지 링크 확대

홍보 3. 국제협력사업의 해외홍보 활성화 방안

1. 해외홍보 추진현황

ㅇ 개도국 현장에서 추진되는 각종 협력사업의 현지 언론 보도

ㅇ 해외봉사단원, 의료단원, 전문가 등 파견인력을 통한 수원국 정부 및 국민 홍보

ㅇ 동창회(인도네시아, 네팔 등 9개국) 결성지원 및 동창회 명부작성 등 초청연수생의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홍보 Group 확보 및 운영 활성화

ㅇ 개도국 초청연수생, 주한공관 및 개도국 방문인사를 대상으로 홍보

ㅇ 기자재 공여물품에 한국 기증 문구 부착 등

2. 향후 추진방향

ㅇ 협력단의 해외사무소 및 재외공관을 통한 협력사업의 현지 언론 및 방송홍보 강화

ㅇ 파견인력을 통한 grass-roots 홍보 강화

ㅇ 주한 개도국 공관 및 수원국 주요인사와의 유대강화를 통해 KOICA 홍보 창구화 도모

ㅇ 국정홍보처, 관광공사, KOTRA등 유관기관의 해외홍보망과 연계 홍보 확대

신청사 1. 협력단 신청사 건립추진 현황 및 계획

1. 현 황

○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점증하고 있는 개도국과의 국제협력사업을 능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본부의 적정 사무공간 및 외국인 연수훈련센터, 봉사단원 등 해외파견인력 훈련시설 등을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신청사를 건립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수행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한편 현재의 협력단 청사는 지난 '68년 및 '78년에 각각 준공된 건물로서 노후화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그동안 개·보수를 계속 실시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사무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측면 등을 고려하여 현재 신청사 건립을 위한 최초 사업추진 예산(설계비 등)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 중에 있으며, 참고로 신청사 건립에 따른 재원은 기존의 협력단 보유건물을 매각한 자금으로 추진할 예정임.

2. 향후 추진계획

○ 외교부 소유 구 일해재단(성남시 수정구 시흥동)의 국유지 188,314평의 국유재산을 중 약 30,000평에 총 건축면적 8,000평을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할 예정.

- 본부동 4,000평(최초3,000평), 강의동 900평, 연수동 3,100평

○ 신축재원은 부동산(본부, 연수센터) 매각대금 추정가액 400억원을 활용하여 신청사를 건립할 예정임.

○ 금번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부칙 제6조에 의거 국제협력기관의 공공청사는 2003. 12. 31까지 수도권내에 신·증축이 한시적으로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Ⅲ. 의원별 예상질의 답변

의원별 예상질의 내역 목차

- 남남협력과 개도국간 기술협력(TCDC)에 대한 아국 지원 방안 1
- 2000년도 국감시 시정조치 요구사항 중 ODA 재원 확대방안과 DAC 가입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현황 3
- 개도국과의 협력증진과 지원확대를 위한 통외위 권고안 마련 필요성 ... 5
- 수원국으로부터 가장 호응이 좋은 한국형 협력사업의 중점 실시 필요성 7
- 중국, 베트남, 중남미, 아프리카 등 개도국 지원전문인력 적극 양성 및 활용 방안 9
- 연수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해 전문연구기관, 대학, NGO 등과의 협력 강화 필요성 11
- 77그룹 탈퇴이후 개도국과의 외교관계 강화에 무상협력사업이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13
- 외교 및 경제무역관계를 감안하여 공관 철수국가 등에 대한 협력단 사무소 설치 확대 필요성 15
- 봉사단, 전문가, 의사 등 오지 활동인력에 대한 신변안전 대책 17
- 아국 기자재 및 물자의 무상공여가 수출촉진 등에 미치는 영향 19
-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다자지원과 유상지원 비중이 과다한데 이에 대한 개선 대책 22
- 신흥시장 개척과 투자 및 무역다변화,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 등 우리나라 경제적 실리 증대에 무상원조가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24
- 협력단의 적정인력 확충과 인건비 등 처우개선 방안 26
- 한국과 싱가폴, 이스라엘, 일본 등과의 제3국 연수 등 확대 추진 필요성 28
- 우리나라 대외원조의 원칙, 철학 및 규모 확대를 위한 헌장제정 필요성 30
- 국제협력요원 제도의 부활과 사업성과 32
- 초중등 교과서에 우리나라의 의사와 봉사단 활동과 KOICA가 소개되고 있는데 인터넷을 통한 국제개발협력 교육자료 제공 필요성 34
- 해외봉사활동 경력 우대방안 등 관계법 개정 필요성 36
- 해외봉사단, 전문가 및 협력단 임직원의 국제기구 진출 사례와 확대 방안 38
- 우리나라 대외원조의 원칙, 철학 및 규모 확대를 위한 헌장제정 필요성 40
- 협력사업을 분야(Sector)별로 수행하여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42

- 우리나라 ODA 사업의 특성 및 성과에 대한 전반적 평가 필요성과 방안 44
- 최빈국 회의 및 OECD/DAC 고위급 회의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원조정책 동향과 전망 46
- 해외사무소장 및 주재원의 신분을 외교관에 준하도록 개선 필요성 48
- 동포재단, 교류재단과의 업무 중복성과 공동 협력 필요성 50
- 야따마우까 농장의 임대개발 가능성과 정부(외교부)의 방침 52
- 개도국과의 선진국과의 정보격차(Digital Divide)해소를 위해 IT사업을 중점 발굴 지원 54
- 협력단 직원의 이직현상 등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인센티브제 및 성과급제, 보직공모제 등 필요성 56
- EDCF 사업을 위한 사전조사(F/S)사업의 협력단-수출입 은행의 공동실시 추진방안 58
- 기근, 홍수, 지진 등 인도주의적 긴급구호 원조의 확대 필요성 61
- 협력사업 분야(Sector)별로 수행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 63
- 인접국과의 환경협력사업 확대 필요성 65
- 협력단 신청사 설립 필요성과 추진계획 67
- TV 공익광고, 인터넷 등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 방안 69
- 한승수 장관의 유엔총회 의장직 수행에 따른 대 개도국 지원사업의 대폭 확대 필요성 72
-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NGO의 육성과 지원 확대 방안 74
- DAC 가입준비를 위한 선진국 원조정책 조사연구 확대와 우리나라의 원조정책 평가 필요 76
- 정통부, 산자부, 과기부, 교육부 등 부처별 협력사업 추진현황과 IT협력사업 등 일원화 대책 78
- 협력단 창립 10주년에 즈음한 대 개도국 무상협력사업의 성과 및 기관운영 평가 필요성 80
- 국제대학원 등과의 개도국 지역연구와 국제협력분야 협력강화 필요성 .. 82
- 국제협력요원들의 귀국 후 진로와 지역 전문가 활용방안 84

통외위 의원말씀 및 답변자료

(2001. 9. 11(화) 10:00 통외위 회의실)

2001. 9. 10

행 정 법 규 팀

남남협력과 개도국간 기술협력(TCDC)에 대한 아국 지원 방안

UNDP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개발과 개도국 지원기구들은 개도국의 기술 수준과 현지사정을 고려한 효과적인 기술이전과 무상협력을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과의 남북협력도 중요하지만 개도국간의 기술협력도 중요 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 하였지만 이러한 개도국들의 요구와 노력을 충분히 고려한 원조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KOICA에서는 남남협력 지원 차원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앞으로 인도네시아, 이집트, 태국 등 남남협력의 핵심국가들을 통한 대개도국 협력사업 추진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남협력과 개도국간 기술협력(TCDC)에 대한 아국의 지원 전망

□ 우리나라는 77그룹의 결성('64년)이후부터 그동안 남남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UN이 주최하는 관계 회의 등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선발개도국으로서 후발 개도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 특히, 우리나라의 OECD 가입으로 인한 77그룹 탈퇴 이후 지난 '97년부터는 매년 한·UNDP간 남남협력 신탁기금(Trust Fund)에 출연해 오고 있으며, 연 인원 1만명에 달하는 연수생을 초청하는 등 협력단의 대개도국 기술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기여를 해왔습니다.

● 한·UNDP간 남남협력 신탁기금 현황

- '97년: 200천불, '98년: 100천불, '99년: 100천불, '00년: 100천불

□ 또한 협력단은 개도국간 기술협력(TCDC)를 촉진하기 위해 UNDP 등과 개도국 중의 중점 국가들을 통한 제3국 방식의 협력사업 추진에 대해서 적극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 계획인 바 인도네시아, 태국, 이집트, 페루, 베트남 등 지역 거점국가들과의 협력증대를 통해 해당 지역 인접국과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대 유엔외교 및 개도국 경제협력 정책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개도국과의 기술협력을 증진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특히 개도국의 인적자원개발 지원에 역점을 두고 인력협력사업을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국감시 시정조치 요구사항 중 ODA 재원 확대 방안과 DAC 가입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현황

KOICA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00년도 ODA 규모는 GNP 대비 0.047%로 2억 1200만불이고 99년도보다 33%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매년 국감때마다 지적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우리의 경제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작아서 국민 1인당 원조 부담액이 연간 4.5불로 일본의 103불, 호주 52불, 스페인 34불과 비교하면 우리가 가난한 나라를 돕는데 너무 인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국감시 시정요구 사항으로 ODA 재원 확대방안을 강구하도록 한 바 있고 아울러 OECD/DAC 가입 준비도 구체화하도록 권고하였는데, 지난 1년 동안 정부와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지 그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ODA 재원확대 방안 및 DAC 가입 추진현황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00년도의 우리나라 ODA규모는 GNP대비 0.047%(212백만불)로, DAC 회원국 평균인 0.22%나 우리와 경제력이 비슷한 네덜란드 0.82%(31억불), 호주 0.27%(9.9억불) 비해서도 훨씬 낮은 수준으로 개도국으로부터 점증하고 있는 협력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 따라서, 우리정부는 OECD 회원국으로서 우선 ODA규모를 2005년까지 GNP대비 **0.1%수준**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0.2%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목표로 삼아 ODA 예산증액 필요성을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에 적극 설명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DAC 가입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국력에 상응하는 적정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보다 큰 영향력을 확보하고 신인도를 제고해 나가는 한편, 원조사업에 있어서도 선진국들과 정보교류 및 공동프로젝트 실시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선진화된 사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DAC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ODA 규모를 DAC 회원국 최저 수준인 **0.1%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가입 후에는 DAC 회원국의 평균수준(0.2% 내외)을 유지하는 등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원조규모를 확대해야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나라의 DAC 가입은 ODA 규모가 GNP 대비 0.1%정도 수준이 되는 시점에서 현실적인 검토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현재는 DAC 고위급회의 등에 옵저버로 참여하고 있으며, 회원국들의 동향이나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는 등 향후 본격적으로 가입이 검토될 시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개도국과의 협력증진과 지원 확대를 위한 통외위 권고안 마련 필요성

개발도상국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총 대외교역량의 50%이상, 무역수지 흑자의 93%를 차지하고 있고 석유, 목재, 농산물, 광물 등 원자재 확보에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개도국의 지원과 협력 없이는 어떤 외교적 목적 달성도 어려운 것을 감안할 때 개도국과의 협력 증진과 지원 확대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KOICA의 무상협력자금은 IMF 이전 수준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는데 국회 차원에서 대 개도국과의 협력증진과 무상원조 확대를 위한 통외위의 권고안을 채택하여 우리나라의 경제 다변화와 실리증진 및 장기적 투자촉진을 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되는데 위원장님과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개도국과의 협력증진과 지원 확대를 위한 통외위 권고안

□ 개도국은 2000년 우리나라 무역흑자(118억불)의 91%(107억불)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인구의 70%(47억명)를 가진 잠재적 시장으로 개도국과의 교역확대는 우리경제의 활로 모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 따라서 대 개도국 협력사업은 우리의 외교·안보 및 경제적 국익 도모를 위한 중요 수단으로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며, 특히 선진국들의 최근 원조정책 논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빈국에 대한 무상지원 확대, 외채탕감 등 획기적인 조치와 우리나라의 무역투자 정책과 연계된 장기적 원조전략의 추진이 긴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ODA규모는 경제력에 비해 매우 작은 수준이므로 OECD 회원국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는 역할 수행과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국익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ODA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개도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러한 측면에서 국회 통외위 의원님들께서 개도국과의 협력증진과 지원확대의 필요성을 공감하시고 ODA 재원 확대를 위한 권고안을 준비하여 주신다면 이는 우리 KOICA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외원조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중대한 일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대외적으로도 개도국과의 경제외교 강화와 다변화 정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와 관련 의원님들의 배려와 지원에 재삼 감사 드립니다.

수원국으로부터 가장 호응이 좋은 한국형 협력사업의 중점 실시 필요성

지난 10년 동안 국제협력단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무상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축적하여 왔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점 민형기 총재 이하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 드리고 싶습니다. 해외에 나가보면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국내외 경제 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장 성공한 선발개도국, 전쟁의 폐허에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경제기적을 낳은 국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당당히 인정받고 있음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적자원 개발분야에서 후발 개도국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KOICA는 그 동안의 원조 경험을 통해 어떤 분야가 가장 개도국으로부터 호응이 좋으며 선진국이 할 수 없는 한국형 협력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가 어떤 것인가를 연구하고 이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재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수원국으로부터 가장 호응이 좋은 한국형 협력사업의 중점 실시 필요성

□ 우리나라는 과거 최빈국 중의 하나이면서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성장한 독특한 개발경험을 지닌 나라로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이 필요로 하는 협력사업 수행을 통해 개도국으로부터 많은 호감을 받아왔으며, 선진국에 비해 규모는 적지만 매우 효과적인 지원으로 신흥 원조국으로서 모범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 특히 우리의 원조는 하드웨어와 같은 시설과 자금 지원방식 보다는 개도국의 인적자원개발 지원과 제도적 능력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전략은 개도국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 따라서, 앞으로도 지난 30여년의 짧은 기간동안 이룩한 경제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만이 보유하고 있는 독특한 인간중심의 개발 전략과 개도국의 발전단계에 알맞은 적정 중간기술을 중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우리와 개도국간의 기술 연계를 확대하고 개도국의 여건과 수요에 가장 적합한 무상협력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편, 최근에는 선진국과 개도국간 정보격차 해소문제가 중요한 세계적 과제로 부상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비교우위분야인 정보기술(IT)을 개도국에 지원하기 위해 IT협력팀을 신설하여 개도국의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인적자원개발 분야와 IT분야가 개도국이 가장 필요로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자신있게 지원할 수 있으며 상호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한국형 협력모델의 핵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베트남, 중남미, 아프리카 등 개도국 지역 전문인력 적극 양성 및 활용 방안

대 개도국 원조사업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도움을 주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格調를 높여주고 장기적으로는 개도국과의 협력강화를 통해 미래를 위한 투자기반을 확충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외 원조사업은 이러한 효과 이외에도 우리 국민과 기업들을 다양한 원조사업에 참여시킴으로써 세계화 역량을 증대시키고 세계 곳곳의 지역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대외경제구조가 아직도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의 교역에 편중되어 있고 대외의존도가 심하여 경제가 취약하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경제의 다변화와 대 개도국과의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서도 지역전문가의 본격적인 양성과 활용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협력단에서는 세계 각 지역에서 장기간 활동하고 돌아온 봉사단, 전문가, 의사 등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앞으로 지역전문인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활용할 방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베트남 등 개도국 지역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방안

□ ODA 사업의 확대에 따라 대 개도국 협력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전문인력이 긴요합니다만, 국내적으로는 이에 대한 체계적인 인력양성과 활용체제구축이 아직은 미진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특히, 효과적인 협력사업의 수행을 위하여서는 개도국 지역연구와 정책연구를 활성화함으로써 국제협력사업의 중장기적인 추진방향과 전략수립 등과 같은 주요 역할을 수행하도록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러한 개도국 지역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는 우수인력의 확보가 관건인바, 지역별 언어 및 정보, 개발협력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을 적극 채용, 훈련시키는 인력양성체제를 갖추고 국내외 지역전문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 습니다.

□ 무엇보다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협력단에서 파견하고 있는 봉사단, 협력요원, 의사, 전문가들에 대한 사후관리와 지원을 확대하고 이들을 지역전문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 풀에 등록할 뿐 아니라,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UNDP, UNV 등 국제기구에 전문가로 파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연수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해 전문연구기관, 대학, NGO 등과의 협력강화 필요성

KOICA가 하고 있는 여러 무상협력사업 중에서 개도국의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는 인력협력사업은 매우 성과가 좋으며 특히 개도국의 고위정책담당 공무원과 연구자들을 초청하여 한국의 발전경험을 전수하는 연수생초청사업은 단기간 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KOICA의 개도국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국내의 전문연구기관과 대학, NGO 등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들 전문기관들과의 공동협력관계를 더욱 확대하여 KOICA 사업도 홍보하고 관계기관의 전문성도 십분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KOICA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연수전문기관은 얼마나 되며 앞으로 이들 참여기관을 확충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연수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해 전문연구기관, 대학, NGO 등과의 협력강화 필요성

□ KOICA는 모든 연수과정의 기획 및 실시준비 단계에서부터 해당 분야 전문기관의 전문가를 Program Consultant로 활용하고 있으며, 연수과정의 진행은 KOICA가 직접 실시하는 특별 자체과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2001년도 KOICA 연수사업을 실시하는데는 총62개의 국내 전문기관과 연구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들은,

- ㅇ 정책입안 및 집행기관 :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15개 기관
- ㅇ 정부출연연구 및 투자기관 :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31개 기관
- ㅇ 교육기관 : 경희대, 한국외국어대 등 9개 대학
- ㅇ 민간단체 :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 7개 기관

□ KOICA는 내년도에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연수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방금 언급한 기관 이외에도 신규 전문기관을 발굴 중에 있으며, HRD 및 앞으로 중점 추진될 분야인 IT기술 등과 관련된 연구소 및 대학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연수사업은 각 분야별 전문성과 축적된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서, 모든 연수과정의 기획, 준비 및 시행에 있어서 해당 분야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국내 유수의 기관과 대학, 연구소, 단체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이들 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77그룹 탈퇴이후 개도국과의 외교관계 강화에 무상협력사업이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우리나라는 경제개발과정에서 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심어 주었고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룩한 수범적인 성장모델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정치 외교적으로도 대부분의 개도국이 참여하고 있는 77그룹의 창설 멤버 국가이기도 하였는데 우리나라가 1996년에 OECD에 가입하면서 이로부터 탈퇴하였고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개도국의 입장에서가 아닌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적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실리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외교적으로 다소 소원해진 77그룹 및 전통적인 비동맹 개도국들과의 관계개선과 협력증진에 우리의 무상원조사업이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또한 앞으로 이들 국가들과의 협력증진을 위해 어떠한 원조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77그룹 탈퇴이후 개도국과의 외교관계 강화에 무상협력 사업이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 대 개도국 무상협력사업은 그간 우리정부의 외교활동을 지원하고, 자연재해와 난민과 같은 범 지구적인 문제의 해결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국익증진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 특히,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하면서 부득이하게 77그룹에서 탈퇴한 후 개도국과의 있을 수 있는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하고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갈등을 극복하는 데에도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77그룹 탈퇴 이후에도 77그룹회의 등 개도국들의 회의에도 계속 옵저버로 참여하고 있으며 UNDP 등 국제기구를 통한 남남협력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 우리의 개도국 지원사업이 외교적 성과를 거양 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들로서는, 프로젝트사업 준공식 등에 해당 국가의 수상, 대통령 등이 참석한 사례가(베트남 증권거래소 사업 개장) 11여회 이상, 장·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참석사례는 50여회 이상이며, 개도국 정부로부터 훈장 또는 포상을 수여받은 사례(한·수단 직업훈련 건립지원)가 4회인 바, 개도국 지원사업은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외교역량을 강화함으로써 UN 안보리 이사국 진출과 2002년 월드컵 유치 등에 기여하였다고 보여집니다.

□ 이들 국가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우리의 개발경험을 전수함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비교우위가 있는 인적자원개발(HRD)분야 등을 중심으로 협력사업이 확대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외교 및 경제 무역관계를 감안하여 공관 철수국가 및 신흥시장 개척 필요 국가에 대한 협력단 사무소 설치 확대 필요성

협력단 사업은 개도국 오지에서 수행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고 원조사업은 개도국의 현지사정을 고려하여 수원국이 시급히 필요로 하는 분야를 발굴하여 효율적인 원조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사업수행체계가 긴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98년 이후 협력단은 해외사무소를 축소하고 현장관리 직원도 대폭 축소 운영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사업량이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현장관리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도국 공관은 3-4명의 소수 공관 인력으로 운용되고 있는 만큼 개도국 공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제협력과 원조업무를 수행할 인력이 절대 필요하다고 재외공관으로부터 건의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외공관 인력이 부족한 국가들에 대하여 협력단에서 직원을 파견하여 대 개도국 외교와 경제협력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재의 의견은 어떠한지 듣고 싶습니다.

외교 및 경제 무역관계를 감안하여 신흥시장 개척 필요 국가에 대한 협력단 사무소 설치 확대 필요성

□ 협력단은 현재 12개국에 총 15명의 직원을 해외사무소 또는 주재원으로 파견하여 협력사업을 현장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력단 해외사무소는 공관에서 수행하기에 업무적으로 부담이 되는 주요 대외원조 사업과 파견인력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아직은 예산사정과 정부의 지속적인 경영혁신 방침 등을 감안하여 수원상위 10국과 지역거점 국가에 한정하여 협력단 해외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캄보디아, 미얀마 등의 인도차이나 지역 국가들과 중남미 및 아프리카 지역의 주요 경제협력 국가들에 대한 사무소 설치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KOICA 해외사무소는 신흥시장으로서 투자가치가 높은 국가와 공관인력이 특히 부족한 지역에서 무상협력사업을 통해 주재국 정부와의 상호 호혜적 관계를 조성하고 아국의 이미지를 선양함으로써 우리의 기업이 진출하여 투자할 수 있는 사전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상품 수출을 촉진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아국과의 경제 외교적 고려가 필요한 신흥 시장국과 공관인력 부족국가에 대한 협력단 사무소 증설은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이 문제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사단, 전문가, 의사 등 오지 활동인력에 대한 신변안전 대책

개발도상국 오지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KOICA 파견 인력은 봉사단, 협력요원, 전문가, 의사, 태권도사범, 현장관리 직원 등 수백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풍토병과 각종 사고 위험을 감내하면서 우리나라의 민간사절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들에 대한 안전사고나 신변안전 대책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개도국에서 우리 교민이나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나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KOICA 파견인력도 사고에서 예외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총재께서는 지금까지 있었던 현지에서의 사고 발생 사례와 KOICA의 처리 결과를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봉사단, 전문가, 의사 등 오지 활동인력에 대한 신변 안전 대책

□ 최근 3년간 파견인력 중 봉사단원들이 당한 주요한 안전 사고는 단순 교통사고, 활동중 낙상 등 11건으로, 현지의 열악한 교통 및 생활 환경을 감안할 때 돌발적인 사고의 변수가 많으며, 해외에서의 장기간 근무 시 파견 인력들의 긴장감 이완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파견 인력들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파견 인력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봉사단원들에 대하여 파견전 국내훈련 기간중에 안전교육, 응급처치 및 구급법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 또한, 긴급의료지원서비스(SOS International)에 가입하여 안전사고 발생시 긴급후송 및 적기 치료가 가능토록 하고 있고, 기타 재해 및 상해보험 가입으로 파견인력들의 질병, 상해, 사망 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파견국별 비상연락체계를 항시 확립하고 현지 공관 및 해외 사무소 주관으로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비상시 행동요령, 응급처치 요령 등을 숙지시키고 있으며, KOICA 해외사무소장이 수시로 파견 인력의 활동 및 생활상태를 점검, 본부에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국 기자재 및 물자의 무상공여가 수출촉진 등에 미치는 영향

KOICA를 통해 무상원조사업은 우리나라의 상품을 개도국 시장에 알리고 sample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서 직접 간접으로 우리의 수출시장을 확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미국도 대외원조정책에서 Buy America 정책을 채택하였고 우리도 우리의 각종 상품과 기자재, 물자를 개도국에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상품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연 KOICA의 물자공여사업이 우리의 상품수출과 수출촉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평가한 적이 있었는지, 이러한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에 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국 기자재 및 물자의 무상공여가 수출촉진 등에 미치는 영향

□ 협력단은 대외 물자지원에 있어서 우수한 국산품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까닭에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의 개척과 수출촉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주요 對韓 무역적자국, 특히 아시아 및 중남미 지역 국가들과의 무역마찰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주요 수출촉진 사례들을 말씀드리면, 탄자니아의 경우 1992년부터 국산차량을 지원(버스 3대, 승용차 2대, 짚차 4대, 트럭 3대)하였는데 이로써 아국 차량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져서 탄자니아 정부는 경찰청, 국방부 등에서 사용할 아국 차량을 대량 수입(경찰청: 현대 엘란트라 100대, 엑센트 200대/국방부: 기아 3.5톤 트럭 286대)해간 사례가 있습니다.

□ 또한 이집트의 경우에는 차량 지원이 아국의 투자를 촉진한 사례입니다. 협력단은 이집트에 '91년부터 96년까지 승용차(41대), 승합차(10대), 진공청소차(2대)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는데 그 결과로 우리의 자동차 3사가 연간 각 1만~2.4만대 조립 공장을 설립하여 현지생산 판매 중에 있습니다.

□ 그밖에도 이러한 수출과 투자 촉진 사례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만큼 많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종합적으로 조사 연구하여 소책자로 발간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수출촉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조사연구보고서를 발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수출촉진 추가사례>

○ 이디오피아의 경우 차량 지원이 수출을 촉진한 사례('97~'99)

- 지원내역 : 승용차 8대, 짚차 1대, 버스 2대
- 우리 기업의 수출현황
  · '98~'99년도 : 무쏘 59대, 씨에로 55대, 라노스 31대 등 대우 자동차 총 296대 판매

○ WHO에 대한 백신 지원이 수출을 촉진시킨 사례('98, '00)

- 지원내역 : 소아마비백신 238천병
  (이디오피아 290천불 상당, 방글라데시 200천불 상당)
- 이디오피아의 경우, 소아마비백신 지원을 통해 제조업체인 녹십자백신(주)의 지명도 상승으로 78천불 상당의 제품 수출
- 방글라데시에서도 백신 성능을 인정받아 간염백신 수주 등 수출경쟁력 확보 기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다자지원과 유상지원 비중이 과다한데 이에 대한 개선 대책

KOICA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도 우리나라의 ODA 추정치를 보니 총 2억 1200만불 중에 양자간 원조는 1억 3100만불로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자간 원조는 8천만불로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자간 원조 중에서도 유상차관이 전체의 64%인 8340만불을 차지하고 있으며 KOICA의 무상원조는 양자간 원조의 36%에 불과한 4770만불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체 ODA 재원 중에서 KOICA의 재원은 22.5%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선진 공여국들의 ODA 구성비율 추이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특히 선진국들이 대부분 전액 무상으로 개도국 원조를 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유상원조의 비중이 너무 과중한 상태이고 전체 ODA 중 다자간 원조도 과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DAC에 가입한다고 볼 때 이러한 대외원조의 유상중심 편향 현상을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외교부나 협력단은 전체 ODA 중에서 KOICA의 무상자금 비중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른 선진국과 비교시 다자 및 유상지원 비중이 과다한데 이에 대한 개선 대책

□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선진국의 원조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ODA는 절대 재원이 작을 뿐 아니라 특히, 유무상의 비율에 있어서 세계적 추세와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ODA의 유무상 비율은 64:36인 반면, OECD/DAC의 평균비율은 20:80으로서 무상원조의 점유율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차이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ODA 재원은 **절대액**의 증액도 중요하지만 **배분방식**에 있어서 유상보다는 무상원조 비율을 대폭 증액시키는 것도 원조의 질을 평가받는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최근에 특히 주목할 것은 금년 4월 OECD/DAC 고위급 회의에서 최빈국에 대한 무조건부(untying) 원조가 합의되어 2002년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EDCF지원시에는 untying원조가 불가피하여 기존의 운영 기본틀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반면, 협력단의 무상협력사업은 tied원조의 예외규정(양허성 수준 80%이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국제적으로도 자국산 물품공여와 자국 기업참여를 보장받기 때문에 향후 추진방향도 무상 협력사업의 지속적인 확대로 나아가는 것이 국익증진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흥시장 개척과 투자 및 무역다변화,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 등 우리나라의 경제적 실리 증대에 무상원조가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최근 국제사회의 원조동향과 원조정책에 관한 주요의제를 보면 선진국들은 노골적으로 자국의 무역투자정책과 개도국 무상원조를 밀접히 연계시키고 있으며 무상원조를 통해 자국 기업들의 개도국에 대한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고 무역을 다변화하며 상품수출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너무 단견으로 대외 무상원조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적 실리와 국익을 추구할 수 있는 국가에 대한 전략적이고 집중화된 원조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과연 무상원조가 개도국과의 교역과 수출확대, 투자촉진 및 상품수출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KOICA에서는 이러한 연구를 한 적이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원조정책과 무역투자 정책과의 상호 관계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적극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신흥 시장개척과 투자, 무역다변화, 안정적 원자재확보 등 우리의 경제적 실리증대에 무상원조가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 무상원조사업은 프로젝트 사업과 도로, 도시건설 타당성조사 사업 등을 통해 개도국에 우리 기업의 진출과 투자환경을 측면 지원하고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에 기여하는 등 개도국과의 경제협력 증진에 크게 이바지하여 왔습니다.

□ 아국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등 무상원조사업의 파급효과에 관한 사례로서,

- 한국전력에서 "필리핀 바탄-말라야 복합화력발전소건립 타당성 조사사업"('93.10-'94.4/374천불)의 성공적인 수행을 토대로 필리핀 정부가 발주한 화력발전소건설시공사업 2건(8억불)을 수주한 바 있습니다.
- 현대엔지니어링 및 삼안건설 기술공사가 네팔 모디강 수력발전소 타당성조사('93-'94/735천불)사업과 EDCF(15백만불)와의 연계를 통해 발전장비 공급과 감리 업무를 각각 수주하였습니다.
- 네팔에 차량지원('91-'96/33대)을 지원한 결과, 현대자동차에 대한 현지들의 인식이 좋아져 카투만두 시내택시의 약 50%를 국산 차량이 점유하였으며,
- 인도네시아 저습지 벼농사 기계화사업('98-'00/110만불)을 통해 아세아 농기계에서 인도네시아에 2천대 가량의 농기계를 수출한 바 있습니다.

□ 또한 개도국 지원사업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 석유, 원목 등 해외수입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와 무역다변화 및 투자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무상원조 사업이 경제적 실리추구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협력단의 적정 인력 확보와 인건비 등 처우개선 방안

KOICA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91년 창립 이후 사업규모는 약 3배가 증대되었으나 인력은 오히려 27%나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1997년 구조조정 이후에는 신입직원을 거의 충원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직원들의 이직율도 극심하여 협력단 기관 운영에 상당한 장애가 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외원조 업무는 어학과 전문지식, 지역사정 등에 정통한 전문인력이 수행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열악한 처우로 인해 전문인력 확보가 어렵고 신규채용한 인력조차도 다른 직장으로 옮겨 간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총재는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경영개선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협력단의 적정 인력 확보와 인건비 등 처우 개선 방안

(이하 '이직현상 등에 대한 대책마련' 답변과 동일)

□ '91년 협력단 설립 이후 지난 10년간 사업비는 약 3배가 증가 하였으나 직원의 수는 오히려 91'년 말의 230명 보다 27%나 감소한 169명이 현재 협력단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인력이 감소한 것은 첫째 '97년 구조조정 이후 퇴직자가 많았으며 수년 동안 신규인력을 채용할 만한 인건비를 확보하기 못했고, 둘째 처우 수준이 열악하여 우수한 신규 채용인력들이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KOICA는 대외원조사업을 수행할 인력부족과 동시에 직원의 사기 저하 등 기관운영에 애로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우선적으로 인건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할 것이며, 둘째는 유능한 직원들이 능력과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성과급제도 등 보수체계를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원활한 인력 수급과 전문인력의 확보 및 양성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보직공모제의 실시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싱가폴, 이스라엘, 일본 등과의 제3국 연수 등 확대 추진 필요성

KOICA의 사업 중에서 연수생초청사업은 개도국의 경제 및 과학기술,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중견 공무원들을 한국에 초청하여 우리의 기술과 개발경험을 가르쳐주는 것이어서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들 뿐 아니라 아프리카 국가에 이르기까지도 매우 적절하고 방한연수 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OICA는 싱가폴, 일본 등과도 상호 보완적이고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에서 공동연수를 실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UNDP등 국제기구와도 공동연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공동연수 방식은 경비도 절감하고 대외적으로 홍보 효과도 있으며 선진국의 사업 기법도 배울 수 있는 등의 장점이 많으므로 앞으로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재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한국과 싱가폴, 이스라엘, 일본 등과의 제3국 연수 등 공동연수 확대 추진 필요성

□ 국제기구 및 제3국과의 공동연수는 타국 원조기관의 연수사업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연수사업의 질적 수준을 제고함은 물론 개도국으로부터의 다양한 연수사업 수요를 유효 적절히 수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특히, 이들 기관과 연수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함으로써 사업 경비를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와의 협력관계 구축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 KOICA는 '95년 싱가폴과의 시작으로 현재 이스라엘, 일본 등 제3국과의 공동연수를 실시중에 있으며,

- 싱 가 폴 : 외교부 기술협력국/'95~'01년간 22개과정 404명
- 이스라엘 : 기술협력청/'97~'01년간 5개과정 128명
- 일　　본 : JICA/'00~'01년간 4개과정 70명

□ 2000년까지 24개 과정에 472명을 초청하였으며, 금년에는 7개 과정에 130명을 초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앞으로, 이러한 제3국 공동연수는 그 사업성과를 감안하여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협력단은 칠레 국제협력청(AGCI)과도 중남미국가를 대상으로 경제개발, 정보기술, 해양환경, 광물자원 분야에서 공동연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실무협의를 마치고 약정을 체결할 예정임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립니다.

우리나라 대외원조의 원칙, 철학 및 규모 확대를 위한 헌장제정 필요성

우리나라의 대외 원조는 1987에 EDCF 기금이 설치되고 1991년에 KOICA가 발족되면서 본격적으로 실시되어 이제 10여년의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외원조 철학과 원칙이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아직 명확히 정리된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대외원조 자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할 뿐 아니라 사용 목적도 빈곤퇴치, 민주화와 평화 수호, 환경보호와 여성개발 등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선진국들은 거의 예외없이 국회에서 관련법을 제정하거나 정부에서 ODA 헌장(chart) 또는 대강을 정하여 원조의 목적과 원칙, 방법을 정하여 국민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우리나라도 이제 대외원조의 원칙과 철학, 재원규모를 정한 대외원조 헌장 등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정부와 협력단에서는 이러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외원조의 원칙, 철학 및 규모 확대를 위한 헌장제정 필요성

□ 선진국들은 이미 거의 모두 개발원조의 규모나 원칙을 정한 원조법이나 헌장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 일본은 1992년에 ODA대강을 각의에서 채택하여 ODA이념과 원칙, 중점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중기목표를 수립하여 원조규모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와 국력이 비슷한 스페인은 1998년에 국제개발협력법을 제정하였으며, 2000년에는 국제협력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ODA/GNP 비율을 0.3%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 포루투칼도 2000년에 21세기 개발협력전략을 수립하여 ODA/GNP 비율을 0.35%까지 확대하기로 정하였으며,
- 벨기에, 그리스 등도 국제협력법, 개발원조법 등을 제정하고 개발원조의 원칙과 전략, 규모를 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ODA 정책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동시 발전이라는 우리의 개발목표에 걸맞는 원칙과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며, ODA 사업규모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관련법이나 헌장을 제정하여 일관성 있는 대 개도국 지원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향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국회에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거나 'ODA 헌장'을 제정하는 방안을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국제협력요원 제도의 부활과 사업성과

작년에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통외통위 의원 모두의 공감과 협조로 폐지된 국제협력요원 제도를 부활시킬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과 다른 여야 의원들이 개도국 오지에 파견되어 활동하고 있는 국제협력요원들의 활약상을 직접 체험한 경험도 있어서 이 사업의 성과를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KOICA 총재께서는 작년에 국제협력요원 제도가 부활되어 실제적으로 어떠한 사업성과가 있었는지, 제도 부활이후 사업예산의 확보나 인재선발 등 운영상에 어려움은 없는지에 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요원제도 부활과 사업성과

□ 국제협력요원 제도는 병역대상자중 적격자를 선발하여 개도국에서 봉사활동에 종사케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수행토록 하는 제도로서, 국제협력봉사요원과 국제협력의사로 구분하며, 이 중 국제협력봉사요원 제도는 체육특기자, 예체능특기자 등 공익근무요원의 병역 특혜 문제발생에 따라 '99. 2월 병역법 개정시 폐지된 바 있었습니다.

□ 그러나 '95년도에 이 제도가 도입된 이래 컴퓨터, 태권도, 전기·전자 등 일반 봉사단원으로 충당키 어려운 전문분야에서 탁월한 활동성과를 거두었다는 점과 특혜시비가 있었던 일부 병역특례 제도와는 전혀 다른 성격임이 인정되어, 의원입법을 통해 2000. 12. 26일 병역법이 개정됨으로써 동 제도가 부활되었습니다.

□ 국제협력봉사요원 제도는 '95년부터 시작되어 그 동안 190명을 파견하였으며, 이는 91년부터 금년까지의 일반단원을 포함한 전체 봉사단원 파견 인원 1,003명 중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파견 성과 면에서 국제협력봉사요원은 컴퓨터, 태권도, 전기, 농업 등 일반봉사단원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분야의 인력을 충원하여 줌으로써 해외봉사단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는데 기여하였으며, 특히 태권도 분야는 파견국에 태권도 보급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고, 친한 인사 저변 확대 및 우호협력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 아울러,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면서 봉사활동을 통해 세계화에 필요한 젊은 인재를 적기에 양성토록 하였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고, 국가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 젊은 지역전문가 양성

초중등 교과서에 우리나라의 의사와 봉사단 활동과 KOICA가 소개되고 있는데 인터넷을 통한 국제개발협력 교육자료 제공 필요성

KOICA의 대외 무상원조 사업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우리나라가 어려운 나라를 돕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줌으로써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빈곤퇴치, 인권과 평화의 중요성 등 보편적 인류의 가치를 교육하여 앞으로 우리나라의 어린 세대들에게 자라나서 세계의 인류시민으로 성장 하는데도 매우 중요한 무형의 자산이 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사회교과서 등에 KOICA가 개도국을 위해 하고 있는 일과 슈바이처와 같은 의사, 봉사단들의 활동이 소개될 수 있었던 것은 KOICA 홍보를 위해서 뿐 아니라 후속세대에 대한 국제적 소양의 함양에도 크게 기여하는 일이므로 아주 바람직한 것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KOICA의 훌륭한 사업들을 교과서에 게재하고 청소년들이 즐겨 이용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다양한 교육자료를 수록하여 언제든지 활동자료를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국제협력사업 만큼 좋은 소재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KOICA의 인터넷을 통한 적극적인 교육홍보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초중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협력사업 및 KOICA 소개 관련 인터넷을 통한 국제협력 교육자료 제공현황

□ 협력단은 교육인적자원부의 협조를 받아 지난 97년부터 국제협력 사업에 대한 청소년의 이해 제고와 21세기 국제협력 인력양성을 위해 KOICA 및 국제협력사업에 관한 내용을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하고 있으며, 교사용 지도서에도 참고자료를 수록하여 현지 일선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초등학교 6학년 : 사회과탐구, 사회, 도덕 교과서
- 중 학 교 3학년 : 도덕 교과서
- 고등학교 전학년 : 경제, 사회 교과서

□ 이와 관련, 학생 및 일선 교사들이 일상적인 생활에서 국제협력사업을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종 교육자료를 게시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자료 요청시 직접 송부하여 주고 있습니다.

□ 의원님 말씀과 같이 국제협력 사업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세계시민으로서의 소양을 함양 하는데 필요한 교육적 수단으로 활용할 가치가 크며, 많은 선진국들이 국민들의 대외원조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국제협력교육과 개발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향후에는 정보화사회에 있어 증대되는 인터넷 홍보의 비중과 일반국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 보다 내실 있고 체계적인 국제협력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네티즌이 보다 친밀하게 접근할 수 있는 사이버공간 구축을 목표로 협력단의 인터넷 운영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해외봉사활동 경력 우대방안 등 관계법 개정 필요성

현재 KOICA에서 파견하고 있는 해외봉사단들은 국내에 귀국하여 그 경력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귀국 후 국내 진로를 찾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봉사단 활동 경험은 개개인들에게도 매우 값진 것이지만 국가적으로도 이들의 지역전문가로서의 활동 경험은 매우 귀중한 것이어서 제도적으로 이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경력 인정 혹은 경력우대정책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각종 자원봉사활동을 우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육성하기 위해 여러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KOICA에서는 해외봉사단들의 활동 경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기 위해 관련 법제도의 개선 등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에 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봉사활동 경력 우대방안 등 관계법 필요성

□ 최근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고조되면서 각급 학교와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여러 형태의 봉사활동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고, 특히 금년은 유엔이 정한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여서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을 정식으로 인증해 주는 제도가 정착되지 않았고, 봉사활동 경력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전 사회적인 자원봉사활동 진흥과 봉사자에 대한 우대를 위해서는 취업 시 자원봉사활동의 경력인정 등 방안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해외봉사단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우수자원 확보와 봉사활동 경험의 사회적 활용을 위해서는 이러한 봉사자에 대한 우대 제도의 도입이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더 나아가 현직에 있는 봉사활동 참가자의 휴직도 가능하도록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 이와 관련해서 현재 봉사활동의 경력 인정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자원봉사활동지원법"이 사회봉사단체들과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법이 도입되면 전 사회적인 봉사활동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선진국의 경우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나라는 없으나, 사회봉사활동이 일반화 되어있어 경력으로 인정하여 주고 있으며, 한편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지원법"과 유사한 법이 제정되어 경력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해외봉사단, 전문가 및 협력단 임직원의 국제기구 진출 사례와 확대 방안

외교부 국감 때마다 지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우리나라는 국제기구 분담금 규모에 비할 때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전문인력의 수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 차원에 개선 노력이 있어야 하겠지만 협력단도 이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유능한 전문인력을 국제기구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협력단에서 장기간 해외에 파견하는 해외봉사단과 전문가, 의사 뿐 아니라 협력단 출신 임직원들 중에서 국제기구에 진출한 사례가 있었는지, 또한 앞으로 국제기구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봉사단, 전문가 및 협력단 임직원의 국제기구 진출사례와 확대방안

□ '91년 협력단 발족이후 현재까지 봉사단원의 경우에는 유엔자원봉사단(UNV)으로 파견된 경우가 총 5개국 7명이며,

- '94년: 우즈벡/한국어 2명, '95년: 키르키즈스탄/컴퓨터 1명
- '96년: 몰디브/산림, 몰디브/농업, 부탄/작물재배 각 1명
- 2000년: 모리타니아/컴퓨터 1명

□ 전문가로서 국제기구에 파견된 경우는 총 5기구 42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 콜롬보플랜(CP)/과학기술 정책분야,
  메콩위원회(MRC)/관개분야,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공업정책 분야
- AIT/환경공학, 기술경영분야,
  CPSC/식품공학, 기술교육, 컴퓨터 분야 등

* **AIT: Asia Institute of Technology CPSC: Colombo Plan Staff College**

□ 다만, 직원을 국제기구에 파견한 경우로는 총 2기구에 3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 콜롬보플랜(안남기/'95.1-'97.5, 전준호/'97.5-'99.1)
- OECD/DAC(장현식/'97.8-'98.11)

□ 봉사단원 및 전문가의 경우 그 동안의 파견실적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직원으로 진출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향후 귀국 봉사단원 및 전문가들에게 국제기구에 대한 정보제공과 후보자 등록 및 적극적인 추천 등을 통해 국제기구에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지원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외원조의 원칙, 철학 및 규모 확대를 위한 헌장제정 필요성

우리나라의 대외 원조는 1987에 EDCF 기금이 설치되고 1991년에 KOICA가 발족되면서 본격적으로 실시되어 이제 10여년의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외원조 철학과 원칙이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아직 명확히 정리된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대외원조 자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할 뿐 아니라 사용 목적도 빈곤퇴치, 민주화와 평화 수호, 환경보호와 여성개발 등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선진국들은 거의 예외 없이 국회에서 관련법을 제정하거나 정부에서 ODA 헌장(chart) 또는 대강을 정하여 원조의 목적과 원칙, 방법을 정하여 국민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우리나라도 이제 대외원조의 원칙과 철학, 재원규모를 정한 대외원조 헌장 등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정부와 협력단에서는 이러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외원조의 원칙, 철학 및 규모 확대를 위한 헌장제정 필요성

□ 선진국들은 이미 거의 모두 개발원조의 규모나 원칙을 정한 원조법이나 헌장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 일본은 1992년에 ODA대강을 각의에서 채택하여 ODA이념과 원칙, 중점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중기목표를 수립하여 원조규모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와 국력이 비슷한 스페인은 1998년에 국제개발협력법을 제정하였으며, 2000년에는 국제협력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ODA/GNP 비율을 0.3%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 포루투칼도 2000년에 21세기 개발협력전략을 수립하여 ODA/GNP 비율을 0.35%까지 확대하기로 정하였으며,
- 벨기에, 그리스 등도 국제협력법, 개발원조법 등을 제정하고 개발원조의 원칙과 전략, 규모를 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ODA 정책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동시 발전이라는 우리의 개발목표에 걸맞는 원칙과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며, ODA 사업규모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관련법이나 헌장을 제정하여 일관성 있는 대개도국 지원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향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국회에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거나 'ODA 헌장'을 제정하는 방안을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협력사업을 분야(sector)별로 수행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

개도국 원조사업은 현지사정을 고려하여 개도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중점분야를 선정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협력단의 사업수행 편제는 연수사업, 개발조사사업, 전문가파견사업, 봉사단파견사업, 프로젝트사업, 물자공여사업 등으로 되어 있어 지원방식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진 원조기관으로서 협력단이 발전하려면 조속히 지역별, 분야별 노하우를 종합하여 보다 전문성이 있고 여러 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재의 생각은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력사업을 분야(sector)별로 수행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

□ 원조사업의 실시체계는 원조규모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KOICA의 무상원조 재원은 금년의 경우 4600만불에 불과한 수준이어서 이를 130여개의 개도국에 국별로 배분하다 보니 소액의 최소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 일본 : 133억불
- 미국 : 91억불

□ 이러한 재원에서는 프로젝트의 규모도 대개 수십만불 정도이고, 많은 국가에 대한 협력사업이 물자지원에 한정되기도 합니다. 현재의 협력예산 규모 아래서는 지금까지 KOICA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별 지원체계가 더욱 효과적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이제 점차로 재원이 확충되어 단위사업의 규모가 커지고 사업간 연계가 확대될 뿐 아니라 중점 지원국에 대한 국별 원조전략이 수립되는 등 원조 규모가 증대되면 의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분야(sector)별 사업수행과 국별 프로그램 전략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 그러므로 향후에는 원조규모의 증대 추이를 보아가면서 가장 효율적인 재원의 배분과 사업성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분야별, 국별 전문화와 사업수행체계의 개선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ODA 사업의 특성 및 성과에 대한 전반적 평가 필요성과 평가 방안

우리나라의 ODA는 경제규모에 비해 재원도 작고 다자기구를 통한 지원과 유상차관 지원의 비중이 과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ODA가 선진국과 비교하여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DAC에 옵저버로 참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해 선진국들의 기대와 평가는 어떠한지에 대해 말씀하여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ODA에 대한 정책적인 평가작업이 미진하였다면 앞으로 점차 확대되어야 할 ODA 자금의 효율적 사용과 성과 제고를 위해서도 정책평가가 매우 중요한데 유무상 원조를 총괄하여 우리나라의 ODA 사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ODA사업의 특성 및 성과에 대한 전반적 평가 필요성과 방안

□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협력단은 우리나라의 ODA사업 중 양자간 무상 원조사업을 전담해 오고 있습니다. KOICA 사업은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소액 다국가 지원방식으로 실시되고 있는 특징이 있으며, 우리나라 ODA는 선진국에 비해 원조역사가 일천하고 국민의 참여 부족 등 아직은 원조실시 기반이 제도적으로 취약한 실정이라고 보여집니다.

□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10년간의 과거를 뒤돌아보고 개선점을 찾기 위해 우리나라 ODA 사업 전반 및 유무상 원조사업 수행기관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계기로 세계화의 생존전략으로서 대 개도국 협력사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전기를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ODA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작업은 객관성 확보를 위해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한 후 학계, 언론계 등으로부터 국제협력에 식견 있는 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켜 원조정책 전반 및 실시기관을 평가하는 방안 등이 검토 가능할 것입니다.

□ 이러한 평가를 통해 아국의 DAC 가입문제, 원조규모의 절대액 부족문제, 효율적 사업실시 체제와 한국형 원조전략 수립 문제 등 주요 과제에 대한 교훈을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궁극적으로는 ODA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빈국회의 및 OECD/DAC 고위급회의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원조정책 동향과 전망

대외 원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외교적 실리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진국들의 원조동향과 주요 국제회의의 의제를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고 이에 대처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원조의 성과를 정당히 평가받고 국가 신뢰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6월 브뤗셀에서 UN 주관하에 개최되었던 최빈국회의와 OECD/DAC 회의에서는 최빈국의 외채탕감과 ODA의 untied화 논의가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이러한 추세를 고려하여 무상원조를 확대하고 필요하다면 관련법령과 제도개선에 반영토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조동향과 정책에 관해 총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최빈국회의 및 OECD/DAC 회의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제 사회의 원조정책 동향과 전망

□ 최빈국회의 및 OECD/DAC회의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최근의 주요 원조정책 동향으로는 우선 최빈국과 개발파트너들의 빈곤퇴치를 위한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을 인식하고 빈곤퇴치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최빈국들은 빈곤퇴치를 위한 자신들의 노력에 부응하여 선진국들이 필요한 지원, 예컨대, 선진국 시장완전 개방과 원조규모 확대, 외채탕감 등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 선진국들은 최빈국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개혁을 추진하여야 하며, 최빈국의 good governance를 강조하고, 최빈국들이 인권, 부패 및 분쟁방지, 시민참여를 강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금번회의 결과를 감안하여, 우리는 향후 최빈국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하여 현지실정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우리나라 원조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등 원조의 질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OECD/DAC 고위급 회의에서 최빈국에 대한 무조건부(untying) 원조가 합의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정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해외사무소장 및 주재원의 신분을 외교관에 준하도록 개선 필요성

KOICA 직원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개도국에 대한 원조사업은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될 뿐 아니라 이들의 업무는 국익증진을 위해 외교 일선에서 수행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공무입니다. 개도국에 설치된 아국 공관에서 원조업무가 차지하는 중요성과 비중은 실로 막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협력단 해외사무소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들은 주재국 고위 공무원들을 접촉하면서 일종의 경제외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신분은 외교관도 주재관 지위도 아닌 현지고용원 수준의 행정요원으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선진국 원조기관의 대표들은 모두 외교관 신분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협력단 해외사무소 근무 직원의 대외접촉 활동을 지원하고 중요한 외교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들에 대한 외교관 혹은 주재관 신분부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관해 총재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사무소장 및 주재원의 신분을 외교관에 준하도록 개선 필요성

□ 협력단 해외사무소는 경제외교의 최일선에서 현장중심의 개도국 원조사업을 수행하는 전초기지와도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른 선진국들의 해외사무소 직원들은 거의 모두가 외교관 신분으로 파견되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으며,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도 외교관과 마찬가지로 주재국 공무원들 및 각국 주재관들과의 접촉과 협의, 원조사업의 발굴과 관리 등 중차대한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별도 협정체결에 의해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JICA를 제외한 대부분 다른 선진국의 경우 외교관 신분임.

□ 우리나라의 경우, 여권법 시행령에 의하면 외교관 여권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에 한하여 발급되고 있으므로 공무원 신분이 아닌 협력단 직원들에게 외교관 여권발급이 어려워, 외교관에 준하는 면세 및 특혜를 누리지 못할 뿐 아니라 원활한 대외활동이 제한될 우려가 있습니다.

□ 따라서, 협력단의 업무와 역할 및 재외공관과의 긴밀한 관계, 공관내 사무소 설치, 공관장의 지도 감독권 등을 감안할 때, 선진국 원조기관의 대표들과 마찬가지로 협력단 해외근무 직원들에게도 외교관 신분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이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협력단 사무소장과 주재원들도 외교관에 준하는 신분을 갖고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외교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포재단, 교류재단과의 업무 중복성과 공동 협력 필요성

협력단과 동포재단, 교류재단은 각각 고유한 설립목적과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외교부 산하기관들인데 간혹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학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KOICA도 한국어 교수요원을 봉사단으로 파견하고 있고 어학실습 기자재도 제공하고 있으며, 동포재단은 우리 동포 2세 3세들에 대한 모국어 교육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교류재단은 한국학연구 지원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수행의 목적과 대상이 명확히 구분되고 있어서 문제는 없지만 이러한 유사 사업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동안 3개 기관의 업무공조나 협력사례가 있었는지, 앞으로 기관간 협력 계획이 있는지에 관해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재외동포재단, 교류재단과의 업무 중복성과 공동협력 필요성

□ 협력단은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의 일환으로 중국 조선족 등 개도국내 동포거주 지역이나, 개도국에 한국어분야를 지원해오고 있읍니다.

※ 중국 조선족, 러시아 및 중앙아지역 고려인등에 총 **4,312천불**을 지원
※ 한국어분야는 지금까지 연수생초청 313명, 봉사단파견 270명, 전문가 파견 6명 및 한국어센터건립지원등 9개의 프로젝트사업을 지원

□ 그러나, 이러한 협력사업들은 개도국과 우리나라와의 우호협력증진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실시하는 **공적개발원조사업(ODA) 으로**

- 재외동포의 민족적 유대감 유지 및 권익신장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동포재단이나, 한국학의 진흥·보급 및 문화 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류재단과는 그 **기본성격이 상이합니다.**

□ 또한, 협력사업은 우리정부와 개도국 정부간의 **정부간 협력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재외동포재단과 교류재단은 주로 동포단체나 한국학 관련 연구소, 대학 등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의미에서, 협력단이 정부간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ODA 사업은 재외동포재단이나 교류재단의 사업과는 중복된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 따라서, 협력단은 개도국내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이나 한국어분야 지원시 이들 기관과 긴밀히 상호 협력하여 사업효과를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야따마우까 농장의 임대개발 가능성과 정부(외교부)의 방침

우리 정부가 1978년에 남미 시범농장건설과 농업이민추진을 위해 매입한 아르헨티나의 야따마우까 농장은 그 동안 유휴지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서 여러 차례 국회에서도 지적한 바 있었고 작년도 국정감사에서도 그 처리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최근에 총재께서는 야따마우까 농장을 임대 개발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하여 임대개발 희망자를 모집하려고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문제가 많았던 남미 농장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지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을 말씀하여 주기 바랍니다.

야따마우까 농장의 임대개발 가능성과 정부(외교부) 방침

□ 정부의 남미시범농장건설 및 농업이민추진계획에 따라 '78년에 구입한 아르헨티나 야따마우까(20,894헥타) 농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활용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휴화된 상태로 있었으나,

□ 최근 이 농장에 전기가 신설되었고, 그동안 문제점이었던 농업용수도 농장에 흐르고 있는 하천의 수량 증가 등으로 다소 호전됨에 따라 현지 농업전문 컨설턴트 통해 영농가능성을 타진한 결과, 일부 작물재배 및 목축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이에 따라, 농장의 제반 여건을 감안 할 때, 장기 임대개발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임차자의 투자자금회수 등 안정적 투자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15~20년간 장기임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현재 현지 언론 등을 통해 임대 희망자를 공개 모집중이며, 임대 희망자를 확보한 후,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상기 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외교부)의 방침을 득하였으며, 만약 금년중에 장기임대가 어려울 경우에는 매각하는 방안도 기획예산처 및 외교부와 신중히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개도국과 선진국과의 정보격차(digital divide) 해소를 위한 IT 사업 중점 발굴 지원 필요

총재의 업무보고에서도 강조된 바 있지만 앞으로 우리나라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IT 사업 분야를 중점 지원하여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KOICA에서 배포한 책자에도 『국제사회의 IT 개발협력 동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매우 시의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KOICA는 개발도상국의 IT 사업을 중점 지원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그 성과는 어떻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도국과 선진국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IT사업을 중점 발굴 지원

□ 디지털 경제 하에서 정보는 가장 핵심적인 생산요소로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양과 질에 따라 소득이 좌우되는 바,

- 국제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IT의 잠재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새로운 개발과제로서 선·후진국간 정보격차(digital divide) 해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 우리나라도 개도국의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지원의지를 APEC, ASEM, ASEAN정상회의 등에서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협력단은 개도국이 IT활용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나라로서는 정보통신 강국으로서의 위상 제고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IT시장진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Win-Win이 가능한 IT협력사업을 중점 발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개도국은 전반적으로 IT인프라가 취약하며, 무엇보다 IT산업을 발전시킬 IT 인력양성이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파악되어

- 협력단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개도국의 IT 산업발전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근간이 될 IT 인적자원 개발(HRD) 분야를 중점 지원할 계획입니다.

-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몽골 등에 대해 IT훈련센타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중이며, IT분야 연수생 초청과 봉사단 및 전문가 파견사업도 확대 추진중입니다.
- 이밖에도 협력단은 다양한 사업수단을 활용하여, 개도국의 IT 인프라개선 지원, 정보화계획등 정책자문 제공, e-Government, e-Business 등 IT활용분야 지원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협력단 직원의 이직현상 등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인센티브제 및 성과급제, 보직공모제 등 필요성

KOICA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수년 동안 공채 직원들의 이직이 매우 심각한 상태이고 이는 처우수준이 매우 열악한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KOICA는 외국어 능력과 지역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이들은 국제전문가로 양성해나갈 책무를 지니고 있는데 이렇게 젊고 유능한 인력이 다른 직장으로 떠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의 증액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시에 KOICA가 국제협력 전문기관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인사 및 보수제도에서 인센티브제가 과감히 도입되고 능력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되는 등의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총재는 협력단 직원들의 처우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협력단 직원의 이직현상 등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과 인센티브제, 성과급제, 보직공모제 등의 필요성

□ '91년 협력단 설립 이후 지난 10년간 사업비는 약 3배가 증가하였으나 직원의 수는 오히려 91'년 말의 230명 보다도 27%나 감소한 169명이 현재 협력단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인력이 감소한 것은 첫째 '97년 구조조정 이후 퇴직자가 많았으며 수년 동안 신규인력을 채용할 만한 인건비를 확보하기 못했고, 둘째 처우 수준이 열악하여 우수한 신규 채용인력들이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KOICA는 대외원조사업을 수행할 인력부족과 동시에 직원의 사기 저하 등 기관운영에 애로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우선적으로 인건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할 것이며, 둘째는 유능한 직원들이 능력과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성과급제도 등 보수체계를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원활한 인력 수급과 전문인력의 확보 및 양성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보직공모제의 실시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EDCF 사업을 위한 사전조사(F/S)사업의 협력단-수출입은행의 공동실시 추진방안

우리나라의 대외원조는 외교부는 무상지원, 재경부는 유상차관 지원으로 이분화되어 있고 협력단이 무상원조사업을 수출입은행이 EDCF 차관사업을 총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대외원조가 이원화되다 보니 유무상 지원사업이 밀접히 연계되어야 더욱 효과적인데 그렇지 못한것으로 보이고 특히 EDCF 차관 지원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사업은 KOICA의 개발조사 사업과는 전혀 별개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협력단과 수출입은행이 공동으로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등 구체적인 업무 공조와 협력사업 연계 노력이 적극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연계 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DCF사업을 위한 타당성조사사업(F/S)의 협력단-수출입은행 공동실시 추진방안

□ EDCF 지원예정 사업중 타당성조사가 미실시된 사업의 경우, 수출입은행의 요청에 따라, 협력단이 개발조사사업으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주는 방안은 EDCF 및 협력단의 관련규정에 명문화되어 있으며, 동 규정들은 우리나라 유무상 ODA의 연계를 통해 ODA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 이와 관련, 협력단은 지난 '97년 7월 수출입은행과 체결한 업무협조 약정을 토대로, 양 기관간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EDCF와 개발조사사업의 연계율을 높이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 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련예산의 확보도 필수적인 바, 수출입은행의 요청이 있을 시 즉각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통상적인 개발조사사업 예산이외에 EDCF 연계사업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기 위해 예산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 또한, EDCF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EDCF연계 유망 신규발굴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를 재경부 및 수출입은행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으며, 그 일환으로 최근에 2개 사업에 대해 공동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 "베트남 하노이 신도시 주거단지개발 타당성조사사업"('01~~'02/1,000천불) : '00.1210~16
- "캄보디아 캄포트-트라팡로포 도로개보수 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사업"('01~'02/600천불) : '01.1.28~2.4

□ 향후에는 가능한 모든 신규발굴사업에 대해 공동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재경부 및 수출입은행과 긴밀히 협조해 나감으로써 유무상 협력 사업간의 연계를 강화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 : EDCF 지원사업에 대한 개발조사 실시 근거규정>

①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7조 제2항(타당성조사지원) ('97.10.16 신설)

「재정경제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기금지원사업이 타당성조사를 위하여 외교부 장관에게 한국국제협력단이 수행하는 개발조사사업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한국국제협력단 사업시행지침 제49조 제2항(지원대상사업)

「총재는 개발조사사업계획 작성시 당해연도에 접수된 유상차관공여 대상사업에 대한 개발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간 개발조사 총예산액중 일정부분을 별도로 책정하여야 하며, 이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근, 홍수, 지진 등 인도주의적 긴급구호 원조의 확대 필요성

최근 세계적으로 극심한 기상이변과 천재지변이 많이 발생하면서 개발도상국들은 극심한 빈곤에다가 기근, 홍수, 지진 등 천재지변까지 겹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지구촌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는데 절대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재난구호 지원을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과거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왔던 많은 우방 개도국들에 대해서 KOICA에서 지원하고 있는 긴급재난구호 자금은 너무 작다고 판단되는데 재난구호 자금의 현황과 향후 확대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근, 홍수, 지진 등 인도주의적 긴급구호 원조의 확대 필요성

□ 재난구호사업은 전후복구, 평화정착 지원 및 난민, 자연재해 등에 인도적 차원에서 적극 대처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상제고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 현재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자연재해 및 빈번한 국지전으로 인한 난민발생과 이에 따른 기아·질병이 만연하고 있는 국제적 현실을 감안할 때, 긴급 재난 구호사업의 규모 확대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 하지만, 재난 발생국에 대한 지원에 있어 그동안 우리나라의 지원 규모가 국내 언론으로부터도 지적을 받을 만큼 미미한 수준이었던 이유는 긴급재난구호 예산이 적정규모로 책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새로운 국제환경 속에서 우리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긴급 재난구호 예산 확보가 필요하오니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협력단은 이와관련 2002년도 4,500백만원의 재난구호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현재 정부안에는 2,161백만원이 반영되어 있음.

□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긴급재난 발생에 대한 상시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구조대 및 의료단의 파견과 물품지원 등을 병행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지원효과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협력사업을 분야(sector)별로 수행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

개도국 원조사업은 현지사정을 고려하여 개도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중점분야를 선정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협력단의 사업수행 편제는 연수사업, 개발조사사업, 전문가파견사업, 봉사단파견사업, 프로젝트사업, 물자공여사업 등으로 되어 있어 지원방식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진 원조기관으로서 협력단이 발전하려면 조속히 지역별, 분야별 노하우를 종합하여 보다 전문성이 있고 여러 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재의 생각은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력사업을 분야(sector)별로 수행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

□ 원조사업의 실시체계는 원조규모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KOICA의 무상원조 재원은 금년의 경우 4600만불에 불과한 수준이어서 이를 130여개의 개도국에 국별로 배분하다 보니 소액의 최소한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 일본 : 133억불
- 미국 : 91억불

□ 이러한 재원에서는 프로젝트의 규모도 대개 수 십만불 정도이고, 많은 국가에 대한 협력사업이 물자지원에 한정되기도 합니다. 현재의 협력예산 규모 아래서는 지금까지 KOICA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별 지원체계가 더욱 효과적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이제 점차로 재원이 확충되어 단위사업의 규모가 커지고 사업간 연계가 확대될 뿐 아니라 중점 지원국에 대한 국별 원조전략이 수립되는 등 원조 규모가 증대되면 의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분야(sector)별 사업수행과 국별 프로그램 전략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 그러므로 향후에는 원조규모의 증대 추이를 보아가면서 가장 효율적인 재원의 배분과 사업성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분야별, 국별 전문화와 사업수행체계의 개선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접국과의 환경협력사업 확대 필요성

국제사회는 점차 상호의존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경제협력 뿐 아니라 환경, 여성개발, 민주주의와 인권신장, 빈곤퇴치 등의 분야에서 개도국과 선진국과의 상호협력관계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대기오염, 해수오염 및 산성비와 황사현상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어서 중국과는 상호 이익이 되는 환경분야에서의 협력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협력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접국가와의 환경협력사업 현황과 향후 확대 추진 필요성에 대해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인접국과의 환경협력사업 확대 필요성

□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이 위치한 동북아 지역은 지리적·환경적으로 매우 긴밀한 상호의존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 최근, 중국의 급격한 산업화와 러시아 극동지역의 대규모 산림개발은 이 지역의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 특히, 황사, 산성비등 월경성(越境性) 환경문제와 황해의 해양오염 문제가 지역 환경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어 역내 국가간 환경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협력단은 동북아 지역 특히, 중국과의 환경분야 협력사업을 강화하여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 중국서부지역 조림사업(5년간 5백만불) : 황사문제 해결
- 밀운저수지 조림사업(4년간 1백만불) : 북경시민 용수공급 및 환경보호
- 한·중 황해 환경 오염조사 연수생 초청 : '97년부터 3회 27명 초청

※ 상호호혜적인 사업예시

ㅇ 농업통계지원사업 : '94년부터 2000년도까지 2차례에 걸쳐 총 800천불 규모 지원

ㅇ 기생충 감염관리 시범사업 : 2000~2005년간 총 1백만불 규모 지원

□ 향후에도 우리나라와 환경적으로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국 및 몽골에 대해서 조림 등 상호 호혜적인 환경분야의 지원을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협력단 신청사 설립 필요성과 추진계획

협력단이 현재 신청사 설립 추진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사 설립 추진의 필요성과 구체적 추진계획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여 주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는 현재 연간 2300여명에 달하고 있고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개도국 연수생 초청에 따른 숙박 및 연수시설 확보와 연간 2-300에 달하는 봉사단 및 협력요원, 전문가 등의 파견전 교육, 귀국후의 적응교육 등 복합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국제 센타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언제쯤 이러한 시설이 마련될 수 있는지 관련 예산확보 등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력단 신청사 건립추진 현황 및 계획

□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점증하고 있는 개도국과의 국제협력사업을 능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적정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외국인 연수훈련센터 및 봉사단원 등 해외파견 인력에 대한 훈련시설 등을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신청사를 건립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수행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한편, 현재의 협력단 청사는 지난 '68년 및 '78년에 각각 준공된 건물로서 노후화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그동안 개·보수를 계속 실시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사무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 이러한 측면 등을 고려하여, 현재 신청사 건립을 위한 최초 사업추진 예산(설계비 등)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 중에 있으며, 신청사 건립에 따른 재원은 기존의 협력단 보유건물을 매각한 자금(추정가액 400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신청사 설립에 필요한 부지는 외교부의 소유로 되어 있는 구 일해재단(성남시 수정구 시흥동)의 국유지(188,314평)중 약 30,000평을 활용하고, 건물은 총 건축면적 8,000평을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형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본부동 4,000평(최초3,000평), 강의동 900평, 연수동 3,100평

□ 금번 수도권계획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부칙 제6조에 의거 국제협력기관의 공공청사는 2003. 12. 31까지 수도권내에 신·증축이 한시적으로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TV 공익광고, 인터넷 등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 방안

KOICA는 지난 10여년 동안 대개도국 무상협력사업을 수행하면서 괄목할 만한 노하우와 경험을 축적하였고 개도국과의 관계에서 가시적인 외교적 성과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국내 홍보 활동이 매우 저조하고 국민들의 KOICA 사업에 대한 인지도도 아직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대외원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사업의 성과를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일도 간과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어려울 때 일수록 어려운 이웃을 돕자는 TV 공익광고와 인터넷 홍보전략 및 국제개발 및 개도국 지역 연구 등 출판과 연구저작 매체를 통한 홍보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재는 대국민 홍보 강화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TV 공익광고, 인터넷 등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방안

□ 국제협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제고 및 참여유도를 위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오고 있으며, 특히 금년부터는 홍보효과가 큰 방송 및 인터넷을 통한 홍보에 주력해 오고 있습니다.

□ 참고로 지난해 11월 실시한 대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국민들께서는 TV와 인터넷이 가장 홍보효과가 크다는 응답을 해주셔서 이 결과를 협력단 홍보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인터넷과 공중파 TV 홍보에 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현재의 협력단 홍보예산 규모로는 동 홍보매체를 활용하기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 2001년도 홍보예산 : 2억6천8백만원
- 공익 광고물(CF) 제작비 : 평균 1억원
- 인터넷 베너광고 : 1천만원(동아일보 베너광고/1개월 기준)

□ 이러한 점을 감안, 협력단에서는 최소비용으로 최대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개발·추진하고 언론보도의 질을 높여서 방송, 신문, 잡지 등의 자발적 취재를 유도하는 여건을 조성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초청간담회 및 합동 연찬회개최 및 협력단 자문위원에 언론계 인사 위촉 등을 통해 언론사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협력단 창립 10주년을 계기로 다양한 홍보소재를 발굴하여 언론사에 제공하고, 언론사의 협력사업 현장취재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방송 38회, 신문 186회, 잡지 21회 총 244회에 걸친 언론매체 홍보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 그밖에도 금년에는 국제협력 사진전, 지하철 및 신문 광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계기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승수 장관의 유엔총회 의장직 수행에 따른 대개도국 지원사업의 대폭 확대 필요성

금년도에는 한승수 외교부장관께서 유엔총회 의장직을 맡게 됨으로써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을 뿐 아니라 지구적 이슈인 세계의 분쟁예방, 평화증진, 인권신장,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확산, 빈곤퇴치와 정보지식 격차의 해소 등 오늘날 세계가 당면한 인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동참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이해 차이를 중재하고 협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의원은 유엔 총회 의장직 수행 기간 동안 대개도국 지원을 위한 ODA 증대와 Digital Divide 해소를 위한 특별사업 등과 같은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재는 외교부와 이러한 방안을 검토하시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한승수 장관의 유엔총회 의장직 수행에 따른 대 개도국 지원사업의 대폭 확대 필요성

□ 의원님께서 격려하여 주신대로 우리나라는 국제무대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이해 상충과 갈등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를 중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한승수 장관께서 유엔 총회 의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이러한 우리나라의 역할과 위상은 더욱 높아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대 개도국 무상협력 사업도 국제사회에서의 분쟁예방과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 환경, 여성, 인권 등 보편적 인류의 가치를 증진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외교부와 협의하여 한 장관께서 유엔총회 의장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 또한 21세기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적 노력과 관련, 협력단도 IT 분야에서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 분야에서의 대 개도국 지원사업을 확대해나감으로써 유엔 총회 의장국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는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NGO의 육성과 지원 확대방안

대외원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부가 직접 나서는 것보다는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방식이 더욱 개도국 주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가고 풀뿌리 방식의 협력사업을 통해 가시적 성과도 거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며 많은 선진국들도 점차 NGO를 통한 간접지원 방식을 더욱 활용하고 있는 추세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NGO들은 그 자금 동원력과 사업 경험에서 아직 유아적 단계에 있다고 보는데 협력단에서는 개도국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우량의 국내 NGO들을 중점 발굴, 육성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NGO의 육성과 지원확대 방안

□ 현재 KOICA에 등록되어 있는 국제협력사업 관련 민간단체는 총 37개이며, 이들에게는 매년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NGO들은 아직 국제협력사업에 대한 노하우 축적이 부족하고 재원확보도 여의치 않으나, 인도주의적 고려에서 풀뿌리 사업을 발굴하여 이를 추진하고자 노력하면서, KOICA에 매년 우량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향후 이러한 민간단체들을 적극 육성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예산을 보다 확대하고, NGO의 사업수행 능력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현지 지원체제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 나갈 것입니다.

□ 이를 위해서는 정부 보조금의 증액 노력을 경주하여 NGO 지원예산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단체당 평균 지원규모를 늘려나가는 것이 긴요합니다. 또한, NGO 사진전, 심포지움 개최 및 협력활동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NGO의 국제협력 활동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여 NGO에 대한 후원과 지지 기반을 확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아울러, 민간원조단체협의회와 같은 모임을 통해 민간단체들간의 정보 및 경험을 공유토록 하고, NGO 관계자에 대한 개발교육 및 사업관리능력 배양에도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DAC 가입준비를 위한 선진국 원조정책 조사연구 확대와 우리나라의 원조정책 평가 필요

우리 정부는 언제 어떠한 조건과 절차에 의해 DAC에 가입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본 의원은 DAC 가입에 앞서 선진국들의 대개도국 원조정책을 전반적으로 조정하고 평가하고 있는 DAC에 대한 정책연구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ODA 규모와 질, 사업방식 등에 대한 공식적 평가도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준비를 KOICA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원조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확대를 위해 DAC에 직원파견 등 구체적 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관해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DAC 가입준비를 위한 선진국 원조정책 조사연구 확대와 우리나라의 원조정책 평가 필요성

□ DAC는 개발협력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많은 조직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개발협력 정책을 협의하고 성과를 평가하며 필요한 중장기 비전과 규칙을 제정하는 조직으로서, 우리나라는 '96년 OECD가입 이후 DAC의 각종 회의에 옵저버로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 우리 협력단은 선진 원조국의 원조동향과 DAC의 정책방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직원 1명을 '97.8부터 '98.11까지 1년 반 동안 DAC에 파견한 바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등 우리나라와 원조규모가 비슷한 국가에 대한 DAC가입의 사례를 파악하였으며, DAC회원국의 원조체제를 비교 분석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DAC에서 발표되고 있는 각종 개발원조 정책 자료 및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정보수집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 DAC 가입준비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관한 조사연구를 위해 DAC에 연구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OECD 사무국 측에 협조 요청 중이며,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조사 연구할 수 있도록 외교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이러한 준비를 보다 활성화하고 DAC 가입에 대비하기 위하여 「DAC가입 준비반」의 운영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DAC 가입시 가입기준에 부합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외부 기관에 의한 원조정책의 평가를 받는 등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적극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정통부, 산자부, 과기부, 교육부 등 부처별 협력사업 추진 현황과 IT 협력사업 등의 일원화 대책

최근 정부는 IT사업을 둘러싸고 정통부, 산자부, 교육부, 과기부 등에서 각각 업무를 분담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제협력단의 대개도국 원조사업도 정부부처에서 각각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 둘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정통부에서 개도국에 인터넷봉사단을 보낸다고 발표한 것을 보고 이러한 사업추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초 KOICA를 설립한 것은 정부 부처들이 산발적으로 수행되어 오던 개도국 지원사업을 일원화하고 체계화하여 대외원조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한 것인데 다시 각 부처가 독자적으로 개도국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예산의 중복 지출 우려 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부처가 직접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도국 지원사업은 얼마나 되며 이를 일원화하기 위해 외교부와 협력단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각 부처별 협력사업 추진현황과 IT 협력사업 등의 일원화 대책

□ 우리나라의 대 개도국 무상기술협력사업은 '91.4월 협력단 설립 이후 협력단에서 통합·전담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 현재 교육부, 정통부 등에서도 인터넷봉사단파견, 연수생초청사업 등을 일부 실시 중에 있습니다.

※ 교육부: 인터넷봉사단('01년 120명),
외국인 유학생초청(연간 60여명 수준)
정보통신부: 인터넷봉사단('01년 150명), 연수생초청(연간 1-2백명)
과기부: 과학기술자 교류(연간 50여명 수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연찬사업(연간 50-60명 수준) 등

□ 그러나, 협력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며, 정부차원의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수립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타 부처에서 실시중인 협력사업은 협력단에서 실시중인 프로젝트사업 등 다양한 협력수단과 상호 연계하여 지원할 경우 사업효과를 더욱 높여나갈 수 있으므로 협력단으로 일원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협력단은 개도국 지원사업을 협력단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그간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를 위해 관련 부처 및 기획예산처 등과 계속 협의,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 사업이 일원화될 경우에도, 협력단은 관련사업 추진시 해당부처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협력단 창립 10주년에 즈음한 대개도국 무상협력 사업의 성과 및 기관운영 평가 필요성

지난 4월에 협력단은 창립 10주년을 맞았고 그 동안 협력단은 우리나라가 개도국 주민들이 절대빈곤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도주의적 고려에서 재난구호와 인권, 평화, 환경, 여성개발 분야에도 사업을 수행하여 우리나라가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하여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10년간의 대개도국 지원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국민들에게도 적극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또한 협력단의 발전과 선진 원조기관으로서의 도약을 위해서는 지난 10년 동안의 협력단 기관운영 평가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력단 창립 10주년에 즈음한 대 개도국 무상원조 사업의 성과 및 기관 운영 평가 필요성

□ 개도국 무상원조사업은 국민들에게 적극 알려져야 하고 국회, 언론, 학계, 유관기관 등에도 사업성과와 ODA 운영 현황 및 원조정책 등에 관해 적시에 보고하고, 좋은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지난 4월에 있었던 KOICA 창립 10주년 행사를 계기로 하여 협력단 10년간의 성과와 발전모습을 기록한『한국국제협력단 10년』을 발간하여 널리 배포하였고, 특집 방송과 언론보도, 사진전시회, 강연회 등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 그간의 개도국 지원사업 성과를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협력사업 성과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지난 '97년부터 사업평가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 운영해오고 있으며, 매년 주요사업을 선정하여 평가하여 그 결과를 각종 책자와 보고서로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 아울러, 지난 10년 동안 협력단의 기관운영 내실화를 위해 직무분석을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2회 실시한 바 있으며, 향후 협력단 사업의 종합적·객관적인 외부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에 관련 예산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제대학원 등과의 개도국 지역연구와 국제협력 사업 공동협력 강화 필요성

KOICA 사업은 국내의 많은 유관 전문기관들과의 공동협력 사업을 통해 더욱 내실있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으며 KOICA를 알리는 데에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대학원은 국제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설치되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KOICA와 같은 기관의 개도국 원조사업에 이들 국제대학원의 교수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에는 국제개발 사업현장 경험과 각종 조사연구 용역사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KOICA는 개도국에 파견할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원조정책을 연구하도록 하는 등 상호 공동협력의 소지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KOICA 사업은 개도국에 대한 지역연구와 경제협력 및 주요 원조정책 연구에 매우 유익하고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국제대학원과의 연구정보 및 인력활용 공동협력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재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국제대학원 등과의 개도국 지역연구와 국제협력분야의 공동협력 강화 필요성

□ '90년에 들어와 선진원조국들은 국제협력 관련 심층연구를 위한 기반구축을 강화하여 왔으며, 현재 선진 원조기관들은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두 가지 방향에서 심층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국제협력의 정책 및 실시에 따른 제도적 기반구축의 측면, 둘째로, 개도국 지역연구 및 환경, 여성, 인권 등 범세계적 이슈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를 위해 각 기관들은 자체적으로 심층연구를 실시하기 위한 부서를 설립하고, 최신 정보시스템을 설치하여 국내외 연구기관 및 학술단체와의 협조체제와 정보교환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우리도 한 단계 높은 국제협력사업의 실시를 위한 기반구축의 일환으로 범세계적 이슈 해결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개도국 지역연구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정보시스템을 빨리 구축하여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대학원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것이 긴요하다 하겠습니다.

□ 아울러 국제대학원의 전문분야 교수와 연구학생들에게 개도국 협력사업의 현장경험을 제공하고 지역연구 및 ODA 정책과 성과를 연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기적 측면에서 인적교류와 연구협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KOICA 입장에서도 ODA 유관기관들과의 협력관계 확산을 통해 국내 지지기반을 강화하는데 좋은 수단이 될 것입니다.

국제협력요원들의 귀국 후 진로와 지역전문가 활용방안

작년 국회에서 병역법이 개정되어 부활하게 된 국제협력요원 제도는 선발이 어려운 분야의 봉사인력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해외 오지에서 이들 협력요원들이 우리나라의 개발경험과 근면정신을 몸소 실천하여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력요원들은 학력수준이나 어학능력, 기술능력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이 해외에서 봉사활동을 마치고 귀국하여 과연 얼마나 현지 경험을 살려 국내에 활용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구촌 시대에 국제협력요원들은 세계 각 지역의 언어와 현지사정에 정통한 지역전문가로서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들을 지역전문가로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대외경제 및 외교활동, 연구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국제협력요원의 귀국 후 진로와 지역전문가로의 양성 지원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력요원 귀국 후 진로와 지역전문가 활용방안

□ 최근 2년간 협력요원의 귀국 후 진로 현황을 보면 1999년 귀국한 3기 협력요원 39명 중 64%인 25명이 취업을 하였으며, 진학과 유학이 각각 3명, 기타 8명이고, 또한 2000년 귀국한 4기 협력요원 39명 중 46%인 18명이 취업을 하였으며, 36%인 14명은 진학을 하였습니다.

□ 협력요원을 비롯한 해외봉사단원들은 봉사활동을 통한 다양한 현지 경험을 통해 현지어와 문화에 정통한 개도국 지역전문가로 양성되고 있으며, 협력단에서는 지역전문가로 양성된 봉사단원들이 국내외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우선 단원들의 귀국 전후에 단원들에게 다양한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유관기관 및 기업체와 협의하여 단원들이 각자의 전문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있으며, 귀국봉사단원 모임인 "나섬회"(KOVA)를 적극 지원하여 단원들간의 화합과 정보교환을 통해 국·내외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나아가, 협력단의 사업 수행을 위한 연수사업 코디네이터를 비롯한 봉사단원 국내훈련교관요원, 봉사단원 모집 상담요원, 국내훈련 강사 등 사업 보조 요원으로 채용하여 활용하고, 또한 국제적 활동으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UNV 참여를 희망하는 단원들을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미국 Peace Corps나 일본의 청년해외협력대(JOCV)의 경우 귀국봉사단원이 외교관, 기업의 국제부문 담당자 등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고 학계에도 많은 지역전문가로 진출해 있는 것에 비하면 우리의 경우는 귀국단원의 활용범위가 아직 만족스럽지 못한 편이며, 국가적 차원에서 이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실정입니다.

Ⅳ. 제225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

제225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

2001. 9.

1. 국정감사 수감개요..... 1

2. 주요 관심사항..... 1

3.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2

4. 의원별 질의 및 상세 답변내용..... 4

5. 향후 조치사항..... 15

첨부 1. 의원별 구두질의 답변자료
2. 의원별 서면질의 답변자료
3. 의원별 서면질의 세부내용

한 국 국 제 협 력 단

1. 국정감사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01. 9.11(화) 10:20~12:20 / 국회 통외통위 회의실

□ 참석현황

ㅇ 국회 : 박명환위원장 등 20명

- 민 주 당 : 김기재, 김성호, 김운용, 문희상, 박상천, 이낙연, 이창복, 장성민의원
- 한나라당 : 김덕룡, 김용갑, 김원웅, 김종하, 박관용, 박근혜, 박명환, 서청원, 유흥수, 조웅규, 홍사덕의원
- 무 소 속 : 정몽준의원

ㅇ 협력단 : 총재, 이사(3), 부장, 팀(실)장 등 30여명

ㅇ 외교부 : 국제경제국장, 개발협력과장 등 3명

□ 진행방식: 증인선서, 총재 인사말씀 및 업무보고, 일괄 질의·답변

2. 주요 관심사항

□ KOICA 10년 성과 및 조직·사업 발전에 대한 긍정적 평가

□ ODA 규모를 2005년까지 GNP대비 0.1%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재원확보 및 예산증액 방안

□ 한국형 국제협력모형의 정립 필요성 및 추진계획

□ KOICA의 대북지원사업 참여 필요성에 대한 연구검토 의향

□ 협력단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 방안 및 이직율 심화에 따른 인력부족문제 해소를 위한 인력운용 방안

□ 아·태지역 집중지원 등 지역편중 현상 개선 필요성

□ 대 베트남 지원사업의 중요성 및 확대 필요성

□ 개별 단위사업위주의 추진방식을 분야별, 지역별 추진방식으로 전환 검토

□ senior volunteer 제도 도입 필요성 및 추진의향

□ 연수생 및 봉사단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내역 및 계획

3.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요 지	비 고
○ ODA확대 및 2005년까지 GNP 대비 0.1% 목표달성 방안과 OECD /DAC가입 필요성 및 예산증액 방안	- OECD/DAC가입에 대비 ODA 비율을 0.1%수준으로 확대를 위해 예산당국과 긴밀히 협의할 계획임. - ODA규모 확대는 정책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함.	박상천 이낙연 장성민
○ 현행 우리나라의 유·무상 비율 및 다자 대 양자간 비율 개선 도모	- 서면답변으로 대체	박상천 김원웅
○ ODA헌장채택 및 국제협력기본법 제정에 대한 추진현황 및 관련사항에 대한 국회·관련부처 등과의 협의여부	- 관련내용은 내부검토를 위한 시안으로서, 기초자료로서 의미를 가짐 - 향후 관련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검토할 경우, 국회 및 관련부처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임.	장성민
○ 선진국과는 차별적인 한국형 국제협력모델을 정립 필요	- 협력단은 그동안 축적한 know-how를 바탕으로, 인적자원개발 분야에 중점 지원하는 등 차별화된 원조를 시행코자 노력하고 있음.	김기재
○ 개별 단위사업 위주의 지원방식을 분야별, 지역별 종합적인 지원 방식으로 전환 필요	- 서면답변으로 대체	박근혜
○ KOICA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방안 및 직원 이직에 따른 인력부족현상 해소를 위한 인력운용 대책	- 서면답변으로 대체	유흥수
○ KOICA의 대북지원 필요성 및 지원여부에 대한 검토 제안	- 서면답변으로 대체	김덕룡 김기재
○ 아·태지역 중점지원 등 지역편중 현상 해소 의향 및 NGO지원사업도 아·태지역에 집중된 사유	- 다른 원조국들도 일부지역에 집중하고 있는 등 유사한 상황임. - 협력단은 중남미 및 아프리카 등의 지역에 대해서는 물적자원 지원 등을 통해 꾸준히 협력관계를 유지·발전시켜 나가고 있음.	김용갑

질 의 내 용	답 변 요 지	비 고
ㅇ 베트남 중부지역 초등학교 건립과 같은 베트남 지원사업은 대단히 바람직하며, 향후 더욱 확대 필요	- 서면답변으로 대체	이낙연 김원웅
ㅇ 한국학분야 관련, 협력단과 국제교류재단의 연계 방안 검토	- 향후 한국학분야 지원시 교류재단과의 연계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음.	김성호
ㅇ global Issue분야에 대한 지원강화 및 관련 다자지구와의 정보 net-work 구축 필요	- 서면답변으로 대체	박상천 김원웅
ㅇ IT분야 협력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 서면답변으로 대체	유흥수
ㅇ 초등학교 교과서에 국제협력관련 내용을 수록하는 방안 강구	- 이미 관련내용을 초·중·고 교과서에 수록하고 있음. -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관련내용을 상시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박관용
ㅇ 연수생, 봉사단, 프로젝트 등에 대하여 보다 내실있는 사후관리가 필요하며 초청연수생에 대한 인적사항을 관계부처에서 활용하고 있는 지 여부	- '96년도부터 별도 사후관리 예산을 책정하여 꾸준히 내실있는 사후관리를 도모하고 있음. - 연수생의 경우, 귀국연수생 동창회 결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연수생 명부를 정리·작성중으로서 향후 관계부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예정임.	김기재 김원웅 박관용
ㅇ senior volunteer제도 도입 검토	- 서면답변으로 대체	문희상 박근혜
ㅇ 봉사단 파견인원 대폭 확대 추진	- 서면답변으로 대체	김원웅
ㅇ 봉사단의 중도귀국 방지를 위해 선발과정·국내훈련 강화 필요	- 서면답변으로 대체	박관용
ㅇ 정통부 및 교육부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봉사단 등 관련사항을 KOICA에서 일원화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	- 서면답변으로 대체	조웅규

4. 의원별 질의 및 상세 답변내용

가. 김성호의원

(1) 한국어교육관련 KOICA와 교류재단과의 연계방안 유무 및 계획은?
- o 협력단의 봉사단중 한국어교육분야 파견이 27%에 이르며, 교류재단 역시 한국학 지원사업을 하고 있음.
- o 인프라분야는 KOICA가 담당하고, 소프트웨어는 교류재단에서 실시하는 것이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라고 봄.

<총재답변>

□ KOICA는 정부개발원조 차원에서 개도국 인사중심으로 한국어 보급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류재단은 선진국을 위주로 세계속에서 한국학 증진에 기여하고 있음.

□ 그동안 본부차원에서는 한국학관련사업 추진시 교류재단과 연계한 사례는 없으나, 향후에는 연계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음.

나. 유흥수의원 (서면답변으로 대체)

※ 민형기 총재 취임이후 KOICA가 보다 발전하고 활성화된 데 대해 경의를 표함.

(1) KOICA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 종합방안은?
- o 협력사업은 외교관에 준하는 국위선양 수단으로서 중요성이 큼
- o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급여수준은 타기업에 비해 매우 열악하고, 공채직원의 이직율은 계속 심화되고 있음.
- o KOICA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우수한 직원은 외교부와 협의하여 외교관으로 전출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외국어 능력 우수자 및 지역전문성을 갖춘 인력확보를 위해서도 인센티브 부여 등 대책강구가 필요함.

(2) IT분야 개도국 지원 사례 및 향후 IT분야 지원을 위한 구체계획은?

다. 박상천의원

※ 민형기 총재 취임이후 KOICA가 보다 발전하고 활성화된 데 대해 경의를 표하며, 유홍수의원의 의견에 동의함.

(1) ODA/GNP비율 개선을 위한 구체적 예산확보 계획 및 유·무상 원조 비율 개선방안은?

- o ODA/GNP 비율은, UN은 0.7%를 권고하고 있고, OECD/DAC회원국의 평균도 0.22%수준이나, 우리나라는 이의 1/5에 불과한 0.047% 수준임.
- o 우리나라 무역흑자의 95%, 수출의 48%를 개도국과의 교역을 통해 이루어짐을 감안할 때, 대 개도국 ODA의 의의는 매우 큼.
- o 유무상 비율은 선진국의 경우 3:7수준이나, 우리나라는 7:3수준에 불과함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함.

(2) ODA와 수출 증진에 효과가 있는지 여부 및 수출과의 연계방안은?

- o 외국 연구사례의 경우, ODA 100 제공시 75의 수출유발 효과가 있다고 하는 데, 이에 대한 근거가 있는 지 여부

(3) 범세계적 이슈에 대한 우리나라의 ODA규모 및 중점추진분야는?

- o 환경, 빈곤, 여성, 인구 등 범세계적 이슈에 대한 ODA가 증가추세임.

<총재답변>

□ ODA 증액 등 재원확충 문제는 예산적 증액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회 및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으로 접근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임.

- o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역할수행을 위해서 2005년에는 최소 0.1%수준으로 확대하여 DAC가입을 목표로 예산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음.
- o 예산당국도 ODA재원 확충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하고는 있으나, 예산적 증액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므로 국회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당부드림.

라. 김용갑의원

※ 민형기 총재 취임이후 KOICA가 보다 발전하고 활성화하고 있다고 한 유홍수, 박상천의원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함.

(1) 아시아지역에 집중지원하는 지역편중현상 개선방안은?

- o 프로젝트 20건중 16건, 개발조사 신규 4건도 미얀마, 캄보디아 등 Asia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등 Asia지역배분 예산이 50%에 달함.
- o NGO지원사업도 26건중 22건이 모두 아시아 지역에 지원되고 있으며, 베트남의 경우는 2000년 3건에서 2001년도에는 4건으로 증가되었음.
- o 이러한 현상은 대통령 약속사업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 지역에 집중적인 지원은 오히려 협력효과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중남미 및 아프리카 등으로 지원국가의 다변화가 필요함.

<총재답변>

□ 아시아지역에 대한 지원집중현상에 대한 의원 지적에 대해 공감함.

□ 결산시에는 아·태지역 지원비율이 50~60%에 달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일부지역 집중현상은 KOICA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다른 원조국들도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

- o 호주의 경우는 파푸아뉴기니를 비롯한 남태평양지역에, 구라파 국가들은 과거 식민지 지역국가 등에 집중 지원하고 있음.

□ 이런 추세는 당장 변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중남미 및 아프리카 지역에는 인적자원보다는 물적자원 지원 등을 통해 꾸준히 협력관계를 유지·발전시켜 나가고 있음.

□ NGO지원사업의 경우, 각 개별사업은 KOICA에서 발굴한 사업이 아니라 NGO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업을 협력단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음을 참고바람.

- KOICA에 등록된 36개 단체중 금년에는 26개 단체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지원사업들은 각 단체가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업을 협력단에 지원요청하면, 협력단은 공관타당성조사, 사업타당성조사(사업선정심사위원회) 및 외교부 심사 등 3단계를 거쳐 적정사업을 선정하여 지원을 결정하게 됨.

마. 이낙연의원 (서면답변으로 대체)

(1) 협력사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2002년 협력사업 예산이 많이 삭감된 바, 예산당국을 설득할 방안은?

- 베트남전 당시 맹호부대가 주둔한 중부지역의 초등학교 건립사업은 매우 인상적이며, 결산 심의시 언급한 바와 같이 협력단의 베트남 지원사업은 한방적 접근의 좋은 사례라고 판단됨.
- IMF이후 우리 사회가 내향적, 보수적, 이기적으로 위축되고 있으나, 협력사업은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임을 일깨워주는 훌륭한 사업임. 일례로 200만불 규모의 스리랑카 원양어선 항법장치 지원사업은 스리랑카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준 '풀뿌리 외교'의 좋은 사례로서, 그 효과가 매우 지대함.

(2) 현행 10일~13일 정도로 실시되고 있는 단기위주의 연수를 탈피하고 연수기간을 장기화함으로써 연수효과를 제고할 방안은?

(3) 봉사단 모집 및 파견절차관련 자료 서면제출 요구

- 봉사단 사업의 경우, 젊은이들에겐 인생의 큰 자양으로서, 실직 및 퇴직 중장년층에게는 개인적으로 인생을 새로이 개척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서 그 효과가 지대할 것임.
- 사람에겐 인격과 인덕이 있듯이 국가에겐 국격과 국덕이 있음. 봉사단 사업을 계속 확대함으로써, 봉사단 개인의 이익과 더불어 국가이익을 창출하는데 기여토록 해야함.

바. 이창복의원

(1) 우리나라의 ODA는 비록 적은 규모지만, 성실한 자세로 수원국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존경받는 국가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o 일본의 경우 경제적으로는 부유하지만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음.
- o 우리나라도 과거 원조를 받았을 때, 원조담당자들의 오만한 태도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기억이 있음을 유념하고, 친절과 봉사정신으로 절대 오만하지 않게 협력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존경받는 국가가 되도록 더욱 노력해주기를 당부함.

※ 질의사항는 서면으로 대체함.

사. 김덕룡의원 (서면답변으로 대체)

※ KOICA창립 10주년을 축하하며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개발도상국 120 여국에 실질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국위선양과 한국의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함.

(1) KOICA의 대북지원 필요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의향 및 특별팀 구성을 통해 협력단의 프로그램을 북한에 적용하거나, 북한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북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할 의향은? 또는 검토보고서를 마련할 의향은?

- o 협력단은 각종 협력사업수행을 통해 축적한 know-how를 토대로 국가발전을 위해 또 다른 방향을 모색할 시점으로 생각함.
- o KOICA 설립취지상 대상국가가 단순히 개도국뿐만이 아니라 북한도 포함시킬 수 있다고 봄.
- o 현재 지금 북한의 식량난 등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고, 통일후 사회적인 통합과 이질감 해소를 통해 남북상호간의 동질감 회복을 위해서라도 KOICA의 대북지원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아. 장성민의원

※ KOICA의 창립 10주년을 축하함.

(1) 협력사업의 중요성 및 ODA규모 확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나, 외교부에서 수립한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중장기계획'은 너무 확대된 것이 아닌가?

또한 동 보고서에서 언급한 선진국형 개발협력모형 및 무상협력 사업 추진 세부계획서가 작성되었는 지, 작성되어 있으면 제출바람.

- o 지난 3월 KOICA후원으로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4개국을 방문하여 KOICA의 협력사업 현장을 시찰한 바, KOICA가 개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의의를 절실하게 느낀 바 있음.
  - KOICA가 우리나라의 미래의 국익을 위해서 지금 적금을 붓고 있다고 봄.

- o 개도국은 우리나라 교역중 흑자의 91%, 수출의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UN내에서 개도국의 지위가 증대되고 있는 등 개도국은 미래가치로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 o 개도국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대개도국 외교전략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KOICA는 외교적 전략기구, 우리의 국익기구라고 할 수 있으며, KOICA의 협력사업 확대는 곧 우리의 국익확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고 긍정적으로 고려할 사안임.

- o 그러나, 2000년도 현재 ODA/GNP비율이 DAC회원국 0.22%의 약 1/5수준인 0.047%에 불과하고 유무상비율도 약 7:3인 점을 감안 할 때, 2006년도 이후 동 규모를 각각 0.22%수준, 50:50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은 너무 확대된 것이 아닌지?

- o 또한 'ODA헌장',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법'제정에 대해서 국회와의 사전 협의가 없었는 데, 이러한 일련의 계획수립시 관련부처와 협의가 있었는 지, 협의예정인지, JICA의 경우는 어떠한 지 설명바람.

- o 또한 ODA확대 방침에 대해 국제사회에 천명한다고 언급되어 있는 데, 어떤 방식으로 천명할 건지도 설명바람.

<총재답변>

□ ODA중장기 계획은 내부 검토를 위한 사안으로서, 동 계획은 기초자료로서 의미를 가지며, 세부적인 정책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한 것은 아님.

- o 동 보고서에 언급한 사항들을 실제 계획대로 달성하기에는 재원 확보 등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 ODA현장 및 국제협력에 관한 기본법 제정 등 관련사항을 추진할 경우에는 국회 및 관계부처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나가겠음.

자. 김기재의원

※ 제한된 예산 및 부족한 인력으로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온 민형기 총재와 KOICA의 역할 및 노고에 대해 크게 치하함.

(1) 협력단이 대북지원사업에 참여할 경우, 기존사업 추진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2) KOICA창립 10년을 축하하며, 그동안 축적된 know-how를 토대로 이제는 한국형 국제협력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크며, 다른 선진 원조기관과 비교하여 차별적인 특징은 무엇인지?

- o ODA사업은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제고, 친한인사 양성 등의 측면에서 매우 큰 의의를 지니고 있으며, 이제는 우리의 know-how를 토대로 한국형 개발협력 모형을 정립할 시점임.
- o 이러한 측면을 감안하여
  - 초청 연수생들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해 사업별 지역별 효과를 심층분석하고, KOICA협력사업을 직접 지원하는 것과 NGO와 연계하여 병행지원하는 방안중 더욱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 무상원조와 유상원조와의 연계, 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사후관리 등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3) KOICA에서 초청한 연수생들은 국익확보 및 친한인사 양성측면에서 사후관리가 중요한 데, 관련 인적사항을 관계부처에 통보하여 국익창출을 위해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지?

- o 개인적으로 청소년시절 국제협력의 도움을 받고 성장한 경험이 있으며, 경험적으로도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총재답변>

□ 협력단은 이미 우리만의 차별적인 경험과 know-how를 토대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o 일례로, 중국의 농업통계조사사업과 관련해서, 당초 FAO등이 지원하려 했으나, 중국은 우리의 경험이 중국에 더욱 실용적이기 때문에 환경이 비슷한 우리나라에게 지원요청을 하여 현재 2차 사업을 완료하고, 3차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o 또한 KOICA는 현재 인적자원개발(HRD)분야에 중점 지원함으로써, 수원국이 경제개발에 가장 필요한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

□ 또한 협력단은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96년도부터 별도의 사후관리 예산을 책정하여 프로젝트, 물자지원, 연수생 및 귀국 봉사단에 대한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귀국 연수생의 경우, 동창회결성을 지원하고 하고 있으며, 작년부터는 별도 예산을 책정하여 연수생 명부작성, 귀국후 동창회 활동지원, 우리나라 공관 행사시 귀국연수생을 초청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내실있는 사후관리를 시행하고 있음.

□ 초청연수생에 대한 인적사항을 관계부처에 통보하여 국익창출에 활용하는 사안은 현재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귀국연수생 명부를 현재 정리 작성중에 있으므로, 작성완료후 관계부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예정임.

o 연수생 초청사업은 친한인사 양성등에 큰 효과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차. 박관용의원

(1) KOICA의 협력사업과 활동상은 청소년에게 큰 자부심과 자질 함양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소양을 갖추고 세계시민으로서의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임.

(2) 봉사단원 중도귀국 방지를 위한 방안은?

- o 봉사단 파견으로 많은 실적과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여러가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지만은 중도귀국에 따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임.
- o 봉사단 중도귀국사례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중도귀국 사유가 불가피한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하나, 일부 근무지 이탈 및 현지인 폭행 등에 따른 국위손상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음.
- o 이러한 중도귀국은 선발과정과 국내훈련을 중시하여 중도귀국을 사전에 방지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함.

<총재답변>

□ 협력단은 '97년부터 교육부와 협의하여 국제협력사업을 초등학교는 물론, 중·고교 교과서에 수록하여 협력사업에 대한 소개와 함께 우리 청소년들의 국제협력에 대한 소양를 고양할 수 있도록 이미 시행하고 있음.

□ 또한 일상생활에서 국제협력사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협력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 통해 초, 중, 고교 학생들이 상시적으로 정보를 활용하고 국제협력사업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카. 김원웅의원 (서면답변으로 대체)

(1) KOICA사업을 외교부 차원이 아니라, 국가차원의 전략사업으로 확대가 필요하며, 봉사단 파견규모도 몇만명 단위로 파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의향은?

- o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쳐지는 이미지는 분단국, 전쟁을 하는 나라, 남을 돕는데 인색한 이기적인 국가라고 인식된 경향이 있으나, 이제는 이러한 이미지를 극복하고 개선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인류복지를 추구하는 문화국가로서의 이미지를 고양해야 할 것임.

- o 그런차원에서 KOICA사업은 한 부처의 작은 사업이 아니라 미래의 자산으로서, 국가의 전략적 사업으로 확장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함. 미국의 P.C도 케네디대통령이 국각 전략적 사업으로 발전시킨 것임.

- o 또한 앞으로는 오지에서 땀을 흘릴 수 있는 젊은이들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몇백명 규모가 아니라 몇만명 수준으로 확대 파견 해야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관철시켜야 할 것임.

(2) 2001년도 200만불 규모의 베트남의 초등학교 건립사업의 효과는 무엇이며, 이제는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베트남에 아동병원을 건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

- o 스웨덴의 경우, 캄보디아에 아동병원을 지원함으로써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 아이들을 사랑하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확산시킨 바 있음.

(3) global issue 참여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OECD나 세계은행등 다자기구 및 관련국가들과의 정보 network참여 계획은?

(4) 금년도 연수생 및 봉사단의 사후관리에 대하여 특별히 세우고 있는 계획은?

(5) 기자재 및 물자지원 사업이 우리나라 수출촉진에 기여한 영향은?

(6) 다자 및 유상비율 등 ODA지원 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은?

타. 박근혜의원 (서면답변으로 대체)

※ 창립 10주년을 축하하며, 민형기 총재님의 노고에 감사함.

- o KOICA가 개도국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에도 기여하고 있는 등 KOICA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o 특히 '96년도 초청한 연수생이 우리 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고 있는 등 협력사업 성과가 가시화되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함
- o 향후 KOICA가 더욱 내실있게 발전하기를 희망함.

(1) KOICA사업을 개별사업 단위위주가 아닌 분야별로 종합적인 협력사업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전략은?

- o 한·수단 직업훈련원 지원사업관련, 현지에 적절치 않은 기자재가 지원된 바 있는데, 이는 전문가와 함께 철저한 사전조사를 실시했다면 방지가능한 사례임.
- o 협력사업 추진시 충분한 사전조사와 함께 대상지역과 현지 사정을 고려한 중점분야를 선정·지원해야 할 것임.

(2) 봉사단이 현지에서 체득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senior 전문가 파견을 검토할 것을 제안한 바 있는 데, 진척이 없는 사유는?

파. 문희상의원 (서면답변으로 대체)

(1) 명퇴 및 실직한 고급 인력을 senior volunteer로 파견할 수 있는 계획과 구상이 필요한 데, 이에 대한 의향은?

- o 한 나라가 융성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외국으로 꾸준히 진출하고 뻗어가야함.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중동지역 진출을 도모한 박정희대통령이나 우즈베키스탄 및 베트남 등에 진출한 김우중회장 등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음.
- o 실제 금년 3월 KOICA의 후원으로 협력사업 현장 시찰시 우즈베키스탄 및 베트남을 방문하여 이러한 사실을 실감한 바 있음.
- o 40~50대의 우수인력을 봉사단으로 파견하여 개인적으로는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가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활동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익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정책차원에서 KOICA가 senior volunteer제도 도입을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함.

하. 조웅규의원 (서면답변으로 대체)

※ KOICA는 제한된 예산에도 불구하고 개도국 오지에서, 문화가 다른 이국에서 성공적인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전세계 나라와 정을 나누면서 이웃을 돕는 나라라는 이미지를 고양하는 동시에 국익창출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

- o KOICA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조국을 위해 보람있는 일을 한다는 자긍심을 가져도 좋을 것임.

(1) 정부부처에서 각기 추진예정인 인터넷 봉사단등과 관련해서 국제협력사업의 일원화를 위해 외교부와 KOICA가 더욱 노력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며, 그에 대한 방안은?

- o IT사업과 관련하여 산자부, 정통부등에서 각자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ASEM+3 정상회담시 김대중대통령께서 국가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천명한 국가간 초고속 정보망구축과 관련 교육부와 정통부에서 인터넷 봉사단파견을 추진하고 있음.

- o 외교부와 KOICA가 관련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지 못하고 주도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할 필요가 있음.

5. 조치사항

☐ 국정감사 수감결과 외교부 및 국회 보고

☐ 서면질의 및 구두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자료 작성·제출

☐ 국정감사시 지적사항 및 제언에 대한 소관부서별 후속사항 조치.

첨부 1. 의원별 구두질의에 대한 답변자료

2. 의원별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자료

3. 의원별 서면질의 세부내용

의원별 구두질의 및 서면질의 답변자료

○ 작성순서 : 의원명 가나다 順

○ 중복 및 유사질의 : 先 질의의원의 답변자료로 대체

1. 의원별 질의요지

가. 서면자료로 대체키로 한 구두질의

의원명	구두질의 요지	페이지
김덕룡	1. KOICA의 대북지원 필요성 및 지원여부에 대한 연구검토 의향	1
김원웅	1. 베트남 지원사업의 중요성 및 향후 지원계획	2
	2. 현행 우리나라의 유·무상 비율, 다자·양자간 비율의 개선	4
	3. 기자재 및 물자의 무상공여가 수출촉진에 미치는 영향	5
	4. 봉사단 파견사업의 확대·발전 계획	7
문희상	1. Senior Volunteer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검토 여부 및 향후 계획	9
박관용	1. 봉사단 중도귀국 방지를 위한 교육훈련 강화 필요성	13
박근혜	1. 분야별, 지역별 지원방식으로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	15
	2. Senior Volunteer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검토 여부 및 향후 계획	9
박상천	1. 현행 우리나라의 유·무상 비율, 다자·양자간 비율의 개선 필요성	3
	2. 우리의 경제적 실리증대에 대한 무상원조의 기여도	16
유흥수	1. KOICA직원 처우개선 방안 및 이직율 심화에 따른 인력 운용 방안	17
	2. IT분야 협력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	20
이낙연	1. 베트남 지원사업의 중요성 및 향후 지원계획	2
	2. 2002년도 예산(안) 심의 현황	22
	3. 연수생 초청기간의 장기화 추진 필요성	23
	4. 봉사단 선발기준 및 절차	24
조웅규	1. 각 부처별 협력사업 추진현황과 IT 협력사업 등의 일원화 필요성	26

나. 의원별 서면질의

의원명	서면질의 요지	페이지
김성호	1. 인력부족문제 해소를 위한 신규인력 충원 등 인력운용 대책 및 전문인력 확충 방안	27
	2. 대통령의 외교활동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등을 위한 예비비 편성 필요성	30
	3. 현행 단기위주 연수과정을 장기위주로의 전환 방안	31
	4. 봉사단 등 파견인력을 활용한 지역전문가 육성 및 활용방안	32
	5. 신규인력 충원시 귀국봉사단에게 특별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인사정책 도입에 대한 입장	33
김용갑	1. 비상근 이사의 출석율 제고 등 이사회운영의 효율성 제고 방안	35
	2. 객실이용율 제고를 통한 연수센터 활용시 효율성 제고 방안	36
	3. 물품조달시 공개입찰비율 개선, 수의계약의 사유 및 납품업체 다변화 방안	37
김운용	1. 소수인원의 재외공관에 협력단 직원 파견 필요성	41
	2. 봉사단 및 전문인력 파견관련 현지 사고발생 사례 및 처리결과	42
김종하	1. 무상원조가 교역과 수출확대에 기여하는 상관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 필요성 및 향후 계획	45
	2. 현행 이원화되어 있는 유상(EDCF) 및 무상(KOICA)원조의 연계성 강화 및 일원화 방안	46
	3.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인력운용 대책 및 전문인력 확충 방안	27
문희상	1. 2005까지 DAC가입을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 및 재원확보 방안	48
	2. ODA현장 또는 대강 제정 필요성 및 추진방안	50
	3. 원조사업 선정기준, 분야별 중장기 정책 및 평가방안	51
	4. 각 부처별 협력사업 추진현황과 IT 협력사업 등의 일원화 필요성	54
서청원	1. ODA규모 확대 및 재원 확충 방안	55
	2. NGO지원사업 확대 방안	56
	3. 야따마우까 농장처리 지연사유와 현행 추진상황	57
	4. 협력단 직원의 근무의욕 고취 및 사기진작을 위한 주재관 신분 부여 등 KOICA직원의 대외적인 위상 강화 방안	58

의원명	서면질의 요지	답변자료
이창복	1. 아·태지역 편중현상을 개선하고,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	59
	2. 봉사단 및 전문인력에 대한 복지지원금 지급수준 개선 필요성	60
	3. 귀국봉사단의 국내 정착지원을 위한 사후관리 방안	63
장성민	1. 현행 이원화되어 있는 유상(EDCF) 및 무상(KOICA)원조의 연계성 강화 및 일원화 방안	46
	2. NGO지원사업 선정의 적정성 여부 및 확대 방안	66
	3. 현행 단기위주의 연수기간을 장기위주로의 전환 필요성	31
	4. 봉사단 사후관리 강화방안 및 지역전문가로의 육성·활용방안	70
조웅규	1. ODA 확대 및 재원확충 방안	73
	2. 협력사업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이해증진 방안	74
	3. 협력단의 직원 이직율이 과도한 사유 및 직원의 사기 진작 및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설문조사 등 다각적인 대책수립 필요성	75
	4. 해외사무소 인력의 대폭 감소사유 및 운영비 증가사유	77
	5. 귀국봉사단원의 사후관리 실태	78

【첨부1】

구두질의에 대한 답변자료

의원명	구두질의 요지	페이지
김덕룡	1. KOICA의 대북지원 필요성 및 지원여부에 대한 연구검토 의향	1
김원웅	1. 베트남 지원사업의 중요성 및 향후 지원계획	2
	2. 현행 우리나라의 유·무상 비율, 다자·양자간 비율의 개선	4
	3. 기자재 및 물자의 무상공여가 수출촉진에 미치는 영향	5
	4. 봉사단 파견사업의 확대·발전 계획	7
문희상	1. Senior Volunteer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검토 여부 및 향후 계획	9
박관용	1. 봉사단 중도귀국 방지를 위한 교육훈련 강화 필요성	13
박근혜	1. 분야별, 지역별 지원방식으로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	15
	2. Senior Volunteer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검토 여부 및 향후 계획	9
박상천	1. 현행 우리나라의 유·무상 비율, 다자·양자간 비율의 개선 필요성	3
	2. 우리의 경제적 실리증대에 대한 무상원조의 기여도	16
유흥수	1. KOICA직원 처우개선 방안 및 이직율 심화에 따른 인력 운용 방안	17
	2. IT분야 협력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	20
이낙연	1. 베트남 지원사업의 중요성 및 향후 지원계획	2
	2. 2002년도 예산(안) 심의 현황	22
	3. 연수생 초청기간의 장기화 추진 필요성	23
	4. 봉사단 선발기준 및 절차	24
조웅규	1. 각 부처별 협력사업 추진현황과 IT 협력사업 등의 일원화 필요성	26

대북한 협력사업 지원 가능 여부 및 연구검토 의향
(김덕룡의원 구두질의)

□ 협력단의 대 개도국 지원사업에 대한 Know-how를 북한 지원에 활용할 필요성에 대하여는 공감하며, 협력단의 북한 지원은 북한이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에서 정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함.

□ 또한 협력단은 북한이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개발(HRD), 정보기술(IT), 식량원조 등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know-how를 축적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만, 협력단이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협력단을 통한 북한 지원 방침을 정하고 관련 법규 마련과 함께 별도 예산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를 위해서는 우선 외교부 및 통일부 등 관련부처의 정책적 검토,
-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대북지원 관련법규 정비 및
- 국제기구 및 다자기구 등을 통한 대북지원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임.

※ 참고 : 통일연구원과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국제기구의 대북지원과 남북협력」이라는 제목하의 국제심포지엄을 개최(2001.9.7)한 바 있음.

□ 상기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협력단은 특별 T/F 연구팀을 구성하여 북한의 현실에 맞는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범사업(pilot project) 지원을 추진해 나갈 용의가 있으며, 관련사항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우선 지원가능 분야는 우리의 비교우위분야인 인적자원개발(HRD) 및 정보기술(IT)분야이며, 시장경제 이행을 위한 능력구축(capacity building)과 우리의 개발경험을 전수하는 경제정책관련 기술협력분야 지원방안도 포함시킬 수 있다고 사료됨.

베트남 지원사업의 중요성 및 향후 지원 계획
(김원웅의원, 이낙연의원 구두질의)

□ 우리정부의 KOICA를 통한 베트남에 대한 협력사업은 크게 다음 4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시행되고 있음.

- 첫째, 정치 외교적인 측면으로서, 베트남은 한국에 대해 "양국간 과거는 덮어두고 미래를 위해 협력한다"는 기본방침을 견지하고 있으며, 국제무대에서 항상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바, 이에는 무상원조를 통한 신뢰구축이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 둘째, 경제적 측면으로서, 한국은 베트남의 4대 교역국 및 투자 대상국이며 수요이후 약 16억불에 상당하는 건설수주를 하는 등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임.

- 셋째, 발전 잠재력측면으로, 베트남은 우수한 인적자원이 풍부하며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등 향후 발전잠재력을 고려할 때 우리와의 협력강화가 요구됨.

- 넷째, 인도적 측면으로, 2000년도 베트남의 1인당 GDP는 398불로 아시아 최빈국중의 하나임.

□ 향후 우리정부의 대 베트남 협력사업은
- 교육훈련사업 지원을 통한 베트남의 인적자원 개발을 지속하고,
- 의료보건사업 지원을 통한 인도적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 베트남의 사장경제 전환에 필요한 우리의 발전 경험을 전수하는 사업을 위주로 실시할 계획임.

《 참고1 : 대 베트남 주요 협력사업현황('91-'99) 》

구분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계
지원액(천불)	21	297	999	2,291	3,312	3,649	2,755	3,126	6,193	4,736	27,379
수원 순위	103위 118국	12위 128국	3위 134국	1위 140국	2위 139국	2위 140국	2위 137국	1위 126국	1위 128국	2위 133국	

- 연수생 초청 : 821명
- 전문인력파견 : 28명(전문가 25명, 의료단 1명, 태권도사범 2명)
- 봉사단파견 : 64명
- 개발조사 : 3건 2,417천불
- 물자지원 : 949천불
- 프로젝트 : 18건 16,594천불
- NGO 지원 : 10개단체 567천불

《 참고2 : 대 베트남 교역규모 및 투자 현황 》

(단위:백만불)

구 분		'97	'98	'99	'00
교역규모	○ 총교역액(A+B)	1,842	1,570	1,709	2,008
	- 수 출(A)	1,603	1,386	1,445	1,686
	- 수 입(B)	239	184	264	322
	○ 무역수지	+1,364	+1,202	+1,181	+1,364
투자규모	○ 투자액	87	47	15	31

※ 2000년말 기준 대베트남 투자누계는 206건에 584백만불임.(순투자기준)

현행 우리나라의 유·무상 비율, 다자·양자간 비율 개선 필요성

(김원웅의원, 박상천의원 구두질의)

□ 우리나라의 ODA는 선진국의 원조와 비교할 때 절대 재원이 작을 뿐 아니라 특히, 유무상의 비율에 있어서 세계적 추세와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 ODA 유무상 비율은 64:36인 반면, OECD/DAC의 평균 비율은 20:80으로서 무상원조의 점유율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음.

□ 이러한 차이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ODA 재원은 **절대액**의 증액도 중요하지만 **배분방식**에 있어서 유상보다는 무상원조 비율을 대폭 증액시키는 것도 원조의 질을 평가받는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최근에 특히 주목할 것은 금년 4월 OECD/DAC 고위급 회의에서 최빈국에 대한 무조건부(untying) 원조가 합의되어 2002년부터 실시될 예정임.

- 따라서, 우리나라도 EDCF 지원시에는 untying원조가 불가피하여 기존의 운영 기본틀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반면, 협력단의 무상협력사업은 tied원조의 예외규정(양허성 수준 80%이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국제적으로도 자국산 물품공여와 자국 기업참여를 보장받기 때문에 향후 추진방향도 무상 협력사업의 지속적인 확대로 나아가는 것이 국익증진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기자재 및 물자의 무상공여가 수출촉진에 미치는 영향
(김원웅의원 구두질의)

□ 협력단은 대외 물자지원에 있어서 우수한 국산품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 새로운 시장의 개척과 수출촉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 주요 對韓 무역적자국, 특히 아시아 및 중남미 지역 국가들과의 무역마찰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사료됨.

□ 주요 수출촉진 사례는

- 탄자니아의 경우 1992년부터 국산차량을 지원(버스 3대, 승용차 2대, 짚차 4대, 트럭 3대)후 국산 차량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탄자니아 정부는 경찰청, 국방부 등에서 사용할 아국 차량을 대량 수입(경찰청: 현대 엘란트라 100대, 엑센트 200대/국방부: 기아 3.5톤 트럭 286대)한 바 있음.

□ 그 밖의 주요 수출촉진 사례로는

ㅇ 이디오피아의 경우 차량 지원이 수출을 촉진한 사례('97~'99)

- 지원내역 : 승용차 8대, 짚차 1대, 버스 2대
- 우리 기업의 수출현황
- '98~'99년도 : 무쏘 59대, 씨에로 55대, 라노스 31대 등 대우 자동차 총 296대 판매

ㅇ WHO에 대한 백신 지원이 수출을 촉진시킨 사례('98, '00)

- 지원내역 : 소아마비백신 238천병
(이디오피아 290천불 상당, 방글라데시 200천불 상당)
- 이디오피아의 경우, 소아마비백신 지원을 통해 제조업체인 녹십자백신(주)의 지명도 상승으로 78천불 상당의 제품 수출

- 방글라데시에서도 백신 성능을 인정받아 간염백신 수주 등 수출경쟁력 확보 기대.

□ 주요 투자촉진 사례는

- 이집트에 '91년부터 96년까지 승용차(41대), 승합차(10대), 진공청소차(2대)를 지원한 후 우리의 자동차 3사가 연간 각 1만~2.4만대 조립공장을 설립하여 현지생산 판매 중에 있음.

□ 현재 이러한 사례들은 종합적으로 조사 연구하여 소책자로 발간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수출촉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연구보고서를 발간예정임.

봉사단 파견사업의 확대·발전 계획
(김원웅의원 구두질의)

가. 기본방향

□ 협력단은 지난 10년간 양적·질적으로 크게 발전해온 해외봉사단 사업이 앞으로도 개도국들의 봉사단수요에 적극 부응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국민 참여형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임.

□ 안정적인 사업기반구축과 내실화를 다지면서도, 지속적으로 파견규모를 확대하고 대 국민 인식제고에 집중해 나갈 계획임.

나. 주요 발전방안

□ 우선, 사업예산과 단원 관리인력 등 사업운영능력을 고려하면서 지속적으로 파견규모를 확대하여, 아직 1국당 10명 정도에 머물고 있는 평균 활동인원을 연차적으로 15명 이상이 되도록 추진하겠음.

□ 또한 협력단 해외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국가 중에서 단원 활동 인원이 15명 이상이 되는 국가에는 별도의 단원관리 인력을 파견하여 안정적인 단원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고, 현지 수요발굴과 파견지역을 다변화하여 지속적인 파견인원 확대에 대비해 나가겠음.

□ 이와 아울러 단원들의 활동이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봉사단 프로젝트와 활동물품의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현지 활동 점검 및 지도체계를 정립하는 등 단원활동 지원체계도 강화해 나갈 계획임.

□ 한편,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홍보 활동을 전개하며, 국내유관기관 및 기업들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해 나갈 것임.

□ 아울러 선발된 인력들을 우수한 봉사단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귀국한 봉사단원들이 국내에 잘 정착하여 이들의 경험이 국가발전을 위해 활용되고 더 나아가 지역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취업, 귀국단원 모임 활동, UNV 진출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음.

□ 또한, 2000.12.26일 국제협력봉사요원 제도가 부활됨에 따라 일반 봉사단원으로는 인력확보가 어려운 특수분야의 우수자원을 확보하여 성공적인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다. 향후 확대파견 계획

□ 우선 확대파견을 도모함에 있어, 소요예산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며, 봉사단 확대파견의 필요성 및 파견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참여도도 제고해 나갈 계획임.

Senior Volunteer(전문봉사단)제도 도입방안 검토여부 및 향후 계획

(문희상의원, 박근혜의원 구두질의)

가. Senior Volunteer 제도 도입 검토 여부

□ 일반단원으로는 선발이 어려운 전문특수분야의 개도국 수요 요청에 부응하고, 봉사단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문기술과 경험을 갖춘 중·장년층(40-50대)의 인력을 대상으로, 2000년도 신규사업으로 Senior Volunteer(전문봉사단)파견 제도 도입을 검토한 바 있음.

□ 그러나, 현행 전문가 파견사업과의 차별화와 제도 도입의 규정 미비 및 전문봉사단원으로서의 자격조건을 갖춘 우수인력 확보의 어려움 예상 등 동 제도를 당장에 도입·시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검토됨에 따라 도입여부를 보류한 바 있음.

나. Senior Volunteer제도 도입시 기대효과 및 예상 문제점

(1) Senior Volunteer의 기대효과

□ 일반단원으로는 선발이 어려운 특수분야에 대처하고, 전문가급의 기술 수준을 요구하는 개도국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기술과 경험을 갖춘 인력 확보 도모

□ 수시파견이 가능토록 제도보완시 봉사단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 가능하며, 전문가 파견 등 기존 인력협력사업에 대한 보완적 역할수행 가능

□ 40세 이상 단원들의 활동상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처우개선 등의

복지지원 방안으로서 활용가능

- 젊은 층과의 융화 및 기혼자의 경우 가족들의 생계대책 문제
- 열악한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부족 등

(2) 대상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 제도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

□ 제도도입시 적합한 자격조건을 갖춘 적정 우수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직업이동, 휴직, 파견 등에 제도상의 제약이 많고 업무공백시 인사상 불이익도 감수해야 하는 등의 여건하에서는 사회 중견인에 해당하는 40-50대 현직자들의 지원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현실적 지원여건이 미비한 상황하에서는 다양한 계층의 인력확보를 위해 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적 여건 변화에 우선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① 귀국 봉사단원

- 우수인력의 대부분은 취업, 유학 등으로 기 정착한 상태이고 선발분야에 적합한 인력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됨.

② 전문기관 종사자

- 파견활동을 종료하고 귀국하여 전 직장에 복귀가 가능한 현직참가(휴직, 파견)를 전제로 할 경우 일부 지원자가 있을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봉사단파견과 관련한 휴직제도가 갖추어진 기관이 드문 상황이며,
- 이들을 유인하기 위해 대우조건을 더욱 상향조정할 경우에는 기존 "전문가 파견사업"과의 차별성을 가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③ 기타 일반인

- 전문직 종사 유경험자 또는 퇴직자의 지원이 기대되나, 개도국 현지 유경험자 선발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3) 기타 고려 요망사항

□ 국제협력봉사요원제도의 부활로 일반봉사단으로 파견하기 어려운 전문 인력확보가 가능한 상황임.

- 전문봉사단 제도의 도입은 일반봉사단원으로는 인력확보가 어려운 특수 분야에서의 인력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여서, 협력봉사요원제도 부활로 전문 인력확보가 가능.

□ 현행 협력단 봉사단 파견대상 연령 확대(만60세)를 통해,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단원을 파견하고 하는 senior volunteer제도의 취지를 이미 일부 반영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기존 봉사단 활동 후 재파견 또는 기간연장을 통해 봉사사업의 성과제고를 도모하고 있음.(재 파견 15명, 기간연장 69명)
- 구체사례 : 서호복(55세, 페루 자동차분야), 최인선(54세, 파라과이 컴퓨터분야), 윤영애(50세, 몽골 한국어분야) 등이 현재 활동중에 있음.

□ 현재 협력단 봉사단파견사업 규정상 동 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 미비

-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한국국제협력단 사업시행지침 및 관련기준이 미비한 상황으로서, 동 제도 도입을 추진할 경우에는 우선 관련 규정 마련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다. Senior Volunteer 또는 전문봉사단 제도 도입에 관한 향후 계획

□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유휴 인력을 파견함으로써 일반 봉사단파견 효과를 보완 할 수 제도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동 제도 도입시 수반되는 제도상 미비점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2002년도에는 우선 전문봉사단원 파견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필요조치를 강구해 나가고자 함.

<참고> JICA의 청년해외협력대 및 Senior Volunteers 제도 현황

<참고> JICA의 청년해외협력대 및 Senior Volunteers 제도 현황

구 분		일본 JICA		KOICA
		청년해외협력대 (JOCV)	Senior Volunteers	일반봉사단원 (KOV)
1. 사업발족 년도		1965	1990	1990
2. 사업개요		KOV와 동일한 일반 Volunteer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중.노년층의 대 개도국 봉사단파견	JOCV와 동일한 일반 Volunteer
3. 연령제한		20-39세	40-69세	20-61세
4. 평균연령		27세	54세	28세
5. 파견대상국		67개국 (현재 활동 59개국)	12개국 (현재 활동 12개국)	28개국 (현재 활동 23개국)
6.파견실적 ( )는 여성	활동중	2,249명 (1,025)	52명 (15)	160명 (114)
	누 계	17,366명 (5,492)	132명 (29)	722명 (405)
7. 파견기간		2년	1-2년	2년
8. 파견횟수		년 3회	년 2회	년 2회
9.지원경비	생활비	월$280-$430	월￥244,000-￥437,500 ($2,200-$3,900)	월$300-$440
	주거비	월$75-$435	월$678-$2,025	월$70-$300
	적립금	월￥99,700($900)	월￥99,700($900)	월30만원($250)
	기 타		가족수당,자녀교육비	
10. 선발방법		ㅇ 1차시험 -기술, 영어, 적성 ㅇ 2차시험 -면접(인물,기술), 건강진단	ㅇ 1차시험 -서류심사 ㅇ 2차시험 -면접 · 어학시험, 건강진단	ㅇ 1차시험 -서류심사 ㅇ 2차시험 -영어, 면접(전공, 일반), 건강진단
11. 파견분야		농림수산, 가공 · 보수조작, 토목건축, 보건위생, 교육문화, 스포츠 등	농림수산, 건설, 토목, 행정, 경제, 광공업, 보건 · 의료, 문화, 사회	교육문화, 농림수산, 공업 · 기술, 보건 · 위생 등

※JICA는 '97.10월 현황 자료임

봉사단 중도귀국 방지를 위한 선발·교육·훈련 강화 방안
(박관용의원 구두질의)

가. '95년이후 중도포기자 현황 및 사유

□ 봉사단 중도귀국 주요사유는 국내 취업등을 위한 본인희망, 건강, 가정사정, 결혼 등으로서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면 현지의 열악한 생활 환경과 언어장벽, 문화적 충격 등에 대한 부적응으로 활동을 포기한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구 분	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인원	%							
계 (여)	57명 (27)	100	7 (1)	9 (6)	14 (6)	6 (3)	9 (3)	4 (2)	8 (6)
징 계	2	4	1		1				
무단귀국	1	2							1
결 혼	6	10			1	1		1	3
가정사정	11	19	2	2	1	3		1	2
건 강	17	30	3	1	6	5	1	2	1
본인희망	20	35	1	6	5	1	4		1

* 징계사유(2명) : 근무지이탈(1명/베트남), 현지인 폭행(1명/방글라데시)

나. 중도귀국 방지대책 및 향후계획

□ 현재 선발 및 교육·훈련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중도귀국을 사전에 방지코자 노력하고 있음.

- 단원 선발방법을 개선하여 선발시험에 인성검사를 추가하고, 일반면접시 복수의 면접관이 정밀하고 세분화된 면접을 실시하여 지원자의 인성과 정신력을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 국내훈련을 강화하고 엄정한 훈련평가와 지도로 국내훈련 기간을 실질적인 단원 선발과정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음.

- 또한 단원들이 파견된 후에는 활동 현지의 해외사무소와 주재공관을 통하여 단원들의 활동상 애로점을 파악하고 상담하며, 연2회의 정기 활동평가 회의를 개최하여 단원들의 활동 상황을 파악함과 아울러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있음.

□ 협력단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중도귀국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함으로써, 해외봉사단 파견사업의 성과제고를 도모해 나갈 계획임.

분야(sector)별 지역별, 협력사업 수행을 통한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방안
(박근혜의원 구두질의)

□ 원조사업의 실시체계는 원조규모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KOICA의 무상원조 재원은 금년의 경우 4600만불에 불과한 수준이어서 이를 130여개의 개도국에 국별로 배분하다 보니 소액의 최소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이러한 ODA재원의 한정된 관계로 인해

- 프로젝트의 규모도 대개 수십만불 정도이며, 많은 국가에 대한 협력사업의 경우 물자지원에 한정되기도 함.

□ 따라서 현재의 협력예산 규모 아래서는 지금까지 불가피하게 사업별 지원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었다고 판단됨.

□ 향후, 점차로 재원이 확충되어 단위사업의 규모가 커지고, 사업간 연계가 확대될 뿐 아니라 중점 지원국에 대한 국별 원조전략이 수립되는 등 원조 규모가 증대되면 분야(sector)별 사업수행과 국별 프로그램 전략이 필요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므로 향후에는 원조규모의 증대 추이를 보아가면서 가장 효율적인 재원의 배분과 사업성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분야별, 국별 전문화와 사업수행체계의 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예정임.

우리의 경제적 실리증대에 대한 무상원조의 기여도
(박상천의원 구두질의)

□ 무상원조사업은 프로젝트 사업과 도로, 도시건설 타당성조사 사업 등을 통해 개도국에 우리 기업의 진출과 투자환경을 측면 지원하고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에 기여하는 등 개도국과의 경제협력 증진에 크게 이바지하여 왔음.

□ 아국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등 무상원조사업의 파급효과에 관한 사례로서,

- 한국전력에서 "필리핀 바탄-말라야 복합화력발전소건립 타당성 조사사업"('93.10-'94.4/374천불)의 성공적인 수행을 토대로 필리핀 정부가 발주한 화력발전소건설시공사업 2건(8억불)을 수주함.

- 현대엔지니어링 및 삼안건설 기술공사가 네팔 모디강 수력발전소 타당성조사('93-'94/735천불)사업과 EDCF(15백만불)와의 연계를 통해 발전장비 공급과 감리 업무를 각각 수주함.

- 네팔에 차량지원('91-'96/33대)을 지원한 결과, 현대자동차에 대한 현지들의 인식이 좋아져 카투만두 시내택시의 약 50%를 국산 차량이 점유함.

- 인도네시아 저습지 벼농사 기계화사업('98-'00/110만불)을 통해 아세아 농기계에서 인도네시아에 2천대 가량의 농기계를 수출한 바 있음.

□ 또한 개도국 지원사업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 석유, 원목 등 해외 수입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와 무역다변화 및 투자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이와 관련, 무상원조 사업이 경제적 실리추구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 가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계획임.

KOICA직원 처우개선 방안 및 이직율 심화에 따른 인력운용 방안

(유홍수의원 구두질의)

가. 인력운영 실태

□ **협력단 설립년도 대비 27% 인력 감축**

- '91년4월 협력단 설립이후 지난 10년간 협력사업규모는 약3배(174→505억원)수준으로 증가하여 직원 1인당 사업량은 293%가 증가함.
- 반면에, 협력단 인력은 27% ('91년말 230명→ '01년 7월말 169명) 감소하였고 직제정원(203명)과 비교시 34명(17%) 부족한 실정임.
- '98년 경영혁신 목표인원 186명과 비교시 17명(9%) 부족

□ **해외사무소 인력 50% 감축**

- 당초 15개국 30명 수준에서 운영되던 해외사무소 인력이 현재 12개국 15명으로 50% 감축 운영하고 있어 현장중심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 참고로 협력단의 경우 현 직원수 169명의 8.8%에 해당하는 15명이 해외근무중인 반면에 일본 JICA의 경우 57개국에 339명의 직원이 해외사무소에 파견되어 전체직원 1,218명의 27.8% 수준임.

나. 문제점

□ **실무직원 이직률 급증 등으로 인한 업무수행에 차질**

- '96~'99년간 직원 채용이 실시되지 않았으며, 직원 이직률도 최근에 급증('00년 6.2%)하여 인력부족이 심각함.

연 도	'91	'95	'96	'97	'98	'99	'00	'01
인원(명)	**230**	**256**	**248**	**243**	**181**	**177**	**173**	**169**
이직율(%)		6.5	2.7	4.4	22.2	2.2	6.2	2.3

- 최근 3개년간 이직률이 높은 것은 IMF 위기시 인력구조조정이 주요 원인이나, '97~'00년간 이후 임금동결 등 근무여건이 저하되어 하위직급 직원의 퇴직이 급증하였음.
- 국내에는 협력단이 유일한 국제협력 사업기관으로서 사업의 노우하우 축적을 위한 인력 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을 감안, 높은 이직율 발생은 기관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야기함.

□ 국제협력 전문인력 절대 부족

- 선진국에 비해 국제협력 역사가 일천한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협력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나, 관련예산의 부족으로 전문인력 확충이 만족스러운 수준이 못됨.
- 협력단 사업규모가 급증하면서 사업형태도 전문화, 다양화되어 국제협력 전문인력 확보가 어느때보다 절실한 때임.
- 인력 충원이 불가할 경우 개도국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IT(정보기술) 협력사업 및 HRD(인적자원개발) 등 정부 공약사업 수행에 차질이 우려되며, 21세기 국가전략사업인 국제협력사업의 질적 향상 기대도 어려운 실정임.

다. 인력충원 방안

□ 신규인원 충원 및 해외사무소 확충

- 현재 확대되고 있는 사업량으로 보아 향후 3개년간 직제정원(203명) 수준으로 인력을 확대하고 해외사무소를 과거 30명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

연 도	직제정원 (A)	현원 (B)	증 원			
			총계	'01년	'02년	'03년
인 원	203명	169명	34명	8명	12명	14명

- 다만 이러한 신규인원 충원 및 해외사무소 확충 문제는 관계부처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예산당국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인력 증원 비용과 해외사무소 운영비를 가급적 조속히 확충하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음.

□ **인건비등 처우 개선 추진**

- 우리의 대개도국 진출유망 분야인 IT(정보기술)분야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등을 통해 조직의 전문성 및 위상을 제고함으로써 유능한 인재 유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으로의 인건비 인상 등의 조치가 시급한 실정임.
- 또한 유능한 직원들이 능력과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성과급제도 등 보수체계를 개선하는 노력을 경주하겠음.

IT협력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
(유홍수의원 구두질의)

가. IT협력사업 전담팀(IT협력팀) 설치

□ 국제사회의 새로운 개발협력 이슈로 부상한 국가간 정보격차 해소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의 개도국 IT 시장진출 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주요 개도국과의 IT 분야 협력사업을 강화할 목적으로 IT협력팀을 설치함.

□ 인력: 팀장 1명, 팀원 3명 (총 4명)

□ 예산: 1,618백만원

- 사업비: 1,600백만원(프로젝트 1,496백만원, 전문가파견 104백만원)
- 행정비: 18백만원

나. IT협력사업의 주요 업무

□ 개도국의 정보격차 해소 등 IT분야 국제 동향 파악과 주요 개도국의 IT환경조사 등 연구조사 업무

□ 개도국의 IT관련 정책수립, 법·제도 정비 관련 자문 및 IT기술전수를 위한 전문가 파견

□ 개도국의 IT인프라 개선 및 정보망 구축, IT인력 양성 등을 위해 시설 지원, IT장비 제공, 전문가파견, 연수생초청 등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프로젝트사업 추진

□ 개도국의 국가 정보화 M/P 수립 혹은 IT 인프라 프로젝트 등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기술용역 제공(개발조사)

라. 주요 추진사업 현황 (8월 현재 기준)

□ **전문가파견사업** (4국 5명)

- 인도네시아 소프트웨어 (2명/3개월): 9월 파견 추진중
- 캄보디아 컴퓨터 (1명/3개월): 기파견
- 이집트 전자 (1명/3개월) : 기파견
- 필리핀 전자 (1명/6개월): 기파견

□ **프로젝트사업** (6국 6건)

- **네팔 외무부 전산화** (300천불/'01)
  - R/D체결후 연수생 초청, 전산기자재 조달 등 본사업 추진중
- **방글라데시 다카대 과학기술센터건립** (690천불/'01-03)
  - 실시협의단 파견 및 R/D체결('01.6월)
  - 정부간 구상서 교환 및 연수생초청계획 수립 추진중
- **리비아 알파타대 전산화지원** (2,000천불/'01-03)
  - 사업기본계획 수립중
  - '01.9월경 실시협의단 파견 및 R/D체결 예정
- **이집트 국가정보망 설계 및 구축** (2,000천불/'01-03)
  - 사업기본계획 수립중
  - '01.10월경 실시협의단 파견 및 R/D체결 예정
- **인니 IT훈련센터 건립지원** (2,500천불/'01-03) *※ 후보사업*
  - 사전타당성조사 완료('01.4월) 및 인니 정부와 사업추진방안 협의중
  - '01.11월경 실시협의단 파견 및 R/D체결 예정
- **중미6국 통합체제 지원사업** (2,300천불/'01-04) ※2001년도 후보사업
  - 사업추진방안 검토중

마. 향후계획

□ 앞으로도 정보기술분야에서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국가간 정보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상호 호혜적인 차원에서의 IT분야 협력사업을 보다 확대해 나갈 계획임.

2002년도 예산(안) 심의 현황

(이낙연의원 구두질의)

□ 2001.9.18현재 예산당국과 협의된 2002년도 총 예산(출연금 기준) 규모는 **699억원**(전년대비 23.6% 증)수준임.

- 협력사업비 : 전년(505억원)대비 25.7% 증가한 636억원(49백만불)
- 인건비 및 경상비 : 전년대비 각각 5%, 3% 증(공통기준 적용)

(단위: 백만원)

구 분		'01예산(A)	'02예산(B)	증액(B-A)	증감율(%)
수입	출연금	56,570	69,897	13,327	23.6
	자체수입	1,569	1,669	100	5.7
합 계		58,139	71,566	13,427	23.0
지출	협력사업비 (백만불)	**50,546 (46.0)**	**63,556 (48.9)**	**13,010**	**25.7**
	인건비	5,731	6,018	287	5.0
	경상비	804	828	24	3.0
	산하기관	1,058	1,164	106	10.0

□ 현재 2002년도 협력사업비는 지난 '97년도 경제위기 이전의 56백만불 대비 88%수준임.

□ 향후 협력단은 협력사업비의 대폭적인 증액을 위해서 예산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협력사업비 증액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노력도 지속 병행예정임.

연수생 초청기간의 장기화 추진 필요성
(이낙연의원 구두질의)

□ 현재 연간 2,300명 규모의 개도국 연수생을 초청하여 우리의 개발 경험을 전수하고 개도국내에 영향력있는 관료와 과학기술 인력 등을 대상으로 친한인사의 저변을 확대하여 줌으로써, 개도국과의 동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연수생초청사업은 우리나라 ODA사업중에서 가장 연혁이 오래되고 협력효과도 높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그동안 양적인 확대에 치중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단기 초청 프로그램이 주종을 이룰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임. 왜냐하면,

- 연수기간의 연장은 그 만큼 연수비용의 증대를 초래하고, 예산의 압박이 심해지면 초청인력의 수를 제한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임.
- 또한, 연수실시 기관 입장에서도 수용능력과 연수에 필요한 제반 인적, 시설 여건이 아직은 미비한 수준이어서 장기간의 연수를 수용할 만한 기관이 국내적으로 많지 않은 현실임.

□ 이와 관련, 현재 실시중에 있는 한국경제의 발전모델을 연수하는 한국 경제과정 장기연수(1년) 과정과 같은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과학기술·산업기술 및 IT연수분야 등은 연수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연수기간을 늘리고 연수내용도 전문화, 내실화 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음.

봉사단 선발 기준 및 절차
(이낙연의원 구두질의)

□ 해외봉사단원의 경우,

- 자격요건은 봉사정신이 투철한 20세 이상 61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이여야 하며, 해외봉사활동을 감당하는데 적합한 심신 건강자 이여야 하고, 해당국가가 요청하는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자여야 함.

- 선발절차는 서류전형, 영어필기시험 및 인성검사, 기술 및 일반면접,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가 있으며, 합격자는 예비단원이 되어 국내 훈련을 받은 후 최종적으로 봉사단원이 됨.

□ 국제협력봉사요원의 경우,

- 자격요건은 병역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자 중에서, 국제협력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국제협력업무에 대한 신념, 자질 및 적성을 가지고 있는 자임.

- 선발절차는 1차로 서류전형, 2차로 영어필기시험, 논술 및 기술면접을 실시하며, 3차로 일반면접과 신체검사를 실시하며, 선발심사위원회를 통해 대상자를 결정하며, 이렇게 합격된 대상자들은 선발심사위원회(위원장: 총재)를 거쳐 합격자 및 후보자로 구분하여 추천자로 결정되며, 외교부장관이 병무청장에 추천을 함.

- 병무청에서는 병무심사위원회(위원장 : 병무청 차장)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파견자를 확정함.

□ 국제협력의사의 경우,

- 자격요건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자로 병역법에 의거 국제협력의사로 편입이 가능한 자임.

- 선발절차는 자격요건을 갖춘 지원자중 공개경쟁으로 서류전형, 일반면접 및 영어회화를 통해 대상자를 결정하여, 외교부장관을 통하여 병무청장에게 추천하며, 병무청장은 병무심의를 거쳐 파견자를 최종 확정함.

각 부처별 협력사업 추진현황과 IT 협력사업 등의 일원화 필요성

(조웅규의원 구두질의)

□ 우리나라의 대 개도국 무상기술협력사업은 '91.4월 협력단 설립 이후 협력단에서 통합·전담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 현재 교육부, 정통부 등에서도 인터넷봉사단파견, 연수생초청사업 등을 일부 실시 중에 있음.

※ 교육부: 인터넷봉사단('01년 120명),
외국인 유학생초청(연간 60여명 수준)
정보통신부: 인터넷봉사단('01년 150명), 연수생초청(연간 1-2백명)
과기부: 과학기술자 교류(연간 50여명 수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연찬사업(연간 50-60명 수준) 등

□ 그러나, 협력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며, 정부차원의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수립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타 부처에서 실시중인 협력사업은 협력단에서 실시중인 프로젝트사업 등 다양한 협력수단과 상호 연계하여 지원할 경우 사업효과를 더욱 높여나갈 수 있으므로 협력단으로 일원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협력단은 개도국 지원사업을 협력단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그간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를 위해 관련 부처 및 기획예산처 등과 계속 협의, 노력해 나갈 예정임.

- 사업이 일원화될 경우에도, 협력단은 관련사업 추진시 해당부처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해 나갈 계획임.

【첨부2】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자료

의원명	서면질의 요지	페이지
김성호	1. 인력부족문제 해소를 위한 신규인력 충원 등 인력운용 대책 및 전문인력 확충 방안	27
	2. 대통령의 외교활동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등을 위한 예비비 편성 필요성	30
	3. 현행 단기위주 연수과정을 장기위주로의 전환 방안	31
	4. 봉사단 등 파견인력을 활용한 지역전문가 육성 및 활용방안	32
	5. 신규인력 충원시 귀국봉사단에게 특별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인사정책 도입에 대한 입장	33
김용갑	1. 비상근 이사의 출석율 제고 등 이사회운영의 효율성 제고 방안	35
	2. 객실이용율 제고를 통한 연수센터 활용시 효율성 제고 방안	36
	3. 물품조달시 공개입찰비율 개선, 수의계약의 사유 및 납품업체 다변화 방안	37
김운용	1. 소수인원의 재외공관에 협력단 직원 파견 필요성	41
	2. 봉사단 및 전문인력 파견관련 현지 사고발생 사례 및 처리결과	42
김종하	1. 무상원조가 교역과 수출확대에 기여하는 상관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 필요성 및 향후 계획	45
	2. 현행 이원화되어 있는 유상(EDCF) 및 무상(KOICA)원조의 연계성 강화 및 일원화 방안	46
	3.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인력운용 대책 및 전문인력 확충 방안	27
문희상	1. 2005까지 DAC가입을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 및 재원확보 방안	48
	2. ODA현장 또는 대강 제정 필요성 및 추진방안	50
	3. 원조사업 선정기준, 분야별 중장기 정책 및 평가방안	51
	4. 각 부처별 협력사업 추진현황과 IT 협력사업 등의 일원화 필요성	54
서청원	1. ODA규모 확대 및 재원 확충 방안	55
	2. NGO지원사업 확대 방안	56
	3. 야따마우까 농장처리 지연사유와 현행 추진상황	57
	4. 협력단 직원의 근무의욕 고취 및 사기진작을 위한 주재관 신분 부여 등 KOICA직원의 대외적인 위상 강화 방안	58

의원명	서면질의 요지	답변자
이창복	1. 아·태지역 편중현상을 개선하고,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	59
	2. 봉사단 및 전문인력에 대한 복지지원금 지급수준 개선 필요성	60
	3. 귀국봉사단의 국내 정착지원을 위한 사후관리 방안	63
장성민	1. 현행 이원화되어 있는 유상(EDCF) 및 무상(KOICA)원조의 연계성 강화 및 일원화 방안	46
	2. NGO지원사업 선정의 적정성 여부 및 확대 방안	66
	3. 현행 단기위주의 연수기간을 장기위주로의 전환 필요성	31
	4. 봉사단 사후관리 강화방안 및 지역전문가로의 육성·활용방안	70
조웅규	1. ODA 확대 및 재원확충 방안	73
	2. 협력사업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이해증진 방안	74
	3. 협력단의 직원 이직율이 과도한 사유 및 직원의 사기 진작 및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설문조사 등 다각적인 대책수립 필요성	75
	4. 해외사무소 인력의 대폭 감소사유 및 운영비 증가사유	77
	5. 귀국봉사단원의 사후관리 실태	78

인력부족문제 해소를 위한 신규인력 충원 등 인력운용 대책 및 전문인력확충 방안

(김성호의원 서면질의, 김종하의원 서면질의)

가. 인력운영 실태

□ **협력단 설립년도 대비 27% 인력 감축**

- '91년4월 협력단 설립이후 지난 10년간 협력사업규모는 약3배(174→505억원)수준으로 증가하여 직원 1인당 사업량은 293%가 증가함.
- 반면에, 협력단 인력은 27% ('91년말 230명→ '01년 7월말 169명) 감소하였고 직제정원(203명)과 비교시 34명(17%) 부족한 실정임.
- '98년 경영혁신 목표인원 186명과 비교시 17명(9%) 부족

□ **해외사무소 인력 50% 감축**

- 당초 15개국 30명 수준에서 운영되던 해외사무소 인력이 현재 12개국 15명으로 50% 감축 운영하고 있어 현장중심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 참고로 협력단의 경우 현 직원수 169명의 8.8%에 해당하는 15명이 해외근무중인 반면에 일본 JICA의 경우 57개국에 339명의 직원이 해외사무소에 파견되어 전체직원 1,218명의 27.8% 수준임.

나. 문제점

□ **실무직원 이직률 급증 등으로 인한 업무수행에 차질**

- '96~'99년간 직원 채용이 실시되지 않았으며, 직원 이직률도 최근에 급증('00년 6.2%)하여 인력부족이 심각함.

연 도	'91	'95	'96	'97	'98	'99	'00	'01
인원(명)	**230**	**256**	**248**	**243**	**181**	**177**	**173**	**169**
이직율(%)		6.5	2.7	4.4	22.2	2.2	6.2	2.3

- 최근 3개년간 이직률이 높은 것은 IMF 위기시 인력구조조정이 주요 원인이나, '97~'00년간 이후 임금동결 등 근무여건이 저하되어 하위직급 직원의 퇴직이 급증하였음.

- 국내에는 협력단이 유일한 국제협력 사업기관으로서 사업의 노우하우 축적을 위한 인력 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을 감안, 높은 이직율 발생은 기관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야기함.

□ **국제협력 전문인력 절대 부족**

- 선진국에 비해 국제협력 역사가 일천한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협력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나, 관련예산의 부족으로 전문인력 확충이 만족스러운 수준이 못됨.

- 협력단 사업규모가 급증하면서 사업형태도 전문화, 다양화되어 국제협력 전문인력 확보가 어느때보다 절실한 때임.

- 인력 충원이 불가할 경우 개도국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IT(정보기술) 협력사업 및 HRD(인적자원개발) 등 정부 공약사업 수행에 차질이 우려되며, 21세기 국가전략사업인 국제협력사업의 질적 향상 기대도 어려운 실정임.

다. 인력충원 방안

□ **신규인원 충원 및 해외사무소 확충**

- 현재 확대되고 있는 사업량으로 보아 향후 3개년간 직제정원(203명) 수준으로 인력을 확대하고 해외사무소를 과거 30명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

연 도	직제정원 (A)	현원 (B)	증 원			
			총계	'01년	'02년	'03년
인 원	203명	169명	34명	8명	12명	14명

- 다만 이러한 신규인원 충원 및 해외사무소 확충 문제는 관계부처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예산당국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인력 증원 비용과 해외사무소 운영비를 가급적 조속히 확충하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음.

□ 인건비등 처우 개선 추진

- 우리의 대개도국 진출유망 분야인 IT(정보기술)분야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등을 통해 조직의 전문성 및 위상을 제고함으로써 유능한 인재 유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으로의 인건비 인상 등의 조치가 시급한 실정임.

- 또한 유능한 직원들이 능력과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성과급제도 등 보수체계를 개선하는 노력을 경주하겠음.

□ 전문인력 양성 확대

-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협력단은 1991년부터 2000년까지 협력단 직원을 국제협력사업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해 선진원조기관과 국제기구(47명), 국제협력관련 국내외대학원(11명)에 장·단기 연수생을 파견하였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단내외 외국어교육(173명)을 추진하였으며, 직업훈련, 병원건립 등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된 전문분야에 직무교육(15명)을 실시해오고 있음.

- 무엇보다도 외부로부터의 전문인력 충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박사급 전문인력, 해당분야 전문가등에 대한 신규채용을 확대하여 중장기적으로는 협력단 직제정원(203명)과 대비하여 34명 부족한 현원을 국제협력 전문인력으로 보강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임.

대통령의 외교활동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등을 위한 예비비 편성 필요성

(김성호의원 서면질의)

□ 협력단의 예산은 외교부에서 출연되는 출연금으로 정부예산 편성상 외교부 예산에 포함되어 "국제협력단출연"이라는 하나의 "세항"으로 예산심의를 받고 있음.

□ 따라서, 정상의 외교활동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과 이에 따른 협력사업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는 예비비 편성이 바람직할 수도 있으나, 현재와 같은 정부 출연의 예산편성 구조에서는 예비비를 별도로 편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임.

- 실제로, 2000년도 아세안특별연수생 600명을 위한 특별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교부를 통해 예비비 지원을 기획예산처에 요청한 적이 있으나, 결국 예비비가 아닌 외교부 예산 환차익에서 전용하여 25억을 지원받은 사례가 있음.

□ 현재 2002년도 정부 예산안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만큼, 2003년도 예산심의시 협력단 예산에 예비비를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법적 근거, 유관기관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외교부 및 기획예산처 등과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음.

현행 단기 위주의 연수기간을 장기위주로의 전환 필요성
(김성호의원, 장성민의원 서면질의)

□ 현재 연간 2,300명 규모의 개도국 연수생을 초청하여 우리의 개발 경험을 전수하고 개도국내에 영향력있는 관료와 과학기술 인력 등을 대상으로 친한인사의 저변을 확대하여 줌으로써, 개도국과의 동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연수생초청사업은 우리나라 ODA사업중에서 가장 연혁이 오래되고 협력효과도 높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그동안 양적인 확대에 치중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단기 초청 프로그램이 주종을 이룰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임. 왜냐하면,

- 연수기간의 연장은 그 만큼 연수비용의 증대를 초래하고, 예산의 압박이 심해지면 초청인력의 수를 제한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임.
- 또한, 연수실시 기관 입장에서도 수용능력과 연수에 필요한 제반 인적, 시설 여건이 아직은 미비한 수준이어서 장기간의 연수를 수용할 만한 기관이 국내적으로 많지 않은 현실임.

□ 이와 관련, 현재 실시중에 있는 한국경제의 발전모델을 연수하는 한국 경제과정 장기연수(1년) 과정과 같은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과학기술·산업기술 및 IT연수분야 등은 연수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연수기간을 늘리고 연수내용도 전문화, 내실화 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음.

봉사단 등 파견인력을 활용한 지역전문가 육성 및 활용방안
(김성호의원 서면질의)

□ ODA 사업의 확대에 따라 대 개도국 협력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전문인력이 긴요합니다만, 국내적으로는 이에 대한 체계적인 인력양성과 활용체제구축이 아직은 미진한 상태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효과적인 협력사업의 수행을 위하여서는 개도국 지역연구와 정책연구를 활성화함으로써 국제협력사업의 중장기적인 추진방향과 전략수립 등과 같은 주요 역할을 수행하도록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봄.

□ 이러한 개도국 지역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는 우수인력의 확보가 관건인바, 지역별 언어 및 정보, 개발협력 등에 관한 전문지식 을 가진 인력을 적극 채용, 훈련시키는 인력양성체제를 갖추고 국내외 지역전문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임.

□ 무엇보다도 협력단에서 파견하고 있는 봉사단, 협력요원, 의사, 전문가들에 대한 사후관리와 지원을 확대하고 이들을 지역전문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 pool에 등록할 뿐 아니라,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UNDP, UNV 등 국제기구에 전문가로 파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신규인력 충원시 귀국봉사단에게 특별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인사정책 도입에 대한 입장

(김성호의원 서면질의)

가. 귀국단원 활용실적

□ 협력단 직원으로 3명 채용

- 협력단은 봉사활동 경험을 협력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IMF 외환위기 전에 3명의 귀국단원을 정식직원으로 특별채용한 바 있음.
- 또한 계약직 직원으로 5명을 채용한 바 있음.

□ 특채조항 삭제로 귀국단원 채용상 어려움

- 협력단 인사규정상 특별채용 조항이 삭제되어 귀국단원을 특별채용하는 것이 규정상 불가능함.
- 또한 외환위기 이후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경영개선 정책에 따라 신규로 직원을 충원하기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협력단은 귀국봉사단원의 봉사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귀국봉사단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봉사단원 모집, 선발, 상담, 국내훈련 교관 등으로 활용하고 있음.

나. 가산점 부여 등 봉사단원 채용촉진 방안

□ 가산점 부여

- 현행 규정상 협력단 해외봉사활동경력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 일정비율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음.
- 귀국 봉사단원이 협력단 직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협력단 인사규정에 따라 봉사활동기간을 경력연수로 인정해 주고 있음

□ 채용 촉진방안

- 현행 규정상 특별채용은 불가능하나,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귀국봉사단원의 개도국 활동경험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음.
- 정부차원에서 해외봉사활동 경력인정에 관한 법제화 뿐 아니라 귀국봉사단원의 활용에 관한 사회적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임.

비상근 이사의 출석율 제고 등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방안

(김용갑의원 서면질의)

□ 정부각 부처의 당연직 이사의 참여가 저조한 주요 원인은

- 먼저 해당 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담당 국장들이 소관 업무로 인해 일정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 무엇보다도 KOICA의 대 개도국 협력사업에 대한 중요성 및 ODA에 대한 범 정부차원의 전략적인 인식이 다소 약한 때문이라고 짐작됨.

□ 따라서, 앞으로는 협력단의 주요 업무활동 사항을 매분기 각 당연직 이사들에게 보고하여 관계 당연직 이사의 관심을 제고하여 나가겠음.

□ 또한, 협력사업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이사회는 매년초 협력사업의 주요계획에 대한 심의가 주된 기능이나, 앞으로는 각 사업별 위원회에 관계 당연직 이사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력사업의 추진에 있어 현재의 총론적인 논의보다는, 보다 각론적인 단계에서도 당연직 이사부처의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

□ 아울러 향후 업무의 연관성이 낮아지고 이사회 참석 등 활동이 부진한 부처의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당연직 이사부처를 변경하는 것도 고려할 예정임.

- 예컨대, 노동부의 경우에는 업무의 연관성 및 그 간의 활동등을 고려하여 금년 6.30일 협력단법 시행령(대통령령)의 개정을 거쳐 당연직 이사부처에서 삭제하고, 기획예산처(사회예산심의관)를 새로운 당연직 이사로 영입한 바 있음.

객실이용율 제고를 통한 연수센터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
(김용갑의원 서면질의)

□ 국제협력연수센터의 2001년도 객실 이용율은 7월말 기준으로 외부 임대를 포함하여 71.2% 수준으로 일부 추가적인 수용여지가 남아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수생의 숙식을 외부에 위탁하고 있는 것은 서울 및 수도권 이외의 대전, 전주, 대구 등 지방지역에서 실시되는 연수과정의 경우 불가피하게 해당기관의 기숙사 또는 일반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임.

- 서울·수도권지역 연수생의 경우는 모두 연수센터에 투숙하고 있음.

□ 앞으로 그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연수사업 초청 연수생의 적극적인 수용을 통해 연수센터 이용율을 더욱 제고해 나가는 한편,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일부시설의 대외개방을 지속함으로써 연수센터 운용 효율을 더욱 높여 나갈 예정임.

<참고> 국제협력연수센터 객실 이용율 현황

(단위 : %)

1999년	2000년	2001년(1월-7월)
66.0	69.7	71.2

물품조달시 공개입찰 및 수의계약의 사유, 공개입찰 비율 개선 및 납품업체 다변화 방안

(김용갑의원 서면질의)

가. 컴퓨터 등을 지원함에 있어 1억6천만원의 규모를 수의계약하고 6백만원에 불과한 물품에 대해 공개 입찰을 실시하여 구매한 이유 및 협력단 물품구매 방식의 기준

□ 지원물품 구매방식

- 협력단 조달물품시은 경쟁(일반경쟁 및 지명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을 통해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경쟁입찰은 협력단에 등록된 조달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일반경쟁에 의해 선정된 업체를 통해 물품을 조달하고 있으며, 조달물품의 특성상 특수한 설비, 기술을 보유한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는 관련전문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있음.
- 수의계약은 관련규정에 의거, 수원국이 조달물품을 특정제품으로 지정한 경우나 3천만원 이하의 소액물품 구매시 또는 긴급재난구호 물품 지원 등 사안의 긴급성으로 인해 경쟁입찰이 어려울 경우 등 수의계약 사유가 명백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있음.

□ 코스타리카 지원물품 계약금액이 1억6천3백6십만원인데도 수의계약을 실시한 이유는 2000.6.21 및 2000.7.4, 2회에 걸쳐 일반경쟁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예정가격(가용예산) 이하의 낙찰자가 없어 협력단 조달규정에 의거 2회차 입찰업체중 최저가 업체와 가격협상을 통해 가용예산 범위내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 2000.12.14, 중국 지원물품 구매시 계약금액이 6백3십9만원인데도 공개입찰을 실시한 이유는 과테말라 및 수리남 지원물품인 컴퓨터 등 사무기기에 대한 입찰이 동시에 실시됨에 따라, 중국 지원물품도 동 국가들의 내역을 모두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따른 데 기인함.

나. 물품 구매시 경쟁입찰보다 수의계약의 비율이 과다한 사유

□ 협력단 조달물품은 경쟁(일반경쟁 및 지명경쟁) 입찰 및 수의계약을 통해 지원하게 되며, 경쟁 입찰을 통한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다만, 수의계약은 협력단 관련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으며 그 사유를 반드시 명시토록 하고 있음.

예) 수의계약 사유

- 수원국 정부가 A/S등을 이유로 특정제품을 지정한 경우
  (의전용 차량으로 쏘나타 지정)
- 예정가격 3천만원 이하의 소액물품 구매
  (기 공여 기자재에 대한 소모품 지원 등)
- 사안의 긴급성으로 공개경쟁입찰이 어려운 경우
  (긴급재난구호물품 지원)

□ '99년도, 2000년도 및 2001년도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음

- '99년도에는 총 계약금액 18,482백만원중 수의계약 금액이 4,969백만원으로 26.9%에 불과하며,
- 2000년도에는 총 계약금액 14,584백만원중 수의계약금액이 5,287백만원으로 36.2%수준임

. '99 대비 수의계약 증가 사유 : 한.필리핀 친선병원 건축공사 (계약금액 2,470백만원) 계약을 위해 2차례에 걸쳐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수의계약함에 따라 수의계약 비율이 증가되었음

. 한.필리핀 친선병원 제외시 수의계약 비율은 총 계약금액의 19.3%에 불과함.

- 2001년 7월말 현재 총 계약금액 4,079백만원중 수의계약금액이 2,307백만원으로 56.5%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는 수원국 특히 아프리카지역 국가에서의 특정 선호차량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차량 지원이 1,793백만원으로 수의계약 금액중 77.7%에 이른 데에 기인한 일시적 현상임.

□ 협력단은 경쟁입찰을 보다 강화하고 확대하기 위해

-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명백한 수의계약 사유가 아니면 반드시 공개경쟁 입찰토록 하고 있으며
-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에도 복수견적을 통해 가능한 여러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공개경쟁 입찰과 유사한 효과를 도모하고 있음.

다. 납품업체 다변화 방안

□ 협력단은 조달물품 구매를 위해 일정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조달협력업체를 등록.운영하고 있으나,

- 조달물품의 대부분이 컴퓨터, 프린터 및 복사기 등 단순 사무기기로 소액 다품목임에 따라 대기업은 입찰참여를 기피하고 있으며
- 일반 군소업체는 지원물품에 대한 영문설명서 및 선적서류 작성 등 번거로운 업무를 회피함에 따라 일부 업체들만이 협력단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임.

□ 특정업체에 낙찰이 집중된 이유는

- 협력단 지원물품은 차량과 컴퓨터, 프린터 등 사무기기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컴퓨터 및 프린터 등 사무기기는 물품제조업체에서 각 입찰업체의 거래 실적, 재무 상태 등 입찰업체의 신용도를 감안하여 우수한 신용도를 유지하고 있는 입찰업체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가격에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입찰업체에 낙찰율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

□ 협력단은 우수 신규업체의 입찰참여 확대를 위하여

- 매 입찰시마다 협력단 홈페이지 및 입찰정보지, 입찰회보지, 협력단 게시판과 일정금액 이상시 일간지에 입찰공고를 내는 등 광범위하게 입찰참여업체 발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 적격물품지원 및 사후관리를 위해 자본금 및 전문성 등 입찰 자격에 차등을 두어 입찰을 실시하는 등 업종별 전문업체 발굴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
- 또한, 우수 분야별 제조업체와의 직접 조달을 위해 동 업체를 직접 방문, 협력단 사업 및 물품 조달계획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조달청 등 관련 기관과도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참고> 협력단 지원물품 조달시 업체에 유리한 점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

- 물품 납품후 14일 이내 현금 지급
- 조달물품에 대한 개발도상국 수출 홍보
- 협력단 납품 물품을 정부기관 납품 실적으로 계상
- 협력단 납품 물품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하여 무역금융 혜택 및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소수인원의 재외공관에 협력단 직원 파견 필요성
(김운용의원 서면질의)

가. 협력단 직원 해외파견 필요성

□ 협력단은 현재 120여개의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무상협력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 해외사무소를 운영중인 국가는 12개국에 불과함.

□ 협력사업 규모가 점차 증대되고 전문화되어 가는 추세에 따라 협력사업에 대한 발굴, 수원국 정부와의 협의 및 집행 등의 업무를 개도국 주재 아국 공관(평균적으로 외교관 3~4명 근무)에 전적으로 의존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임.

□ 또한 수원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아국 비교우위의 우량사업을 능동적으로 발굴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 등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협력단 직원 파견이 필요한 실정임.

나. 해외사무소 운영현황

□ '01년 9월 현재 12개국에 15명을 파견하고 있음.

- 파견국 : 몽골,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이디오피아, 이집트, 인도네시아, 중국, 태국, 페루, 필리핀

□ 이는 '97년 15개국 30명의 절반수준으로, 협력단 전체인원중 점유비율면에서도 '97년 12.3%에서 현재 8.8%로 감소한 실정임.

다. 향후 운영방안

□ 협력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해서도 현장중심의 사업수행이 추진되어야 하는 바, 사업규모의 지속적인 확대추세를 감안하여 현장관리요원 확충이 시급함.

□ 다만 이러한 해외사무소 확충 문제는 관계부처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예산당국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인력 증원 비용과 해외사무소 운영비를 가급적 조속히 확충하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음.

봉사단 및 전문인력 파견관련 현지에서의 사고발생 사례와 처리결과
(김운용의원 서면질의)

가. 봉사단 관련 해당사항

□ 1999~2001.7월간 발생한 사건·사고는 총 11건으로 주로 활동과 관련된 단순 사고로서 현지에서 조치완료 되었음

- 이중 통근 중 경미한 교통사고 6건, 활동중 낙상 3건, 운동중 골절상 1건, 기타 1건임
- 이는 현지의 열악한 교통 및 생활환경으로 돌발적인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연번	일자	성명	기수 (분야)	파견국	주요 사고내용	조치사항
1	1999.1.6.	고세근	9기 (시장개척)	이집트	공장 순회중 계단 낙상으로 인한 늑골 골절상	파리로 긴급 후송 치료후 귀임
2	1999.1.25.	이옥희	9기 (체육교육)	파라과이	농구경기중 코뼈 골절상	치료후 귀임
3	1999.4.15.	방승신	9기 (농기계)	인도 네시아	통근중 오토바이와 충돌로 인한 늑골 골절상	치료후 귀임
4	1999.6.7.	문석준	협3기 (컴퓨터)	인도 네시아	탑승한 택시와 트럭 충돌사고	두부 타박상 치료후 귀임
		이성헌	협3기 (한국어)	인도 네시아		좌측눈 상단 봉합 수술 치료후 귀임
5	1999.12.	전형숙	8기 (봉제)	방글라 데시	작품전시중 낙상으로 무릎관절 및 인대 부상	한국으로 긴급후송 치료후 귀임
6	2000.2.22.	김성철	9기 (자동차)	페루	실습용 차량 시험 주행중 차량전복 사고	경미한 찰과상으로 치료후 귀임
7	2000.2.29.	위상우	협5기 (전자)	스리랑카	통근차량 전복사고로 인한 부상	입원치료후 귀임
8	2000.12.6.	조수현	11기 (한국어)	태국	낙상으로 인한 타박상	좌측눈 및 이마 봉합수술후 귀임
9	2000.12.24.	양재훈	협6기 (컴퓨터)	태국	들개에게 물림	주사 및 치료후 귀임
10	2001.1.25.	조수현	11기 (한국어)	태국	하차중 충돌사고로 인한 치아 파손	치과치료후 귀임
11	2001.2.11.	이옥희	9기 (체육교육)	파라과이	통근차량 충돌사고로 인한 늑골골절상	주사 및 치료후 귀임

□ 처리결과(안전대책 수립) 및 후속조치

- 단원들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단원파견전 국내훈련 동안 안전교육 및 응급처치, 구급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 긴급의료지원서비스 (International SOS)에 가입하여 안전사고 발생시 긴급후송 및 적기 치료가 가능토록 하고 있고, 기타 해외근재 및 상해보험 가입으로 단원들의 질병, 상해, 사망 등에 대비하고 있음.

- 또한, 현지 공관 및 해외사무소 주관으로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비상시 행동요령, 응급처치 요령 등을 숙지시키고 있으며, 해외사무소장이 수시로 단원활동 및 생활상태를 점검토록 하고 있음

- 아울러 단원 파견국 중 의료보건 수준이 열악한 국가에는 협력의사 및 간호분야 단원을 우선 파견함으로써, 우리 파견인력에 대한 사건사고에 대비한 의료지원도 병행하고 있음.

나. 전문인력관련 해당사항

□ '97.10월 시리아로 파견된 손영석('97.10.3~'98.12.31), 권오열 ('97.10.18 ~'98.12.31) 태권도 사범 2명이 '98.9.17. 현지 클럽 종업원 10여명과 취객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바 있음.

- '98.9.17. 04:00 손영석, 권오열 두사범이 현지인 친구를 시내 중심가 클럽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으나, 영업이 종료된 늦은 시간에 도착하여 이미 현지인 친구는 없는 상황에서 취객과 종업원으로부터 느닷없이 구타를 당함에 따라 머리, 팔, 등에 타박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한 바 있음.

□ 처리결과

- 출동한 경찰에 의해 두사범과 가해자(취객1명) 및 종업원은 구인되어 경찰에 이송되어 현지법원에 회부되어 1차 재판에서 우리 사범들은 무죄판결로 석방되고, 가해자인 취객과 종업원 및 클럽사장 등은 구속됨.

- 한편, 시리아 태권도협회측은 협력단파견 태권도사범의 자국내 역활과 기여도가 지대한 바, 원만한 재판진행을 위해 우리 측에 두 사범의 임기연장을 요청하였음.

- 이에 따라, 손영석, 권오열 사범의 임기를 12.31일까지 연장하여 사태를 원만히 수습한 후, 12.31일 시리아를 출국

□ 후속조치

- 시리아는 우리와 공식 외교관계는 없으나 중동지역 주요 교역국으로 (중동지역중 우리수출 7위) 스포츠분야 교류를 통한 양국간 협력 강화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으며

- 우리 태권도사범 철수시 예상되는 북한 태권도사범의 대체 파견등을 고려하고 시리아 태권도협회장의 건의를 수용하여 대한 태권도협회의 추천을 받아 사명감과 어학능력(영어)이 뛰어난 후임자 전상호 사범을 선발하여 파견하였음. ('98.12.28.)

- 전상호 사범은 '98.12.28일 최초 파견이후 현재까지 시리아 태권도협회에 소속되어 성공적으로 시리아 대표팀을 지도하면서 시리아의 태권도 발전을 통한 양국간 관계증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

무상원조가 교역과 수출확대에 기여하는 상관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 필요성 및 향후 계획
(김종하의원 서면질의)

□ ODA지원시 단위당 수출유발효과에 대해서는 현재 선진국에서도 구체적인 연구결과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다만, 1990년도에 UNDP 소속의 경제학자 "Stephen Browne"이 그의 저서 「Foreign Aid in Practice」에서 원조자금의 75%가 공여국의 물자와 서비스 형태로 국내 경제에 직접적으로 환류된다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으며,

□ 또한, '95년도 호주의 원조기관인 AusAID가 발표한 보고서 Commercial Benefits from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Indonesia」에서 원조금액 100불당 178불의 이익이 호주측으로 되돌아온다는 분석을 한 적이 있음.

□ 한편, ODA 지원은 그 성격상 직·간접적인 경제효과는 10년 이상 지난 후 장기적으로 효과가 창출되는 사업이며,

□ 또한 경제적인 효과 이외에 정치·외교적 효과 즉,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 개선, 친한 분위기 조성 등 부수적인 효과가 장기적이고 광범하게 나타난다고 사료됨.

□ 협력단도 설립 10년이 경과한 만큼, 동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KOTRA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연구 가능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음.

현행 이원화되어 있는 유상(EDCF) 및 무상(KOICA) 원조의 연계성 강화 및 일원화 방안

(김종하의원, 장성민의원 서면질의)

□ 협력단은 '97. 6월 **수출입은행과 업무협조약정을 체결**하는 등 개발조사사업과 EDCF와의 연계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91년도 이후 KOICA가 실시한 개발조사완료사업 35건중 EDCF와 연계된 사업은 3건임. 이는 현재의 개발조사사업 단위규모가 EDCF와 연계하기에는 너무 작고, 또한 EDCF사업과 개발조사사업의 정책 및 집행기관이 이원화되어 있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봄.

- 그러나 현재 "튀니지 직업훈련원건립 타당성 조사" 및 "예멘 통신망현대화사업" 등 6건의 사업이 EDCF를 신청 준비중이므로 점차 연계율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또한 EDCF연계이외에도 우리기업이 본사업을 직접수주 1건, 수원국정부에서 직접 본 사업을 착수 6건 및 본 사업착수 준비중인 사업 4건, 수원국 국토개발 기본자료로 활용중인 사업 6건 등 전체적으로 종료사업 35건 중 26건(74%)이 후속사업과 연계 또는 활용되고 있어 개발조사결과의 활용률은 비교적 양호하다고 할 수 있음.

□ 앞으로는 개발조사사업과 ECDF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 EDCF신규 사업계획 수립시 KOICA에서 실시한 개발조사사업을 반영하고, EDCF 신규 요청안건에 대한 타당성조사시 KOICA도 공동으로 참여해 나갈 계획임.

- 아울러, 민간에서 발굴한 개발project를 KOICA에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EDCF와 연계시키는 등의 노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공사 수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우리 기업의 대개도국 진출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임.

□ 중장기적으로는 개도국 국별로 **종합적인 관점**(Country Programming)에서 **일관되고 정략적인 대외원조 정책**을 통해 원조사업 성과를 보다 극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EDCF 차관사업과 KOICA의 무상원조 사업의 **시행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05년까지 DAC가입을 위한 단계적 추진계획 및 ODA재원 확보 방안

(문희상의원 서면질의)

가. DAC 가입준비와 관련

□ OECD 회원국 29개국중 우리나라를 포함한 멕시코, 터어키 등 7개국은 DAC 비회원국임.

※ 비회원국 : 아이슬랜드, 터키, 멕시코, 체코, 헝가리, 폴란드, 한국

□ OECD 회원국으로서 DAC 가입은 진정한 선진국 진입을 의미하고,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확보 등 여러 가지 실익이 기대되나, DAC에 가입할 경우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ODA를 확대해 나가야하는 부담이 있음.

- 회원국들의 DAC 가입시 규모(GNP대비 0.2% 이상), 현재 회원국중 최저수준(미국 0.1%), 그리고 가장 최근에 가입한 그리스('99년 가입시 0.15%)사례 등을 감안시 최소 GNP대비 0.1%이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협력단은 우리나라의 DAC 가입은 현재 GNP대비 0.047%(2.1억불) 수준인 우리나라의 ODA 규모가 0.1% 정도 수준이 되는 시점에서 현실적인 검토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 기획예산처등 정부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한 ODA규모 확대노력과 함께, DAC의 정기 회의에 옵저버로 참여하는 등 DAC 회원국들의 동향 및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있음.

나. 선진국들의 ODA재원 실태 파악

□ 협력단은 정부 출연금외 ODA 재원 확대 방안 검토를 위해 지난 2000년도에 OECD 회원국중 27개국을 대상으로 ODA재원 실태를 조사한 바 있음.

- 조사 결과, 대부분의 국가들이 **ODA재원을 전액 정부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벨기에와 일본은 **복권공사의 기부금이나 국제 volunteer우편저금을** ODA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복권발행을 통한 기금확보, 정부재원의 기금출연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 기금설립 억제 및 준조세에 대한 일반국민의 비판여론 등을 감안시 어려움이 예상됨.

□ 따라서, 현재로서는 기획예산처 등 정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ODA 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 기금설립 등 정부출연금 이외의 재원확보에 대해서는 **선진국 사례나 관련법규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 및 연구를 거친 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고자 함.

ODA헌장 또는 대강 제정 필요성 및 추진방안
(문희상의원 서면질의)

가. ODA헌장 제정 필요성

□ 개발원조에 대한 기본이념 및 실시원칙 등 우리나라 대외원조의 기본 틀을 제시하는 "원조헌장"(ODA Charter)의 제정을 통해 우리의 국제협력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개발원조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함.

□ 현재 선진국들도 여러 형태의 법적·제도적 구조하에서 ODA를 체계적으로 실시중인 바, 그 형태로는
- 첫째, 1961년 대외원조법을 제정한 미국과 같이 의회에서 비준되어 법으로 존재하는 경우,
- 둘째, 일본(1992년 ODA大綱)이나 영국과 같이 정부차원에서 원조헌장을 선언하고 실시하는 경우,
- 셋째, 프랑스, 스페인 등 원조기관의 내부정책으로만 운용하는 경우가 있음.

나. 향후 추진 방안

□ 우리의 경우, 대외지향적 국제협력 추진이 국가의 생존전략상 중요하므로 선언적 의미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신축적으로 운용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 구속력도 담보할 수 있는 원조헌장 형태로 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 다만, ODA헌장 제정 문제는 우리의 ODA 규모나 OECD/DAC 가입시기, 그밖의 대내외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 시기에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원조사업 선정기준, 분야별 중장기 정책 및 평가방안
(문희상의원 서면질의)

가. 사업선정 기준

□ 협력사업 선정시 사업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수렴, 사업선정위원회의 심의 및 정부관계부처(외교부)와 협의 과정 등의 과정을 거쳐 사업을 선정하고 있음

□ 특히, 사업 선정시에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음.
- 해당국가와 **상호 호혜적인 이익증진**이 수반될 수 있는 사업
- 정부차원에서 약속된 사업 및 재외공관장이 추천하는 사업 우선 고려
- 수원국의 **원조수용능력** 및 사업종료후 지속적인 **사업관리능력** 고려
- 기술협력 등 **타 협력수단과의 연계** 가능여부 고려
- 기타 양국간 정치, 경제, 문화 및 역사적인 특수관계 등 감안

나. 중장기 발전계획

□ 협력사업에 대한 중장기 원조정책의 수립은 협력사업에 대한 명확한 목표설정이 가능하게 되어 원조성과와 원조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97년도 협력단 자체적으로 협력사업에 대한 중장기 원조정책 시안을 마련하려 하였으나,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실천에 옮기지 못하였음.

□ 협력단은 우리 경제위기 이후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원조효과를 제고해 나갈 계획임.

다. 사업평가

(1) 평가목적 및 기능

□ 평가는 원조사업을 계획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 수반되는 필수요소로서 평가를 통해 얻은 교훈은 원조정책, 사업발굴 및 계획수립, 사업집행에 반영됨으로써 원조재원의 효율적 이용과 효과 제고 및 사업수행 능력의 향상을 도모할 수가 있음.

(2) 평가실태 및 평가체제 구축

□ 협력단 설립 초기에는 협력사업규모의 영세성, 소액 다국가 지원 등으로 인해 평가실시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사업실적 심사분석이나 연수교육기관과의 연수평가회의, 봉사단원 귀국대회, 프로젝트사업 종료보고서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사업을 평가하여 왔음.

□ 그러나 사업규모가 증대되고 완료사업도 증가함에 따라 사업효과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96년부터 사후관리 예산을 별도로 배정하였으며, 협력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97년도에 평가 전담부서를 설치한 후, 사업평가체제를 구축하고, 98년부터 평가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아울러 '99년도에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평가원칙에 근거하여 '협력단 사업평가 가이드라인'을 수립, 모든 협력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확대 실시하는 등 평가업무를 강화하여 오고 있음.

(3) 향후 협력사업 평가 강화 방안

○ 향후에는 협력사업을 보다 성과중심적(Result-based)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현재 실시중인 사업추진 단계별 중간평가, 종료시 평가, 사후평가 기능을 정착시키고 확대 발전시킬 계획임.

< 사업유형별/단계별 평가방법 >

구 분	중간평가 (담당부서 실시)	종료시평가 (담당부서 실시)	사후평가 (사업평가팀 실시)
연수생 초청	-	**전 과정** (연수과정 종료전후)	**5년이상 계속 정규,공동연수** (과정개설 5년후 필요시)
전문인력 파견	**1년 이상 장기파견자** (파견 1년후) *활동보고서 활용병행	**6개월 이상 장기파견** (귀국 2-3개월 전후) *귀국보고서 활용병행	**6개월 이상 장기파견자** (최종부임자 귀국2-3년후)
봉사단 파견	**신규 파견국 및 분야** (파견 1년후) *현지평가회의 활용병행	**전 단원** (활동종료 2-3개월 전후) *귀국보고대회 활용병행	**5년 이상 계속** 파견국,분야 (필요시)
개발조사	**2년 이상 사업** (중간보고서 작성시)	**전 사업 대상** (최종보고서 작성시)	**전 사업 대상 선별실시** (종료 2-3년후)
물자지원	-	**20만불이상** (수원국 도착년도)	**100만불이상 연차지원사업** (기자재 인도 2-3년후)
프로젝트	**3년, 200만불이상** (사업개시 2-3년차)	**전 사업 대상** (사업종료 6개월前後)	**전 사업 대상 선별실시** (사업종료 2-3년후)
NGO지원	-	**전 사업 대상** (사업종료 전후)	**5년 이상 계속 지원단체** (필요시)

□ 아울러, 선진원조기관의 평가기법 연구, 국별평가, 개도국과의 공동평가 등 다양한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 활용하여 평가업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임.

각 부처별 협력사업 추진현황과 IT 협력사업 등의 일원화 대책
(문희상의원 서면질의)

□ 우리나라의 대 개도국 무상기술협력사업은 '91.4월 협력단 설립 이후 협력단에서 통합·전담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 현재 교육부, 정통부 등에서도 인터넷봉사단파견, 연수생초청사업 등을 일부 실시 중에 있음.

※ 교육부: 인터넷봉사단('01년 120명),
외국인 유학생초청(연간 60여명 수준)
정보통신부: 인터넷봉사단('01년 150명), 연수생초청(연간 1-2백명)
과기부: 과학기술자 교류(연간 50여명 수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연찬사업(연간 50-60명 수준) 등

□ 그러나, 협력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며, 정부차원의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수립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타 부처에서 실시중인 협력사업은 협력단에서 실시중인 프로젝트사업 등 다양한 협력수단과 상호 연계하여 지원할 경우 사업효과를 더욱 높여나갈 수 있으므로 협력단으로 일원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협력단은 개도국 지원사업을 협력단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그간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를 위해 관련 부처 및 기획예산처 등과 계속 협의, 노력해 나갈 예정임.

- 사업이 일원화될 경우에도, 협력단은 관련사업 추진시 해당부처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해 나갈 계획임.

ODA규모 확대 및 재원 확충 방안
(서청원의원, 조웅규의원 서면질의)

□ 우리나라의 2000년도 ODA규모는 GNP대비 0.047%(2.1억불)로 OECD - DAC 회원국 평균인 0.22%나 우리나라와 경제력이 비슷한 네덜란드 0.82%(31억불), 호주 0.27%(9.9억불)에 비해서 훨씬 낮은 수준으로,

-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개도국으로부터의 점증하고 있는 협력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국력에 상응하는 수준으로의 ODA확대가 필요함.

□ 지난 6월 외교부에서 수립한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중장기 계획 추진방안"에 의하면, 우리의 경제규모나 국제사회의 요구 등을 감안한 우리나라의 적정 ODA규모는 GNP대비 0.2%수준임.

- 다만, 현실적인 경제여건을 고려하고 조만간 예상되는 DAC 가입 등에 대비시 우선적으로 2005년까지는 ODA 규모를 GNP대비 **0.1%** 수준으로의 확대가 긴요한 실정임.

□ 이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ODA 확대정책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며, 현재 외교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동 방안에 대해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할 계획임.

《 참고 》: 우리나라의 연도별 ODA확대방안(외교부 안)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A. ODA규모(백만불)	**210**	**258**	**318**	**390**	**481**	**591**
B. 총 GNP(억불)	4,552	4,780	5,018	5,270	5,533	5,809
C. ODA/GNP(A/B)	**0.046%**	**0.054%**	**0.063%**	**0.074%**	**0.087%**	**0.10%**

NGO 지원사업 확대 방안
(서청원의원 서면질의)

□ 현재 KOICA에 등록되어 있는 국제협력사업 관련 민간단체는 총 37개이며 이들에게는 매년 우량의 협력사업을 선정하여 그 사업비 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 NGO 지원사업은 정부의 원조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의 기층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 등에 NGO를 활용함으로써 정부차원의 협력사업을 보완하여 국제협력의 시너지 효과 제고를 도모하고 예산.조직규모가 영세하고 행정능력이 취약한 국내 개발NGO를 지도.육성 하는 차원에서 지원확대가 필요함.

□ 향후 민간협력사업의 지원을 확대,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 보조금 지원액 증액 노력을 경주하여 NGO 지원예산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단체당 평균 지원규모를 늘려나가는 것이 긴요함.

□ 또한, NGO 사진전, 심포지움 개최 및 협력활동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NGO의 국제협력 활동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여 NGO에 대한 후원과 지지기반을 확산하는 것이 필요함.

□ 아울러 민간원조단체협의회와 같은 모임을 통해 민간단체들간의 정보 및 경험을 공유토록 하고, NGO 관계자에 대한 개발교육 및 사업관리능력 배양에도 역점을 두고자 함.

야따마우까 농장 처리 지연사유 및 현행 추진상황
(서청원의원 서면질의)

가. 농장개발을 위한 추진 현황

□ 4회에 걸쳐 농장개발타당성 조사 실시

- 정부합동조사단의 3회('79.3월, '84.3월, '96.6월)에 걸친 타당성 조사 결과, 동 농장은 염분의 다량함유, 강수량 부족 등으로 작물재배 및 조림이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 바 있음.

- 그러나 2000.6월 현지 농업 컨설턴트를 통해 농장 임대개발 가능성을 타진한 결과, 최근 1~2년간 농업용수증가, 전기설치 등과 같은 인프라 변동이 있었으며, 추후 도로개선 등의 추가적 농장활용 여건개선이 기대되어 농장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되었음.

□ 9회에 걸쳐 임대개발 추진

- 구입 직후 '78.12월 농진공과 농장 개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농장 개발을 추진한 이래로 9회에 걸쳐 국내기업 및 현지 교포업체를 대상으로 농장개발을 시도했으나 과다한 국고지원 요구, 계획의 현실성 결여, 업체의 참여의지 미흡 등으로 모두 무산됨.

나. 현재 추진상황

□ 2000년 현지 농업컨설턴트를 통해 조사한 결과, 농업기반시설(농업용수 증가, 전기설치 등) 확충으로 일부 밭작물 재배 및 목축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어 현재 장기임대 희망자를 공개모집중이며, 임대가 불가시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예정임.

협력단 직원의 근무의욕 고취 및 사기진작을 위한 주재관 신분 부여 등 KOICA 직원의 대외적인 위상강화 방안

(서청원의원 서면질의)

□ 협력단 해외사무소는 경제외교의 최일선에서 현장중심의 개도국 원조사업을 수행하는 전초기지와도 같음

- 다른 선진국들의 해외사무소 직원들은 거의 모두가 외교관 신분으로 파견되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으며,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도 외교관과 마찬가지로 주재국 공무원들 및 각국 주재관들과의 접촉과 협의, 원조사업의 발굴과 관리 등 중차대한 일을 담당하고 있음.

※ 별도 협정체결에 의해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JICA를 제외한 대부분 다른 선진국의 경우 외교관 신분임.

□ 우리나라의 경우, 여권법 시행령에 의하면 외교관 여권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에 한하여 발급되고 있으므로 공무원 신분이 아닌 협력단 직원들에게 외교관 여권발급이 어려워, 외교관에 준하는 면세 및 특혜를 누리지 못할 뿐 아니라 원활한 대외활동이 제한될 우려가 있는 상황임.

□ 따라서, 협력단의 업무와 역할 및 재외공관과의 긴밀한 관계, 공관내 사무소 설치, 공관장의 지도 감독권 등을 감안할 때, 선진국 원조기관의 대표들과 마찬가지로 협력단 해외근무 직원들에게도 외교관 신분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이 우선 필요하다고 판단됨.

□ 향후 협력단 사무소장과 주재원들도 외교관에 준하는 신분을 갖고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외교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임.

아.태지역 지원 편중현상 개선 및 아프리카지역 등 지원강화 방안

(이창복의원 서면질의)

□ '91-2000년간 총 **402백만불** 상당을 개도국에 지원함.

□ 지난 10년간 총 지원액에 대한 지역별 점유율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이 35.7%, 아프리카 11.7%, 중남미 10.1%, 중동 및 동구 각 7.1% 순임.

- 특히 아·태지역은 2000년도에는 **51.0%**로 협력사업이 대폭 확대됨.

□ 협력사업이 아시아 지역에 중점 지원된 것은 아시아(특히 ASEAN 국가) 지역이 지리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어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 통상 파트너이며, 사업 지원에 따른 효과가 다른 지역에 비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임.

- 우리나라의 전체 교역량중 아태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99년 47.4%, 2000년 48.7%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역수지에 있어서도 '99년 129억불, 2000년도에 70억불의 흑자를 각각 기록하고 있음.

□ 이와관련, 다른 선진국들도 자국과 지리적, 경제적, 문화적 이해 관계가 깊은 지역에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

- 뉴질랜드와 호주는 남태평양 및 동남아 국가 중점 지원 (65%이상)
- 일본은 아시아 지역에 중점 지원(63.8%),
- 미국은 외교·안보 등의 차원에서 중동 및 중남미지역 중점지원
- 프랑스, 영국 등 유럽국가는 아프리카 등 구 식민지 국가 중점지원

□ 협력단은 향후에도 협력효과와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전략적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중남미와 아프리카지역에 대해서는 물적 자원 지원을 통하여 협력관계를 지속·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향후 우량사업을 발굴할 경우에는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예정임.

봉사단 및 전문인력에 대한 복지지원금 지원수준 개선 필요성
(이창복의원 서면질의)

가. 봉사단 지원금 지급현황 및 개선방향

□ 1인당 평균 지원경비 (단위 : $, 천원)

구분	항 목	지원내역	년간 지원액	파견기간중 지원액(2년)	비 고
직접지원	현지생활비	매월 (평균 $383)	$4,596	$9,192	
	주거비	파견국정부 주거제공 원칙	-	-	미제공시 $150~$300 지급
	활동지원비	년2회 (생활비 1월분)	$766	$1,532	
	현지정착비	임지부임시 1회 (생활비 1월분)	$383	$383	
	출국준비금	파견시 1회 (30만원)	$270	$270	
	귀국준비금	귀국시 1회 (생활비1월분)	-	$383	
	국내적립금	월 30만원	$3,272 (3,600천원)	$6,545 (7,200천원)	국제협력봉사요원은 제외
간접지원	모집.선발	1,100천원	-	1,100천원	
	국내훈련비	1인당 2,530천원	-	2,530천원	훈련 2개월
	출.귀국경비	출.귀국시 (2,100천원)	2,100천원	4,200천원	항공.화물료
	현지훈련비	1개월 $1,200	$1,200	$1,200	
	정기 건강검진비	1회 $340	$680	$1,360	연 2회
	물품지원비	1인당 $500	$500	$1,000	
	봉사단원 프로젝트	국별 $5,000이하 (1인당 $800)	-	$800	
	상해,질병 보험	국내훈련기간 (2개월)중	16천원	16천원	
	국외상해	년 단위 가입	150천원	300천원	보험한도 1억
	해외근재	년 단위 가입	370천원	740천원	질병치료,배상 한도$100,000
	SOS	년 단위 가입	$300	$600	긴급의료지원
	예치금 지원	국별 $5,000 (사무소$2,000/물품$3,000)	1인 $500	$1,000	질병치료등

□ 개선방안

- 봉사단파견 관련 다른 국가와 생활비(월)만 비교할 경우, 우리 해외봉사단원에 대한 월 생활비 지원 수준은 타 국가와 비교시 평균 이상의 수준으로 파악됨

한국 KOV	일본 JOCV	영국 VSO	미국 Peace Corps
$300(미얀마) ~$500(PNG)	$270(방글라데시) ~$560(PNG)	$79~$942	$103(스리랑카) ~ $276(인니)

- 또한, 협력단은 매년 정기적으로 단원 파견국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물가조사를 실시하여 단원들의 생활비 및 주거비를 현지 경제사정에 맞게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고 있음.

- 반면, 선진원조기관의 경우는 기타 의료서비스 등을 포함한 간접지원 및 봉사활동에 소요되는 사업지원비 및 물품지원 등은 협력단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서 향후에는 이와 같은 부분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임.

나. 전문인력 지원금 지급현황 및 개선방향

□ 전문인력 지원금 지급현황 (1년 파견시 기준)

- 전문가(2급 2호기준) : US$54,000
- 의료단원 : $36,000-$54,000
- 태권도사범 : $20,400-$30,000

□ 개선방향

- 전문인력들이 파견되는 주요개도국들의 평균 1인당 GDP는 US$875로 이를 5인 가족으로 환산시 $4,375 수준이며, 우리의 경제규모는

이들 국가의 11배 수준인 점을 감안시 적정 지급수준은 US$ 48,125수준임

- 그러나 이들 전문인력의 지원금 수준을 확대할 필요에도 불구하고 협력단 예산제약 등으로 인해, 의료단원 및 태권도사범의 경우 우리의 경제규모에 못 미치는 지원을 받음으로써, 해외에서 자녀들의 적정한 교육실시 등에는 애로가 있음.

- 향후에는 보다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개도국에 파견된 전문가, 태권도사범, 의료단원들의 안정된 자녀교육과 복지생활로 국제협력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예정임.

귀국 봉사단의 국내정착 지원을 위한 사후관리 방안
(이창복의원 서면질의)

가. 봉사단 사후관리 강화방안

□ 귀국 단원에게는 귀국후 국내 정착지원을 위해
- 활동기간중 매월 30만원씩 적립한 국내정착금 720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 또한 취업 희망단원들에게 추천서나 활동증명서를 발급하여 귀국단원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음.

□ 국내 유수 기업체들에 취업을 알선하기 위하여 매년 귀국단원들의 취업희망분야를 조사하여 국내 유망 기업체들에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2001년 귀국단원의 경우, 국내 200개 기업에 안내서 발송 및 홍보 실시

□ 국내정착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실시
- 한편, 귀국단원 국내 재정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있는 바, 귀국단원 귀국보고 행사시 취업전문가의 특강을 통하여 국내 취업정보 제공, 국내 경제상황 설명 등 국내정착을 지원을 하고 있음.

□ 또한, 귀국단원들이 파견국에서 습득한 소중한 경험들이 국내사회에 환원되어 국가발전에 기여될 수 있도록, 해외봉사단 귀국단원 모임인 "나섬회"를 지원하고 있는 바,

- 협력단내 사무실 제공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를 지원하고 있음.
- 귀국단원 활동사례집 발간, 정기소식지 발간, 활동사진전 개최, 사회 봉사 활동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나아가, 취업정보를 접수하여 귀국단원 모임인 '나섬회' 홈페이지에 수시로 게재 또는 적격단원에게 통보하여 취업을 주선하고 있음.
- 특이 사례로는 2001.5월 경찰청 외사과로부터 국내에서 취업중인 외국인 근로자 담당을 위해 특수언어 구사자 특채정보를 입수후, 단원들에게 제공하여 2명(김명희단원/네팔어, 최동호단원/벵갈어)이 특채된 바 있음.

□ 향후에도 봉사단원들이 현지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귀중한 경험이 국가발전에 활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취업정보 제공 및 알선등 국내정착 지원 노력을 할 예정임.

※ **"나섬회"**(KOVA/ Korea Overseas Volunteers Association)
협력단에서 파견한 해외봉사단원들이 세계각국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을 살려, 국내에서 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우리사회에 봉사정신을 함양하고 사회발전 기여하기 위해 결성된 모임

<참고> 귀국단원 활용 현황

□ 귀국 봉사단원들이 국외 현지활동을 통해 습득한 귀중한 경험이 국가 발전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업 및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한 취업 홍보와 취업 희망단원에 대한 추천서를 발급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신규 파견단원 모집 상담요원, 국내훈련시 훈련교사 등으로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특히, 봉사단원으로서의 경험을 국제협력사업에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자격있는 귀국 봉사단원을 전문가 등으로 파견을 추진하고 있는 바, 2001년의 경우 봉사단 출신 2명을 다음과 같이 각각 정부 파견 전문가와 의료단으로 파견하였음.

성명	파견국	파견분야	파견기간	봉사단 경력
박창호	인도네시아	작물재배 전문가	2001.1-2002.2	국제협력봉사요원 (4기/인도네시아)
김선욱	방글라데시	의료단I(가정의학)	2001.3-2003.3	해외봉사단 (2기/네팔)

NGO 지원사업 선정의 적정성 및 확대 방안
(장성민의원 서면질의)

가. NGO지원사업 선정시, 주재국 정부나 국제기구의 자문을 구할 필요성

□ NGO 지원사업의 선정은 지원요청 사업을 대상으로 공관 타당성조사, 사업선정심사위원회 심사 및 외교부승인 등 3단계의 사업선정과정을 통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고 있음.

□ 제1차적으로 현지 공관을 통하여 현지 주민 및 정부로부터 환영받는 사업인지 여부와 문제점 등을 파악한 내용으로 현장중심의 타당성 조사를 하여 심사하며, 필요에 따라 동 과정을 통해 주재국 정부의 의견 등을 조회하고 있음.

□ 제2차적으로 사업선정심사위원회 각 위원 들이 1차 공관 타당성 조사 결과와 사업지원 요청 단체의 과거 사업실적 및 기관의 사업 수행능력 등을 평가한 자료 등을 참고하여 각 사업을 ① 사업계획의 타당성 ② 사업수행기관의 적합성 ③ 수원국 주민의 개발 참여도 ④ 기대효과 등의 심사기준에 의거 개별 심사하여 이를 종합한 후, 전체 회의를 거쳐 지원대상 후보 사업을 선정함.

□ 최종적으로 외교부 장관의 승인 과정을 통해 지원대상 사업을 확정함으로써 정책 목표와의 부합성을 검토하며 선정의 객관화를 도모하고 있음.

□ NGO 지원사업의 지원 규모가 현재까지는 소규모인 상태에서 수요국 정부나 국제기구의 자문을 받아 사업을 선정하는 것은 수요국 정부의 기대감 증폭우려 등이 있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나. NGO지원사업 선정시 주재국 아국 공관의견 반영여부

□ 협력단 NGO지원사업은 협력단에 등록된 단체가 지원을 요청한 사업을 심사하여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있으나 일부사업의 경우 사업대상 지역이 공관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여 제한된 인력과 예산 사정 등으로 공관에서 현지 실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있음.

□ 공관에서 제기한 사업타당성 조사를 위한 순회조사단 파견 문제는 아직 절대적으로 적은 NGO지원사업 예산 규모(2001년도 NGO지원예산은 926백만원이며, 이중 32백만원이 행정관리비)와 비용편익 및 인력상황 등을 감안할 때 다수국(2001년 지원요청 사업대상국 16개국)의 오지 등에 산재되어 소규모로 형성된 사업 현장을 일일이 방문,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음.

□ 협력단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코자 선별적으로 사업 실사 평가단을 구성, 조사케하고 있으며, 타 사업 인접국 출장시 NGO사업장에 대한 점검, 조사 임무를 병행케 하며, 예산 증액 노력을 경주하여 공관(협력단 해외사무소 포함)에서 현지 출장 조사를 지원코자 하고 있음.

다. 2000년도 NGO사업 타당성 조사관련, 지구촌나눔운동의 베트남지원사업, 한국지역사회복리회의 중국지원 사업 선정 등 주재국 공관 검토의견 반영여부 및 NGO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의 적정성 여부

□ NGO 지원사업의 선정은 지원요청 사업을 대상으로 공관 타당성 조사를 거쳐 그 결과 및 과거 실적 등을 참고하여 사업선정심사 위원들이 심사한 평점과 사업수행기관 능력 평점을 합산한 성적을 감안하여 전체회의를 거쳐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외교부 승인과정을 거쳐 지원대상사업을 확정하고 있음.

□ 2000년도는 총 29개 지원신청사업을 공관 타당성조사를 거쳐 사업선정 심사위원회의 종합 심사 결과 "지구촌나눔운동" 사업(하타이 지역개발사업)이 지원순위 12위(평점 707.6점)로 지원순위 24위(평점 625점)의 "국제개발협회" 사업(베트남지역개발사업) 보다 우수하게 평가되어 2000년도 NGO지원사업으로 선정되었음(당시 22위까지 지원)

□ 2001년도 NGO 지원사업 선정시 "밝은사회국제클럽한국본부"의 경우 신규 사업지원요청 단체(1999.7월 등록)로서 규모가 비교적 작은 단체이기 때문에 중국 현지에서 부각되지 않아 공관 타당성조사시 사업수행능력에 의문이 제기되었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타 항목의 평가결과가 우수(총점 599점, 26위)하여 지원대상사업(총 26개사업)으로 선정되었음.

- "한국지역사회복리회" 경우 공관 타당성 조사시 KOICA지원 금액 30백만원 중 15백만원을 NGO자체교육훈련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된 바 있으나, 동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에 의하면 협력단 지원금 30백만원 전액을 보육원 교구교재, 급식시설비 및 기자재 구입비로 계획된 바, 동 지적사항은 공관에서 잘못 이해한 것으로 판명된 바 있음.

라. NGO지원대상 사업을 구호나 개발사업뿐만 아니라 환경보존이나 문화재보존과 같은 영역까지 확대하는 등의 민·관 공동 협력사업 확대필요성

□ 협력단의 NGO 지원사업은 등록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소정의 사업선정 절차와 기준에 의거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 하고 있음.

□ 주로 기층 주민(Grass roots)을 대상으로 한 NGO지원사업의 특성과 사회구호 단체적 성향이 강한 우리나라의 개발 NGO 성격 등으로 현재

각 NGO 지원요청사업이 주로 구호나 개발사업에 치중되어 있으나, 향후 등록 NGO의 성격이 환경단체 등으로 다양화되고, 우리의 NGO 지원사업이 규모나 사업 단계면에서 확대 및 발전해 나아갈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NGO 지원사업 영역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

□ 정부와 민간단체와의 ODA사업의 협력 관계는 일반적으로 정부의 특정 ODA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에 NGO가 실행기관으로 참여(이 경우 사업 명의는 정부, NGO는 업체 성격임)하는 방법과, NGO 특정 개발사업에 대해 ODA기관(정부측)에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의 경우 후자를 택하고 있고, 현재 등록된 NGO중 환경보존이나 문화재보존 같은 특수전문 영역을 다룰 수 있는 NGO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협력단은 민.관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원 규모와 사업을 1999년도 20개사업 430백만원, 2000년도 22개사업 630백만원, 2001년도 26개사업 926백만원으로 꾸준히 확대해 나아가고 있음.

봉사단 사후관리 강화방안 및 지역전문가로의 육성·활용방안
(장성민의원 서면질의)

가. 봉사단 사후관리 강화방안

□ 귀국 단원에게는 귀국후 국내 정착지원을 위해
- 활동기간중 매월 30만원씩 적립한 국내정착금 720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 또한 취업 희망단원들에게 추천서나 활동증명서를 발급하여 귀국단원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음.

□ 국내 유수 기업체들에 취업을 알선하기 위하여 매년 귀국단원들의 취업희망분야를 조사하여 국내 유망 기업체들에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2001년 귀국단원의 경우, 국내 200개 기업에 안내서 발송 및 홍보 실시

□ 국내정착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실시
- 한편, 귀국단원 국내 재정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있는 바, 귀국단원 귀국보고 행사시 취업전문가의 특강을 통하여 국내 취업정보 제공, 국내 경제상황 설명 등 국내정착을 지원을 하고 있음.

□ 또한, 귀국단원들이 파견국에서 습득한 소중한 경험들이 국내사회에 환원되어 국가발전에 기여될 수 있도록, 해외봉사단 귀국단원 모임인 "나섬회"를 지원하고 있는 바,
- 협력단내 사무실 제공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를 지원하고 있음.

- 귀국단원 활동사례집 발간, 정기소식지 발간, 활동사진전 개최, 사회 봉사 활동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나아가, 취업정보를 접수하여 귀국단원 모임인 '나섬회' 홈페이지에 수시로 게재 또는 적격단원에게 통보하여 취업을 주선하고 있음.
- 특이 사례로는 2001.5월 경찰청 외사과로부터 국내에서 취업중인 외국인 근로자 담당을 위해 특수언어 구사자 특채정보를 입수후, 단원들에게 제공하여 2명(김명희단원/네팔어, 최동호단원/벵갈어)이 특채된 바 있음.

□ 향후에도 봉사단원들이 현지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귀중한 경험이 국가발전에 활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취업정보 제공 및 알선등 국내정착 지원 노력을 할 예정임.

※ **"나섬회"**(KOVA/ Korea Overseas Volunteers Association)
협력단에서 파견한 해외봉사단원들이 세계각국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을 살려, 국내에서 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우리사회에 봉사정신을 함양하고 사회발전 기여하기 위해 결성된 모임

<참고> 귀국단원 활용 현황

□ 귀국 봉사단원들이 국외 현지활동을 통해 습득한 귀중한 경험이 국가 발전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업 및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한 취업 홍보와 취업 희망단원에 대한 추천서를 발급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신규 파견단원 모집 상담요원, 국내훈련시 훈련교사 등으로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특히, 봉사단원으로서의 경험을 국제협력사업에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자격있는 귀국 봉사단원을 전문가 등으로 파견을 추진하고 있는 바, 2001년의 경우 봉사단 출신 2명을 다음과 같이 각각 정부 파견 전문가와 의료단으로 파견하였음.

성명	파견국	파견분야	파견기간	봉사단 경력
박창호	인도네시아	작물재배 전문가	2001.1-2002.2	국제협력봉사요원 (4기/인도네시아)
김선욱	방글라데시	의료단I(가정의학)	2001.3-2003.3	해외봉사단 (2기/네팔)

나.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방안

□ ODA 사업의 확대에 따라 대 개도국 협력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전문인력이 긴요합니다만, 국내적으로는 이에 대한 체계적인 인력양성과 활용체제구축이 아직은 미진한 상태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효과적인 협력사업의 수행을 위하여서는 개도국 지역연구와 정책연구를 활성화함으로써 국제협력사업의 중장기적인 추진방향과 전략수립 등과 같은 주요 역할을 수행하도록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봄.

□ 이러한 개도국 지역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는 우수인력의 확보가 관건인바, 지역별 언어 및 정보, 개발협력 등에 관한 전문지식 을 가진 인력을 적극 채용, 훈련시키는 인력양성체제를 갖추고 국내외 지역전문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임.

□ 무엇보다도 협력단에서 파견하고 있는 봉사단, 협력요원, 의사, 전문가들에 대한 사후관리와 지원을 확대하고 이들을 지역전문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 pool에 등록할 뿐 아니라,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UNDP, UNV 등 국제기구에 전문가로 파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대외원조사업의 질적.양적 개선 및 확대 도모 방안
(조웅규의원 서면질의)

가. 협력효과 제고 방안

□ 우리나라의 협력사업은 소규모로 다수국(130여개 개도국)에 지원되어 재원의 효율적 활용에 문제점이 있었음.

□ 협력단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별 원조전략을 수립**(10개 국가 /'98.9월), **대상국별 지원규모 및 사업형태를 차별화**하는 등 개선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중점협력국에 대한 원조비중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임.

- 10대 수원국 원조비중은 '91년 20.3%에서 '00년 51.7%로 확대

《 참고 : 10대 수원국에 대한 원조 추이 》

(단위 : 천불)

구분	'91	'99	'00
총 원조규모 (A)	22,840 (120국 8기구)	37,930 (128국 12기구)	45,351 (133국 11기구)
10대중점국(B) (B/A)	4,639 (20.3%)	18,508 (48.8%)	23,433 (51.7%)
10대 수원국	몽골, 니카라과, 필리핀, 스리랑카, 니제르, 이디오피아, 인니, 코트디브와르, 중앙아	베트남, 중국, 인니, 스리랑카, 카자흐, 몽골, 이디오피아, 네팔, 우즈벡, 이집트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니, 남아공, 페루, 몽골, 카자흐스탄, 네팔, 스리랑카

나. 지역별 중점 협력방향

□ 지리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어 협력효과가 큰 **아시아 (특히 ASEAN국가) 지역을 중점 지원함.**

□ 기타 지역은 협력효과와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물자지원 또는 인력자원개발(HRD)분야를 조화롭게 지원해 나가고 있음.

협력사업 확대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이해증진 방안
(조응규의원 서면질의)

□ 협력단은 그동안 ①언론매체 홍보 ②인쇄영상매체 홍보 ③이벤트 홍보 ④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와 경제인 단체 및 청소년 단체 특별강연 ⑤전자 홍보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국제협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를 제고시키는 노력을 하여 왔으며,

- 특히, 금년 협력단 창립 10주년을 계기로 국제협력 사진전 개최, 협력단 10년사 및 화보집 발간, 지하철 및 신문 광고, 국제협력 글짓기 공모전 개최 등 대국민 홍보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협력단은 향후 국제협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 확산을 통한 ODA의 재원확보를 위해,

- **첫째, 국민 참여형 홍보를 강화 추진**

이를 위해, 교육기관과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한 홍보를 확대 실시하는 한편, 정부부처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임.

- **둘째, 21세기 주체 양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

미래의 협력사업 주체인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국제협력 글짓기 공모전과 순회방문 강연을 확대 실시하고, 대학생 및 대학원생 인턴쉽 및 위탁근무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사연수 프로그램에 국제협력 과정을 신규 개설토록 노력할 것임.

- **셋째, 전자홍보 강화**

국제협력사업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국민홍보용 인쇄 및 영상물 제작을 확대하여 교육기관, 도서관 등 주요 기관에서 시청각 교재로 사용토록 배포하고, 특히 KOICA 홈페이지를 활용한 전자홍보를 더욱 확대 추진계획임.

협력단의 직원 이직율이 과도한 사유, 직원의 사기 진작 및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설문조사 등 다각적인 대책 수립방안

(조웅규의원 서면질의)

가. 직원 감소 및 이직 현황

□ '91년4월 협력단 설립이후 지난 10년간 협력사업규모는 190%(174→505억원) 증가하였으나 인력은 27% ('91년말 230명→ '01년 7월말 169명) 감소함.

- 이는 직제정원(203명)과 비교시 34명(17%) 부족한 인원이며, '98년 경영혁신 목표인원 186명과 비교시 17명(9%) 부족한 실정임

□ 이직율은 '99년 2.2%, '00년 6.2%, '01.7월현재 2.3%이며 특히 최근 하위직급의 이직율이 상당히 높음.

- '99년 이후 퇴직자 19명중 4급이하 직원이 13명(4급2명, 5급 11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68%을 점유함.
- 특히, '95년도 입사직원의 경우, 총 24명중 19명(80%)이 퇴직함.

연 도	'91	'95	'96	'97	'98	'99	'00	'01.7
인원 (명)	230	256	248	243	181	177	173	169
이직율(%)		6.5	2.7	4.4	22.2	2.2	6.2	2.3

나. 이직 및 직원감소 사유

□ 하위직급의 경우 토익점수 고득점자 및 우수학교 출신자의 경우 이들에 적정한 수준의 대우와 조직활성화를 통한 근무의욕 고취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해외현장근무 기회가 입사전 기대했던 것보다 적고, 타 유사 기관 또는 대기업 상사 등과 비교시 협력단의 근무 조건이 열악하여 하위직급의 이직률이 심화되었다고 판단됨.

□ 반면, 협력단예산이 전액 정부예산으로 편성되고 있고, 사업규모도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획기적인 근무여건 개선등은 어려운 실정임.

다. 직원 설문조사 실시여부

□ 전체직원을 대상으로 조직문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는 없음.

□ 직원의 사기진작 및 조직문화 활성화 방안 검토를 위하여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라. 사기진작 방안

□ 직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해 적정한 수준의 인건비 확보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음

- 인건비에 대한 정부출연금 신청시 보수 산정기준 및 부족인원의 현실화 필요가 필요
- 이를 위하여 국제협력사업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관계부처와의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협력사업 확대 및 인건비를 점진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예정임

□ 능력과 실적중시의 임금체계 확립 및 인사제도 정착

- 연공서열보다는 직원능력 및 업무성과에 따른 성과급제 도입

□ 협력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제도 활성화 및 보직관리 개선

- 국제협력업무와 관련된 직무향상을 위해 직급별 적정 실무교육 기회 제공 및 연수 확대실시
- 개인별 경력관리시스템에 따른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

해외사무소 인력 감소사유 및 운영비 증가 사유
(조웅규의원 서면질의)

가. 해외사무소 인력 감소사유

□ 협력단은 당초 10개 사무소 및 5개 주재원(총 15개소)에 각 2명씩 직원을 파견(총 30명)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IMF 이후 정부 경영혁신 방침에 의거, '98년 9월말에 사무소는 10개국으로 유지하고, 주재원은 5개국 → 3개국으로 축소하였음.

□ 또한 이와관련, 각 사무소별로 2인씩 파견하여 오던 직원의 수를 1명으로 축소(3개 사무소는 2명씩 파견/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하여 파견함에 따라 파견인원이 30명에서 15명으로 대폭 감소하게 됨.

나. 인원감소에도 불구하고 해외사무소 운영비 증가사유

□ 해외사무소 운영예산 증액은 해외사무소 인원이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사무소 운영비를 증액한 것이 아니라,
- '97년도 당시 파견된 30명의 직원 인건비중 각 사무소 부소장(10명) 및 주재원(10명) 총 20명의 인건비와 사무소장 인건비의 예산과목이 분리되어 왔으나,
- 해외사무소 관련 운영의 적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산과목을 통합하여 일원화함으로써 이관·계상된 결과임.

□ 이와같이 이원화된 예산과목을 일원화하여 단일항목에 이관계상한 주요 배경은 그간 국회 결산시 통외통위 전문위원실 등에서 지적한 바에 따라, 동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개선한 것임.

귀국 봉사단의 사후관리 실태
(조웅규의원 서면질의)

□ 귀국 단원에게는 귀국후 국내 정착지원을 위해
- 활동기간중 매월 30만원씩 적립한 국내정착금 720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 또한 취업 희망단원들에게 추천서나 활동증명서를 발급하여 귀국단원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음.

□ 국내 유수 기업체들에 취업을 알선하기 위하여 매년 귀국단원들의 취업희망분야를 조사하여 국내 유망 기업체들에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2001년 귀국단원의 경우, 국내 200개 기업에 안내서 발송 및 홍보 실시

□ 국내정착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실시
- 한편, 귀국단원 국내 재정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있는 바, 귀국단원 귀국보고 행사시 취업전문가의 특강을 통하여 국내 취업정보 제공, 국내 경제상황 설명 등 국내정착을 지원을 하고 있음.

□ 또한, 귀국단원들이 파견국에서 습득한 소중한 경험들이 국내사회에 환원되어 국가발전에 기여될 수 있도록, 해외봉사단 귀국단원 모임인 "나섬회"를 지원하고 있는 바,
- 협력단내 사무실 제공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를 지원하고 있음.
- 귀국단원 활동사례집 발간, 정기소식지 발간, 활동사진전 개최, 사회 봉사 활동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나아가, 취업정보를 접수하여 귀국단원 모임인 '나섬회' 홈페이지에 수시로 게재 또는 적격단원에게 통보하여 취업을 주선하고 있음.

- 특이 사례로는 2001.5월 경찰청 외사과로부터 국내에서 취업중인 외국인 근로자 담당을 위해 특수언어 구사자 특채정보를 입수후, 단원들에게 제공하여 2명(김명희단원/네팔어, 최동호단원/벵갈어)이 특채된 바 있음.

□ 향후에도 봉사단원들이 현지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귀중한 경험이 국가발전에 활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취업정보 제공 및 알선등 국내정착 지원 노력을 할 예정임.

※ "나섬회"(KOVA/ Korea Overseas Volunteers Association)
협력단에서 파견한 해외봉사단원들이 세계각국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을 살려, 국내에서 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우리사회에 봉사정신을 함양하고 사회발전 기여하기 위해 결성된 모임

<참고> 귀국단원 활용 현황

□ 귀국 봉사단원들이 국외 현지활동을 통해 습득한 귀중한 경험이 국가 발전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업 및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한 취업 홍보와 취업 희망단원에 대한 추천서를 발급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신규 파견단원 모집 상담요원, 국내훈련시 훈련교사 등으로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특히, 봉사단원으로서의 경험을 국제협력사업에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자격있는 귀국 봉사단원을 전문가 등으로 파견을 추진하고 있는 바, 2001년의 경우 봉사단 출신 2명을 다음과 같이 각각 정부파견 전문가와 의료단으로 파견하였음.

성명	파견국	파견분야	파견기간	봉사단 경력
박창호	인도네시아	작물재배 전문가	2001.1-2002.2	국제협력봉사요원 (4기/인도네시아)
김선욱	방글라데시	의료단I(가정의학)	2001.3-2003.3	해외봉사단 (2기/네팔)

【첨부 3】 의원별 서면질의 세부내용

가. 김성호의원

서면질의
1. 협력사업 규모 증대에도 불구하고 협력단 인원은 오히려 직제정원 203명 대비 34명이 적은 169명으로서 신규 인력충원이 필요하며, 특히 인원을 50%나 감축한 해외사무소의 인력충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2. 대통령의 외교활동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과 협력단 사업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예비비 편성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지만, 외교부와 협의하여 독자적인 예비비 편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3. 개도국의 주요인사를 초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연수생 초청기간을 장기화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협력단의 입장과 현재 검토중인 방안은?
4. 봉사단관련, 우리 정부는 현재 지역전문가 육성프로그램조차 가지고 있지 못하며, 개별적으로 오지에서 고생하면서 지역전문가로 성장한 봉사단원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가지고 있지 않음. 정부의 관련부처에서 '지역 전문가 육성 및 활용에 관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논의된 바 가 있는 지?
5. 해외사무소나 국내 해외봉사단원 관련 업무에 필요한 신규 인력충원시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귀국봉사단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특별채용을 하는 등 적극적인 인사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나. 김용갑의원

서면질의
1. 이사회 운영관련, 이사 참석률 제고방안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은?
2. 연수센터 운영관련, 2000.9월부터 12월까지 객실 이용률은 외부임대를 포함해도 58%수준이며, 2001년에도 71.2% 수준에 머물고 있음. 이는 연수기간이 중복됨으로써 시설의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위탁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바, 연수센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책은?
3. 물품조달관련, - 동일 컴퓨터를 지원함에 있어서 2000.7월에는 1억6천만원의 규모를 수의계약하고, 2000.12월에는 6백만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공개입찰을 실시하는 등 조달업무의 기본인 물품구매방식의 기준이 부재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업무개선 방안은? - 상식적으로 입찰에 의한 방식이 더욱 합리적인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 협력단에 등록된 111개 조달업체중 2000년도에 실제 계약한 업체는 33개 업체에 불과하며, 특히 한 업체가 수의계약 15건을 포함해서 41건이나 계약을 맺는 등 몇몇 업체가 납품을 독점하고 있는 바, 구매업체 확대 등 향후 개선방안은?

다. 김운용의원

서면질의
1. 재외공관 인력이 부족한 국가들에 대하여 협력단에서 직원을 파견하여 개도국 외교와 경제협력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2. 협력단 파견인력(봉사단, 전문가 등)관련, 현지에서의 사고발생 사례와 처리결과는?

4. 김종하의원

서면질의
1. 우리의 무상원조가 과연 교역과 수출확대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필요성 및 향후 계획은?
2. 유무상 연계관련, 현재 KOICA와 EDCF로 이원화되어있는 원조시행체제를 일원화하는 방안과 개발조사사업 시행에 따른 우리기업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대책은?
3. 협력사업 규모확대 및 1인당 사업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협력단 인력의 이직율 심화에 따라 인력부족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인력운용 대책 및 대외원조 전문인력 확충방안은?

라. 문희상의원

서면질의
1. 2005년까지 DAC회원국이 되기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은 무엇이며, 협력단에서 강구중인 ODA 재원마련 대책과 각국의 효과적인 재원확보방안에 대한 검토여부는?
2. 대부분의 DAC회원국들은 국회나 정부차원에서 ODA헌장 또는 대강을 정하여 원조의 목적과 원칙, 방법을 정하여 국민에게 알리고 개발원조에 대한 동의를 얻어 전향적인 원조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바,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범 정부차원의 인식전환을 위해 그 동안 검토한 대책과 향후계획은?
3. 협력사업의 중장기적, 전략적 우선순위관련, - KOICA에서 추진하는 분야별 중장기적 정책과 원조사업 선정기준은? - 보다 계획적이고 효과적인 원조사업 실시를 위한 평가와 대책은?
4. 원조사업 일원화 관련, - 향후 일본과 같이 외교부의 원조사업 총괄기능을 강화하고, 기술협력사업도 무상 ODA전담기관인 KOICA로 단일화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계획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KOICA의 견해 및 대책은?

마. 서청원의원

서면질의
1. OECD에 가입한 교역규모 세계8위('99년 기준)의 한국의 세계적 위상에 걸맞는 ODA규모 확대를 위해서, 민간부분의 참여확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시급하다고 보는 데, ODA규모 확대 및 재원 확충방안은?
2. 환경문제와 같은 지구적 차원의 문제로 ODA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개도국 지원요청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대외 신인도를 높이고, 대개도국 통상마찰 해소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도 NGO지원사업을 늘려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방안은?
3. 야따마우까 농장처리관련 - 여러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야따마우까 농장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 및 그 동안 농장의 처리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가? - 향후 농장 임대방식 추진입장과 야따마우까 농장 처리방안 및 현재 진행중인 사항은?
4. 일종의 경제외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협력단 직원들의 근무의욕 고취와 대외접촉활동 지원 등을 위해 주재관 신분부여 등 위상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구체적으로 준비중인 사안은?

바. 이창복의원

서면질의
1. 2000년도 국정감사시에도 지적한 바 있는 아·태지역 편중현상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앞으로는 아·태지역 편중현상을 개선하고 아프리카국가들의 정치적 위상이나 경제적 잠재력을 감안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견해는?
2. 개발도상국에 파견하는 봉사단 및 전문인력에 대한 복지지원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탄력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들에 대한 복지지원금 지급규모가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의 경제사정을 비교, 감안할 때 적절한 수준인지?
3. 귀국봉사단원 사후관리관련, 강화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취업정보 제공과 기업체 취업알선 현황 및 국내 정착지원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사. 장성민의원

서면질의
1. 개발조사와 EDCF연계관련, - 개발조사사업과 EDCF 연계가 저조한 이유와 EDCF와의 연계를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KOICA차원의 복안은? - KOICA에서는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EDCF차관사업과 KOICA의 무상원조사업의 시행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한 지?
2. NGO지원사업관련, - NGO지원사업 선정시, 서류심사에 의존하는 3단계의 절차로 과연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지 의문인 바, 주재국 정부나 국제기구의 자문을 구할 필요는? - 2000년 9월 28일 주인도대사관이 KOICA에 보내 온 공문에 따르면, "공관의 의견은 일반적인 상황평가에 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바, KOICA에서는 이러한 공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 - 2000년도 NGO사업 타당성 조사관련, 주베트남대사관이 2순위로 올린 국제개발협회의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탈락하고, 6순위로 올린 지구촌나눔운동의 사업이 선정된 경우와, 2001년도 타당성 조사의 경우 주중국대사관이 사업수행 능력에 의문을 제기한 밝은 사회국제클럽의 사업 및 KOICA지원금액을 NGO자체 교육훈련에 사용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한국지역사회복리회 사업을 선정하기도 하는 등 NGO지원사업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이러한 경우가 발생한 사유는? - NGO지원대상 사업을 구호나 개발사업뿐만 아니라 환경보존이나 문화재보존과 같은 영역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차원의 협력사업을 보완할 수 있는 민·관 공동 협력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견해는?

서면질의
3. 연수생초청관련, - 대부분 연수과정이 1개월 미만이며, 연수생 설문조사시 상대적으로 큰 불만이 연수기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이 17%로 나타나고 있는 바, 연수과정을 줄이더라도 연수기간을 늘릴 의향은? - 참고로, 인천공항내 KOICA안내부스 설치는 우리나라와 KOICA의 이미지 고양측면에서 투자대비 효과가 큰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평가함.
4. 봉사단사후관리 관련, - KOICA는 귀국 봉사단원들이 지속적으로 지역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지원방안은? - 미국 평화봉사단의 경우 월 200달러의 적립금이 주어지고, 연방정부 고용우선권을 부여하고, 대학원 입학시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아. 조웅규의원

서면질의
1. 대 개도국 협력사업은 우리의 미래시장 개척, 국제사회에서 위상제고 및 국익 증대를 도모하는 중요수단인 점을 감안, 대외원조 사업의 질적, 양적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은?
2. 대 개도국 협력사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회 일부에서는 현재 우리 경제현실에 비해 우리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가 과도하다고 보는 시각이 상존하는데, 이를 개선하고, 협력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3. 협력단의 조직 및 인력확충관련, - 현재 협력단 현원(169명)이 직제정원(203명), 경영혁신 목표인원(186명)에도 크게 못 미치는 상황에 까지 이른 원인은? - 이직율 심화원인이 낮은 처우수준 및 만성적인 인사적체 외에 조직문화 및 근무분위기 등 또 다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보는 바, 직원 및 이직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 지? 만일 없으면 협력단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바람. - 협력단 직원의 사기를 앙양하고 근무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 및 인력을 보완, 유지할 수 있는 대책 수립여부는?
4. 해외사무소관련 - 해외사무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해외사무소를 15개소에서 12개소로 줄이고, 인원도 30명에서 15명으로 급감한 이유는? - 반면, 해외사무소 운영관련 인건비는 '97년도 2.9억, '98년도 5.1억, '99년도 4.6억, 2000년도 4.7억, 2001년도 5.8억으로 오히려 2배가 증가한 이유는?
5. 일반 봉사단 및 국제협력요원제도관련, - 국제협력요원 취업현황중 2000년에 미확인이 1명인데 그 사유는? - 특히, 취업되지 않은 봉사단원에 대한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한 바, 현행 사후관리 실태는?